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40

마태복음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마 태 복 음

Matthew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시니이다 (16:16)

*ἀποκριθεὶς δὲ Σίμων Πέτρος εἶπεν, Σὺ
εἶ ὁ Χριστὸς ὁ υἱὸς τοῦ θεοῦ τοῦ ζῶντος.*

마태복음 차례

| | | |
|--|-------|-----|
| 4복음서 서론..... | 〈9 제〉 | 11 |
| 마태복음 서론..... | 〈17제〉 | 26 |
| 제 1 장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다 | 〈22제〉 | 39 |
| 제 2 장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 〈24제〉 | 49 |
| 제 3 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다 | 〈22제〉 | 59 |
| 제 4 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받으신 후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하시다..... | 〈33제〉 | 68 |
| 제 5 장 예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시다 | 〈35제〉 | 80 |
| 제 6 장 하나님의 자녀가 행해야 하는 생활..... | 〈31제〉 | 92 |
| 제 7 장 성도들의 생활 원칙에 대해 가르치시다..... | 〈19제〉 | 105 |
| 제 8 장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다 | 〈27제〉 | 114 |
| 제 9 장 예수 그리스도의 병 고침과 복음 사역 | 〈25제〉 | 128 |
| 제 10 장 열 두 제자를 선택하고 파송하시다 | 〈28제〉 | 141 |
| 제 11 장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 | 〈28제〉 | 157 |
| 제 12 장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 〈27제〉 | 169 |
| 제 13 장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 〈25제〉 | 180 |
| 제 14 장 세례 요한의 순교와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 | 〈25제〉 | 191 |
| 제 15 장 예수께서 참된 율법의 정신을 가르치시다..... | 〈22제〉 | 203 |

| | | | |
|--------|-----------------------------|-------|-------|
| 제 16 장 | 베드로의 신앙 고백 | 〈29제〉 | … 213 |
| 제 17 장 |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신 그리스도 | 〈25제〉 | … 223 |
| 제 18 장 | 천국 시민의 자격 | 〈29제〉 | … 231 |
| 제 19 장 | 천국 시민의 윤리 | 〈31제〉 | … 240 |
| 제 20 장 |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 | 〈31제〉 | … 250 |
| 제 21 장 |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入城) 하시다 | 〈32제〉 | … 259 |
| 제 22 장 | 성전에서 계속되는 논쟁 | 〈32제〉 | … 270 |
| 제 23 장 | 외식(外飾)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 | 〈36제〉 | … 280 |
| 제 24 장 | 종말에 관한 예언 | 〈42제〉 | … 292 |
| 제 25 장 | 종말에 관한 비유 | 〈41제〉 | … 305 |
| 제 26 장 | 십자가를 위한 준비 | 〈69제〉 | … 318 |
| 제 27 장 | 십자가에서 죽으시다 | 〈52제〉 | … 340 |
| 제 28 장 |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다 | 〈33제〉 | … 356 |

마태복음 특별 자료 차례

| | | |
|------------------|-----------------------|----|
| 4 복음서 서론 〈연구 자료〉 | 사복음서 대조표 | 15 |
| 4 복음서 서론 〈연구 자료〉 |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 | 21 |
| 마태복음 서론 〈연구 자료〉 | 마태복음에 인용된 구약 성경 | 34 |

| | | |
|--------|----------|----------------------------------|
| 제 2 장 | 〈지도 자료〉 | 예수의 애굽 피신 및 나사렛 귀향 노정(歸鄉路程) · 58 |
| 제 3 장 | 〈본장의 요절〉 | 67 |
| 제 4 장 | 〈화보 자료〉 | 그물과 배 79 |
| 제 5 장 | 〈연구 자료〉 | 산상 수훈(山上垂訓)에 대한 이해 91 |
| 제 6 장 | 〈본장의 요절〉 | 104 |
| 제 7 장 | 〈연구 자료〉 | 지옥(地獄)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113 |
| 제 9 장 | 〈연구 자료〉 | 귀신들림 140 |
| 제 10 장 | 〈연구 자료〉 | 사도직(使徒職)에 대하여 155 |
| 제 10 장 | 〈연구 자료〉 | 열 두 사도의 행적 156 |
| 제 11 장 | 〈본장의 요절〉 | 168 |
| 제 13 장 | 〈본장의 요절〉 | 190 |
| 제 14 장 | 〈화보 자료〉 |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202 |
| 제 15 장 | 〈본장의 요절〉 | 212 |
| 제 16 장 | 〈본장의 요절〉 | 222 |
| 제 17 장 | 〈본장의 요절〉 | 230 |
| 제 18 장 | 〈연구 자료〉 |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칭호 239 |
| 제 19 장 | 〈화보 자료〉 |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 249 |
| 제 21 장 | 〈연구 자료〉 | 예수의 비유 269 |
| 제 23 장 | 〈화보 자료〉 | 회칠(灰漆)한 무덤 291 |
| 제 24 장 | 〈본장의 요절〉 | 304 |
| 제 26 장 | 〈지도 자료〉 |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 339 |
| 제 27 장 | 〈연구 자료〉 | 로마의 유대 총독(總督) 355 |



4 복음서 서론

1. **㉠** 4복음서란 무엇을 가리키며 각 복음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 ㉡** (1) 4복음서는 마태·마가·누가·요한복음을 가리키며 각 복음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 (2) 마태복음은 본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다. 예수가 참으로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다윗의 혈통에서 난 왕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확신시키려 한 복음서가 바로 이 책이다.
- (3) 마가복음은 활동적인 로마인을 대신으로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목적과 고난의 행적을 전하려고 기록한 복음서이다.
- (4)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회심케 하고 확신을 갖도록 세심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진상들을 제공해 준다.
- (5) 요한복음은 특히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여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자격에 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으며, 하나님과 사람들이 예수에게 관해 보여 준 증거의 신적 본질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 (6) 각 책은 이러한 특성들이 있지만 하나의 흐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4복음서는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측면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상(像)에 대한 개성적인 기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 복음(福音)이란 무엇인가?

- ㉡** (1) '복음'이란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 (2) 그래서 헬라어로는 <유양겔리온>, 즉 기쁜 소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에서 쓰는 복음이란 말인 가스펠(Gospel)이 오히려 그 뜻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왜냐하면 가스펠(Gospel)이란 하나님(God)과 말씀(Spell)의 합성어이기 때문이다.
- (3) 이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지상에 거하심, 이적과 고난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참조, 교전 15:3-5).
- (4) 그러므로 후에는 단순히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문자적 의미보다 '기쁜 소식'을 권위 있게 기록하여 놓은 '복음서'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3. **㉠** 4복음서는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는가?

- ㉡** (1) 4복음서는 A. D. 125년경에 교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한데 모아진 것이라 추정된다.
- (2) 초대 교부였던 이레니우스(Irenaeus A. D. 140? - 200?)는 '복음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더 적을 수도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 (3) 덧붙여 그는 방위가 네 방위(동 서 남 북)이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룹들(참조, 겔 1:4 이하)도 네 얼굴을 가지고 있으므로 복음서도 넷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4) 이 같은 사실로 보아 기독교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공인된 복음서는 오직 네 권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 공관 복음(共觀福音)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공관(Synoptic)이란 말은 헬라어의 <신>과 <옵티코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같이 본다' 또는 '공통 관점'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 (2)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이 공관 복음서라고 불리어지는데, 그 이유는 제 4

12 4복음서 서론

복음서인 요한복음과는 달리 예수의 생애와 사역을 공통 관점 아래서 보기 때문이다.

- (3) 공관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에 중점을 둔 비유들과 짧은 얘기들 속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영생에 대해 자주 언급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하였다.
- (4) 이 뿐만 아니라 공관 복음서는 예수의 지상 생애에서 중요했던 사건들과 가르침에 관심을 모았지만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예수의 사역에 있어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 (5)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복음을 공관 복음에서 제외시켰던 것이다.

5. ㉠ 공관 복음이 내용상 서로 유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 ㉠ (1) 동일한 원저작자(原著作者)이신 성령께서 공관 복음서 기록자들을 모두 감동시키셨기 때문이며 또한 저자들이 모두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들을 각각 그들의 복음서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 (2) 또한 세 저작자들 모두가 동일한 사실들에 대한 정확한 관찰을 기초로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 (3) 그 관찰된 사실들은 정확히 전달된 당시의 일치된 구전(口傳)을 가리키는데 복음서가 기록될 때 이미 정확한 구전들이 있었다.
- (4) 뿐만 아니라 마태와 누가가 필시 마가의 복음서를 사용하였을 것이고, 세 저작자 모두가 이때의 초기 메모 자료들을 활용하였을 것이므로 문헌상의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 (5)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공관 복음이 내용상 서로 유사(類似)한 점을 갖고 있다.

6. ㉠ 공관 복음이 내용상 서로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상이(相異)한 점도 포함하고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라.

- ㉠ (1)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들을 각기 다른 증인들이 다른 시점(視點)으로 관찰하였기 때문이다.
- (2) 이들이 관찰했던 사실들을 구두 전달(口頭傳達)하는 과정에서 비록 본질적으로 일치 조화를 이루기는 하였으나 성격상 다양한 양상을 지니게 되었다.
- (3) 또한 초기의 메모 자료가 다소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내용들이 복음서 기록자 각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곳에 삽입(插入)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Hendriksen).
- (4)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구전이었던지 자료를 참고했든지 간에 기록할 때, 각 복음서 기록자들이 각기 자신의 개성과 교육과 환경적인 배경에 따라서 각자 자신의 독자적인 구상과 목적에 맞도록 성령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서로간의 차이점이 있다.

7. ㉠ 공관 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비유를 비교하라.

㉠

| 비유의 명칭 |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
| 1. 씨뿌리는 자 | 13:3-8 | 4:3-8 | 8:5-8 |
| 2. 가라지 | 13:24-30 | | |
| 3. 겨자씨 | 13:31, 32 | 4:31, 32 | 13:19 |
| 4. 누룩 | 13:33 | | 13:21 |
| 5. 감추인 보화 | 13:44 | | |
| 6. 값진 진주 | 13:45, 46 | | |
| 7. 바다의 그물 | 13:47-50 | | |
| 8. 무자비한 종 | 18:23-35 | | |

| | | | |
|------------------|----------|---------|----------|
| 9. 포도원의 품꾼들 | 20:1-16 | | |
| 10. 두 아들 | 21:28-32 | | |
| 11. 사악한 농부들 | 21:33-46 | 12:1-12 | 20:9-19 |
| 12. 임금 아들의 혼인 잔치 | 22:1-14 | | |
| 13. 열 처녀 | 25:1-13 | | |
| 14. 달란트 | 25:14-30 | | |
| 15. 비밀리에 자라는 씨 | | 4:26-29 | |
| 16. 두 채무자 | | | 7:41-43 |
| 17. 선한 사마리아인 | | | 10:25-37 |
| 18. 밤중의 친구 | | | 11:5-8 |
| 19. 어리석은 부자 | | | 12:16-21 |
| 20.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 | | 13:6-9 |
| 21. 대만찬 | | | 14:16-24 |
| 22. 잃어버린 양 | 18:12-14 | | 15:4-7 |
| 23. 잃어버린 주화 | | | 15:8-10 |
| 24. 탕자 | | | 15:11-32 |
| 25. 불의한 청지기 | | | 16:1-9 |
| 26. 부자와 나사로 | | | 16:19-31 |
| 27. 무익한 종 | | | 17:7-10 |
| 28. 불의한 재판관 | | | 18:10-14 |
| 29. 열 므나 | | | 19:12-27 |

8. ㉠ 4복음서에 언급된 예수의 이적을 비교하라.

㉠

| 사건의 내용 |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
| 1.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 | | | 2:1-11 |
| 2. 가나에서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 | | | 4:46-54 |
| 3. 베데스다 못에서 38년된 병자를 고치심 | | | | 5:1-9 |
| 4. 첫번째 고기잡는 이적을 보이심 | | | 5:1-11 | |
| 5.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심 | | 1:23-28 | 4:3-36 | |
| 6.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심 | 8:14, 15 | 1:29-31 | 4:38, 39 | |
| 7.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심 | 8:2-4 | 1:40-45 | 5:12-16 | |
| 8. 중풍병자를 고치심 | 9:2-8 | 2:3-12 | 5:18-26 | |
| 9. 손 마른 자를 고치심 | 12:9-13 | 3:1-5 | 6:6-10 | |
| 10. 백부장의 종을 고치심 | 8:5-13 | | 7:1-10 | |
| 11.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심 | | | 7:11-15 | |
| 12. 눈 멀고 병어리된 귀신들린 자를 고치심 | 12:22 | | 11:14 | |
| 13. 바다를 잔잔케 하심 | 8:18, 23-27 | 4:35-41 | 8:22-25 | |
| 14. 거라사인 지방의 귀신들린 자를 고치심 | 8:28-34 | 5:1-20 | 8:26-39 | |
| 15. 혈루증 여인을 고치심 | 9:20-22 | 5:22-24 | 8:43, 48 | |
| 16. 아이로의 딸을 살리심 | 9:18, 19, 23-26 | 5:22-24 | 8:41, 42 | |
| | | 35-43 | 49-56 | |

| | | | | |
|---------------------------|-----------|----------|----------|----------|
| 17. 두 소경을 고치심 | 9:27-31 | | | |
| 18. 병어리 귀신을 쫓아내심 | 9:32, 33 | 6:34-44 | 9:12-17 | 6:5-13 |
| 19. 오병 이어의 기적으로 오천 명을 먹이심 | 14:14-21 | 6:45-52 | | 6:16-21 |
| 20. 물 위를 걸어가심 | 14:24-33 | 7:24-30 | | |
| 21.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심 | 15:21-28 | 7:31, 32 | | |
| 22. 귀 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심 | | 8:1-9 | | |
| 23. 칠병 이어의 기적으로 사천 명을 먹이심 | 15:32-39 | 8:22-26 | | |
| 24. 베데스다의 소경을 고치심 | | 9:14-29 | 9:38-42 | |
| 25. 사귀들린 아이를 고치심 | 17:14-18 | | | |
| 26.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취하심 | 17:24-27 | | | 9:1-7 |
| 27.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심 | | | 13:10-17 | |
| 28. 안식일에 귀신들린 여인을 고치심 | | | 14:1-6 | |
| 29. 수종(水腫)에 걸린 자를 고치심 | | | | 11:17-44 |
| 30. 나사로를 살리심 | | | | |
| 31. 열 문둥이를 고치심 | | | 17:11-19 | |
| 32. 소경 바디매오를 고치심 | 20:29-34 | 10:46-52 | 18:35-43 | |
| 33.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 | 21:18, 19 | 11:12-14 | | |
| 34. 말고의 귀를 회복시키심 | | | 22:49-51 | 18:10 |
| 35. 두번째 고기 잡는 이적을 보이심 | | | | 21:1-11 |

9. ㉠ 4복음서의 역사성에 대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 ㉠ (1) 자유주의 신학자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하르낙(A. Harnack, 1851-1930)은 복음서를 포함한 전 신약 성경을 역사적 사실이 모호하게 기록된 하나의 전승(傳承) 문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2) 다만 그중에서 순수한 인간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마가복음만을 믿을 만한 자료로 간주했다.
- (3) 왜냐하면 하르낙은 마가복음을 역사적 예수와 그가 사시는 동안 행하셨던 믿음에 대한 사실들이 보다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는 문서로 보았기 때문이다.
- (4)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 (5) 특히 그들이 신뢰하고 있다는 마가복음서에 대한 견해도 마찬가지이다. 분명히 마가복음은 예수를 단순한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으로 서술하고 있다(참조, 막 1:1,6:2).
- (6) 이러한 마가복음의 기독교론은 본질적으로 마태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입장과도 동일하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견해는 많은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 (7) 우리는 과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말들에 대해서 쉽게 수긍하는 습관이 있다. 그렇지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란 이름하에 거짓이 사실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으며, 또한 과학으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자. 복음의 권위는 분명히 과학 위에 있다.
- (8) 만일 복음의 권위가 과학 아래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헛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나오는 각종 기적은 과학에 의해 입증될 수 없는 것이니 한낱 허황된 것으로 치부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료

사복음서 대조표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으로서 ‘복된 소식’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책을 가리켜 ‘사복음서’로 부르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이 책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 부활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책들인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및 교훈 등에 대하여 공통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요한복음’은 그 기자(記者)의 고유한 안목(眼目)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사복음서를 서로 대조해 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

| 연 대 | 사 건 | 장 소 | 마태 복음 | 마가 복음 | 누가 복음 | 요한 복음 | 예언 |
|-----------|-----------------------------|----------|----------|----------|----------|----------|---------|
| | I. 복음서 서론 | | | | 1:1-4 | 1:1-14 | |
| | II. 초기의 사건 | | | | | | |
| | 1. 예수님의 족보 | | 1:1-17 | | 3:23-38 | | |
| B. C. 7 | 2.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 | 예루살렘 | | | 1:5-25 | | 말 3:1 |
| 7-6 | 3. 예수님의 탄생 예언 | 나사렛 | | | 1:26-38 | | 사 7:14 |
| | 4.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함 | 유대 마을 | | | 1:39-56 | | |
| 5 | 5. 세례 요한의 출생 | | | | 1:57-80 | | |
| | 6.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의 성령 수태를 설명함 | | 1:18-25 | | | | 사 9:6,7 |
| 5-4 | 7. 예수님의 탄생 | 베들레헴 | 1:24,25 | | 2:1-7 | | 사 7:14 |
| | 8. 목자들의 경배 | | | | 2:8-20 | | |
| | 9. 예수님께서 할례받으심 | | | | 2:21-38 | | |
| 4 | 10. 동방 박사들의 경배 | | 2:1-12 | | | | |
| | 11. 애굽으로 피난가심 | | 2:13-15 | | | | 호 11:1 |
| | 12. 헤롯의 유아 학살 | | 2:16-18 | | | | 렘 31:15 |
| | 13.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 오심 | | 2:19-23 | | 2:39 | | |
| A. D. 7-8 | 14. 나사렛에서의 유년시대 | | | | 2:40 | | |
| | 15. 예루살렘 방문과 나사렛 생활 | | | | 2:41-52 | | |
| | III. 그리스도의 공생애 준비 | | | | | | |
| 25-27 | 1. 세례 요한의 활동 | 유대 광야 | 3:1-12 | 1:1-8 | 3:1-18 | | 말 3:1 |
| 27 | 2. 예수님의 세례 | 요단 강 | 3:13-17 | 1:9-11 | 3:21-23 | 1:29-34 | |
| | 3. 예수님의 시험 | | 4:1-11 | 1:12-13 | 4:1-13 | | |
| | 4. 세례 요한의 증거 | 베다니 | | | | 1:15-34 | 신 6,8장 |
| | 5. 예수님의 처음 세례자 | | | | | 1:35-42 | |
| | 6. 빌립과 나다나엘 | | | | | 1:43-51 | |

| | | | | | | |
|----|--------------------------|------|----------|----------|----------|----------|
| | 7. 가나에서의 첫 이적 | | | | 2:1-11 | |
| | 8. 가버나움을 방문하심 | | | | 2:12 | |
| | IV. 초기의 유대 사역 | | | | | |
| | 1. 성전을 깨끗케 하심 | 예루살렘 | | | 2:13-25 | 시 69:9 |
| | 2. 니고데모의 질문 | | | | 3:1-21 | |
| | 3. 세례 요한의 증거 | | | | 3:22-36 | |
| | 4. 유대를 떠나심 | 4:12 | | | 4:1-3 | |
| | 5. 사마리아에서 전도 하심 | | | | 4:4-42 | |
| | V. 제 1차 갈릴리 사역 | | | | | |
| | 1. 갈릴리에서의 전도 시작 | 가나 | 4:12-17 | 1:14, 15 | 4:14, 15 | 4:43-45 |
| | 2.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 | | | | 4:46-54 |
| | 3. 나사렛 회당에서 배척 받으심 | | | | 4:16-30 | 사 61:1,2 |
| | 4. 네 제자를 부르심 | 갈릴리 | 4:18-22 | 1:16-20 | 5:1-11 | |
| | 5.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심 | 가버나움 | | 1:21-28 | 4:31-37 | |
| | 6.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심 | | 8:14, 15 | 1:29-31 | 4:38, 39 | |
| | 7. 많은 병자들을 고치심 | | 8:16, 17 | 1:32-34 | 4:40, 41 | |
| | 8. 1차 갈릴리 전도 여행 | | 4:23-25 | 1:35-39 | 4:42-44 | |
| | 9. 문둥병자를 고치심 | | 8:2-4 | 1:40-45 | 5:12-16 | |
| | 10. 중풍병자를 고치심 | | 9:1-8 | 2:1-12 | 5:17-26 | |
| | 11. 마태를 부르심 | 가버나움 | 9:9-13 | 2:13-17 | 5:27-32 | |
| | 12. 금식에 대한 문제 | | 9:14-17 | 2:18-22 | 5:33-39 | |
| 28 | 13. 베데스다 못가의 38년된 병자를 고침 | 예루살렘 | | | 5:1-9 | |
| | 14.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제자들 | | 12:1-8 | 2:23-28 | 6:1-5 | 삼상 21장 |
| | 15. 손 마른 자를 고치심 | 갈릴리 | 12:9-14 | 3:1-6 | 6:6-11 | |
| | 16. 잠시 피하심 | | 12:15-21 | 3:7-12 | | |
| | VI. 산상수훈 | | | | | |
| | 1. 12제자를 세우심 | | | 3:13-19 | 6:12-16 | |
| | 2. 서론 | | 5:1, 2 | | 6:17-19 | |
| | 3. 팔복(八福) | | 5:3-12 | | 6:20-26 | |
| | 4. 소금과 빛 | | 5:13-16 | | | |
| | 5. 율법의 완성자 | | 5:17-20 | | | |
| | 6. 미움과 살인 | | 5:21-26 | | | |
| | 7. 간음과 이혼 | | 5:27-32 | | | |
| | 8. 맹세에 대하여 | | 5:33-37 | | | |
| | 9. 복수에 대하여 | | 5:38-42 | | 6:29, 30 | |
| | 10. 사랑에 대하여 | | 5:43-47 | | | |
| | 11. 완전에 대하여 | | 5:48 | | | |
| | 12. 구제에 대하여 | | 6:1-4 | | | |
| | 13. 기도에 대하여 | | 6:5-15 | | | |
| | 14. 금식에 대하여 | | 6:16-18 | | | |
| | 15. 보화에 대하여 | | 6:19-24 | | | |
| | 16. 염려에 대하여 | | 6:25-34 | | | |
| | 17. 심판에 대하여 | | 7:1-5 | | 6:37-42 | |
| | 18. 간구와 응답에 대하여 | | 7:7-11 | | | |
| | 19. 황금율 | | 7:12 | | 6:31 | |
| | 20. 좁은문과 거짓선지자 | | 7:13-23 | | 6:43-45 | |

29

| | | | | |
|---------------------------|------------|----------|----------|---------|
| 21. 두 가지 종류의 기초 | 7:24-27 | | 6:46-49 | |
| 22. 맺는 말과 문동병자의 치유 | 7:28;8:4 | | | |
| VII. 제 2차 갈릴리 사역 | | | | |
| 1.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심 | 8:5-13 | | 7:1-10 | |
| 2.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 | | | 7:11-17 | |
| 3. 세례 요한의 질문 | 11:2-19 | | 7:18-35 | 사 29:18 |
| 4.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기름부음을 받으심 | | | 7:36-50 | |
| 5. 제 2차 갈릴리 전도 | | | 8:1-3 | |
| 6. 바리새인에 대한 경고 | 12:22-45 | 3:20-30 | | |
| 7. 그리스도의 영적 가족 | 12:46-50 | 3:31-35 | 8:4-18 | |
| 8. 예수님의 비유들 | 13:1-53 | 4:1-34 | | |
| 9. 비유의 목적 | 13:10-17 | | | |
| 10. 바다를 잔잔케 하심 | 8:23-27 | 4:35-41 | 8:22-25 | |
| 11. 가다라 지방의 귀신들 | 8:28-34 | 5:1-20 | 8:26-39 | |
| 12. 아이로의 딸을 살리심 | 9:18-26 | 5:21-43 | 8:40-56 | |
| 13. 두 소경과 병어리를 고치심 | 9:27-34 | | | |
| 14. 나사렛에서 다시 배척 당하심 | 13:54-58 | 6:1-6a | | |
| VIII. 제 3차 갈릴리 사역 | | | | |
| 1. 12제자의 파송 | 9:35-11:1 | 6:6b-13 | 9:1-6 | |
| 2. 세례 요한의 죽음 | 14:1-12 | 6:14-29 | 9:7-9 | |
| 3. 오병 이어의 이적 | 14:13-23 | 6:30-46 | 9:10-17 | 6:1-14 |
| 4. 물 위로 걸으심 | 14:24-36 | 6:47-56 | | 6:16-21 |
| 5. 생명의 떡에 대한 교훈 | | | | 6:22-71 |
| 6.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 | 15:1-20 | 7:1-23 | | |
| 7.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심 | 15:21-28 | 7:24-30 | | |
| 8.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심 | 15:29-31 | 7:31-37 | | |
| 9. 칠병 이어의 이적 | 15:32-38 | 8:1-9 | | |
| 10. 표적 구하는 자들을 책망하심 | 15:39;16:4 | 8:10-12 | | |
| 1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 16:5-12 | 8:13-21 | | |
| 12. 소경을 고치심 | | 8:22-26 | | |
| 13. 베드로의 신앙 고백 | 16:13-20 | 8:27-30 | 9:19-21 | |
| 14.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 | 16:21-28 | 8:31;9:1 | 9:22-27 | |
| 15. 예수님의 변모(變貌) | 17:1-13 | 9:2-13 | 9:28-36 | |
| 16.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심 | 17:14-21 | 9:14-29 | 9:37-43a | |
| 17. 고난에 대한 두번째 예언 | 17:22, 23 | 9:30-32 | 9:43b-45 | |
| 18. 성전세물 내심 | 17:24-27 | | | |
| 19. 겹손과 용서에 대한 교훈 | 18:1-35 | 9:33-50 | 9:45-50 | |
| IX. 후기의 유대 사역 | | | | |

데가볼리

가버나움

| | | | | |
|----------|----------------------|---------|----------|-----------|
| | 1. 형제들의 배척 | | | 7:2-9 |
| | 2. 사마리아인들의 배척 | 19:1, 2 | 10:1 | 9:51-56 |
| | 3. 제자의 길 | | | 9:57-62 |
| | 4.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심 | | | 7:10-52 |
| | 5.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심 | | | 7:53;8:11 |
| | 6. 바리새인들과의 변론 | | | 8:12-59 |
| | 7. 70인을 파송하심 | | 10:1-24 | 사 6:9, 10 |
| | 8.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 | 10:25-37 | |
| | 9.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심 | | | 9:1-41 |
| | 10. 마리아와 마르다를 방문하심 | | 10:38-42 | |
| | 11. 기도에 대한 교훈 | | 11:1-13 | |
| | 12. 바리새인에 대한 경고 | | 11:14-54 | |
| | 13. 바리새인의 위선 | | 12:1-12 | |
| | 14. 욕심과 열려 | | 12:13-34 | |
| | 15. 청지기의 교훈 | | 12:35-48 | |
| | 16. 그리스도로 인한 분갱 | | 12:49-53 | |
| | 17.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 | 12:54-59 | |
| | 18. 회개의 필요성 | | 13:1-5 | |
| | 19. 무화과 나무의 비유 | | 13:6-9 | |
| | 20.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은 여인 | | 13:10-21 | |
| | 21. 구원에 대한 교훈 | | 13:22-30 | |
| | 22. 선한 목자의 교훈 | | | 10:1-18 |
| | 23. 유대인들의 증오 | | | 10:19-39 |
| | X. 베테아 전도 | | | |
| 29 겨울 | 1. 베테아로 물러가심 | | | 10:40-42 |
| | 2. 헤롯의 증오에 대한 경고 | | | 13:31-35 |
| | 3. 안식일에 고창병자를 고치심 | | | 14:1-6 |
| | 4. 혼인잔치의 비유 | | | 14:7-24 |
| | 5. 제자의 길 | | | 14:25-35 |
| | 6. 잃은 양의 비유 | | | 15:1-7 |
| | 7. 잃은 동전의 비유 | | | 15:8-10 |
| | 8. 탕자의 비유 | | | 15:11-32 |
| | 9.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 | | 16:1-13 |
| | 10. 이혼에 대한 교훈 | 19:3-12 | 10:2-12 | |
| | 11. 부자와 나사로 | | | 16:19-31 |
| | XI. 짧은 유대 방문 | | | |
| | 1. 나사로를 살리심 | 베다니 | | 11:1-44 |
| | 2. 유대인들의 음모 | | | 11:45-53 |
| A. D. 30 | 3. 예수님의 피신 | 에브라임 | | 17:11 |
| | XII. 마지막 전도여행 | | | |
| | 1. 열 문둥이를 고치심 | | | 17:12-19 |
| | 2.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 | | 17:20, 21 |
| | 3. 재림에 대하여 | | | 17:22-37 |
| | 4. 과부의 비유 | | | 18:1-8 |
| | | | | 신 24:1-4 |

30 봄

| | | | | |
|----------------------|--------------|----------|----------|----------------|
| 5.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 | | 18:9-14 | |
| 6. 어린이의 신앙 | 19:13-15 | 10:13-16 | 18:15-17 | |
| 7. 부자 청년 | 19:16-30 | 10:17-31 | 18:18-30 | |
| 8.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 20:1-16 | | | |
| 9. 고난에 대한 세번째 예언 | 20:17-19 | 10:32-34 | 18:31-34 | |
| 10.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 | 20:20-28 | 10:35-45 | | |
| 11. 소경 바디매오 | 여리고 20:29-34 | 10:46-52 | 18:35-43 | |
| 12. 세리 삭개오의 구원 | | | 19:1-10 | |
| 13. 열 므나의 비유 | | | 19:11-28 | |
| XII. 마지막 한 주간 | | | | |
| 1. 금요일 : | | | | |
| 베다니에 도착하심 | | | | 11:55; 12:1 |
| 2. 토요일 : | | | | |
| ① 저녁 식사 | 26:6-13 | 14:3-9 | | 12:2-8 |
| ② 유대인들의 음모 | | | | 12:9-11 |
| 3. 주 일 : | | | | |
| ① 예루살렘 입성 | 21:1-11 | 11:1-11 | 19:29-44 | 12:12-19 습 9:9 |
| ② 예수를 찾아온 헬라인들 | | | | 12:20-36 |
| ③ 베다니로 돌아오심 | | 11:11 | | 12:36 |
| 4. 월요일 : | | | | |
| 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 | 21:18, 19 | 11:12-14 | | |
| ② 성전 청결 | 21:12, 13 | 11:15-18 | 19:45-48 | |
| ③ 많은 무리를 고치심 | 21:14-16 | | | |
| ④ 베다니로 돌아오심 | 21:17 | 11:19 | | |
| 5. 화요일 : | | | | |
| 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림 | 21:19-22 | 11:20-26 | | |
| ② 권위에 대한 도전과 예수의 질문 | 21:23-27 | 11:27-33 | 20:1-8 | |
| ③ 두 아들의 비유 | 21:28-32 | | | |
| ④ 농부의 비유 | 21:33-46 | 12:1-12 | 20:9-19 | |
| ⑤ 혼인잔치의 비유 | 22:1-14 | | | |
| ⑥ 세금에 대한 시험 | 22:15-22 | 12:13-17 | 20:20-26 | |
| ⑦ 부활에 대한 질문 | 22:23-33 | 12:18-27 | 20:27-40 | |
| ⑧ 가장 큰 계명 | 22:34-40 | 12:28-34 | | |
| ⑨ 예시야에 대한 질문 | 22:41-46 | 12:35-37 | 20:41-44 | 시 110:1 |
| ⑩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 | 23:13-39 | 12:38-40 | 20:45-47 | |
| ⑪ 이스라엘의 불신앙 | | | | 12:37-50 |
| ⑫ 과부의 두 랍돈 | | 12:41-44 | 21:1-4 | |
| ⑬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 | 24:1, 2 | 13:1-2 | 21:5, 6 | |
| ⑭ 그리스도 재림의 표적 | 24:3-42 | 13:3-33 | 21:7-36 | |
| ⑮ 깨어있는 종의 비유 | | 13:34-37 | | |
| ⑯ 도적의 비유 | 24:43, 44 | | | |
| ⑰ 창지기 비유 | 24:45-51 | | | |
| ⑱ 열 처녀 비유 | 25:1-13 | | | |
| ⑳ 달란트 비유 | 25:14-30 | | | |

| | | | | |
|-----------------------------------|----------------|-----------|-----------|-------------------|
| ⑳ 양과 염소의 구별 | 25:31- 46 | | | |
| ㉑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요약 | | | 21:37, 38 | |
| ㉒ 유대인들의 공모 | 26:1- 5 | 14:1, 2 | 22:1, 2 | |
| ㉓ 가롯 유다의 반역 | 26:14- 16 | 14:10, 11 | 22:3- 6 | |
| 6. 수요일 : | | | | |
| 기록이 없음 | | | | |
| 7. 목요일 : | | | | |
| ① 유월절 준비 | 예루살렘 26:17- 19 | 14:12- 16 | 22:7- 13 | |
| ② 최후의 만찬 | 26:20 | 14:17 | 22:14- 18 | 13:1 |
| ③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 | | | 13:2- 17 |
| ④ 가롯 유다가 나감 | 26:21- 25 | 14:18- 21 | 22:21- 23 | 13:18- 32 |
| ⑤ 성찬식 제정 | 26:26- 29 | 14:22- 25 | 22:19- 20 | |
| ⑥ 베드로의 부인(否認)을 예고하심 | 26:31- 35 | 14:27- 31 | 22:28- 38 | 13:33- 38 |
| ⑦ 위로에 대한 교훈 | | | | 14:1- 31 |
| ⑧ 참 포도나무 비유 | | | | 15:1- 16 |
| ⑨ 미래의 관계 | | | | 15:17 |
| ⑩ 증보의 기도 | | | | 17:1- 26 |
| ⑪ 셋새마네 동산의 기도 | 26:36- 46 | 14:32- 42 | 22:40- 46 | 18:1 |
| 8. 금요일 : | | | | |
| ① 체포 | 26:47- 56 | 14:43- 52 | 22:47- 54 | 18:2- 12 |
| ② 안나스 앞에 서신 예수님 | | | | 18:13- 14, 19- 23 |
| ③ 가야바 앞에 서신 예수님 | 26:57- 68 | 14:53- 65 | 22:54- 65 | 18:24 |
| ④ 베드로의 부인(否認) | 26:58- 75 | 14:54- 72 | 22:54- 62 | 18:15- 27 |
| ⑤ 산헤드린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 | 27:1 | 15:1 | 22:66- 71 | |
| ⑥ 가롯 유다의 자살 | 27:3- 10 | | | |
| ⑦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 27:2 | 15:1- 5 | 23:1- 5 | 18:28- 38 |
| ⑧ 헤롯 앞에 서신 예수님 | | | 23:8- 12 | |
| ⑨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 27:15- 26 | 15:6- 15 | 23:13- 25 | 18:39- 19:16 |
| ⑩ 로마 병정들의 회롱을 당하심 | 27:27- 30 | 15:16- 19 | | |
| ⑪ 끌고다르 끌려가시는 도중에서 | 27:31- 34 | 15:20- 23 | 23:26- 32 | |
| ⑫ 십자가 처형 | 예루살렘 27:35- 50 | 15:24- 37 | 23:33- 46 | 19:17- 30 |
| ⑬ 백부장의 고백 | 27:51- 56 | 15:38- 41 | 23:47- 49 | |
| ⑭ 예수님이 창에 찔리심 | | | | 19:31- 37 시 34:20 |
| ⑮ 예수님을 장사지냄 | 27:57- 61 | 15:42- 47 | 23:50- 56 | 19:38- 42 |
| 9. 토요일 : | | | | |
| 무덤에 파수군을 세움 | 27:62- 66 | | | |
| XIV. 부활의 사건 | | | | |
| 1. 두 여인(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이 무덤에 찾아옴 | 예루살렘 부근 28:1 | 16:1 | | |

| | | | | | |
|--------------------|------|----------|-----------|----------|----------|
| 2. 지진이 일어남 | | 28:2-4 | | | |
| 3.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 | | | | | 20:11 |
| 4.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남 | | 28:5-8 | 16:2-8 | 24:1-11 | |
| 5.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옴 | | | | 24:12 | 20:2-10 |
| 6.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 | | 16:9-11 | | 20:14-18 |
| 7. 주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심 | | 28:9, 10 | | | |
| 8. 피수군의 보고 | | 28:11-15 | | | |
| 9.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 | | 16:12 | 24:13-35 | |
| 10. 열 제자에게 나타나심 | | | | 24:36-43 | 20:19-25 |
| 11. 열 한 제자에게 나타나심 | | | 16:14 | | 20:16-31 |
| 12.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심 | 갈릴리 | | | | 21:1-25 |
| 13. 지상 대명 | | 28:16-20 | 16:15-18 | 24:44-49 | |
| 14. 주님의 승천 | 베다니알 | | 16:19, 20 | 24:50-53 | |

연구자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

흔히들 구약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며, 신약은 그 예언을 좇아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주어진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책이라 한다. 그러므로 본고(本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약이 어떻게 예언하고 있으며 그 예언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예 언 | 내용 | 성 취 |
|---|---------------|---|
|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 여자의 후손 | 갈 4: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눅 2:7, 계 12:5) |
| 창 18:18.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 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 12:3) |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손 | 행 3:25.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마 1: |

| | | |
|---|-------------|---|
| | | 1; 눅 3:34) |
| 창 17:19.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 이삭에게 약속된 자손 | 마 1:2.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
| 민 24:17.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혼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권에서 저 권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창 28:14) | 야곱에게 약속된 자손 | 눅 3:34.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훔이요 |
| 창 49:10. 흠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 유다 지파의 후손 | 눅 3:33. 그 이상은 아비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
| 사 5: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 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사 11:1-5; 삼하 7:13) | 다윗의 계승자 | 마 1: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마 1:6) |
| 미 5: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대초에니라 | 베들레헴 탄생 | 마 2:1.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눅 2:4-7) |
| 단 9: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진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를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때 근란할 동안에 성이 증진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 탄생의 시간 | 눅 2:1,2. 이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번 한 것이라(눅 2:4-7) |
| 사 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 동정녀 탄생 | 마 1: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눅 1:26-35) |
| 렘 31:15.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뽕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도다 | 유아 대학살 | 마 2:16.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마 2:17, 18) |
| 호 11:1.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었거늘 | 애굽 피난 | 마 2:14.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마 2:15) |
| 사 9:1,2. 진에 고뎠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남단 | 갈릴리 전도 | 마 4:12-16.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블 |

| | | |
|--|----------------------------|---|
| <p>리 땅으로 면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욥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p> | | <p>론과 남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남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욥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취었도다 하였느니라</p> |
| <p>신 18: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라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p> | <p>선지자</p> | <p>요 6:14.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요 1:45; 행 3:19-26)</p> |
| <p>시 110:4. 여호와와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벨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p> | <p>벨기세덱 같은 제사장</p> | <p>히 6:20.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벨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히 5:5, 6; 7:15-17)</p> |
| <p>사 53:3. 그는 면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면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시 2:2)</p> | <p>유대인들의 배척</p> | <p>요 1: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요 5:43; 눅 4:29; 17:25, 23:18)</p> |
| <p>사 11:2.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와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사 45:7, 사 11:3, 4)</p> | <p>심격</p> | <p>눅 2:52.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 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4:18)</p> |
| <p>슌 9: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사 62:11)</p> | <p>승리의 입성</p> | <p>요 12:13, 14.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마 21:1-11, 요 12:12)</p> |
| <p>시 41:9.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p> | <p>친구의 배반</p> | <p>막 14:10. 열 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 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마 26:14-16; 막 14:43-45)</p> |
| <p>슌 11:12.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기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삼십을 달아서 내 고기를 삼은지라(슌 11:13)</p> | <p>은 삼십에 팔릴</p> | <p>마 26:15.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마 27:3-10)</p> |
| <p>슌 11:13.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해라 한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삼십을 여호와와 선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코</p> | <p>토기장이의 밭을 사기 위한 은 삼십</p> | <p>마 27:6, 7.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 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외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마 27:3-5, 8-10)</p> |
| <p>시 109:7, 8.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짓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년수를 단축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p> | <p>유대의 직분을 타인이 취함</p> | <p>행 1:18-20. 이 사람이 불의의 값으로 반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p> |

| | | |
|--|---------------------------------|--|
| | | <p>아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반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렸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행 1: 16, 17)</p> |
| <p>시 27: 12.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시 35: 11)</p> | <p>거짓 증인들의 모함</p> | <p>마 26: 60, 61.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p> |
| <p>사 53: 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시 38: 13, 14)</p> | <p>고소를 당할때 침묵하심</p> | <p>마 26: 62, 63.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명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마 27: 12 - 14)</p> |
| <p>사 50: 6.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땀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p> | <p>매맞고 모욕당함</p> | <p>막 14: 65.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막 15: 17; 요 18: 22; 19: 1-3).</p> |
| <p>시 69: 4.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버리털보다 많고 우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이 주게 되었나이다(시 109: 3 - 5)</p> | <p>까닭없이 미움을 받음</p> | <p>요 15: 23-25.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빛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옹하게 하려 함이니라</p> |
| <p>사 53: 4, 5. 그는 실로 우리의 죄고과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역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 53: 6, 12)</p> | <p>대신 고난을 당함</p> | <p>마 8: 16, 17.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더라(롬 4: 25; 고전 15: 3)</p> |
| <p>사 53: 12. 이렇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p> | <p>죄인들과 함께 못박힘</p> | <p>마 27: 38. 이 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막 15: 27, 28; 눅 23: 33)</p> |
| <p>시 22: 18.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p> | <p>군병들이 옷을 얻으려고 제비뽑음</p> | <p>막 15: 24. 십자가에 못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요 19: 24)</p> |

| | | |
|---|------------------------------|--|
| <p>시 22:6-8.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뱀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p> | <p>조롱과 모욕을 당함</p> | <p>마 27:39,40.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마 27:41-44: 막 15:29-32)</p> |
| <p>시 69:21.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p> | <p>쓸개와 초를 받으심</p> | <p>요 19:29.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배움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마27:34,38)</p> |
| <p>시 22:8.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p> | <p>조롱 가운데 반박되는 예언</p> | <p>마 27:43.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p> |
| <p>시 109:4.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사 53:12)</p> | <p>원수함 위하여 기도함</p> | <p>눅 23:34.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새</p> |
| <p>슌 12:10.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쟁론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송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송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p> | <p>옆구리를 찌림</p> | <p>요 19:34.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p> |
| <p>시 22:16.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썰렀니이다(슌 12:10)</p> | <p>수족이 찌림</p> | <p>요 20:27.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요 19:37;20:25,26)</p> |
| <p>시 34:20.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슌 12:46)</p> | <p>뼈가 꺾이지 않음</p> | <p>요 19:33.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p> |
| <p>사 53:9. 그는 강포함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케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p> | <p>부자의 묘실에 장사됨</p> | <p>마 27:57-60.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 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p> |
| <p>시 16:10.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마 16:21)</p> | <p>부활</p> | <p>마 28:9.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노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눅 24:36-48)</p> |
| <p>시 68:18.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 잠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p> | <p>승천</p> | <p>눅 24:50,51.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행 1:9)</p> |

마태복음 서론

1. ㉠ 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1) 본서의 저자는 마태이다.

(2)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Polycarp, A. D. 70-155?)의 친구인 파피아스(Papias, A. D. 75?-163?)는 '마태가 말씀들을 히브리어로 정리하고 그것들을 각각 그의 역량껏 번역하나라'고 말했다.

(3) 뿐만 아니라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Ignatius, A. D. 35?-117)는 A. D. 115년에 본서를 '마태복음'이란 이름으로 로마에 가져갔고, 로마의 지방 회의는 120년에 본서를 마태의 책으로 결정하였다.

(4) 또한 본서의 첫머리에 '마태복음'이라는 문구가 실려 있으며 이것은 2세기 말(末)부터 오늘날까지 전하여 내려오는 사실로서 저자에 대한 충분한 역사적 증빙(證憑) 자료 역할을 한다.

(5)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마태가 본서의 저자임을 확증지을 수 있다.

2. ㉢ 마태는 어떤 인물인가?

㉡ (1) 레위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는 세관원으로서 헤롯 안티파스(Herod Antipas)의 영지내에 거주하고 있다가 예수의 부름을 받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참조, 눅 5:27). 그는 알패오의 아들로도 소개되고 있다(참조, 막 2:14).

(2) 당시 그는 여러 민족들이 거주하던 갈릴리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아랍어 뿐만 아니라 헬라이어에도 능숙했을 것이다. 본서의 기록들로 보아 그는 확실히 한 언어 이상에 익숙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왜냐하면 본서에서 발견되는 구약의 인용 귀절들이 헬리어 70인역(LXX)을 바탕으로 하고 아랍어 및 히브리어에서 온 파생어들과 결합된 일종의 의역(意譯)이기 때문이다.

(4) 또한 세리 출신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빈축을 살 만큼 포악하지는 않은 것 같으나 사람들을 초대하여 연회를 열 수 있을 정도로(9:10) 풍족한 생활을 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5) 특별히 그는 주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을 했던 것으로 보아(눅 5:27, 28) 그 당시 유행하던 편협하고 외식적인 신앙의 소유자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6) 그렇지만 한번도 복음서에는 그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는 성품이 겸손하고 침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7) 그의 신상에 대해서는 행 1:13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 후 다시 언급되지 않았지만 전설에 의하면 15년간 팔레스틴에서 전도한 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었다고 한다.

3. ㉣ 본서의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 (1) 본서가 예수의 12제자들의 교훈집이라 할 수 있는 '디다케'(Didache)와 외경 바나바 서신 그리고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Ignatius, A. D. ? - 110)와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 A. D. 100 - 165) 등의 기록에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는 분명히 본서가 초대 교회 시대 초기에 기록되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 (2) 그런데 본서의 내증(內證)에는(27:8;28:15) 본서가 예수께서 죽으신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기록되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 (3) 또한 본서 24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 미래에 성취될 한 사건으로 취급되어 있기 때문에 본서가 A. D. 70년 이전에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 그리고 본서는 초대 교회 교인들이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A. D. 37-48?) 기록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기록된 복음서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아직 그들 가운데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인 사도들이 아직 생존해 있었다(참조, 행 8:4).
- (5)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본서는 약간의 무리가 따르겠지만 A. D. 50-70년 중에 기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 본서의 기록 장소는 어디인가?

- ㉠ (1) 본서의 기록 연대가 그러하듯이 기록 장소 역시도 의견이 분분하다.
- (2) 어떤 학자는 본서가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과 그 상황에 관한 여러 언급들(2:3, 16;21:10;27:3-8, 24, 25, 53, 62-66;28:4, 11-15)을 근거로 팔레스틴 영내에서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
- (3) 그러나 본서가 풍부한 헬라어를 사용한 문체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기록 장소를 팔레스틴보다는 헬라이어 사용이 비교적 많았고 팔레스틴 문화와 쉽게 접촉할 수 있었던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4) 시리아의 안디옥은 유대주의와 초대 기독교가 만날 수 있었던 가장 적합한 곳이었으며, 본서의 내용을 자주 인용하여 집필 활동을 했던 이그나티우스(Ignatius)가 살던 곳이기도 했다.
- (5) 특별히 헬라이어 문화가 지배적이던 이곳의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헬라이어 역본인 70인역(LXX)을 사용했을 것이며, 본서의 저자 마태도 70인역을 통해 구약을 많이 인용한 것 같다.
- (6) 본서의 유대주의적 특수성과 이방인적인 보편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절대적인 증거는 모자란다 해도 본서의 기록 장소를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5. ㉠ 본서의 저작 동기는 무엇인가?

- ㉠ (1)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선교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밝힘으로써 유대 그리스도교인들로 하여금 민족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 본서를 저작하였다.
- (2) 또한 본서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동료 유대 그리스도교인들을 변호하려 했을 것이다.
- (3)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몇몇 유대 그리스도교인들에게 그리스도교 선교의 기원과 본질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 (4)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서 처음으로 뜨거운 신앙의 체험을 하고 난 후 예수의 행적과 교훈에 대하여 더욱 알고 싶어했기 때문이다(참조, 행 18:24-28).
- (5) 그 밖에도 마태는 이방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저술했을 가능성도 있다(참조, 28:20).
- (6) 그 이유는 예수의 역사성을 강조하고(1장) 그분이야말로 모든 통치자 중의 통치자이심을 강력하게 시사함으로써 예수의 인성(人性)과 신성(神性)을 부정하려는 이방 사상의 폐해로부터 이방 신자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 (7) 그러나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심어 주기 위해 본서를 기록하였던 것이 주된 기록 목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6. ㉠ 본서가 목적하는 바는 무엇인가?

- ㉠ (1) 본서는 일종의 전도를 위한 복음서라 할 수 있다. 즉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서를 연구해

- 보면 본서가 추구하는 바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듣는 이로 하여금 메시아이신 예수
를 알고 확신하게 하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참조, ㉑ 8).
- (2) 또한 본서는 주 예수 안에 있는 통일성과 보편성을 강조하여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
방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본서에는
보편적 은혜요 교회 일치를 위한 메시지가 다뤄져 있다(9:12, 13).
 - (3) 그리고 본서는 복음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밝히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어떠한 죄인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사유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혀
주고 있다(참조, 9:9-13; 20:1-16).
 - (4) 계속해서 본서는 유대주의의 우월 의식으로 모든 이방인들을 단죄하던 독선적(獨善的)
인 유대 종교인들에게 외식의 탈을 벗고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은혜에 동참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하는 바가 있다(참조, 10:38; 18:1-4).
 - (5) 마태는 복음서 기자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헬,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메시
야로 말미암아 성취된 우주적 교회, 즉 새로운 이스라엘의 탄생(참조, 4:15)을 알리려
고 했다(참조, 16:18; 18:17).
 - (6) 한편 마태는 본서를 통해 성도 개개인에게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법' 즉 그리스도인의 윤리 생활에 절대 필요한 사랑의 원칙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참조, 22:36-40). 특별히 예수의 산상 수훈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천국
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참조, 5-7장).

7. ㉑ 본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 ㉑ (1) 주제는 본서의 서두,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
- (2) 창세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구를 찾아 볼 수 있다(참조, 창 5:1; 6:9). 구약에서 이미
언급된 그러한 귀질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새로운 발전 단계를 표시하고 있는데, 그
단계는 다윗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다가 예수에서 끝난다.
- (3) 마태는 예수의 계보를 이 점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구약의 예언
들을 성취했는가에 대해 상세히 보여 준다.
- (4) 이런 면에서 마태는 구약의 구조를 모방하였으며 여러모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
사이에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 (5) 이 모든 사실들을 고려할 때 본서의 주제는 구약 예언의 성취임이 확실하다.
- (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장 ㉑ 4-7을 참조하라.

8. ㉑ 본서를 예수의 메시아적 사역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라.

㉑

| 내 용 | 귀 절 |
|-----------------------|------------|
| 1.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성취-오심 | 1:1-4:11 |
| 2. 메시아의 가르침-대강론(大講論) | 4:12-7:29 |
| 3. 메시아의 신성 계시-기적 | 8:1-11:1 |
| 4. 메시아 왕국의 계시-비유 | 11:2-13:53 |
| 5. 메시아의 구속 사업 선포-십자가 | 13:54-19:2 |
| 6. 적들의 꾀박-반대자들과의 논쟁 | 19:3-26:2 |
| 7. 메시아의 고난-수난, 죽음, 부활 | 26:3-28:10 |
| 8. 결론 : 지상(至上) 명령 | 28:11-20 |

9. ㉠ 본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 ㉠ (1) 첫째, 많은 자료로 엮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맥과 구조가 극히 미려(美麗)하고 자연스러워서 구조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깝다.
- (2) 둘째, 본서에는 대교훈집이 다섯 차례나 나타난다. 산상 수훈(5-7장), 12제자를 파송하는 교훈(10장), 천국 비유(13장), 겐손과 용서의 교훈(18장), 바리새인을 규탄하심(23장)과 감람산 강론(24, 25장) 등이 5대 교훈집은 저자의 탁월한 조직력에 의해 질서 정연하게 배열되어 본서의 중심을 이룬다.
- (3) 셋째, 본서의 자료 배열은 수자적 방법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기교를 중요시하는 유대인의 관습으로 문장을 힘있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 (4)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수(數) | 내 용 | 귀 절 |
|------|--|---|
| 2 | 두 명의 귀신들린 자 두 소경 두 거짓 증인 | 8:28 9:27;20:30 26:66 |
| 3 | 족보의 세 구분 유아 시대의 세 사건 세 가지 시험 산상 수훈 세 구분(원리, 내용, 경계) 주기도문의 하나님을 위한 세 기원과 사랑을 위한 세 기원 세 가지 회복(혈루, 소경, 병어리) 세 가지 적당치 않는 자 세 고자(餃子) 바리새인에 대한 세 비유 세 질문 말세에 대한 세 비유 겻세마네의 세 차례 기도 베드로의 세 차례 부경 빌라도의 세 번 질문 | 1:17 2장 4장 5-7장 6:9-13 9:18-34 10:37, 38 19:12 21:27-22:14 22:15-40 24:43-25:30 26:36-44 26:69-75 27:21-23 |
| 7 | 일곱 사귀(邪鬼) 일곱 떡과 바구니 일곱 번 용서 일곱 형제 | 12:45 15:34, 37 18:21, 22 22:25 |

(5) 이처럼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색을 본서는 지니고 있다.

10. ㉠ 본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론에 대해 설명하라.

- ㉠ (1) 본서는 예수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이스라엘의 메시아이며 약속된 왕국을 세우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듭 밝히고 있다.
- (2) 즉 그분은 이스라엘의 정통 왕족인 다윗의 가계 출신이며(참조, 1:1; 삼하 7:12-16; 사 11:1) 유대인의 왕으로서(참조, 2:2) 이 땅에 탄생하셨다.
- (3) 그러나 유대인들의 경험으로는 만약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의 주인이 완전히 회복되며 지상에서 최강국으로 평화를 즐기며 살게 될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메시아성을 주장했던 예수에게 대해 극도의 반감

- 을 나타내었다(참조, 21:14-16).
- (4) 예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고쳐 주시기 위해 노력하셨으며 특별히 '유대인의 왕'이라는 비난과 죄패를 달고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다(참조, 27:11,29, 37).
 - (5) 또한 예수는 자신을 친히 '인자' (the Son of man)라고 표현하심으로(8:20;12:8, 40; 25:31;26:64) 단순히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계신 분으로서 당신의 지상에서의 사역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다(참조, 히 2:11).
 - (6) 특별히 이 말은 당신의 성육신(Incarnation)을 강조한 것으로서 그분만이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으며 세상에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인간과 함께 계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그분은 당신의 권위로써 인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참조, 9:6).
 - (7) 이러한 그분의 사역을 가장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20:28)라고 한 것이다.
 - (8)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음의 신(神)으로서가 아니라 부활의 주(主)로서 당신을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영생의 기쁨을 제공하신 생명의 주인이시다(참조, 27:51-53).
 - (9)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친히 인간이 되신 전능자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하여 그분만이 인류의 소망이며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다(참조, 16:16).

11. ㉠ 본서에서 나타난 천국론에 대해 설명하라.

- ㉠ (1) 본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헬, 헤 바실레이아 투 데우, 4회)란 용어보다 '천국' (헬,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는, 33회)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 (2)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룬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동일한 의미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를 꺼려 해서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주' (히, 아도나이)라고 쓰게 된 것과 같은 용례라고 할 수 있다.
- (3)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개념은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예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제 1성(聲)은 '천국'이 가까왔다는 메시지였으며(4:17) 당신의 가르침의 주제 역시도 '천국'이었다(9:35;10:7;24:14).
- (4) 한편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지배하는 곳을 가리킨다. 이는 반드시 영토를 가리키지 않고 하늘이나 이 땅이나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군림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의 의미하였다.
- (5) 이 '천국'은 예수의 초림으로⁶ 시작된 그래서 씨앗처럼 자라나는 '이미 온' (already) '나라' (참조, 13장)와 예수의 재림으로 완성될 '아직 성취되지 못한' (not yet) '나라' (참조, 22, 25장)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통일될 수 있다.
- (6) 예수께서는 이 두 개념의 '나라' 가운데서 현세의 '나라'를 교회라는 측면에서 취급하시기도 하셨다(참조, 16:18, 19). 그렇지만 이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며 단지 '천국'의 그림자로서 완성된 '천국'을 기다리고 있다(참조, 13:24-30).
- (7) 이런 측면에서 예수께서는 '천국'이라는 말을 현재보다는 세상이 끝날 때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조치, 즉 새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라는 관점에서 더욱 강조점

을 두셨다(참조, 25:31-34).

- (8)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교회로 집약될 수 있는 현재의 '천국'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천국'을 무시한 채 그분의 재림 때 완성될 '천국'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9) 여하튼 '천국'에 관한 메시지는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었음에 틀림없다(3:2;4:17). 더우기 예수의 사역과 인격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에 대한 사단의 통치가 끝났음을 알리는 메시지이다. 이는 온 인류의 구원과 해방의 좋은 소식이다(참조, 12:28).
- (10) 예수께서는 '천국'을 선포하심으로써 인간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참조, 13:44-46;22:2-14). 이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참조, 4:17).

12. ㉠ 본서가 말하는 교회론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원래 헬라인들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전령관(傳令官)에 의해 소환된 또는 '불러냄을 받은' 자유 시민들의 모임 혹은 회중을 의미하기 위해 구사한 말이었다(참조, 행 19:39).
- (2)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도들에 의해 사용되었을 때는 그 의미가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게 되었던 것이다(참조, 행 7:38; 롬 9:4; 벧전 2:9).
- (3) 예수께서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첫번째 경우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이고(16:15-19) 또 하나는 당신의 제자들이 범죄한 형제에 대해 해야 할 의무 사항을 주지시키실 때이다(참조, 18:17).
- (4) 이 교회는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조직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교회를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기관이다. 더우기 교회는 행정 조직체를 연상케 하는 준엄한 기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개인적으로 혹은 집합적으로 내주하는 모든 자들의 교제 그 자체이다(참조, 롬 1:7).
- (5)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된 곳이라는 측면에서 미래에 완성될 '천국'의 예표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교회의 구성원 모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며(참조, 23:8-10) 철저히 자신을 부인할 수도 있어야 하고(참조, 16:24-26) 그리스도의 성품에 걸맞은 인격과 삶을 소유하여야 한다(참조, 11:25;18:15).
- (6) 그리고 이 교회는 편협과 독선을 지양하고 하나의 유기체로서 모든 족속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28:19).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공히 섬김을 받으며 구원에 필요한 도리의 교육(참조, 요 16:13)과 은혜 가운데서 서로의 성숙을 위해 각자가 노력해야 한다(참조, 엡 5:25-27).
- (7) 무엇보다도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16:16)라는 바른 신앙 고백이 오고 오는 세대에도 변함없이 행해져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완성될 '천국'을 대망하는 살아 있는 유기체이다.

13. ㉠ 본서가 기록될 당시 통용되었던 언어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당시의 주요 언어는 네 가지, 즉 라틴어,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였다.
- (2) 라틴어는 로마의 법률 용어와 문학 용어였다. 그 말은 대부분 로마 서쪽 지역에서 쓰여졌으며 부분적으로 북아프리카,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본토에서도 쓰여졌다.
- (3) 헬라어는 문화적 언어였는데,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한 언어였으며 로마 동쪽으로부터 대중의 통용어였다. 심지어 팔레스틴 지역에서조차 이 언어는 통용되었고

예수와 제자들도 이방인을 대할 때는 이 언어를 사용한 것 같다.

- (4) 아람어는 근동(近東) 지방에서 널리 통용되었다. 바울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아람 방언으로 설교를 했었다(행 22:2). 예수께서도 관습적으로 이 언어를 사용했다고 한다(27:46; 막7:34; 요1:42).
- (5) 이것은 초대 교회의 종교적 어휘에서 나타나는데 아바(Abba, 롬8:15), 마라나다(Maranatha, 고전16:22)와 같은 용어는 초기 신자들이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6) 고전 히브리어는 아람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 언어는 신학적 사고를 전달하려고 하던 학식있는 랍비를 제외하고는 에스라 시대 이후에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 (7) 이러한 언어들의 사용은 십자가 상에서 예수의 죄명이 히브리어(아람어), 라틴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요19:20). 실로 복음서가 기록될 때 팔레스틴에서는 이 언어들이 모두 유통되었고 알려졌던 것이다.
- (8) 기독교가 발생한 곳에서 이와 같은 언어 유통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 언어들로 표현된 문명과 문화의 영향이 기독교에 스며들게 하였고, 또한 이 언어들은 기독교를 전세계에 소개하는 수단이 되었다.

14. **㉠** 본서가 후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 ㉠** (1) 본서는 기록된 이후 수세기에 걸쳐서 상당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 (2) 특히 본서의 사본들이 다른 복음서들의 본문에 영향을 주었고(예를 들면 고대 시리아 역본), 예배 의식에 많이 애용되었으며,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훨씬 많은 회수로 인용되었다.
- (3) 무엇보다도 16:17-19과 같은 귀절이 가지는 교회적 영향력은 막대하게 컸다.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병행되는 귀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절이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라틴어로 새겨졌다.
- (4) 이처럼 본서는 후기 교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의 교훈과 삶을 정확하게 제공해 주는 참된 복음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15. **㉠** 본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메시아일 뿐 아니라 왕으로 소개하는 데 주력하였다.
- (2) 이러한 관점으로 본서를 구분한다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3) 첫째, 메시아로서 예수의 인격(1:1-4:16) 둘째, 메시아로서 예수의 복음 선포(4:17-16:20) 셋째, 메시아로서 예수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16:21-28:20)이다.
- (4) 정작 예수의 생애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의 삶이었고 또한 왕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삶이었다.
- (5)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 그분의 메시아와 왕적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주로 고백하게 된다.

16.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왕에 대한 소개 / 1:1-4:25
 - ① 왕의 가문 / 1:1-17
 - ② 탄생 / 1:18-2:23
 - ③ 세례를 받으심 / 3:1-17
 - ④ 시험을 받으심 / 4:1-11
 - ⑤ 사역의 시작 / 4:12-25
- (2) 왕의 설교 / 5:1-7:29
 - ① 천국의 시민 / 5:1-16

- ② 천국의 새 법 /5:17-48
- ③ 천국의 새 생활 /6:1-7:12
- ④ 천국 시민의 증거 /7:13-29
- (3) 왕에 대한 증거 /8:1-9:38
 - ① 증거 1 - 능력 /8:1-34
 - ② 증거 2 - 사죄(赦罪) /9:1-17
 - ③ 증거 3 - 권세 /9:18-38
- (4) 왕의 계획 /10:1-16:12
 - ① 계획의 선포 /10:1-11:1
 - ② 계획의 입증 /11:2-12:50
 - ③ 비유들 /13:1-52
 - ④ 도전받는 왕의 계획 /13:53-16:12
- (5) 왕의 교훈 /16:13-20:28
 - ① 교회에 관하여(베드로의 신앙 고백) /16:13-20
 - ② 자신의 수난에 관하여 /16:21-28
 - ③ 자신의 영광(변모)에 관하여 /17:1-21
 - ④ 배반하실 것에 관하여 /17:22, 23
 - ⑤ 세금에 관하여 /17:24-27
 - ⑥ 겸손에 관하여 /18:1-35
 - ⑦ 생활의 규범에 관하여 /19:1-26
 - ⑧ 천국에 관하여 /19:27-20:28
- (6) 왕의 현현(顯現) /20:29-23:39
 - ① 왕의 권세 /20:29-34
 - ② 왕의 입성 /21:1-11
 - ③ 성전을 깨끗케 하심 /21:12-17
 - ④ 무화과나무의 저주 /21:18-22
 - 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도전 /21:23-27
 - ⑥ 왕의 비유들 /21:28-22:14
 - ⑦ 왕의 선도 /22:15-23:39
- (7) 왕의 예언 /24:1-25:46
 - ① 성전의 파괴 /24:1, 2
 - ② 마지막 날에 대한 질문 /24:3
 - ③ 마지막 날의 징조 /24:4-28
 - ④ 재림의 징조 /24:29-31
 - ⑤ 비유들 /24:32-25:46
- (8) 왕의 수난 /26:1-27:66
 - ① 예비일 /26:1-16
 - ② 유월절 /26:17-30
 - ③ 배반당하신 왕 /26:31-56
 - ④ 심문받으시는 왕 /26:57-27:26
 - ⑤ 십자가 수난 /27:27-66
- (9) 왕의 권세 /28:1-20
 - ① 부활의 승리 /28:1-10

② 부활에 대한 거짓 보고/28:11-15

③ 왕의 지상 명령/28:16-20

17. ㉠ 본서의 중심 요절은 무엇인가?

㉠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6:16).

연구자료

마태복음에 인용된 구약 성경

본서에는 구약 성경이 128회나 인용되어 있다. 이중 대부분의 것은 다른 복음서에도 인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서는 서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동정녀 탄생 등에 관한 구약의 증거를 인용함으로써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밝혀 주고 있다.

| 장절 | 내용 | 출처 |
|----------|---|------------------------|
| 1: 1 -17 |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 대상 1:34;2:1-15; 3:1-19 |
| 1:23 |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 시 7:14 |
| 2: 2 |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 민 24:17 |
| 2: 6 |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 미 5: 2 |
| 2:15 |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 호 11: 1 |
| 2:18 |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 렘 31:15 |
| 3: 3 |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 사 40: 3 |
| 3:17 |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 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 시 2:7;사 42:1 |
| 4: 4 |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 신 8: 3 |
| 4: 6 |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 시 91:11, 12 |
| 4: 7 |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 신 6:16 |

| | | |
|------------|---|---|
| 4 : 10 | 사단이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 신 6 : 13 |
| 4 : 15, 16 | 스스로 땅과 납달리 땅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취었도다 | 사 9 : 1, 2 |
| 5 : 4 | 애용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임이요 | 사 61 : 2 |
| 5 : 5 |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 시 37 : 11 |
| 5 : 6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 사 55 : 1, 2 |
| 5 : 7 |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 시 18:25; 잠 11:17 |
| 5 : 8 |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 시 24 : 3 - 5 |
| 5 : 21 |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 출 20:13; 신 5:17 |
| 5 : 27 |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출 20:14; 신 5:18 |
| 5 : 31 |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 신 24 : 1 |
| 5 : 33-37 |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느니라 | 출 20:7; 레 19:12; 민 30:2; 신 5:11; 23:21; 사 66:1; 시 48:1, 2 |
| 5 : 38 |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 출 21:24; 레 24:20; 신 19:21 |
| 5 : 43 |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레 19:18; 신 23:6; 25 : 19 |
| 8 : 11 |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 시 107:3; 사 49:12 |
| 8 : 17 |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 사 53:4 |
| 9 : 13 |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 호 6 : 6 |
| 9 : 36 |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 민 27:17 |
| 10:35, 36 |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 미 7 : 6 |
| 11 : 5 |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 사 2:18, 19; 35:5, 6; 61:1 |
| 11:10 |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 말 3:1 |

| | | |
|-----------|--|-----------------------------------|
| 11:15 | 만일 너희가 즐겨 받으신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 말 4:5 |
| 11:23 |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 에까지 낮아지리라 | 사 14:12-15 |
| 11:24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 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 창 19:24 |
| 11:28 |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 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 리니 | 렘 6:16 |
| 12: 3, 4 |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 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 삼상 21:1-6 |
| 12: 5 |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 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 였느냐 | 민 28:9, 10 |
| 12: 7 |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 호 6:6 |
| 12:18-21 |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 사 42:1-4 |
| 12:40 |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 욘 1:17-2:10 |
| 13:14, 15 |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 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 사 6:9, 10; 렘 5:21; 겐 12:2 |
| 13:32 |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 뭇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 단 4:9-28 |
| 13:35 |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 시 78:2 |
| 13:43 |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 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 단 12:3 |
| 15: 4 |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 라 하셨거늘 | 출 20:12; 21:17; 레 20:9; 신 5:16 |
| 15: 8, 9 |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 서 멀도다... | 사 29:13 |
| 16: 4 |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 적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 욘 1:17-2:10 |
| 16:18 |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 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 시 89:4, 26, 88 |
| 16:27 |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 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 시 62:12; 잠 24:12 |
| 17: 5 |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 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 신 18:15; 시 2:7; 사 42:1 |
| 17:11, 12 |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 왕상 19:2, 10; 말 4: |

| | | |
|------------|---|--------------------------------------|
| |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 5, 6 |
| 18: 16 |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 신 19:15 |
| 19: 4 |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 창 1:27;5:2 |
| 19: 5 |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 창 2:24 |
| 19: 7 |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 신 24:1 |
| 19: 18, 19 | 살인하지 말라...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 출 20:12-14;21:17; 레 19:18;신 5:19, 20 |
| 19: 26 |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 창 18:14;욥 42:2 |
| 21: 5 |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 사 62:11;슥 9:9 |
| 21: 9 |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 시 118:26 |
| 21: 13 |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 사 56:7;렘 7:11 |
| 21: 16 |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 시 8:2 |
| 21: 33-41 |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듦과... | 시 80:9;사 5:1-7 |
| 21: 42 |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 시 118:22 |
| 21: 44 |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흙으리라 | 사 8:14, 15;단 2:34, 35 |
| 22: 24 |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 신 25:5, 6 |
| 22: 32 |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 출 3:6, 15 |
| 22: 37 |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 신 6:5 |
| 22: 39 |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 레 19:18 |
| 22: 44 |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둔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 시 110:1 |
| 23: 5 |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습을 크게 하고 | 출 13:9;신 6:8;11:18 |
| 23: 23 |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심일조잡 드리되... | 레 27:30;미 6:8 |

| | | |
|-----------|---|--|
| 23:35 |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 창 4:8; 대하 24:20, 21 |
| 23:38 |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 렘 12:7; 22:5 |
| 24:15 |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 단 9:27; 11:31; 12:11 |
| 24:21 |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 단 12:1; 욥 2:2 |
| 24:24 |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들을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 신 13:1 |
| 24:29 |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 단 8:10; 욥 4:16; 암 5:20; 8:9 |
| 24:30 |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 사 13:9, 10; 겔 32:7, 8; 단 7:13; 습 1:14-16 |
| 24:37-39 |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 창 6:9-7:24 |
| 25:31 |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 속 14:5 |
| 25:46 |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 단 12:2 |
| 26:28 |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 출 24:8; 레 4:18-20; 렘 31:31; 속 9:11 |
| 26:31 |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뉘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 속 13:7 |
| 26:64 |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 시 110:1; 단 7:13 |
| 26:65, 66 |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 레 24:16 |
| 27:9, 10 |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토기장이의 발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 렘 18:2; 19:2; 32:6; 속 11:13 |
| 27:24 | 빌라도가...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 신 21:6-9 |
| 27:34 | 술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 시 69:21 |
| 27:35 |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 시 22:18 |
| 27:46 | 제 구시 즘음에...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 시 22:1 |

제 1 장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다

단락구분 1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世系) / 2-5 14평민 계보(아브라함에서 이새까지) / 6-11 14왕족 계보(다윗에서 요시아까지) / 12-16 14평민 계보(여고냐에서 예수까지) / 17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종합적인 계보 / 18-23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 예언되다 / 24-25 요셉의 순증

- 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 2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 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 4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 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 6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 7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얌을 낳고 아비얌은 아사를 낳고
- 8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 9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 10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 11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 12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 13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 14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 15 엘리웃은 엘리아살을 낳고 엘리아살은 맛단

- 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 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 17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 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 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 네 대라
- 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실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 19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 22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르러 하심이니 가라사대
-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 24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 25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 26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1. ㉠ 본장에 나타난 족보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1-17절에 제시되어 있는 족보는 단지 하나의 부록에 불과한 문서가 아니다. 그것은 본장 전체의 요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런 까닭에 이 족보의 표제(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우고 있다(참조, 6절).
- (2)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20절에서 다시 나타나는데 그곳에서는 예수의 아버지

(참조, 눅 2:48)인 요셉에 대하여 적용이 되고 있다.

- (3) 그러나 예수에 대한 요셉의 관계가 16절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서술되고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요셉을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음이 이 귀절에서 분명히 밝혀진다.
- (4) 이 족보에서 마태가 암시하고 있는 사실은 요셉이 자연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오직 법적인 의미에서만 아버지라는 점이다. 18-25절에 뒤따라 나오는 아름다운 기사에서 상세히 설명되고 있는 사실이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아들(人子)이신 그분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 그분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참 자손이시며 오직 그분 홀로 이스라엘과 인류의 참소망이시다.

2. **㉠** 본서의 족보가 지닌 의의(意義)는 무엇인가? (1-17절)

- ㉠** (1) 본서의 족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사실을 강조한다. 구약의 많은 부분들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적인 혈통을 있다고 믿어왔다(22:42).
- (2) 예수께서는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어졌다(참조, 9:27; 12:23; 15:22; 20:30; 21:9).
- (3) 이런 의미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족보로 증명해 두려고 했다. 이러한 작업은 족보를 중요시하는 유대인에게는 절대적인 조건이었다.
- (4) 이 사실이 현재 우리에게는 메시아의 왕권에 대한 문제로 다시 제시되며, 이런 왕권은 세상 끝날의 심판자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연결되어진다(참조, 골 1:13; 계 11:15).

3. **㉠** 본서와 누가복음 족보(눅 3:23-38)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라(1-17절).

- ㉠** (1) 유사점:
 - ① 본서의 첫 14명의 이름(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은 누가복음의 기록과 일치한다.
 - ② 그 후에는 '스룹바벨'과 '스알디엘'이 두 족보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 (2) 차이점:
 - ①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이 대부분 서로 다르다.
 - ②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를 기록한 본서의 족보는 예수부터 아담과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누가복음의 족보보다 훨씬 짧다.
 - ③ 본서는 누가복음보다 더 많이 생각을 했다. 본서의 족보에는 '다윗'과 '스알디엘' 사이에 16인의 이름이 기록된 데에 반해 누가복음에는 22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 ④ 본서의 족보는 한 문단에 14(2×7)인씩 기록된 세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름이 한 번씩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은 규칙적이지 못하다.
 - ⑤ 본서의 족보는 하향적(아버지에서 아들로)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상향적(아들에서 아버지로)이다.
- (3) 우리는 이러한 차이점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 ① 본서는 요셉의 가계에 따라서 족보를 제시했으며,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가계에 근거하여 족보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 ② 본서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족보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 ③ 족보에 제시된 가계에는 수혼(媾婚: 과부가 고인의 형제와 결혼하는 관습)에 의해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④ 유대인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 쓰여진 본서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 ⑤ 또한 전세계를 상대로 쓰여진 누가복음의 족보가 '아담과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라고 끝을 맺은 것은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메시아인 예수님은 전인류에게 중요한 분

이시고 인류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4. ㉠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1절)

- ㉠ (1)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선택된 사실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2) 첫째,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로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창 12:2; 15:4; 17:2-4; 22:18)과 다윗(삼하 7:12-16)과 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예수의 탄생은 이런 약속의 성취였다.
 (3) 둘째, 이 두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요(창 15:6; 롬 4:3), 경건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신앙적 계통을 밟아 메시아가 오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4) 셋째,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요(창 17:5, 6), 다윗은 열국의 통치자의 전형이었다. 그러므로 하나의 왕적 혈통을 지니고 만국의 우두머리요 통치자로서 계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담대히 지적할 수 있다.
 (5)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배려(配慮)임을 깨닫게 해준다(참조, 요 3:16).

5. ㉠ '예수'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1절)

- ㉠ (1) 이것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참조, 수 1:1; 스 3:1)의 단축형인 <여호수>가 헬리어화된 형태인데,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란 의미이다.
 (2) 구약에서 이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수 1:1)와 스룹바벨 시대의 대제사장(스 3:1)이다. 이들은 백성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았음 뿐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3) 예수께서는 그 이름에서도 그가 오신 목적을 그대로 투영(投影)하고 계신다.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히 감사만 올릴 뿐이다(참조, 요 3:16; 살전 5:18).

6. ㉠ 직분상의 이름인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1절)

- ㉠ (1) 이 명칭은 히브리어 <메시아호>에 해당하는 헬리어<크리스토스>이며(참조, 요 1:41),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2) 좀더 상세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바로 양육하고 다스리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되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다(참조, 사 61:1; 눅 4:18; 히 1:9).
 (3)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이런 기름 부음의 예식이 행해졌는데 주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이와 같은 일이 실시되었다(참조, 레 8:12; 삼상 10:1).
 (4) 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선지자(참조, 신 18:15; 사 55:4; 행 3:22; 7:37)와 유일하신 대제사장(참조, 시 110:4; 히 10:12, 14)과 영원하신 왕(참조, 21:5; 시 2:6; 스 9:9; 눅 1:33)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5)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날마다 삶의 올바른 길을 제시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메시아(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7. ㉠ '세계'(世系)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1절)

- ㉠ (1) '세계'(헬, 비발로스 게네세오스)란 말은 '출생' 또는 '기원'과 '세계'(世系)등을 기록한 책을 가리킨다.
 (2) 즉 '세계'란 한 가정의 족보(참조, 창 5:32; 6:9; 11:10) 또는 인류의 생성 과정(참조, 창 2:4)을 알려 주는 부피가 별로 크지 않은 기록서를 가리킨다.

- (3) 본서에서 이것은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의 출생의 대략을 밝혀 주는 역사적인 증빙 자료라는 측면에서 취급되어야 한다.
- (4) 정작 본서는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제시해 준다. 그 속에는 그분의 성격이 나타나 있고, 지상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생활 전모(全貌)가 투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서는 우리를 충분히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며, 그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참조, 요 15:26, 27).

8. **㉠** 야곱의 열 두 아들들 중에서 유독 유다만 족보에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그것은 치리자(治理者)의 지팡이인 훌(笏)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야곱의 예언(창 49:10) 때문이다(참조, 히 7:14).
- (2) 법적으로는 야곱의 12아들(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잇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중에 르우벤이 장자였고, 특별히 야곱은 요셉을 지명하였지만(참조, 창 48:6),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높이셨고 그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출생시키셨다.
- (3) 이러한 일은 인간의 공로나 어떤 뛰어난 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 의지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정되었다(참조, 롬 9:16).
- (4) 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진리로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궁극적인 의미에서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경륜 때문이다(참조, 엡 1:3-14).

9. **㉠** '다말'은 어떠한 여자인가? (3절)

- ㉠** (1) 유다의 장자인 '엘'의 아내이다(창 38:6).
- (2) 첫째 남편 엘이 죽고 계대 결혼의 풍습을 따라 그 동생인 '오난'에게 시집갔으나 그 남편이 대(代)를 잇지 않으려는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자, 다말은 유다의 세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과부로 기다려야만 했었다.
- (3) 그러던 차에 시부(媳父) 유다가 다말이 살고 있는 딤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娼女)로 변장하여 시부 유다와 정을 통한 뒤에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참조, 창 38:12-30).
- (4) 예수의 족보에는 다말 외에도 라합, 롯, 밧세바 등 3명의 여인 이름이 더 등장한다. 이 중에서 라합(수 2:1)과 롯(룻 1:4)은 이방 출신이었고 다말과 밧세바(삼하 11:3, 4)는 정결치 못한 여인이었다.
- (5) 이처럼 불완전하고 부정한 인격들이 완전하신 예수의 조상들로 등장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칼한 일일 수밖에 없다. 한편 예수께서 이런 죄인들의 혈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뜻에 의해서였다(1:21).
- (6) 즉 그리스도는 '죄있는 육체의 모양'(롬 8:3)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할 때에는 우리와 더불어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으신다는 사실을 이런 족보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참조, 눅 15:10).
- (7) 더우기 부정한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과 전통 그리고 인습에 얽매어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늘날의 편협한 심성을 지닌 무리들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 예수께서는 어떠한 인격에게도 찾아가셔서 당신의 뜻을 실현하시며, 당신의 사랑을 전하실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항상 교제할 수 있으며 그 교제의 폭을 이웃에게까지 넓힐 수 있다.

10. **㉠** 역대 왕들의 사적에 대해 비교 설명하라(7-11절).

㉠

| 왕 이름 | 사적 및 통치의 특징 | 생애에서 배우게 되는 교훈 |
|------|--------------------|--------------------|
| 르호보암 | '내 부친은 너희의 명에할 무겁게 | '가나안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 |

| | | |
|----------------------------------|---|---|
| |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명을 더욱 무겁게 할지라' (왕상 12:14) | 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으니라' (잠 28:15, 참조, 20:28) |
| 아비야와 아몬 | '아비야가 예루살렘에서 삼 년을치리 하니라...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왕상 15:2,3). '아몬이...이 년을 치리하니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왕하 21:19-23) |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시 73:18, 19) |
| 3인의 개혁가요, 증재자인 아사와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대하 14:11). '여호사밧이...가로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대하 20:5, 12). '히스기야가...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왕하 19:15, 19) |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 50:15) |
| 요 랍 |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대하 21:6) |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잠 12:4) |
| 웃시야 | '저가 강성하여지매 그 마음이 교만하여...여호와와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대하 26:16) |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쁨보다 나으니' (삼상 15:22, 참조, 잠 16:18) |
| 요 담 | '저가 여호와와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을 건축하여 수졸 가운데 견고한 영채와 망대를 건축하고' (대하 27:3) |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를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시 48:12, 13) |
| 아하스 |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대하 28:22) |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흔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 6:7) |
| 므낏세 | '여호와께서...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낏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왕하 21: |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 12:1) |

| | | |
|-----|---|--|
| 므낏세 | 10-12)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김비하여' (대하 3:12) | |
| 요시아 | '요시아가 여호와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왕하 22:2) |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삼상 2:30) |
| 여고나 | '여고나'(혹은, 여호야긴)가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저가 여고나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왕하 24:9, 12, 15) |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삼상 2:30) |

11. ㉠ 마태가 본서의 족보를 14대로 3분해서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 ㉠ (1)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수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의 완성을 가리킨다. 일곱의 두 곱인 열 넷이라는 수자도 역시 같은 개념을 가진다. 한편 이러한 분류의 세제 부분에는 13대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여러 학설이 있으나 '다윗'을 재언급하여 14대로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Delitzsch).
- (2) 족보의 전체 대수인 마흔 둘이라는 수자는 일곱의 여섯 배에 해당하며 이어서 바로 일곱번째의 일곱 곱 이중적인 완성을 소개한다.
- (3) 본서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14대로 3분한 전체 명단 맨 끝에 언급되어 있고 또한 그 뒤에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이 나타난다.
- (4) 이것은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옛 약속을 성취시키며 새 약속으로 인도하여 주실 분으로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수를 맞추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 (5) 정작 그리스도 안에서 옛 것과 새 것이 서로 만난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만물의 핵심이요, 또한 중심이다(참조, 계 1:8;21:6).
- (6) 그분을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실로 구속사의 과정에서 여기 족보의 큰 세 단계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영원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실현됨을 의미한다(참조, 요 19:28-30).

12. ㉠ 마리아는 당시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가? (18절)

- ㉠ (1)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다. 다시 말해 이들은 결혼하기로 엄숙히 서약한 사이였던 것이다.
- (2) 마태는 그의 출발점을 정혼 직후의 어느 시점에 두고 있다. 유대인 사이의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한층 더 신중성이 있고 결속력이 있는 약속이었다.
- (3) 신부와 신랑은 자신들의 혼약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로 맹세했는데 한정된 의미에서 이것은 본질적으로 결혼에 해당되는 일이었다. 본장에서 바로 정혼한 순간부터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19절)이라 부르고 마리아를 아내(20절)로 부른 사실에도 분명히 나타난다.
- (4) 두 사람이 지금 법적으로는 부부 사이가 되었으나 한 가정을 이루어 동거하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가능했다. 마리아가 자신의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요셉과 동거하기 이전이었다.

- (5) 이것은 마리아가 요셉과 한번도 동침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마리아는 아직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가져본 일이 없는 처녀였으며 완전한 의미에서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였다.
- (6) 이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알려 주는 말이다. 특히 마태는 본질의 마지막 귀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13. **㉠**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20절)

- ㉠** (1) 이 말은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신적인 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함으로써 인간 마리아의 태 속에서 태아가 있게 만드셨다는 뜻이다.
- (2) 즉 만물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창 1:2, 26)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成肉身)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말이다.
- (3)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밝혀 주는 좋은 예이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만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없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화(化)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요일 4:2).
- (4) 사람들은 흔히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기사에 대해 믿으려 들지 않는다. 그러나 보통 인간의 잉태와 출생의 전과정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에는 무관심하다.
- (5)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과 인간을 손수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자의 출생을 주도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다(참조, 시 104:30).
- (6) 더우기 이러한 기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요 3:1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한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가장 기쁘고 감사하게 수납하지 않을 수 없다.

14. **㉠** 마리아의 잉태 사실에 대해 요셉은 어떻게 행했는가? (19절)

- ㉠** (1) 그는 마리아를 사랑하였고 또 아내로 맞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의로운 사람이었고(참조, 욥 1:8; 눅 1:6), 결혼 서약의 파기를 매우 신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규범 있는 사람이었다.
- (2) 당시의 관습에 따라 그는 두 가지의 방법을 취할 수 있었다. 먼저 마리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고 어떠한 법적 소송도 제기하지 않으며 조용히 버리는 길(참조, 5:32; 신 24:1, 3)이 있었다.
- (3) 전자를 택하게 되면 자기와 정혼했던 마리아가 돌로 쳐죽이는 사형을 당할 수 있고 또한 공공연한 망신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므로 요셉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방법을 피하려고 했다. 즉 그는 후자의 방법으로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 (4) 이처럼 의로운 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급히 대하지 않고 심사 숙고한다(참조, 20절; 잠 15:28). 또한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하고(24, 25절) 모든 일을 자비롭게 처리한다(시 37:21, 26).
- (5) 이와 같은 요셉의 처사는 사소한 문제마저도 법에 호소하고 형제의 아픔을 들어주지 않으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인 우리에게 형제 사랑에 대한 깨우침을 준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어야 한다(참조, 18:21-35; 빌 2:1-4).

15. **㉠** 요셉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0절)

- ㉠** (1) 하나님은 천사로 하여금 그에게 행할 일들을 지시하시고, 그를 안심케 하였다.
- (2) 천사는 이미 마리아에게 알려 주었던(눅 1:35) 사실 곧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람에 의한 자연적인 수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란 점을 밝혀 주었다.

- (3) 또한 천사는 요셉에게 그의 아내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주저하지 말라고 했다.
- (4) 이제 요셉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는 그 일을 막는 장애가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결코 부정한 신부가 아니었다. 요셉은 안심하고 자기 아내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 (5)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며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일을 궁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친히 조언하셨다.
- (6) 우리가 유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시는 시기는 그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망서릴 때이라는 점이다. 하나님의 위로는 생각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당황하는 허다한 일들의 처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 그 영혼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다(참조, 시 23:1-6).

16. ㉠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제시한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21절)

- ㉠ (1)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명명하라고 계시하였다.
- (2)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까지 해석해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의미이다.
- (3)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지고(至高)하시며 오직 그분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강조되고 있다(참조, 창 49:18; 왕하 19:15-19; 대하 14:11; 20:5-12; 시 3:8; 25:5; 37:39; 사 12:2; 렘 3:23; 속 4:6).
- (4) 신약 성경에서도 그 사실이 강하게 지적되고 있다(참조, 19:28; 28:18; 눅 12:32; 18:13, 27; 요 14:6; 행 4:12; 엡 2:8; 빌 2:12, 13; 계 1:8; 3:7; 5:9; 19:1, 6, 16).
- (5) 구원받는다든 사실은 가장 큰 악(죄와 죄책, 죄의 세력,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어 가장 큰 선을 소유하게 됨을 의미한다. 본절에서는 구원의 소극적인 면, 곧 죄로부터의 구원만 언급되어 있다.
- (6) 그러나 이 말 속에는 구원의 적극적인 면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같은 뜻이기 때문이다.
- (7) 즉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참된 행복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빌 4:7), 참자유, 영광으로 충만한 형언할 수 없는 기쁨, 기도의 응답, 영향력 있는 간증과 확신 등을 얻도록 하기 위한 구원이다(참조, 요 3:16, 17; 롬 5:9; 살전 5:9; 살후 2:13; 벧전 1:5).
- (8)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참조, 엡 2:1)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그 어떤 세사적, 물질적 풍요보다는 '예수'라는 이름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을 지탱시킬 수 있다(참조, 요 14:6).

17. ㉠ 예수께서 구원하실 자는 누구인가? (21절)

- ㉠ (1) 예수께서 구원하실 자는 '자기 백성'(참조, 요 3:16), 즉 자기에게 소속된 자들이다(참조, 요 10:4, 11).
- (2) 혹자는 여기서 '자기 백성'이란 원래 유대인(육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찾아오신 예수를 거부하므로 인해 이러한 자기 백성 개념은 영적인 의미로 발전하여 모든 이방인들로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고 한다(참조, 10:6; 렘 50:6).
- (3) 이러한 발전 개념은 어느 정도 호소력이 있으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영역을 제한시키는 듯한 인상을 주며 요 3:16에서 자기 백성의 한계를 '세상', 즉 이방인을 포함한 사람이 살고 있는 전세계와 전인류로 정하고 있다(참조, 고후 5:19)는 사실로 보아 위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 (4) 그러므로 '자기 백성'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미리 정해 두신 믿음의 자손들

모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참조, 롬 10:4, 11-13).

18. **㉠** 마태가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22절)

- ㉠** (1)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란 점을 강조하려 했기 때문이다.
 (2) 본절과 같은 문장은 본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2:15, 17, 23; 4:14; 5:18; 8:17; 12:17; 13:35; 21:4; 26:56; 27:9, 35). 사실 신약은 구약의 성취이며,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3)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전·후에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후에 주어진 계시는 이전에 주어진 계시에서 그 근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시간을 초월하여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증거하는 사실이다.
 (4)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자기가 믿는 교회나 교파만을 중시하여 지나친 독선(獨善)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의뢰하는 이웃마저도 정죄하고 어리석게 보는 바리새적인 교인들에게 참된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한 형제여야 한다(참조, 요 10:16).

19. **㉠**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사 7:14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다. 당시의 배경을 설명하라(23절).

- ㉠** (1) B. C. 7세기 초엽에 유다 왕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의 동맹군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 위기에 직면한 왕과 백성들이 모두 깊은 절망과 불안에 휩싸여 있을 때 선지자 이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구원의 표징이 될 만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본절의 내용이다.
 (2) 이 말씀의 뜻은 비록 지금은 괴롭고 불안하지만 처녀가 수태하여 낳은 아들이 자라서 그들을 끝내 구원할 것이라는 위로의 메시지이다.
 (3)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는 이 예언은 단순히 역사적 산물로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분명히 장차 임하실 메시야에 대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4)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윗의 집안이 망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와 같은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보살피 주신 연고였다(참조, 사 8:10).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윗의 혈통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거를 유대인에게 확신시키는 좋은 증거가 된다(참조, 16:16)

20. **㉠**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지닌 교리적 의의는 무엇인가? (23절)

- ㉠**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의 한 분이시며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의 양면성을 지닌 분임을 나타내 준다.
 (2) 실로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와 초자연적인 구원은 그 필연적 결과로서 초자연적인 탄생을 수반하여야 한다.
 (3) 만일 그리스도가 일반적인 출생 원리에 따라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면 그는 한 인간에 불과하며 따라서 아담의 죄를 지닌 자가 되어 결국 다른 사람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 버린다(참조, 롬 5:12).
 (4)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구주는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인간, 곧 죄 없는 인간이셔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야만이 인간이 지닌 죄 문제를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참조, 히 9:23-10:18).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이 두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켜 준다.
 (5)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가 도저히 측량해 볼 수 없는 오묘한 일들이며, 우

리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이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된다.

- (6) 다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족하다. 사도신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라는 신앙 고백을 그대로 믿자(참조, 램 32:17, 27).

21. ㉠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인가? (23절)

- ㉠ (1)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을 분석하면 '함께 하다'는 뜻의 '임'(with)과 '우리'라는 '마누'(us)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God)이 하나의 단어, 즉 '임마누엘'(God with us)을 이루게 된 것이다.
- (2) 이러한 내용은 사 7:14; 9:6, 7에서 예언되었다. 그러므로 요셉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된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참조, 골 2:6; 딤펴전 3:16).
- (3)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었다(요 1:14). 즉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거하게 하신 것이다(요일 4:10). 그 누구도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거하시게 된 이 은혜의 풍성함을 다 헤아릴 수 없다.
- (4)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성(人性)을 입으셨으나, 그 자신이 죄에 오염됨이 없이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며(요 1:29)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찢리셨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상하셨다(사 53:5).
- (5) 또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가셨으며, 우리 안에 그의 영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요 14:26).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실 뿐 아니라, 항상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실 뿐 아니라(참조, 28:20)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히 7:5).
- (6)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와 더불어 계시어 역사하시는 예수를 인식해야 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한다(참조, 갈 2:20).

22. ㉠ 잠에서 깨어난 후 요셉의 행동은 어떠하였는가? (24, 25절)

- ㉠ (1) 요셉은 천사가 분부한 대로 행하였다.
- (2) 그는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을 뿐 아니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지어 붙였다. 물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온전히 마음을 합하여 행동을 취하였다(참조, 눅 1:31, 38).
- (3) 또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마태가 언급한 목적은 예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다루기 위해서였다.
- (4) 실로 요셉이 이렇게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고민을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속 4:6).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혈육이 아닌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 (5)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19절). 또한 그는 생각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을 황급히 맞이할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침착하게 맞이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요,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 (6)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요셉과 같이 거룩한 생활을 하고 신중히 생각하며 간절한 기도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절대 순종의 태도를 가질 때에 비로소 이러한 성숙함이 주어진다(참조, 삼상 13:23; 시 65:2).

제 2 장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단락구분 1-8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찾다 / 9-12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발견하고 그를 경배하다 / 13-15 헤롯의 잔인한 계획 때문에 그 부모가 아기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피신시키다 / 16-18 헤롯이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들을 학살하다 / 19-23 그리스도께서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귀환하다

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노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노라 물으니

5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7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9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10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2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13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4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붙들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16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17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18 라마에서 슬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19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20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21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22 그러나 아렐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 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 나사렛이란 동리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1. ㉠ 본장에서는 예수의 유아 시기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 ㉠ (1) 마태는 그리스도의 유아 시기에서부터 극히 대조적이며 의미 심장(意味深長)한 사건 두 가지를 선택하여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그분을 유대인들의 왕으로 경배했

다는 사실과 유대인들의 왕이 그분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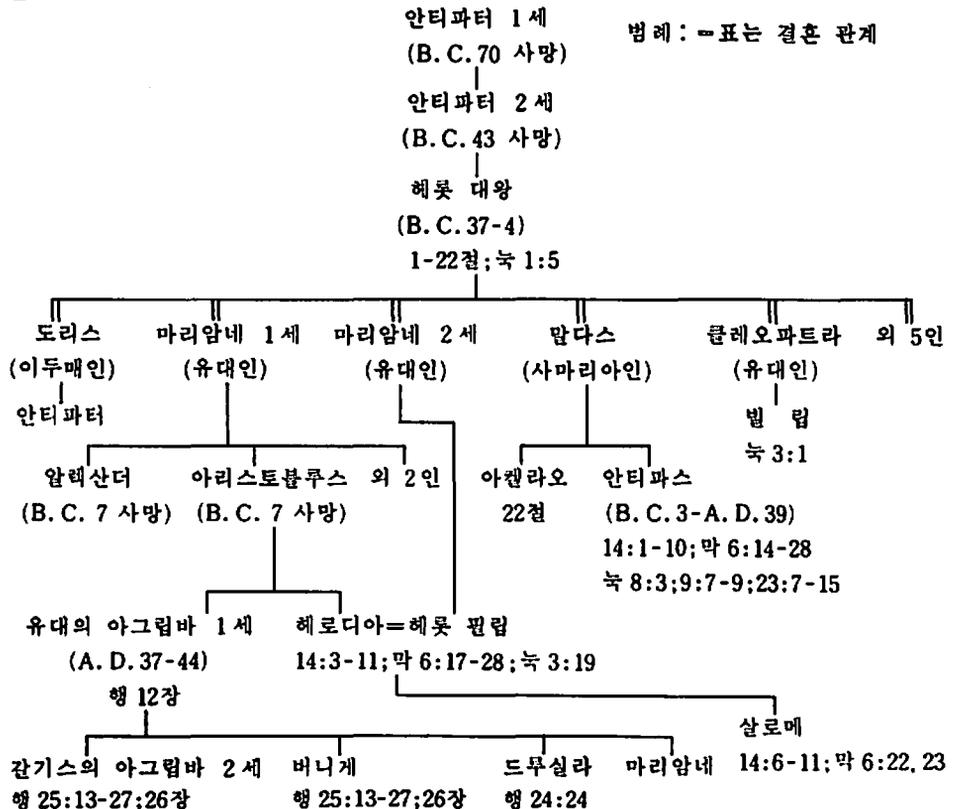
- (2)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 많은 이 땅에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오셨으나 막상 그 왕국의 시민이 되어야 할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아이로니컬한 환경을 만났던 것이다.
- (3) 마태가 이것을 꼬집어 내어 말하지는 않았으나, 두 사건은 메시아이신 왕과 그의 왕국에 대하여 예언적인 뜻을 내포한다(참조, 27:11,37; 램 23:5; 요 1:49).
- (4) 본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찌기 어떻게 고난을 당했으며, 자신이 먼저 모든 의를 이루시기 전에 그에게서 의의 말씀이 성취된 사실을 찾아 볼 수 있다(참조, 호 11:1; 미 5:2).

2. **㉠**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1절)

- ㉠** (1) 그는 일명 헤롯 대왕(Herod the Great)이라 불리어졌다(눅 1:5) 그는 에돔 사람 안티파터(Antipater II)의 아들이며 처세술에 능하고 백성을 압제하는 일에 능수 능란하였다. B. C. 40년 안토니우스(Antonius)에 의해 유대의 분봉왕(分封王)으로 임명되고 B. C. 37년에 취임하여 B. C. 4년에 예리고에서 죽었다.
- (2) 그는 유대인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제 3 성전(헤롯 성전)을 건축했으며 그의 가족은 대부분이 정치적인 인물들이었다(참조, 22절; 14:1-10; 눅 3:1). 더우기 그는 비도덕적인 인물로서 자신의 후손들도 이러한 그의 부패스러운 삶을 따르게 만들었다.
- (3)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시지만, 그들이 옴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내린 존귀와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징계로 대신하신다(참조, 5:7-9).

3. **㉠** 헤롯 왕의 계보표 도시(圖示)하라 (1절).

㉠



4. ㉠ ‘헤롯 왕 때’는 언제를 말하는가? (1절)

㉠ (1) B. C. 5년 말경이라고 본다(Hendriksen).

(2) 1절과 19절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그 귀절들이 예수께서 헤롯이 죽기 바로 얼마 전에 태어나셨다는 견해를 지지해 준다. 헤롯이 B. C. 4년 월식이 있는 직후에 죽었으므로 B. C. 5년이 가장 적당하다.

(3) 그때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악이 횡행(橫行)하여 주께서 오실 때가 차있었다(참조, 갈4:4).

5. ㉡ 마태가 베들레헴이 유대에 있는 고을이라고 명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1) 미가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진실로 성취되었기 때문이다(미5:2). 더우기 갈릴리 지방에 위치한 동일 지명(수14:15)과 구분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한다.

(2)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7km 지점에 있는 다윗의 옛 고향이다(참조, 삼상16:1). 이곳을 구약에서는 ‘에브라’ (창48:7; 룻1:2; 삼상17:2) 혹은 ‘에브라다’ (미5:2)로 불렀다.

(3) 성경의 베들레헴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참조, 창35:16-20). 라헬이 죽은 뒤에 야곱은 이곳에 라헬의 무덤을 표시하기 위하여 기둥을 세웠다. 베들레헴은 야곱에게 큰 슬픔을 준 곳이었다.

(4) 야곱은 베들레헴을 죽음의 장소로 여겼지만 예수의 탄생은 그곳을 생명의 장소로 만들었다. 그분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구원과 장차 다윗의 왕위와 왕국의 확립이 이루어질 것이다.

(5) 특별히 ‘떡 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지닌 베들레헴은 유대 지경 안에서 가장 비옥한 지대 가운데 한 곳으로서 주위의 성읍들에 양식을 공급해 줄 만큼 풍요로웠다. 예수께서는 이곳에서 나서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다(참조, 요6:35).

(6) 오늘날 베들레헴을 장래의 장소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로 생각한다.

(7) 그분은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우리들 장래에 밝은 희망을 가진다. 장차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는 영광스러운 성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참조, 계21:1-7; 22:1-5).

6. ㉢ ‘동방 박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1절)

㉠ (1)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점성학자로 규정한다.

(2) 그들은 페르시아(Persia)인들이었다고 간주한다. 그 이유는 원문에서 박사란 말이 마고이(magoi) 혹은 마기(magi)로 표기되었는데, 이 말은 이란어에 기원을 둔 말이기 때문이다.

(3) 여하튼 그들은 온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고, 헤롯 왕을 접견할 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상류인임에 틀림없다(참조, 3, 7절).

(4)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그들이 이방인들이었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예수는 ‘세상의 구주’(요4:42)로 오셨다. 한편 박사들은 부유했고(참조, 11절),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다(참조, 2절).

(5)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계시 아래에서는 어떠한 학자라도 예수의 발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어’ 있고(골2:3),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골2:9).

7. ㉣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됨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 사실은 무엇을 알려 주는가? (2절)

㉠ (1) 박사들이 유대 출신이 아니라 먼 나라의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밝혀 준다.

- (2) 이 명칭은 '다윗의 자손' (1:1;9:27;12:23)이라는 말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예수께서는 이 명칭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다 (27:37).
- (3) 이처럼 그리스도의 탄생을 먼저 안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이방 나라에서 사는 이방인들이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친백성이라 교만해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무지로 인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멸시했던 이방인들이 경배했던 것이다. 이것은 분명 지혜로운 경륜에 따른 것이다.
- (4) 즉 자기들을 구원해 줄 구주가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구주를 영접하지 않았다 (참조, 요1:11).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니, 얼마나 서글픈 광경인가!
- (5)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은혜의 수단에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자주 그것들을 가장 소홀히 하고 있다. '교회될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더 멀어진다'라는 옛 속담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 (6) 주거 환경과 그 편리함에서 볼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언제나 꼴찌가 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맨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언제나 첫째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참조, 19:30).

8. **㉠** 박사들은 무엇을 보고 따라왔는가? (2절)

- ㉠** (1) 하나님은 박사들에게 특별한 표적을 주셨는데, 그것은 왕의 탄생을 알리는 기적의 별이었다. 혹자는 이 별을 하나님의 별이라고도 한다.
- (2) 한편 메시아를 별로 상징하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민 24:17;계 22:16) 발견된다. 그러므로 별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3)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개인을 독자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개인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개인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이 된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교만과 불순함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도, 인도자도 되어 주시지 않는다.

9. **㉠**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헤롯 왕이 소동한 이유는 자신의 왕권에 위협당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고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은 정국이 불안할 때마다 백성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이었다.
- (2) 이때는 헤롯의 통치 말년이었으며 그의 나이 70세였다. 그렇지만 그는 폭군이었고, 집권 욕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박사들이 전한 소식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 (3) 메시아의 오심은 인류의 보편적 여망이었고 그 대망이 실현된 것이다. 이전에 선지자는 외쳤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말3:2).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일대 경이적인 예언이다.
- (4)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은 유대 사회에서 사라지고 박사들이 방문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 즉 하나님의 경교가 그들의 사고와 삶 속에서 완전히 묵살되었다. 그들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야 비로소 메시아의 오심을 알 수 있었다.
- (5) 이처럼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학정 아래 있던 자신들의 억울한 처지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었고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단순히 피상적인 존재로 여겨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생을 주기 위해 찾아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영접할 수 없었던 것이다.
- (6) 그런데 갑작스런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준비되지 않은 모습

이었기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 사람이란 죽음이 임박하면 두려워 떨게 되는 법이다. 심판에 대한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떨게 만드는 것이다. 자신이 공포에 짓눌려 두려워하는 마음은 회개와 전적으로 다르다.

- (7) 두려움이란 위기 의식이 없어지면 그와 동시에 사라지지만, 회개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영원한 변화를 가져온다(참조, 고후5:17).
- (8) 한편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절대 선(善) 이시며 의(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들의 추함과 죄악됨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까지 율법은 있었으나 행함이없는,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 생활을 영유하고 있다. 이처럼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 (9) 메시아의 오심을 머리로만 고대하고 있었지 가슴과 생활로는 전혀 준비가 없었던 2000여 년 전의 유대인들처럼 혹시 우리도 단지 피상적으로만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세에 대한 하나님의 경종이 울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은 주께서 도래하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순수하고 성실해야 할 것이다(참조, 24:44-46).

10. ㉠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모아 그리스도의 나신 곳을 묻은 목적은 무엇인가? (4절)**

- ㉠ (1)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곳을 알아내어 자신의 정적(政敵)이 될 만한 자를 일찌감치 없애 버리기 위해서였다.
- (2) 헤롯은 그가 바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공식 대표자들 곧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 들을 불러모았다.
- (3) 대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종신적으로 수행하던 것으로서 단 한 명만이 이 직책을 맡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대제사장 외에 그의 대리자, 전직자(前職者) 또는 그의 가족 중 탁월한 인물도 모두 대제사장이라고 호칭되었다.
- (4) 또한 랍비 또는 율법사라고도 불리어졌던 서기관들은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일을 맡아 하던 자로서 율법 학자들이었다(22:35).
- (5) 이러한 종교의 지도자들이 세상 권력과 결탁하여 순수한 여호와 종교를 변질시키고 오히려 진실한 성도를 억울하게 했다.
- (6) 종교 지도자라면 세상의 악에 대하여 올바르게 지적해야 한다. 패역(悖逆)한 세상에서 종교 지도자마저 입을 닫거나 권력의 이용물이 된다면 이것은 자신과 온 교회의 패망을 자초하는 일이다(참조, 14:4).

11. ㉠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5, 6절)**

- ㉠ (1) 그들은 즉각적으로 미5:2의 말씀을 인용하여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말했다.
- (2) 실로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고 헤롯의 질문에 즉각 대답할 수 있는 성경 지식도 갖고 있었다.
- (3) 그러나 그들은 오실 구세주를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결코 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 사이에서 사역(使役)을 하였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 (4) 그들의 지성은 그들의 의지와 감정보다 더 뛰어났다. 즉 두뇌의 지식으로 만족하여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신앙 태도에 우리 모두 조심하도록 해야 한다.
- (5) 지식은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는 훌륭하지만, 진리의 길을 가로막을 때는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된다. 우리가 듣고 보고 아는 바를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참조, 약1:22).

12. ㉠ **헤롯은 박사를 불러 어떻게 하였는가? (7, 8절)**

- (A) (1) 헤롯은 박사들을 자신의 개인적인 염탐군으로 이용하려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 그 아기를 철저히 수색하여 찾아서 그 결과를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명했다.
- (2) 또한 덧붙여 자신도 경배하겠다고 말한다.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도록 하라'고 말했지만 이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었다. 겉으로는 경배하겠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었다.
- (3) 그러므로 헤롯이 한 말은 자신의 위선을 보여 주는 말이 되었다. 즉 그는 정치적 야심에 사로잡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과 남을 기만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자였다.
- (4) 이와 같은 일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형제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알게 모르게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빛이 비칠 때에 빛 가운데서 행하고 빛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해야 되며 사람과의 관계도 진실해야 한다.
- (5)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은밀한 것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위선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참조, 잠6:16-19).

13. (C) 박사들은 어떻게 왕을 찾게 되었는가? (9, 10 절)

- (A) (1) 동방에서부터 보던 별이 그들을 인도하여 아기 예수를 찾게 했다.
- (2) 박사들은 별을 통해 발견하게 된 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언되어 왔던 분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6절) 자기들의 믿음을 확증할 근거를 얻은 셈이다.
- (3) 그들이 여행을 다시 시작하자 이 별이 즉시 다시 나타나서 현장까지 인도했으리라는 점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아마도 그 별이 앞서 사라진 이유는 박사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새 왕에 대한 정보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 (4)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구속자가 자기들에게 왔다는 사실을 듣고도 일부러 그분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핑계를 주지 않으려는 목적에서였다.
- (5)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신실한 기독교인이 인생이란 나그네 길의 종착지에 가까이 가게 될 때 더욱더 분명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이를 먹고 신앙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 (6) 이 세상에 풍파가 몰아쳐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에 인도되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된다 (참조, 눅1:79).

14. (C) 왕을 찾은 박사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11절)

- (A) (1) 박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께 바쳤다.
- (2) 높은 자나 왕을 만날 때 특별한 예물을 가져오는 관습은 고대 세계에서는 평범한 일이었다 (참조, 창 43:1; 삼상 9:7, 8; 왕상 10:2).
- (3) 한편 그들이 가져온 예물은 상징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를테면 황금은 왕권을 유향은 신성(神性)을 그리고 몰약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나타낸다.
- (4) 여하튼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경배의 대상으로 확증하고 정성어린 예물을 드렸다.
- (5) 그들이 드린 예배 의식은 자신을 바치는 제사 의식과 같았다 (참조, 롬 12:1). 그들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 있던 자들이었고, 그들이 경배한 예수는 인간적인 면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었으나 (사 53:2) 그들은 그 모든 조건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께 경배했던 것이다.
- (6) 어떤 사람은 예물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나 그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신다. 인간의 마음이란 재물이 있는 곳, 재물이 사용되는 곳에 있게 마련이다 (6:21). 그러면 과연 우리의 재물은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15. **㉠** 박사들은 어떻게 고국에 돌아갔는가? (12절)

- ㉠** (1)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은 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2)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에게 헤롯의 화가 조금이라도 미치는 결과를 원치 아니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사역'을 다 이루기도 전에 아들이 죽는 것도 원치 아니하셨다.
 (3) 철저히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위선자들의 본심을 알아차리는 일이 그리고 판대한 사람에게는 이기주의자들의 간계를 파악하는 일이 때로는 어렵다.
 (4) 그러므로 헤롯이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8절)는 말을 했을 때 그가 실제로 무슨 짓을 하고자 했는지 박사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5) 그러나 여우 같은 헤롯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의 모략을 막으시고 선한 자의 길을 인도하신다(참조, 신4:34).
 (6) 그러므로 친후 같은 어두움으로 덮여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되고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참조, 시119:105).

16. **㉠** 아기 예수는 어떻게 헤롯의 잔혹한 계획에서 피할 수 있었는가? (13, 14절)

- ㉠** (1)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요셉에게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아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유대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피하라는 지시를 했다.
 (2) 여기에서 요셉은 그들이 처해 있는 위험이 무엇인가를 알려 주는 지시, 즉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는 지시를 받는다.
 (3) 예수의 삶은 헤롯의 증오로 인해 위험에 빠져 있었다. 고난의 물결이 그가 심지어 젖빠는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그를 치기 시작했다. 그분의 고난에 찬 삶은 출생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을 당하는 자와 슬픔을 당하는 자들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필요를 아시며, 자신이 친히 고통당하는 자들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다(참조, 히4:15).
 (4) 이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의 근심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계시며 가혹한 박해 아래서 그분에게 부르짖을 때 우리를 동정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다(참조, 6:8).

17. **㉠** 왜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난시키셨는가? (13-15절)

- ㉠** (1)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시킴으로써 모세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출4:22, 23)과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호11:1)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
 (2) 창세기에서 요셉은 그의 부친 야곱과 형제들을 그곳에서 부양하였는데(참조, 창46-50장), 지금의 요셉은 세상 사람에게 생명을 주게 될 '생명의 떡'(요6:48)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에 가서 거하게 되었다.
 (3) 그러나 그분의 사역 범위는 애굽이 아니라 유대 땅이었다. 즉 예수께서는 애굽에로의 영원한 망명이 아니라 잠시 피신하신 것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옛날 호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당신의 땅으로 다시 부르셨다.
 (4)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시는 것 같고 가장 적당한 자리로부터 추방시키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요셉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당신의 사랑과 지혜로운 뜻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참조, 잠29:25).

18. **㉠** 화가 난 헤롯은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16절)

- ㉠** (1) 베들레헴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다 죽이도록 명하였다. 혹자에 의하면 이때에 살해된 아기는 14,0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 (2) 자신의 아내와 아들까지 왕위 문제 때문에 죽일 만큼 잔혹한 왕이라, 이런 일은 그에게는 오히려 당연한지도 모른다.
- (3) 실로 이러한 일은 '그 악의 도가 지나친 것'이다(전7:17). 여기에서 우리는 불법적인 권력을 가진 자가 그의 분노를 절제하지 않고 제멋대로 횡포를 부리게 되면, 가장 터무니없고 잔인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4)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간의 박해로 인해 크게 동요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들의 원수가 강하고, 우리는 약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기 때문이다(잠24:19, 20).
- (5)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그렇게 애썼으나 죽이지 못했다. 이처럼 악한 자들은 진리를 진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 진리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다. 또한 박해하는 원수들은 다 죽었지만 주는 영원히 살아 계신다(참조, 시102:12).
- (6)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악의 영향력 앞에서도 진리를 외면하지 말고 항상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야 한다(참조, 요 16:33).

19. **㉠** 당시 어머니들의 슬픔은 어떠한가? (17, 18절)

- ㉠** (1) 온 유대 땅은 아들 잃은 어머니의 통곡으로 가득 찼다.
- (2) 이로써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렸다'고 한 예레미야의 예언(렘31:15)이 성취되었다. 이 예언은 예레미야 당시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후 모든 포로를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라마에 끌고 와서(렘40:1), 그곳에서 그들을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의 원하는 대로 죽이거나 사로잡아 갔을 때 성취되었다.
- (3)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동일한 예언이 여기에서 또다시 성취되었다. 이 예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성취되었다.
- (4) 첫째, 애곡하는 장소에서의 성취를 말할 수 있다. 애곡하는 소리는 베들레헴으로부터 라마에까지 들렸다. 이것은 헤롯의 잔인한 학살이 베들레헴의 온 지경과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의 지경에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 (5) 둘째, 애곡하는 정도에 있어서 성취를 말할 수 있다. 그 슬픔을 '애통과 통곡', '큰 슬픔'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어느 것도 이 극심한 재난에 대해 그들이 느꼈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
- (6)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길에는 눈물의 골짜기가 끊없이 놓여 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서 탄식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5:10). 그러나 이러한 눈물은 훗날 귀한 결실을 맺게 하는 것으로서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시 126:5).
- (7) 당시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잃은 슬픔이 너무 극심하였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이 세상의 지배자들에게 자신들의 기쁨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다.
- (8) 이처럼 세상 권력자들은 인류를 구속하고 그들의 슬픔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권세속에 사로잡혀 메시아를 제거한다는 명목하에 아무 죄없는 유아들을 학살하였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메시아의 오심은 필연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9) 예수는 모든 불의를 파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위로를 제공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 없는 생은 절망과 좌절일 수밖에 없고 예수와 더불어 사는 자는 이 땅에 산재해 있는 죽음과 슬픔을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다(참조, 행 16:25).

20. **㉠** 아기 예수는 언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가? (19, 20절)

- ㉠** (1) 사악한 왕이었던 헤롯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다.

- (2) 헤롯은 유아 학살 사건 후 오래지 않아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악한 행동에 대한 보복을 하셨다. 정작 헤롯은 죽어야만 했다.
- (3) 교만한 폭군들이나 이 세상에서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참조, 사51:12, 13).

21. **㉠** 천사는 요셉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했는가? (20절)

- ㉠** (1)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 요셉에게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명했다.
- (2)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으며, 요셉은 그를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
- (3) 이와 같이 요셉은 항상 그의 걸음을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겸손히 내맡겼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붙잡아 주셨으며 온 가족이 무사할 수 있었다(참조, 잠3:5, 6).
- (4) 우리가 어디로 움직이든지 우리가 가는 길을 똑똑히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는가를 살피는 것이 좋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 없이는 어느 곳으로도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참조, 히11:8). 이것이 신앙인의 행동 규범이다.

22. **㉠** 하나님의 명령에 요셉은 어떻게 응했는가? (21절)

- ㉠** (1) 요셉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로 향했다.
- (2)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애굽에서 견딜 만하게 자리를 잡은 지금 왜 떠나라고 하시는가 하고 항변하지 않았으며, 여행 중에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았다.
- (3)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또는 어디에 머물게 하시든지 그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4) 우리가 만일 이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한다거나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되게 생활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안일한 생각에서 돌이켜 이 세상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위의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다.

23. **㉠** 요셉이 유대 지방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2절)

- ㉠** (1) 헤롯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아켈라오가 폭정을 행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 (2) 헤롯이 죽은 후,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는 이스라엘 영토를 나누어 헤롯의 아들들에게 분배하였다. 즉 아켈라오에게는 유대와 이두매와 사마리아를 주었고, 안디바에게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빌립에게는 바다네아, 트라코니티스 및 에라니티스를 주었다(참조, ㉠3).
- (3) 헤롯 대왕의 대를 이어 예루살렘의 새 통치자가 된 아켈라오는, 부친 헤롯의 기질을 그대로 닮은 자였다. 그의 통치 당시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아켈라오는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매우 가혹한 방법으로 약 3천여 명의 백성들을 죽였다. 그는 이러한 반란으로 통치 9년 만에 해임되고 말았다.
- (4) 이 같은 아켈라오의 잔인성은 요셉이 왜 유대 정착을 재고하게 되었는가를 잘 설명해 준다. 그러나 그는 약 9년 동안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의 불신임으로 A.D.6년에 축출되고 대신 빌라도가 총독이 되어 유대를 통괄하게 되었다.
- (5) 하나님은 자신의 영향을 위하여 그의 자녀들을 연단하시는 것 외에는 그들을 위협한 지경에 밀어 넣지 않으신다(참조, 고전 10:13).
- (6) 왜냐하면 성도의 생명과 죽음을 여호와께서는 중히 여기시기 때문이다(참조, 벧전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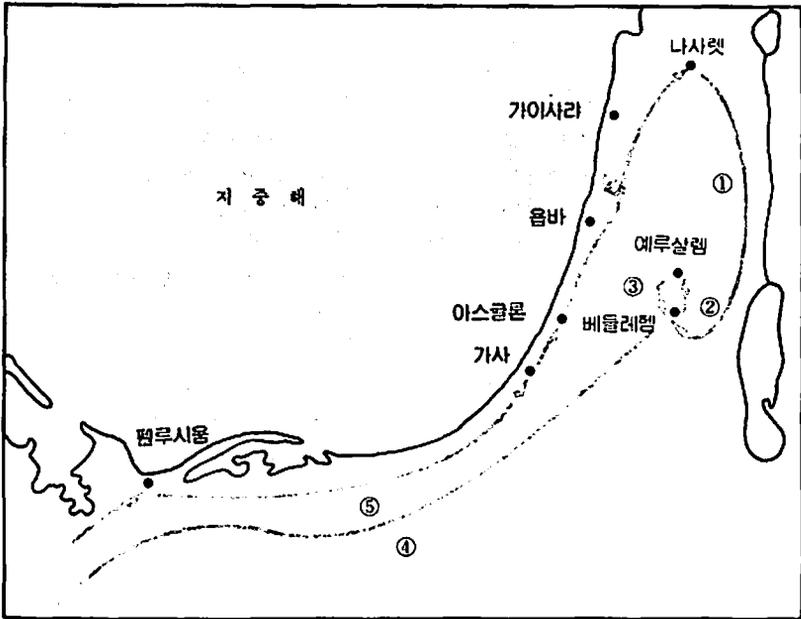
24. **㉠** 아기 예수가 정착하여 산 곳은 어디인가? (23절)

- ㉠** (1) 예수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마을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과 함께 사셨다.

- (2) 나사렛이란 말은 조롱과 멸시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비난하는 말이었다(요 1:46). 구약의 많은 예언 속에는 세상에서 거부받는 메시아의 천한 삶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을 마태는 염두에 두고 나사렛에서의 성장을 통하여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말을 했다(참조, 시 22장; 사 53:2, 3, 8).
- (3) 또한 이 나사렛이란 말은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에게도 같이 적용되었다(참조, 행 24:5).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조롱섞인 발언 가운데서 자주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졌다(21:11; 막 14:67; 요 18:5, 7).
- (4) 우리 주께서 30여 년 동안 사신 나사렛은 그 당시 빈민가였을 뿐 아니라 유대 전역을 통괄해서 보더라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이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주위의 가난한 자들과 함께 성장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고 또한 그들의 아픔을 같이하셨다.
- (5) 이것은 우리에게 겸손의 참모습을 가르쳐 준다. 어떤 왕이 비천한 마을에서 태어나 보잘것없는 성읍에서 성장하겠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존귀한 자이다(참조, 18:1-14; 빌 2:1-13).

지도자료

예수의 애굽 피신 및 나사렛 귀향 노정(歸鄉路程)



- ①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예수를 낳음(눅 2:1-7)
- ② 예수 탄생 8일 후 예루살렘에 올라가 할례 예식을 행함(눅 2:21, 22)
- ③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동방 박사의 예방(禮訪)을 받음(11절)
- ④ 헤롯의 박해를 피해 애굽으로 피신케 되는 아기 예수(13-18절)
- ⑤ 헤롯이 죽은 후 나사렛으로 돌아옴(19-23절)

제 3 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다

단락구분 1-2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다 / 3 세례 요한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다 / 4 세례 요한의 생환 모습 / 5-6 많은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다 / 7-12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를 촉구(促求) 하다 / 13-17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다

1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였으니

3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컬었도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4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5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7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리를 피하라 하느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들짐승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11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듣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12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3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14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1. ㉠ 본장의 특징은 무엇인가?

㉠ (1) 본장에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예언(사 40:3, 4)을 이루어 모든 자들에게 천국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며 주의 길을 예비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후반부(13-1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소상히 나타나 있다.

(2) 본장은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의 유년 시절(눅 2:41-52)이나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 배경(눅 1:5-25, 39-45, 57-80)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3) 그 이유는 마태가 극적으로 내용을 전개하기 위하여 거두 절미(去頭截尾)하고 세례 요한을 등장시켰기 때문이다.

(4) 즉 마태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여 년 간의 침묵이 지난 뒤에 이를 깨뜨리고 새 예언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이런 서술 방법을 썼을 것이다.

(5) 한편 세례 요한의 등장은 오랫동안 타성(惰性)에 젖어 신앙 생활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전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 (6) '회개하라!' 는 세례 요한의 음성은 당시의 교권주의자들과 외식주의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다. 예수를 믿은 후에 모든 것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무관심은 헌신으로 대체되고, 이기주의는 자기 희생으로 바꾸어 진정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
- (7) 우리가 가졌던 과거의 세상을 향한 애착심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한다(참조, 딤후 3:1-5).

2. ㉠ '그때'란 언제를 말하는가? (1절)

- ㉠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복음이 시작되는 때로 정한 시기, 즉 '때가 찬' (갈 4:4) 시기를 의미한다.
- (2) 구약에서도 가끔 이러한 의미로서 '그때에'란 말을 사용하였다(참조, 단 12:1;미 3:4). 이로써 다니엘이 예언한 메시아께서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그 언약을 굳게 하실' (단 9:27) 마지막 이레의 후반이 시작되었다.
- (3) 개인의 생활에서도 전환점이 있듯이 민족사나 세계사에서도 전환점은 있기 마련이다. 세계사에서는 노아의 홍수 때가 가장 큰 전환점이었는데, 본질에서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제시된다.
- (4) 이는 세상이 죄로 관영(貫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또 하나의 전환점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 (5) 이 같은 전환점은 지금 우리의 내면과 환경에서도 일어나야 한다. 타락해 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은 항상 악과 부패로부터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고 또한 우리에게 변화의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 (6) 우리는 이러한 전환점 앞에서 머뭇머뭇하는 불성실을 버려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우유 부단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의 생활을 극도의 타락으로 어지럽게 될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무관하게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존재' (25:30)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의 흐름과 자신이 어떠한 지경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깨달아야 한다(참조, 눅 21:36).

3. ㉠ 세례 요한은 주로 어디에서 말씀을 전파하였는가? (1절)

- ㉠ (1) 그는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고 있었다.
- (2) 이 광야는 서쪽으로 유대 산지와 동쪽으로 요단 저지대, 남쪽으로 사해, 북쪽으로 압복강이 요단 강과 합류되는 지점까지 펼쳐져 있는데 석회질의 토양 위에 자갈과 바위 부스러기가 널려 있는 기복이 심한 불모 지대이다.
- (3)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거하였고, 그곳에서 성장하였으며(참조, 눅 1:80;요 3:23), 그곳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 (4) 그의 이 같은 삶은 오직 뒤에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를 준비하는 삶으로서, 자신의 영광과 안락을 사모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만이 자신의 삶에서 두드러지게 하였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맡은 자들은 결코 자신의 영광과 치부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이 이 땅 위에 실현되기를 사모해야 한다(참조, 6:33).

4. ㉠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2절)

- ㉠ (1)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이다.
- (2) 여기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고 강력한 명령이 있다. 그 소망은 '천국'이고 그 명령은 '회개'였다. 또한 거기에는 메시아 사상이 투영(投影)되어 있다.

- (3) 즉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건설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4) 정작 '마음'의 변화는 '생활'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 과거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는 자는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5) 이러한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준비와 자격이다(참조, 행 11:18;17:30).
- (6) 이러한 회개에의 요청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천국)에 대한 소개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주제이다. 더우기 이러한 회개와 천국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불신자에 대한 메시지여야 한다.

5. ㉠ 세례 요한은 구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3절)

- ㉠ (1) 세례 요한은 복음의 시대와 복음의 은혜를 설명하는 이사야서의 예언 첫머리에 언급된 바로 그 사람이었다(사 40:3, 4).
- (2) 한편 그 내용은 바벨론 포로 시대 전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장차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3) 즉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한 것과 같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던 인류를 구원하러 온 자가 곧 오실 것이라고 요한이 선포한 것이다.
- (4) 실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세례 요한은 그 스스로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요 1:23). '나는 소리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을 소개한 내용의 전부였다.
- (5) 이러한 요한의 태도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자신을 내세워서는 안 되며, 자신은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세워야 한다(참조, 고전 2:2; 갈 6:14).

6. ㉠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인가? (3절)

- ㉠ (1)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이었다.
- (2) 당시 유대인의 교회와 국가는 모든 점에 있어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었다. 신앙인은 영적으로 크게 쇠퇴하였고, 종교의 생명력은 장로들의 유전과 규범에 의해 타락하고 무기력했었다.
- (3) 일반적으로 백성들은 유대인이라는 자신들의 신분을 극도로 자랑했으며, 그들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였다.
- (4) 이제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산(교만함)들을 평탄케 하기 위해, 즉 그들 자신이 품고 있는 교만한 마음을 끌어내리고 그들 자신의 죄를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이 좀더 잘 받아들여지고 효과적으로 그들의 삶에 반영되기 위함이었다.
- (5) 이러한 교훈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게 하고 마음을 낮추어 그분을 다윗의 자손(삼하 19:14)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
- (6) 먼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의는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장애물은 치워 없애기 전에는 언제나 장애가 되기 마련이다. 이 같은 교만의 장애는 제거되어야 하며, 또한 교만의 근거가 되는 육신과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한다(참조, 고전 9:27).
- (7) 정작 죄와 사단의 길은 굽은 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예비하려면 그 길

들이 바르게 되어야 한다(참조, 히 12:13). 즉 인간의 내면에 잔존해 있는 악한 본성과 죄될 가능성들을 철저히 제거하여야 한다.

7. **㉠ 세례 요한의 생활 방식은 어떠했는가? (4절)**

- ㉠** (1) 약대 털옷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야생 꿀 또는 나무의 즙)을 먹고 살았다.
 (2) 즉 그는 선지자 엘리야처럼 소박한 옷차림(참조, 왕하 1:8)을 하고 다녔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행색이 인간적으로 풍성하고 멋진 것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소박한 모습이었다고 말씀하셨다(11:8). 더우기 그가 주식으로 삼은 것은 평범한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들이었으나 그는 자신의 배(腹)를 위해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3) 마태는 세례 요한의 옷과 음식과 습관 등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객관적 모습이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4) 사람은 남에게 최대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된다. 요한이 그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다. 매일의 생활이 자제와 절제의 생활이었고 그의 옷과 음식이 또한 그러했다.
 (5) 이 모든 것은 그의 결의를 나타내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의지를 표현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연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감화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
 (6) 이처럼 타인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 성결된 자세가 우리에게도 요구된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참조, 벰전 1:15)

8. **㉠ 세례 요한의 전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5절)**

- ㉠** (1)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요단 강 사방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보기 위하여, 또는 그의 전파하는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그에게로 나아갔다.
 (2)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21:26).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청중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많이는 모였지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3) 유대와 예루살렘 주변에서 그리스도께서 냉대받으셨음을 생각해 보라(참조, 눅 4:28-30; 요 8:59; 10:31). 이처럼 자진하여 천국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참된 신자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하라.
 (4) 설교자의 고상한 메시지와 다양한 몸짓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설교를 듣기도 하며, 그 설교에 잠시 동안 도취되기도 하나 그 설교의 감화가 결코 생활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참조, 겔 33:31, 32). 이것은 귀만 커질대로 커진 기형적인 신앙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와 설교 청취는 오히려 자신을 해롭게 하는 일이다(참조, 약 1:22-26).

9. **㉠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전파를 듣고 무엇을 했는가? (6절)**

- ㉠** (1)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세례'란 자신의 지난 삶이 모두 죄악된 것임을 알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옛 인간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새로운 인격으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예식이다.
 (2)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의 죄 사함에 대한 상징적 의식이었으나(행 19:4) 그리스도의 세례는 사죄의 증표요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증거이다(고전 12:13).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한 준비라 할 수 있다.
 (3) 세례 요한은 죄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였다. 그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기에 앞서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특히 그의 외침 속에는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특권에만 머물지 말라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

- (4)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훈이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원받고 완전한 성화(聖化)를 이룬 양, 착각할 때가 많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알아 두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멸망밖에 없다(참조, 말 4:6; 살후 1:8, 9).

10. ㉠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7절)

- ㉠ (1) 바리새라는 말은 히브리어 <파라쉬>에서 유래한 말로 분리라는 뜻을 가진다. 그 기원은 마카비 독립 운동 시대의 초기(B. C. 167)로 보며 신앙의 세속화를 방지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는 의도에서 조직된 단체이다.
- (2)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존중하였고 부활과 천사의 존재 등을 믿었다(행 23:8). 그러나 그들의 위와 같은 분리적 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신적인 성결보다는 외모와 형식에 치우치는 외식적인 신앙 단체로 전락하였다.
- (3) 이에 반하여 사두개인은 자유적인 신앙인이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대제사장들이 속하여 있는 성직자들의 당이었다. 이 이름의 기원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 사독(왕상 1:38)에서 유래되었다.
- (4) 이들은 모세 오경(창, 출, 레, 민, 신)만 읽었으며 내세와 부활을 부인하였다.
- (5)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때 세례 요한 앞으로 많이 나온 사실은 실상 호기심으로 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마 그들 중 몇 사람은 복종하여 세례를 받았을 것이나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참조, 눅 7:29, 30).
- (6) 우리도 지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호기심으로, 혹은 내적인 결단 없이 외견상으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자처(自處)하고 있지는 않은가? (참조, 약 2:14, 22)

11. ㉠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어떤 책망을 들었는가? (7절)

- ㉠ (1) 그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는 책망을 들었다.
- (2) 그들은 ‘독사’와 같은 자들이었다. 즉 겉모양은 선민으로서 경건한 체하였지만 그들의 속에는 독을 품고 있었으며,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해 악의와 적의가 가득한 자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했다. 이러한 자랑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으며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까닭에 죄 사함에 대한 의식인 세례 같은 것은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믿었다.
- (3)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이 뱀의 후손(창 3:15), 즉 그들의 조상 마귀의 후손(요 8:44)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로서 ‘임박한 진노’의 대상자임을 강조하였다. 물론 이 ‘진노’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심판 행위는 2중적 의미(구원과 진노)가 있다.
- (4) 이러한 세례 요한의 책망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어어 받게 될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들의 처지는 거의 절망적이었고, 그들의 마음은 죄로 강박해졌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희망적인 일이 생긴다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 (5) 이런 세례 요한의 책망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실로 우리 앞에 놓인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관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피하도록 경고하신 것은 놀라운 자비이다.
- (6)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형제들의 권면으로, 또한 양심으로 우리들에게 경고하신다. 이러한 경고들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위협하고 겁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생명의 길을 견도록 하시기 위해서임을 믿고 겸손히 그 경고에 순복하여야 한다(참조, 딤후 3:16, 17).

12. ㉠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어떤 권고의 말을 하였는가? (8절)

- ㉠ (1)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고 하였다.
 (2) 진실한 뉘우침은 반드시 그 뉘우침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3) 따라서 모든 죄를 버리고 선한 것을 붙잡으며, 전적으로 자신을 개혁함으로써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는 단지 관념적이며 가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4) 죄를 뉘우친다고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회개한 자라는 명칭이나 회개한 자가 가지는 특권을 소유하기에 합당치 않다(참조, 출 9:27-35).
 (5)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수와 죄에 대해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 정도로만 그치지 말고 진실한 회개와 아울러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지에 관해 진지하게 묻는,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참조, 요 15:1-16; 갈 5:22, 23; 엡 5:9).

13. ㉠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9절)

- ㉠ (1)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며 이방인들처럼 죄인들이 아니므로 택한 백성인 자신들에게는 회개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2) 여기에 대해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고 통박하였다. 이 말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제외되거나 압박한 진노를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처럼 그들이 대단히 신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명예와 자존심은 요한이 보기에는 자기 발 앞에 놓여 있던 '돌들' 과 같이 하찮은 것에 불과했다.
 (3)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설령 경건한 조상들의 피를 이어받고 종교적인 교육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하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훌륭한 친구들이 많다 할지라도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참조, 요 15:6; 행 9:1-20).
 (4) 이처럼 신앙인은 누구나가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單獨者)이다. 각자에게 있는 재물과 환경과 혈통에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에서 경건과 순종과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각자의 구원과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참조, 겔 18:2-4).

14. ㉠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절)

- ㉠ (1) 이 말은 재난의 임박함과 엄격함을 나타낸다(참조, 요 15:6).
 (2)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헛된 자만을 폭로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게 다가섰다고 선언하였다. 사실 이 선언은 A. D. 70년 로마의 디도(Titus)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됨으로 1차 성취되었고 또한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3) 또한 요한은 하나님께서 몸소 하나님 나라의 부적격자를 선별하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참조, 사 10:33, 34).
 (4) 이러한 심판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해당되었듯이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될 것임을 보여 준다.
 (5) 하나님은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 방법을 많이 허용하신 곳에는 심판에 필요한 시간을 적게 허용하신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이며 이후에는 결코 없다(참조, 고후 6:2).
 (6)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자신의 체질을 개선하고 마음을 변화시켜 '좋은 열매 맺는' 삶으로 전환하여야 한다(참조, ㉠ 12).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 도끼로 여차 없이 그 나무

를 찍어 불에 던지우실 것이다. 즉 영원한 형벌로 인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참조, 12절; 25:41; 막 9:43).

- (7)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가 아직 멀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항상 심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회개와 경건에 힘써야 한다. 우리 삶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으로서 순간의 결단은 영원을 좌우하게 된다(참조, 25:46).

15. **㉠** 세례 요한은 모인 자들에게 누구를 소개했는가? (11절)

- ㉠** (1) 자기 '뒤에 오시는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
 (2)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분의 신들메를 들기도 감당치 못할 만큼 비천한 줄을 잘 알고 있었다(요 1:27). 사실 신을 든다는 것은 그 당시 노예나 종들이 담당하는 일이었다.
 (3)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신 자는 매우 겸손하고 그 자신이 스스로를 볼 때에 비천하게 여긴다는 사실이다.
 (4)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꺼이 그 자신을 낮추며,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기 위하여 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자, 비천한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롬 14:8).

16. **㉠**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묘사했는가? (11절)

- ㉠** (1)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자'로 묘사했다.
 (2)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특권이다. 그리스도는 사도들에게 베푸신 성령의 특별 은사에서 이 일을 행하셨으며, 자신이 요한의 이런 말들을 이 일에 적용시켰다(행 1:5).
 (3) 즉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에 대한 이 같은 예언은 오순절에 성취되었다. 오순절 날 성령께서는 불의 혀같이 나타나서 제자들 위에 임하였다(행 2:3).
 (4) 성령으로 세례받는 자들은 '불로' 세례를 받는다. 즉 성령은 '태우는 영' (사 4:4)으로서 모든 부패와 그 불순물을 깨끗이 태워 버리며, 이렇게 함으로써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든다.
 (5) 실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옛 성품은 모두 태워 버리시고 새로운 삶의 불을 붙이신다(참조, 고후 5:17).
 (6)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참조, 요일 2:20-27). 이것은 분명히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의 보증이다(참조, 엡 1:14).
 (7) 그러므로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세례를(참조, 28:19) 받은 우리들은 항상 성령으로 행하며(갈 5:16), 성령의 지배를 늘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엡 5:18).

17. **㉠** 세례 요한은 곡식의 타작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12절)

- ㉠** (1)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심판으로 묘사했다.
 (2) 정작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인류를 향한 구원과 심판을 주시기 위해, 즉 선악간에 모든 자를 구별짓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물을 통찰하시는 지혜자로서, 또한 심판을 위임받은 인자로서 모든 자를 식별하는 권리는 타작 때 키질하는 농부의 마음과 같다(참조, 렘 15:7).
 (3) 현재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타작 마당과 같다(참조, 사 21:10). 이 마당에는 알곡과 쭉정이 섞여 있다. 참신자는 실속 있고 유용하고 가치 있는 알곡과 같으며 위선자는 가볍고 속이 비고 무가치하여 바람에 날려가 버릴 쭉정기와 같다.
 (4) 타작 마당이 정하게 되어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날이 온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

기 백성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부르시는 때이다(계 18:4).

- (5) 그러나 대규모로 키질하고 구별하는 날, 즉 교훈과 공력(고전 3:13)에 대해, 또한 모든 사람들(25:32, 33)에 대해 판결하는 때는 마지막 심판 날이다. 그때에 성도와 죄인은 영원히 구분될 것이다(참조, 제 20:12-15; 21:5-8).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거룩해야 할 교회조차도 불의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주의 심판 날을 고대하며 자신의 경건과 아울러 소속된 공동체를 성결하게 하는 데 힘을 다하여야 한다.

18. **㉠**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13절)

- ㉠** (1)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오셨다.
- (2)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신 사실은 그분의 위대한 겸손의 한 사례였다(참조, 빌 2:3-8).
- (3) 그리스도께서는 일찌기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자마자 겸손을 가르치셨으며(11:29),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다(요 13:4-11). 그리스도는 최고의 영광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참조, 16:16) 그분의 사역의 첫 단계는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었다.
- (4)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높아지려면 먼저 낮아져야 한다는 점이다(23:12).

19. **㉠**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 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 왜 말렸는가? (14절)

- ㉠** (1)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 앞으로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분이 앞서 자신이 그분에 대하여 말했던(11, 12절) 바로 그 메시아이신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2)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거절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자신의 세례가 예수께는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다. 즉 예수께서 전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사함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 (3) 실로 요한은 그리스도의 선구자였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아야' 됨을 인정하였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특권과 권리를 앞세우기 보다 의무와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주의 종들의 자세이다.

20. **㉠**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가? (15절)

- ㉠** (1) 예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
- (2) 이 말씀은 이와 같이 다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가 하는 말이 옳으나 너와 나의 생애에 있어서 내가 나의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이 특별한 순간에는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리라(요 1:29)는 나의 결의(시 40:6, 8; 엡 1:4; 히 7:22; 벧전 1:20; 계 13:8)를 재확증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 (3)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신 것은 요한이 예수보다 더 완전하고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여서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혼자 짊어질 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의 의지, 즉 완전한 의인이시지만 한 죄인의 자리에 머무르시겠다는 당신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 (4) 정작 예수는 우리의 보증(保證)으로서 요한의 세례에 응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하신다는 또 다른 확신을 준 것이고, 하늘의 소리도 그 방법을 동의하였다(17절).
- (5) 그러므로 우리는 최고의 겸손으로 이 땅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만을 세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생각할 줄 아는 참다운 겸손과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예수께서 의롭게 되셨기에 우리도 의롭게 된 존재에 불과하다(참조, 롬 3:24).

21. **㉠**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무엇이 임하셨는가? (16절)

㉠ (1)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2) 성경에서 비둘기는 주로 성령을 상징한다(참조, 눅 3:22).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으신 후에 나타난 성령은 순결하고 은유한 비둘기 같은 성령이었다.

(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 자신이 순결하셔야만 했다. 고통을 견디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점들에 대하여 깊이 참으시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은유와 관용과 은혜가 필요하였다.

(4) 주께서는 이러한 속성을 역시 풍성히 가지셨으며 또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동일한 은사들을 받아서 실제로 그와 같이 행할 것을 말씀하셨다(11:29, 30; 12:19; 눅 23:34; 고후 10:1).

(5) 실로 성령은 비둘기같이 성결된 모습으로 임하시고 영원히 그분 안에 거하시게 된다. 더우기 성령께서는 세상에서는 보혜사로 거하시나 신자들로 하여금 영적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산 제사 제물이 되게 하신다(참조, 요 14:26).

22. **㉠**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선포하셨는가? (17절)

㉠ (1)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라고 하셨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임하시게 될 성자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인정하시는 확인이다.

(2)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던 아들이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셨던 아들이시며,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하신 아들이다(요 3:16).

(3) 이 아들로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던 사실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희생 때문에 지금도 기뻐하신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부과된 최대의 의무로 생각해야 된다.

(5) 성도들이 좀더 거룩하고 겸손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늘의 음성도 그만큼 분명하고 명백하게 들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며 사랑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참조, 롬 8:16, 17).

본장의 요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6절).



제 4 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받으신 후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하시다

단락구분 1-2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다 / 3-11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다 / 12-16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 예언의 성취 / 17 예수께서 최초로 전국 복음을 선포하시다 / 18-22 예수께서 첫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시다 / 23-25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적을 행하시다

1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 지라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대
 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주리라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12 예수께서 요한의 잠함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

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라 일렀으되
 15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취었도다
 하였느니라
 17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18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21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가지로 배에서 그물 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23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25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1. ㉠ 본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 (1) 본장에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 시험 중에서 예수께서는 두드러지게도 당

신의 제사장적 사역을 나타내 보이셨다. 즉 주께서는 대속적으로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고난의 형태 중 하나가 바로 시험이다(참조, 히 2:18).

- (2) 본장에서 비록 제사장의 직분이 강조되었기는 하나 왕의 직분도 결코 소홀히 되거나 무시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시험당하시는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는' 제사장의 모습 뿐 아니라, 대적자 사단에게 대적하여 승리를 거두시는 왕으로도 역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3) 또한 선지자 직분도 역시 무시되고 있지 않다. 마귀에 대한 완전한 반격과 특히 세차 예나 성경 귀절을 인용한 대답으로서 그의 선지자 직분을 훌륭히 행하셨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주께서 행하시는 그 세 직분을 각기 따로 분리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세 직분은 하나로 된 삼중적 메시아의 직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2. ㉠ 예수께서는 누구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셨는가? (1절)

㉠ (1)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 (2) 바로 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이 이 시험의 현장에 절대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재하여 계신 목적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주기 위 해서였다.
- (3) 이러한 사실로 보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해야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시험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참조, 엡 6:11).
- (4)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악한 세력(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시는 힘으로만 가능하다.

3. ㉡ '마귀' 는 어떤 존재인가? (1절)

㉡ (1) 마귀는 성경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류의 파멸자요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묘사되어져 있다(참조, 창 3:1-19; 약 4:7).

- (2) 히브리인들은 마귀를 타락한 천사로 규정하고 있다. 즉 천사장 중 하나인 '루시퍼'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오르려다가 하나님에게 저주받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의 무리들이 각각 사단과 마귀들이 되었다고 한다(사 14:12-17; 눅 10:18; 벧후 2:4; 유 1:6).
- (3) 이와 같은 히브리 사상에서 마귀는 하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자들임을 알 수 있다(8:31, 32; 욥 1:12).
- (4)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 대적자란 뜻을 가진 '사단'! 궤방자란 의미인 <디아블로스>,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란 뜻인 <다이모논> 등으로 말씀하고 있다.
- (5) 마귀가 지닌 별명을 알아보면 바알세불(12:27), 악귀의 머리(막 3:22), 이 세상의 왕(요 14:30),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엡 2:2), 악한 자(엡 6:16), 옛 뱀(계 12:9) 등이 있다.
- (6) 사단은 세상 끝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계 20:7-10).
- (7) 그러므로 사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하실 때 더욱 광포하게 날뛰다. 따라서 지금도 사단은 믿는 자를 간교하게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든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와 대적해야 한다(참조, 엡 6:12; 딤후 4:7; 약 4:7).

4. ㉢ 왜 예수 그리스도는 금식을 하셨는가? (2절)

㉢ (1) 예수께서는 '이기기를 다루는 자가 절제하듯이'(고전 9:25) 앞으로 있을 마귀와의 전투를 위해 금식을 하셨다.

- (2)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출 34:2, 28; 신 9:9, 18)와 엘리야(왕상 19:8)도 이러한 체험을 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므로 40일간의 금식 후에 몹시 주리신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명하실 때는 우리가 궁핍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나 육신을 억누를 필요가 있을 때, 기도예 전력할 때, 다시 말해 시험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할 때이다(참조, 삼상 7:5, 6; 31:11-13; 삼하 12:16; 느 1:4; 에 4:16; 단 6:18-20).

5. ㉠ '시험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3점)

- ㉠ (1) 마귀를 가리킨다.
- (2) 마귀가 시험하는 자로 불리어지는 것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행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창 3:1-6).
 - (3) 이처럼 마귀는 사람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한 다음 그 죄에 빠진 사람을 참소(讒訴)한다. 다시 말하자면 시험하는 자가 참소하는 자로 된다는 말이다.
 - (4) 더우기 마귀는 자기의 시험에 미혹되어 죄에 빠진 자를 참소하되 이전에 이미 용서받은 죄까지도 들추어 내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소할 것이다(참조, 속 3:1-5; 계 12:10).
 - (5) 하나님의 심판 날이 가까운 오늘날 마귀들은 자신의 때가 다 된 줄 알고는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든 예수 믿는 자들을 시험하여 자신들의 주권 아래 두려 한다.
 - (6)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에 대해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며 스스로는 날마다 경성(警省) 하여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나가야 한다(참조, 벰전 5:8).

6. ㉠ 마귀는 굶주리신 예수께 먼저 어떻게 하라고 시험했는가? (3점)

- ㉠ (1)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예수께 말했다.
- (2) 마귀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굶주림을 면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했다.
 - (3) 이처럼 마귀의 간계(奸計)는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그것을 시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여 이용하면 할수록 우리는 근신하여서 그에게 적절한 기회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참조, 약 4:7).
 - (4)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끝내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으면 끝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위한 때 당신께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7. ㉠ 마귀는 어떤 조건을 달아 예수를 시험했는가? (3점)

- ㉠ (1)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 (2)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또한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 (3) 그런데 마귀가 하필이면 이러한 전제 조건을 붙인 이유는 만일 예수께서 이러한 마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예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만약 예수께서 이러한 마귀의 요구에 응했다면 그는 마귀의 요구에 놀아나는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 되므로 마귀는 이러한 난감한 질문을 던져 예수를 시험하려 들었다.
 - (4) 더우기 이러한 질문은 예수께서 십자가 형틀에서 고난받으실 때 무지한 백성들의 입을 벌여 마귀가 재차 행한 것이기도 하다(참조, 27:39-44). 이처럼 마귀는 상대방의 연약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전해 온다. 우리가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깨어 주를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 것밖에는 없다

(참조, 벧전 5:8-10).

- (5) 또한 이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다(창3:1). 마귀는 당연한 문제를 던짐으로 의문을 갖게 한 다음 시험에 말려들게 만든다.
- (6)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떠한 진리에 대해서라도 의심할 때는 바로 그때가 마귀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참조, 시19:7, 8).

8. ㉠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4점)

- ㉠ (1)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8:3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
- (2) 예수께서는 그 자신이 영원한 말씀으로서 모세의 글에 의거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시할 수 있었다.
- (3) 그러나 그분은 성경 말씀을 존중하셨으며, 또한 율법에 호소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주께서는 마귀가 기록된 말씀을 잘 알고 있음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 사실 마귀는 성도들에게 세상적인 것으로도 접근해 오지만 성경을 교묘히 이용해서 접근할 때도 종종 있다.
- (4) 비록 마귀의 자녀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잘 안다(참조, 약2:19).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 방법을 취해야 한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서 사단에 대한 기독교인의 유일한 공격용 무기이다(참조, 엡6:17).
- (5) 우리가 말씀과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란(요1:1) 신뢰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세력도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부패한 인격마저도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참조, 히4:12).

9. ㉠ 예수께서 주리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4점)

- ㉠ (1)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시에 광야에서 떡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추종함으로써 넉넉히 살아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 (2) 하나님이 그의 섭리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지면에서 나오는 식물' (욥28:5)로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음식물로만 자신의 배를 채우고 힘을 얻으려는 노력은 잘못된 태도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식물 이외의 방법으로도 기력과 힘을 제공하신다(참조, 사40:31).
- (3) 즉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그것이다.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명령하시고 지정하신 어떤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빵과 같이 좋은 생계 수단이 된다.
- (4)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축복을 물리치신다면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참조, 미6:14; 학1:6). 마찬가지로 우리는 떡이 부족하여도 다른 방법으로 배부를 수 있다.
- (5) 하나님은 떡 없이도 모세와 엘리야를 생존케 하셨으며, 바로 지금 그리스도 자신이 사십 일 동안 떡 없이도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기에(요4:34) 더 이상의 양식이 필요 없었던 것이다.
- (6) 정작 우리는 부요하든지 궁핍하든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위 환경이 좋은 나쁜 간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다(참조, 시52편; 잠28:25).

10. ㉠ 1차 시험에 실패한 마귀는 예수를 어디로 데리고 갔는가? (5점)

- ㉠ (1) 기록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 (2) 여기에서 마태가 '거룩한 성'이라고 지칭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다(참조, 27:53).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이 그의 위를 든든히 했던 곳이 바로 이 성이었다. 또한 그 성의 성

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참조, 합 2:20).

- (3) 다시 말하자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한 곳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다 세웠던 것이다.
- (4)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열망한다. 실상 이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는 않지만 책임이 중대하고 교만해지기 쉬운 곳이다. 마귀는 이런 점을 노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높이 드신 자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 (5) 그러므로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 열심히 봉사하거나 교회에서 직책을 가져 힘껏 일하는 것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교회의 높은 지위는 결코 쉽게 극복하지 못할 교만이라는 시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참조, 고전 10:12).

11. ㉠ 마귀는 예수께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고 유혹했는가? (6절)

- ㉠ (1)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고 했다.
- (2) 실로 마귀는 단지 ‘뛰어내리라’고 말은 했지만 억지로 뛰어내리게 할 수는 없었다.
- (3) 이처럼 사람마다 시험을 받는 것은 그 자신의 정욕에 이끌릴 때이며, 그것은 강제적이지 아니라 유혹을 받아 스스로 이끌릴 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 (4) 정작 그 누구도 임의로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자(참조, 롬 8:35-39).

12. ㉠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릴 것을 종용하면서 어떤 성경 귀절을 인용하였는가? (6절)

- ㉠ (1) 마귀는 시 91:11, 12의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였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을 항상,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 (3) 마귀는 이러한 성경 귀절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단순한 영웅주의자 또는 인기에 편승한 인간 메시아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즉 마귀는 인간이 흔히 쉽게 속아 넘어가는 허영심을 조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의대로 도용했다.
- (4) 그러나 마귀의 이와 같은 성경 인용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관점에서 볼 때 유리한 쪽으로 그 말씀의 내용을 해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시 19:11의 내용 전체를 인용하지 않고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취사 선택함으로써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왜곡시켰다.
- (5)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꺾어 맞추는 불경스러운 것을 쉽게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로 기록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참조, 제 22:18, 19).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만 한다(참조, 벧후 1:20, 21).

13. ㉠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번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7절)

- ㉠ (1) 예수께서는 즉시 신 6:16 곧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 (2) 이 의미는 ‘그러므로 나는 내 아버지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다(Matthew Henry).
- (3) 자기 이익의 방편만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구하는 행위는 믿음이 아니라 환상이요, 지극히 잘못된 사고 방식이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위해서는 기적을 주지 않으

신다. 오히려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채찍을 드신다(참조, 고전 10:9).

- (4) 그리스도의 기적은 항상 위대한 속죄 사역의 한 분야로서 성도의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되어졌다는 사실을 참고하라.
- (5)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판단과 시험(test)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의 대상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14. **㉠**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시험하기 위해 어디로 데리고 갔는가? (8절)

- ㉠** (1) 마귀는 예수께 천하 만국을 보여 주기 위해 '지극히 높은 산'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
- (2) 마귀는 천하 만국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주께 이미 알고 계셨던 것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보여 줄 듯이 외람(猥濫)되게 주를 데리고 갔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내버려두신 이유는 자신의 승리를 더욱 빛내기 위함이었다.
- (4) 한편 사단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험으로 밀어닥친다. 성도들이 마땅히 피해야 할 허영심으로 사단은 성도들의 눈을 현혹한다.
- (5) 인류의 첫번째 범죄는 눈에서 시작되었다(참조, 창 3:6).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이러한 허영심에 젖어들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참조, 시 19:13).

15. **㉠** 마귀가 마지막 시험에서 예수께 어떤 조건을 제시했으며 그 대가는 무엇인가? (9절)

- ㉠** (1) 마귀는 예수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했다.
- (2) 마귀는 실로 경배받기를 좋아한다. 더우기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이 세상의 무리들이 자기에게 반드시 무릎꿇게 될 것을 확신한 채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신 32:17; 벰전 5:8). 따라서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운다(참조, 고전 10:20; 고후 4:4).
- (3) 본절에서 마귀는 이런 시험을 통하여 세상이 자기의 소유라는 사실을 억지로 예수께 인식시키려 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모든 것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했다.
- (4) 참으로 우리 인간들은 실제로 있지 않은 허상(虛像)을 바라봄으로써 있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 마귀의 미끼는 모두가 허상이고 가짜일 뿐이다.
- (5)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자신이 지상을 다스리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통치권은 이미 오래 전에 메시아에게 약속되었다(참조, 요 13:3; 17:2).
-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 세상의 지배권이 아직 자기에게 있음을 강조하면서 자신과 타협하고 자신의 말에 복종하는 자에게 무한 복락을 제공할 것처럼 행세한다(참조, 고후 11:4).
- (7) 그러나 만물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그분에 의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유지되며 역사가 진행된다. 만약 이 사실을 확신하는 자는 어떠한 마귀의 유혹에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참조, 롬 11:36).

16. **㉠** 예수께서는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10절)

- ㉠** (1) 먼저 예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는 단호한 명령을 하심으로 더 이상 그와 대화할 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다. 사실 사단과는 어떠한 대화와 타협점을 발견할 수 없다. 성도에게 있어서 사단과의 계속적인 대화는 위험하다. 적당한 때에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 (2)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신 6:13과 10:20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셨다.
- (3) 예수께서는 하나님만이 홀로 경배와 섬김을 받을 분이라는 율법의 증언을 주장하셨다.

- (4)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은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따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충성을 버리는 일이며, 하나님께 대한 충성보다는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복종하는 행위이다(참조, 6:24, 25).
- (5)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리의 원수 마귀를 섬기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위기에 처했을 때에 가장 안전한 도피 방법이란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다.
- (6) 구세주를 의뢰하고 그분을 본받는 자는 마귀보다 더욱 강한 자가 될 것이다(참조, 계 12:10, 11).

17. ㉠ 시험의 결말은 어떻게 끝났는가? (11절)

- ㉠ (1) 예수의 말씀에 완전한 패배를 자인한 마귀는 한동안 예수를 떠났고(참조, 눅 4:13), 천사가 나와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수종들었다.
- (2)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아담 이후 팽창되어 왔던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고 예수께서 건설하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시작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3) 그러나 눅 4:13에서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났다고 하였다. 마귀는 아주 떠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질 때를 기다리며 뒤로 물러난 것이다. 그는 최후의 패배를 통해 영원한 죽음에 이를 때까지(계 20:10), 끊임없이 교회와 인류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한다.
- (4)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마귀는 이기지 못하고 도망해 버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에는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여 참된 승리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참조, 엡 6:11-17).

18. ㉠ 예수께서 갈릴리로 피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 ㉠ (1)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투옥된 소식을 듣고(14:1-12)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셨다. 이제 요한의 때는 가고 예수의 때가 새로 시작된 것이다(참조, 요 3:30).
- (2) 그런데 주께서는 자기가 유대 지방에서 것처럼 크게 알려지는 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예민한 질투심을 자극하여 급기야는 그들의 증오로 말미암아 시기적으로 너무나 이른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 (3) 주께서는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된 때가 있음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주께서는 자신이 목숨을 버리실 적절한 순간이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것도 역시 알고 계셨다.
- (4) 주께서는 스스로 자원하여 목숨을 버려야 할 때를 기다리셨다(요 13:1).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에는 죽음을 피하여야 했다. 그 외에도 갈릴리 지방에는 인도해야 할 잃은 양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제 유대 땅을 떠나셔야만 했다.
- (5) 우리 역시 시험을 당할 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참조, 계 3:10).

19. ㉠ 예수께서는 유대 지경을 벗어나 어디에서 사셨는가? (13절)

- ㉠ (1) 가버나움에서 사셨다.
- (2) 이 가버나움은 '위로의 장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명이다. 고대의 가버나움은 어업과 교통의 중심지로서 번영을 누렸으나 예수 당시에는 그러한 화려함은 어느 정도 가신 채 인류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 (3) 그곳은 지명의 뜻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휴식을 제공

했던 곳이다. 반면에 그곳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부터 참된 평안과 위로의 전달자를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 (4) 사실 예수께서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신 이유는 그곳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기는 커녕 일어나 그들 동네 밖으로 쫓아냈기 때문이었다(눅 4:29). 나사렛은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최초의 동네이며, 이로 인해서 예수께 버림을 당하였다.
- (5)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이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 혜택을 떼앗아 버리신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참조, 삼상 15:23).

20. **㉠** 이사야의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4-16절)

- ㉠** (1)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은 이스라엘 왕 베가(B. C. 736-730) 때에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B. C. 745-727)이 갈릴리 지방을 침범한 때를 배경으로 한 내용으로서(왕하 15:29), 그 사건은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진 근본적인 구원의 성취를 나타낸다.
- (2) 이 예언은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사9:1,2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이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과 죄악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제 구원과 소망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요 1:9;8:12)로 인해 평안과 위로와 참생명을 얻게 되었다.
- (3) 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두움과 죽음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땅에 새 생명을 가져오셨다. 그분은 생명의 길을 보여 주시었고, 그분의 가르침은 인간에게 힘을 가져다 주었으며(요 1:4), 그분의 조명(照明)은 구원의 힘이 되었다(행 13:47).
- (4) 그러므로 그분은 세상의 구세주이시다. 그분의 빛은 유대인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이다. 즉 그분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첫번째 사명은 유대인을 향한 것이었으나(15:24), 궁극적으로 전인류를 향한 것이었다.

21. **㉠** 예수께서 최초로 전파하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17절)

- ㉠** (1) 예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최초의 메시지로 삼으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는 말씀이다.
- (2) 이러한 외침은 이미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선포된 메시지이다(3:1,2). 그러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당신 자신이 수행해 갈 사역을 밝힌 것으로서 두 메시지의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더우기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시간적으로도 그때가 더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 (3) 여기서 ‘가까왔다’(헬, 엥기케)는 말은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왔다 라는 의미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요원(遙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 (4) 그런데 이미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관문이 바로 ‘회개’이다. 이 회개는 단순한 눈물이나 슬픔과 같이 감정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자기 반성이 아니라 지나간 시절의 잘못된 가치관과 삶에서 돌이키는 온 인격의 몸부림이어야 한다(참조, 5:3).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의 삶에 인정하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다.
- (5) 예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며 또한 이런 자들을 통해 당신이 구상하시는 완전한 천국을 건설해 가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중심의 삶을 깊이 회개하고 어느 곳, 어느 때에나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역(主役)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22. **㉠** 예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은 어디인가? (18-22절)

- ㉠** (1)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있는 갈릴리 바다이다.
- (2) 이 바다는 예수께서 그 당시 거처로 삼으셨던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 (3) 예수께서는 헤롯의 궁전이나 예루살렘으로 가지지 않고 갈릴리 바다로 오셨다. 이곳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런 희망도 쓸 만한 인재도 발견할 수 없는 하류 계층의 백성

들이 있는 곳이었다(참조, 사 9:1).

(4) 이처럼 우리 주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소외된 곳에도 가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그러한 곳이야말로 당신의 사랑과 희생이 더욱 필요한 곳임을 아셨던 것이다.

(5) 그래서 지금도 벌레 같은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 문에서 문 열기를 기다리신다(참조, 계 3:20).

23. **㉠**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부르신 제자들의 신분은 무엇이었는가? (18-22절)

㉠ (1) 그들은 모두 어부들이었다.

(2) 그렇기에 그들은 풍부한 부름 누리지 못하는 소시민들이었으며 사회적으로 어떠한 지위도 확보하지 못한 자들이었다.

(3) 또한 그들은 무식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애급의 모든 지식을 통달하셨던 모세와 같이 책과 문학으로 양육받지 못하였다.

(4) 이처럼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신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멸시치 않으시며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참조, 사 61:1).

24. **㉠**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신 제자들의 이름은 각각 무엇인가? (18-22절)

㉠ (1)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다.

(2) 그들은 두 쌍의 형제들이었다.

(3)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으나(요 1:40, 41), 그때까지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그를 따르도록 소명을 받지는 못했다.

(4) 그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그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참조, 요 1:37).

25. **㉠** 예수께서 부르시기 전 그들은 각각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18, 21절)

㉠ (1)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를 잡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그물을 잡고 있었다.

(2) 즉 그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충실히 일을 하고 있었다.

(3)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일에 충실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당신과 동역할 것을 요청하셨다(참조, 벧후 1:8; 히 6:12)

(4)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간혹 자신의 가정과 일터를 팽개쳐 놓고 주의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나 기도원에서 온종일을 보내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주께서 쓰시는 자들은 적어도 자신의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할 줄 아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6. **㉠** 예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19절)

㉠ (1)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다.

(2) 이것은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직업을 던지시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새로이 부과된 영광스러운 지위에 대해 자만해서는 안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일개 어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 반면에 그들은 자기들에게 새로이 할당된 임무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고기잡는 것을 계속해 왔고 이제부터 수행해 갈 새로운 임무도 여전히 어부이기 때문이다.

(4) 이처럼 그리스도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상 일들 속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가르치시고 암시할 때가 많다.

(5) 성도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부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귀, 명예나 진급 또는 그 자신을 얻기 위해서 주께서 맡기신 어부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영혼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참조, 고후 12:14, 16; 히 13:17).

27. **㉠** 예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에게 영광된 직책(사람을 낚는 어부)을 맡기셨다.

그런데 이러한 직책을 맡기시기 전에 그들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셨는가? (19절)

- Ⓐ (1)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는 명령적 요구를 하셨다.
 (2) 이 말은 단순히 장소적인 이동에 동참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처한 그들의 삶을 모두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따르라는 의미이다.
 (3) 즉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생(生)의 변화와 철저한 자기 헌신을 요구하신 것이다.
 (4) 사실 복음의 사역자로 일한다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피상적이거나 일시의 감정적인 결정에 의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에 과거의 삶을 포기할 줄도 알고 예수께서 필요로 하실 때는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어야 하는 자기 개혁이며, 자기 희생이어야 한다.
 (5) 예수께서는 이런 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이룩해 가시며 당신의 동역자로 귀히 사용하신다. 더우기 이런 자에게 하늘나라의 기막힌 상급을 예비해 두시고 계신다 (참조, 19:27-29).

28. ⓐ 예수의 부르심에 대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20, 22절)

- Ⓐ (1)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곧 배와 부친을 버려 두고' 예수를 쫓았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부르심에 즉각적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2) 이처럼 그리스도란 올바른 방향으로 따르는 자는 그분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3) 그리스도인들은 실로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자기의 삶 속에 가장 귀중한 것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며 그분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4)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에게 나오거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은 신실한 종이 마땅히 지녀야 할 좋은 속성이라는 사실이다.
 (5) 제자들은 자기들의 현재 사역이나 가족들과의 유대(紐帶), 소명받은 봉사의 어려움, 부르심에 합당치 못한 자신들에 대해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6)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들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권위만을 바라보고 자신들을 헌신했다. 이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결단이다(참조, 히 11:6-8).
 (7)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세는 어떠한가?

29.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무엇을 전파했는가? (23절)

- Ⓐ (1) 그분이 전파하신 것은 '천국 복음'이었다.
 (2) 이 메시지는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인류의 구원자이며 천국의 주인이신 메시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더우기 이 복음은 천국을 소개하는 내용으로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된 소식이며 새롭고 희망에 찬 소식이었다. 그것은 다니엘이 예언했던 왕국인데 예수 자신은 이 왕국의 왕이시다.
 (4) 이런 천국 복음에는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몇몇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17절)와 의(5:20)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18:3) 등이다.
 (5) 그러므로 예수께서 전파하신 것은 정치적 왕국의 설립이 아니라 전쟁과 탐욕과 잔인성으로 물든 세상의 영역을 초월한 평화요, 사랑과 소망과 순결을 가져다 주는 복된 소식이었다.

30. ⓐ 예수 그리스도의 병 고치는 이적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23절)

- Ⓐ (1) 그것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2) 첫째, 그 이적들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확증시켜 준다(참조, 요 14:11). 둘째, 그리스도

는 구약에서 예언하신 참 메시아이심을 보여 준다(11:2-6; 사 35:5; 53:4, 5; 61:1). 세째 천국이 이미 이르렀음을 입증하여 준다(12:28).

- (3)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사는 갈릴리 온 지경을 두루 다니시며 주께서는 인종이나 국적을 초월하여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다. 진실로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세상의 구주이시다(요 4:42; 요일 4:14).

31. ㉠ 갈릴리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23절)

- ㉠ (1)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돌아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 (2) 즉 그분은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함을 깨우치시는 선생이였으며(참조, 7:28, 29) 복음 전도자(9:35)였고 영육이 상한 자들 고치시는 의원이셨다(8:3).
- (3)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어떠한 특질을 지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준다. 교회는 ‘말씀 교육’과 ‘선교’와 ‘봉사’가 조화 있게 실시되어야 한다.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거나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과는 무관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4)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세 가지 사역이 각각의 특성을 지니고 독립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 가지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하나의 지상 목표(至上目標)를 지니고 있다(17절).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활동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항상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참조 6:33).

32. ㉠ 예수께서 ‘가르치신’ 곳은 어디였는가? (23절)

- ㉠ (1) 예수께서는 어떤 장소를 막론하고 백성을 가르치실 필요가 있으실 때는 바로 그곳을 교육장으로 활용하셨다. 그중에서도 이 가르침의 사역은 주로 ‘회당’이라는 곳에서 실시되었다.
- (2) 이 회당(헐, 쉬나고게)은 유대인들의 회집 장소로서 공중 예배와 교육 또는 어떤 특별한 집회 때에 사용되었다. 즉 이곳은 유대인들의 역사와 종교와 문화와 그들의 정신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민족의 주체성과 결집을 피할 수 있는 장소였다.
- (3) 회당의 기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Carolus Sigonius)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세워졌다고 한다. 유대인들은 늘 기도하며, 율법을 교육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과 같은 장소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즉 성전이 없던 지방에서 율법 교육과 교제를 위해 세워진 곳이 바로 이 회당이라 할 수 있다.
- (4) 이곳에서 정기적으로는 안식일이나 명절 때마다(후기에는 주간의 제 2, 5일에도 모임) 모여 선지서의 가르침에 경청하였다. 이러한 율법은 모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Diaspora) 이후의 인물들임을 감안해서 여러 나라 말로 통역되었다. 또한 합당한 인물에게는 이 율법의 주해를 달 수 있도록 회당장이 허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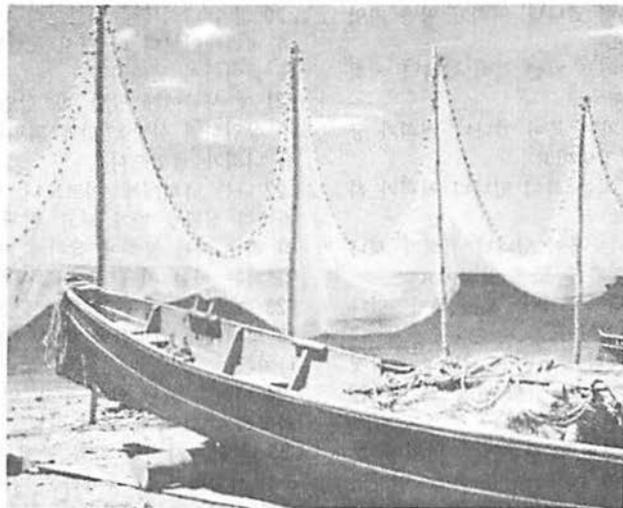
33. ㉠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24, 25절)

- ㉠ (1)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수리아에까지 퍼졌고 허다한 사람들이 그분의 뒤를 따랐다.
- (2) 예수의 이적 행함에 대한 소식은 더욱 더 퍼져 나갔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듯했으며, 모든 이스라엘이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는 듯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하고 천국 시민으로 살라는 메시지보다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참조, 요 6:66).
- (3)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었다. 즉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무리들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을 제공하시기 위해 당신께서는 역사하셨다(참조, 눅 17:11-19).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푸시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적에 놀라고 기뻐하였다. 이처럼 우리도 가끔은 눈앞에 나타난 진귀한 이적과 간증 때문에 충동적인 행동과 결심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적만으로 기독교의 전부를 보여 준 것인 양 행세하는 무리들도 있다.
- (5)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근하는 하나의 통로 역할만을 하여야 한다. 즉 그 모든 이적이 예수 그리스도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약한 믿음을 위해서 이러한 사랑을 베푸셨던 것이다.

연구자료

그물과 배. 이 사진은 갈릴리 해변을 배경으로 하여 찍은 것이다. 장대 위에 널려 있는 것은 그물이며 그 앞에 있는 배 위에도 역시 밧줄과 함께 잘 손질된 그물이 놓여 있다.



본장에는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본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예수의 부르심을 듣고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18-22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심에는 빈부 귀천과 유식, 무식의 구별이 없으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 약한 자, 전한 자들을 즐겨 부르신다(고전 1:26-29). 그런데 이 같은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말로써든, 행위로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께로 인도하게 하려 하심이다(참조, 5:16; 막 16:15).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나 안드레와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영광스런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제 5 장 예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시다

단락구분 1-2 산상 수훈의 배경 / 3-10 팔복 / 11-12 예수님에 대한 증거 및 핍박 / 13 세상의 소금 / 14-16 세상의 빛 / 17-20 율법의 완성자 / 21-26 살인에 대한 교훈 / 27-30 간음에 대한 교훈 / 31-32 이혼에 대한 교훈 / 33-37 맹세에 대한 교훈 / 38-48 원수의 사랑에 대한 교훈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11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되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하려 함이로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1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놀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3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5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들까 염려하라

26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27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9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31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율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33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5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36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회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37 오직 너희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느니라

38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40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에게 걸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골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4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1. ㉠ 본장의 특색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명한 산상 수훈(山上垂訓)이 시작되는 장으로서 전체의 구성이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특이하다.
- (2) 특히 이 설교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설교 중 가장 길고 연속된 것으로서 다른 어떤 설교보다도 실제적인 교훈을 많이 다루고 있다.
- (3) 따라서 이곳에는 기독교의 교리나 율법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반면 실제적인 삶을 통해 지켜야 할 기독교인의 행동 규범이 중점적으로 강조되어 있다.
- (4) 한편 본장의 서론 부분에서는(1, 2 절) 산상 수훈이 시작되기 전의 상황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본설교가 관념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동을 지도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본장을 묵상할 때 그 당시 산 위에 모인 무리 중에 속해 있다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예수께서 가르치신 실천적 교훈들을 보다 절실히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2. ㉠ 예수께서는 어디에서 설교하셨는가? (1절)

- ㉠ (1) 그 장소는 갈릴리 호수 주위에 위치한 산으로서 핫틴 산 혹은 '신약의 시내 산'이라고 불리어졌다.
- (2) 이 장소에 대해 누가복음에는 그 설교가 평지에서 행하여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눅 6:17), 이 문제는 예수께서 산 위의 평지에서 설교를 행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 (3) 이처럼 예수님은 조건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설교하지 못하였다. 즉 그분에게는 설교하기에 편리한 장소가 없었는데 심지어는 머리를 둘 곳조차도 없으셨다(8:20).
- (4) 이러한 산에서 설교하신 목적은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와 같이 어떤 장소만이 특별히 거룩하지는 않으며, 적절하고 편리한 곳이라면 어디서나 기도하고 전파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였다(참조, 6:3).

3. ㉠ '입을 열어'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2절)

- ㉠ (1)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랫동안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으나

(참조, 겔 3:27; 24:27; 33:22) 이제는 자신이 직접 입을 열어 자유롭게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 (2) 즉 예수께서는 구약 시대로부터 예언되었던 구원 사역을 담당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사 9:6; 눅 1:31; 요 1:14; 롬 8:3; 딤후 3:16; 히 2:14; 요일 4:2) 직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4:17, 23; 9:35) 때로는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율법을 가르치시기도 하셨다.
- (3) 이러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학자의 혀' (사 50:4)와 '주 여호와와 신(神)'을 부여받으심으로써 인간들에게 보다더 쉽고 알아듣기 쉽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다(사 16:1).
- (4) 한편 우리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는 없으나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그분의 음성을 느끼며 살아 있는 진리의 교훈들을 깨달을 수 있다(참조, 수 1:7, 8; 시 1:2; 119:97; 딤후 3:15, 16; 히 4:12).

4. **㉠ '심령이 가난한 자'란 어떤 자를 말하고 있는가? (3절)**

- ㉠** (1)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 자를 말한다. 즉 영적 가난을 자각하게 된 자들이다.
- (2) 또한 이러한 자는 자신의 칭의(稱義)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성화(聖化)를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를 의존할 수 있는 자이다.
- (3) 예를 들면 눈물로써 통회하고 긍휼을 부르짖었던 세리의 심령이 바로 그것이다(참조, 18:13).
- (4)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반드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암 8:11).

5. **㉠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3절)**

- ㉠** (1) 그들에게는 천국을 소유할 특권이 주어진다.
- (2) 왜냐하면 은혜의 왕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만이 '가난한 자의 모임' (시 74:19)이라 불리우는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 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 (3) 이와 같이 자기 자신과 타인들 앞에 겸허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곧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치 어린아이의 심령과 같이 순수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덧붙여서 받게 된다(18:3, 4; 눅 18:14).
- (4)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23:12)는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6. **㉠ 애몽하는 자는 무엇에 대해서 애몽하는가? (4절)**

- ㉠** (1)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참회의 애몽을 하게 된다.
- (2) 이것은 경건한 슬픔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근심이며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죄에 대해 슬퍼하는 자세를 가리킨다(참조, 속 12:10).
- (3) 한편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실 때도 상하고 죄를 뉘우치는 심령들이 드리는 것을 열납하신다(참조, 시 51:17).
- (4)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참조, 빌 2:1-4).

7. **㉠ 애몽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축복은 무엇인가? (4절)**

- ㉠** (1) '위로를 받을 것'이다.
- (2) 여기서 '위로하다' (헬, 파라칼레오)란 말은 위로자되신 하나님께서 슬픔당한 성도 결

에 함께 계신다는 의미로서 인간이 나누는 연민의 정이나 동정과는 차원이 다르다(참조, 요 14:16).

- (3) 만약 즉시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다(참조, 고후 4:17)는 사실을 기억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나사로(눅 16:25)처럼 하늘의 위로를 주실 것이다.
- (4) 실로 하늘나라의 행복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위로를 통해 우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줄 것이다. 특히 경건한 슬픔으로 애몽하는 자에게는 이 위로가 갑절의 기쁨이 될 것이다(참조, 사 66:10).

8. ㉠ 온유한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5절)

- ㉠ (1) 온유한 자란 고요히 자신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흠(笏)에 복종하는 자며, 그분의 지시를 따르고 의도에 응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 (딤후 3:2) 한 자이다.
- (2) 이처럼 온유란 외면적인 태도보다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과 사랑에 대한 선의(善意)를 뜻한다.
- (3) 한편 이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이었다(11:29). 죄인들에 대해서 한량없는 관용으로 대하시며 멸시와 모독 가운데서도 온유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맞아 주시던 주님에게서 온유의 모범을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비겁이 아니라 참된 용기에서 기인한다.
- (4) 결국 인간으로서 온유를 배우는 일이 힘들지라도 우리들은 온유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온유는 우리의 대승이 되시는 주님의 인격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진 신앙적 규범이기 때문이다(참조, 사 53:7; 벰전 2:23).

9. ㉠ 온유한 자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가? (5절)

- ㉠ (1)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 (2)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통해 볼 때 '땅'이란 힘이 강한 자, 부유한 자를 비롯해 야비한 자, 난폭한 자 등 비교적 온유한 자와는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들에 의해 서로 찢고 찢기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이 통례이다.
- (3)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볼 때 여기에서 '땅'은 수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인간 세상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새 땅' (사 65:17; 66:22) 곧 하늘나라를 가리킨다(참조, 계 3:12; 21:2).
- (4)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따라서 의인이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앙망하면서(벰후 3:13)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온유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한다(참조, 엡 4:2, 3).

10. ㉠ '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6절)

- ㉠ (1) '의' (헬, 디카이오스네)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그에게 한없는 은혜를 덧입히신 것을 뜻한다(참조, 렘 23:5, 6). 이 '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었다(참조, 사 53:4, 5).
- (2) 본절에서 말하는 의는 영적 축복의 상징으로 나타나 있다(참조, 6:33; 시 24:5).
- (3) 그러므로 영적 축복은 그리스도의 의(義)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
- (4) 참된 기독교인은 의를 먼저 간구하고 그 다음에 행복을 원한다. 그것은 참된 의가 있는 곳에는 진실된 행복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사 32:17).

11.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가? (6절)

- ㉠ (1) 그리스도에 주리고 목마른 자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이다(롬 10:4).
- (2)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생명이시요, 하늘로서 내려온 참된 떡이시다(요 6:35). 그의

살은 세상에 비할 데 없는 참된 양식이다. 또한 그의 피는 참된 음료로서 갈급한 심령을 흡족하게 만족할 수 있다(요6:14).

(3)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목마르셨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좇는 일에 주리고 목마르지 않으면 안 된다(참조, 요 6:35).

12. **㉠**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7절)

- ㉠** (1) 그들 역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 (2) 오직 긍휼을 베푸는 자들만이 주께로부터 긍휼을 베푸는 데 대한 상급 혹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참조, 6:14, 15; 삼하 22:26; 약 2:13).
- (3)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 (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악 때문에 도저히 긍휼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참조, 요 13:34).

13. **㉠**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8절)

- ㉠** (1)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볼 수 있다.
- (2) 여기서 청결함이란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은 순수함을 말한다. 참된 기독교는 청결한 마음 곧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림에 있다(렘 4:14). 즉 이 세상을 향한 욕심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것이다.
- (3) 우리는 하나님께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을 들어 올려야 할 뿐 아니라(시 24:4, 5; 딤후 1:5) 신랑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정결한 처녀로 보존되어야 한다(참조, 25:1; 레 16:30).
- (4)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참조, 고전 13:12; 요일 3:2, 3). 이처럼 세상의 혼탁한 것들을 깨끗이 청산한 자만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다(참조, 요 14:19).

14. **㉠**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9절)

- ㉠** (1) 모든 사람들과 평화할 것을 말씀하시고(롬 12:18; 히 12:14),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시며(엡 6:15), 평화의 왕을 본받아 살게 하시는(요 13:12-15) 화평의 하나님(고전 14:33; 엡 6:15; 살전 5:23)을 주로 모신 자들이다.
- (2)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메시아에게 속해 있다면 메시아께서 공급하시는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은 자명(自明)한 귀결이다.
- (3) 한편 화평케 하는 자는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손해 볼 줄도 아는 지혜와 용기와 인내와 사랑이 필요하며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정작 우리가 하늘나라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요소들을 신중하게 실천해야 된다.

15. **㉠**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릴 복은 무엇인가? (9절)

- ㉠** (1)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 (2)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갖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이다.
- (3) 실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 역시 화평의 왕이다. 또한 성령은 화평의 영이시다. 더우기 하나님은 그 자신이 우리 모두와 화목하신다고 선포하셨으므로(롬 5:1) 하나님은 서로 화해할 줄 모르는 자들을 그분의 자녀로 삼지 않을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에 의해서 화평케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음을 알고(롬 8:14)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16. ㉠ 의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10절)

- ㉠ (1)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핍박을 말한다.
- (2)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욕되고 모진 고문을 겪으면서도 참았으며, 칼과 불과 굶주린 사자의 발톱에 찢기우면서도 끝까지 순교의 아름다운 결과를 남겼다(참조, 히 11:35-40).
- (3) 그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영광스런 아버지의 품이 그들의 안식처와 위로의 처소가 될 것이다.
- (4) 십자가에 대한 핍박이 역사상 중단된 예는 없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와 같은 핍박은 계속되고 있다. 가정에도 있고, 학교나 마을 그리고 직장이나 사회에도 이와 같은 박해는 언제나 존재한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다가 받는 박해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할 것이다(참조, 고후 1:7; 빌 3:10; 벧전 4:13).

17. ㉠ 예수를 인하여 핍박당할 때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11, 12절)

- ㉠ (1) 핍박을 견디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큰 상급이 따르기 때문이다.
- (2) 이 상급은 사람의 공로로 얻어진다고 보다는 순전히 은혜로 주어진다. 또한 이 상급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는 족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참조, 롬 8:18; 고후 4:17, 18).
- (3) 따라서 우리는 고난받는 일에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되며, 바울과 같이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한다(고후 12:10).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해야 한다(벧전 4:12, 13).

18. ㉠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13절)

- ㉠ (1)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 (2) 그런데 소금의 특징적인 기능은 부패를 막는 데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을 부패에서 보존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참조, 약 1:27).
- (3)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여 그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부패 여부가 결정된다.
- (4) 예를 들어 소금의 존재 여부(存廢與否)가 의인 열 명에 달려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 볼 때(창 18:32) 성도의 영향이 그 지역 사회에 얼마나 중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가를 절실히 느낄 수 있다.
- (5) 또한 소금의 또 다른 기능은 스스로 희생하여 남을 이롭게 하는 데 있다. 즉 소금은 자신이 녹아짐으로써 여러 음식물에 짠맛을 공급하게 된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희생을 통하여 새로운 맛, 새로운 생명력을 이웃에게 공급할 수 있다(참조, 요 12:24).
- (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성령의 내적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요 무익한 것이다. 성령의 활동이 없는 교회와 성령이 없는 기독교인은 죽은 자나 다름없다(참조, 계 3:1).
- (7) 한편 우리들도 지금 각자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과연 소금과 같은 성도의 역할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19. ㉠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14절)

- ㉠ (1)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빛이며(엡 5:8), 빛들로 나타내어야 한다(빌 2:15)는 말이다.
- (2)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스스로 된 빛이 아니다. 그리스도만이 참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이다(요 8:12; 9:5; 12:35, 36, 46). 그러므로 사람은 빛되신 그리스도를 마음

속에 영접할 때야 비로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3)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포동의 것과 같다. 즉 자신의 빛을 직접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심지(그리스도)로부터 발생하는 빛을 어두운 곳으로 확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 (4)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뜻만 잘 전하면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갖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가리우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참조, 엡 5:8, 9).

20. **㉠** 등불의 효용(效用)은 어디에 있는가? (15, 16절)

- ㉠** (1) 주위를 밝게 비추는 데 있다.
- (2) 등불이 집안을 밝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 만족해서는 안 되며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의 빛을 안 믿는 자들에게 비추어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 (3) 한편 조그만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이 세상에 비취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의 등불은 기독교인의 생활 속에서 빛나게 되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행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참조, 히 13:21).

21. **㉠**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율법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17절)

- ㉠** (1)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오셨다.
- (2) 성경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유아기 때부터 율법에 의해 규정된 의식을 준수하면서 성장하셨다(참조, 눅 2:21-39).
 - (3) 특히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서 율법을 완수하셨다(갈 3:13). 그분은 구약의 모형과 의식을 완수하셔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지 않도록 하셨다(참조, 히 9, 10장). 그분은 옛 언약을 거두시고 새 언약을 가져오셨다.
 - (4)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에 대적함으로써 율법을 파괴하지는 않으셨다. 오히려 율법을 완수함으로써 그것을 완성하셨다.
 - (5)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율법을 이루셨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율법을 세우는 것이 되었다(참조, 롬 4:31).
 - (6) 한편 오늘날에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일상 생활에서 '율법의 의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참조, 롬 8:1-3). 이것은 우리가 죄없이 완벽한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통하여 그의 삶을 사신다는 것을 뜻한다(참조, 갈 2:20).

22. **㉠** 예수께서는 율법의 영원성을 어떻게 강조하였는가? (18절)

- ㉠** (1)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강조하셨다.
- (2) 여기에서 '일점'은 히브리어 글자 중에서 가장 작은 <요드>를 말하고 '일획'은 히브리어에서 문자를 구분지어 주는 작은 꼬리(케리야)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말은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모든 율법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의미이다.
 - (3) 한편 하나님께 속한 진리는 절대 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가변적(可變的)인 사랑의 진리와 달라서 발전 과정에서 지속성과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는 그 당시에도 진리일 뿐 아니라, 지금도 진리이고 이후에도 진리이다.

- (4)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대한 영원한 척도이다. 율법은 인간에게 죄를 알게 한다. 율법에 의해서 성령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게 하며,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한다(참조, 갈 3:23, 24).
- (5) 그렇지만 율법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는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단코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 (6) 율법을 경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 상태가 무지하고 병들었다는 징조이다. 실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롬 7:22).

23. ㉠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자'는 누구인가? (19절)

- ㉠ (1)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이다.
- (2)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 중 어느 하나라도 취소하는 것은 교훈이나 실천에 있어서 위험스러운 일이다. 또한 율법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실천의 의무를 약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역시 위험한 일이다.
- (3) 이와 같이 계명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시 119:126).
- (4) 사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은 어느 하나라도 불필요한 것은 없다. 그 모든 것이 궁극에 가서 우리를 구원하고 완전케 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아멘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24. ㉠ 천국에 들어갈 자는 누구의 의(義)보다 나아가 하는가? (20절)

- ㉠ (1)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가 한다.
- (2)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에 대해 적대하는 원수들이었으며 큰 핍박자들이기도 하였으나 그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어야 한다.
- (3) 그들은 금식과 기도, 구제를 많이 하였으며, 또한 착실하게 의례상의 약속들을 준수하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임무로 삼았으며,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들에 대해 늘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6:1-18).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편파적(偏頗的)이었고 율법의 구체적인 부분에 강조점을 두었는데 우리는 이를 보다 포괄적인 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면 목사님께 십일조를 바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야만 한다.
- (5) 한편 그들은 겉모양에만 신경을 쓰지만 우리는 내적인 경건을 자각해야만 한다.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을 목표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 (6) 또한 그들은 종교에서 행한 것에 대해 자만하고 그것을 의로 신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행했을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의만 신뢰해야 한다(참조, 16:24).

25. ㉠ 구약에서는 살인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21절)

- ㉠ (1)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 (2) 이 말은 십계명 중에 여섯번째 계명에 근거하였다(참조, 출 20:13; 신 5:17). 당시 살인자들은 누구든지 주요 도시의 문어귀에 있는 재판소에서 7-23명의 재판장들에게 심판을 받았다.
- (3) 그런데 제 6 계명에 대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이해는 전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들은 이 계명이 단지 외형적이며, 살인 행위 이상의 것을 금하지 않았고, 내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였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법이 단지 죄악된 행동만을 금지하였고 죄악된 생각은 금지하지 않았

다는 해석은 그들의 크나큰 오류였다.

- (5) 비록 그 계명이 옛 시대에 규정되어진 고대법이지만 그렇게 협소한 의미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다.
- (6) 즉 살인이라는 말 안에는 자살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간에 그것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는 율타리라고 할 수 있다.

26. **㉠** 예수께서는 어떤 자가 살인한 자와 동일한 벌을 받게 된다고 하셨는가? (22절)

- ㉠** (1) 이유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살인한 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었다.
- (2) 여기에서 분노는 마음속에서 자란 악의 뿌리 깊은 분노를 의미한다. 그런데 분노가 정당할 경우도 있다(엡 4:26). 그러나 이유 없이 분노할 때는 죄악이다.
- (3) 사악한 분노는 우리에게서 형제들과의 친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교마저도 흠쳐가 버린다. 이러한 분노에 대해 우리는 솔직하게 대처해야 하며 그것이 죄가 됨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
- (4) 또한 형제에게도 신속하게 화해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오래 지연할수록 속박은 점점 악화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화해하지 않게 되면 더 큰 어려움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는 꼴이 된다(참조, 18:15-20)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7. **㉠**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 (23-26절)

- ㉠** (1) 예물을 드리는 자는 먼저 형제들과 화목한 다음 예물을 드려야 한다.
- (2)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예물은 결코 하나님께 열납될 수 없는 것이다.
- (3)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참조, 막 12:30). 그와 같은 성격을 갖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예물은 하나님께 열납이 되어진다.
- (4) 봉헌자(奉獻者)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의 형제에 대한 원만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 대한 예물은 합당한 예물이 되지 못하며 열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며(참조, 요일 4:20)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얻을 수 없다(참조, 6:12).

28. **㉠** 간음죄가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7, 28절)

- ㉠** (1) 예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계명은 간음의 행동을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계되는 모든 정욕을 금하고 있다.
- (3)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 계명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까지 확대시키셨다. 따라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부당한 욕망도 부당한 행동과 똑같이 죄 있는 것으로 간주하신 것이다.
- (4) 한편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고전 6:15). 그와 같은 지체(肢體)를 더럽히는 것은 거룩하신 그분에 대한 불경스러운 행위가 된다.
- (5) 또한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기도 하다(고전 6:19). 지극히 거룩한 성령의 내재하시는 곳에 부정한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은 무서운 죄요, 가증스러운 신성 모독 행위이므로, 이와 같은 범죄 구성 요소는 초창기에 완전하게 분쇄하여 그 흔적을 말소시켜야 한다.
- (6)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경각심과 자기 부정의 생활이 따라야 한다(16:24). 나중에 쫓김을 당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다(참조, 10:28).

(7) 그런데 마음의 표정, 즉 음욕까지 다스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예수께 맡겨 버리는 철저한 자기 부정이다(참조, 갈 2:20). 예수의 공로와 은혜 없이는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준행할 수 없다.

29. **㉠ 예수께서 죄의 결과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강조하셨는가? (29, 30절)**

- ㉠** (1) 예수께서는 범죄로 인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범죄를 유발시킨 신체의 일부를 제거해 버리는 것 곧 오른쪽 눈이 자신을 실족케 하면 떼어 버리고 만약 오른손이 범죄케 하면 이를 찍어 내버리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강조하셨다.
- (2) 이 명령은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는 비록 사람이 문자 그대로 그의 오른 눈을 떼어 내버린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의 왼 눈으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결국 예수께서는 그 해석에 대한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셨다. 곧 18:7-9에 다소 다른 형태로 이 명령이 반복되어 나온다. 그 귀절에서 눈과 손은 우리를 실족케 하는 모든 원인들을 상징하며 대표한다.
- (4) 그러므로 본질의 의미는 '너를 죄 가운데로 유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는 뜻이다.
- (5) 따라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정욕이나 타락의 마음이 처음 솟아오를 때에 이를 단호히 억누르는 것과 아예 처음부터 죄의 기회를 피하는 것은 '오른 손을 찍어 버리거나 오른 눈을 떼어 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6) 한편 우리들은 악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하며 성결의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참조, 눅 1:75).

30. **㉠ 결혼한 남자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와 이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31, 32절)**

- ㉠** (1) 이렇게 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 (2) 그런데 성경에서는 결혼의 근본 법칙으로 이혼을 허락치 않았지만 부정한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성립됨으로써 특별히 결혼 계약 관계가 파괴될 수 있었다(19:3-8; 창 2:24). 그 외의 경우 아내와 떨어져 사는 것은 별거일 뿐이지 이혼은 성립될 수 없었다.
- (3) 한편 모세는 다른 경우에도 이혼을 허락했다(참조, 신 24:1). 이와 같은 허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으로(말 2:16), 그 당시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남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내를 버렸기 때문에 부당하게 버림 받는 여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이 같은 이혼을 허락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율법의 명령과 규범의 일시적 허용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 (4) 그러나 예수께서는 불순한 이혼을 징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들은 한 몸이 될지니라'(19:5)고 강조하셨으므로 결혼에 대한 규례를 그 원래적인 제정어까지 소급시키고 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혼은 결혼 계약을 깨뜨린 간음의 경우 외에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어떤 다른 이유로써 자기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은 '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그 여자가 이와 같이 이혼했을 때 그녀와 결혼하게 될 자에게도 간음케 하는 것이다(참조, 롬 7:1-3).
- (6)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 볼 때 실로 남편은 아내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참조, 32절; 시 50:18; 고전 7:10, 11). 더우기 적극적으로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참조, 엡 5:22-33).

31. **㉠ 예수께서는 맹세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33-37절)**

- ㉠** (1)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다.

- (2)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언급되지 않은 맹세는 덜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러한 맹세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
- (3) 그리하여 일상 생활 가운데서는 자연히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는 맹세들이 자꾸만 늘어가기 시작하였고 23:16, 18에 의하면 심지어 ‘성전으로’, ‘제단으로’ 하는 맹세까지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 (4) 왜냐하면 그들은 상대에게 어떤 감명을 주기 위해서 ‘허풍’에 지나지 않는 맹세와 수많은 약속을 남발하였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 맹세하지 아니한 이상 나쁜 것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 (5) 이런 행동에 대해 예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 말은 외식적인 맹세에 대한 금지이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행동에 반대하여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실한 것을 요구하셨다.
- (6)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실로 우리의 대화는 정직해야 되고, 우리의 성품은 진실해야 한다. 왜냐하면 말은 성품에 의존하며 맹세가 천한 성품을 보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참조, 잠 10:19).

32. **㉠** 구약의 복수법(復讐法)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견해(見解)는 어떠한가?(38-42절)

- ㉠** (1) 자비롭고 관대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다.
- (2) 그런데 원래 율법은 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지른 죄의 크기 이상의 대가를 범죄자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했는데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적 보복을 방지하여 주기 위해서였다.
- (3)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손해를 끼쳐야 감수하라는 태도로 율법을 재정립하셨다. 물론 주님은 이것을 개인적인 모욕에 적용하신 것이지만 단체나 국가간에 적용하신 것은 아니다.
- (4) 한편 복수는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을 더욱 악화시킬 따름이다. 그 결과는 평화가 아니라 뿌리 깊은 분쟁이 된다. 진정으로 ‘원편 뺨도 돌려’대기 위해 믿음과 사랑이 요구된다.
- (5) 이 사랑은 우리가 다치더라도, 내적으로 악하게 되는 것보다 외적으로 상처입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의미한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해 올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따라 생각해야만 한다(참조, 요 13:34).

33. **㉠** 예수께서는 이웃 사랑에 대해 어떤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가?(43, 44절)

- ㉠** (1) 예수께서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구약의 복수법적 규례(참조, 출 21:24; 레 24:20)를 초월하는 새로운 사랑의 계명으로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다.
- (2) 그런데 율법의 본래적 의미는 결코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인간이 그 의미를 축소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참조, 출 23:4, 5).
- (3) 예수께서는 이러한 새 계명을 주심으로써 율법의 본래 의미를 찾아 주셨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실천해야 할 의무이므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 (4) 한편 이러한 사랑에 대해 예수께서 직접 본을 보이셨는데 이는 우리가 그분의 원수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잘 대변해 주고 있다(롬 5:10).
- (5)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예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참조, 롬 12:16-18).

34. ㉠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45-47절)

㉠ (1)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다.

(2)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자녀된 자들도 그 행하심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다.

(3) 그런데 사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행할 바를 가르치고 있는 실제적 모본(模本)이다.

(4)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녀야 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자세를 볼 수 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자세를 결코 가질 수가 없다(16:24). 즉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항상 그리스도여야 한다.

35. ㉠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향해야 할 의(義)의 목표점은 어디인가? (48절)

㉠ (1) 이러한 목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

(2) 결국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은혜와 거룩에 있어서 완전을 열망하고 지향해 나가는 데(빌 3:12-14) 있다고 볼 수 있다.

(3) 그렇지만 온전함이란 말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철저함과 성숙을 의미한다(참조, 엡 5:15).

(4)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를 본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도야(陶冶)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연구자료

산상 수훈(山上垂訓)에 대한 이해. '산상 수훈'이란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公生涯) 초기에 갈릴리 호수 주위의 어느 한 산에서 유대인 무리들에게 행한 설교(1절; 7:27; 눅 6:20-49)를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이 설교를 가리켜 특별히 '수훈'(垂訓)이라고 칭하는 까닭은 그 내용이 후세에도 길이 전수되어 못 사람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주옥(珠玉) 같은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상 수훈은 내용상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단락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① 여덟 가지 복(3-12절; 눅 6:20-26) ② 성도의 생활과 구약 율법(13-48절; 눅 6:27-36) ③ 구제, 기도, 금식(6:1-34) ④ 순전(純全)한 삶의 원리(7:1-12; 눅 6:37-42) ⑤ 결론적 교훈(7:13-27; 눅 6:43-49). 그런데 이상과 같은 내용은 사실상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再解釋)하고 그 폭과 깊이를 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7:12)라는 말에서 보다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리켜 일명 황금률(黃金律)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제 6 장 하나님의 자녀가 행해야 하는 생활

단락구분 1-4 구제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치시다 / 5-8 기도의 자세에 대한 교훈 / 9-13 주기도문 / 14-15 용서에 대한 교훈 / 16-18 금식하는 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교훈 / 19-24 하늘에 재물을 쌓도록 권면하시다 / 25-34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1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복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게 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2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5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제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 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게 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4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15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

하시리라

16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제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9 너희를 위하여 보람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물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람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물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1 네 보람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2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맑을 것이요

23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26 풍중의 새란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꽃
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까보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읍

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
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1) 본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外飾)된 행위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

(2) 특히 그들의 구제 생활과 기도 생활, 금식 생활에 대해 경고하셨는데, 이러한 생활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행실을 따르려 했었고 권하기
까지 했다.

(3)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런
과오를 쉽게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한편 '외식하는 자는 자신의 종교적인 행실로 죄를 감추고, 대신에 모든 사람들에게 높
임을 받으려는 자이다.

(5) 이러한 바리새인의 의로움은 진실하지 못했고 정직하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상급
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켰다. 그러나 진정한 의로움은 내면
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6)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요구되는 윤리적 척도에 비추어 과연 자신이 진실하고 정직
한지를 시험해 보아야 한다. 지금 우리의 행위는 외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2. ㉡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범하기 쉬운 과오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떻게 권면하셨는가?

(1절)

㉡ (1)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고 하셨다.

(2)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앞에 언급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
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5
:16)는 권면 사이에 모순점이 있다고 여기기 쉽다.

(3) 그러나 이 두 귀절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전자는 외식하는 자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타인을 의식하여 의를 행하는 경우인 반면 후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기 위해 의(선행)를 행하는 것이다.

(4) 결국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의 눈만을 의식하는데 이는
내적 의미와 그것의 참된 가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망각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5) 따라서 그들은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구했으므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6) 이 같은 선행이 하나님께 열납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속으로는 자신들의 영광을 찾
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척하는 이중성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시기 때
문이다.

(7) 이 문제는 두 가지 보상, 즉 일시적인 사람의 칭찬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칭찬 중에
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다. 인간의 영광이란 오래 가지 않으므로 사람들
의 칭찬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다(참조, 벰전 1:24, 25).

3. ㉠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나팔을 부는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그들은 구제 사업을 할 때 나팔을 불어 대중들에게 알림으로써 그들로부터 영광을 얻고자 했다.
- (2) 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네거리와 넓은 광장에서 구제품이 든 조그만 바구니를 건네 주곤 했다.
- (3) 이런 행동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증인으로 삼으려는 전시 효과로서 그들은 이것이 가난한 자들을 불러모으기 위한 수단이라고 핑계를 댔지만 속셈은 박수 갈채와 인기를 노리는 데 있다는 것은 뻔한 노릇이다.
- (4) 이처럼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판단하고 인정해 주실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시 효과를 노리는 사람들은 지금 그들의 보상을 이미 받고 있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당연하다.
- (5)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사람을 돕기 보다는 대중의 인기를 얻기에 전념하고 있다. 만약 자신의 이름이 자신 명단에 기록되지 않으면 기부금을 취소하기까지 하는데 이는 철저하게 전시 효과만을 노리는 인간 심리의 완악성을 잘 드러내 주는 실례(實例)라 할 수 있다.
- (6) 이렇게 전시 효과를 노리는 세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참된 자선의 행위를 하도록 힘써야 한다. 참된 자선은 모든 위선을 배제하고 가난한 자가 합당하게 도움을 받도록 하는 데 있다(참조, 엡5:1,2).

4. ㉠ 구제할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3,4절)

- ㉠ (1)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른다' 만큼 은밀하게 해야 한다.
- (2)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은밀히 행하여야 한다는 말이다(참조, 25:37-39).
- (3) 실로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을 보여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자만심과 자족감을 가지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허영과 겉치레와 같이 위험한 마음가짐이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은밀한 중에 마음을 다하여 구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참조, 눅11:41; 행9:36).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도 모두 보시고 계신다(참조, 25:31-46; 롬2:16).

5. ㉠ 외식하는 자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5절)

- ㉠ (1)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 (2) 그런데 성경 아무 곳에서도 공적인 기도(대하6:14-42; 느9장; 행4:24-31)를 정죄하지 않으며 공개된 장소에서 드러지는 개인적인 기도도 정죄하지 않는다. 더우기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도 죄가 되지 않았다(눅18:9,10).
- (3) 다만 주께서 정죄하고 계신 것은 다름아닌 과시(誇示)하기 위한 기도였다. 이러한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영광을 얻기 위해 가장 변화한 장소에서 자기 개인의 문제를 놓고 간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눅18:9-14).
- (4) 이런 기도를 하는 자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칭찬으로써 상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상은 적어지게 될 것이다.
- (5)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개인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이루어지는 둘만의 대화임을 기억하고 보다 은밀한 가운데서 신령과 진정으로(요4:23,24) 기도드릴 수 있어야 한다(참조, 막1

: 35;6:46, 47; 눅 5:15, 16;6:12;22:41, 42; 행 10:9).

6. **㉠ 예수께서 제시하신 기도 장소와 마음가짐은 어떤 것인가? (6절)**

- ㉠** (1) 예수께서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제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 (2) 그런데 이 말씀은 기도하는 장소로서 개인적인 기도실을 갖추어야 한다거나 공적인 기도 곧 대중 기도를 금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 (3) 결국 예수께서 가르치고자하신 근본 의도는 기도하는 장소의 선택이라기 보다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 (4)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공적인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경건 그 자체보다는 경건으로 인한 명성에 더 관심이 있었던 외식적인 기도 자세를 지적하셨고(5절) 결과적으로 기도하는 장소로 골방을 제시한 것이다(5:29, 30).
- (5) 한편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인간들에게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선행이나 장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는 자기 현시욕(自己顯示慾)이 있기 마련이다.
- (6) 그러므로 우리들은 최대한 이러한 욕망을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심령으로, 은밀한 시간에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삼상 15:11; 왕상 17:19, 20; 단 6:10; 막 1:35; 6:46, 47; 눅 5:15, 16; 6:12; 9:18; 행 10:9, 30).

7. **㉠ 이방인의 기도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7절)**

- ㉠** (1) 그들은 기도할 때 중언 부언(重言復言)하여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실 줄로 생각했다.
- (2) 한편 긴 기도라고 해서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니다(참조, 대하 6:14-42; 느 9장; 시 18, 89, 119편).
- (3) 그런데 이방인들은 저희가 기도를 길게 하고 크게 하면 할수록 저희가 바라는 일에 성공할 기회를 누릴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였다(참조, 왕상 18:25-29).
- (4)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두드러지고 열렬한 기도들 가운데 상당수는 간절하고 명료하다. 예를 들면 모세(출 32:31, 32), 솔로몬(왕상 3:6-9), 엘리야(왕상 18:36, 37), 히스기야(왕하 19:14-19), 스테반(행 7:60)의 기도가 그런 종류에 속한다.
- (5) 정작 참된 기도는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그 마음 자세부터 외식을 피해야 한다(참조, 히 5:7).

8. **㉠ 왜 중언 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가? (8절)**

- ㉠** (1)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기 전부터 이미 각자의 요구를 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도할 때 구태여 이방인들과 같이 필요 없는 말들을 중언 부언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 되므로, 결코 그들의 기도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 (2) 이와 같이 하나님의 눈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감찰하신다(대하 16:9). 또한 그분은 종종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며(사 65:24) 우리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주신다(엡 3:20).
- (3)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가 없거나 그들에게 좋지 않은 것임을 잘 아시기 때문이다.
- (4)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는 말을 길게 하거나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분에게 말씀드릴 때 우리는 그분에게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나이다' (시 38:9)라고 말해야 한다.

- (5) 한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거나 길게 하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참조, 전 5:2). 실로 가장 능력 있는 간구는 '말할 수 없는 탄식' (롬 8:26)으로 하는 기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요청을 해야 한다(참조, 시 86:1).

9. **㉠**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인가? (9점)

- ㉠** (1) 주기도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제시한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한 모델(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귀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하라'에 해당되는 헬라어 <프로숙세스테>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명령법 동사로서 '기도할 때마다'라는 계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주기도문은 예수께서 단지 그 당시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친 것일 뿐만 아니라 장차 모든 성도들에 의해 계속 반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의도로 가르쳐 주신 기도임을 알 수 있다.
- (3)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정확히 주기도문에 나타난 말들만 사용하고 다른 말들은 사용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 다만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 (4) 이 주기도문은 약 3세기 이후부터 모든 교회에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주기도문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라지고 주께서 정죄하고 계셨던 형식주의 곧 아무런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경우가 있다.
- (5) 그러나 우리들은 아무리 반복되는 기도라 할지라도 결코 근성으로 행하지 말고 예수께서 보여 주신 기도의 모본(模本)에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참조, 요일 5:14).

10. **㉠** 주기도문의 특징은 무엇인가? (9-13점)

- ㉠** (1) 이 기도는 이방인의 증인 부언하는 기도와는 대조가 된다. 기도 자체가 그다지 길지도 않고 간략하며 진실성이 내포되었다. 실로 하나님이 열납하실 만한 기도인 것이다.
- (2) 한편 하나님은 바알의 추종자들이 호소했던 것과 같은 광란적인 자태를 원하지는 않으신다(참조, 왕상 18:25-29).
- (3)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언제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시며 은밀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이다. 어떠한 기도는 하나님께 설교하는 듯한 형식도 있는데 그와 같은 자세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 (4)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 더우기 하나님이 도와 주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같이 하나님을 대해서도 안 된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확신 있게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이다(참조, 막 11:24).

11. **㉠** 주기도문의 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하라(9-13점).

- ㉠** (1) 하나님께 관계된 간구들:
 - ① 하나님의 이름 첫번째 간구 9절 하반절
 - ② 통치 두번째 간구 10절 상반절
 - ③ 뜻 세번째 간구 10절 하반절
- (2) 우리에게 관계된 간구들:
 - ① 우리의 일용할 양식 네번째 간구 11절
 - ② 죄 혹은 빛 다섯번째 간구 12절

③ 원수 여섯번째 간구 13절

- (3) 첫 세 간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세 간구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네번째 간구)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다섯번째와 여섯번째 간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 (4) 더우기 현재의 필요(네번째 간구)를 비롯해 우리의 과거와 관련된 필요(다섯번째 간구)와 또한 미래의 필요(여섯번째 간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 (5)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에 있어서 기도의 주체가 일인칭 복수형(‘우리가’, ‘우리의’, ‘우리에게’)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본기도가 간구하는 자 뿐만 아니라 형제 및 이웃들까지도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이 모든 내용이 간략한 주기도문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 보아 이것은 실로 우리 기도의 완벽한 모형이 아닐 수가 없다.

12.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9점)

- ㉠ (1)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독점적인 특권이다(참조, 요 1:12; 롬 8:14-17; 갈 4:6; 고후 6:18; 요일 3:1, 2).
- (2) 그러므로 이 모험적인 기도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 (3) 한편 이 주기도문의 서두에는 직접적으로 예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분명히 함축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이다(요 14:6).
- (4) 또한 이 말에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와 가까이, 무한히 가까이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 아뢰기 위하여 아버지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참조, 히 4:16).
- (5)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전 5:2)는 것이다.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크나큰 은혜이다. 이 은혜를 임의로 저버리면 우리에게는 멸망만 있을 뿐이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과 경외, 겸손과 인내를 포함한 모든 경건한 자세로 우리의 아버지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참조, 시 31:19).

13. ㉠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설명하라 (9점).

㉠

| 이름 | 의미 | 성경구절 |
|------------|------------|-----------------|
| 여호와 | 스스로 있는 자 | 출 3:13, 14 |
| 여호와 세바오트 | 만군의 여호와 | 삼상 1:3 |
| 여호와 엘 게물로트 | 보복의 하나님 | 렘 51:56 |
| 여호와 나케 | 멸망시키는 여호와 | 렘 7:9 |
| 주 르 | 반석 | 사 44:8 |
| 데오스·데이오스 | 신(神) | 행 17:29 |
| 아도나이 | 주(主) | 구약 성경의 일부 |
| 퀴리오스 | 주(主) | 신약 성경의 전반부(全般部) |
| 데오테스 | 신성(神性) | 골 2:9 |
| 데이오테스 | 신성(神性) | 롬 1:20 |
| 엘리온 | 지존(至尊)하신 자 | 시 18:13 |
| 후프시스토스 | 가장 높은 곳 | 21:9 |
| 카도쉬 | 거룩하신 주 | 시 71:22 |
| 차디크 | 의로우신 하나님 | 시 7:9 |

| | | |
|----------|-------------------------|--------------|
| 김보르 | 전능하신 자 | 신 10:17 |
| 압 | 아버지 | 시 88:26 |
| 파테르 | 아버지 | 요 5:17 |
| 샤파트 | 심판하시는 자 | 창 18:25 |
| 가알 | 구속자(救贖者) | 욘 19:25 |
| 야샤 | 구원자 | 사 43:3 |
| 소테르 | 구주 | 눅 1:47 |
| 팔라트 | 건지시는 자 | 시 18:2 |
| 마젠 | 방패 | 시 3:3; 18:30 |
| 에얌루트 | 힘 | 시 22:19 |
| 엠펜 | 전능하신 자 | 시 50:1 |
| 엠펜힘 | 능력이 충만한신 하나님 | 출 18:11 |
| 엠펜 로이 | 감찰하시는 하나님 | 창 16:13 |
| 엠펜리온 | 지존(至尊)하신 자 | 시 18:13 |
| 엠펜 엘은 | 지고(至高)하신 자 (가장 강한 자) | 사 14:13, 14 |
| 엠펜 샤다이 | 전능하신 하나님 | 창 17:1 |
| 엠펜 움람 | 영원한 하나님 | 사 40:28 |
| 엠펜힘 세바오트 | 만군의 여호와 | 렘 11:20 |

14. ㉠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가? (9점)
- ㉠ (1)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높이는 것을 말한다.
 (2)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닌 의미에 대한 단순한 지적 지식보다 실질적인 태도들이 요구된다.
 (3) 그것은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을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참조, 고전 6:20).
15. ㉠ '나라이 임하옵시며'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10점)
- ㉠ (1) 이 간구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 주셔서 인간들의 마음이 그분의 의(義)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지상에 편만해 있는 악의 세력들을 그분의 뜻에 따라 정돈시켜 달라는 뜻이다(참조, 계 22:20).
 (2) 즉 이 간구는 하나님께 그분의 왕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짊어지도록 하여 달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참조, 11:29).
 (3) 정작 불의와 악독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넓게 퍼져서 악의 세력들이 추방되고 올바른 정의를 심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힘써야 한다.
 (4)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명에 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참조, 11:30). 우리는 날마다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실이 있어야만 한다(참조, 살 전 5:6).
16. ㉠ 세번째 간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어떤 의미인가? (10점)
- ㉠ (1) 하늘의 모든 천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참조, 시 103:20)처럼 우리들도 땅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해 달라는 말이다.
 (2) 그러므로 세상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이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3) 한편 예수께서는 이 일에 대해 먼저 모범을 보이셨는데 이러한 사실은(눅 2:51, 52; 요

15:10; 17:4; 빌 2:5-8; 히 5:8) 갓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26:39) 라고 하신 기도에 잘 나타나 있다.

- (4) 이처럼 우리도 간구할 때 '나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옵시며, 당신의 뜻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것에 합당한 순종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는 간구를 해야 하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써야 한다(참조, 수 1:8).

17. ㉠ 주기도문에서 네번째 간구의 내용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11점)

㉠ (1) 그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다.

(2) 그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하루 동안 필요로 하는 몫을 주옵소서' 이다. 주께서는 이 간구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자기들의 소원과 요청을 절제하라고 가르치신다. 실로 이 간구는 양식을 위한 것이지 사치품을 위한 요청은 아니다(참조, 잠 30:8, 9).

(3) 물론 양식이란 용어를 문자적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양식은 육체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4) 또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신뢰는 '미래를 위하여 예비하는 것' (창 41:33-36; 잠 6:6-8)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미래에 관하여 염려하는 마음'이다. 결국 이러한 신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 것을 말한다.

(5) 그러나 나태하고 태만하게 행동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먼저 일에 대한 자발성이 선행된 다음에 간구가 따라야 하며 반드시 이 간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

(6) 세계 도처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민족들을 생각해 보라. 정작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데도 감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간구는 전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필요도 여기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하나의 하늘 가족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엡 3:14).

(7)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행동은 단지 먹을 양식만 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영의 양식에 주리지 않도록 갈급한 심령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구하기에 힘써야 한다(참조, 암 8:11).

18. ㉠ 우리의 용서함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12점)

㉠ (1) 여기에서 먼저 밝혀 두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라는 것이다.

(2) 실로 죄 사함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 즉 하나님의 은혜(엡 1:7)와 긍휼(18:27) 그리고 자비(눅 18:13)에 근거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실제로 용서해 주는 일 없이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14, 15절).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죄 사함을 받는 데 절대적인 조건이다.

(4) 결국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신앙과 신앙의 표현들 중의 하나인 용서하는 일은 부딪치고 실천해야 할 필수적인 조건이다.

(5)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과 용서하는 일의 씨를 심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6) 또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다.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다(신 32:35; 롬 12:19).

(7) 더우기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용서의 모범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참조, 눅 23:34; 요 13:12-15; 엡 4:32; 5:1, 2; 골 3:13).

19. ㉠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이미 깨끗해졌는데 그 후에도 왜 매일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계속 기도해야 하는가? (12절)

- ㉠ (1)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근거는 예수의 대속적(代贖的)인 은혜로 단번에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이 사실은 절대적인 법칙이다.
- (2) 하지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 깨끗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 (3) 한 사람이 중생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즉시로 다 체험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증되어 있는 큰 은혜에서 매일 조금씩 자기의 분량대로 찾아 가는 것을 가리킨다.
- (4) 실로 죄 사함을 위한 기도는 기도자가 자기 죄를 씻을 수 있는 다른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탄원이라 할 수 있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의 죄인됨을 확인하여 자신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한다(참조, 요 13:10).

20. ㉠ 주기도문에서 여섯번째 간구의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가? (13절)

- ㉠ (1) 그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이다.
- (2)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악하여 세상의 생활에서 죄짓기 쉬울지라도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참조, 26:41) 우리를 향한 당신의 길이 무엇이든지 다만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이다.
- (3) 한편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이 범죄하도록 시험하지 않으시지만(약 1:13) 우리들도 스스로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
- (4)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빠져들게 되는 원인은 대부분 세상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참조, 고후 6:14-16) 옛 사람의 구습을 따라 살기 때문이다(엡 4:22).
- (5) 실로 구원받은 죄인 각자가 얼마나 많은 시험에 견딜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 힘든 시험에 견딜 수 있는지를 아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악(엡 6:12; 뱀전 5:8)과 세상(요 15:19)과 자기의 육체적 소욕(롬 7:23; 갈 5:17)의 공격으로부터 좌절하지 말고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항상 주의를 하여 악을 물리치도록 애써야 한다(참조, 롬 16:20; 살전 5:23).

21. ㉠ 주기도문의 송영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라 (13절).

- ㉠ (1) 그 내용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다.
- (2) 이 문구는 개역 성경에서 관호로 취급되었듯이 대부분의 고대 사본(알렉산드리아, 바티칸, 베자 사본 등)에서는 생략된 부분이다. 그러나 2세기 전반기에 기록된 교훈집 '디다케'(Didache) 곧 '열 두 사도의 가르침'(Teaching of the Twelve Apostles, Ⅷ. 2)에는 포함되어 있다.
- (3) 한편 개역 성경에는 '대개'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이는 첨가되어야 옳다.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호티>로서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 (4) 여하튼 이 송영은 '아버지께서 왕이시므로 아버지의 뜻은 우리들과 모든 사람들에 의해 순종되어야 합니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 (5)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그분의 계획에 순응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 (6)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들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결코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되풀이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귀절마다 그 의미를 새기며 각자의 간구를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

22. ㉠ ‘아멘’의 뜻은 무엇인가? (13절)

㉠ (1) ‘그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뜻이다.

(2) 그러므로 기도를 마칠 때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리라는 소원과 확신의 증거이다.

(3) 따라서 주께서는 우리의 연합에 대한 동정에서 모든 것을 한 마디로 종결함으로써, 세부적인 말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과 실언했던 것을 총괄적으로 함께 모을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4)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모든 기도 끝에 크게 ‘아멘’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들이 기쁜 마음으로 경건한 의무를 마칠 수 있기 위해서는 온화하고 힘있게 기도를 결론짓는 것이 좋다.

(5) 만일 우리가 이 말에 대해 사도 바울이 지시하는 것처럼 이해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쓴다면 좋은 관습이 될 것이다(참조, 고전 14:16).

23. ㉠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14, 15절)

㉠ (1)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야 한다.

(2)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참조, 5:1-6; 18:27; 눅 18:13) 뿐만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참조, 롬 3:24; 엡 2:8; 딤후 3:5)에서도 구원은 인간의 공로에 의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할 일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3) 한편 원어(原語) 성경에는 12절의 ‘죄’를 ‘빚’(헬, 오페이레마)이라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진 윤리적인 빚으로서 반드시 우리들이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또 만일 우리 자신이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 대가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4) 반면 본절에서 죄는 과실(過失)로 묘사되었는데 이 말은 진리와 의의 길에서 이탈됨을 의미한다. 이 이탈은 갈 6:1과 롬 5:15, 17, 18처럼 온전하게 엡 1:7; 2:1 에서와 같이 근본적으로 용서받아야 한다.

(5) 이같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주 안에 있는 형제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엡 4:32).

24. ㉠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금식에 임해야 하는가? (16-18절)

㉠ (1) 우리들은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제신 하나님께 보이도록 힘써야 한다.

(2) 이처럼 예수께서는 금식에 대해서도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하셨던 동일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말씀 역시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도록 애써라는 교훈이다.

(3) 따라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말씀은 금식할 때에 가져야 할 마음 자세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으로서 이는 사치를 부리라는 말이 아니고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중용을 갖추라는 말이다.

(4) 바꾸어 말하면 금식할 때 우리의 일상 생활에 전혀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5) 실로 금식은 그 자체의 목적을 넘어서 우리에게 절제를 복돋아 주고 육신의 정욕을 꺾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픈 마음을 갖게 해주며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6)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비단 금식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선행이, 결코 타인을 의식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져

야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참조, 3절).

25. ㉠ 예수께서는 성도들에게 어디에 재물을 쌓아 두라고 가르치셨는가? (19-21절)

- ㉠ (1) 먼저 예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 (2) 왜냐하면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해 창고에 쌓아 둔 경우 옷감이나 의복은 '좁' (헬, 세스)에게 값어치 먹혀 헤어지게 되고 동전들은 '동록' (헬, 세스) 곧 구리의 산화현상으로 생기는 푸른 녹으로 인해 부식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도둑들이 창고에 구멍을 뚫어 도적질해 가는 것까지 감안해 볼 때 결국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쌓아 둔 재물들은 물거품같이 허무하게 사라지게 마련이다.
- (3) 따라서 예수께서는 '좁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는'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 두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 (4) 여기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는 말은 좁, 동록, 도둑으로부터 안전한 높은 곳에다 재물을 쌓아 두라는 뜻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라는 의미이다. 즉 자신의 재물을 혼자만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거나 저축하지 말고 가난한 형제들에게 끌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이다.
- (5)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물욕(物慾)이란 참으로 억제하기 힘든 욕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6) 이는 성도 개개인의 경우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 전체의 풍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교회 건축, 여러 가지 기념 행사 등에는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불우한 이웃을 돕는 구체 사업에서는 아주 인색한 반응을 보여 왔다는 사실이다. 더우기 기업을 경영하는 일부 성도들이 이 땅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거나 부당하게 임금을 체불(滯拂)하여 많은 사람들로 부터 비난을 받았던 적도 있다.
- (7) 그러나 장차 '새 하늘'과 '새 땅' (사 65:17; 66:22)에서 살고자 하는 진실한 성도들은 결코 이 땅의 재물에 연연해 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위해 자신의 재물을 의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13:44; 19:21; 눅 12:33; 딤후전 6:17, 18).

26. ㉠ 예수께서는 우리 몸에서 눈의 존재를 어떻게 보았는가? (22, 23절)

- ㉠ (1) 예수께서는 눈이 우리 몸을 위한 빛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빛으로 인도하는 자, 즉 온몸에 빛을 비추기 위해 인도하는 안내자라고 말씀하셨다.
- (2) 그런데 사람이 빛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눈 때문이다. 따라서 눈이 빛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볼 때 눈 자체는 몸의 빛 또는 등불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이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양심도 우리의 내면 생활에서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는 양심이 영적 빛이 들어오는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심이 없는 사람은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 (4) 한편 우리들은 각자의 지적 욕구에 따라 종교에 관한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으며 혼자 힘으로도 교리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을 깨달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해서 얻은 지식이 영적인 것이 되지는 못한다.
- (5) 따라서 그에게 의와 죄, 믿음과 구원, 속죄 등은 단순히 암기되어진 한 단어의 지식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영적인 깨달음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6)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진리는 결코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으며 오직 의로운 생활을 통해 영혼의 눈이 밝아짐으로써 이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참조, 전 10:14; 호 14:9; 롬 11:33; 고전 1:25).

27. ㉠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4절)

- ㉠ (1)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고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
- (2) 이와 같이 제한된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어느 한 곳에 치중하게 되면 다른 부분은 자연스럽게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재물에 눈이 어두워 이 세상에 보물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며 급기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 (3) 특히 배금주의(拜金主義)와 물질 만능주의적(物質萬能主義的) 가치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은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 (4) 이러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물질 중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후(死後)의 세계에 대해 확신이 없는 불신자들은 당연한 현실이 자신의 전부이기 때문에 쉽게 물질을 선택해 버린다.
- (5)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 이 땅 위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 초월하기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 (사 65:17; 66:22)에 소망을 두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의 부귀 영화를(사 40:6-8; 벰전 1:23, 24) 과감히 잘라 버리는 신앙적 결단을 해야 한다(참조, 수 24:15; 룖 1:16; 시 119:30; 눅 10:42; 히 11:25).

28. ㉠ 예수께서는 어떤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는가? (25절)

- ㉠ (1) 예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 (2) 먼저 여기에서 '목숨'과 '몸'은 인간에게 있어 절대적이고 우선적인 것이며 음식과 의복은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부차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 (3) 따라서 염려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속에는 음식과 의복과 같은 부차적인 것에 대한 염려보다는 '목숨'과 '몸'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 곧 영혼의 구원이 더욱 중요하다는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교훈을 명심하여, 육체적인 삶만을 위해 귀중한 시간들을 소비하지 말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영적 양식이 되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힘써야 한다(참조, 사 55:2; 렘 3:15; 겔 34:14; 요 6:51; 10:9; 고전 10:3, 4; 계 2:7, 17).

29. ㉠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26-32절)

- ㉠ (1)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섭리에 대해 두 가지 비유를 예로 드셨는데 먼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①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비롯해 모든 창조물들을 돌보신다. ② 새들은 인간들처럼 양식을 마련하거나 축적하는 데 급급하지 않는다. ③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인간이 이러한 새보다 못해서 되겠는가? ④ 결국 하나님께서는 새들과 같이 육체적 양식에 집착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더 크신 은혜로 보호해 주신다.
- (3) 두번째로, 예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비유로 들으셨는데 그것들은 인간들처럼 의복을 마련하기 위해 수고와 길쌈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꽃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나아가서는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옷보다 더 화려한 모습으로 가꾸어 주셨다는 것이다.
- (4)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입혀 주시는 분이심을 생각해 볼 때 의복을 위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

는 태도라고도 볼 수 있다.

- (5) 그런데 여기에서 염려에 대한 예수의 교훈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먹고 살기 위한 육체적 노동이 모두 헛되고 무익한 것이라 여기기 쉽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니라 먹고 입는 일을 위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를 불신하는 이방인들의 태도임을 의미한다.
- (6)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굳게 믿음으로써 먹고 입는 일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빌 4:6; 뱀전 5:7).

30. ◎ 성도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33절)

- Ⓐ (1) 예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가르치셨다.
- (2)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된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순종하며 전파하기를 힘쓰라는 뜻이며 나아가서는 그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의미이다.
- (3)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귀절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가운데 삶의 의를 추구해 가는 것을 가리킨다.
- (4) 결국 이러한 삶의 태도는 먹음 것과 입음 것을 위해 염려하는 세상 중심의 이방인의 삶(32절)과는 상반(相反)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생활 규범이라 할 수 있다.
- (5)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비단 먹음 것과 입음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것이다(참조, 8절; 왕상 3:10-14; 막 10:29, 30; 뱀전 4:8).

31. ◎ 우리들은 '내일 일'에 대해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34절)

- Ⓐ (1) 예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말은 미래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일 일' 곧 육체적 삶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염려를 내일까지 미루는 일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가 된다는 의미이다.
- (3) 한편 예수께서 이처럼 근시안적(近視眼的) 교훈으로 가르치신 것은 그 당시 제자들의 믿음이 약하여 영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크신 진리를 온전히 깨닫기에는 부족하였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가르치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4) 이와 동시에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 족하고 내일에는 다시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계신다.
- (5) 따라서 우리들은 혹시 내일 새로운 염려나 괴로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이를 앞당겨서 염려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그것을 감당할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참조, 시 55:22; 68:19; 요 14:1; 뱀전 3:14).

본장의 요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

제 7장 성도들의 생활 원칙에

대해 가르치시다

단락구분 1-5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 6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지 말라 / 7-11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
답하시는 하나님 / 12 남을 대접하라 / 13-14 멸망의 문과 생명의 문 / 15-20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짓 선지자
를 멀리하라 / 21-27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라 / 28-29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경탄하다

- 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 2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
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
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 3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 4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
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떠
게 하라 하겠느냐
- 5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된 떠
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
를 떼리라
-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
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 7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
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 8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 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들
을 주며
- 10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줌 사람이 있겠느냐
-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줍줍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
느냐
-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
법이요 선지자니라
-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
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 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 16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ผล,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
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 19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적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 20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
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 22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
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 23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
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
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
람 같으리니
-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
를 반석 위에 놓은 연교요
-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 29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 Ⓐ (1) 본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 수훈(山上垂訓) 중 마지막 부분으로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실제적인 생활 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2) 즉 예수 그리스도는 본장을 통해 우리들에게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대인관계(1-5, 12절) 및 하나님과의 관계(7-11, 20-27절)에 대한 실천적 교훈을 제시하면서 그의 가르침대로 실행할 것을 촉구하셨다.
- (3) 한편 본장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행이(24-27절) 이토록 강조되고 있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약2:14, 17, 26).
- (4)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믿음은 자랑하면서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그 믿음과는 달리 모순된 행동을 일삼는 이윤 배반적(二律背反的)인 사람들이 있다.
- (5)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자들을 결코 본받지 말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보다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1, 2절)

- Ⓐ (1) 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비판’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크리네테>는 단순한 정죄나 판단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3) 그런데 남을 비판하는 마음은 보통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호의적인 입장에서라기 보다 안하무인적(眼下無人的)인 교만한 태도나 시기심 혹은 질투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 (4) 따라서 남을 비판하는 자들은 그들의 사악한 마음으로 인해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부터 비판을 듣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심판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참조 2절; 롬 2:3; 약 2:12, 13; 5:9).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이라도 결코 타인을 비판하지 말고 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잠 17:9; 롬 2:1, 14:4, 13; 고전 4:5; 갈 6:1; 약 4:12).

3. ㉠ 남을 비판하는 자들은 어떤 모순점을 지니고 있는가? (3, 4절)

- Ⓐ (1) 이러한 자들은 대체로 타인의 잘못에 아주 민감하므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찾아내면서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전혀 깨닫지 못한다.
- (2)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으므로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볼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 (3) 한편 ‘티’(헬, 토 칼포스)는 지극히 작은 식물성 먼지로서 여기서는 아주 작은 결점이나 잘못을 의미한다. 반면 ‘들보’는 커다란 나무 등치를 가리키는 말로 상당히 큰 결점 혹은 오류(誤謬)를 뜻한다.
- (4)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성도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임을 깨달아야 한다. 혹시 어쩔 수 없이 타인을 평가해야 할 경우에는 먼저 자신이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지(참조 4절) 스스로를 비판해 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참조 갈 6:1).

4.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식(外飾)하는 자에게 어떻게 경고하셨는가? (5절)

- Ⓐ (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에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경고하셨다.
- (2) 이 말은 자신이 허물을 가진 자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판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 (3)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허물을 가진 자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이 결여되어 있으며 설사 그것을 가려낸다 하더라도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치게 되므로 왜곡되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참조, 4 절).
- (4) 한편 참고적으로 '외식하는 자'(헬, 휘포크리테스)는 원래 '해답자' 혹은 '배우'를 가리켰으나 후에는 '위선자'라는 뜻으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배우는 극 중에서 자신의 참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 (5) 결국 '외식하는 자'란 내면으로는 온갖 부도덕과 죄악심을 품고 있으나 겉으로는 가장 선한 사람인 듯 행동하는 위선적인 인격의 소유자로서 본서에서는 주로 바리새인을 지칭하는 말로 언급되고 있다(15절; 6:5; 15:7; 22:18; 23:13, 14, 15).
- (6) 한편 신앙인들 중에 지식적으로는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으나 실생활에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주로 이런 자들이 형제들을 쉽게 정죄해 버린다. 그러므로 말씀을 알 뿐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겸손과 온유와 형제 사랑을 통하여 위선과 형제 비난을 극복해야 한다(참조, 약 1:19-27).

5. **㉠ 개와 돼지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고 하셨는가? (6 절)**

- ㉠ (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 (2) 그런데 '개'와 '돼지'는 부정한 동물의 대명사로 우월 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표현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완악한 유대인들 곧 하나님께 대적하거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자들을 뜻한다(참조, 딤후 3:11).
- (3) 또한 '거룩한 것'은 원래 하나님께 바치는 정결한 제물(祭物)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나(참조, 출 29:33; 레 2:3; 22:10-16; 민 18:8-19)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며 '진주'는 하나님 나라의 고귀함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13:45).
- (4) 한편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거룩한 복음과 진주와 같이 고귀한 하늘 나라의 진리를 전해 준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므로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
- (5)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지를 명백히 깨달을 수 있다. 예수께서는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강조하셨다(참조, 11:5; 막 4:9).

6. **㉠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7, 8 절)**

- ㉠ (1) 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 열릴 것이니라'(7, 8 절)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 (2) 여기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은 서로 비슷한 의미가 반복된 것으로서 첫번째는 마음속의 기원, 두번째는 그 소원이 행동으로 나타난 탐구, 세번째는 적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암시하고 있다.
- (3)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귀절을 통해 간구하는 방법 및 간구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해서 간구하라는 일종의 명령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 (4)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든 구하기만 한다고 해서 모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 (5) 예를 들면 '정욕(情慾)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아무리 간구하여도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약 4:3).

(6)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명심하여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6:33).

7. **㉠** 예수 그리스도는 후(厚)히 주시는 하나님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떤 예를 드셨는가? (9-11절)

- ㉠ (1)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들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9, 10절).
- (2) 즉 이 말은 인간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11절).
- (3) 이처럼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으로 추앙받고 있는 부모의 사랑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 (4)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곧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실 만큼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하셨다(요 3:16, 17).

8. **㉠** 어떤 것이 '올법ियो 선지자' 라고 하셨는가? (12절)

- ㉠ (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待接)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올법ियो 선지자니라' 고 말씀하셨다(참조, 눅 6:31).
- (2) 이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해서 일명 황금율(黃金律)이라 불리운다.
- (3) 한편 '이것이 올법ियो 선지자니라'는 귀절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성도들의 실제적인 행동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임을 의미한다.
- (4) 이외에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손님의 접대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참조, 롬 12:13; 딤후 3:2; 5:10; 딤후 1:8; 히 13:2; 벧전 4:9).
- (5) 참고적으로 성경에 언급된 손님 접대의 실례(實例)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대접한 사람 | 대접을 받은 사람 | 참고 귀절 |
|--------|------------------|-------------|
| 아브라함 | 세 천사 | 창 18:4-16 |
| 롯 | 두 천사 | 창 19:2-22 |
| 라반 | 아브라함의 종 | 창 24:31-67 |
| 이드로 | 모세 | 출 2:20-22 |
| 마노아 | 여호와의 사자(使者) | 삿 13:15-20 |
| 기브아 노인 | 레위인 행객(行客) | 삿 19:16-24 |
| 수넵 여인 | 엘리사 | 왕하 4:8-10 |
| 느헤미야 | 유다 사람들과 민장(民長) 들 | 느 5:17-19 |
| 욘 | 나그네와 행인 | 욘 31:32 |
| 푸디아 | 바움과 그 일행 | 행 16:14, 15 |
| 간수 | | 행 16:33, 34 |
| 전도자 빌립 | | 행 21:8 |
| 토인(土人) | | 행 28:2 |
| 보블리오 | | 행 28:7 |
| 마태 | 예수 그리스도 | 9:10 |
| 문둥이 시몬 | | 막 14:3 |
| 바리새인 | | 눅 7:36 |
| 마르다 | | 눅 10:38 |

| | | |
|---------|--|--------|
| 바리새의 두령 | | 눅 14:1 |
| 삭개오 | | 눅 19:7 |

9. ㉞ 13-27절에 언급되어 있는 비유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㉞ (1) 여기에 언급된 비유들은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개념들이 비교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께서 성도들이 행해야 할 의로운 길과 불신자들이 일삼는 불의한 행위를 대비해서 가르치심으로써 선과 악을 명백히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2) 이 비유들을 비교해서 도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비유 | 성도들의 길 | 불신자의 길 | 참조 구절 |
|----------|------|--------------|------------------|-------------------------|
| 13, 14절 | 두 문 | 좁은 문 | 큰 문 | 눅 13:24; 요 14:6 |
| | |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 |
| | 두 길 | 협착한 길 | 넓은 길 | |
| 16 - 20절 | 두 나무 | 좋은 나무 | 못된 나무 | 12:33-35; 눅 6:43, 44 |
| | 두 열매 | 아름다운 열매 | 나쁜 열매 | |
| 24 - 27절 | 두 사람 |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 눅 6:47-49 |
| | | 지혜로운 사람 | 어리석은 사람 | |
| | 두 집 | 반석 위에 지은 집 | 모래 위에 지은 집 | |

10. ㉞ 멸망의 문과 생명의 문을 비교하라 (13, 14절).

㉞ (1)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가르치셨다.

(2) 여기에서 '좁은 문'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본을 보이신 것으로서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 행로가 얼마나 고되고 험난한 것인가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3) 반면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육체적 본능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참조, 딤후 3:3; 벰전 4:2, 3) 처음에는 상당히 화려하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임을 기억해야 한다.

(4) 한편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과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죄의 길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성도들의 길 | 불신자들의 길 |
|--|----------------------------|
| ① 새 생명(눅 6:4; 8:1) | ① 행악하고 패역하는 어두운 길 |
| ② 믿음(고후 5:7) | (잠 2:13-15) |
| ③ 성령을 좇아 행함(갈 5:6) | ② 꾀사자의 길(잠 13:15) |
| ④ 견실함(엡 4:1) | ③ 사망의 길(잠 14:12) |
| ⑤ 사랑(고전 8:1; 엡 5:2) | ④ 악인의 길(잠 15:9) |
| ⑥ 조심하여 행함(엡 5:12; 골 2:6) | ⑤ 공의와 평강이 없는 굽은 길 (사 59:8) |
| ⑦ 빛 가운데 행함(요일 1:7) | ⑥ 강박한 마음(신 29:19) |
| ⑧ 그리스도를 닮은 행실(요일 2:6) | ⑦ 청종치 아니함 |
| ⑨ 진리 안에서 행함(시 26:3; 86:11; 요일 1:4; 요삼 1:3) | ⑧ 귀를 기울이지 아니함 |
| ⑩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함(창 17:1) | ⑨ 악한 마음의 꾀 (렘 7:24) |
| ⑪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왕상 2:3) | ⑩ 강박한 대로 행함 |
| ⑫ 하나님 앞에 진실과 진심으로 선하게 행함(왕하 20:3) | ⑪ 하나님께 등을 돌림 |
| | ⑫ 세상 풍속을 좇음 |
| | ⑬ 궁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름 (엡 2:2) |

- ⑬ 서로 충고함(빌 1:27; 약 3:13)
- ⑭ 서로 권면함(고전 13:5; 살후 3:7)
- ⑮ 흠 없는 행실(빌 2:15; 골 1:22; 살전 3:13; 딤후 1:6; 벧후 3:14)

- ⑯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안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함
(벧전 4:3)

11. ㉠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한 자인가? (15절)

- ㉠ (1) 예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이리'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 (2) 그런데 '거짓 선지자' (헬, 프슈도프로페타이)는 주로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여기서는 신약 시대에 나타난 '거짓 선생' (헬, 프슈도디다스칼로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참조, 벧후 2:1).
- (3) 이러한 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단의 색채를 띤 유대주의적이며 영지주의적인 이론으로 성도들을 미혹케 하는 지도자들이 상당수에 달했다(참조, 골 2:8; 딩전 6:20, 21; 요일 4:1).
- (4) 특히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순진하고 온화하여서 손색이 없는 지도자로 보여진다.
- (5) 그러나 그들 속에는 탐욕과 폭력이 도사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양들을 겁탈하기 위해 온갖 권모 술수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 (6)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벧후 2장 ㉠ 3을 참조하라.

12. ㉠ 우리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16, 20절)

- ㉠ (1) 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롤,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유실수(有實樹)를 귀중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쁜 나무로 취급되었다(참조, 21:19).
- (3) 결국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비록 겉으로는 신실한 지도자와 같이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내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와 같다는 의미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결코 유혹되지 않고 그들의 거짓 교훈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기르기 위해 성경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참조, 엡 4:25; 딩전 2:4; 4:3; 딩후 2:15; 벧전 1:22; 벧후 1:12; 요삼 1:3, 4).

13. ㉠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판단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17-19절)

- ㉠ (1) 예수께서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말은 거짓 선지자가 결코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고 참 선지자가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는 표현이다.
- (3)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나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는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저주하셨다(참조, 3:10; 13:22; 눅 13:6; 히 6:8).
- (4)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처음에는 득세(得勢)하지만 심판 날에는 멸망에 이르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참조, 겔 34:2, 3; 숙 11:17; 벧후 2:1, 3, 19-22; 요일 2:18).
- (5) 더우기 우리는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들이 모두가 성경과 일치한다고 맹신(盲信)하지 말고 가르치는 자의 인격과 생활에서 넘쳐 나는 살아 있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14. ㉠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21절)

- ㉠ (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 말씀하셨다.
 (2) 즉 이 말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3)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 중에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딤후 1:16) 사람들이 더러 있다.
 (4) 이러한 자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알 수 있듯이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딤후 1:16)라는 사실을 깨달아 구원받은 우리들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요일 3:18).

15. ㉠ '귀신'은 어떠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인가? (22절)

- ㉠ (1) 본절에 언급된 '귀신'은 문자적으로 '마귀들'이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귀신(히, 사탄)은 단 하나이지만 그의 추종자들인 마귀(헬, 다이모논)는 상당수에 달한다.
 (2) 이러한 마귀들은 원래 천사의 신분에서 있었지만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함께 가담하여 범죄한 자들로서 일부는 지옥의 어두운 구렁이에 감금되어 있으나(참조, 벧후 2:4) 아직까지 많은 무리들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참조, 12:43-45).
 (3)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 힘쓰며(엡 6:11, 12) 사악하고 헛된 가르침을 세상에 전파함으로써(딤후 4:1) 많은 성도들을 미혹케 하고 있다.
 (4)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9:33) 사람들과 짐승의 몸에서 들어와서 정신적 착란과 신체적 파멸을 조장하는(4:24; 막 5:13)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사악한 존재들이다.
 (5) 한편 사단과 마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왔고(창 3:14) 심판 날이 이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인해 완전히 멸망될 것이다(막 3:26; 눅 10:18; 계 12:9; 20:3). 더우기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제한된 존재들이다(참조, 욥 1:6-12).

16. ㉠ 예수 그리스도도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셨는가? (23절)

- ㉠ (1) '그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고 말씀하셨다.
 (2) 여기에서 '그때'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진면목(眞面目)이 드러나게 되는 심판 날을 가리킨다. 즉 이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곡과 쭍정이'를 구별하실 것이며(3:12)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25:32)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가려내실 것이다.
 (3)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는 귀절은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그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심을 가리키는 말이다.
 (4) 또한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 범죄하는 자로서, 특히 주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살후 2:3).
 (5) 한편 우리들도 본절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여 이러한 자들이 거짓 교훈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집에 들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요이 1:10) 과감히 물리쳐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다(요이 1:11).

17. ㉠ 어떻게 행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24, 25절)

- Ⓐ (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磐石)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가르치셨다.
- (2) 여기에서 ‘듣고’라는 단어는 단순히 듣기만 하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바로 이해하여 그것으로부터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요 5:24; 행 2:22; 계 1:3).
- (3)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기초가 단단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기초가 든든한 제자 시몬을 ‘반석’이란 의미를 가진 베드로(헬, 페트로스), 게바(헬, 케파스)라고 부르셨으며(16:18; 요 1:42) 자신도 성전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 하셨다(골 9:33; 고전 10:4; 뱀전 2:8).
- (4)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나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써(창 7:5; 22:18; 레 26:3; 신 4:1; 33:9; 대하 30:12; 스 7:10)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18. Ⓢ 예수께서는 어떤 자들을 어리석다고 하셨는가? (26, 27 절)

- Ⓐ (1) 예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漲水)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지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하셨다.
- (2) 이러한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근동 지방에는 대부분의 땅이 모래로 되어 있으므로 집을 짓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 (3) 특히 그 당시에는 집의 기초를 세우는 데 필요한 콘크리트와 같은 건축 자재가 없었기 때문에 택지(宅地)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 (4) 따라서 건축에 대해 조금의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래 땅을 피하여 암반(岩盤) 위 에다 집의 기초를 세운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 (5)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건축된 집은 평소에도 튼튼하지 못하지만 폭우라도 한번 쏟아지게 되면 심하게 흔들리다 결국은 쓰러지고 만다.
- (6)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믿음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24:10).
- (7)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우리들은 과연 자신들의 삶이 허망하게 쓰러질 사상 누각(沙上樓閣)과 같은 인생에 기초를 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인지 각자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후 13:5).
- (8) 한편 이 비유는 믿음의 기초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13:3-8; 막 4:3-8; 눅 8:5-8)가 주는 교훈과도 유사하다.

19. Ⓢ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산상 수훈을 듣고 무리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28, 29 절)

- Ⓐ (1) 예수께서 말씀(5:2-7:27)을 마치자 무리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다(28 절).
- (2) 왜냐하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29 절).
- (3) 먼저 여기에서 ‘무리들이 놀래니’라는 표현은 단순히 무섭거나 끔찍한 일을 당해 놀라는 것(surprising)이 아니라 어떤 신비로운 사건을 체험할 때 느끼는 감탄적인 감정이 섞인 경이감(astonishing)을 가리키는 말이다.
- (4)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자신이 가진 직위적(職位的) 권위만을 내세우는 서기관들과는 달리 모든 진리의 주체가 되시는(참조, 요 1:1-4, 14) 자기 자신의 권위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많은 무리들을 놀라게 한 것이다.

- (5) 그러나 이러한 권위를 지니지 못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전통적 권위에 의존하여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조직이 인정하는 공적인 교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며 급기야는 비난과 조소를 퍼붓기도 했다(참조, 9:24;13:55;27:29;막 15:29,30;눅 16:14;22:63;23:11,36;요 7:20;10:20).
-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불변의 진리로 존재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영원까지 계속될 것인데 이는 그분의 모든 것이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요 6:14).

연구자료

지옥(地獄)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지옥'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인간이 죽은 후에 가서 거처하는 형벌 장소이다. '지옥'이란 말은 헬라어(게엔나)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데 이(게엔나)는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말인 히브리어(게벳힌놈)이 와전(訛轉)된 것이다(렘 7:31).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본래 예루살렘 성읍에서 나오는 폐기를 및 죽은 죄인들, 동물들의 시체를 소각(燒却)하는 장소였다. 그러므로 이곳은 일반적으로 죄와 형벌, 고통의 처소로 상징되었는데 이러한 개념이 훗날 '지옥'에 연계(連繫)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하면 항상 불[火]이 꺼지지 않는 고통스런 장소를 연상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지옥'과 관련하여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 및 경고를 주셨으니 그 가르침은 4복음서에 걸쳐 두루 나와 있다. 예수께서는 지옥을 가리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당하는 곳'(막 9:48,49)이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사람의 육신 중 눈이나 손이 사람을 실족(失足)케 하거든 차라리 그것들을 잃고서 온몸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교훈하셨다(18:8,9). 그 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본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19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곧 거짓 신자들이 장차 지옥불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을 의미한다(21절). 이러한 가르침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13:24-30), '바다의 그물 비유'(13:47-50) 등에도 나오는데 예수께서는 가라지와 나쁜 고기는 풀무 불에 던지움을 당하리라고 하셨다.

이상과 같은 예수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의 말로(末路)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 준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인의 자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 8 장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다

단락구분 1-4 문둥병자를 고치시다 / 5-13 중풍들린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다 / 14-15 열병들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다 / 16-17 귀신들린 자들을 고치시다 / 18-22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각오 / 23-27 풍령을 잡으시다 / 28-34 가다라 지방의 귀신들린 자 두 명을 고치시다

1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2 한 문둥병자가 나아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대 하거늘

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 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5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6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7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8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대

9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0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 만한 믿음을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

11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13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되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오니라

14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15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16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

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18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쌌음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19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20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도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21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하시니라

23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쫓았더니

24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도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25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대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 그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28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음을 만하더라

29 이에 저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30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31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 떼에 들어 보내소서 한대

32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문사하거늘

33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 든 일과 귀신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34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1. ㉠ 본장이 지니고 있는 특성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처음부터 끝절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이적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 (2) 또한 여기에 언급된 기적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기록되어 있다는 점으로 보아 공관 복음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 (3) 한편 이 기적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육체적 질병에 대한 치유(1-15절; 막 1:29-34, 40-45; 눅 4:38; 5:12-16; 7:1-10; 요 4:43-54), 둘째는 정신적 질병에 대한 치유(16, 28-34절; 막 5:1-20; 눅 4:40, 41; 8:26-39), 셋째는 초자연적 기적(23-27절; 막 4:35-41; 눅 8:22-25)이다.
- (4) 이러한 기적들은 전적으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빌 4:13)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5) 이처럼 기적이란 예수 그리스도와(행 10:38) 특별히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몇몇 사람들에게(참조, 행 3:6-10; 9:34, 40)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고전 12:8) 모든 성도들이 다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부 그릇된 신앙관을 가진 성도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러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고 착각하여 성령을 모독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7) 특히 이러한 풍조는 '심령 대부흥회'라는 신앙 집회를 통해 조장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일부 사립 기도원에서조차 기적 혹은 치유의 은사에 대해 잘못 가르쳐 순박한 성도들을 시험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 (8) 뿐만 아니라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부 무리들은 마치 의료 행위를 하는 듯 환자들을 다루다가 목숨을 빼앗은 경우도 있으며 산 속에 난립해 있는 무허가 기도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용하여 불치병에 걸린 환자나 정신병자들을 유료(有料)로 수용하여 소위 치료라는 명목으로 온갖 폭력과 비리를 일삼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 (9) 결국 이러한 문제는 초인적이고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기적을 유한(有限)한 인간의 능력으로 성취하고자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된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성령과 은사(고전 12:8-30)를 잘못 이해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 (10)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능력과(참조, 19:26; 28:18; 욥 42:2; 시 43:13; 115:3; 135:6; 눅 1:37; 8:25; 고전 1:25; 계 19:6) 이에 미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확실히 구별할 줄 아는(왕상 9:6-14) 겸손한 신앙이 요구되어진다(참조, 18:4; 롬 12:3; 벰전 5:5).

2. ㉡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무리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1절)

- ㉡ (1) 예수께서 말씀 곧 산상 수훈(5:2-7:27)을 마치시고 하산하실 때 허다한 무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 쫓았다.
- (2)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그들에게 진리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져 메마른 심령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도저히 그 자리를 그냥 떠날 수 없었음을 암시해 준다(참조, 7:27, 28).

- (3) 그런데 여기에서 ‘허다한 무리’ (헬, 오크로이 플로이)는 예수의 제자(5:1)를 비롯해서 병자들(2절)을 포함한 많은 대중을 가리킨다. 한편 이러한 무리들은 이미 산상 수훈을 전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듣고(4:23) 혹은 그분이 배푸는 기적을 목격한 후(4:24, 25) 뒤따르게 되었다.
- (4) 한편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우리들은 이러한 무리와 같이 단순하게 예수의 뒤를 쫓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막 10:28)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그의 뒤를 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10:38; 16:24; 막 8:34; 눅 9:23; 14:27).

3. **㉠** 예수를 쫓던 한 문둥병자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2절)

- ㉠** (1) 그는 예수께 ‘나아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병을 고쳐 달라고 간구했다.
- (2) 먼저 ‘주여 원하시면’이란 말은 문둥병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 주실 것인지 그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용한 표현이다.
- (3) 반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라는 고백은 비록 예수께서 자신의 청을 들어주실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음은 확실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인격이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임을 확신하는 표현이다.
- (4) 이러한 문둥병자의 고백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범을 제시해 준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 상태로 보아 그는 비록 고침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5)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드릴 때 자신의 소원만을 간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 볼 수 있어야 한다(참조, 26:39).
- (6) 한편 예수께서도 산상 수훈을 통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33)고 가르치셨다.

4. **㉠** ‘문둥병’이란 어떠한 질병인가? (2절)

- ㉠** (1) 문둥병에 해당하는 헬라어 (레프라)는 ‘비늘’이란 뜻을 지닌 (레피스)에서 파생된 말로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피부 조직이 거칠어지고 피부 조직이 비늘 모양으로 조각나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병명이 붙여지게 되었다.
- (2) 즉 이 병은 주로 열대 지방과 동양에 많이 퍼져 있던 고질적인 만성 진염병 중 하나로서 이 병의 특징은 몸 속에 있는 세균이 세포 조직을 파괴함으로써 눈섭, 뺨, 코와 귀에 결절(結節)이 생기며 손 발에는 병균이 관절을 녹여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병이다.
- (3) 반면 피부 결절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피부에 흰 반점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 (왕하 5:27)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다.
- (4) 그런데 이러한 문둥병은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초기 증세밖에 치유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초기에는 의술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낙인찍혀 있었다.
- (5) 결국 이 병은 기적 곧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 기록되어진 것이다.
- (6) 먼저 구약에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레위기에는 문둥병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레 13장) 그 치료법 및 처방 요법(레 14장) 기록되어 있다. 특히 제사장은 이러한 자들을

진단하고 돌보며 예방하는 책임을 맡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레 13, 14장).

- (7)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유를 받은 자들로는 모세(출 4:7), 미리암(민 2:10, 14), 나아만(왕하 5장) 등이 있고 치유받지 못한 자로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왕하 5:27)를 들 수 있다.
- (8) 그리고 신약 성경 중 공관 복음에는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언급되어 있다(막 1:40-45; 눅 5:12-15). 예수께서는 이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레 13장) 완치된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자유롭게 살도록 허락하셨다(4절).
- (9) 한편 이러한 문둥병에 대해 성경에서는 죄의 대가라고 규정짓지 않으나 이 병이 다른 어느 병보다 비참하고 추악한 물골로 변하게 되므로 후대의 사람들은 죄로 인한 저주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 (10) 특히 육체적 질병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문둥병을 영적 타락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5. **㉠** 예수께서는 문둥병자의 병을 어떻게 고치셨는가? (3절)

- ㉠** (1) 예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원하심' 때문에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으므로 그 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기적을 베푸셨다. 즉 불치의 병인 나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교자 하시는 의지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 (2)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병 고침은 두 가지 동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라는 동작은 문둥병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하는 율법(레 13:46)조차 초월하는 사랑을 가리킨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을 제외한 일반인이 문둥병자와 접촉할 경우 부정하게 된다고 했으며 심지어는 문둥병자들의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고 했다(레 14:46).
- (3) 한편 오늘날에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소위 '성녀'라고 불리는 인도 출신의 테레사 수녀 같은 이로서 일생을 나병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 (4) 두번째로 예수께서는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치유의 능력을 베푸셨는데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므로(히 4:12) 능치 못하는 일이 없음을 잘 나타내 주는 말이다(참조, 빌 4:13).
- (5)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적인 사랑과 권능으로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사건의 내용 |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
| 가나에서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 | | | 4:46-54 |
| 베데스다 못에서 38년된 병자를 고치심 | | | | 5:1-9 |
|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심 | 8:14, 15 | 1:29-31 | 4:38, 39 | |
| 중풍병자를 고치심 | 9:2-8 | 2:3-12 | 5:18-26 | |
| 손 마른 자를 고치심 | 12:9-13 | 3:1-5 | 6:6-10 | |
| 백부장의 중을 고치심 | 8:5-13 | | 7:1-10 | |
| 눈 멀고 병어리된 귀신들린 자를 고치심 | 12:22 | | 11:14 | |
| 거라사 지방의 귀신들린 자를 고치심 | 8:28-34 | 5:1-20 | 8:26-39 | |
|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심 | 9:20-22 | 5:25-34 | 8:43-48 | |
| 두 소경을 고치심 | 9:27-31 | | | |
| 병어리 귀신을 쫓아내심 | 9:32, 33 | | | |

| | | | | |
|---------------------|----------|----------|----------|-------|
| 가나안 여인의 귀신들린 딸을 고치심 | 15:21-28 | 7:24-30 | | |
| 귀 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심 | | 7:31-37 | | |
| 베데스다의 소경을 고치심 | | 8:22-26 | | |
| 사귀들린 아이를 고치심 | 17:14-18 | 9:14-29 | 9:38-42 | |
|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심 | | | | 9:1-7 |
| 안식일에 귀신들린 자를 고치심 | | | 13:10-17 | |
| 수종(水腫)에 걸린자를 고치심 | | | 14:1-6 | |
| 열 문둥병자를 고치심 | | | 17:11-19 | |
| 소경 바디매오를 고치심 | 20:29-34 | 10:46-52 | 18:35-43 | |

6. ㉠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 예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당부하셨는가? (4점)

- ㉠ (1) 예수께서는 그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회에게 증거하라’고 당부하셨다.
- (2)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첫째, 자신의 사역이 육체적 질병을 고치는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님을 주지시키기 위해서이고 둘째, 이러한 소문이 퍼지게 되면 유대인의 시기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모여드는 군중들로 인해 복음 사역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막 1:45).
- (3) 한편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란 귀절은 그 당시 문둥병의 완치 여부가 제사장의 진단에 의해 결정되어졌다는 규례를 시사해 준다. 즉 제사장이 완치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모든 사람들에게 공고하면 ‘모세의 명한 예물’(레 14:4, 10, 12, 21, 22, 24, 25, 30)로 정결케 되는 예식을 드림으로써 일반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 (4) 이처럼 예수께서는 구약의 율법도 상당히 중요시했는데 이것은 비록 그가 형식에만 치우친 율법주의자들을 비난한 적도 있지만(23:23) 궁극적으로는 율법을 폐(廢)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음을 잘 나타내 주는 사건이기도 하다(5:17).
- (5) 결국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지극히 부수적(附隨的)인 일이며 가장 궁극적인 사역은 말씀과 구원의 선포임을 알아야 한다(4:17; 막 1:14, 15).

7. ㉠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5-10점)

- ㉠ (1) 예수께서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병든 하인을 고치시기 위해 그 집으로 가자고 하셨을 때 그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대’ (8절)라고 고백했다.
- (2) 즉 그는 예수께서 환자를 직접 보시거나 안수(按手)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참조, 3절)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중을 고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심을 확실히 믿었다.
- (3) 더우기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참조, 10절) 당시의 어떠한 유대인들보다 예수의 인격과 능력에 대해 더욱 확실하게 믿었다는 점에서 그분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歸結)이라 할 수 있다.
- (4) 한편 이러한 백부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녀는 러시아 계몽의 이방인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원의 백성에서 제외된 자였지만 자신의 귀신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끈기 있게 간구함으로써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과 함께 ‘네 소원대로 되리라’는 말씀만으로 자신의 딸을 고치는 축복을 받았다(15:21-28).
- (5) 이처럼 복음과 그 능력은 어떤 신분이나 성별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전달된다.

8. ㉠ ‘백부장’이란 어떠한 직위에 있는 사람인가? (5점)

- Ⓐ (1) 백부장(百夫長)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이어 (헤카톤타르코스)는 로마 군대에서 명목상 100명의 보병으로 구성된 백인대(百人隊)의 지휘관을 가리키는 말로서 오늘날의 군사 편제에 있어서 중대장 정도의 직위에 해당된다.
- (2) 이러한 백부장은 일종의 직업 군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사병 가운데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군사학을 비롯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식을 갖춘 자가 그 직위에 뽑히는 것이 통례였다.
- (3) 그런데 이들에게는 군기(軍紀) 책임자로서의 임무(참조, 27:54; 막 15:39, 44, 45; 눅 23:47), 훈련 담당, 무기, 검사, 병참 담당, 야영지와 전지(戰地)에서의 지휘 등 여러 가지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 (4) 뿐만 아니라 이들은 원군(援軍)의 지휘관으로 파견되거나 고넬료(행 10:1)나 율리오(27:1)처럼 각종 특별 임무를 위해 타지로 분견(分遣)되기도 했다. 아마 본질의 백부장도 이러한 임무 수행을 위해 파견된 자들 중 한 사람일 것이다.
- (5) 한편 신약 성경에서 '백부장'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선량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27:24; 행 10:22; 22:26; 23:17, 23; 24:23; 27:43).
- (6) 특히 본절에 언급된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했으며 그들 백성을 위해 회당을 건립하는 등 선행을 베풀었으므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다(눅 7:5).
- (7)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했던 최초의 이방인이었다(27:54; 막 15:39).
- (8) 또한 사도행전에는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행 10장) 그의 개종을 사도행전식으로 풀이해서 이방인의 오순절이라 할 만큼 중요한 인물로 나타나 있다.

9. ㉠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하셨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8절)

- Ⓐ (1) 그는 예수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라고 했다.
- (2) 이러한 백부장의 태도는 지극히 높으신 예수를 자신과 같이 비천한 이방인에 집에 모실 수 없다는 겸손한 자세에서 우러나온 것으로서 성도들이 지녀야 할 신앙의 본질을 암시해 주고 있다(참조, 빌 2:1-11).
- (3) 한편 이러한 겸손한 신앙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곱혀 그의 신들배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막 1:8; 눅 3:16; 요 1:27)고 한 세례 요한의 고백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 (4) 이러한 백부장과 세례 요한의 태도를 본받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敬畏)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춤으로서 보다 겸손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벰전 5:5, 6).
- (5)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며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신다. 반면에 자신의 존재를 절대시하거나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철저한 다스림과 심판을 시행하신다(참조, 시 147:6; 사 29:19; 57:15; 약 4:6).

10. ㉠ 예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어느 정도로 높이 평가하셨는가? (10절)

- Ⓐ (1) 먼저 예수께서는 지극히 겸손한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이히' 여기셨다.
- (2) 여기에서 '기이히 여겨'에 해당되는 헬라이어 (다우마조)는 어떤 것을 보고 놀란 감정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서 한갓 이방인에 지나지 않는 백부장의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나타내 주는 표현이다.
- (3)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1절)을 향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하셨다.

- (4) 이처럼 자신의 지위와 혈통을 초월하여 부하를 사랑했던 마음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믿었던 신앙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족시키기에 족하였다(참조, 히 11:6).
- (5) 또한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23:12; 눅 14:11; 18:14)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참조, 욥 5:11; 잠 29:23; 겔 21:26).

11. **㉠**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자는 누구인가? (11절)

- ㉠** (1)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기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11절)들이 천국에 이를 것이나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 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12절)고 하셨다.
- (2) 이 말은 이때까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이방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서 온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포를 나타내고 있다.
- (3) 한편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이방 성도들을 가리키며 '나라의 본(本) 자손'은 복음을 회피하고 반대하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인 유대인들을 뜻한다.
- (4) 즉 이스라엘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과거의 특권을 박탈당하여 멸망의 어두운 곳에서 '울며 이를 가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참조, 13:42, 50; 22:13; 24:51; 25:30; 눅 13:28).
- (5) 반면 이전에는 비록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는 구원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참조, 눅 6:3; 행 2:21; 롬 4:16; 5:8; 딤펴전 2:4; 딤펴 2:11, 12).

12. **㉠** 백부장의 하인은 어떻게 하여 병이 낫게 되었는가? (13절)

- ㉠** (1) 예수께서는 백부장에게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의 하인은 즉시 병으로부터 완치되었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조사 '대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스>는 자칫 잘못하면 전혀 다른 의미로 오해하기 쉽다. 왜냐하면 이 말은 예수께서 백부장이 지닌 믿음의 분량에 비례해서 기적은 행한 것처럼 이해되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예수께서 기적은 행하심으로써 백부장이 믿고 있는 것 그대로 실현되어졌다' 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 (4) 즉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치실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이미 그분의 말씀과 함께 행해졌고 그 결과로 하인이 낫게 된 것은 백부장이 가진 믿음 그대로였던 것이다.
- (5) 이처럼 믿음의 힘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큰 것으로서 이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 할 것이 없으리라' (17:20)는 말씀에(참조, 눅 17:6)도 잘 나타나 있다.
- (6) 이러한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분량' (롬 12:3)이 장성해지도록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눅 22:32; 행 6:5; 고전 16:13; 고후 1:24; 갈 5:5; 빌 1:25; 골 2:5; 딤펴 1:13; 약 2:5; 유 1:3).

13. **㉠**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 예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14, 15절)

- ㉠** (1)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은 병석(病席)에서 일어나 예수께

‘수종’을 들었다.

- (2)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상황을 볼 수 있다. 먼저 ‘베드로의 집에…앉아 누운 것을 보시고’란 귀절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신 것이 그의 장모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가셨다가 우연히 앉아 누워 있는 여인을 목격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 (3) 두번째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라는 상황 묘사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안수’(按手)하심으로써 그 병이 낫게 되었음을 가리킨다(참조, 막 6:5;7:32; 눅 4:40; 6:18; 13:13; 행 28:8).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익히 아실 뿐 아니라 그 연약함을 보완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이심을 보여 준다(참조, 사 53:4).
- (4) 세번째로 베드로의 장모가 병 고침을 받고 예수께 수종을 들었던 사건은 구원받은 자로서 갖추어야 할 합당한 태도를 의미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참조, 엡 2:8) 누구를 막론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한다(참조, 행 2:47; 16:25; 롬 15:6; 고전 6:20; 골:1:12; 2:7; 살전 5:18; 살후 1:12; 계 5:11, 12).

14. ㉠ 사람들은 귀신들린 자들을 언제 예수께 데려왔는가? (16절)

- ㉠ (1) 본절에서는 이 시간에 대해 구체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고 단지 ‘저물때’라는 막연한 시간이 언급되어 있다.
- (2) 여기에서 ‘저물때’는 단순히 해가 지고 난 후 킁킁해진 일상적인 밤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지나간 후의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 (3) 즉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로 정해져 있으며 탈무드(Talmud)의 교훈에는 토요일의 해가 진 후 세 개의 별이 나타날 때 안식일이 끝난다고 되어 있다(참조, 계 23:32).
- (4) 따라서 사람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예수께 환자들을 데려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허용되지 않았던 그 당시의 엄격한 율법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야만 병자들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참조, 12:1-10; 막 3:2; 눅 13:14).
- (5)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 중에는 주일에 대한 태도가 너무 안일한 사람들이 간혹 있다. 물론 그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 불신자들처럼 주일을 단지 피곤하고 바쁜 사회 생활을 잊어버리기 위해 편히 쉬는 공휴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형식적으로 대예배만 참석하고 나머지 시간은 육체적인 쾌락을 좇아 산다면 주일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 (6) 한편 우리들이 육체적인 휴식보다는 영혼의 안식을 위해 주일을 선용(善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육이 함께 강건해질 수 있는 ‘새 힘’으로 채워 주심을 알아야 한다(참조, 사 40:31).

15. ㉠ 예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은 어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인가? (17절)

- ㉠ (1)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 곧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짐어지셨도다’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 (2) 이 말씀은 사 53:4을 인용한 것으로서 ‘그는 실로 우리의 죄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로 되어 있는 이사야의 예언과는 내용상의 차이가 조금 있다.
- (3) 즉 마태는 이 귀절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우리의 죄고’를 ‘우리의 연약한 것으로’, ‘우리의 슬픔’을 ‘병’으로 대치했는데 이는 인간 생활에서 나타나는 육체적 고통의 의

미를 강하게 띠고 있다. 한편 사도 베드로 역시 그의 서신에서 이 귀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벧전 2:24)로 기록되어 있다.

(4) 이처럼 마태의 인용이 이사야의 예언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은 예언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단어나 문장 자체를 변형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직접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태는 메시아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당한다는 식으로 언급된 이사야의 기록을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번역하여 이사야서에서 강조된 영적인 의미보다는 육체적 고난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러므로 마태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질병을 고치시는 사명을 갖고 계시며 둘째, 따라서 병 고치는 기적은 단순한 능력의 표출(表出)이 아니라 죄와 악으로부터 생겨난 인간고통 대신 지신 속죄자의 행동이며 셋째, 그분은 결국 죄와 형벌의 짐을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질병과 고통에서 인간들을 해방시켜 주셨다(참조, 1:21).

16. ㉠ 병 고치는 기적을 마쳤을 때 무리들은 어떻게 행동했으며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18절)

㉠ (1) 예수께서 귀신들린 자들과 병든 자(16절)들을 모두 고치시는 것을 목격한 무리들이 자기들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셨다.

(2) 먼저 무리들이 예수를 에워쌌던 것은 그가 행하신 놀라운 기적에 대한 호기심과 경이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3)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무리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원하셨는데 이는 군중들 가운데서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교훈하시는 것이 더욱 선행(先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4)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통해 우리들은 어떠한 이적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임을 깨달을 수 있다.

(5) 사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이적과 기사를 따라가는 자는 인간 본위의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되고 끝내는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된다.

17. ㉠ 예수 그리스도됨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은 누구인가? (19절)

㉠ (1) 예수의 사역을 목격했던 한 '서기관'이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좃으리이다'라고 자신의 결심을 예수께 고백했다.

(2) 여기에서 '서기관' (헬, 그람마테우스)은 히브리어로 <소오프림>에 해당되는 말로서 원래는 '성경을 쓰는 자'라는 의미이나(참조, 대하 2:55; 느 12:26) 일반적으로 율법에 능통한 학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3) 이러한 서기관 직책은 에스라에서부터 시작된 제도로서(참조, 스 7:6)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중에서 선별되었으나 신약 시대에는 바리새인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었다(참조, 행 23:9).

(4) 한편 서기관으로 지목된 자들은 이미 5세 때부터 율법을 배우기 시작하여 13세가 되면 '바 미즈바'(히브리어로 배움의 아들이란 뜻)라고 불리는 교육 기관에서 율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고등 교육을 받은 후 30세 때부터 타인을 가르치는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5) 그들의 직책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며 율법을 근거로 하여 여러 가지 가정 문제들을 재판하는 일을 수행했으므로 '율법사'(22:35; 눅 5:17), '랍비'(23:7) 곧 '선생'(요 3:10)이라고 불리웠으며 공회 의원이 되기도 했다(막 14:43; 15:1).

(6) 그런데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비판하고 방해

했던 자들이므로(막 2:16; 눅 5:30) 본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서기관이 예수를 따르고자 한 것은 획기적인 사실이라 볼 수 있다.

18. **㉠** 예수께서는 서기관의 결심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20절)

- A** (1)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의 결심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리지 않고 다만 '여유도 없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 (2) 예수의 이 답변은 인자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편안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그를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역경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눅 14:25-33)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3) 따라서 이 말은 서기관의 요청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예수께서 서기관의 말을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4:19)고 하신 것으로 보아서도 이 답변은 거절의 의미를 띠고 있음이 확실하다.
- (4) 결국 예수께서 서기관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은 당신을 따르고자 한 그의 마음 자세 혹은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순수치 못한 동기에서 출발한 신앙인은 예수로부터 배척당하게 된다.
- (5) 한편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영광된 사역을 수행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할 때 편히 쉴 수 있는 거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 (6)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가장 고독한 삶을 사셨을 뿐 아니라 요즈음 소위 성공했다는 목회자들이 받는 대접과는 전혀 판이하게 지내셨다. 이러한 불편함은 오직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당신의 뜨거운 사랑으로써만이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이 사랑과 열정이 우리에게도 요구된다(참조, 갈 6:7-10).

19. **㉠** 예수께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가리켜 사용하셨던 호칭인 인자(人子)에 대해서 약술하라 (20절).

- A** (1) 여기에서 '인자'란 말은 예수께서 즐겨 사용하셨던 칭호이다. 한편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신적 이름을, '다윗의 아들'이 유대적 이름(참조, 9:27)을 가리키는 반면, 이 명칭은 인간 세상에서 행하신 그의 복음 사역과 깊이 연관된 이름으로서 ① 그의 인성(人性)과 낮아짐(참조, 20절), ② 고난과 죽음(참조, 눅 19:10), ③ 왕으로서의 미래의 통치(24:27)를 강조하고 있다.
- (2) 참고적으로 성경에 언급된 '인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 의 미 | 구 분 | 참 고 귀 절 |
|----|-----------------|-------------------------|---|
| 구약 | 일반적 의미로 인간을 가리킴 | 인간이란 말을 시적(詩的)으로 표현한 경우 | 시 8:4; 144:3 |
| | | 하나님에 대한 상대적 존재로서의 인간 | 민 23:19; 욥 25:6 |
| | 특정한 인간을 가리킴 |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를 때 사용하신 명칭 | 겔 2:1; 3:1; 4:1 등 에스겔에서 총 90회 언급됨 단 8:17 |
| | |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칭함 | 시 80:17 |
| | |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예언되어짐 | 단 7:13, 14 |

| | | | |
|-----|--------------|-----------------------|--|
| 신 약 |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 |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을 부르실 때 사용 | 8:21; 9:6; 10:23을 포함해서 총 30회 '언급됨' 막 3:28; 8:31 등 총 14회, 눅 6:22; 9:26 등 총 25회, 요 1:51; 3:13 등 총 12회 언급됨 |
| | | 스테반이 예수를 가리켜 부른 말 | 행 7:56 |
| | | 재림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 13:41; 16:27; 19:28; 24:27, 44; 28:6; 막 13:26; 14:62; 눅 17:22, 30; 계 1:13; 14:14 |

20. ㉠ 한 제자가 '주여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21, 22절)

㉠ (1) 이러한 요청에 대해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좃으라'고 대답하셨다.

(2) 여기에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뜻하고 '저희 죽은 자'는 육체적으로 사망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말은 죽은 부친의 장례식은 불신자에 속한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맡기고 예수를 따르라는 일종의 명령이라 할 수 있다.

(3) 그런데 예수의 이러한 명령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을 거스리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부모에 대한 효성의 척도는 제 5 계명(출 20:12; 신 27:16)에 그 기초를 두고 있었으며 자식된 자는 자기 부모의 장례식에 반드시 참석해야만 했기 때문이다(참조, 창 25:9; 35:29; 50:13).

(4) 그러나 이 말씀은 아무런 근거 없이 부모의 장례식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부모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좃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

(5) 즉 예수께서는 그 제자에게 '아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10:37) 라는 말에 나타난 사상을 좀더 강력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6)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중요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나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신앙적 결단력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참조, 눅 9:60).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이만한 결단과 아픔을 감수하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21. ㉠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겪었는가? (23-25절)

㉠ (1) 예수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참조, 눅 8장 ㉠ 14).

(2) 여기에서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며 '큰 놀이 일어나'라는 귀절은 거센 풍랑이 일어 수면이 거칠게 요동하는 상태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해변보다 약 206m나 낮은 데다가 주위에는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갑자기 일어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등 기상 변동이 심한 곳이다.

(3) 한편 이러한 위기에 빠졌을 때 제자들은 당황하여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며 '주여 구원

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쳤다.

- (4) 이는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예수를 찾는 제자들의 알팍한 신앙 상태를 잘 나타내 주는 말로서 그들이 아직까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 주시는 주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역력히 보여 주고 있다.
- (5)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한 위협에 처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참조, 왕하6:16; 사41:10; 계1:17; 2:10)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를 믿음으로써 담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23:37; 출33:22; 신31:6; 삼하2:7; 대상22:13; 시23:4; 121:4, 5; 사25:4; 요16:33; 행28:15; 엡3:12; 히10:35; 요일3:21).

22. ㉠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태도를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26, 27절)

- ㉠ (1) 예수께서는 먼저 겁에 질려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 라고 책망하셨다.
- (2) 여기에서 무서워하는 감정과 믿음이 적다는 사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 (3)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후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막4:39)고 명령하시니 풍량이 그치게 되었다(26절; 눅5:27).
- (4) 이것은 갈릴리 호수가 '잠잠하라'고 하신 예수의 명령을 알아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무인격적인 자연에까지 말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 (5) 결국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 현상까지도 자유 자재로 다스릴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셨음을 잘 알 수 있다(참조, 11:25; 창14:19; 행17:24). 즉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다(참조, 롬11:36).

23. ㉠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신 후 어떤 일을 겪게 되셨는가? (28절)

- ㉠ (1)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무덤 사이에서 나온 귀신들린 자 두 명을 만나게 되었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가다라 지방'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신학적 논쟁이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 마가와 누가는 본질의 내용과는 달리 '거라사' 지방이라고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다(막5:1; 눅8:26).
- (3) 먼저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동쪽으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귀신들린 자들에게서 나온 돼지 떼들이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沒死)했다'(32절; 막5:13; 눅8:33)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 (4) 반면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호수 동편의 저지대에 위치해 있는 해변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곳을 포함해서 주위의 다른 여러 지역으로 구성된 큰 도성 '가다라'(Gadara)의 행정 구역 중 하나이다.
- (5) 이 지방에는 해변으로 이어지는 몇 개의 길이 있으며 그 길이 끝나는 지점은 산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호수를 향한 가파른 언덕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주위에는 고대의 무덤이 흩어져 있었다.
- (6) 한편 이 무덤들은 벼랑의 바위벽을 깎아 내어 만든 조그만 방이나 굴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러한 무덤 중 일부는 사람들로 부터 버림 받은 귀신들린 자들의 거처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7) 결론적으로 마태가 기록한 '가다라'라는 명칭은 사실과 부합되는 지명이며 무덤 사이에서 귀신들린 자들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건 역시 타당한 근거를 가지는 것이다.

24. ㉠ 귀신들린 자들의 증세는 어떠했는가? (28절)

- ㉠ (1) 그들은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음' 정도로 광적(狂的)인 증세를 보였다.
- (2) 그들의 이러한 증세는 현대 의학적 관점으로는 일종의 심한 정신병의 증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광포하고 사나웠던 것은 귀신들의 세력이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3) 그런데 이들의 광포한 행동에 대해 마가복음에 더욱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즉 그들은 쇠사슬에 뿔 수 없음 정도까지 이르렀는데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나' 아무도 그 힘을 제지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는 광란을 저질렀다(막 5:3-20).
- (4) 이처럼 귀신들린 자들의 광란은 어떠한 세력도 물리칠 수 없었던 고질적인 것으로서(막 5:4) 이는 오직 광포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26절)으로만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다.
- (5) 한편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적인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중 성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 (6) 이러한 원인은 말씀과 삶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그릇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나아가서는 자신이 범한 죄를 솔직히 시인하고 회개할 만한 믿음마저 약해질 때 신앙인으로서 극심한 심리적 혼란 및 신앙상의 갈등을 느끼게 된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가다라인'과 다를 바 없는 정신병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 (7)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기독교인으로서 건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실한 믿음이 요구되어짐을 깨달을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마귀나 귀신의 세력도 절대 침투할 수 없는 것이다(참조, 신 6:5; 잠 3:5; 요 12:30, 31; 살후 2:8; 히 2:14; 요일 3:8; 계 20:10).

25. ㉠ 귀신들린 자들은 예수를 본 후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29절)

- ㉠ (1) 그들은 예수를 본 후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라고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 (2) 먼저 첫번째 질문은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간파한 것으로서 그분에 대한 중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이 칭호가 가진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역사의 주관자이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다(참조, 16:16).
- (3) 두번째 질문은 귀신의 무리들이 고통을 당하고 영원히 멸망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참조, 유 1:6; 계 20:10). 특히 '때가 이르기 전에'라는 귀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의 날에 심판을 행할 자(요 5:22, 27; 9:39; 딤후 4:1; 약 5:9)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가장 완벽하게 증명해 주는 말이다.
- (4) 이와 같이 귀신들린 자들에 속해 있던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목격하기도 전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비록 악령이긴 하지만 영적인 안목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 (5)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권능과 위엄은 신실한 성도들로부터 사악한 마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참조, 빌 2:10, 11).

26. ㉠ 예수께서는 귀신들을 어떻게 쫓아내셨는가? (30-32 절)

- ㉠ (1)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 떼에 들여보내소서' 라고 간구했다(31절).
- (2) 그런데 여기에서 귀신들이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고자 한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증오하는 마음에서 돼지 떼에 들어가 그 짐승들의 죽음을 초래하고자 했다. 둘째, 그 지방 사람들의 소유인 돼지 떼들을 몰살시킴으로써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고자 한 것이다.
- (3) 이러한 근거는 33, 34절의 내용을 비롯해서 복음서들 중 다른 곳에서도 예수에 의해 쫓겨 난 귀신들이 난폭한 행동이나 악행을 저지름으로써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17:14-20; 막9:14-32).
- (4) 한편 예수께서는 이러한 귀신들의 의도를 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돼지 떼 속으로 집어 넣어심으로써 돼지들은 귀신이 들려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게' 되었다.
- (5) 이것은 예수께서 귀신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거나 공연히 인간들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고저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두 예수께 속한 것으로서 당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 (6) 더우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역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사단과의 전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참조, 엠6:10-18).
- (7)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인간으로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러한 사건을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 왜곡시키지 말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길러야 한다(참조, 5:8; 욥5:9; 11:7; 33:13; 전3:11; 8:17; 요16:14,15; 롬11:34; 고전2:16).

27. ㉠ 돼지 떼가 몰사하는 것을 보고 그 주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33, 34 절)

- ㉠ (1)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을 목격한 '치던 자들'이 이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들은 예수께 그 지방을 떠나 달라고 간구하였다.
- (2) 여기에서 '치던 자들'은 돼지 떼를 기르던 주인들로서 주로 그 지역 주위에 거주했던 이방인들이나 혹은 돼지랄 키위 돈을 벌고저 했던 일부 몰욕(物慾)에 눈이 어두웠던 유대인들이일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레 11:7) 사육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3) 그런데 이들은 예수께서 행한 이적에 놀라긴 했지만 그 사실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즉 그들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돼지들이 죽은 것만 아까와했을 뿐이지 귀신 들린 자들이 병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다.
- (4)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확실히 드러내 주는 것으로서 그들은 눈앞에 놓인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 예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 (5)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몰욕은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악임을 알아야 한다(참조, 27:5; 잠1:19; 28:16; 전5:10; 합2:9, 10; 행5:1-6; 딤후전6:9; 약1:15; 5:3).

제 9 장 예수 그리스도의 병 고침과

복음 사역

단락구분 1-8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 9 세리 마태를 제자로 선택하시다 / 10-13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다 / 14-17 금식 문제에 대해 변론하시다 / 18-22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를 고치시다 / 23-26 아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다 / 27-31 두 소경을 고치시다 / 32-34 한 병어리를 고치시다 / 35-38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다

1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2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3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람하다

4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5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6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7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8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9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좃으라 하시니 일어나 좃으니라

10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도

11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13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4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

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5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피할 수 있노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16 생배 조각을 낚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17 새 포도주를 낚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들어 다 보전되느니라

1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19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20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겹옷 가를 만지니

21 이는 제 마음에 그 겹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았다는 함이라

22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23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환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24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25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26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27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다했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28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와 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좁은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
 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대
 30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
 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셧
 으나
 31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
 파하니라
 32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들려 병어리 된 자
 들 예수께 데려오니
 33 귀신이 쫓겨 나고 병어리가 말하거늘 무리
 가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34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방
 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35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
 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
 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
 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교생하며 유리함이라
 37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
 되 일군은 적으니
 38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
 할 일군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 (1) 마태는 본장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공활을 여러 가지
 실례를 들어 입증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분의 복음 사역으로
 끝을 맺었다.
 (2)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마다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고 있
 을 뿐 아니라 절대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 주며 나
 아가는 당신의 사역이 질병의 치유보다는 영혼의 구원에 있음을 교훈해 주고 있다.
 (3) 한편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겨(신6:6)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신6:5) 그분을 섬
 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22:37; 신30:2; 막12:30; 눅10:27; 요12:26
 ; 행13:36).

2. ㉠ '본 동리'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가? (1점)

- ㉠ (1) 마태가 '본 동리'라고 지칭한 그 당시 갈릴리 서북부에 위치해 있던 '가버나움' 지방
 을 가리키는데 이는 오늘날의 '텔 훔' (Tell Hum) 과 동일시된다.
 (2) 그런데 이곳에는 예수의 고향 나사렛 지방이 소속되어 있을 뿐만 예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라는 점에서 성경 역사상 중요한 지역으로 취급되고 있다.
 (3) 한편 이 성읍과 관련된 주요 기사들을 복음서에서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로마인 백부장은 이곳에 거주하면서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건립하는 등 많은 선
 행을 베풀었다(참조, 8:5; 눅7:5).
 ②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오신 후에 갈릴리 전도 활동의 중심지로 이곳을 삼으신 것
 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그의 복음 사역에 주축을 이루었던 제자들 중 여러 명이
 이곳 출신이기 때문이다(4:13, 18; 막1:16; 눅5:1).
 ③ 또한 예수께서는 이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베풀었다. 먼저 백부장
 의 종을 고치신 기적(8:5-13; 눅7:1-10)을 비롯해서 더러운 귀신들린 자들을 낮
 게 하셨으며(막21:34; 눅4:31-41)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신 일(요4:46-54),
 열병들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신 일(8:14, 15; 막1:29-31; 눅4:38, 39), 중풍병
 자를 고쳐 주신 일(9:2-8; 막2:1-12; 눅5:17-26) 등이 있다.
 ④ 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으며(9:18-26; 막5:21-43; 눅8:40-
 56)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 겸손의 미덕을 가르치신 곳이기도 하다(18:1-5; 막9:
 33-37; 눅9:46-50).

3. ㉠ 예수께서는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치셨는가? (2점)

- ㉠ (1)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해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먼저 '소자야' (헐, 테크 논)라는 말은 연장자가 아래 사람을 향해 다정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참조, 요일 2:1).
- (3) 그리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귀절은 죄와 질병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줄 뿐 아니라 중풍병과 죄 중에서 죄가 더 근본적인 문제임을 지적해 주고 있다.
- (4)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중풍병자의 육체적 질병이 죄의 결과임을 밝히시면서(참조, 요 9:2) 그의 믿음에 대한 축복으로 육체적 치유와 함께 영혼의 구원을 베푸신 것이다.
- (5) 한편 우리들은 병에 걸리게 되면 보통 의학적 상식에 따라 치료를 받거나 기껏해야 자신의 병을 낫게 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 (6) 그러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러한 질병이 간혹 죄에 기인(基因)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을 물론이고 영육(靈肉)의 구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참조, 삼상 7:3; 대하 7:14; 30:9; 느 1:9; 사 55:7, 렘 3:12; 31:9; 겔 18:21; 스킴 1:3; 행 2:38).

4. ㉠ 서기관들은 중풍병자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4절)

- ㉠ (1) 서기관들은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참람(僭濫)하다'라고 생각했다.
- (2) 왜냐하면 그들은 중풍병자에게 말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서기관을 비롯해서 다른 율법 학자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않았으므로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반면 그들은 이러한 능력(4절)이 메시아께만 주어졌다는 사실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메시아를 사칭(詐稱)하여 참람한 말을 한다고 오해하게 되었다.
- (3) 여기에서 '참람' (헐, 플라스페메오)은 하나님 혹은 그분께 속한 신성한 물건을 모독하는 언행을 나타내는 말로서 구체적으로는 ① 하나님께 함당치 않는 속성을 부여할 때(참조, 출 20:7) ② 하나님의 속성을 삭제 혹은 평가 절하(平價切下)할 때 ③ 하나님의 속성을 다른 대상에 부여할 때(참조, 출 20:3-5) 이러한 죄가 성립이 된다.
- (4) 한편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증거할 때(요 10:23-25)와 대제사장에게 심문을 받으실 때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밝히심으로써 그들로부터 참람하다는 말을 들으셨다(26:63-65; 막 14:61-64; 요 10:33-36).
- (5) 이와 같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도 부인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다. 더구나 예수의 사역에 직접 동참했던 도마 같은 제자도 그분의 상처를 손으로 만져보고서야 부활하신 주를 인정할 정도로 의심 많은 신앙의 소유자도 있었다(요 20:27, 28).
- (6)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 20:29)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5. ㉠ 예수께서 서기관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가? (4, 5절)

- ㉠ (1)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3절)을 알아차리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
- (2) 먼저 '악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만한 능력이 있음을 부인하고 오히려 참람하다고 여겼던 서기관들의 생각을 가리킨다.

- (3) 그런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행할 수 없는 말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결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거나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내뱉기는 상당히 쉽다.
- (4) 반면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은 그 결과의 성취 여부가 바로 그 자리에서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쉽게 느껴진다.
- (5) 결국 예수께서는 인간의 입장에서 쉽게 느껴지는 말씀을 통해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심을 보다 명백히 증명하셨다.
- (6) 한편 우리들도 이러한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거나 그의 능력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각자의 신앙관(信仰觀)을 재정리(再整理)해 볼 수 있어야 한다.

6. **㉠** 예수께서는 자신이 지닌 속죄의 권세를 어떻게 증명하셨는가? (6, 7절)

- ㉠** (1)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인자(人子)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셨다 (6절).
- (2) 여기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걸지도 못할 정도로 병이 심해 침상에 누운 채로 실려 왔던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집으로 걸어간 것(7절)에서 잘 나타나 있다.
- (3)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통해 병 고치는 능력 뿐만 아니라 죄 사하는 권세도 가지고 계신 이 땅의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셨다.
- (4)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이 병을 고치거나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는 것보다는 성도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참조, 1:21; 26:28; 눅 3:3; 24:47; 행 2:38; 롬 3:25; 8:1, 34; 요일 1:9; 3:21).

7. **㉠**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한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8절)

- ㉠** (1) 무리들은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의 권세를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2) 여기에서 '두려워하며'는 단순히 무서운 일을 당해 놀라는 감정 이상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서 전인격적(全人格的) 경외감 혹은 영적 각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율(戰慄)을 의미한다.
- (3) 이와 같이 죄 많은 인간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나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수행할 때 항상 경외심과 두려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17:6; 28:5, 10).

8. **㉠** 가버나움 지방의 세관에서 예수의 제자로 선택받은 자는 누구인가? (9절)

- ㉠** (1) 그는 가버나움 변방 지역의 한 세관에서 세리(稅吏)로 근무하고 있던 '마태'라는 사람이다.
- (2) 여기에서 마태가 근무하고 있던 '세관'은 로마 제국이 피지배국 백성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했던 일종의 세무소로서 그 당시 부당한 세금 부과 및 담당자들의 부정 행위 등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납세자들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다.
- (3) 이러한 세관에서 고용원으로 근무했던 세리들은 유대인들 중 지적, 경제적으로 높은 수

준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대국을 위해 세금을 징수한다고 해서 동족으로부터 매국노 취급을 받았으며, 나아가서는 부정한 이방인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죄인’ (11절), ‘창기’ (21:31), ‘이방인’ (47절; 18:17)과 같은 비천한 부류로 취급받았다.

- (4) 본절에 언급된 마태 역시 다른 세리들과 마찬가지로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세리가 예수의 제자로 선택된 것은 획기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 (5) 한편 그는 다른 복음서에서 ‘레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막 2:13-17; 눅 5:27-32) 이는 그의 본명이며 아람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을 가진 이 ‘마태’라는 이름은 제자가 된 후에 붙여진 이름이다.
- (6) 이와 같이 마태는 한갓 세리에 지나지 않는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예수의 부름을 받고 이에 순종함으로써 열 두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뽑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막중한 일익을 담당했고 나아가서는 본서를 기록하는 등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다.
- (7) 뿐만 아니라 마태는 본절에서 자신의 부름 받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좇았음에도 불구하고(눅 5:28) 이러한 사실을 띄고 단순히 ‘일어나 좇았더라’고 기록할 만큼 겸손한 자이기도 했다.
- (8) 이처럼 예수께서는 학식이 뛰어나거나 사회적 수준이 높은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들을 제쳐 두고 세리들 비롯해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안드레 등 소위 하층 계급의 비천한 자들(4:18-22)을 제자로 삼으셨다.
- (9)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지금은 각자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의 종으로 선택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소명에 합당한 순종과 겸손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참조, 사 6:8).

9. ㉠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비난했는가? (10, 11절)

- ㉠ (1) 예수께서는 마태의 집에서 많은 죄인들과 세리,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셨는데(10절)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비난했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죄인들’이란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명칭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공개적으로 율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자들, 즉 창기, 세리, 이방인 등을 가리킨다.
- (3) 그러나 좀더 엄격한 차원에서 보면 단지 이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참조, 롬 3:10). 특히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정죄했던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죄인 중에서도 괴수(浬浬)라고 할 수 있다(7:3-5).
- (4) 한편 오늘날의 성도들 중에서도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의 신앙관이나 가치관으로 타인을 판단하여 자기 마음대로 비난, 정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 (5) 심지어 할 일 없는 일부 여성도들은 서로 모였다 하면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온갖 비방과 헐뜯음을 늘어놓아 이를 소일(消日)거리로 삼는 경우도 있다.
- (6) 결국 이러한 언행은 개인의 심령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교회의 분열까지 초래하게 되는 독소(毒素)와 같은 것이므로 우리들은 이를 엄격히 금해야 한다(7:1, 2; 눅 6:37; 롬 14:13; 고전 4:5).

10. ㉠ 바리새인의 비난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떻게 답하셨는가? (12, 13절)

- ㉠ (1)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소리(11절)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세 가지 말씀으 하시므로써 자신의 입장을 밝히셨다.

- (2) 첫째, 예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으리라'고(12절; 눅 5:31) 말씀하셨다. 이 귀절은 풍자적 의미를 지닌 일종의 격언으로서 여기에서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을, '의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병든 자'는 세리를 비롯해 구원과 영적 치료가 필요한 모든 죄인들을 가리킨다.
- (3) 둘째,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셨다(13절; 12:7). 이 말씀은 호 6:6을 인용한 것으로서 원래 호세아가 의도한 바는 그 당시 실천적 사랑이 결여된 율법주의자들을 훈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여기에서는 겉으로만 의로운 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을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었다.
- (4) 한편 '너희는 가서...배우라'는 표현은 그 당시 랍비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 사용했던 일종의 교육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타인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성경의 진리를 찾아 보고 진정한 의미를 배우라고 훈계하신 것이다.
- (5) 세째,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데, 여기에서 '의인'은 영적·도덕적으로 성결하다는 의미에서의 의인(참조, 13:43; 욥 36:7; 시 34:15; 37:25; 92:12; 잠 3:32; 4:18; 12:13; 20:7; 사 3:10)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율법주의자와 같은 교만한 자들을 가리킨다(눅 16:15; 18:9).
- (6)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등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음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사 61:1, 2; 눅 4:18, 19).

11. ㉠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항의한 것은 무엇인가? (14절)

- ㉠ (1) 그들은 예수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항의했다.
- (2) 이 귀절은 두 가지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데 첫번째로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날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절로 지키는 날이었다는 점과 두번째로는, 그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해 일부 엄격한 유대인들은 금욕 생활에 따른 금식을 필요 이상으로 남발하였으며 더우기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하여 그것을 억지로 강요하는 풍조가 있었다는 점이다.
- (3) 그러나 그 당시 실제로 요구되었던 공식적인 금식일은 속죄일과 부림절 전날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을 기념하는 압 월 9일까지 포함하여 모두 3일에 지나지 않았는데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경건과 금욕을 과시하기 위해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다.
- (4) 한편 오늘날에도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부류의 성도들이 가끔 있는데 그들은 금식 생활이 신앙의 척도라도 되는 양 착각하여 자신의 실적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가지고 타인의 신앙을 함부로 평가하는 등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 (5) 이러한 문제는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들은 금식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 구제, 봉사 등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회수나 양보보다는 그 일에 임하는 진실한 믿음과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6:1-17).

12. ㉠ 예수께서는 금식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 어떤 비유를 사용하셨는가? (15-17절)

- ㉠ (1) 예수께서는 금식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올바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먼저 신랑의 비유를 들어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을 떼앗길 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실 때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귀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이 마땅함을 교훈하고 있다.
- (3) 두번째 비유로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찢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라는 말씀을 하셨다. 여기에서 '생베 조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며 '낡은 옷'은 유대교의 교리를 가리킨다. 결국 이 비유는 유대주의적 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억지로 부합시키려 하면 오히려 양자가 모두 손상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 (4) 세번째로 예수께서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들이 다 보존되느니라'고 비유를 드셨다. 이 비유는 두번째 비유와 동일한 의도로 사용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히 4:12) 복음이 형식적인 금식을 중요시하는 유대교의 낡은 전통에 얽매일 수 없음을 가리킨다.
- (5)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새 옷과 새 가죽 부대의 비유'는 오늘날 불신자들까지 널리 인용하고 있는 유명한 비유로서 합리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명쾌한 논리를 제시해 주고 있다.
- (6) 한편 오늘날의 일부 급진적인 신학자들이나 성도들 중에도 마치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에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석하려고 했던 것처럼 지나치게 자신의 현실이나 상황에 맞추어 성경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 (7) 물론 현실이나 상황을 전적으로 배격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손상시키는 것이나 너무 지나치면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우리들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벧후 3:16)고 경고한 사도 베드로의 말을 깊이 명심하여 (참조, 22:29; 고후 2:17; 4:2),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지 말고 예수의 뜻하시는 바 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13. **㉠** 예수께서 금식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나아온 자는 누구이며 무슨 간구를 했는가? (18, 19절)

- ㉠** (1) 먼저 예수 앞에 나아온 자는 본절에 '한 의원'이라고 막연히 기록되어 있으나 마가 및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회당장 아이로' (막 5:22; 눅 8:41)라고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 (2) 그는 당시 가버나움 회당의 관리자로 있었는데 자신의 딸이 죽게 되자 예수께 나아와서 절하고 '내 딸이 방장(方將)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고 간구했다.
- (3) 여기에서 '방장'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르티)는 '방금'이란 뜻의 부사어이므로 '방장 죽었사오니' (헬, 아르티 에텔류테센)는 '방금 죽었으니'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죽게 되었사오니' (헬, 에스카토스 엑세이)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죽어 감이더라' (헬, 하우테 아페드네스켄)로 표현되어 있다. 결국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중간 과정 끝 아이로가 예수께 왔을 때에는 그의 딸이 위독한 상태였으나 예수께서 아이로의 집으로 가는 사이에 그 딸이 죽었다는 사건 경위(막 5:35; 눅 8:49)를 생략한 것이다.
- (4) 한편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라고 한 아이로의 고백은 안수를 통해 많은 병자들을 고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8:3, 15; 막 7:32; 눅 4:40; 13:13)을 확신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긴 하지만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종을 고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백부장의 신앙(8:8)보다는 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셨음을 볼 때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할지라도(17:20; 눅 17:6) 그 안에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빌 4:13).
- (6) 그러므로 우리들은 비록 완전한 신앙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거나 하나님의 도움 요청을 포기하지 말고 믿는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엡 6:18).

14. ㉠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20절)

- ㉠ (1) 아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예수의 겉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열 두 해를 혈루증(血漏症)으로 앓는 여자'였다.
- (2) 여기에서 '혈루증'은 보통 혈관 조직이 약하여 혈관의 틈을 통하여 피가 흘러나오는 병을 가리키나 특별히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은 출혈성 자궁 내막염이나 자궁암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심한 출혈을 일으키는 고질적인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3)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질병을 죄에 대한 형벌로 간주했는데(참조, 욥 33:19-28) 특히 '혈루증'과 같이 불결한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병은 육체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다(레 15:19-33).
- (4) 한편 이 여인에 대해서 마가는 더욱 상세히 기술(記述)하고 있는데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막 5:26, 27)고 했다.
- (5) 결국 자신의 모든 지혜와 경험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거듭한 이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병을 치유받았다(22절).
- (6) 이처럼 자신에게 있는 경험과 소유와 가능성마저 포기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자만이 참된 위로와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즉 자신을 철저히 낮춘 자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참조, 18:4).
- (7) 이러한 교훈을 아는 우리들은 세상의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이 여인의 전철(前轍)을 밟지 말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6:33; 7:7, 8; 눅 11:9, 10).

15. ㉠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어떻게 병 고침을 받게 되었는가? (21, 22절)

- ㉠ (1)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고백할 정도로 확신적인 것이었다.
- (2) 이러한 그녀의 고백은 세상의 온갖 수단과 방법이 헛된 것인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자의 겸손한 믿음과 가난한 심령, 신앙적 결단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녀의 신앙은 결코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신앙의 최절정을 이루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3) 그런데 만약 그녀의 고백과 옷을 만진 행동이 신앙이 동반되지 않은 미신적인 것이었다면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었을지라도 인간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일 수는 없다(대상 28:9; 29:17; 잠 16:2; 렘 11:20; 롬 8:27; 살전 2:4).
- (4) 이처럼 예수께서는 그녀에게서 진실한 신앙을 간파하셨으므로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녀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간구했던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와 함께 영혼의 구원까지 약속받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

(5)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성도들이 간구하는 소망은 오직 자신의 믿음에 의해 성취 여부가 판가름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참조, 히 11:1).

16. **㉠** 예수께서 직원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23절)

- ㉠** (1) 직원의 집은 ‘피리 부는 자들과 흰화(喧嘩)하는 무리’들로 붐비고 있었는데 이는 상가(喪家)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 주는 표현이다.
- (2) 여기에서 ‘흰화하는’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쓰루부메논>은 사람들이 모여 떠드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하면 상가에는 으레히 피리 부는 자들과 곡(哭)하는 여자들을 유료(有料)로 고용했는데 큰 소리를 낼수록 그들은 많은 보수를 받았다고 한다(참조, 렘 9:17).
- (3) 심지어 백성들 중에서 가장 빈곤한 자라 할지라도 최소한 피리 부는 자 두 명과 곡하는 여자 한 사람 정도는 불렀다고 하니 비교적 사회적, 종교적 지위가 높은 회당장의 집에 고용된 사람들은 상당수에 달했을 것이다.
- (4)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상객들의 떠드는 소리와 회당장 가족들의 애곡(哀哭) 소리 역시 대단했을 것이므로 예수께서 도착하셨을 때 이곳의 분위기가 과연 어느 정도 혼잡하고 소란스러웠을 것인가는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 (5) 이처럼 한 가정의 슬픔에 동참하기는커녕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실속을 차리려는 무리들의 소란스러움은 매사에 몰인정하며 욕구 충족만을 바라는 현대인들의 아우성파도 흡사하다. 이런 아우성 속에서 우리는 함께 웃고 우는 참된 인간애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참조, 롬 12:15).

17. **㉠** 떠드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24절)

- ㉠** (1) 예수께서는 회당장의 집에 모여 떠들고 있는 문상객, 피리 부는 자, 곡하는 여자 및 회당장의 가족들을 향해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다.
- (2)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거나 가사(假死) 상태에 빠져 있다는 의미가 된다.
- (3) 그러나 아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막 5:35; 눅 8:49) ‘잔다’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은 다소 오해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 (4)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정확히 간파해야 한다. 즉 예수께서 사용하신 ‘잔다’라는 표현은 그 소녀의 육체적인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영혼은 결코 죽지 않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5) 다시 말하면 그 소녀가 당한 죽음은 하나님의 징벌인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지 않고 언젠가는 다시 살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킨다(참조, 살전 4:16).
- (6) 따라서 예수께서는, 마치 그 소녀가 영원히 죽은 것인 양 소란을 피우고 있는 무리들에게 ‘물러가라...잔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영적 무지를 자각시켜 죽과 동시에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실 자신의 능력을 분명히 밝히신 것이다.
- (7) 한편 예수께서는 비단 이 소녀의 경우에서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표현으로 말씀하셨는데(요 11:11) 이러한 표현은 역대하의 저자가 여호사밧의 죽음에 대해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대하 21:1)라고 기록한 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 (8)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우리 성도들은 장례식을 치르는 데 있어서 불신자들과 같이 지나치게 통곡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말고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故人)의

생애와 교훈을 기억하며 한편으로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18. ㉠ 예수께서 직원의 딸을 어떻게 살리셨는가? (25, 26절)

- ㉠ (1)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웃는 무리들을 내어 보낸 후에 직원의 죽은 딸이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그 소녀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 (2) 여기에서 마태는 예수의 행동을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라고 간단하게 표현한 반면 마가와 누가는 예수께서 '달리다꿈' 곧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덧붙여서 기록하였다(막 5:41; 눅 8:54).
- (3) 더우기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소녀의 회생(回生)에 대해 '그 영이 돌아와' (눅 8:55)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소녀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 (4) 이러한 예수의 안수와 말씀이 끝나자마자 직원의 죽은 딸은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일어나 걸었는데 이를 보고 예수께서는 절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내지 말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부탁하셨다(막 5:43; 눅 8:55, 56).
- (5) 한편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적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관 속에 들어 있는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사건(눅 7:11)과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이미 무덤 속에서 썩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요 11:38-44)을 들 수 있다.
- (6) 이와 같이 죽은 자까지 살리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인적 능력은 단지 육체적인 회생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베푸실 분이심을 암시해 주는 징표이다(참조, 요 3:16; 빌 3:20). 더우기 이 사건을 통하여 당신의 부활과 세상 끝날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을 예증해 주셨다(참조, 살전 4:16, 17).

19. ㉠ 두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27-30절)

- ㉠ (1) 예수께서 회당장 아이로의 집에서 그의 딸을 살리신 후 그곳을 떠나 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했다(27절).
- (2)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일단 무시하고 집(가버나움에 있었던 자신의 숙소)으로 들어가셨으나 그 소경들이 계속 따라오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28절)고 물으셨는데 이는 그들의 진실성을 확인하시기 위해서였다.
- (3) 한편 그 두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질문에 대해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
- (4) 이러한 소경의 답변을 확인하신 후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자(29절)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소경들의 눈이 밝아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진실한 것이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 (5)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께 각자의 소원을 간구할 때 먼저 진실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며 자신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치 말고 끊임없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참조, 8:13; 21:22; 창 18:32; 32:26; 신 9:18; 눅 22:44; 요 5:24; 행 12:5; 약 5:16, 17).

20. ㉠ 두 소경이 예수께 사용했던 칭호는 무엇인가? (27절)

- ㉠ (1) 그들은 예수를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직계 자손으로서 다윗의 계보에 속해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 두 소경이 사용했던 '다윗의 자손'이란 칭호가 단순히 다윗의 계보에 속한 어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보를 통해 나타날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다는 점이다(참조, 1:1; 사 11:1-10).
- (3) 즉 그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서 있는 분이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메시아(그리스도) 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

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눈을 밝게 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 (4) 한편 이 칭호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지칭할 때 사용했던 일종의 통속적 명칭으로서 그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정치적 통치자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투사된 표현이다.
- (5) 그러나 예수께서는 백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의도로 불리어지는 것을 싫어하셨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열망 곧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어둠의 노예가 되어 있는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참조, 26:28; 사 53:5; 욥 13:6; 요 19:34; 롬 5:9; 히 13:12; 벧전 1:11, 18, 19; 2:21; 3:18; 요일 1:7; 계 1:5; 7:14; 12:11).

21. ㉠ 예수께서 두 소경을 고쳐 주신 후 그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는가? (30, 31 절)

- ㉠ (1)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을 밝게 해주신 후 이 일에 대해 엄히 경계하시는 심정으로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 (2) 그런데 예수의 이러한 당부 말씀은 비단 본질에서 뿐만 아니라 앞서 문둥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을 때 (8:4)나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 주셨을 때 (막 5:43; 눅 8:56)에도 마찬가지였다.
- (3)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자신이 행했던 이적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이러한 소문은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는데 만약 이렇게 될 경우 복음 사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눈에 보이는 표적을 중요시하는 인간의 심리 상태를 감안해 볼 때 너무 이적에만 의존하는 신앙 풍조가 형성되기 쉬우므로 이를 경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세째, 병 고침을 받은 당사자가 이적의 체험으로 인해 마음이 들떠 있을 경우 그 이적의 본래적 의미를 놓쳐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그에게 일어난 일을 묵상하도록 배려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 (4)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기억해 볼 때 병 고침이나 다른 여러 이적들은 그의 복음(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5) 그런데 오늘날의 목회자들이나 교인들 중에 이러한 이적들이 마치 신앙의 본질이라도 되는 듯이 이것에만 치중하는 무리들이 있다. 그들은 마치 의료 행위나 마술을 하는 듯이 공개적으로 이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선전하거나 과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질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깨달은 우리들은 이러한 신앙과 행동들이 그릇된 것임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22. ㉠ 예수께서 ‘귀신들려 병어리 된 자’에게 행하신 이적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32-34 절)

- ㉠ (1) 두 소경이 고침을 받고(27-31 절) 예수의 집으로부터 나가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귀신들려 병어리 된 자’를 데려왔는데(32 절)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 병어리가 말하게 되었다.
- (2) 그런데 ‘귀신들려 병어리 된 자’란 육체적 결함이나 유전적 요인에 의해 선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귀신의 세력에 의해 후천적으로 입이 닫히게 된 증세를 가리킨다. 이러한 근거는 ‘귀신이 쫓겨 나고 병어리가 말하거늘’이라는 귀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3) 그런데 이 사건을 목격한 무리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고 기이히 여기는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憑藉)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

에 대해 비방하는 태도를 보였다.

- (4) 여기에서 ‘귀신의 왕’은 원래 ‘파리의 왕’이란 의미를 가진 에그론의 수호신 바알세불(Baalzebub) 혹은 바알세불(Baalzebub)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왕하 1:2) 유대인들에게는 사단의 칭호로 사용되었다(10:25; 12:24, 26; 눅 11:15, 18, 19).
- (5) 한편 ‘빙자하여’는 KJV에서 ‘...을 통하여’(through)라고 나와 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예수께서 사단의 세력을 통하여(방편으로 하여)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인데 그들의 이러한 견해는 영적 무지에서부터 온 실로 가증스러운 것이다.
- (6)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분의 온전하신 능력을 부인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예수를 사단이라고 정죄하는 엄청난 죄까지 짓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참조, 12:24; 막 3:22).

23. ㉠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으로 다니시면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35절)

- ㉠ (1) 첫째,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는 그의 교사적 사명을 잘 반영해 주는 사역이다(4:23; 5:2; 7:29; 막 6:34; 눅 4:15; 요 3:2; 7:14; 8:2).
- (2) 둘째,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빠져서 세상 삶에만 집착하고 있는 죄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사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복음 사역은 세례 요한의 경우(3:2)와 마찬가지로 회개의 촉구와 임박한 천국 도래(到來)를 주제로 하고 있다.
- (3) 셋째, 예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기에서 ‘병’(헬, 노소스)이란 고통이 수반되는 일반적인 질병의 속성을 나타내는 반면 ‘약한 것’(헬, 말라키안)은 병으로 인해 심신(心身)이 약해지는 상태를 강조한 표현이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마태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사 53:4) 말씀 곧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8:17)에 잘 나타나 있다.
- (4) 이와 같이 우리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사 61:1, 2; 눅 4:18, 19).

24. ㉠ 예수께서 우리들을 민망하게 여기신 이유는 무엇인가? (36절)

- ㉠ (1) 이는 우리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流離)했기’ 때문이다.
- (2) 여기에서 먼저 ‘목자 없는 양’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선한 목자이심을 깨닫지 못했던 우매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직접 귀로 듣고 여러 이적을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야임을 깨닫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의 신적(神의) 능력까지 격하시켰던(34절) 완악한 백성들이었다(13:15; 막 3:5; 10:5; 16:14; 행 28:27; 롬 11:25).
- (3) 그리고 ‘유리함이라’에 해당되는 헬라이어(에립메노이)는 ‘고생하며 헤매다’(참조, 민 27:17; 대하 18:16; 겔 34:5), ‘버림을 받아 쇠약해지다’라는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4) 한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됨 목자로(요 10:11; 히 13:20; 벰전 2:25; 5:4; 계 7:17), 이스라엘 백성들(성도들)을 양으로(참조, 10:6; 15:24; 18:12; 25:33; 26:31; 시 74:1; 79:13; 요 10:3; 벰전 2:25) 비유한 말씀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5)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마치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성도들도 예수 그

리스도들을 떠나게 되면 길 잃은 양과 같이 실족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참조, 10:16; 렘 50:6,7; 겔 34:6).

25. **㉠** 예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충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37, 38절)
- ㉠** (1) 예수께서는 부족한 일꾼들을 채우시기 위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라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 (2) 여기에서 '추수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시킬 복음 사역을 뜻하며 '일꾼'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할 진실한 복음 사역자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추수하는 주인'은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엡 1:8)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 (3) 즉 예수께서는 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할 진실한 일꾼들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시고 제자들에게 참된 일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그런데 일꾼에 대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은 70인의 전도인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낼 때 강조하신 내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눅 10:2).
- (4) 한편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담당할 일꾼들이 많이 요청되고 있는데 특히 일꾼을 가장한 샅군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참된 일꾼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참조, 요 10:12).
- (5) 그러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귀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은(행 1:8) 명예, 부, 권력을 탐하는 샅군들의 비리를 결코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참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6:33; 눅 18:29; 요 13:37).

연구자료

귀신들림. '귀신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어떤 사람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통제력과 영향력을 행사하여 마음이나 몸을 혼란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리면 그 결과 육체적인 기능이 상실되기도 하고(32, 33절; 4:24; 막 9:18; 눅 11:14) 정신적인 장애 현상(11:18; 17:15; 요 10:19-21)이 일어나기도 한다. 신약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귀신들린 자로는 거라사 지방의 귀신들린 사람(눅 8:27)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15:22), 점하는 여인(행 16:16) 등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예수 뿐 아니라 바울과 같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에게 귀신은 굴복당하고 만다는 점이다(12:22; 눅 10:17; 행 16:18). 그렇지만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까지 치유함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까지 완전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야 한다. 한편 이상과 같은 사실은 성령의 장중(掌中)에 사로잡혀 사는 자는 결코 귀신에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기도 하다.

제 10 장 열 두 제자를 선택하고 파송하시다

단락구분 1-4 열 두 제자를 선택하시다 / 5-15 복음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시다 / 16-25 편난과 박해를 극복하라 / 26-31 두려워하지 말라 / 32-33 예수를 시인하는 자들과 핍신하는 자들 / 34-36 복음에 따르는 인간적 고통 / 37-39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사랑 / 40-42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

- 1 예수께서 그 열 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 2 열 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 3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 4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 5 예수께서 이 열 둘을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 6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 7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왔다 하고
- 8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 9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 10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나
- 11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 12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 13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 14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 버리라
-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건디기 쉬우리라
- 16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

- 혜되고 비뚤기같이 순결하라
- 17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 18 또 너희가 나환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 19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 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습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 21 장차 형제가 형제됨,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 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 22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건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 23 이 동리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리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 24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 25 제자가 그 선생같고 종이 그 상전같으면 축하도다 짐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 26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 27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 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 29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 30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32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33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34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7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38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9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40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전장(前章) 끝 부분에서 언급된 제자들의 선택과 파송을 촉구하는 기도(9:35-38)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 나타나 있다.
- (2) 즉 예수께서는 이미 복음 사역을 감당할 진실한 일군이 부족하셨음을 지적하시면서 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장에는 예수께서 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장차 중추적(中樞的)인 역할을 하게 될 열 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복음의 일군으로 파송한 사건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 (3) 한편 이러한 상황 아래 선발된 열 두 제자들을 대상으로 예수께서는 사도직(使徒職)과 함께 복음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시면서 장차 이 직분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에 대해 권면하셨다.
- (4) 그런데 본장에 언급되어 있는 이러한 권면들은 그 당시 열 두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절실한 교훈이라 할 수 있다.
- (5) 결국 우리들도 열 두 제자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 사역을 수행할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사 43:10; 요 15:27; 행 1:8; 4:20; 5:20, 21, 32; 18:9, 10; 22:14, 15; 26:22; 고후 4:13; 벧전 5:12)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각자의 사명 수행을 위한 실천 강령으로 삼아야 한다.

2. **㉠ 예수께서 열 두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무엇인가? (1절)**

- ㉠** (1) 예수께서는 많은 제자들 중 열 두 명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부여하셨다.
- (2) 먼저 여기에서 ‘더러운 귀신’이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에게 원수가 되는 악한 영들로서 그들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결정적인 손상을 불러일으킨다.
- (3) 다음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 4:23과 9:35의 표현과 동일한 것으로서, ‘병’(헬, 노소스)은 ‘가혹한 것’을 뜻하며 ‘약한 것’(헬, 말라키아)은 ‘부드러운 것’, ‘육체적으로 약한 것’ 곧 병의 결과로 약해진 육체를 가리킨다.
- (4)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권능은 원래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능력에 속한 것이었으므로 예수께서 열 두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부여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만큼 귀중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의미이다. 특히 ‘열 두’ 제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
- (5) 한편 여기서 열 두 제자들에게 부여된 권능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

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특별히 다른 능력보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들이 다른 이적을 행하는 자들보다 더욱 뛰어난 사도임을 증거해 준다.

3. ㉠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1, 2 절)

- ㉡ (1) 먼저 '제자' (헬, 마테태스)란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란 뜻으로서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 (2) 이러한 용어는 복음서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모세의 제자' (요 9:28), '세례 요한의 제자' (요 3:25),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5:1) 등이다.
- (3) 한편 '사도' (헬,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주인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사명을 가진 사절(使節)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용어는 '제자'라는 말과 달리 성경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다.
- (4) 즉 사도로 불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이 요구되어졌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그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참조, 행 1:22; 고전 9:1), 둘째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부여받은 사람(행 5:15, 16; 히 2:3, 4), 세째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성령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행 1:26)만이 사도로 칭함을 받을 수 있었다.
- (5) 결론적으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을 비롯해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호칭인 반면 '사도'는 열 두 제자 및 사도 바울 등 초대 교회 시대에 활약했던 일부 특정적 제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4. ㉠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열 두 제자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이 배열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라 (2-4 절).

- ㉡ (1) 먼저 본서와 공관 복음 및 사도행전에 언급되어 있는 열 두 제자들의 이름을 그 순서대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비교 순서 | 마 10:2-4 | 막 3:16-19 | 눅 6:13-16 | 행 1:13 |
|----------|-------------|-------------|-------------|-------------|
| 1 | 시몬 베드로 | 시몬 베드로 | 시몬 베드로 | 베드로 |
| 2 | 안드레 |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 안드레 | 요 한 |
| 3 | 야고보 | 야고보의 형제 요한 | 야고보 | 야고보 |
| 4 | 요 한 | 안드레 | 요 한 | 안드레 |
| 5 | 빌립 | 빌립 | 빌립 | 빌립 |
| 6 | 바돌로매 | 바돌로매 | 바돌로매 | 도 마 |
| 7 | 도 마 | 마 태 | 마 태 | 바돌로매 |
| 8 | 세리 마태 | 도 마 | 도 마 | 마 태 |
| 9 |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
| 10 | 다대오 | 다대오 | 셀롯이라 하는 시몬 | 셀롯인 시몬 |
| 11 | 가나안인 시몬 | 가나안인 시몬 | 야고보의 아들 유다 | 야고보의 아들 유다 |
| 12 | 가롯 유다 | 가롯 유다 | 가롯 유다 | |

- (2) 이러한 명단들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명단의 배열에 있어서 항상 베드로가 선두에 기록되어 있는 반면 가롯 유다는 제일 뒤에 언급되어 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그가 다른 어느 사도들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 (3) 둘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각 명단에 있어서 서열상 약간의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공히 4 순위 내에 배열되어 있다. 이것은 이미 그들이 소명을 받은 바 있는 두 쌍의 형제들의 이름(4:18-22)임을 나타내 준다.

- (4) 세째, 각 명단을 보면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열 두 명이 모두 3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조의 선두에는 각각 시몬 베드로, 빌립,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가롯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은 각 명단에 있어 그들의 서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5) 네째, 헬라이어 성경에는 본장 2-4절에 언급된 열 두 제자의 이름이 각각 2명씩 짝을 지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낸 사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막6:7).
- (6) 다섯째, 마가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먼저 기록하고 안드레는 그들 뒤에 배열해 놓았는데 이는 그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로부터 야이로의 딸의 부환과 그의 변형 사건을 목격할 특권을 받았을 뿐 아니라(17:1; 막5:37; 9:1; 눅8:51; 9:28) 겐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분의 곁에 가까이 있도록 초대받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26:37; 막14:33).
- (7) 여섯째, 마태는 자신의 이름을 기록할 때 그가 속한 조의 마지막에 배열해 놓았을 뿐 아니라 그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라는 직업명을 병기(竝記)했는데 이는 마태가 그만큼 겸손한 인품의 소유자였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8) 일곱째, 본서와 마가복음의 명단에 나타나 있는 '가나안인 시몬'은 누가복음의 '셀롯이라 하는 시몬'이나 사도행전의 '셀롯인 시몬'과 동일 인물로 나타나 있다. 마찬가지로 다대오 역시 '야고보의 아들 유다'의 다른 이름으로 볼 수 있다.
- (9)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명단에는 가롯 유다가 제외되어 열 한 명의 이름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미 가롯 유다가 사도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형벌을 받아 죽은 후였으므로 언급되지 않은 것 같다. 그 대신 바로 뒤에 가롯 유다에 이어 새로운 사도로서 '맛디아'가 열 두 명의 대열에 추가되어졌다(행1:26).

5. 마태를 제외한 나머지 열 한 명의 제자들의 신상에 대해 설명해 보라(2-4절).

- (A) (1) 베드로(헬, 페트로스) : '시몬'(Simeon)의 단축형으로 간주되는 '시몬'(히브리어로 '듣음'이란 뜻)이라 불렀던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갈릴리 벳새다 출신으로서 예수의 제자로 선택되기 전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었다(요1:35-42). 그는 제자로 선택된 후 진실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예수로부터 '반석'이란 의미를 지닌 '게바' 또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다(16:18; 요1:42). 그의 성격은 충동적이었고 열정적이었는데 이러한 베드로의 성품은 말고의 귀를 잘라 버린 사건에 잘 나타나 있다(요18:10). 신약 성경에는 전반적으로 베드로에 대해 많이 언급되어 있으나 예루살렘 공의회(행15장) 이후 그의 행적은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
- (2) 안드레(헬, 안드레아스) :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헬리어로 '남자'란 뜻)는 신약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본절 외에 단지 4:8; 막1:16, 29; 3:18; 13:3; 눅6:14; 요1:40, 44; 6:8; 12:22; 행1:13에서만 몇 차례 나타날 뿐이다.
- (3) 야고보와 요한(헬, 야코보스, 요안네스) : 이 두 사도는 부유한 어부, 출신의 아버지 세베대(막1:20)와 공격적 성격을 가진 어머니 살로메(27:56; 막15:40; 16:1) 사이에 태어난 형제로서 야고보란 이름은 헬리어로 '발꿈치를 잡음'이란 뜻이며, 요한은 '여호와를 자비하시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머니의 성격을 물려받아 성격이 급했던 그들은 '우리의 아들'(헬, 보아너게)이란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막3:17). 이들 형제는 베드로와 함께 가장 유명한 3제자에 속했는데 특히 요한은 베드로와 절친한 친구 사

이였었다(눅 22:8; 요 18:15; 20:2-8; 행 3:1-4; 8:14; 갈 2:9). 한편 야고보는 헤롯 왕의 박해 때 참수형(斬首刑)을 당해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행 12:1, 2) 요한은 밧섬으로 귀양갔다가 에베소로 돌아와 늙어 죽을 때까지 혼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폴리갑(Polycarp), 파피아스(Papias), 이그나티우스(Ignatius) 등 뛰어난 지도자들을 양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4) 빌립(헬, 필립포스) :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벧새다 출신이었던(요 1:44) 빌립(헬라어로 '말을 사랑하는 자'의 뜻)은 다른 몇몇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선택된 자이다. 한편 공관 복음에서는 그의 행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요한복음에서는 1:45; 6:5-7; 12:21, 22; 14:8-14 등에서 비교적 자세히 나타나고 있다. 그는 아시아에 있던 로마 식민지에서 복음 사역을 담당하다가 히에라폴리스(Hierapolis)에서 최후를 마쳤다.
- (5) 바돌로매(헬, 바르톨로마이오스) : 이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으로서 '톨마이 아들'(Son of Tolmai) 혹은 '톨로마이우스의 아들'(Son of Tholomaeus)을 의미한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를 '나다나엘'(Nathanael)과 동일 인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거는 다음의 사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① 나dana엘은 열 두 제자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요 21:2). ② 빌립이 나dana엘을 예수께로 데려왔다(요 1:43-46). ③ 사도들의 명단들에서 빌립과 바돌로매가 항상 연결되어 배열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바돌로매는 가나(Cana) 출신으로서(요 21:2) 예수께 칭찬을 받았던 나dana엘로 추정될 수 있다(요 1:47).
- (6) 도마(헬, 도마스) : '디두모'(Didymus)라고도 불리웠던(요 11:16; 21:2) 도마는 아람어로 '쌍둥이'를 의미한다. 그의 신상에 대해서는 복음서의 몇 군데에서만(요 11:16; 14:5; 20:24-29)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흔히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부정적인 평가만을 내리기 쉬우나 그의 용기(요 11:16)와 의미 깊은 신앙 고백(요 20:28)을 볼 때 도마 역시 사도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는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7) 다대오(헬, 다다이오스) : 히브리어로 '여자의 가슴'이란 의미를 지닌 이름으로 ㉠4의 도표로부터 알 수 있듯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가리킨다(눅 6:16; 행 1:13). 한편 요 14:22에는 그를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외에는 다대오의 신상 및 행적에 관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으며 단지 수리아와 알메니아에서 전도 활동을 했다는 외경의 기록만이 그에 대해 알 수 있는 전부이다.
- (8) 가나안인 시몬(헬, 시몬 호 카나니테스) : 시몬의 이름을 수식하고 있는 '가나안인'은 헬라어로 '이교도(異教徒)인 이방인'을 의미한다. 그런데 15:22에는 시몬의 이름 앞에 '카나나이아'라는 말로 대치되고 있는데 이는 '열심당원'(Zealot)의 아람어 형태이다. 따라서 가나안인 시몬은 '셀롯인 시몬' 곧 '열심당원 시몬'과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다(참조, 눅 6:15; 행 1:13). 한편 열심당원들은 민족주의자들로서 유대 민족의 전통과 종교를 강력하게 지지하던 자들이었다. 결국 '열심당원 시몬'이란 이름은 베드로와 구별시켜 주는 이름이 될 뿐만 아니라 시몬의 과거의 정치적 종교적 경력을 알려 주는 별명이기도 하다.
- (9) 가룟 유다(헬, 유다스 호 이스카리오테스) : 그의 이름은 헬라어로 '케리옷의 사람'(man of Kerioth)이라는 뜻이다(참조, 요 6:71; 13:26). 가룟 유다는 열 두 명의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정직하지 못했고(요 12:6; 13:29; 26:14-16; 27:3-10) 결국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엄청난 죄를 짓게 되

었다(27:5). 마태와 마가는 그를 ‘예수를 배신한 자’로 낙인찍고 있으며 누가는 ‘배신자’ (예수를 파는 자)로 취급하였다.

6. **㉠**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셨는가? (5, 6절)

- ㉠** (1)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 (2) 이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를 비롯해 이방 지역을 제한하신 이유는 그들을 경시(輕視)해서가 아니라(참조, 8:10;15:28; 눅 17:18; 요 4:1-42)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였다.
- (3) 즉 예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장차 그들에게 복음 전도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일단 선교지의 대상을 제한하신 것이다(참조, 롬 11:12, 15).
- (4)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에 대한 이러한 명령은 행 1:8의 말씀 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귀절에도 잘 나타나 있다.
- (5)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일부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참조, 1:1;2:1;3:9, 10;4:15, 16;5:13-16;8:1-13;10:18;21:43;24:14;28:16-20)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가까운 지역부터 시작하여 점점 먼 곳으로 확산되어진다는 점이다.
- (6) 한편 오늘날에도 그 당시의 열 두 제자와 같이 선교 사업에 뜻을 품은 젊은 일꾼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특히 그중에는 세계 선교를 목표로 중동, 아프리카, 제 3세계, 공산권 국가를 복음화시키기 위해 뜨거운 비전(vision)을 가꾸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 (7)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우리 주위에도 죽어 가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점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병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소록도에는 그들의 상한 영혼을 위로해 줄 종교 지도자들이 부족한 실정이고 농촌, 어촌, 탄광촌을 비롯해 여러 특수 지역에서도 유능하고 열정적인 일꾼들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 (8)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시의 일부 큰 교회들은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며 또한 이를 상당한 자량거리로 삼고 있다. 그러나 복음 사역의 참다운 일꾼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 우리 나라를 목표로, 나아가서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7. **㉠** 복음 사역을 위해 제자들이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7, 8절)

- ㉠** (1) 제자들이 부여받은 첫번째 사명은 천국 선포 곧 ‘천국이 가까와 왔다’고 선포하는 일이다(참조, 3:2).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전에 예수께서 친히 전파하신 말씀으로서(4:17) 제자들에게도 이 일을 맡기신 사실은 그들이 부여받은 사명이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인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2) 두번째 사명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행할 권능은 원래 예수께만 속한 것이었으나 이제 열 두 사도들도 이 권능을 받게 되었으므로(1절) 그들은 복음 사역을 위해 조금도 손색이 없게 되었다.
- (3)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항상 그에 합당한 능력을 값없이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 결국 우리들이 복음 사역을 위해 받은 사명과 권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것이므로 나누어 줄 때도 아무런 생색을 내지 않고 마치 부탁받은 물건을 전해 주는 식으로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남에게 봉사한 후 그 일로 인해 이익을 취하

려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므로(미 3:11)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하에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항상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억해야 한다.

8. ㉠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제자들이 지참하지 말아야 할 물건은 무엇인가? (9, 10절)

- ㉠ (1)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는 전대(纏帶)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 것'을 당부하셨다. 여기에서 금, 은, 동은 다른 상품이나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금속 덩어리 혹은 '돈'(금화, 은화, 동화)을 뜻하며 '전대'는 돈을 넣어 다니는 주머니를 가리킨다.
- (2) 두번째로 금해야 할 사항은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다.
- (3) 그런데 이러한 금지 사항에 대해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마태는 전도 여행을 할 때 위에 열거한 모든 것을 가지지 말라고 기록한 반면 마가는 '신'과 '지팡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 (4)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질 수 있다. 즉 마가는 제자들이 처음에 준비할 수 있도록 허용된 물건들을 언급한 반면 마태는 이미 제자들이 그들에게 허용된 한 벌의 옷, 한 쥘레의 신, 한 개의 지팡이를 준비했다고 보고 더 이상의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금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5) 한편 앞에서 열거한 물품들은 여행을 떠나는 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준비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최소한의 물건만을 허용하셨는데 이는 ① 전도 여행이 일반 여행과는 달리 모든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고 ② 복음 사역을 위해 힘쓰는 일군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며(참조, 고전 9:14; 딤후전 5:17, 18) ③ 편리만을 위해 여행에 필요한 재물을 준비하다 보면 전도 여행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다른 데에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 (6) 이러한 사실을 통해 선교에 뜻을 둔 성도들은 이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처럼 소박한 자세로 임할 수 있어야 한다.

9. ㉠ 여행 도중 제자들이 유숙해야 할 곳은 어디인가? (11절)

- ㉠ (1)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머물러야 할 숙소에 대해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고 일러주셨다.
- (2)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 가장 안락한 숙소를 찾아 헤매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 (3) 결국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숙소로 '합당한 자'의 집만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 '합당한 자'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경건한 사람이라기 보다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거나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 (4) 한편 이 말씀은 역(逆)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즉 우리들은 복음을 위해 진정으로 힘쓰는 전도자들에 대해서는 반가운 마음으로 영접해야 하지만(참조, 40, 41절; 창 18:2; 19:1; 요 13:20; 행 21:17; 롬 16:2; 갈 4:14; 빌 2:29; 몬 1:17; 요삼 1:8) 거짓 교훈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케 하는 자들은 절대로 '집에 들어지도 말고 인사(人事)도' 하지 말아야 한다(요이 1:10).

10. ㉠ 제자들은 숙소로 정한 집에 들어갈 때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는가? (12, 13절)

- ㉠ (1)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당부하셨다.
- (2) 그 당시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어떤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집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했는데 이러한 인사말에 대해 누가복음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눅 10:5) 라고 소개되어 있다.

- (3) 그런데 제자들이 했던 평안의 인사는 집주인이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합당한 자’ 일 경우(참조, Q9)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빌었던 평안의 축복이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 했다.
- (4)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우리들은 단지 성도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의 집을 방문할 때도 항상 축복과 평안을 비는 인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삼상 25:6).

11. Q 집주인이 제자들의 방문을 달갑지 않게 여길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14절)

- A (1) 예수께서는 전도 여행을 앞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밤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고 일러 주셨다.
- (2) 왜냐하면 열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 가지 권능과 복음 사역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자(使者) 들로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참조, 40절; 18:5; 25:40; 막 9:37; 눅 9:48; 10:16; 요 12:44,45; 13:20; 갈 4:14).
- (3) 즉 제자들이 집주인에게 하는 인사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제자들의 인사를 받지 않는 자는 그들에게 찾아온 예수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시 되는 것이다.
- (4)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자들 곧 그들을 배척하는 유대인 가정이나 마을들을 떠날 때 발바닥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려야 했는데 이는 그러한 가정과 마을들이 이교적이고, 오염되어 있으며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상징하기 때문이다(행 13:51; 18:6).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교훈을 기억하여 세 천사를 영접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함으로써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창 18:1-9; 19:2; 24:31; 출 2:20; 사 13:15; 19:20; 왕하 4:8; 느 5:17; 욥 31:32; 행 16:15, 34; 21:8; 28:2, 7; 히 13:2).

12. Q 제자들을 배척하는 가정이 받을 형벌은 어떠한가? (15절)

- A (1) 이러한 가정에 대해 예수께서는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열 명의 의인마저 없을 정도로 온갖 음행과 우상 숭배 등의 죄악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께서 내린 유향불로 멸망당한 고대 도시 국가를 가리킨다(창 13:10-13; 14:9-24; 18:16-33; 19:1-30; 신 29:23; 렘 49:18; 애 4:6; 11:23, 24; 눅 17:29; 벰후 2:6).
- (3) 한편 소돔과 고모라의 이러한 배경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죄와 타락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사용되어진다(참조, 11:22-24; 신 32:32; 사 1:9; 3:9; 애 4:6; 눅 17:29; 롬 9:29; 벰후 2:6; 유 1:7; 계 11:8).
- (4) 이러한 비유를 통해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군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가장 처참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3. Q 예수께서는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으로서 어떠한 것을 제시하셨는가? (16-23절)

- A (1) 첫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6절)고 하셨다(창 3:1; 시 58:5; 아 2:14; 4:1; 5:12). 이것은 제자들이 험란한 세상에서 취해야 할 행동의 양면성으로서 먼저 뱀의 지혜(헐, 프로니모이)는 ‘신중한 분별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가 순

박함을 잃어버릴 때는 저질적인 교환함으로 전락되기 쉬우며 반면 순결하기만 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은 무지(無知)가 되므로 예수께서는 두 가지를 함께 제시하신 것이다.

- (2) 둘째, '사람들을 삼가라' (17절) 고 권면하셨다. 한편 여기서 '사람들'이란 인간 모두를 가리키는 집합 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혹은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킨다(32절;8:27).
- (3) 셋째, 만약 불신자들이나 적대자들이 그들을 공회에 넘겨 줄지라도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19절)고 하셨는데 이는 성령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때마다 합당한 말들을 주시기 때문이다. 한편 여기서의 '공회'는 일명 '산헤드린'(Sanhedrin)이라 불리웠던 예루살렘 최고의 법정(26:59;요11:47;행22:30)과는 달리 지역 회당과 관련된 일종의 지방 법정(the local councils)을 가리킨다.
- (4) 넷째 '이 동리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리로 피하라' (23절)고 하셨다. 이 말은 결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비겁하게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쓸데없이 불신자들이나 적대자들과 마찰을 일으킴으로써 복음 사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은유와 겸손으로 절제하라는 의미이다.
- (5) 한편 우리들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에 귀기울여 복음의 일군으로서 보다 합당한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4. ㉠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인가? (17, 18, 22절)

- ㉠ (1)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 사역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 주셨는데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복음의 적대자들이 그들을 공회에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하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리라고 하셨다.
- (2) 두번째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는 고난은 모든 이방인들의 증거가 될 것이다(참조, 행 5:20-42).
- (3)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 (4) 그런데 이러한 고난들은 단지 그 당시의 열 두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사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겪게 되는 공통된 고통이다(24:9; 눅 6:22; 요 15:18-21).
- (5) 그러나 우리들은 결코 이러한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이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곧 구원의 '산 소망'을 굳게 의지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39절;5:11;19:29; 고후 4:11; 벧전 1:6, 7;4:12-16;5:10; 계 2:10).

15. ㉠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증오심은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는가? (21절)

- ㉠ (1) 이에 대한 예수께서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 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이것은 기독교 박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으로서 가장 가까운 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방 법정에 고발하여 형벌을 받게 만드는 사건들을 생생하게 나타내 주는 장면이다. 이것은 그 당시 사도들을 비롯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어느 정도 심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한다.
- (3) 이러한 상황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 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이다 아들이 아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다' (미 7:5, 6)라는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다.
- (4) 한편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핍박은 그 당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늘나라가 임

할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이며 더구나 말세에 다다라서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에 부딪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여 끝까지 견디 나가야 한다(참조, 벰전 4:1-7).

16. Q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는 귀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23절)

- A** (1) 이 귀절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 하나로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2) 첫째, 듀퐁(J. Dupont)을 위시한 여러 학자들은 '인자가 오리라'는 말이 72인 전도단의 파송(눅 10:1) 때처럼 열 두 제자의 파송 때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뒤따라가서 그들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즉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동리들을 다 들기 전에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므로 제자들에게 신속하게 움직이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다.
- (3) 둘째, 칼빈(Calvin), 크리소스툼(Chrysostom), 베자(Beza) 등의 학자들은 '인자가 온다'는 말이 부활 때에나 혹은 그 직후에 예수가 메시아로 인정된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 (4) 셋째,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는 이 세상이나 교회를 상징하고 '인자가 오리라'는 말은 예수의 재림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학설도 있다(24:30;25:31;26:64). 즉 이 주장은 제자들이 이 세상을 전부 복음화시키기 전에 예수의 재림이 있을 것이란 의미이다.
- (5) 넷째, 슈바이처(Schweitzer)는 이를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예수의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종말이 올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 (6) 다섯째, 프랑스(France), 로빈슨(Robinson) 등의 학자들은 '인자의 오심'이란 귀절이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즉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순회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멸망(A. D. 70)시키심으로써 유대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이다.
- (7) 이상과 같이 살펴본 다섯 가지의 학설들은 나름대로의 논리성은 가지고 있으나 복음의 진리를 간파하지 못한 단편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 (8) 한편 이러한 학설들을 토대로 풀뿔(pulpit) 주석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라는 귀절에 대해 지나친 확대 해석을 하지 않고 단지 영적 의미로서 '유대인들 모두가 복음화되기 전까지'라고 해석했으며 '인자가 오리라'는 귀절은 예수의 재림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다.
- (9) 이러한 풀뿔 주석의 주장에 따라 결국 본귀절은 예수께서 재림할 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17. Q 예수께서는 제자와 선생,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24, 25절)

- A** (1)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上典) 같으면 족하도다'라고 가르치셨다.
- (2) 먼저 '제자가 그 선생보다...높지 못하나니'란 귀절은 선생이 만들어 놓은 도덕적 피해를 제자가 피할 수는 없으나 학문을 배운 후에는 그 분야에서 선생과 같이 된다는 뜻이다.
- (3) 다음으로 '제자가 그 선생 같고...족하도다'란 선생이 어떠한 대접을 받았던지를 막론하고 이미 선생이 받은 것이라면 제자들 역시 그것을 달갑게 받아야 된다는 의미이다.
- (4) 한편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선생과 제자, 상전과 종의 관계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관계이다.

- (5) 결국 예수께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 가르치시고자 하신 궁극적인 교훈은 어떤 학문의 성취도나 노예로서의 복종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즉 예수께서는 열 두 사도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의 제자와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박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이다.
- (6)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게 되는 모든 시험과 고통을 결코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5:12; 뱀전 4:12, 13).

18. **㉠**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라는 귀절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25점)

- ㉠** (1) 먼저 이 귀절은 예수께서 자신이 받는 박해들을 제자들 역시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신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다.
- (2) 즉 여기에서 '집주인' (헬, 오이코데스포텐)은 예수 그리스도들, '그 집 사람들' (헬, 오이키아코이)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는 예수와 제자들의 입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3) 그런데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드신 이유는 그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적을 베푸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고 '바알세불'이라 비방했기 때문이다(9:34; 12:24; 요 8:48).
- (4)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9장 **㉠**22를 참조하라.
- (5) 따라서 이 귀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알세불'이라고 모욕하고 비방할 정도니 그의 제자들이 어떠한 악평(惡評)을 받을 것인지는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6) 한편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에 대한 이러한 비난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결코 불신자들의 비난과 헐뜯음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더욱 자랑스럽게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뱀전 1:6; 2:19-21).

19. **㉠**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26-28절)

- ㉠** (1) 먼저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저희'는 예수를 '바알세불'이라고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을 의미한다.
- (2)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게 되나 결국은 그들의 사악한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반면 제자들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점차 신비한 비밀을 벗고 진리의 빛을 비추게 되므로 제자들은 현재 당하는 비방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3) 다음으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 (4)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을 박해하여 육체적인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으나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자들의 영혼은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5) 예를 들어 예수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순교자 스테반을 돌로 쳐죽이긴 했지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그의 영혼은 결코 죽일 수 없었던 것이다(행 6:10-7:60).
- (6)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때론 목숨까지 버려야 할 위기가 따른다는 점과 ② 그러나 결국은 진리가 승리한다는 점을 깨달아 결코 박해자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16:24, 25; 요 21:19; 행 21:13).

20. **㉠**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27절)

- ㉠** (1)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꺾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일러주셨다.
- (2) 그런데 '꺾속으로 듣는 것'은 유대의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 꺾속말로 전달했던 풍습을 암시하는 말로서 여기서는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이란 말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때껏 제자들에게 은밀히 가르쳐 왔던 복음의 비밀을 뜻한다. 그리고 '광명한 데서 말하며'와 '집 위에서 전파하라'는 귀절은 이러한 복음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 널리 선포하라는 의미이다.
- (3) 한편 그 당시 유대를 비롯한 근동 지방의 건축 양식에 의하면 보통 지붕이 평평하게 지어진 가옥 구조가 보편적이었다. 따라서 지붕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는데(삼하 11:2; 행 10:9) 특히 그 위에 올라가서 말을 할 경우 음성 전달 효과가 좋아 연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달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였다.
- (4)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단순히 개인의 지식으로만 남겨 두지 말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막 16:15)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28:19; 막 13:10; 행 1:8; 5:20; 계 14:6).

21. **㉠**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상대는 누구인가? (28절)

- ㉠** (1)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곧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란 정죄받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즉 인간의 육체는 사단의 세력에 의해 멸망될 수 있지만 영혼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다.
- (3) 따라서 우리들은 불신자들이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참조, 사 8:12, 13; 요 14:27; 벰전 3:14).
- (4) 왜냐하면 그들의 세력이 두려워 굴복하거나 타협할 경우 일시적으로 육체적인 생명은 유지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참조, 39절; 잠 24:19-22; 눅 17:33; 롬 8:12, 13).

22. **㉠**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29-31절)

- ㉠** (1)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머리털을 다 세실 만큼 우리들을 철저히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30절).
- (2) 즉 하나님께서는 한 앓사리온에 두 마리씩 팔리는 참새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생각해 볼 때 참새보다도 훨씬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29, 31절).
- (3) 그런데 여기에서 '앓사리온'(Assarion)은 당시 로마의 화폐 단위 중 하나로서 '한 앓사리온'은 근로자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1 데나리온(Denarion)의 1/16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 (4)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대하 16:9; 시 23:4; 91:4; 눅 21:18).

23. **㉠** 예수를 시인하는 자가 받을 축복과 부인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각각 무엇인가?(32, 33절)

- ㉠** (1)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말씀은 24절부터 시작된 내용의 결론 부분으로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서는 박해자들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내포하고 있다.
- (3) 즉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나아가서는 장차 기독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혹심한 박해를 받을 것임을 예견하시고 결코 그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도록 주의시키신 것이다.
- (4) 실제로 제자들을 비롯해 많은 성도들은 유대주의자들과 로마 정부로부터 배척과 박해를 받았는데 이러한 고난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들 앞에 굴복한 일이 많았다.
- (5) 더우기 예수의 수제자라고 불리웠던 베드로마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씩 부인했을 정도였다(26:69-75; 막 14:53-72; 눅 22:54-62; 요 18:15-27).
- (6) 그러나 우리들은 결코 육체의 안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를 짓지 말고 어떤 위협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를 시인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요 3:16, 36; 4:14; 12:25; 17:3; 갈 6:8).

24. **㉠**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34절)

- ㉠** (1) 예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劍)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귀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 주는 말씀으로서 그 분이 불의와 의를 화해시키거나 진리와 거짓을 타협시키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규명해 주고 있다.
- (3) 따라서 예수의 진리와 의는 이 세상의 거짓과 불의에 대해 검과 같이 작용하여(마찰이나 분쟁을 일으켜) 진리는 진리로, 불의는 불의대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는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와 결코 화평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 준다(참조, 미 7:6).
- (4)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 도무지 화합할 수 없는 인물이며 나아가서 성도들은 무조건적으로 이 세상과 불신자들을 적대시해야 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사람의 아들이고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서도 오셨다(참조, 21:5; 사 9:5; 눅 1:79)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들은 이 세상 및 불신자들 자체를 부정하거나 적대시하지 말고 불의와 거짓에 대해 항거해야 한다(참조, 시 1:1; 26:5).

25. **㉠**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족 사이에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는가? (35, 36절)

- ㉠** (1) 예수께서는 '내가 온 것이 사람이 그 아버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가르치셨다.
- (2) 그런데 이 말씀은 '아들이 아버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르다' (미 7:6)는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족들을 이간시켜 가정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 (3) 즉 이 귀절은 34절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은 검과 같이 날카롭기 때문에(엡 6:17; 히 4:12; 계 1:16) 가족들 중 성도와 불신자들이 공존할 경우 극심한 대립 현상이 생길 것이란 의미이다.

- (4)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족 관계를 무시하거나 파괴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혈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강조한 표현이다.
- (5)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만약 자신의 가족 중 불신자가 있을 경우 서로 대립하거나 적대시하기 보다는 그들을 전도하여 가정의 평화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6. ㉠ 예수께서는 어떠한 자들을 합당치 않게 여기시는가? (37, 38 절)

- ㉠ (1) 먼저 예수께서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고 말씀하셨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과 (15:4; 출 20:12; 레 19:3; 신 27:16; 잠 1:8; 30:17; 엡 6:2; 딤후 5:4)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기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귀중한 진리이다(참조, 창 21:16; 31:28; 37:25; 출 2:3; 삼상 2:19; 삼하 12:16; 21:9, 10; 왕상 3:26; 왕하 4:20; 사 49:15; 막 5:23; 눅 15:20; 요 19:25).
- (3) 따라서 이 귀절은 가족간의 사랑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이보다 우선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임을 강조한 말씀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가족 뿐만 아니라 어떠한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참조, 요 21:15-17).
- (4) 다음으로 예수께서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란 말은 그 당시 십자가형(로마의 사형 제도로 가장 잔혹한 형벌)을 당하는 자들이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끌려갔던 사실을(참조, 27:26-31) 암시하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5) 즉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생활고(生活苦)나 육체적 아픔 등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위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온 인격의 고충을 감수한다는 것이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함으로 가능하다(참조, 히 12:2, 3).
- (6)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분을 가장 사랑하며 나아가서는 그분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버리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참조, 8:19-22; 16:24).

27. ㉠ 참생명을 얻는 비결은 무엇인가? (39 절)

- ㉠ (1) 예수께서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고 가르치셨다.
- (2) 이 귀절은 16:25을 비롯해 눅 9:24; 17:33과 요 12:25에도 언급된 말씀으로서 육체적 생명과 영혼의 생명에 대한 역설적(逆說的)인 진리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3) 먼저 여기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란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자들로서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육체적 생명의 유지와 안전에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생명은 잠시 더 누릴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대신 영원한 생명 곧 영혼의 구원은 잃게 되는 것이다.
- (4) 반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자로서 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위태한 삶을 살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된다.
- (5)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너무나 자명(自明)한 사실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항상 영원한 것이어야 한다(참조, 고후 4:16-18).

28. 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어떠한 상을 받게 되는가? (40-42절)

- ㉔ (1) 먼저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바로 당신을 영접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전제하셨다.
- (2) 따라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 (3) 여기에서 선지자와 의인은 원래 각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참조, 삼상 10:10; 왕상 18:28; 렘 1:9; 5:13, 14),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자'라는 뜻이다 (행 22:14; 약 5:6). 그러나 본절에서는 12사도, 나아가서는 모든 복음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 (4) 또한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에게도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5) 이 귀절에 언급된 '소자' (小子) 역시 원래는 나이 어린 자나 천대받는 자(참조, 18:6, 10; 스 13:7; 막 9:42)를 가리키는 말이나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사용된 친근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냉수 한 그릇이라도'란 귀절은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대접이라 할지라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6)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복음의 일꾼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축복을 받으려는 마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일꾼들을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참조, 롬 12:13; 딤후 3:2; 5:10; 딤후 1:8; 히 13:2; 벧전 4:9).

연구자료

사도직(使徒職)에 대하여, '사도'란 일반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 즉 '사절'(使節)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성경적 의미에 있어서 '사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 두 제자 및 그 외 바울과 같은 특정인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사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의 원뜻은 '해군 사령관', '함대'(艦隊), '보냄을 받은 자'이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그리스도께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겠다. 본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전도를 위하여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세우셨다(1-15절). 그러나 훗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죽음의 길을 택하였을 때(27:3-5) 사도들은 그 결원(缺員)을 보충하려 하였다. 그런데 이때 사도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 문제가 제기되었으니 곧 사도는 예수 생전에 항상 그와 함께 다니던 자로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자여야 한다는 것이었다(행 1:21, 22). 이렇게 하여 선정된 인물이 맛디아였으니 그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열 두 사도의 수에 가입되었다(행 1:26). 그러나 예수와 동행하던 자는 아니었지만 복음 사역을 위하여 특별히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 자칭 사도된 자도 있으니 그는 곧 사도 바울이다(행 9:1-19; 고전 9:1, 2).

연구자료

열 두 사도의 행적

I. 예수께서 택하신 열 두 제자

| 구분 | 이름 | 성 | 부모 | 고향(집) | 직업 | 비고 | 저서 | 성경 및 전승 자료 |
|-------------------|------|-------------------|--------------|-----------|----|--------------|------------------------|---|
| 예수의 수제자들 | 시몬 | 베드로 지바 (반석) | 요나 또는 요한의 아들 | 벳새다와 가버나움 | 어부 | | 베드로 전후서 |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 바깥론까지 전도. 전설에 의하면 로마에서 순교했다 함(?) |
| | 야고보 | 보아너제 (우회의 아들) | 세베대와 살로메 | 벳새다와 가버나움 | 어부 | 예수의 이종 사촌(?) | | 에루살렘과 유대에 전도. 헤롯 왕에게 참살당함 A.D.44(?), 행 12:1,2 |
| | 요한 | 보아너제 (우회의 아들) | 세베대와 살로메 | 벳새다와 가버나움 | 어부 | 야고보의 형제 |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 |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서 전파. 특히 에베소에서 전도했다 함. 맛모섬으로 유배되나 후에 석방되어 A. D. 100년 경 사망 |
| 조용한 지역자들 | 안드레 | | 요나 또는 요한의 아들 | 벳새다와 가버나움 | 어부 | 베드로의 형제 | |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 스쿠디아, 헬라, 소아시아에서 전도. 십자가에 순교당함 |
| | 빌립 | | | 벳새다 | | | | 브루기아에서 전도. 히에라볼리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짐(?) |
| | 바돌로매 | 나다나엘 | 탈마이 | 갈릴리의 가나 | | | | 전설에 의하면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짐(?). 제물에 의하면 바돌로매 복음서를 썼다고 함 |
| | 도마 | 다두모 (쌍둥이) | | 갈릴리 | | | | 전설에 의하면 바대, 바사, 인도에서 전도하다 상도마 산에서 순교했다 함(?) |
| | 마태 | 레위 | 알패오 | 가버나움 | 세리 | | 마태복음 |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했다고 전함(?) |
| 유명하지 않은 제자들 | 소야고보 | | 알패오와 마리아 | 갈릴리 | | | | 블레셋과 애굽에서 전도했다 함. 애굽에서 순교 |
| | 유다 | 다대오 | 알패오와 마리아 | 갈릴리 | | 소야고보의 형제 | | 앗수르와 바사에서 전도하고 바사에서 순교했다고 전함 |
| | 시몬 | 가나안인 셀롯 | | 갈릴리 | | 열십당원 | | 십자가에 못박혀 순교했다 함 |
| 배반자 | 유다 | 가롯 | 시몬 | 유다의 가롯 | | | | 은 30에 예수를 팔고 후에 자살 26:14-16; 27:3-5 |

II.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사도가 된 인물들

| | | | | | | | | |
|------------------|-----|--------|--|----------|--------|--|----------------|---|
| 후에 임세한 사도들 | 맛디아 | | | | | | | 가롯 유다 대신 사도로 보신된 후의 기록은 없음. 전설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에서 전도하고 순교했다 함 |
| | 사울 | 바울로 개명 | | 길리기아의 다스 | 광막 제조업 | | 13 혹은 14 권의 서신 | 이방인의 사도 |

제 11 장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

답략구분 1-8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 / 9-15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다 / 16-19 예수께서 완고한 세례에 대해 한탄하시다 / 20-24 회개치 않는 고을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시다 / 25-30 구원과 인식에 대한 예수의 메시지

1 예수께서 열 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리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2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이 보내어

3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시려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5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7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9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10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12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3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14 만일 너희가 즐겨 받으신대 오리라 한 열라야가 꿈이 사람이니라

15 귀 있는 자는 들음지어다

16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 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17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18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잔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20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21 화가 있을진저 고라산아 화가 있을진저 밋새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건디기 쉬우리라

23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건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25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대 세력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 (2) 특히 제1의 먼저 언급된 세례 요한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에 대한 의심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직접 선포한 자로서 (3:2; 막 1:1-7; 눅 3:15-17; 요 1:15-28) 예수에 대해 반신 반의(半信半疑)했다는 사실을 볼 때 다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참조, 9:34; 요 7:20).
- (3) 또한 예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베푸셨던 갈릴리 지방에서도 그분은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곳의 주민들은 예수의 기적울 직접 목격하고 복음의 소식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분의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완고했던 것이다 (20-24절).
- (4) 물론 본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대하는 사건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태도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 세력 형성에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 (5)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동참하기 쉬우며 나아가서는 하나님마저 부인하는 무신론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참조, 눅 10:16).

2. ㉠ 예수께서 열 두 제자들에게 복음 사역에 대한 명을 내리신 후 '거기'를 떠나신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먼저 '거기'란 본장을 비롯해 앞장과 뒷장에도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권고와 격려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아 당시 복음 사역의 거점(據點)이었던 '가버나움'으로 추정된다.
- (2) 한편 예수께서 이곳을 떠나신 이유는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기' 위해서였다.
- (3) 한편 본절의 병행 귀절인 막 6:30이나 눅 9:10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제자들이 각처에서 전도하고 돌아온 사실에 대한 언급이 생략되어 있다.
- (4) 왜냐하면 마태는 다른 부차적인 사건보다는 예수의 가르침에 더욱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예수께서 '거기' 곧 '가버나움'을 떠나신 것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였다고 결론지었던 것이다.

3. ㉠ 세례 요한은 어떤 일로 인해 투옥되었는가? (2절)

- ㉠ (1) 세례 요한의 투옥에 관해서는 이미 4:12에 기록된 바 있으나 거기에서도 본절과 마찬가지로 투옥 경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 (2) 이 사건에 대해서는 14:3,4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즉 세례 요한은 그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分封王) 헤롯 안티파스(Herod Antipas)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불법적으로 결혼하자 이에 대해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14:4)고 탄원하다가 투옥되었다.
- (3) 이러한 경위로 투옥된 한편 요한은 결국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요청에 따라 참수(斬首)를 당해 죽었다 (14:10).

4. ㉠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시켜 예수께 어떤 질문을 했는가? (3절)

- ㉠ (1)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라고 예수께 질문을 했다 (참조, 눅 7장 ㉠ 11).

- (2) 여기에서 '오실 그 이'란(참조, 시 40:7;118:26;단7:13)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어 왔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를 가리킨다(시 45:7;사 61:1;단 9:24;눅 4:18;행 4:27;10:38).
- (3) 따라서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의심하는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라는 세례 요한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직접 목격하거나 체험하고도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과 견줄 만한 것이다.
- (4) 더구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직접 그분께 세례까지 베푼 자로서(3:1-17)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의심 많고 참울성 없는 인간 본성의 한 단면을 드러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나 이유를 굳이 들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즉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를 믿는 이들에게는 축복이 있을 것이며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참조, 3:11, 12).
- (6) 그런데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긴 했지만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으므로 급기야 세례 요한은 그분에 대한 일말(一末)의 의혹을 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7)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구원주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16:16)이심을 확인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그분을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5. ㉠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의 답변은 어떠했는가? (5절)

- ㉠ (1)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보고 들은 것 곧 '소경이 보며 앓은 맹이 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고 답변하셨다.
- (2)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서(사 29:18; 35:5, 6; 42:7)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 (3)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 그 사실 여부를 단도 직입적(單刀直入的)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 살펴보라는 간접적인 답변을 하셨다.
- (4) 이것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신 것으로 볼 수 있다.
- (5)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자신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앙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급히 판단을 하기 보다는 지난 삶을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되새겨 보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
- (6)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은 당면한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서는 이를 계기로 더욱 성숙한 신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참조, 뱀전 1:6-8).

6. ㉠ 본절에 나타난 내용들은 성경의 어느 부분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5절)

㉠

| 본절의 내용 | 구체적인 사건 내역 |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기 타 |
|--------|-----------------------|---------|------|-------|-------|---------------|
| 소경이 보며 | 눈 멀고 병어리된 귀신들린 자를 고치심 | 12:22 | | 11:14 | | 참조, 사 35:5 |
| | 두 소경을 고치심 | 9:27-31 | | | | |
| |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심 | | | | 9:1-7 | |

| | | | | | |
|-----------------|------------------------------|----------|----------|----------|------------|
| | 소경 바디매오를 고치심 | 20:29-34 | 10:46-52 | 18:35-43 | |
| 얕은뱅이가 걸으며 | (베드로를 통해) 나면서 얕은뱅이된 자를 고치심 | | | | 행 3:2-10 |
| | (빌립을 통해) 얕은뱅이를 고치심 | | | | 행 8:7 |
| | (사도 바울을 통해) 나면서 얕은뱅이된 자를 고치심 | | | | 행 14:8-10 |
|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심 | 8:2-4 | 1:40-45 | 5:12-16 | |
| | 열 문둥이를 고치심 | | | 17:11-19 | |
| 귀머거리가 들으며 | 귀 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심 | 12:22 | | 11:14 | 참조, 사 35:5 |
| 죽은 자가 살아나며 |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심 | | | 7:11-15 | |
| | 아이로의 딸을 살리심 | 9:18-26 | 5:22-43 | 8:41-56 | |
| | 나사로를 살리심 | | | | 11:17-44 |
|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됨 |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 | | | | 사 61:1 |
| | 누가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 | | | 4:18 | |

7. **㉠ 예수께서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가? (6절)**

- ㉠** (1)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란 예수와 그의 사역을 믿으며 그를 거부하지 않는 자 곧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또한 이것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 (3) 그런데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산상 수훈의 8복과 같이 '복 있는 자'(5:2-11)에 대해 언급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실족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짙게 깔려 있다.
- (4) 즉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의심했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경고 및 축복의 말씀이다.
- (5)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더없는 축복과 영광이 되지만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것이다(참조, 사 40:6-8; 벰전 2:7,8).

8. **㉠ '실족' (失足)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인가? (6절)**

- ㉠** (1) '실족' (헬, 스킨달론)이라는 말은 성경 말씀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로서 '실족케 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이 동사 <스킨달리조>와 같은 어원에 속한다.
- (2) 먼저 동사형인 <스킨달리조>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로 인하여 걸림돌이 되다'라는 의미로서 '나로 인하여 범죄하게 하다'라는 뜻으로도 적용되어진다

(18:6-9; 눅 17:2; 롬 14:21; 고전 8:13; 고후 1:29).

- (3) 두번째로 '다른 사람의 길을 방해하다'라는 의미로서 '금지 못하게 하다', '거절하게 하다', '버리게 하다' 등의 뜻으로 사용된다(11:6; 13:21, 57; 15:12; 24:10; 26:31, 33; 요 16:1).
- (4) 세번째로 '오해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기도 한다(17:27; 요 6:61).
- (5) 한편 명사형인 <스칸달론> 역시 이와 비슷한 변천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데 첫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곧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13:41; 18:7; 눅 17:1; 롬 14:13; 요일 2:10; 계 2:14).
- (6) 두번째로 '방해'라는 의미를 가지며 '금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키기도 한다(롬 9:32, 33; 16:17; 고전 1:23; 벧전 2:8).
- (7) 세번째로 '어떤 사람 혹은 물체와 부딪쳐서 다치거나 물려서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런 용례(用例)에 따라 '넘어지게 하는 것'이란 뜻으로 사용된다(16:23; 갈 5:11).
- (8) 이러한 의미들을 기억하여 우리들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 나아가서는 자신의 신앙적 편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9. ㉠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을 증거하시기 위해 무리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7-9절)

- ㉠ (1) 예수께서는 제일 먼저 무리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물으셨는데 이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음을 암시하고 있다(3:1-3).
- (2) 두번째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니 부드러운 옷 입을 사람이냐'라는 질문으로서 세례 요한이 결코 귀족이나 권세가들과 같이 좋은 옷을 입지 않고 허름한 '약대 털옷'을 입었다는 사실을(3:4) 반증하고 있다.
- (3)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니 선지자를 보려더니'라고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고 답변하셨다.
- (4) 결국 예수의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은 일종의 수사학적(修辭學的) 표현으로서 첫번째와 두번째 질문에 대한 부정(否定)을 통해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한 것이다.
- (5)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무리들에게 그들이 광야에서 보았던 세례 요한이 바로 선지자요 나아가서는 선지자보다 더욱 나은 자였음을 증거하신 것이다.
- (6) 한편 그 당시 우매하고 완고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었던 예수의 이러한 질문법은 비유법과 함께 오늘날 기독교 교육에 있어 중요한 교육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10. ㉠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7절)

- ㉠ (1) 먼저 여기에서 사용된 '갈대' (헬, 갈라론)는 집합적 단수 명사로서 커다란 줄기를 가진 식물을 의미하는데 여러 가지 갈대 중에서 특히 요단 강 계곡이나 사해 근처에서 생장(生長)하는 갈대를 가리킨다.
- (2) 그런데 대부분의 갈대는 줄기가 길고 가늘 뿐만 아니라 탄력성이 좋아 어지간한 폭풍우에도 잘 꺾이지 않고 단지 휘어지지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 (3) 따라서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나 대중의 의견에 쉽게 동요되어 자신의 견해를 쉽게 바꾸어 버리는 사람을 가리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지칭한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본절에 언급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역시 이러한 부류의 사람을 풍칭하는 말로서 상황에 따라 쉽게 변절했던 유대인들의 민족성을 지적하고 있다(참조, 출 14:11; 15:24; 16:2; 17:3; 민 11:1; 14:27; 20:3; 21:5; 시 77:3; 유 1:16).
- (5) 결국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결코 이러한 자들과는 같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

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이다.

- (6) 한편 우리들은 사회 생활 및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지조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 소신껏 행동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참조, 예 4:16; 단 3:16, 17; 요 19:10, 11; 행 4:20; 7:51; 히 11:23, 27).

11. **㉠**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임을 증거하시려고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는가? (10절)

- ㉠** (1)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요 나아가서는 선지자보다 나은 자(9절)임을 증명하시기 위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셨다.
- (2) 이 말씀은 말3:1의 말씀 중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라는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 (3) 그런데 본절에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과는 달리 ‘네 앞에’가 첨가되었고 ‘내 앞’이 ‘네 앞’으로, ‘길’은 ‘네 길’로 바뀌어 표현되어 있다.
- (4) 즉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실 것이며 이를 위해 당신의 사자(使者)를 보내 길을 예비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반해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바로 자신의 길을 예비할 사자라고 말씀하셨다.
- (5)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볼 때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 (3:3; 눅 1:76) 혹은 ‘여호와의 날을 예비하는 선지 엘리야’ (말 4:5, 6)와 일치하는 인물로서 예수의 선구자임이 확실히 증명된 것이다.

12. **㉠**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셨는가? (11절)

- ㉠** (1) 예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세례 요한을 극찬(極讚)함과 동시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는 말씀을 덧붙이셨다.
- (2)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비록 세례 요한이 당신의 메시아성을 의심하는 과오를 저질렀긴 하지만 그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3) 한편 ‘여자가 낳은 자... 일어남이 없도다’라는 귀절은 이제껏 육체를 지니고 이 땅에 살았던 인간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나은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의미이다. 즉 그의 삶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삶으로서 어떤 개인의 삶보다 귀한 것이었다.
- (4) 반면 ‘그러나 천국에서... 저보다 크니라’는 말씀은 먼저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영혼의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 자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아직 이 땅에서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례 요한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참조, 눅 16:19-25).
- (5) 이와 같이 우리들은 세상에서의 지위가 어떠한지 간에 천국에서는 존귀와 영광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벧전 1:3, 7).
- (6) 한편 이러한 견해와는 약간의 차이를 둔 해석이 있다. 즉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관점에서(참조, ㉠ 13) 그는 옛 언약, 즉 율법 아래 있는 자였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새 언약의 백성들로서 구약의 어떤 위대한 인물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 (7)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옛 율법보다 우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롬 8:2-11).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새 언약 아래 있게 된 우리들은 그 어떤 세속적 지위도 부럽지 않으며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13. ㉠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로 평가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 ㉠ (1)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어떤 예언자들보다 당신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증거했다(3:11-14)는 점에서 그를 이때까지의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큰 자로 여기셨다.
- (2) 즉 세례 요한은 말라기의 예언과 같이(참조, 말3:1) 메시아(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에 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한 최후의 예언 자로서(13절)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선포했던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구약의 인물이다.
- (3) 물론 구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러 의인들과 메시아를 예언했던 많은 예언자들이 있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그분의 선구자가 되었던 세례 요한과는 비중을 달리한다.
- (4) 결국 이러한 점에서 세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보다 나은 자였으며 나아가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 곧 위대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4. ㉠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를 의미하는가? (12절)
- ㉠ (1) 이 귀절은 문자적으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던 때 곧 예수의 사역이 시작되던 때부터(3:1-17)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을 증거하고 계신 바로 그 순간까지(7-19절)를 가리킨다.
- (2) 그러나 세례 요한과 더불어 선지자(예언자)와 율법의 직능이 끝난 반면(13절) 예수의 복음 사역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지금까지'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증거하신 그 순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지속적 의미를 띠고 있다.
15. ㉠ 천국은 어떠한 자들이 차지하게 되는가? (12절)
- ㉠ (1) 예수께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떼앗으리라'고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다.
- (2) 여기에서 '침노(侵擄)를 당하나니'(헬, 비아제타이)란 말은 '폭력을 쓴다'는 의미를 지닌 헬라어(비아조)의 수동형 또는 중간형이다.
- (3) 먼저 수동형일 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는 귀절은 '천국은 무력이나 폭력에 의하여 침략을 당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중간형일 때는 '천국은 힘차게 떨어 나가고 있다'라는 의미로서 천국의 확장을 가리키는데 본질의 평행 귀절인 눅 16:16에 의하면 수동형보다는 중간형이 더 적절하다.
- (4) 한편 '침노하는 자'(헬, 비아스타이)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힘과 능력을 동원하는 데 관계치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 (5) 이상과 같이 본절은 문자적으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차게 떨어 나가고 있다. 한편 난폭한 자(강탈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약탈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진다.
- (6)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결코 하늘나라가 폭력이나 무력 등 불의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정복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 (7) 결국 본절은 문자적 의미에서 탈피하여 복음의 빛 아래 새롭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를 재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으므로 열렬히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 (8)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신앙 생활이 바로 천국의 열쇠임을 깨달을 수 있다(참조, 고전 9:24; 골 1:29).
16. ㉠ 세례 요한의 구원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13절)

- Ⓐ (1) 예수께서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 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언자)로서 신약 시대를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임을 암시하고 있다(10절).
- (3) 즉 세례 요한 이전까지의 구약 시대는 모든 율법과 예언이 이스라엘 민족에만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구원과 천국 역시 선택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질 특권이었다.
- (4) 그러나 세례 요한의 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시작됨에 따라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고 하늘나라는 모든 이방을 대상으로 확장되어진 것이다.
- (5)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하여 구원사의 일대 전환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사역과 업적은 상당히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7. ⓐ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과 엘리야 선지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밝히셨는가? (14절)

- Ⓐ (1) 예수께서는 무리들에게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고 말씀하셨다.
- (2) 이 말은 구약 시대에 승천했던 엘리야가(왕하 2:11) 세례 요한의 몸으로 다시 이 땅에 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의 사역(말 3:1;4:5)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 (3) 즉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이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눅 1:17) 하늘나라의 도래와 회개의 촉구를 선포했다는 점에서 장차 오리라고 예언되어진 엘리야와 거의 동일시된다.
- (4) 그러나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 4:5)라고 한 말라기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승천한 바로 그 엘리야만을 기다렸다.
- (5) 따라서 예수께서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라는 단서를 붙여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임을 확신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 (6)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이해하기 힘든 성경 귀절을 대할 때 문자적 의미를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영적 의미를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 통찰력이 필요하다.

18. ⓐ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14절)

- Ⓐ (1)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무엇보다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2) 이러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실족케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참조, 벰전 2:7,8).
- (3)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시편의 기자와 같이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는’ (시 119:16) 심령으로 정금(精金)보다 더 귀하게, 꿀보다 더 달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참조, 시 19:10;119:105).

19. ⓐ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귀절은 어떠한 의도로 사용되었는가? (15절)

- Ⓐ (1) 이러한 귀절은 성경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일종의 관용구로서 (13:9, 43;24:15; 히 10:6; 계 2:7,9;13:9) 흔히 복음의 영적 진리를 은유적으로 묘사하거나 이에 대해 진지한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데 사용된다.
- (2) 또한 이것은 예수께서 그의 말씀을 끝마치실 때 종종 사용하신 표현으로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막 4:9, 23;8:18; 눅 9:44;14:35).
- (3) 이러한 용례는 신명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곳에 나타난 ‘들어라’는 명령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규례를 전수시키는 교육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했다(신 6:4).

- (4) 한편 '귀 있는 자'란 육체적으로 청각 장애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귀가 열린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자를 뜻한다.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영적인 청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참조, 수 1:8; 시 1:2; 119:5, 23, 97).

20. ㉠ 예수께서는 그 세대의 상황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는가? (16, 17절)

- ㉠ (1) 예수께서는 그 당시의 세대에 대해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哀哭)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지적하셨다.
- (2)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모여 결혼식 및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것을 묘사한 귀절로서 먼저 '너희를 향하여...춤추지 않고'는 결혼식 놀이를 제안한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이 놀이를 하자고 제의했을 때 이에 응하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 (3) 마찬가지로 '우리가 애곡하여도...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귀절 역시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권유했을 때 함께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 (4) 한편 결혼식 및 장례식 놀이를 제안한 아이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들을 뜻하며 이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한 아이들은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의미한다.
- (5)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비유는 그 당시 복음에 대해 무관심했던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을 적절하게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6)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복음에 대해 결코 미온적(微溫的) 태도를 보이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즐겨 받으며(14절) 나아가서는 복음 사역에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고전 9:23).

21. ㉠ 그 당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았는가? (18, 19절)

- ㉠ (1) 그 당시 복음을 거부했던(참조, 16, 17절) 완악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사실을 보고 '귀신에 들렸다'고 비난하였다(18절)
- (2) 그런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말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만 했다는 뜻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유대인의 식생활과는 달리 '메뚜기와 석청'(3:4)을 먹고 살았으므로 이 말은 '떡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다'는 의미이다.
- (3) 또한 그들은 예수께서 먹고 마신 일에 대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몰아붙였다.
- (4) 여기에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난은 예수께서 이전에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9:10, 11).
- (5) 이와 같이 완악한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음식을 먹는(금욕 생활을 하는) 세례 요한은 귀신들린 자로, 같은 음식을 먹는 예수에 대해서는 탐식자(貪食者)라고 하는 불합리한 비판을 했다.
- (6) 한편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 비재(非一非再)한데 불신자들은 성도들의 언행에 대해 어떤 식으로라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 (7) 그러므로 우리들은 가능한 한 불신자들에게 흠잡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만약 불합리한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일(4:1-11; 22:15-33)을 기억하여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22. ㉠ 고라신과 벧새다의 패역상(悖逆相)은 어떠한가? (20-22절)

- ㉠ (1) 고라신과 벧새다는 가버나움에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곳이었다 (20절).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도성은 조금도 회개치 않고 오히려 온갖 죄악을 자행했으므로 예수께서는 책망과 함께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저주하셨다.
- (3) 그런데 여기에서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했던 고대 페니키아의 상업 도시로서 (참조, 눅 10장 ④ 11) 우상 숭배와 간악으로 인해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던 곳이다 (사 23장; 렘 25:22; 겔 26-28장; 욥 3:4; 암 1:9, 10; 슥 9:2-4).
- (4) 한편 본 기사에는 벳새다와 고라신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의 패역상은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 (5)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권능을 신실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결코 그들의 죄악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며 설혹 범죄할지라도 애똥하는 심령으로 (5:4)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

23. ㉠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라는 귀절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21절)

- ㉠ (1) 먼저 '베옷'이란 낙타의 짧은 털로 만들어진 약간 거친 직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탄이나 슬픔을 표현할 때 맨살 위에 걸쳤던 옷을 말한다 (참조, 삼하 3:31; 왕상 21:27; 왕하 6:30; 욥 1:8; 은 3:5-8).
- (2) 그리고 '재'는 정서적인 회한(悔恨)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는데 그 경우 사람들은 재를 머리에 뿌리거나 (삼하 13:19; 애 2:10), 재 위에 앉았으며 (은 3:6) 심지어는 그 위에 눕거나 (애 4:3) 구르기도 했다 (렘 6:26; 미 1:10).
- (3) 따라서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라는 표현은 회개자들이 자신의 죄악을 가슴 깊이 인식하면서 그 죄에 대해 애똥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 (4)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외형적인 절차는 필요 없게 되었다. 그 대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요일 1:9)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참조, 욥 33:27, 28; 시 51:10-13; 눅 15:18, 21; 18:13; 행 9:1-20).
- (5) 참고적으로 베옷(베)과 재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상징하고 있다.

| 베 옷(베) | | 재 | |
|---------|------------------|----------|------------------|
| 의 미 | 관련 귀절 | 의 미 | 관련 귀절 |
| 비 애 | 창 37:34; 삼하 3:31 | 보잘것없는 인간 | 창 18:27; 욥 30:19 |
| 굴 복 | 왕상 20:31, 32 | 무가치함 | 욥 13:12 |
| 금 식 | 사 58:5 | 거짓됨 | 사 44:20 |
| 항 거 | 애 4:1-4 | 낙 담 | 렘 6:26 |
| 재 난 | 왕하 6:30 | 고 통 | 시 102:9; 애 3:16 |
| 엄중한 심판 | 사 50:3 | 멸 망 | 겔 28:18; 벨후 2:6 |
| 하나님의 심판 | 제 6:12 | 악 인 | 말 4:3 |

24. ㉠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에 대해 어떻게 비난하셨는가? (23, 24절)

- ㉠ (1)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에 대해 먼저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고 저주하셨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음부(히, 스옴)라는 말은 보통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기 전에 잠시 대기하는 장소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참조, 시 49:15; 겔 37:1-14; 호 13:14; 은 2:2; 요 5:28; 11:32-44; 고전 15:54-58) 본절에서는 저주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을 의미한다.

다 (16:18; 25:41, 45; 살후 1:19; 계 19:20).

- (3) 그리고 '네게서 행한...있었으리라' 는 귀절은 가버나움의 죄악상이 구약 시대의 소돔 (참조, 창 8:20, 21; 9:4-16)보다도 훨씬 가증했음을 나타내는 특이한 표현이다.
- (4) 다음으로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건디기 쉬우리라' 고 저주하셨는데 이 표현 역시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 (5) 이와 같이 회개치 않는 완악한 심령들은 (참조, 전 8:11; 렘 7:13; 호 7:10; 암 4:6; 학 2:17) 반드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마련이다.
- (6) 반면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기도의 응답' (대하 7:14; 30:9; 호 7:9)을 비롯해 '죄의 용서' (사 55:7; 렘 3:12; 31:9), '생명' (겔 18:21; 속 1:3), '성령의 선물' (행 2:38) 등 여러 가지 축복을 주어지게 된다.

25. ㉠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감사드렸는가? (25, 26절)

- ㉠ (1) 예수께서는 '천지의 주재 (主宰) 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다.
- (2) 먼저 '천지의 주재' 라는 표현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참조, 창 14:19, 22; 행 17:24) 을 가리키는 말로서 자유롭게 그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감추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 (3) 그리고 '이것' 이란 예수의 이적, 메시아 왕국, 예수의 교훈 등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가리킨다.
- (4) 또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반면 '어린아이들' 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과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 곧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 (5) 한편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절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18:3, 4) 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도 잘 나타나 있다.
- (6)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겸손한 마음과 순수한 신앙은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참조, 빌 2:3).

26. ㉠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27절)

- ㉠ (1) 예수께서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啓示) 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고 하셨다.
- (2) 여기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라는 귀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온전히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의미이다. 사실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을 비롯해 그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마저도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것이다 (참조, 3절; 8:27).
- (3)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뿐이라는 말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계시를 받은 극히 일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가졌다는 뜻이다.
- (4) 이와 같이 인간의 관점과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절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지혜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절대적 지식 곧 영적 지혜를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오히려 이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참조, 고전 2:10-16).

27.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어떤 자들을 가리키는가? (28절)

- ㉠ (1) 먼저 '수고하고 있는 자들' (헬, 호이 코피온테스)은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해 하는 사람들을 뜻하며 '무거운 짐 진 자들'(헬, 페포르티스메노이)은 무거운 짐들을 짐으로써 피곤하게 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2) 그런데 여기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은 육체적인 피로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영적 곤핍 상태까지 불러일으키게 된다.
 (3) 결국 그 당시나 지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은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수고해야 하며 영적으로는 죄와 죽음의 짐을 지고 가는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참조, 창3:16-23).
 (4)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란 호칭은 예수께서 이러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기 위해 부르신 통칭(通稱)이라 할 수 있다.

28. ㉠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어떤 초청의 말씀을 하셨는가?(28-30절)

- ㉠ (1) 예수께서는 먼저 이러한 자들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다. 이는 죄와 죽음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죄인들을 불러 영적 안식과 함께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의미한다.
 (2) 그리고 예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덧붙이셨다.
 (3) 여기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귀절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16:24)라는 말씀과 일맥 상통한다.
 (4) 즉 이 말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짐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참조, 5:5; 욕22:29; 시 149:4; 잠3:34; 앎 4:2; 약 4:6; 벰전 5:5).
 (5)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면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겸손을 실천하신 것처럼(빌 2:5-8)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하며 온유한 심령으로 모든 인간 관계를 형성해 갈 때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6)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은 우리들은 그분의 십자가와 성품을 본받아 장차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손색 없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롬 6:17; 8:29; 벰전 2:12).

본장의 요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

제 12 장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락구분 1-8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 9-13 안식의 잠된 의미 / 14-21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과 사역 / 22-29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인한 사단 왕국의 멸망 / 30-32 성령 궤방죄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한다 / 33-37 맑은 마음의 표현이다 / 38-42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을 제시하다 / 43-45 사단의 점령 아래 있는 악한 세대 / 46-50 예수의 진정한 가족

- 1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 2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 3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 4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 5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 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것이 여기 있느니라
- 7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죄 아니하였으리라
- 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 9 거기를 떠나 저회 회당에 들어가시니
- 10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 1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 12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 13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 14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거늘
- 15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좃는지라 예수께서 저회 병을 다 고치시고
- 16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 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 18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읍 이방에 알게 하리라
- 19 그가 다루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 20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겨가는 심지를 고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 21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삼이니라
- 22 그때에 귀신들려 눈 멀고 병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병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 23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 24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 25 예수께서 저회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 26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 27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회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 29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누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누탈하리라
- 30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

니라

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33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34 독사의 자식들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37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38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다

3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41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함을 듣고 회개하였음이러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러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43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44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45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46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다 하니

48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1. ㉠ 본장의 구성상 특징을 약술하라.

- ㉠ (1) 본장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공격적인 질문과 이에 대한 예수의 답변이 계속 반복되어진 일종의 논쟁적인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러한 논쟁들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 사 건 개 요 | 질문(항의)자 | 질문 및 항의 |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 | 관련귀절 |
|--------------------------|---------|------------------------------|---------------------------------------|----------|
| 안식일에 예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음 | 바리새인 |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항의함 | 다윗의 예갈 들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이라고 대답하심 | 1 - 8 절 |
| 손 마른 사람의 치유에 대한 문제 | 사람들 |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라고 질문함 |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답변하심 | 9 - 13절 |
| 귀신들려 눈 멀고 병어리된 자를 고치심 | 무리 | 예수를 보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며 놀람 |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라고 답변하심 | 22 - 28절 |
| | 바리새인 | 무리들의 반응을 듣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 | |

| | | | | |
|-----------|-----------|----------------------------|--|----------|
| | 바리새인 | 않고는 귀신을 쫓아 내지 못하느니라' 고 비판함 | | |
| 표적에 대한 논쟁 | 서기관과 바리새인 |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 표적을 구하는 음란하고 악한 세대를 지적하면서 요나의 표적을 가르치심 | 38 - 45절 |

2. **㉠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로 예수께 항변했는가? (1, 2절)**

- ㉠ (1)** 예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예수께 항변했다.
- (2) 여기에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란 원래 십계명 중 제 4 계명을 범하지 않기 위한 금지 조항을 가리키는데 성경에는 불을 피우지 말 것(신 5:12), 상거래를 하지 말 것(느 10:31), 악행을 금할 것(사 58:13, 14) 등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이 언급되어 있다.
- (3) 그러나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금기 사항들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안식일에는 일상 생활에 따르는 많은 행동들이 규제되었다.
- (4) 결국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는 행동은 분명 율법과 형식을 절대시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 (5)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윗의 경우를 예로 들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제시 하심으로써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안식일관(安息日觀)과 함부로 타인을 정죄하는 태도를 꾸짖으셨다(3-8절).
- (6)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여 성경과는 차이가 나는 자신의 편파적(偏頗的)인 신앙관을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혹은 자신과 다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정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깊이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참조, 눅 6:37).

3. **㉠ 안식일에 대해 설명하라(1절).**

- ㉠ (1)** 안식일(히, 샤바트)은 '쉬다', '중단하다', '끝나다'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동사 <샤밧>의 명사형으로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사실에 기원을 두고 있다(창 2:2, 3).
- (2) 이러한 기원을 가진 안식일은 출애굽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중 제 4 계명에 포함됨으로써(출 20:8; 신 5:12)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성문화된 규례가 되었다.
- (3) 이와 같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별되었다는 뜻과(출 31:13) 함께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신 5:15).
- (4) 그런데 안식일에는 평소의 인간적인 삶에서 떠나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했으므로 일상적인 행동들이 많이 규제되었다.
- (5) 한편 안식일을 범한 자에게는 죽음의 형벌이 주어졌는데(출 31:14-17; 민 15:32-36) 이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출 31:16)과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죄가 되었기 때문이다.
- (6) 따라서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날로 안식되었으며 특히 구약의 안식일은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히 4:4-11).
- (7) 이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본시리즈 느 13장 연구자료 '안식일과 주일' 편을 참조하라.

4. **㉠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안식일관을 지적하시기 위해 어떤 예를 드셨는가?**

(3-5 절)

- Ⓐ (1) 예수께서는 허기진 제자들이 밀이삭을 비빈 사실이 극단적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할 수 없는 노동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를 해명하시고 바른 안식일관(觀)을 주지시키고자 하셨다.
- (2) 예수께서는 첫번째로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 (3절) 곧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陳設餅)을 먹은 일' (4절)을 예로 드셨다.
- (3) 이 일은 삼상 21:1-6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굶주린 다윗이 먹을 것을 요청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와 소년들에게 진설병(陳設餅)을 내주었던 사실을 가리킨다.
- (4) 그런데 여기에서 '진설병'은 지성소의 단 위에 올려 놓았던 거룩한 떡으로서(출 25:30; 26:35) 원칙적으로는 제사장 외에 아무도 먹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레 24:9).
- (5) 그러나 다윗이 진설병을 취하는 것은 원래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나 이것이 자신의 이익이나 정욕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허용되었던 것이다.
- (6) 두번째로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즉 그 당시 제사장들이 직무에 관련된 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할 경우 이것은 죄가 되지 않았다.
- (7) 결국 이러한 두 가지 실례를 통해 볼 때 복음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제자들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비록 그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 (8)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지나치게 율법이나 형식에 사로잡혀 금지 사항에만 민감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소극적인 신앙인이 되지 말고 보다 열정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참조, 6:33; 빌 4:13).

5. ㉠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가? (6절)

- Ⓐ (1)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성전은 건물로 비유된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서(참조, 16:18; 고전 3:10; 엡 2:21; 베전 2:5) '성전보다 큰 이'란 형식적인 성전과 율법을 초월한 존재를 의미한다.
- (3)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절대적 가치로 여겼던 율법으로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할 수 없으며 더우기 정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 (4) 이처럼 인간적인 지식과 견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큰 죄악을 범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5)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과학 만능주의에 물든 현대인들이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예수의 존재 여부와 성경의 내용들을 평가하는 것은 엄청난 죄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단지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하다(참조, 고전 8:6).

6. ㉠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정죄한 것은 어떤 사실에 기인하는가? (7절)

- Ⓐ (1) 예수께서는 그들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무죄한 제자들을 정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 (2) '나는 자비를...아니하노라'는 귀절은 9:13에 언급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호 6:6을 인용한 것이다.
- (3) 즉 이 말씀은 형식적인 율법으로 인해 제자들의 배를 주리게 하는 것보다 그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도록 자비(관용)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가리킨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나 심판의 방편으로만 오용(誤用)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그분의 사랑과 은혜, 긍휼과 자비를 선포하는 도구로도 선용(善用)되어야 한다.

7. ㉠ 예수 그리스도와 안식일의 관계는 어떠한가? (8절)

- Ⓐ (1)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서 ‘인자’는 예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11:19).
- (2)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막 2:27)라는 귀절이 첨가되어 있는데 이는 안식일의 의의를 한 마 디로 규명해 주는 말씀이다.
- (3) 즉 안식일은 인간을 구속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와 영혼에 안식 을 주며 나아가서는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축복된 날이라는 의미이다.
- (4) 결국 이러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안식일 규례에 통제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 그 자체가 안식일 규례요 나아가서는 그 이상의 섭리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자신의 편견과 그릇된 가치관을 배제시키 고 항상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 하려는 겸손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8. ㉠ 예수를 송사(訟事)하기 위한 질문은 무엇인가? (9, 10절)

- Ⓐ (1) 그들은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를 송사하기 위해 ‘안식일에 병 고 치는 것이 옳으니이까’라고 질문했다.
- (2) 먼저 여기에서 ‘손 마른 자’란 증풍 등의 질병으로 인해 혈관에 피가 통하지 않아 손 이 비틀어진 사람을 가리킨다.
- (3)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했다는 것은 예수께 곤란한 질문을 하여 그 답변 여부에 따라 법정에 고소하려는 간교한 계책을 세웠음을 말한다.
- (4) 한편 그 당시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이 위태할 경 우에는 치료를 하는 행위가 허용되었다.
- (5) 그런데 손 마른 자는 그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질문한 의도 역시 의학적인 치료를 전제한 것이므로 권능으로 치료하시는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6)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도들도 불신자들로부터 우리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결코 그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과 영적 지체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4:1-10; 잠 5:1-6; 약 4:7).

9. ㉠ 사람들의 간교한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11-13절)

- Ⓐ (1)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먼저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불잡아 내지 않겠느냐’고 반문 하셨다.
- (2) 이러한 반문은 예수를 송사하려는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지적한 것으로서 ‘손 마른 자’ 를 고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 (3) 다음으로 예수께서는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밝히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 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결론을 내리셨다.
- (4) 여기에서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다는 말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불잡아 내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어찌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 죄가 되겠느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5)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반박할 여지를 완전히 제거하신 후 마지막으로 손 마 른 자의 병을 치유해 주셨다.
- (6)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인간이 아무리 사악한 계교를 세울지라도 결코 예수 그

리스도됨 대적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참조, 고전 1:25).

- (7) 더우기 그분의 마음은 고난받는 인간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쉼을 허락하시기 원하는 것이지 어떤 굴레에 속박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참조, 요 14:27).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마땅하다(참조, 요 8:32).

10. ㉠ 바리새인들이 꾸민 음모는 무엇인가? (14 절)

- ㉠ (1) 그들은 회당으로부터 나와서(참조, 9절) 예수 그리스도됨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다.
 (2) 그런데 본질의 병행 귀절인 막 3:6에는 헤롯당(친로마 세력으로서 헤롯을 옹호했던 유대의 한 당파)과 함께 모의를 꾸민 것으로 나와 있다.
 (3) 한편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모의를 한 것은 아마 안식일 논쟁에서 무참히 패했을 뿐 아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8절)는 예수의 말에 대해 심히 격분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4) 더우기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는 안식일의 규례를 범함과 동시에 메시아를 사칭하는 죄를 지은 것이 되므로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명분까지 생겼던 것이다.
 (5) 그들의 이러한 과오는 예수 그리스도됨 잘 알지 못한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됨 모르는 것은 단순히 무지(無知)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부인하며 대적하는 가장 큰 죄를 짓는 동기가 되는 것이다(참조, 행 13:27; 요일 3:6).

11. ㉠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15, 16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 ㉠ (1)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미리 아셨던 예수께서는 회당을 떠나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시고 자신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다(참조, 4:23-25; 8:4, 16; 9:35).
 (2) 여기에서 이러한 일들을 예고하고 있는 '보라 나의 택한 종... 그 이름을 바라리라'(18-21절)는 귀절은 사 42:1-4에 있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사역(事役)을 다루고 있다.
 (3) 이처럼 예수께서는 그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셨다(참조, 17절; 1:22; 2:15; 4:14; 8:17; 13:35; 21:4; 26:56; 27:35; 눅 21:22; 24:44; 요 12:38; 15:25; 17:12; 19:24; 행 3:18; 13:29).
 (4) 만약 오늘날의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지지 않거나 의혹을 품은 사람들이 있다면 구약의 예언이 예수를 통해 성취되어진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확실적인 믿음을 갖도록 하자(참조, 딤후 3:14).

12. ㉠ 예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신 후 그들에게 무엇을 당부했는가? (16 절)

- ㉠ (1)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2) 왜냐하면 이러한 소문이 퍼질 경우 그것으로 인해 그의 궁극적 사역 곧 구원 사역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 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목회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4) 그런데 일부 목회자들은 말씀과 구원 사역은 뒷전에 둔 채 질병을 치유하는 이적에만 관심을 집중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5)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육체적 치유보다 영적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3. ㉠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됨 어떻게 여기셨는가? (18 절)

- ㉠ (1)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2) 먼저 '택한 종'이란 말은 예수께서 마치 종과 같이 비천한 상태로 오셔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구원 사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참조, 빌 2:7).

- (3)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3:17)와 변화산에서 변모(變貌)하실 때(17:5) 언급된 말로서 예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부합되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즉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인류 구속은 하나님의 바램이었던 것이다.

14. ㉠ 19, 2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 ㉠ (1) 먼저 19절에는 ‘그가 다루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고 나와 있다. 여기서 ‘들레지도 아니하고’는 ‘소리를 지르지도 아니하고’라는 의미이다.
- (2) 이것은 예수의 조용하고 인내심이 강한 성품을 묘사한 말로서 실제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비난에 대해 아무런 불평도 없이 묵묵히 견디셨다(26:62, 63; 27:14; 사 42:2; 53:7; 눅 23:9; 요 8:6; 14:30).
- (3) 다음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꺾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 길 때까지 하리니’(20절)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시고 은유하신 성품을 완벽하게 묘사한 뛰어난 표현이다.
- (4) 예수의 성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시리즈 사 42장 ㉠ 5, 6을 참조하라.

15. ㉠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는 귀절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21절)

- ㉠ (1) 이 말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기로 모의까지 했던(14절) 반면 이방인들이 그를 받아들였던 사실을 반영하는 귀절이다(참조, 행 13:48; 28:28; 엡 3:6).
- (2) 한편 이 귀절은 사 42:4에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로 나와 있다. 여기에서 ‘섬들’이란 이사야가 ‘열방’ 혹은 ‘이방’이란 의미(사 11:1, 5)로 사용했던 말이다(사 40:15; 41:1; 42:4, 15; 49:1; 51:5; 59:18; 60:9; 61:19).
- (3) 그리고 ‘바라리라’는 말은 관용적 표현으로서 ‘기다린다’, ‘기대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4)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 귀절은 롬 15:12에 인용되어진 이사야의 예언 중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는 귀절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겠다.
- (5) 이러한 말씀을 따르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모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 수 있어야 한다(참조, 행 24:15; 골 1:27; 딤후 2:13; 벧전 1:3).

16. ㉠ 예수께서 ‘귀신들려 눈멀고 병어리된 자’를 고쳤을 때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은 각각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2-24절)

- ㉠ (1) 예수의 이적을 목격한 무리들은 심히 놀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말했다.
- (2) 무리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첫째, 메시아 외에 행할 수 없는 이적이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둘째, 그들은 이런 권능을 가진 메시아가 ‘이세의 뿌리’(롬 15:12) 곧 ‘다윗의 자손’(1:1)으로 나실 것이란 예언(사 11:10)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 (3) 반면 무리들의 말에 반기를 든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분명히 목격하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가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참조, 9장 ㉠ 22)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방했다.
- (4) 한편 오늘날에도 이러한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장점이나 업적을 인정해 주기 보다는 비판 혹은 정죄만 하려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도 남으로부터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되며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신도 역시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사 54:17; 눅 6:37).

17. **㉠**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의 권능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것인가? (25-29절)

- ㉠** (1)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의 권능이 바알세불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논리에 따라 입증하셨다.
- (2) 먼저 바알세불의 세력을 사단의 권세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사단과 사단이 서로 대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셨다.
- (3) 즉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같이 만약 예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는 바로 귀신과 귀신이(사단과 사단이) 서로 싸우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 (4) 이러한 논리에 따라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비판이 모순된다는 사실을 지적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능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셨다.
- (5)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고통을 겪던 죄인들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다(참조, 사42:5-8; 49:24, 25).
- (6)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에 대해 부인하거나 의심을 품을 때 이는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31절; 사63:10; 막3:29; 행5:3; 7:51; 엡4:31; 살전5:19; 히10:29; 요일5:16).

18. **㉠** 예수께서는 자신과 인간 간의 함수적 관계(函數的關係)를 어떻게 밝히셨는가?(30절)

- ㉠** (1) 예수께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고 자신과 인간과의 관계성을 규명하셨다.
- (2) 이 말씀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중립적인 관계가 설립될 수 없으며 특히 하나님의 권세와 사단의 세력이 대립하는 와중에서 애매 모호한 태도란 있을 수 없음을 가리킨다.
- (3) 그런데 여기에서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란 귀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그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라는 의미이다.
- (4) 한편 이러한 견해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경고하신 말씀 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계3:16)는 귀절에도 잘 나타나 있다.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행할 수 있는 열정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신6:5; 시119:2; 눅2:49; 4:43; 요9:4; 빌1:27; 골1:29).

19. **㉠** 성령을 훼방하거나 거역하는 자는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가? (31, 32절)

- ㉠** (1) 먼저 예수께서는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훼방'은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아>로서 어떤 대상에 대해 심한 반발심을 갖고 비방하는(참조, 9:3) 태도를 의미한다.
- (3) 그런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비방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신성 모독(blasphemy) 죄를 적용시킬 만큼 큰 죄로 여겼다.
- (4) 따라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그분의 말씀(1-8절)과 이적이 귀신의 힘을 빌어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 (5)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태도야말로 성령을 거역한 대표적인 예로서 그들의 죄악은 회개를 통해 사함 받을 수 있는 다른 모든 죄악과는 달리(사55:7; 렘3:12; 31:9) 아무리 회개를 해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 (6) 이와 마찬가지로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 역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된다(32절).
- (7) 그러므로 우리들은 개인적인 생각 혹은 신앙에 따라 함부로 성령에 대해 말하거나 평

가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 성령은 우리의 평가 대상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이다.

20. ㉠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어떤 비유로 지적하셨는가? (33-35절)

- ㉠ (1)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이중성을 지적하기에 앞서 나무와 열매의 관계 곧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는 비유를 드셨다.
- (2) 그런데 이 비유는 7:17, 18에 있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는 말씀울 전제로 하고 있다.
- (3) 이러한 논리에 따라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그들의 모순성을 지적하셨다.
- (4) 여기에서 '독사의 자식들이' (3:7; 23:33; 눅 3:7)라는 표현은 바리새인들이 세속적인 명예를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마치 사단의 권세를 받은 뱀과 같이 사악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참조, 창 3:15).
- (5)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사악한 생각을 지적하십시오으로써 당신을 모략하는 그들의 질문과 모의가 마음속에 쌓인 악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밝혀하셨다.
- (6) 그러나 우리들은 결코 바리새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신실한 신앙과 순결한 심령을 가꾸어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참조, 10:16; 롬 16:19; 빌 1:10; 2:15; 3:6; 골 1:22; 살전 3:13; 5:23; 딤후 3:2; 딤후 1:6; 히 7:26; 벧후 3:14).

21. ㉠ 말(言)은 어떻게 심판의 척도가 되는가? (36, 37절)

- ㉠ (1) 예수께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해 심판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무익한'이란 헬라어로 <아르곤>으로서 '없다', '아니다'라는 부정적(否定的)의미를 지닌 <아>와 '일', '행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르곤>이 합쳐진 단어이다.
- (3) 그러므로 '무익한 말'이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내뱉아 버리는 말 곧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말을 가리킨다.
- (4) 그런데 '말'에 의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입을 통해 표출되어지는 말들이 그 사람의 내면적 생각과 마음의 자세와 나아가서는 인격까지 반영하기 때문이다.
- (5)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순간적으로 혹은 고질적으로 말을 잘못하여 곤란한 지경을 당할 때가 종종 있다.
- (6) 더우기 성도들에게 있어서 각자의 말은 개인의 인격 뿐 아니라 신앙까지 나타내 주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우리들은 수시로 각자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참조, 롬 27:4; 34:13).

22. ㉠ 몇몇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무엇을 요청했는가? (38절)

- ㉠ (1) 그들은 예수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表蹟)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요청했다.
- (2) 여기에서 '표적' (헬, 세메이온)은 예언을 성취시키고 진리를 확증해 주는 초자연적 현상을 의미한다.
- (3) 한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의 권능이 바알세불로부터 온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4절) 그들은 보다더 확실한 표적 곧 '하늘로서 오는 표적'(16:1; 막 8:11; 눅 11:16)을 원했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영적 안목이 흐리거나 영적 지각이 부족한 자들은 이러한 권능과 표적을 직접 목격하고도 의심하는 법이다.

- (5) 반면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모습과 섭리를 찾을 수 있다(참조, 5:8; 왕하 6:17; 욥 42:5; 시 17:15; 34:1; 123:1; 사 33:17; 요 14:19; 행 7:55; 고전 13:12; 히 11:17; 요일 3:2; 계 22:4).

23. **㉠**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39-41절)

- ㉠** (1) 예수께서는 표적을 요청하는 그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2)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죄악상(은 1:2)을 조명해 주는 말인데 반해 본귀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않고 표적만을 구하는 시대상을 지적하고 있다.
 (3) 한편 여기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은 예수께서 장차 삼 일 동안 땅 속에 묻혀 있을 일을 상징하고 있다.
 (4)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실(은 3:4)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일(4:17; 9:35)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5) 그러나 요나의 경우와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서 한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 의도하고 있는 바이다.
 (6) 즉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을 때 회개한 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사역을 직접 목격하고도 더욱 완악하게 행했다는 사실이다.
 (7)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의심하거나 혹은 그분 외에 다른 곳에서 구원이나 표적을 찾으려는 것은 자신의 멸망을 스스로 끌어들이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참조, 행 4:12).

24. **㉠** 심판 날에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자는 누구인가? (41, 42절)

- ㉠** (1) 예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이(38절) 음란한 세대상(世代相)을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먼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라 말씀하셨다.
 (2) 그 이유와 근거는 **㉠** 23을 참조하라.
 (3) 다음으로 예수께서는 '남방 여왕'이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라 하셨다.
 (4) 여기에서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남방 이국으로부터 왔던 스바 여왕을 가리킨다(왕상 10장).
 (5) 이처럼 이방 여인도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할 줄 알았던 반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6) 한편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인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방 여왕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을 것이다.
 (7)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잘못을 저지룰 때 불신자들을 통해 경고하시거나 벌을 내리기도 하신다(참조, 렘 3:11; 겔 16:51, 52; 롬 2:27).

25. **㉠** 귀신의 비유가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43-45절)

- ㉠** (1) 예수께서는 당신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유대인들의 심령 상태가 마치 사람에게서 나간 더러운 귀신이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다시 돌아온 것과 같다고 지적하셨다.
 (2) 여기에서 먼저 더러운 귀신이 사람으로부터 나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했음을 암시해 준다.
 (3) 그러나 점점 그들의 율법관(律法觀)이 형식적으로 변하게 됨에 따라 오히려 율법은

그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요인이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다시 돌아온 것과 같다는 것이다.

- (4) 실제적으로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지닌 율법적 편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부인했을 뿐 아니라 성령이 역사한 이적마저 바알세불의 이름을 들어 모독했던 것이다(24절;9:34).
- (5)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신앙과 교리는 악령(막 1:26;5:9;7:30;9:17;16:9;눅 10:19;행 8:7;19:13;엡 6:12;딤후 4:1;약 2:19;계 16:14)의 지배를 받게 되며 결국은 한 인간의 영혼을 파멸케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26. ㉠ '모친과 동생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46, 47절)

- ㉠ (1) 먼저 '모친'은 예수의 육체적 어머니인 마리아를, '동생들'은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 곧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가리킨다(13:55).
- (2) 그런데 카톨릭 신학자들은 성모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童貞女)였다는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 이와는 다른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 (3) 즉 이 부분에 언급된 '형제들'이 요셉과 전처(前妻)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들이거나 아니면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같은 이름을 지닌 동생 마리아에게서 난 아들들 곧 사촌 동생들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 (4)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볼 때 설득력이 없다. 첫째, '형제들'이 전처의 아들을 가리킨다면 다윗 왕위를 상속받는 자도 당연히 예수가 아니라 전처의 아들 중 장남이 되어야 하는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족보에 올라 있다(참조, 1장).
- (5) 두번째로 두 딸들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찾아 보기 힘든 것으로서 이 견해는 아마 마리아의 동정녀설을 지지하기 위해 억지로 끌어들이는 듯한 느낌을 준다.
- (6) 그리고 예수께서 50절에서 영적 가족에 대해 특별히 강조해서 설명한 것으로 볼 때는 영적인 의미와 대조되는 육체적인 가족 그 자체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

27. ㉠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족 곧 영적 가족은 누구인가? (48-50절)

- ㉠ (1) 예수께서는 자신의 가족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반문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말씀하셨다.
- (2) 물론 예수의 이 말씀은 육체적인 가족들을 전적으로 무시하려는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즉 당신께서는 영적 공동체(가족)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하셨던 것이다.
- (3) 예수의 이러한 태도는 이미 유년 시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는 자신을 찾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참조, 눅 2:49)임을 밝혀 부모들을 놀라게 했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파괴되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참조, 갈 3:19, 20; 딤후 2:5; 히 8:6; 9:15) 인간들끼리도 한 형제가 되도록 연결시켜 주셨다(롬 12:5).
- (5)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즉 모두가 한 지체가 된다는 귀중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롬 12:4; 고전 6:15; 12:12, 14, 19, 20, 22, 25-27; 엡 4:25; 5:30).

제 13 장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단락구분 1-9 씨 뿌리는 자의 비유 / 10-17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 18-23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다 / 24-30 가라지 비유 / 31-32 겨자씨 비유 / 33 누룩 비유 / 34-35 비유를 통해 진리의 비밀을 밝히시다 / 36-43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 / 44 감주인 보물 비유 / 45-46 진주 비유 / 47-50 그릇 비유 / 51-52 비유의 결론 / 53-58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다

1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2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3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5 더러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 더러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백 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0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으랴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 그러나 너희 눈은 밝으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18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20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23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백 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24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 사람들이 잠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
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31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
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2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
에는 나뭇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
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3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랍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
룩과 같으니라

34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
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
니하셨으니

35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
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36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
시니 제자들이 나와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
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37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 가라지할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
상 끝이요 추수군은 천사들이니

40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간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
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
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42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
를 감이 있으리라

43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
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

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45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와 같으니

46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
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47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
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48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곳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
니라

49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
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50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
를 감이 있으리라

51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2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
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53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
기를 떠나서

54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회 회당에서 가르치
시니 저회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라 하지 않느냐

56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
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
느냐 하고

57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
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
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
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1. ㉠ 본장의 특성은 무엇인가?

- ㉠ (1) 예수께서는 본장에서 7가지의 비유를 통해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스러운 진리를 가르치
셨다.
- (2) 이렇게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이유는 영적으로 우매한 백성들에게 하늘나라의 진리를
직접 선포할 경우 그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13-15절).
- (3) 한편 본장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운 진리를 가르칠 때마다 예수께서는 자주 비유
를 들어 말씀을 전하시곤 했다.
- (4) 이러한 예수의 교육 방법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비롯해 모든 주일 학교 교사들이 반
드시 본받아야 할 점이다.
- (5) 특히 외국에서 공부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설
교 시간에 평신도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외국어나 전문 용어를 남발하는 일부 목
회자들은 본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2. **㉠**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비유를 가르치신 장소는 어디인가? (1, 2절)

- ㉠** (1)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14:25) 앉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해변가에 모였으므로 배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비유를 가르치셨다.
- (2) 이러한 상황은 5:1, 2의 상황과 좋은 대조가 된다. 즉 일명 산상 보훈이라 불리우는 5-7장의 설교는 산 위에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행하신 말씀인 반면 이 비유는 해변가에서 우리들을 향해 가르치신 말씀이다.
- (3)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장소와 대상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여건만 형성되면 언제나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셨다 (4:17, 23; 9:35; 막 1:21).
- (4)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 주일 하루,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일주일 전체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자 (참조, 답후 4:2).

3. **㉠** 비유에 대해 설명하라 (3절).

- ㉠** (1) '비유' (譬喩) 에 해당되는 헬라어 <파라볼레>는 '옆 자리에', '곁으로' 라는 의미를 지닌 전치사 <파라>와 '던지다' 라는 뜻의 동사 <발로>가 합쳐진 단어다.
- (2) 따라서 이 말은 한 사물과 다른 한 사물을 비교하기 쉽도록 나란히 배열한다는 뜻으로서 수사학적으로는 어떤 사물이나 관념을 끌어대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 (3) 따라서 비유는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경험들이나 공통된 관념들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4) 한편 이러한 '비유' 라는 말은 구약에서도 자주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히브리어 <마이샬> 또는 <히이다>를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이 두 히브리어 단어들은 '비유' 라는 뜻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비유의 성격이 어떤 것임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 구 분 | 의 미 | 관 련 귀 절 |
|---------|--------|-----------------------------------|
| 〈마 아 샬〉 | 금언, 격언 | 삼상 10:12; 24:14 |
| | 예언적 상징 | 민 23:7, 8, 24 |
| | 비 교 | 겔 17:2; 21:5; 24:3 |
| | 시 | 민 21:27-30; 왕상 5:12; 시 49:5; 78:2 |
| | 윤리적 지혜 | 잠 10:1; 25:1 |
| | 수수께끼 | 시 49:4; 겔 17:2; 20:4-9 |
| 〈히 이 다〉 | 금 언 | 왕상 4:32 |
| | 속 답 | 삼상 10:12; 왕상 9:7 |

- (5) 이와 같이 성경 속에서 사용되어진 비유는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끌어낸 이야기를 통해 어려운 율법이나 교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유도해서 도덕적, 영적인 교훈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6)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에 나타난 비유들을 대할 때 단지 평범한 이야기로만 넘기지 말고 그 속에 내포된 의미와 교훈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묵상해야 한다.

4. **㉠**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떨어진 장소와 그 결과는 어떠한 영적 의미를 지니는가? (4-9절)

㉠

| 장 소 | 영 적 의 미 | 결 과 | 영 적 의 미 | 관련거절 |
|--------|--|-----------------------------------|--|---------------|
| 길가 |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 새들이 와서 먹어 버림 | 마귀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훼방함 | 4, 19절 |
| 들 밭 |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 흙이 깊지 않아 곧 썩어 나오나 해가 들은 후에는 말라 죽음 |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감동하고 흥분하나 고난이 닥쳐 오면 곧 신앙을 버림 | 5, 6, 20, 21절 |
| 가시떨기 위 |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 가시가 자라나 기운을 막음 | 말씀을 듣고 그 속에 내포된 깊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긴 하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 영적 성장이 중단됨 | 7, 22절 |
| 좋은 땅 |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 백배, 육십 배, 삼십 배의 결실을 맺음 |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가르침대로 살아감으로써 풍성한 영적 성장을 하게 됨 | 8, 23절 |

- (2)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본시리즈 9장 ㉠4-8을 참조하라.
5. ㉠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인가? (10-14절)
- ㉠ (1) 제자들이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를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0-13절)고 대답하셨다.
- (2) 여기에서 ‘천국의 비밀’이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로서 인간이 결코 스스로 발견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를 받을 때에만 깨달을 수 있는 참진리를 가리킨다.
- (3) 따라서 예수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하는 제자들 외에는 이 진리를 알 수 없으므로 예수께서는 무리들에게 알기 쉬운 비유를 통해 그 비밀스러운 진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이다.
- (4) 그런데 오늘날 일부 사이비 종파들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도 천국에 대해 거짓 증거를 일삼고 있는데 성도들은 결코 이러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참조, 벰후 3:17; 요이 1:10).
- (5)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 역시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벰후 3:16).
6. ㉠ 예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12절)
- ㉠ (1) 예수께서는 이에 대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있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를 의미한다. 반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

하는 영적으로 우매하고 완악한 자들을 가리킨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는 지혜와 풍요한 지식으로 채워 주신다(참조, 6:33).
- (4)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윤리적인 태도나 선한 양심마저도 끝내는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예는 바리새인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이 가장 귀중히 여겼던 율법에 의해 자멸(自滅)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12:22-37).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진리로 사모함으로써 '있는 자' 곧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25:29; 시 36:8; 요 10:10; 고후 9:8; 엡 3:20; 빌 4:19; 벧후 1:11).

7. **㉠**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14, 15절)

- ㉠** (1) 여기에서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용하여 그들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곧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사 6:9) 고 했다.
- (2)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들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사 6:10) 고 했기 때문이다.
- (3) 이사야의 이러한 예언은 영적 불구자의 심령 상태 곧 영적 귀머거리(렘 6:10; 겔 12:2; 숙 7:11; 행 28:26), 영적 소경(15:14; 23:19; 사 59:10; 막 4:12; 요 12:40; 롬 11:25; 고후 3:14; 요일 2:11)의 특징을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다.
- (4) 이것은 죄를 지은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설사 죄를 짓더라도 결코 이러한 상태로 전락하지 않도록 간절히 회개해야 할 뿐 아니라 평소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교훈에 귀기울임으로써 영혼의 상태가 흐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참조, 5:8; 겔 18:31; 33:11; 단 4:27; 욥 2:12; 눅 13:2, 3).

8. **㉠** 제자들만이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16, 17절)

- ㉠** (1) 제자들은 이때까지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받았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 (2) 그 축복이란 다름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모시면서 항상 그분의 모습을 목격하고 늘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 (3) 한편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단지 예언으로서만 메시아를 열렬히 사모했을 뿐이지 제자들처럼 직접 대하는 특권은 결코 누리지 못했던 것이다.
- (4)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이며 특권일 뿐 아니라 명예이기도 한 것이다.
- (5) 오늘날 제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도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못지않게 축복받은 자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각자가 받은 축복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출 32:29; 잠 23:26; 롬 12:1; 빌 3:7, 8; 살전 5:18, 23; 딤후 2:21).

9. **㉠**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와 씨가 뿌려진 장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8-23절)

- ㉠** (1) 먼저 '씨'는 마치 열매의 씨앗과 같이 생명력을 배태(胚胎)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눅 8:11; 벧전 1:23).
- (2) 그리고 씨가 뿌려진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각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가리킨다.
- (3) 그런데 농사에 있어서 결실의 다소(多少) 여부는 기상의 변화에도 여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씨와 밭에 의해 좌우되는게 상례이다.

- (4) 그러나 여기에서 씨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변적(可變的)일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그 수확은 오직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도로서 요구되는 합당한 신앙 생활(10:16; 신 4:9; 시 26:3; 86:11; 롬 16:19; 엡 5:2, 15; 빌 1:10; 벧후 1:5-7; 3:14; 요일 1:7; 2:6)을 통해 각자의 심령 발음 기쁨지게 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참조, 골 1:10).

10. 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맺는 열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3절)

- ㉔ (1) 예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권고하셨다(요 15:5, 16; 롬 6:22; 히 12:11).
- (2) 여기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맺을 수 있는 좋은 열매 곧 영적인 열매를 성경에서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회개에 합당한 열매(3:8)
 - ② 의의 열매(빌 1:11; 약 3:18)
 - ③ 성령의 열매 : 사랑, 화평,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갈 5:22)
 - ④ 의의 평강한 열매(히 12:11)
 - ⑤ 긍휼과 선한 열매(약 3:17)
 - ⑥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롬 6:22)
 - ⑦ 빛의 열매(엡 5:9)
 - ⑧ 그리스도의 은총의 열매
 - ㄱ. 인내, 연단, 소망(롬 5:3,4)
 - ㄴ.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고후 6:6)
 - ㄷ. 믿음, 말, 지식, 모든 간절함, 풍성한 은혜(고후 8:7)
 - ㄹ.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벧후 1:5-7)
- (3) 반면에 예수께서는 나쁜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주와 심판을 내리셨다(3:10; 눅 13:6-9; 요 15:2; 히 6:8).

11. ㉕ 24절에서 예수께서는 천국이 어떤 사람과 같다고 가르치셨는가?

- ㉕ (1) 예수께서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38절) 곧 선택받은 성도들을,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人子) 곧 예수 그리스도(37절)를 뜻하며, ‘밭’은 ‘세상’ (38절)을 가리킨다.
- (3) 한편 본절에 사용된 ‘...같으니’라는 표현은 천국이 바로 ‘제 밭에...사람’과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러한 용법은 아람어의 관용적 표현으로서 ‘...상황, 또는 경우와 같다’는 뜻이다.
- (4) 따라서 본절은 ‘천국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 가운데 살게 한 경우와 같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5) 이처럼 성도들은 천국의 아들들로서 선택되긴 했지만 각양 각색의 나쁜 씨(불신자, 행악자, 적그리스도 등)와 세상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 (6)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들에게 비록 불의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살피 나가야 한다(참조, 신 4:9; 23:9; 잠 4:23; 행 15:29; 딤후 5:22; 약 1:27; 요일 5:21; 유 1:21).

12. ㉖ 가라지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25-30절)

- ㉖ (1)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가라지와 관련된 사항들은 앞절(24절)에 나와 있는 천국에 관련된 사항들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 (2) 여기에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38절)을 뜻하며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 (39절)를 가리킨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군은 천사들’ (39절)을 의

미하고, 공간은 천국을 상징한다.

- (3)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가라지 비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린 좋은 씨(천국의 아들들)와 원수 마귀가 뿌려 놓은 가라지(악한 자의 아들들)가 공존(共存)하는 밭과 같다.
- (4) 따라서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섞여서 성장하나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추수꾼은 좋은 씨에서 나온 곡식과 가라지를 엄격히 구분하여 곡식은 공간에 넣고 가라지는 묶어서 불사르게 된다.
- (5) 오늘날의 세상도 이와 마찬가지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고 악한 자를 괴롭히는 무리들도 분명히 있게 마련이다. 심지어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싶은 사람도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사라져 버렸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들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 (6) 그런데 이러한 섭리를 알지 못하는 일부 성도들은 ‘왜 하나님은 악인들이나 사단의 세력을 없애 버리지 않고 우리들을 괴롭히도록 방관하는 것일까?’ 라고 의혹을 품거나 심지어는 이 일로 인해 시험에 빠져 실족하기도 한다.
- (7)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생기는 조바심이다. 그러나 이 비유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우리들은 결코 성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말세의 심판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연단하면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으로써 더욱 성장하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례 11:44; 민 6:2, 4, 12).

13. ㉠ 가라지는 어떠한 식물인가? (25절)

- ㉠ (1) 가라지(蓀, 지자니온)는 팔레스틴 지방에 서식하는 식물로서 밀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일명 독(毒)보리라고도 한다.
- (2) 그런데 이 가라지는 밀 밭에 기생해서 함께 자랄 경우 이삭이 필 때까지는 거의 밀과 구분이 안 되며 추수 때가 되어서야만 구별이 가능해진다.
- (3) 따라서 성장기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가라지와 밀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만약 가라지를 뽑을 경우에는 밀 수확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 (4) 한편 가라지의 씨앗은 밀알보다는 훨씬 작으며 그 속에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가루로 만들어 독극물로 사용하기도 한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상에도 마치 의인인 양 가장한 사단의 세력들이 호시탐탐 성도들을 노리고 있는 실정이다(24:5, 11; 고전 10:12; 고후 11:3; 딤후 4:1; 벧후 2:1, 2; 요일 2:22-26; 4:6; 요이 1:7; 계 19:10; 20:10).
- (6)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사이비(似而非)들을 구별하여 결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안목을 키워야 할 것이다(참조, 시 11:16; 겔 13:9, 10; 앎 4:14; 요일 2:26, 27; 3:7; 4:6).

14. ㉠ 겨자씨 비유에서 천국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31, 32절)

- ㉠ (1)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뭇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고 가르치셨다.
- (2) 여기에서 ‘겨자’는 배추과의 일년생 또는 이년생 풀로서 약 1m 정도까지 자라는데 그 씨는 맵고 향기로와 양념과 약재로 쓰고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사용된다.
- (3) 그런데 겨자씨는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31절)으로 묘사될 만큼 아주 작은 것이 특징적이다. 반면 겨자 나무는 보통 1m 정도로 크게 자라며 특히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약 3m 이상 자라 마치 나무와 같아 보일 정도로 크고 무성하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보잘것없게 시작되었으나 점차 급속도로 확장되어 중국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인색할 정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 (5) 한편 겨자씨는 본 비유 외에도 믿음의 비유 곧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17:20; 막 4:31; 눅 13:19) 는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5. ㉠ 예수께서는 천국을 누룩의 어떠한 특성에 비유하셨는가? (33절)

- ㉠ (1) 예수께서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누룩에 해당되는 헬라이어 (주메)는 빵을 만들 때 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거나 술을 만들 때 알콜 성분을 발생케 하는 발효소(醱酵素)를 가리킨다.
- (3) 따라서 누룩의 비유적 의미는 부풀게 하거나 점진적인 내적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작용이라 할 수 있다.
- (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누룩 결국 비유는 앞에서 언급한 겨자씨 비유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단지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겨자씨 비유가 천국의 외적 확장 및 성장을 상징하는 반면 누룩 비유는 내적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각자의 삶에 있어서 누룩과 같은 영적 변화를 일으켜(참조, 롬 6:6; 엡 4:22-24; 5:8; 골 3:9) 천국의 확장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16. ㉠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예언이 성취된 결과인가? (34, 35절)

- ㉠ (1) 마태는 이에 대해서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고 기록하고 있다.
- (2) 이 말씀은 아삼의 시(詩) 중에서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빼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시 78:2) 라는 귀절을 인용한 것이다.
- (3) 한편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 과 '옛 비밀한 말' 은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사역들을 의미한다(참조, 시 78편).
- (4)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결국 구약 시대 때부터 비밀로 내려오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어리석은 무리들에게 보다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이다.

17. ㉠ 가라지 비유에 나타난 심판의 모습은 어떠한가? (36-43절)

- ㉠ (1) 먼저 가라지 비유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은 ㉠ 11-13을 참조하라.
- (2) 심판 날에는 마치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추려 내어 불사르듯이 인자가 '그 천사들' 을 보내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값이 있을 것' 이라 했다(41, 42절).
- (3) 여기에서 '그 나라에서...불법을 행하는 자들' 은 성도들을 미혹케 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율법 및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뜻한다. 그리고 '풀무불' 은 지옥을 의미하며(25:41; 계 20:15) '울며 이를 값' 이란 귀절은 괴로운 고통과 격앙된 분노로 인해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우는 것을 가리킨다(8:12; 22:13; 24:51; 25:30).
- (4) 반면 의인들은 이러한 심판 날에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고 했다. 여기서 '의인' 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은혜를 받은 자들을 뜻하고 '해와 같이 빛나리라' 는 귀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참조, 단 12:3).
- (5) 이와 같이 심판 날에는 의인의 영광과 악인의 형벌이 뚜렷이 구별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의인의 길에 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시 1편; 롬 3:20-5:11; 히 11장).

18. ㉠ 감추인 보물의 비유에서 천국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44절)

- Ⓐ (1)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고 가르치셨다.
- (2) 이 비유는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취하는 행동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다.
- (3)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아주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는 빌립보 교회로 보낸 서신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害)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3:8, 9) 라고 역설했다.
- (4) 한편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16:24) 고 명령하셨으며 또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눅14:33) 고도 권면하셨다.
- (5) 이와 같이 천국과 세상을 함께 소유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얻듯이 장차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 세상에서의 삶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6:10;19:21; 막10:28; 눅5:27, 28;12:33;18:29, 30; 딤후전6:19).

19. ⓐ 예수께서는 진주 비유를 통해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45, 46절)

- Ⓐ (1) 예수께서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비유에 잘 나타나 있듯이 값진 보석에 대한 인간의 심리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여전히 변함이 없다. 특히 수집광적인 취미가 있거나 물욕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진귀한 보석을 획득하고자 한다.
- (3)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이 비유는 단지 ‘진주’라는 특정 보석이 제시되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숨겨진 보화 비유와 다를 바 없다.
- (4) 본 비유에 내포되어 있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는 ⓐ18을 참조하라.
- (5) 한편 성경 속에서 이러한 천국의 보물을 찾았던 인물들을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야곱 (창28:10-18)
- ② 백부장 (막15:39)
- ③ 글로바와 그의 동료 (눅24:29)
- ④ 나dana엘 (요1:46-51)
- ⑤ 사마리아 여인 (요4:1)
- ⑥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요9장)
- ⑦ 에티오피아 내시 (행8:26-38)
- ⑧ 고넬료 (행10:1-8, 30-33)
- ⑨ 루디아 (행16:14)
- ⑩ 빌립보 감옥의 간수 (행16:29-34)
- ⑪ 베뢰아 사람들 (행17:10-12) 등

20. ⓐ 그물 비유와 가라지 비유의 관련성을 논하라 (47-50절).

- Ⓐ (1) 그물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 성격 뿐만 아니라 의미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많다.
- (2) 그런데 가라지 비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동안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원수가 큰 세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3) 반면 그물 비유는 단순히 심판 날의 상황, 즉 하나님 나라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를 한 데 모으고 있다가 마침내는 그것을 가려낼 것이라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다.

- (4)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비유들의 결론은 동일한 내용으로 끝나고 있다(41, 42, 49, 50절).
- (5) 따라서 그물 비유는 예수께서 분위기를 바꾸어 다시 한번 가라지 비유를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겠다.

21. **㉠** 예수께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어떤 자로 비유하셨는가? (52절)

- ㉠** (1) 예수께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공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그 당시 율법 학자로서의 서기관(5:20; 7:29; 16:21; 막 12:38; 눅 5:21; 고전 1:20)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율법에 정통해 있듯이 제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간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3) 그리고 '옛 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율법을 뜻하며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시는 복음을 의미한다.
- (4)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지금껏 서기관들이 다루어 왔던 구약의 율법 뿐 아니라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새로운 율법 곧 복음의 진리까지 완전히 통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5)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오늘날 제자의 직분을 물려받은 성도들도 말씀을 전파하기에 앞서 먼저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쌓아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참조, 잠 2:3-5; 요 8:31, 32; 벧후 1:5; 3:18).

22. **㉠** 예수께서 고향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54절)

- ㉠** (1) 예수의 고향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며 의아해 했다.
- (2) 여기에서 '고향'은 출생지인 베들레헴(2:1)이라기 보다는 성장지인 나사렛을 가리킨다(2:23; 4:13; 눅 4:16). 즉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긴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나사렛에서 사셨던 것이다. 이는 그가 '나사렛 예수'라 불리운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21:11; 막 14:67; 눅 18:37; 요 1:45; 19:19; 행 2:22; 6:14).
- (3) 한편 '어디서'에 해당되는 헬라이(포덴)은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권위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의미를 지닌 의문과 결부되어 있는 말이다.
- (4) 따라서 '이 지혜와...어디서 났느냐'란 귀절은 예수의 지혜와 능력 곧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이적을 행하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 (5)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 진정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의사보다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의심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참조, 57절; 9:34; 12:24).

23. **㉠**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어떤 존재로 생각했는가? (55, 56절)

- ㉠** (1)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수 요셉의 아들로써 결코 상기(上記)한(㉠22) 지혜와 능력을 갖춘 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 (2) 이는 그들이 1:18-25에 언급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기원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 준다.
- (3) 따라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가족들 곧 모친 마리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비롯해 누이들을 열거하며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입증하려 했던 것이다.
- (4) 이러한 그들의 영적 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커녕 배척하게 되었고(27절), 그 결과 축복의 근원인 예수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걸

림들이 되었던 것이다 (참조, 11:6; 26:31, 막 6:3; 눅 7:23).

- (5) 한편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다. 더우기 신도들이나 일부 신학자들 중에서도 예수의 인성(人性)에만 집착하여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실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24. **㉠ 예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을 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57절)**

- ㉠** (1) 예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고 한탄 조로 말씀하셨다.
- (2) 이 말씀은 예수께서는 선지자와 같은 또는 그 이상의 자격으로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참조, 21:11; 신 18:15, 18; 눅 24:19; 요 9:17; 행 3:22; 7:37).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비롯해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심지어는 고향과 가족들에게까지 거절을 당하셨던 것이다.
- (4) 사실상 사람들은 대부분 타향에서 보다는 자신의 가정이나 고향에서 좋은 대우를 받게 상례지만 큰 지위나 명예를 얻을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부터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된다.
- (5) 이와 같이 인간들은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에 성원을 보내 주기 보다는 비난하거나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악한 심성(心性)을 지니고 있다.
- (6)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 합당한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하며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업적과 공로에 대해서도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지녀야 한다.

25. **㉠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떤 조치를 내리셨는가? (58절)**

- ㉠** (1) 이에 대해서 마태는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고 기록하였다.
- (2) 이 기사에 대해 마가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막 6:5, 6) 고 기록했다.
- (3) 그런데 이 두 귀절은 결코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 혹은 불신앙 때문에 이적을 행치 않으셨다거나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이적을 행하실 능력이 감소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 (4) 왜냐하면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절대적인 것이므로 (12:18)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당신이 원하시면 그대로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 (5) 결국 예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해 보아야 그들의 완악하고 무지한 심령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시고 진정으로 자신을 찾아오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능력을 베푸셨던 것이다.
- (6)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것을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는 이적의 축복으로 임하지만 이를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근원이 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참조, 빌 4:13; 히 11:1).

본장의 요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6절).

제 14 장 세례 요한의 순교와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

참과구분 ! 2 예수에 대한 헤롯의 그릇된 이해 / 3- 12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 / 13- 21 예수께서 오병 이어의 이적으로 오천 명을 먹이시다 / 22- 33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다 / 34- 36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다

- 1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 2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 3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 4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 5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 6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 7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허락하기를
- 8 그가 제 어미의 시킵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 9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 10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 베어
- 11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 12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 13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좃아 간지라
- 1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뉘쌍히 여기사 그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 15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막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 16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 17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 18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 19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 20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 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 21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 22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 23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 24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사 바람이 거슬리므로 뚝걸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 25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 26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행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 27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 28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 29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 30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 31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 32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 33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 34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 35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똥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1. ㉠ 본장의 구성상 특징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처음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소문으로 시작되어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그의 능력과 이적을 다루고 있다.
- (2) 그런데 3-12절까지의 내용은 본장의 전체적인 구성과는 완전하게 다른 세례 요한의 투옥(投獄) 사건과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14절 이후의 사건과도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
- (3) 그러면 왜 이러한 독립된 사건이 본장에 삽입되었는가? 이는 본서의 저자인 마태가 기록상 부연 설명을 덧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4) 즉 마태는 분봉왕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환생(還生)한 것으로 착각한 사실을 기록함에 있어서 보다 이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투옥 및 참수(斬首) 사건을 부가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 (5) 따라서 본장은 전적으로 예수의 이적만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마태가 이러한 이적을 여러 각도에서 취급한 이유는 그분이야말로 천지의 주관자이신 참하나님 이심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참조, 2:15; 3:17; 8:29; 막 1:1; 눅 1:35; 요 1:34; 3:18; 행 9:20; 히 4:14; 10:29; 요일 4:15).

2. ㉠ '분봉왕 헤롯'은 어떤 인물인가? (1절)

- ㉠ (1) 본절에 언급된 '분봉왕(分封王) 헤롯'이라는 말은 원래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분봉왕'이라는 직함(職銜)과 '헤롯'이라는 왕의 칭호(稱號)가 합쳐져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 (2) 먼저 '분봉왕'이란 헬라어로 <테트라아르케스>인데 이 말은 '넷'에 해당되는 <테트라>와 '통치'를 뜻하는 <아르케>의 합성어로서 로마 시대의 직함 중 하나이다. 이 '분봉왕'은 그 말이 지닌 뜻대로 그 당시 어느 특정 지역 중 4분의 1을 관할하던 통치자를 가리킨다.
- (3) 그리고 '헤롯'(헬, 헤로데스)이라는 말은 애굽의 '바로'(Pharaoh)나 신라 시대의 '차차웅'(次次雄) 또는 '이사금'(尼師今)과 같이 원래는 B. C. 55 - A. D. 93년경까지 팔레스틴을 다스렸던 왕조의 칭호이다.
- (4) 이러한 헤롯 왕조 중에서 분봉왕으로 가장 먼저 임명을 받은 자는 유대 왕으로 부임한 헤롯 대왕(Herod the great, B. C. 37-4)이었다(2:1-19; 눅 1:5).
- (5) 그런데 그가 죽은 후 그의 영토는 세 아들에게 나뉘어져서 팔레스틴의 남쪽 지역은 아켈라오(Archelaus, B. C. 4 - A. D. 6), 북쪽 지역은 빌립(Philip, B. C. 4 - A. D. 34),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안티파스(Antipas, B. C. 4 - A. D. 39)에게 각각 할당되었다.
- (6) 이처럼 땅이 3분되어 그들은 각각 자신에게 할당된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는데 그들 중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본절에 언급된 '분봉왕 헤롯'이다.
- (7) 한편 안티파스는 그의 통치 영역이 성경 역사상 중요한 곳이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악행으로 인해 성경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불법적으로 취해서 결혼함(3절; 막 6:17)
 - ② 불법 결혼에 대해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음(막 6:18; 눅 3:19)
 - ③ 세례 요한을 투옥함(3절; 막 6:17; 눅 3:20)
 - ④ 살로메의 요청에 따라 세례 요한의 목을 뱀(3-11절)
 - ⑤ 예수에 대해 불안한 생각을 가짐(1, 2절; 막 6:14; 눅 9:7, 9)
 - ⑥ 간교한 제책을 세우다 예수께로부터 여우라 불리움(눅 13:32)

- ⑦ 헤롯이 예수를 업신여기고 회롱함 (눅 23:8-12)
 ⑧ 빌라도와 편이 되어 예수를 대적함 (눅 23:12; 행 4:27)

3. ㉠ 헤롯은 예수에 대해 어떤 오해를 했는가? (2절)

- ㉠ (1)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라고 생각했다.
 (2) 헤롯의 이러한 오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사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그의 미신적 신앙에 기인하기도 한다.
 (3)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사역에 유사점이 있다(참조, 3:1-16; 4:17)는 점으로 볼 때 헤롯의 오해는 설명이 가능하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살아 있을 때 이적을 베풀지 않았으나(요 10:44) 예수께서는 헤롯이 두려워할 정도로 많은 이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헤롯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 이적을 행하는 줄로 알았던 것이다.
 (4) 이처럼 헤롯의 범죄한 양심 이면(裏面)에는 이와 같은 미신적인 부활관과 이적관(異蹟觀)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이는 그의 공포심과 병적인 상상력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했다.
 (5) 이와 같이 죄를 지은 자는 결코 편안한 마음을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판단력마저 혼미해지기 마련이다.
 (6) 오늘날 우리들의 주위에도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죄를 지은 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기 전에 스스로 불안감과 공포심, 양심의 가책 등으로 고통을 받으며 파멸해 가는 모습은 실로 비참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7) 그러므로 우리들은 결코 범죄해서도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솔직히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죄의 고통과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참조, 사 31:9; 55:7; 겔 18:31; 율 2:12; 말 3:7; 눅 13:2, 3; 행 3:19; 8:22).

4. ㉡ 세례 요한이 투옥된 이유는 무엇인가? (3, 4절)

- ㉡ (1) 헤롯은 '헤로디아의 일'로 세례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2) 그런데 '헤로디아의 일'이란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불법으로 취했을 때 요한이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탄핵한 사건을 가리킨다.
 (3) 여기에서 '빌립'은 분봉왕 빌립(참조, ㉠ 2)이 아니라 헤롯 대왕과 마리아네 2세(Mariamne II) 사이에 태어난 빌립으로서 헤롯 안티파스의 또 다른 이복 동생을 말한다(막 6:17).
 (4) 한편 헤롯은 헤로디아를 취하여 결혼하기 전에 본처인 아레타스(나바테아 왕 Aretas IV)의 딸과 이혼했는데 이것은 아레타스를 모독한 행위로 취급되어 나바테아와 정치적인 동맹이 깨어지고 심지어는 보복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5) 하여튼 이유 여하(理由如何)를 막론하고 계대 결혼(繼代結婚, 신 25:5; 막 12:19) 외에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며 더우기 살아 있는 형제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증한 범죄였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세례 요한의 탄핵(彈劾)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이다.
 (6)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비행에 대해 헐뜯기는 좋아하지만 직접 그 잘못을 지적하는 데는 인색하다. 더우기 세례 요한의 경우에서처럼 왕에게 충고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불사하는 결단력과 용기가 필요한 법이다.
 (7) 이러한 세례 요한을 본받아 우리들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충고와 권면을 아끼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고전 13:5; 빌 1:10, 27; 살후 3:7; 딤후 3:2; 4:12; 딤후 2:2; 약 3:13; 벧전 2:12; 벧후 3:11)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도 과감히 항거할 수 있는 신앙적 양심을

가져야 한다.

5. **㉠** 헤롯은 세례 요한의 탄핵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5절)

- ㉠** (1)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민중을 두려워하여’ 죽이지 못하고 일단 투옥하기만 했다.
- (2) 그런데 마가는 헤롯이 요한을 죽이지 못한 이유에 대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 (막6:20)고 기록하였다.
- (3) 여기에서 마태와 마가의 견해는 표면상 상반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두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진다. 즉 헤롯은 세례 요한의 탄핵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감정이 고조되어 죽이고 싶었을 것이다.
- (4) 그러나 그 감정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지지하는 민중들의 세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과 존경심도 되살아났던 것이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숨을 끝내 헤로디아의 손에 넘겨 주고 말았는데 (24, 25절) 이는 그의 우유 부단한 마음 때문이었다.
- (6) 이와 같이 의지가 약한 자들은 때때로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헤롯의 경우를 통해 우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자제력을 키우고 나아가서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의지를 굽히지 않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참조, 잠 16:32; 25:28; 행 24:25).

6. **㉠** 헤롯의 생일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가? (5-12절)

- ㉠** (1) 헤롯이 자신의 생일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 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관중들을 매혹시키는 춤을 추자 분위기에 도취된 헤롯은 그녀가 소원하는 바를 모두 들어주겠노라고 호언 장담했다.
- (2) 그러자 살로메는 헤로디아의 사전 음모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요구가 있으리라고 전혀 생각치 못했던 헤롯은 근심하다가 결국은 그 요청에 굴복하고 말았다.
- (3) 이렇게 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11:9, 13) 예수의 선구자로서 그 시대의 양심이었던 세례 요한 (5:11, 12)은 급기야 관능의 잔치에 제물이 되고 말았다.
- (4)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① 첫째, 정도가 지나친 잔치는 우리들의 이성을 마비시킬 뿐 아니라 신앙심마저도 흐리게 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항상 검소와 절제의 생활이 요구된다 (참조, 눅 21:34; 롬 13:13).
 - ② 둘째, 호언 장담하는 말 (참조, 예 5:3, 6; 7:2)은 거의 대부분 뼈아픈 과오를 초래한다. 따라서 성도들은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고 신중히 생각한 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참조, 시 39:1; 잠 12:18; 18:21; 21:23).
 - ③ 셋째, 헤롯의 결혼과 같이 불의한 결혼 관계는 멸망의 근원이 된다 (5:32; 창 24:1; 레 18:6-18; 신 7:3; 수 23:12; 느 13:25; 고전 7:29).
 - ④ 넷째, 살로메와 같이 부화 뇌동하여 악에 동참하는 자는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자와 같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행악자들과는 누구를 막론하고 아예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한다 (참조, 요이 1:10).
 - ⑤ 다섯째, 세례 요한과 같이 불의를 묵과 (默過)하지 말아야 하며 동시에 진정한 충고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 ⑥ 여섯째,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가장 고귀한 순교자적 태도이다 (참조, 5:6).

7. **㉠** 헤로디아는 어떤 부류의 인간인가? (8-11절)

- (A)** (1) 원래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아들 아리스토틀루스의 딸이며 헤롯 아그립바 1세의 (행 12장) 누이로서 처음에는 빌립과 결혼했다.
- (2) 그러나 헤로디아는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지위가 낮았던 본남편 빌립을 헌신짝처럼 차 버리고 본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 되기를 기꺼이 원했던 부도덕한 여인이었다.
- (3)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참수(斬首) 사건을 통해 드러난 헤로디아의 잔인성과 냉혹성은 그녀의 인격 가운데 자리잡은 사악한 본성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것 바로 그 자체였다.
- (4) 한편 헤로디아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구약 시대의 대표적 악녀 이세벨과 그녀의 딸 아달라를 방불케 한다. 즉 이세벨은 자신의 눈에 거슬렸던 선지자들을 죽였고(왕상 8:4-13; 21:1-15) 아달라는 그녀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왕자들을 살륙했던(왕하 11:1) 것이다.
- (5) 이와 같이 여인들의 지나친 욕심과 야망은 때때로 엄청난 비극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여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창 2:18, 20; 에 1:20; 잠 31:27; 고전 7:10; 엡 5:22; 골 3:18; 딤펢전 3:11; 딤펢 2:4; 뱀전 3:1).

8. **㉠** 세례 요한은 어떤 죽음을 당했는가? (12절)

- (A)** (1)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계획대로 감옥 속에서 목 베임을 당했고 그 목은 소반에 담겨진 채 살로메에게 전달되어 결국은 헤로디아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 (2) 그런데 교부 제롬(Jerome, 331- 420)에 의하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인게 받아 허를 비롯해 여러 부분을 뺏족한 바늘로 찔렸다고 한다.
- (3) 한편 세례 요한의 목에 대한 행방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의 제자들은 감옥 속에 있는 요한의 시체를 가져와 장사지낸 후 이 사실을 예수께 알렸다. 이것은 이전에 예수께서 보내셨던 대답(참조, 11:2-5)이 요한을 만족시켰고, 따라서 그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메시야로 믿게 되었음을 암시해 준다.
- (4) 이처럼 세례 요한의 육체는 비록 사악한 헤로디아에 의해 무참히 난도질당했지만 죽어서까지도 그의 제자들을 예수께 인도할 정도로 그의 영혼은 더욱 순결하고 고귀하게 성화(聖化) 되었을 것이다.
- (5) 이러한 사실은 순교자 스테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는 수없이 많은 돌을 맞아 육체가 찢어지는 중에도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모했던 것이다(행 7:54-60).

9. **㉠**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는가? (13절)

- (A)** (1)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셨다.
- (2) 그런데 예수께서 떠나신 이유는 결코 헤롯 안티파스나 헤로디아로부터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 (3) 물론 본장의 구성상으로 볼 때 12절 다음에 본절이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은 소식을 듣고 떠나신 것으로 오인되기가 쉽다.
- (4) 그러나 3-12절의 사건은 1, 2절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서 이미 지나간 이야기를 삼입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절이 2절 다음에 연결되면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되는 것이다.
- (5) 즉 예수께서는 당신에 대한 헤롯의 반응을 듣고 일단 그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하셨을 것(참조, 12절)이고 한편으로는 이때 12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으므로 그들과 의논하시기 위해 무리들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참조, 막 6:30, 31).
- (6) 한편 '빈 들'은 누가의 기록(눅 9:10)을 참고해 볼 때 '벳새다' 곧 갈릴리 북동쪽 해안

에 위치한 벳새다 율리아스(Bethsaida Julias) 지방 중 어느 한 지역이었을 것이다.

10. ㉠ 예수께서는 당신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무리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가?(14절)

- ㉠ (1) 예수께서는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온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2) 즉 예수께서는 한적한 공간과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피신한 상황에서도 당신을 찾아 오는 무리들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껴 병을 고쳐 주기까지 하신 것이다(참조, 4:23, 24; 8:16, 17; 9:35; 11:4, 5).
 (3) 이처럼 예수께서는 자신의 휴식보다는 병들고 무지한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더 중요한 일로 여기셨는데 이는 그의 사역 곧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눅4:18) 일의 본질을 잘 나타내 주는 실례이다.
 (4)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본받아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편의와 유익만을 위해 생활하지 말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연민의 정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참조, 창 13:9; 14:23; 삼상 18:4; 고전 10:23-33; 13:4, 5; 빌 2:3-8, 25-30; 계 12:11).

11. ㉠ ‘저녁’은 구체적으로 어느 때를 가리키는 말인가? (15절)

- ㉠ (1) 본절에 사용된 ‘저녁’이란 말은 헬라어로 <옵시아스>로서 정오에서 해가 지는 직후까지의 시간 중 임의의 때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참고적으로 히브리인들은 하루의 시간을 밤과 낮으로 구분하고 낮은 다시 아침과 정오와 저녁으로 나누었다(참조, 시 55:17).
 (3) 그리고 ‘저녁’도 첫째 저녁과 둘째 저녁으로 구분했는데 전자(前者)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되어 6시 정도에 끝나고 둘째 저녁은 해질녘을 전후한 시간이다.
 (4) 한편 본절에 언급된 ‘저녁’은 첫째 저녁을 가리키며 23절 같은 경우에 ‘저녁’은 둘째 저녁을 가리키는 것이다.

12. ㉠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은 예수께 무엇을 요청했는가? (15, 16절)

- ㉠ (1) 그들은 예수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요청했다.
 (2) 여기에서 ‘이곳은 빈 들이요’라는 귀절은 그곳이 음식을 구하기가 쉬운 도심지와는 떨어져 있는 외진 지역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는 저녁 식사를 할 시간이 이미 지났음을 가리킨다.
 (3)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그 당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말씀에 완전히 매료되어 한 끼의 식사를 거르는 것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인 허기(虛飢)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요 6:32-35, 48-51, 58).
 (5)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 행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식사 문제로 인해 필요 이상의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는 경우는 없는가? 물론 먹는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만 적어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라면 좀더 높은 차원의 고민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한다(6:31-33).

13. ㉠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16절)

- ㉠ (1)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일러주셨다.
 (2)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무척 당황하고 놀랐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께서 이러한 명령을 선뜻 내리셨기 때문이다.
 (3)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를 통해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도 여전히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 (4)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실 때는 항상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합당한 능력을 채워 주신다는 믿음마저 결여되었던 것이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들에게 귀중한 사명이 주어질 때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기 보다는 먼저 당황하거나 놀라기 마련이다(참조, 출 3:11; 4:10-13; 사 6:15).
- (6)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명령하실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내소서’(사 6:8) 라며 순종했던 이사야를 본받아 항상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28:18; 사 41:10; 습 4:6; 눅 8:25; 행 4:33; 빌 4:13).

14. **㉠** 제자들이 구할 수 있는 음식은 어느 만큼이었는가? (17절)

- ㉠** (1) 제자들은 예수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다’고 알렸다.
- (2) 그런데 이 음식조차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 무리 중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
- (3)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더욱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삽나이까’(요 6:8, 9)라고 언급되어 있다.
- (4) 한편 여기에서 ‘떡’(헬, 알토이)은 둥글고 넓적한 케익 모양의 떡을 가리키는데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는 보통 이러한 떡과 작은 물고기(헬, 읍싸리온)를 주식으로 사용하였다.
- (5) 하여튼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그 어린아이가 혼자서 저녁 식사로 먹을 수 있는 아주 소량의 음식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많은 군중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임에 틀림없다.

15. **㉠** 오병 이어(五餅二魚)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18-20절)

- ㉠** (1)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오게 하셔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祝謝)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열 두 바구니나 되었다.
- (2) 여기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라는 귀절(막 6:41; 눅 9:16)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에’(요 6:11)라는 의미로서 이는 식사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유대인들의 관습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 (3)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비단 육신의 양식 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까지도 넘치는 은혜를 통해 공급해 주심을 알 수 있다(참조, 신 2:7; 왕상 17:6, 16; 19:6; 왕하 3:20; 4:6; 7:8; 욥 2:24; 말 3:10; 눅 6:28; 빌 4:9).
- (4) 이 사건을 가리켜 우리들은 흔히 ‘오병 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요 2:1-11) 및 칠병 이어의 이적(15:32-39; 막 8:1-9)과 함께 가장 우리들의 생활과 밀접한 이적으로 손꼽힌다.
- (5) 한편 이와 같은 이적은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문제에 급급해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러한 문제들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암시해 준다. 우리의 관심은 이적이 아니라 그 이적을 베푸신 예수께 집중되어야만 한다(참조, 6:33).

16. **㉠** 이적을 통해 음식을 먹었던 자들의 수는 어느 정도였는가? (21절)

- ㉠** (1) 오병 이어의 이적을 통해 음식을 먹었던 자들은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

다고 했다.

- (2)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남자만 오천 명(막6:44; 눅9:14)이라 했고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의 수요가 오천쯤 되었다고(요6:10) 나와 있다.
- (3) 여기에서 '아이'에 해당하는 헬리어 <파이디온>은 어머니에게 안기거나 아니면 손을 잡고 따라올 정도의 연령에 속하는 '유아'들을 의미한다.
- (4) 한편 여자와 아이들이 계수(計數)에서 제외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추측해 볼 수 있다.
 - ① 첫째, 이 지역은 높고 걸기에 힘든 지형이 산재한 곳으로서 가버나움과 갈릴리 호수 연안의 여러 주거 지역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자와 어린이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을 것이므로 계수에서 자연스럽게 무시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둘째,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계수법에 의해 여인과 아이들은 당연히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통상 인구 계수에 있어서 청년 이상의 남자들만 수자에 포함시켰던 것이다(참조, 민1:2,3).

17. **㉠ 신·구약 성경에서 음식에 관련된 이적을 찾아 보라.**

- ㉠** (1) 첫째, 출애굽시 하나님께서는 약 200만여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다(출 16:13-15).
- (2) 둘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사르밧 과부에게 항상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차고 넘치는 이적을 베푸셨다(왕상 17:16).
- (3) 셋째,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보리떡 이십 개로 백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이적을 행하셨다(왕하 4:43, 44).
- (4) 넷째, 예수께서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빈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부어 그것을 모두 양질의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보이신 첫 표적이기도 한 사건이다(요 6:1-11).
- (5) 다섯째, 오병 이어의 이적
- (6) 여섯째,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떡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 두어 마리를 가지고 굶주린 우리들을 배불리 먹이는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 음식은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 장정 사천 명을 먹고도 일곱 광주리나 남을 정도였다(15:32-39).

18. **㉠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먹여 보내신 후 무엇을 하셨는가? (22, 23절)**

- ㉠** (1) 예수께서는 먼저 우리들을 서둘러 돌려 보낸 다음 곧바로 제자들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 기도를 하기 위해 혼자 산으로 올라가 날이 저물도록 그곳에 홀로 계셨다.
- (2) 여기에서 우리들을 서둘러 돌려 보내신 이유는 ① 예수의 이적을 목격한 자들이 쉽사리 자리를 뜨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며 ②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분을 억지로 잡아 임금으로 삼으려 했기(요 6:15) 때문이다.
- (3) 다음으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들의 요청에 그들의 마음이 동요되지(참조, 20:20; 행 1:6) 않도록 제지시키기 위해서이며 한편으로는 홀로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 (4) 바로 이 시간에 예수께서는 큰 역사를 통해 보여 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 고요히 묵상하며 기도를 드리고자 하셨던 것이다(참조, 막 1:35; 6:46, 47; 눅 5:15, 16; 6:12; 9:18; 22:41, 42).
- (5)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적 태도를 본받아 우리들도 은혜를 체험했을 때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할 때 고요한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엄숙하고 경건한 자세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참조, 6:6; 신 9:25; 삼상 15:11; 왕상 17: 19, 20; 단 6:10; 행 10:9, 30).

19. ㉠ 제자들은 호수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가? (24, 25절)

- ㉠ (1) 제자들이 탄 배가 출발지인 벳새다 율리아스로부터(참조, ㉠9의 (6)) 호수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바람이 거슬리므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 (2) 갈릴리 호수에 이는 풍랑에 대해서는 본서 8장 ㉠20을 참조하라. 그리고 ‘바람에 거슬리므로’ 라는 귀절은 우천시(雨天時) 서쪽으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현상을 가리킨다.
- (3)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고난을 당하던 중 ‘밤 사경(四更)’ 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다. 여기에서 ‘밤 사경’은 새벽 3-6시 사이를 가리킨다. 시간 구분법에 대해서는 본시리즈 누가복음 12장 ㉠25를 참조하라.
- (4) 그런데 최근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일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물가에 위치한 갈대숲 혹은 호숫가에 난 길을 따라 걸으셨다는 것이다.
- (5) 물론 과학을 신봉하는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견해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겠지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도의 능력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경박한 판단이다.
- (6)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이적들이 어떻게 인간의 사고나 과학적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탄 배가 호수 한가운데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예수께서 호숫가에서 말씀하셨다면 그 폭풍우 속에서 과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대답할 수 (27, 28절) 있었을까?

20. ㉠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던 곳은 어느 정도의 위치였는가? (24 절)

- ㉠ (1) 개역 성경에서는 이곳을 가리켜 ‘수리’ (數里)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벳새다 율리아스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까지 배를 타고 왔다는 의미이다.
- (2)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수리’가 ‘바다 한가운데’ 라는 뜻을 지닌 <메논 테스 달라세스>로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 다소 모호한 표현이다.
- (3) 한편 요한복음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에이코시페테 에 트리아콘타> 곧 25-30 스타디온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를 ‘십 여리’(요 16:9)라고 번역하고 있다.
- (4) 여기에서 1스타디온(Stadion)은 184.85m이므로 결국 이 거리는 4.6km 내지 5.5km 정도로서 출발지로부터 10리쯤 조금 넘는 거리임을 알 수 있다.
- (5) 참고적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유대인들의 길이 및 거리 단위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명 칭 | 길 이 | | 관련 귀절 |
|------------------------------|---------|--------|------------------------|
| | 미터 단위 | 척(尺)단위 | |
| 손가락(四指, Finger) | 1.9cm | - | 렘 52:21 |
| 손바닥 폭(Hand breath) | 7.6cm | - | 출 25:25 |
| 뎀(Span) | 22.8cm | - | 출 28:16 |
| 규빗(Cubit) | 45.6cm | 1.5자 | 창 6:15 |
| 길(Fathom) | 1.8m | 6 자 | 행 27:28 |
| 갈대(Reed) | 2.67m | 9 자 | 계 21:15 |
| 스타디온(Stadion) | 184.85m | 0.5리 | 눅 24:13 |
| 마일(Roman Mile) | 1.48km | 4 리 | 5:41 |
| 안식일 길(Sabbath Day's Journey) | 1.1km | 3 리 | 행 1:12 |
| 하룻길(Day's Journey) | 32km | 80리 | 출 3:18; 요 3:34; 눅 2:24 |

21. ㉠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예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안심시키셨는가? (26, 27절)

- ㉠ (1) 그들은 예수를 보고 '놀라 유행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유행'에 해당되는 헬리어 (판타스마)는 실제로 존재하는 물체가 아니라 단지 환상에 의해 나타나는 '허깨비'를 의미한다.
- (2)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는 아직까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신앙을 갖추지 못했음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 (9:24-26).
- (3) 그러나 예수께서는 공포심에 질려 있는 제자들을 향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셨다.
- (4) 여기에서 '내니' (헬, 에고 에이미)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존재 곧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시고 (4:18-22; 9:9) 권능을 주셨을 뿐 아니라 (10:1) 많은 진리의 교훈과 (5:1) 천국의 비밀까지 가르쳐 주신 (13:11) 바로 그분이심을 확증시켜 주는 말이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쉽게 망각하여 쓸데없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죄인들조차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실족치 않도록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신다 (참조, 17:7; 28:10; 수 11:6; 왕하 19:6; 대하 32:7; 느 4:14; 시 49:16; 사 37:6; 막 5:36; 눅 12:4; 요 14:1, 27; 행 18:9; 뱀전 3:14).

22. ㉠ 베드로는 예수께 무엇을 요청했는가? (28-30절)

- ㉠ (1) 베드로는 예수께 존재를 확신시켜 주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어리석은 요청을 했는데 이 말 속에는 예수에 대해 아직까지도 반신 반의 (反信反疑) 하고 있는 그의 심령 상태가 잘 나타나 있다.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셨다. 그러나 풍랑을 보고 놀란 베드로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다.
- (3) 이와 같이 의심이 많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중에도 확신하는 믿음이 부족해 결국은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 (4) 이러한 자들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를 바로 쳐다 보지 않고 풍랑에 눈을 돌림으로써 물에 빠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귀한 체험 중에도 세상의 정욕과 유혹에 미련을 두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 6:4; 30:2)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조, 시 119:2, 34; 잠 3:5).

23. ㉠ 예수께서는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31, 32절)

- ㉠ (1) 예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를 물에서 건져 함께 배에 오르셨다.
- (2) 여기에서 예수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搀잡아 주신 것은 베드로에게 당신의 크신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사랑어린 배려이다.
- (3)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책망하심으로써 확실한 믿음이 없는 베드로에게 회개와 믿음의 성장을 촉구하셨던 것이다.
- (4) 한편 예수께서는 이 사건 외에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 이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는데 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제자들이 의복에 대해 염려했을 때 (6:30; 눅 12:28)
- ②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8:26)
- ③ 이적을 행하시는 당신의 권세에 관한 교훈을 망각한 제자들을 향해 (16:8)
- (5)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믿음이 적어 의심하는 자라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오

히려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피 주심으로써 진정으로 회개할 기회를 부여해 주신다.

- (6)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사랑을 깨달아 우리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22:37; 신 10:12; 11:1; 30:6; 수 22:5).

24. **㉠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3, 34절)**

- ㉠** (1) 예수께서 베드로를 건져 배에 오르셨을 때 그 사납던 바람이 그치게 되었는데(참조, 8:26) 이를 본 제자들은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다.
- (2)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은 그가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11:25; 창 14:19; 행 17:24)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어 주었고 또한 이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은 그에게 경배했던 것이다.
- (3)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는 말은 예수께 대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으로서 이제서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이다.
- (4) 한편 이러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후일 베드로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어졌다. 즉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란 예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16:16)라고 대답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완전히 파악한 그의 신앙 고백이었다.
- (5)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의 절대적 능력을 목격하고서야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욱 복되도다'(요 20:29)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확신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 (6) 참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자들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고 백 자 | 고 백 내 용 | 관련 귀절 |
|----------|---|---------|
| 베드로 | 첫번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 16:16 |
| | 두번째 고백: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삽나이다' | 요 6:69 |
| 나다나엘 |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 요 1:49 |
| 사마리아 여인 |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 요 4:29 |
| 마르다 |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 요 11:27 |
| 도 마 |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 요 20:28 |
| 에티오피아 내시 |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 행 8:37 |

25. **㉠ 계네사렛 땅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34-36절)**

- ㉠** (1)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네사렛 지방에 도달했을 때 그곳 주민들은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 (2) 여기에서 '계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에 위치한 평야 지역으로서 토지가 비옥했으므로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살았던 곳이다.
- (3) 따라서 병든 자들도 다른 지역보다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들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간구하였으며 그렇게 한 자들은 모두 병 고침을 받았다.

- (4) 한편 이러한 그들의 열성은 마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의 옷깃을 만져 병 고침을 받았던 (11:20-22; 막5:25-34; 눅8:43-48) 사건을 기억케 한다.
- (5)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치유에는 혈루증 여인의 경우에서 보장되었던 구원의 약속이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 (6) 그러므로 게네사렛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치유의 이적은 그들의 열정적인 신앙에 의한 보상이라기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의 발로(發露)임을 알 수 있다 (14절; 4:24; 8:16, 17; 9:13, 36; 12:7).
- (7)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육체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능력과 사랑을 바라는 기도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의 신앙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를 드려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참조, 행 15:11; 롬 3:24; 5:15; 11:6; 엡 2:5, 8; 딤후 2:11; 3:7).

화보자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물고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것이며 떡(빵)은 밀가루를 납작하게 반죽하여 불에 구운 것으로서 유대인들의 주식(主食)이다.



본장에는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이적이 기록되어 있다(13-21절).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註)를 달고 있다. '이 사건은 예수의 이적이 아니다. 먹을 것이 없느냐는 예수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신이 지니고 있던 도시락을 내놓지 않을 때 한 소년이 자신이 갖고 있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께 내놓자 이에 부끄러움을 느낀 사람들이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나눠 먹으니 그 수효가 오천 명에 이른 것일 뿐이다(참조, 요 6:9). '그러나 이 같은 견해는 예수의 신성(神性)과 그의 능력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인본주의 사상이다. 우리는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의 능력까지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16:16). 그러므로 우리는 본사건도 의심할 수 없는 예수의 이적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제 15 장 예수께서 참된 율법의 정신을 가르치시다

단락구분 1-2 유대인들의 유전(遺傳) / **3-6** 유대인의 유전과 하나님의 계명과 의 관계 / **7-14** 예수께서 유전을 고집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시다 / **15-20**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받을 형벌을 설명해 주시다 / **21-28**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치시다 / **29-31** 많은 병자를 고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 **32-39** 절병 이어(七餅二魚)의 이적

1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2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3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뇨

4 하나님이 이르셨도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뉘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5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7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도되

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10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들고 깨달으라

11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2 이에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결립이 된 줄 아시나이까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뿌릴 것이니

14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15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16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17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18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뉘방이니

20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21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렸나이다 하되

23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2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25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 딸 도우소서

26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7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29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30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찔구자와 소경과 병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 주시니

31 병어리가 말하고 찔구자가 건전하고 절뚝

밭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32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
리를 붙잡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
지이며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
한가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33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
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
가 있나이다 하거늘

35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36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
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 계
주매

37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
에 차게 거두었으며

38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사천 명이었
더라

39 예수께서 무리를 흠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
사 마가단 저경에 가시니라

1. ㉠ 본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라.

- ㉠ (1) 첫째, 본장을 통해 예수께서는 참된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시는 선지자요(21:11,46; 신 18:18; 막 6:15; 눅 7:16; 13:33; 24:19; 요 4:19; 6:14; 7:40; 9:17; 행 3:22) 학자요(사 50:4) 교사(요 6:25)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1-20절).
- (2) 두번째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요 6:25)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도를 발견할 수 있다(21-31절).
- (3) 세번째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고 보호하시는 목자(2:6; 요 10:11; 히 13:20; 벧전 2:25; 5:4; 계 7:17)로 나타나 있다(24절).
- (4)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악한 심령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대행자(참조, 25:32; 요 5:22; 9:39; 행 10:42; 17:31; 롬 2:16; 14:10; 딤후 4:1)로 묘사되어 있다(13, 14절).
- (5) 이처럼 본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성품과 사역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모든 다양함은 하나의 지향점을 지니고 있다. 즉 그분은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참조, 1:21; 4:17).

2. ㉡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일로 예수께 항변했는가? (1, 2절)

- ㉡ (1) 그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온 그들은 예수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항변했다.
- (2) 먼저 여기에서 ‘그때’란 어느 특정한 시기를 가르키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이야기를 전개시키기 위한 첨가어에 불과하므로 앞에 일어난 사건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참조, 11:25; 12:1; 14:1).
- (3) 또한 장로들의 ‘유전(遺傳)’은 다른 유전들 곧 ‘사람의 유전’(막 7:8; 골 2:8) 및 ‘조상들의 유전’(갈 1:14) 등과 마찬가지로 구약 율법에 대한 세부적이고 인위적인 해석을 가리킨다.
- (4) 결국 ‘유전’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법(行爲法)으로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율법과 동일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었다.
- (5) 이처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전들이 중요시되었던 이유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들에 의하면 유전은 하나님의 율법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 (6)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유전들을 하나님의 율법 및 계명과 동일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참다운 율법의 의미를 밝히심으로써 유전의 오류를 지적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기에 언급된 식사 때 손 씻는 규례 및 안식일에 관한 규례(12:1-13)이다.
- (7) 따라서 예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항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8)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도외시(度外視)하거나 폐지시키려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정신을 밝혀 이를 완전케 하러 오셨음을 알 수 있다(참조, 5:17; 롬 10:4; 갈 3:24).

3. ㉠ 예수께서는 어떤 예를 들어 유전의 모순을 지적하셨는가? (3-6절)

㉠ (1) 예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예로 들어 유전의 모순을 지적하셨다.

(2) 즉 하나님의 계명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비와 어미를 배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규정되어 있다(출 20:12; 신 5:16; 잠 1:8; 6:20-22). 그러나 그들의 유전에 의하면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3) 이러한 사실을 들어 예수께서는 그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 곧 십계명 중 제 5계명을 폐하게 한다고 지적하셨다.

(4) 한편 유전의 모순과 비리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및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딤후 1:14) 혹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벧전 1:18)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5) 이와 같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인간들이 마음대로 규정짓는다는 것은 엄연한 모순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된다(참조, 22:29).

(6)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리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결코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벧후 3:16) 그 말씀 속에 숨어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일이다(참조, 대하 1:10; 시 90:12; 잠 2:3; 엡 1:17; 골 1:9; 약 1:5).

4. ㉠ 유전을 고집하는 자들의 실상은 어떠한가? (8, 9절)

㉠ (1) 예수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사 29:13)을 인용해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셨다.

(2) 이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사야 당시의 위선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을 그대로 물려받아 표리 부동(表裏不同)한 인격과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었다.

(3) 따라서 '외식(外飾)하는 자들'이라는 말은(7절; 6:6; 7:5; 22:18; 23:13; 24:51; 막 7:6; 눅 12:56; 13:15) 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규명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4)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서 7장 ㉠4를 참조하라.

(5) 한편 오늘날 성도들 중에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이 없는가? 만약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계명에 내포되어 있는 참된 의미와 율법의 정신을 파악하여 그에 준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5. ㉠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10, 11절)

㉠ (1) 예수께서는 무리들에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고 가르치셨다.

(2) 여기에서 '입에 들어가는 것'은 음식을 의미하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은 말을 통해 밖으로 표출되는 인간의 정서와 사상을 가리킨다.

(3)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가르침은 손을 씻지 않고(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 및 서기관의 그릇된 유전에 대한 정문 일침(頂門一鍼)이었다.

(4) 이와 같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 결코 육체적, 외형(형식)적인 불결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발산되는 부도덕한 언행과 인격 등 영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육체적인 단장(丹粧)보다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벰전 3:3, 4) 가꿀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엡 3:16).

6. **㉠**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2절)

- ㉠** (1) 제자들은 예수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며 근심하는 태도를 보였다.
- (2)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책망(3-11절)에 대해 분노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막강한 세력을 지닌 그들이 이에 대해 보복 조치를 내릴 줄 알고 두려워했던 것이다.
- (3) 그런데 여기서 ‘...아시나이까’ 라는 제자들의 말은 단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알고 계신지 그 여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괜히 그들을 건드려 보복을 당하게 되었다는 원망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 (4) 결국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는 아직 그들이 예수의 존재에 대해 확실히 알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해 준다.
- (5)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갓 인간에 지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분노와 보복에 대해 어찌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겠는가?

7. **㉠** 바리새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13, 14절)

- ㉠** (1)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고 말씀하셨다.
- (2) 먼저 여기에서 ‘심은 것마다... 뽑힐 것이니’란 귀절은 ‘장로들의 유전’ (2절)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리가 아니므로 반드시 폐기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 (3) 다음으로 ‘저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을 뜻하며, ‘소경’은 육체적 소경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자(참조, 23:19; 사 59:10; 고후 3:14; 4:4; 엡 4:18; 벰후 1:9; 요일 2:11)를 가리킨다.
- (4) 결국 예수의 이러한 말씀은 유전의 실상을 지적함과 동시에 영적으로 소경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릇된 유전으로 인해 자신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멸망케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 (5)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길러야 할 뿐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는 영적 소경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참조, 요일 2:18-29; 4:6).

8. **㉠** 베드로의 요청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15, 16절)

- ㉠** (1) 베드로는 예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곧 ‘입에 들어가는...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1절)는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 (2)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반문하셨다. 여기에서 ‘너희도’라는 말을 볼 때 베드로 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 모두도 11절의 비유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
- (3)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만은 예수께서 사용하신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식을 특권으로 받았었다(13:11).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비유의 말씀조차 깨닫지

못했는데 이는 그들의 신앙이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 준다.

- (5) 이와 비슷한 예로 요 14:8-12 말씀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보 여 달라는 빌립의 요청에 대해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 지 못하느냐... 아버지께 합이러라’는 말씀을 통해 영적 통찰력이 믿음에 기인함을 가르치셨다.
- (6)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 말씀 속에 숨어 있는 진리의 비밀을 비롯해 모든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이해력(신 4:6;대상 22:12;시 119:104;잠 2:6;11:12;17:27;딤후 2:7) 과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참조, 17: 20;21:21;막 9:23;벧후 1:5).

9. **㉠**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라(17-20절).**

- ㉠** (1)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은 배로 들어가서 소화 작용을 거친 후 결국 배설되어 버리므로 인간의 마음(인격)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셨다.
- (2) 반면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꾀방’ 등으로서 이런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지 결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 (3) 여기에서 ‘마음’은 영혼과 지성, 정신, 의지 등 인간의 내면적 성향으로서 성경에서는 ‘속 사람’(엡 3:16) 및 ‘마음에 숨은 사람’(벧전 3:4)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은 인간의 성격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모든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된다.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내적 세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키워 나감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다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신 6:5;30:2;시 149:4;잠 3:5;전 5:18;행 7:20;롬 10:15;딤후 3:8;벧전 2:20).
- (5) 더 자세한 내용은 본시리즈 막 7장 **㉠** 15를 참조하라.

10. **㉠** **‘두로와 시돈 지방’에 대해 설명해 보라(2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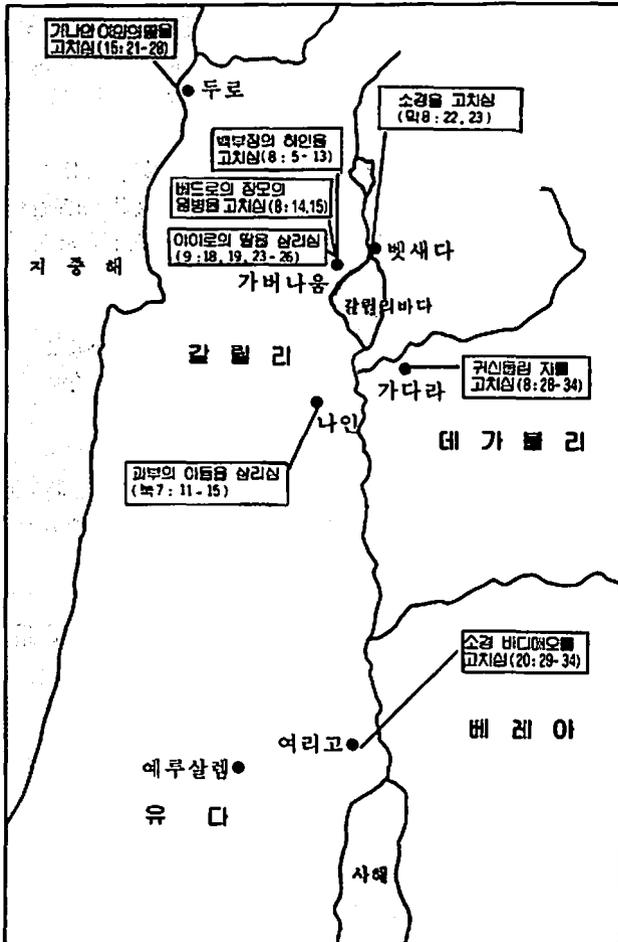
- ㉠** (1) 먼저 베니게(Phoenicia)의 유명한 항구 도시였던 두로(Tyro)는 시돈(Sidon)으로부터 약 40km 남쪽, 레바논과 이스라엘과의 국경에서 약 24km 북쪽에 위치한 국경 지역으로 서 고대 항해와 상업의 요지였다.
- (2) 다음으로, 두로와 자매 항구로 불리던 시돈은 두로와 베이루트의 중간 지역 곧 두로로부터 북쪽으로 약 40km, 베이루트 남방 48km 지점에 위치한 베니게의 중요 성읍이었다.
- (3) 한편 이러한 두로와 시돈은 성경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이 도시들의 기록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구 분 | 두 로 | 시 돈 |
|---------|--|--|
| 지정학적 의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여호수아가 아셀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던 성읍(수 19:29) ② 지중해 동해안에 있는 해양 무역의 중심지(겔 27:1-3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두로의 북쪽에 있는 가나안의 도시(창 10:15, 19) ②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수 19:28) |
| 주요사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솔로몬 성전 건축 시 건축 자재와 기술을 공급함(왕상 5:1-10;삼하 5:11) ② 징계와 멸망의 예언을 많이 받음(사 23:1-18;겔 26:1-18;욘 3:4-6;암 1:9) ③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의 귀신들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박함(삿 10:12) ②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의 우상을 섬김(왕상 11:5, 33) ③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됨(사 23:12) |

| | | |
|------------------|--|---|
| 주 요 사 건 | 말을 고치심 (21-28절; 막 7:24) | |
| | ④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따름 (막 3:8; 눅 16:7) | ④ 이스라엘 백성들을 헬라인의 노예로 팔았음 (욘 3:4-6) |
| | ⑤ 많은 사람들이 헤롯에게 화친을 청함 (행 12:20) | ⑤ 이곳 백성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음 |
| | ⑥ 바울이 7일 동안 머물며 전도함 (행 21:2-7) | ⑥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곳으로 사역하러 오심 (21절) |
| | ⑦ 예수께서 회개치 아니한 고을을 책망하실 때 이곳을 사악한 도시의 대명사로 사용하심 (11:21, 22; 눅 10:13, 14) | ⑦ 바울이 이곳을 방문함 (행 27:3) |
| | | ⑧ 두로와 함께 사악한 도시로 저주 받은 땅 (11:21, 22; 눅 10:13, 14) |

11. ㉠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신 지역을 지도에서 나타내 보고 그 외의 다른 병 고치신 지역도 표기해 보라.

㉡



12. **㉠** 예수께 자신의 딸을 고쳐 달라고 간청한 사람은 누구인가? (22절)

㉠ (1) 그녀는 '가나안 여자'였다.

(2) 그런데 마가는 이 여자를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막 7:26)이라고 했다.

(3) 여기에서 '가나안'은 원래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함의 아들의 이름(창 9:22-27)을 가리키는 말로서 후일 그의 후손들은 팔레스틴의 원주민이었던 가나안 족속이 되었다.

(4) 따라서 '가나안 여인'이란 바로 이러한 가나안 족속 출신의 여인을 가리킨다.

(5) 한편 마가의 기록에 나타난 '헬라인'이란 말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수로보니게'는 시리아에 속한 베니게란 뜻으로서 이 여인의 출생지가 시리아임을 가리킨다.

(6) 하여튼 마태는 본절에서 '가나안'이란 옛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마태가 그녀의 조상을 제시해 줌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옛 원수였던(참조, 민 31:7; 신 7:2, 3; 삼상 15:3) 가나안의 자손이 유대인의 메시아에게 나아온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

13. **㉠**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사용한 호칭은 무엇인가? (22절)

㉠ (1)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

(2) 여기에서 '주' (7:21; 8:2)와 '다윗의 자손' (9:27)이란 말은 메시아에 대한 칭호로서(시 17:21)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약속된 메시아임을 나타낸다(참조, 21:9, 15, 16; 22:42-45).

(3) 이처럼 그녀는 한낱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신앙심으로 인해 그녀의 간구는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유대인들의 불신(1-20절)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참조, 요 3:16; 롬 4:16).

14. **㉠** 가나안 여인의 간청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예수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22, 23절)

㉠ (1) 가나안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렸나이다'라고 소리질러 간청했다.

(2) 여기에서 가나안 여인의 간청은 특별한 요구 사항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실 그녀는 환자인 딸을 예수께 데리고 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마귀를 쫓아내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는 자기 집에 와서 이적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

(3) 다만 그녀는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과 자신의 딸이 처한 상황만을 고한 후 예수의 은혜가 임하기를 조용히 기다렸던 것이다.

(4)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녀의 간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는데 이는 이방인에게 이적을 베풀지 않으시려는 의도(24절)라기 보다는 그녀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5)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은 두 가지 귀중한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 있다.

①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 속에는 항상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간구할 때 응답이 없다고 해서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며 그 침묵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 간구해야 할 것이다(참조, 행 17:27).

② 둘째, 우리들은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간구할 때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기 보다는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고하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참조, 창 49:

18; 시 37:7; 40:1; 130:6; 사 25:9; 26:8; 눅 21:19; 히 10:36; 약 5:7; 벧후 1:6).

15. ㉠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23, 24절)

- ㉠ (1) 제자들은 예수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라고 요청했으나 예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고 대답하셨다.
- (2) 먼저 ‘그 여자가… 보내소서’ 라는 귀절은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고 그냥 보내 버리소서’ 라는 뜻이 아니라 ‘그녀의 요구를 빨리 들어주고 보내소서’ 라는 의미이다.
- (3)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아니하였도다’ 는 귀절은 예수께서 유대인을 위한 구세주로만 오셨다는 명목하에 그녀의 요청을 거절하셨다기 보다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말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4)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방인들에게도 이미 병 고침의 이적을 베풀으셨기 때문이다 (4:24, 25; 8:5-13).

16. ㉠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는 귀절은 가나안 여인의 어떤 심경과 태도를 암시해 주는가? (25절)

- ㉠ (1) 본절에 나타난 그녀의 언행(言行)은 22절의 상황과 거의 유사하나 그때보다 더욱 심화된 느낌을 주고 있다.
- (2) 여기에서 ‘예수께 절하여’ 라는 귀절에 나타난 그녀의 태도는 앞에서 예수를 향해 불렀던 칭호(‘주 다투의 자손이여’) 에서처럼 그분에 대한 경건한 마음 자세를 암시해 주고 있다.
- (3) 그리고 ‘저를 도우소서’ 라는 그녀의 간구는 앞에 언급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그녀의 간구는 앞에 언급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요청보다 더욱 간곡한 심경(心境)이 나타나 있다.
- (4) 그런데 이런 그녀의 말과 태도는 결국 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과 동일시하는 부모의 강렬한 사랑에서 발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5) 이처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뼈를 깎는 고통까지 감수하는 강렬하고도 고귀한 것이다 (창 21:16; 31:28; 37:35; 출 2:3; 삼하 12:16; 21:9, 10; 왕상 3:26; 막 5:23; 눅 15:20). 하물며 인간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 희생시켰던 (요 3:16)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이루 말하라! (참조, 7:11)
- (6) 한편으로 이러한 가나안 여인의 태도를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경건한 마음과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임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다 (참조, 17:15; 20:30; 25:16; 막 10:47; 눅 17:12, 13; 딤후 4:7; 딤후 1:6).

17. ㉠ 가나안 여인의 두번째 간구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26절)

- ㉠ (1)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고 개의 비유를 들어 답변하셨다.
- (2) 그런데 ‘개들’에 해당되는 헬라이어 (퀴나리아)는 애완 동물로 기르는 작은 강아지를 가리키는 말로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 (3) 그리고 ‘떡’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
- (4) 따라서 본귀절은 개가 아무리 주인으로부터 귀여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녀와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뜻으로서 결코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질 축복에 동참할 수 없음을 가리킨다.
- (5) 그러나 이 비유 역시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라기 보다는 24절의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하시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다.

- (6)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인내심 있는 신앙을 주시기 위해, 또는 믿음의 신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하는 경우가 있다 (참조, 9:28; 수 6:3; 사 7:7; 왕상 17:9; 왕하 3:16; 4:3; 막 7:27; 히 11:8; 약 1:3).
- (7) 이러한 경우 우리들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4:1-11) 이를 잘 견뎌 내어 보다 성숙한 신앙과 함께 영광과 존귀를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참조, 벰전 1:7).

18. ㉠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과연 어느 정도였는가? (27, 28절)

- ㉠ (1) 그녀는 예수께서 두 번씩이나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간구하면서 급기야는 '주여 울도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 (2) 이 답변 속에서 우리는 그녀의 겸손한 신앙과 지혜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그녀는 자신을 개와 같이 취급하는 예수의 비유에 대해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서 받을 수 있는 작은 축복을 덧붙이는 지혜로움도 보여 주었던 것이다.
- (3) 이러한 그녀의 답변을 듣고 예수께서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다.
- (4) 한편 여기에서 이 칭찬은 마치 8:10에서 백부장에게 한 말씀 곧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 는 말씀을 방불케 한다.
- (5) 이처럼 가나안 여인의 인내심 있는 신앙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했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소원한 바도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받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 (6) 그러므로 우리들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히 11:1) 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빌 4:6) 각자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한다 (참조, 8:13; 9:29, 30; 막 9:23; 히 11:6, 39; 약 1:5, 6).

19. ㉠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을 떠나신 후 어느 곳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과 칠병 이어의 이적을 배푸셨는가? (29-39절)

- ㉠ (1) 마태는 이 부분에 대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라고 막연하게 기록하고 있다.
- (2) 그런데 마가는 좀더 자세하게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불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막 7:31) 라고 기술하였다.
- (3) 여기에서 '데가불리' (Decapolis) 는 헬라어로 '10' 이라는 뜻을 지닌 (데카)와 '도시', '성읍' 을 의미하는 (폴리스) 가 합쳐진 말로서 그 당시 로마의 자치 행정 구역이었던 도시 국가 곧 '폴리스' (polis) 가 10개 연합되어 있던 지역을 가리킨다.
- (4) 이러한 데가불리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동남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참조, ㉠ 11의 지도) 그리스 로마 양식의 건축물, 이교 신전, 경기장 등 로마의 문화가 그대로 전달되어 있는 이방 지역으로서 예수께서는 이전에도 이곳을 지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신 적이 있었다 (4:24, 25).
- (5) 한편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31절) 는 사실은 적어도 이곳이 유대 지역이 아님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리고 '광야에 있어...언오리이까' (33절) 라는 제자들의 건의는 오병 이어의 이적 때와 마찬가지로 (14:15) 현재의 위치가 민가(民家)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임을 말해 준다.

(6) 이상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때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칠병 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곳은 데가볼리 중 갈릴리 호수 부근의 어느 한 지역으로서 민가와 다소 떨어져 있는 야산 지대임을 알 수 있다.

20. ㉠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가지신 감정은 어떠했는가? (32절)

- ㉠ (1)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고 말씀하셨다.
 (2) 이러한 감정에 대해서는 14장 ㉠ 10을 참조하라.

21. ㉠ 칠병 이어의 이적에 대해 설명해 보라 (32-38절).

- ㉠ (1) 예수께서 데가볼리 지방에서 병 고치는 이적을 베푸셨는데 이때 그 이적을 목격한 무리들이 사흘이 지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예수와 함께 있었다.
 (2) 이러한 무리들의 열성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이들이 돌아갈 때 기진(氣盡)하지 않도록 칠병 이어의 이적을 베푸셨다.
 (3) 즉 예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를 취해 오병 이어의 이적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참조, 14장 ㉠ 15) 이적을 베푸셔서 여자와 아이 외에 4천 명의 장정이 배불리 먹고도 일곱 광주리의 음식이 남았던 것이다.
 (4) 이 놀라운 일에 사용된 음식이 바로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이 이적을 칠병 이어의 이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5) 이 이적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4장 ㉠ 11-16, 막8장 ㉠ 2-7을 참조하라.

22. ㉠ 칠병 이어의 이적과 오병 이어의 이적을 비교해 보라 (32-38절).

㉠

| 구 분 | 오병 이어의 이적 | 칠병 이어의 이적 |
|---------|--|--------------------------------|
| 동 기 |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 |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 |
| 배풀어진 장소 | 벳새다 율리아스의 빈 들 | 데가볼리의 광야 |
| 사용된 재료 |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어 마리 |
| 진행 과정 | 먼저 축사부터 하시고 떡과 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분배 | 먼저 축사부터 하시고 떡과 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분배 |
| 먹은 인원 |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 명 | 여자와 아이 외에 사천 명 |
| 남은 음식 | 열 두 광주리 | 일곱 광주리 |
| 관련 귀절 | 14:14-21; 막 6:34-44; 눅 9:12-17; 요 6:5-13 | 32-39절; 막 8:1-9 |

본장의 요점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다 배뿔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36, 37절).



제 16 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단락구분 1-4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다 / 5-12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 13-20 베드로의 신앙 고백 / 21-23 예수께서 수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예언하시다 / 24-28 예수님을 따라갈 자들의 자세

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2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좋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5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6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대

7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8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이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9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10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11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13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15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

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20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1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 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22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잃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2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1. 본장의 핵심적인 교훈을 말하라.

- ㉠ (1) 본장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소개하면서 예수를 따라갈 자가 가져야 할 자세를 증거하고 있다.
- (2) 예수를 따라갈 자, 즉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유대주의자들처럼 헛된 표적을 구하지 않아야 하며 오직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전 1:21).
- (3) 비록 베드로와 같이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였을지라도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를 바로 따라갈 수 없다.
- (4) 우리는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도(道)를 굳게 믿을 때에 비로소 예수의 참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참조, 롬 10:9, 10).

2. ㉡ 예수께 표적을 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 절)

- ㉠ (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서 이들은 당시 유대교를 대표할 만큼 유명한 두 종파(宗派)였다.
- (2) 그러나 이들은 본래 종교와 정치에 관하여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다.
- (3) 즉 종교적인 면에서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히 지키는 전통주의자들이었지만 사두개인들은 천사와 부활도 믿지 않았으며 메시아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다(참조, 행 23:6-10).
- (4) 또한 정치적인 면에서 바리새인들은 비정치 단체(非政治團體)로서 종교의 자유만 허락되면 어떤 정치 체제도 용납했으나 사두개인들은 당시 지배자인 로마 제국과 협력 관계를 맺으며 일종의 정치 단체로서의 성격을 띠었다.
- (5) 이처럼 두 종파가 매우 대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대적하기 위하여 연합하였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표적을 구했다.
- (6) 이것은 마치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를 대적하는 일에 갑자기 친구가 되어진 것과 유사하다(눅 23:12).
- (7) 세상에는 다양한 성품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를 대적하는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참조, 롬 3:10-18).

3. ㉢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표적을 구했는가? (1 절)

- ㉠ (1) 그들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도록 예수께 요청했다.
- (2)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란 단순한 기적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적을 의미한다.
- (3) 이러한 요청은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께 표적을 구한 네번째 경우이다(12:38 이하; 요 2:18; 6:30).
- (4) 그들은 이 사건 후에도 또다시 예수께 표적을 구했다(눅 11:16).
- (5)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번도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 주시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진정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아셨기 때문이다(참조, 13:58).
- (6) 기적은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확신을 주지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4. ㉣ 예수께서 천기(天氣)를 들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 3 절)

- ㉠ (1) 종교적 지도자들의 요청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을 것이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흐릴 것이다’라고 하는 일기 분별법을 들어 대답하셨다.
- (2)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표적을 구한 자들이 갖고 있는 위선과 부정직(不正直)을 드러내려 하셨기 때문이다.
- (3) 사실 그들은 예수께 표적을 구하기 전에 자연 세계의 현상들을 통해서도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 (4) 주님의 대적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으므로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요 12:37-41). 즉 그들에게는 증거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정직과 겸손이 부족했다.
- (5) 이처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나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핑계할 수 없는 자신들의 교만에 의해서이다.

5. ㉠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무슨 뜻인가? (4 절)

- ㉠ (1) 이 말은 예수를 시험하려는 헛된 교만으로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지적한다.
- (2) 즉 예수께서는 그들의 육체적인 음란을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음란을 규탄하셨던 것이다(사 57:3-10; 약 4:4).
- (3) 예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대신 자기 배(腹)를 섬겼으므로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 음행이라고 할 수 있다(롬 1:8-25; 16:18; 빌 3:19).
- (4) 그들이 만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을 것이다(요 8:42).
- (5) 이와 같이 자신의 관심이 예수께 집중되어 있지 않은 자, 즉 말로는 예수를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항상 그 눈은 자신의 유익과 육체적인 욕심에 집중되어 있는 자는 '음란한 세대'에 속한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러한 구습을 떨쳐 버리고 그 목적하는 바가 새롭고 신령한 것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엡 5:8-21).

6. ㉠ 예수께서 강조하신 단 하나의 표적은 무엇인가? (4 절)

- ㉠ (1) 예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 밖에 보여 줄 것이 없다고 하셨다.
- (2) 이 요나의 표적에 관하여는 공생애 초기에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다(12:38-40).
- (3) 거기서는 주님께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셨다.
- (4)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에 관한 상징이었던 것이다.
- (5)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도 어떤 병 고침이나 신비적 환상 또는 기적에 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실에 두어야 한다(참조, 롬 1:3, 4).

7. ㉠ 누룩을 주의하라는 교훈이 주어진 때는 언제인가? (5, 6 절)

- ㉠ (1)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떠나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였다.
- (2) 얼마전 제자들은 보리떡 일곱 개로 4천 명을 먹이시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나 거두었었다(15:29-38).
- (3) 그러나 그들은 그 떡을 두고 떠났으며 그들에게는 떡이 한 조각밖에 없었다(막 8:14).
- (4)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한 적절한 기회로 활용하셨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상황을 적절히 이용하여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8. ㉠ 제자들은 예수의 교훈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7 절)

- ㉠ (1) 예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고 하신 교훈은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의미였다(12 절).
- (2)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물질적 떡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여 잘못 이해했다.
- (3)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은 종종 그의 말씀을 영적으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 (4) 니고데모의 경우는 거듭난다는 말씀을 육체적 출생으로 오해했고(요 3:4)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生水)를 물질적인 물로 오해했으며(요 4:11) 회당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영적인 경험을 말씀하실 때 실제의 삶과 피를 먹으라는 줄로 착각하였다(요 6:52-63).

(5)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육의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데에 그치지 말고 영적 차원에서 받아들여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

9. **㉠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오해를 어떻게 시정(是正)해 주셨는가? (8-11 절)**

- ㉠** (1) 먼저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다.
- (2) 그리고 그는 딱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14:17-21) 딱 일곱 개로 4천 명을 먹이신(15:34-38) 기적을 상기시키셨다.
- (3) 이것은 이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한 이유가 믿음이 적었던 사실에 있었음을 보여 준다.
- (4) 만일 그들이 물질적인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능력을 확고히 믿었다라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말씀을 영동하게 오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5) 우리 주님은 주의 능력에 의해 이미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받았다는 전체 하에서 신령한 교훈을 깨닫는 ‘큰 믿음’의 소유자를 원하신다(참조, 6:30-33).

10. **㉠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예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12절)**

- ㉠** (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부패와 악의 상징인 누룩으로 비유되었듯이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는 그릇된 가르침을 의미한다.
- (2) 먼저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율법, 계명, 유전, 의식 등 외적인 것에 치우쳐서 속과 겉이 다른 이중적인 생활을 하였다.
- (3)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처럼 형식만 갖추는 것으로 자신을 합리화(合理化)하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이다.
- (4) 또한 사두개인들은 매우 현세적이고 정치적이어서 종교를 현세적 행복의 수단으로 생각하였다.
- (5) 따라서 주님께서 천국을 세상의 재물이거나 정치 운동에 일치시키지 말라는 의미에서 사두개인의 교훈을 언급하셨던 것이다.
- (6) 물질적인 부요는 성도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없고 정치 운동이 천국을 완성시키지 못한다. 참복락은 마음의 행복이요 참변화는 마음의 변화이다.
- (7) 더우기 그들의 교훈은 처음은 사소하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리듯이 한 공동체 전부를 오류와 불건전한 사상으로 오염시키기에 적합한 파괴적 성향을 갖고 있다. 복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누룩(거짓된 교훈)으로 인해 멍들고 찢겨, 거기에서 파생된 많은 아픔들을 알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참조, 갈 1:6-10).
- (8) 오늘날도 이러한 거짓 교훈은 잘못된 양심과 사상으로 무장된 자들에 의해 한국의 강단에서 공공연히 전파되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시대상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맹신이나 무비판적인 태도로 모든 교훈들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복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그 교훈의 진위(眞僞)를 알아야 한다(참조, 요일 4:1-3).

11. **㉠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인가? (13절)**

- ㉠** (1)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신 후 이방의 지역에 속한 성읍인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다.
- (2)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루살렘의 북쪽 192km 지점으로 헤르몬 산 남서쪽 기슭에 위치한 성읍이다.
- (3) 이곳은 각양 각색의 종교가 신봉되고 있었으며 특별히 바알 신 숭배가 강한 우상의 도시였다.
- (4) 또 이곳에는 헬라의 신(神)인 ‘판’ (Pan)을 섬기는 신당들이 많았고 헤롯 왕이 아구

스도 가이사를 신격화하기 위해 신전을 세우기도 했다.

- (5) 이처럼 이교(異敎)와 미신이 판치는 도시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은 매우 의미 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2. ㉠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한 첫 질문은 어떤 내용인가? (13절)

- ㉠ (1) 예수의 첫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는 내용이었다.
 (2)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를 미쳤다고 생각하거나 거만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3)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그가 누구신가를 올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것은 구원의 기초가 된다(롬 10:9, 10; 요일 2:18-23; 4:1-3).
 (4) 예수의 신분과 사역은 병행되는 것이므로 결코 분리되어져서는 안 된다.
 (5)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증거하시기에 앞서(21-28절)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려고 하셨던 것이다.
 (6)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자세와 신앙 상태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알기를 소원해야 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참지혜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요 14:26).

13. ㉠ 예수의 첫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은 무엇인가? (14절)

- ㉠ (1) 그들은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2)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3:2; 4:7) 사람들은 목베어 죽임당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다(참조, 14:2).
 (3) 또한 예수께서는 매우 큰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으므로 엘리야라고 여겨지기도 했다.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다시 엘리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언되었다(말 4:6).
 (4) 한편 사람들은 예수께서 백성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의 심정으로 여러 번 우셨음을 생각하고(눅 19:41; 요 11:35; 히 5:7) 예수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로 간주하기도 했다.
 (5) 마지막으로 예수를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보는 사람들의 견해는 아직도 예수의 신성(神性)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 준다.
 (6) 위의 네 가지 견해는 각기 일면 타당성을 지니고는 있으나 예수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모두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그릇된 견해들이다.

14. ㉠ 예수의 둘째 질문은 무엇인가? (15절)

- ㉠ (1) 자신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견해를 물어 보신 예수께서는 이제는 제자들을 지명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두번째 질문을 하셨다.
 (2)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는 세상 사람들의 자기에 대한 견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제자들의 입을 통해 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자 함에 있었다.
 (3)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적 스승, 4대 성인 중의 한 사람, 위대한 사상가 등으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들의 견해와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구별되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해야 한다.

15. ㉠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16절)

- ㉠ (1)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였다.
 (2)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께 칭찬을 받을 만큼 모범적인 신앙 고백으로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3) '주는 그리스도시오' (헬, 수 에이 호 크리스토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를 메시아로,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시려고 보내신 분, 선지자들이 그에 관하여 예언한 모든 것을 성취시키시는 분으로 시인하였던 것이다.

- (4)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헬, 호 휘오스 투 데우 투 존토스). 당시 보통 사람들은 메시아를 인간 중에 고상한 자로 생각했으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 자신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메시아'로 고백하여 예수의 신성(神性)을 분명히 믿었다.
- (5)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요점은 진정한 신앙 고백은 입술로만의 고백에서 끝나서는 안 되며 내면의 깊은 경험적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생활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16. ㉠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17절)

- ㉠ (1)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바로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고 대답하셨다.
- (2) '바로나'란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다. 즉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요나'였던 것이다.
- (3) 또한 '혈육' (헬, 삭스 카이 하이마)이란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성' (神性)과 대조되는 '인간성'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
- (4)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은 베드로가 육신의 아버지인 요나가 아닌 하늘에 계신 예수의 아버지, 즉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신앙을 고백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 (5)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자는 학식이 많은 자가 아니라 어린아 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다(참조, 11:25-27).

17. ㉠ 예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란 새 이름을 주신 의미는 무엇인가? (18절)

- ㉠ (1)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베드로'란 새 이름을 주셨는데 이는 '반석'이란 뜻이다.
- (2) 주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 (3) 이 말씀은 결코 시몬 베드로란 한 사람을 교회의 기초로 삼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올바르게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기초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뜻이다.
- (4) 그러므로 구교(舊敎)에서 이 귀절을 근거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고 그를 신격화하는 것은 비성경적(非聖經的)인 처사이다.
- (5) 이는 곧 이어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베드로가 예수의 적이 되어 '사단'이라는 책망을 받은 사실에 의해서도 입증된다(23절).
- (6) 한편 오늘날 개신교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도 교회의 존재 여부와 교회 모든 소속원들의 생사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 착각하여 방자히 행하는 자들이 있다. 교회는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의 모임으로서 그 어느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18. ㉠ 예수께서 특별히 '내 교회'라고 하신 말씀 속에 포함된 의미를 설명하라(18절).

- ㉠ (1) '교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로 그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즉 밖으로 하는 뜻의 <에크>와 부르다는 의미의 <칼레오>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깊은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다.
- (2) 즉 이 말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킨다(참조, 롬 8:30). 그러므로 이 모임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죽음과 죄의 권세를 뛰어넘은 자라고 할 수 있다.
- (3) 이 말은 당시 한 도시나 지역을 다스리는 일을 돕기 위한 헬라 시민들의 일반적인 모임에 적용되었다(행 19:32, 39, 41).
- (4) 또한 구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LXX)도 <에클레시아>란 단어를 이스라엘 사람들

이 종교적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회중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다(신 31:30; 사 20:2).

- (5) 따라서 이 단어는 제자들에게 낯익은 단어였는데 예수께서는 무언가 다르고 또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내 교회' (헬, 무 텐 에클레시안)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 (6)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설하신 교회는 새롭고 다른 그 무엇이였다.
- (7) 예수께서는 그의 교회에서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연합하여 새로운 성전, 새로운 몸을 세우려고 하셨던 것이다(참조, 엡 2:11-3:12).

19. **㉠** '음부(陰府)의 권세'란 무슨 뜻인가? (18절)

- ㉠** (1)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플라이 하두>로서 '음부의 문' (NIV, the gates of Hades) 이라는 번역이 가능하다.
- (2) 성경에서 '문'은 권위와 힘을 상징한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성읍의 문은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장소로 간주되었다(신 16:18; 17:8; 사 4:11).
- (3) 그러므로 '음부의 문'이라고 하면 죽음과 사단의 조직된 힘을 나타내는 말이다.
- (4)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당연히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참조, 요 16:33).

20. **㉠**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함은 무슨 뜻인가? (19절)

- ㉠** (1) 여기서 '천국'은 앞에서 언급된 교회를 의미한다(18절). 따라서 '천국 열쇠'는 예수에 의해 장차 설립될 교회에 관련된 어떤 권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 (2) 그 권위는 '매는 것'과 '푸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교황 권과 신부의 면죄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는 분명히 예수를 주로 모신 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는 권한이다.
- (3) 후자는 베드로가 성령 강림 후 숭선하여 유대인의 차별적 의식을 따르지 않고 복음의 모든 특권을 이방인에게도 허락하는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다(참조, 15:7).
- (4) 또한 전자는 보다 보편적인 원리로서 죄의 문제에 대한 용서의 권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복음의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참조, 18:15-18, 35). 즉 구원의 열쇠를 천 예수께서(계 3:7) 함께 하시는 교회가 복음의 문을 닫아 버리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 물론 전자를 교회의 치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 (5) 이와 같은 권세는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한 사도 베드로에게 연합의 상징으로서 처음 주어진 것이며 나아가 후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되었다. 즉 교회는 생명의 귀중함을 다루는 영혼의 병원이다.
- (6) 이 사실에 대하여 어거스틴(Augustin)은 말하기를 '이 열쇠는 베드로나 열 한 사도의 것이 아니라 전교회에 부여된 권위이다'라고 하였다.

21. **㉠** 베드로의 훌륭한 신앙 고백이 있는 직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경계하셨는가? (20절)

- ㉠** (1) 예수께서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계하셨다.
- (2) 이는 예수 자신이 메시아로서 부적격자이거나 또한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해서가 아니었다.
- (3) 예수께서 이러한 경계를 하신 것은 순전히 제자들과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였다. 즉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불건전한 명예욕과 포부를 억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말도록 하셨던 것이다.
- (4) 사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의 사역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22절) 일반 백성들에게 그분의 메시아성을 전파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였다.
- (5) 그리고 만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일반에게 전파된다면 종교적 우월 의식에 사

로잡혀 있던 당시의 예루살렘을 중심한 이스라엘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며, 정치적 혁명을 기대하고 있던 무리들에게 예수가 혁명의 주체자로 오인받을 것이기 때문이었다(참조, 요 6:15).

- (6) 이상과 같이 예수께서는 세심한 배려를 통해 자신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건전한 명예욕이나 혁명에 대한 욕구 등에 의해 파멸되지 않도록 하셨다. 이 모든 사실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자신이 직접 소개하셨고 그에 따라 당신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며 전파할 수 있게 하셨다(참조, 26:63, 64; 눅 9:21, 22; 행 2:36).
- (7) 이처럼 참되고 혼란한 진리라 하더라도 예수의 관점에서 해석되지 않고 그분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항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고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22. ㉠ 예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고난받을 사실을 예언하셨는가? (21 절)

- ㉠ (1)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께서는 비로소 그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아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다.
- (2) 전에도 이러한 고난에 대한 암시가 있기는 했으나(4절; 12:39, 40; 요 2:19; 3:14; 6:51) 그의 죽음에 관하여 분명하게 밝히시기는 이것이 처음이다.
- (3) 특별히 주님은 여기서 자기가 장차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받을 것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셨다.
- (4)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최고 회의인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멤버들로 장로들은 민간 지도자들, 대제사장은 주로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을 가리킨다.
- (5) 바른 신앙 고백은 예수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생명, 기쁨, 주인되심 등)과 더불어 부정적인 부분(고난, 죽으심 등)까지도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단계에서 실패하고 말았다.

23. ㉠ 베드로는 무슨 말로써 예수께 간(諫)하였는가? (22 절)

- ㉠ (1) 그는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주여 그리 마음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강경한 태도로 말하였다.
- (2) 이러한 베드로의 말은 아직도 그가 메시아와 십자가를 연결시켜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보여 준다(참조, 고전 1:18).
- (3) 이처럼 예수의 신성(神性)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십자가의 도(道)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직은 불완전한 신앙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4)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은 감정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야지만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참조, 롬 6:10).

24. ㉠ 베드로에 대한 예수의 책망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23 절)

- ㉠ (1)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 예수께서는 갑자기 등을 베드로에게로 돌리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청천벽력(靑天霹靂)과 같은 책망을 하셨다.
- (2) 이 말씀은 앞서 행해진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16절) 그 자신의 선한 성품에서 우려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로 되어진 것임을 분명히 해준다.
- (3) 한편 예수의 책망은 진짜 사단에게 하였던 명령(4:10, '사단아 물러가라')과 비슷하면서도 정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4) 즉 4:10의 의미는 사단을 쫓아 버린 것이요, 본절에서는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 '다시 내 뒤를 따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예수의 책망은 베드로가 미워서 하신 것도 그가 진짜 사단이기 때문에 하신 것도 아니고 다만 그의 인간적인 생각을 고치시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 (6) 이처럼 우리는 세상과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에 인간적인 한계성 안

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생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25. ㉠ 예수를 따라갈 자는 어떤 사람인가? (24 점)

- ㉠ (1)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자이다.
 (2)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포 자기(自暴自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를 뜻한다(참조, 롬 12:1, 2; 갈 2:20; 빌 3:7-10).
 (3) 또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도 단순히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운 문제를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부당함과 수모와 고난과 죽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동참한다는 의미이다(참조, 5:10-12).
 (4) 그러므로 예수 제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자격 요건은 '온전한 헌신'과 '고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26. ㉠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역설(paradox)은 어떤 것인가? (25점)

- ㉠ (1) 예수께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용납이 되지 않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
 (2) 여기서 '목숨' (헬, 프쉬케)이란 현존하는 생(육체적인 생명)과 내세에서의 생(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동시에 의미한다.
 (3) 그런데 이 두 가지 개념으로서의 '목숨'은 한 인격 속에 내재하므로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4) 이러한 '목숨'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만약 현실의 만족과 안일을 위해 자기를 감싸거나, 적극적으로 예수를 위해 현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즉 현재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자아(self)와 생명(life)과 영혼(soul) 모두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라고 단정하셨다.
 (5) 반면에 예수를 위해 현실의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위해 십자가의 형벌(27:32)과 같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다(참조, 19:29).
 (6) 이처럼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땅에서 그분의 제자로 생활한다는 것은 끝없는 생명에의 도전이며 자기 희생임을 알아야 한다. 자기를 생각하는 자는 결코 예수를 생각할 수 없다.

27. ㉠ 예수께서는 목숨의 중요성을 무엇에 비교하셨는가? (26점)

- ㉠ (1) 예수께서는 '은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 얻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목숨'의 귀중성을 역설하셨다.
 (2) 사실 사람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쾌락과 영광 그리고 만족을 얻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살아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허사일 뿐이다(참조, 욥 27:16-21). 목숨과 견줄 만한 것은 이 세상에서 도무지 찾아 볼 수 없다(참조, 눅 12:13-21).
 (3) 이와 같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에 대한 소유에의 물음이 아니라 어떠한 생(生)을 살아가느냐, 참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에 대한 존재에의 물음이다.
 (4) 예수께서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으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내어 주셨다(참조, 롬 5:17, 18). 그분은 오늘도 참된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계신다(요 14:6).

28. **㉠** 예수께서는 당신의 재림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27절)

- ㉠** (1)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라는 말로 당신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다.
- (2)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는 비참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지만(2:1-18; 눅 2:1-20) 두번째 오실 때에는 '아버지의 영광', 즉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영광(요 17:22)을 가지시고 또한 당신의 수종자(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실 것이다(참조, 13:41; 25:31, 32; 눅 9:26).
- (3) 더우기 예수의 재림은 단순히 방문의 차원을 넘어서 모든 인격 하나하나에 대한 보응(보상과 심판)을 하시기 위해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신다(참조, 시 62:12).
- (4) 그때에 행하실 당신의 심판은 결코 외적이거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판단 기준에 따른 각 인격의 '행위'에 따라 치루어질 것이다(참조, 25:31-46).
- (5)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사모하며 오늘의 헌신과 회생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분과 함께 반드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참조, 딤후 2:12).

29. **㉠** 예수께서는 당신과 함께 지금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무엇을 볼 자도 있다고 하셨는가? (28절)

- ㉠** (1) 예수께서는 당신과 함께 서 있는 자들(당신의 제자들)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 (2) 이러한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많은 견해들이 따를 만큼 이 귀절은 난해하다. 즉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성령 강림을, 또는 변화산 사건을 그리고 약 4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A. D. 70)을 예언하신 것이라는 여러 해석들이 있다.
- (3) 그런데 여기서 '그 왕권'이란 하나의 왕국이나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께서 온 인류의 왕으로서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한다. 이 왕권은 당신의 사람들 삶 속에 은혜로운 통치로 드러나 그들을 보호하시며 안위하실 것이며, 반대로 악인에게는 당신의 엄중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 (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비록 변화산 사건이 본질의 온전한 성취는 아니라 할지라도 본절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예수 자신의 수난과 십자가를 강조하는 부분(21-28절; 17:9-13)은 변화산 사건(17:1-8)을 전후로하여 기록되었으며 당신의 수난으로써 이러한 왕권과 통치가 이 땅에 구체화되었다.
- (5)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영광에의 길은 곧 십자가의 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자'가 죽음을 맛보기 전에 보게 될 인자의 통치는 십자가와 함께 시작된다.
- (6) 이처럼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파괴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발견하게 한다(참조, 골 2:13-15).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의 자랑은 십자가일 수밖에 없다(참조, 고전 1:18).

본장의 요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16절).

제 17 장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신 그리스도

단락구분 1-2 변형(變形)되신 그리스도 / 3-4 베드로가 초막 셋 짓기쯤 간구하다 / 5-8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 9-13 앞서 온 엘리야 / 14-18 아이의 간질병을 고치시다 / 19-21 겨자씨 믿음 / 22-23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다 / 24-27 성전세의 문제

1 옛날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3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4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5 말할 때에忽然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6 제자들이 듣고 엎드리어 심히 두려워하니

7 예수께서 나와서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라

8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9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10 제자들이 물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라

1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도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13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14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가로되

15 주여 내 아들을 붙잡히 여기소서 제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잠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16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18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라

19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히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 (없음)

22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23 죽임을 당하고 세 삼 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24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25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뉘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나

26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라

27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1. ㉠ 본장에 나타난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들을 말하라.

- ㉠ (1) 본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사건(1-13절)과 아이의 간질병을 고치신 사건(14-23절), 성전세에 관한 기적적인 사건(24-27절) 등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 세 가지의 사건들은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 준다.
- (3) 즉 우리는 변화산 사건 속에서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며, 병 고침의 사건 속에서는 '권능의 왕'을 만나게 되고, 성전 세금의 일화에서는 '겸손의 왕'을 목격하게 된다.
- (4) 예수께서는 하늘 영광을 떠나서 죄악 중에 죽어 가는 우리를 권능으로 구원하시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용납하여 주신다.

2. ㉠ 예수께서는 언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가? (1절)

- ㉠ (1) 본절과 막9:2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 이후 '옛새 후'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눅9:28에는 '8일쯤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다.
- (2) 이 두 가지 기록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가의 말은 헬라식 어법으로 '일주일 가량 후에'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마태와 마가의 '옛새 후'가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학자들은 대속죄일과 장막절 사이의 6일간에 대한 암시라고 추정한다(Baltensweiler, Bonnard).
- (4) 이 견해에 따르면 예수의 첫 수난 예고(16:21-23)는 대속죄일에 있었으며 변화산 사건은 '초막'에 대한 언급이 있듯이(4절) 장막절에 일어났다.
- (5) 이 6일 동안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명상하고 토론하였을 것이다.

3. ㉠ 변화산은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가? (1절)

- ㉠ (1) 본절에 다만 '높은 산'으로만 표현되어 있는 변화산은 신앙 고백 사건이 이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약 22km 떨어진 헤르몬 산으로 추정된다.
- (2) 헤르몬 산은 만년설(萬年雪)이 덮여진 고도 약 3,000m의 거대한 산이다. 해저보다 낮은 요단 골짜기보다는 3,700m나 높다.
- (3) 예수께서 변화되신 지점은 높은 산꼭대기가 아니라 산 중턱 어떤 조용한 숲속이었을 것이다.
- (4) 그리고 변화되신 때는 해질 만한 저녁 때였던 것 같다(눅9:32). 왜냐하면 하산 시기가 이른날 아침이었기 때문이다(눅9:37).

4. ㉠ 예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 동행한 제자들은 누구인가? (1절)

- ㉠ (1)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등 세 제자이었다.
- (2) 이 세 제자는 전에 야이로의 집에서 12제자 중에 구별되어 예수와 동행한 적이 있고(눅8:51) 장차 예수께서 겿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와 따로 동행하게 된다(26:37).
- (3) 이처럼 이 세 제자는 12제자와 구별되어 세 번 주님과 동행한 셈인데 영국의 대설교가 캠벨 몰간(G. Campbell Morgan) 박사는 이 세 가지 경우가 모두 죽음과 관계된다고 지적하였다.
- (4) 즉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당신께서 죽음을 지배하는 승리자이심과 겿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죽음에 순종하심을 세 제자에게 가르치셨던 것이다.
- (5) 또한 본장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 영광스럽게 되실 것을 세 제자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5. ㉠ 예수께서는 어떻게 변형되었는가? (2절)

- ㉠ (1)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시되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 (2) '변형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테모르포테>는 외적으로 나타날 정도로 내적 성질이 변화됨을 의미하는 말인데(참조, 출 34:29)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내적 변화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다(롬 12:2; 고후 3:18).
- (3) 구약 시대의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의미에서 빛이 났었다면(출 34:29, 30) 예수께서는 스스로 변모되어 빛을 발하셨던 것이다.
- (4)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께서 인간 모세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확신하게 하였다.

6. ㉠ 예수께서 변형되실 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 예수와 대화하였는가? (3절)

- ㉠ (1) 본절 초두에 있는 '때에'로 번역된 헬라어 <이두>는 '불지어다'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단어는 5절에 두 번 더 사용되었는데 이는 놀람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 (2) 이 놀라운 광경 속에서 나타난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 (3)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격인 인물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한을 보여 주는 것이다.
- (4) 즉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예언하였고 그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다(눅 24:27; 히 1:1).
- (5) 그러므로 율법 또는 선지자의 채취가 서려 있는 구약 성경의 일점 일획이라도 없이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며(5:18) 약속된 그리스도의 왕국은 세워질 것이다(눅 1:32, 33, 68-77).

7. ㉠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3절)

- ㉠ (1)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게 될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참조, 눅 9:31).
- (2) 즉 예수께서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선지자(서)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더불어 자신의 죽으심을 전후한 일련의 사건을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신의 죽으심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이미 예견된 일임을 보여 준 것이다.
- (3) 이 일을 목격했던 베드로는 훗날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 옛날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에서의 죽으심, 즉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일'(헬, 엑소도스)을 자신에게도 적용시켜 언급하였다(참조, 벰후 1:15).
- (4) 이처럼 예수께서 영광과 이스라엘 왕권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던 제자들에게(참조, 16:22) 당신의 죽으심(이 세상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는 일)을 말씀하신 것은 그 죽으심이 가지고 있는 복된 진리 때문이다.
- (5)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단적으로 보여 주신 사건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다(참조, 빌 2:6-8). 이것은 분명 실패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로의 출발이었다. 즉 그분의 죽으심은 영원한 생명을 창출시킨 일이었다(참조, 롬 8:2).

8. ㉠ 베드로가 예수께 제안한 내용은 무엇인가? (4절)

- ㉠ (1) 베드로는 자신 앞에 벌어진 놀라운 장면에 압도되어 바로 그곳에 머물면서 초막 셋(예수, 모세, 엘리야를 위해)을 지을 것을 소원하였다.
- (2) 여기서도 그는 자신의 성급한 성격을 억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여행자들이나 손님을 환영하기 위해 마련했던 임시 거처인 초막을 마련하기로 했다. 물론 이 초막은 해방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참조, 레 23:42, 43).
- (3) 이처럼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목격할 수 없는 영광스런 장면을 보고는 그곳에 안주하

여 그 감격과 희열을 지속시키려는 욕구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는 당신의 죽음을 예비하시고 제신 예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사였다.

- (4) 이와 같이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과 기대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킬 때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피할 수 있다(참조, 갈 2:20).

9. ㉠ '구름' 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5절)

- ㉠ (1) '구름' 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스런 임재로 상징되었다(참조, 출 40:34-38; 느 9:19; 시 78:14; 켈 1:4).
 (2) 또한 가끔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반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했다(참조, 26:64; 눅 21:27; 살전 4:7).
 (3) 이처럼 '구름' 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광휘 그리고 그분의 계획의 실현(재림)을 의미한다.
 (4) 인간의 좁은 판단으로 그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던 베드로 앞에 이러한 영광스러운 이 나타난 것은 의미 심장한 일이다.
 (5)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허위와 욕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만이 고쳐질 수 있다. 즉 그분만이 오류 투성이인 우리를 진리로 이끌 수 있다(참조, 요 14:6, 13; 17:17).

10. ㉠ 구름 속으로 어떤 소리가 들렸는가? (5절)

- ㉠ (1)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가 들렸다.
 (2)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받으실 때도 들려 온 말씀이었는데 (3:17) 이 말씀은 결국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의 구속 사역을 하남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보여 주는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3장 ㉠ 22를 참조하라.
 (3) 특별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심을 확인시켜 주는데 (신 18:15; 행 3:22, 23; 7:37) 모세 자신이 예언한 대로 우리는 그의 말씀을 청중해야만 한다.
 (4)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변화된 예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분의 말씀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받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들으라'는 명령형은 1회적인 청중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다.

11. ㉠ 구름 속에서 들려 온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6-8절)

- ㉠ (1)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엎드렸고 매우 두려워했다.
 (2) 이러한 제자들의 경험은 헛데겔 강가에서 이상(異像)을 보고 두려워하던 다니엘의 경우와 유사하다(단 10:4-9).
 (3) 다니엘의 경우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에 의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를 받았듯이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키셨다(참조, 10:12).
 (4) 이때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 모세와 엘리야도 이미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5) 이 사실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때 다른 모든 계시들은 부차적인 것이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6) 이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삼아야 할 것은 큰 이적과 기시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것이다(참조, 벰전 1:24).

12. ㉠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는가? (9절)

- Ⓐ (1) 예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들이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다른 사도들에게조차도 드러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 (2)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한 다섯번째이자 마지막 명령이다(참조, 8:4; 9:30; 12:16; 16:20).
- (3) 이렇게 당부하신 이유는 변화산 사건이 피상적이고 또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을 촉발시킬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16장 ㉑21).
- (4) 예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마저도 수난받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실 메시아를 부활 후까지 이해하기 어려웠다면 일반 군중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 (5) 오늘날 성도들도 어떤 신비적 기적이나 현세적 축복을 통해 예수를 전파하기 보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참조, 고전 11:26).

13. ㉑ 제자들이 먼저 와야 할 엘리야에 대하여 질문한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 Ⓐ (1)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나타난 엘리야가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말씀(말 4:5, 6)의 성취라고 생각했다.
- (2) 말 4:5, 6의 내용은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이다.
- (3)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뜻인데 변화산에서의 엘리야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렸다.
- (4) 그러므로 제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하지 않고 환상과 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하였던 것이다.

14. ㉑ 엘리야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의 대답은 어떠하였는가? (11, 12절)

- Ⓐ (1)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중적인 말씀으로 답변하셨다.
- (2) 즉 예수께서는 미래적인 의미에서 말 4:5, 6에 예언된 대로 과연 엘리야는 반드시 와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라고 먼저 대답하셨다.
- (3) 그리고 과거적인 의미로 볼 때 이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으로 와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다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참조, 눅 1:17).
- (4) 이것은 말 4:5, 6의 말씀을 변화산의 현상의 의미와 더불어 명쾌하게 풀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 (5) 즉 단순히 문자적으로 구약 시대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는 서기관들의 견해와 같이 하던 제자들의 잘못된 이해를 고쳐 주시고자 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가리키는 그리고 이미 그 사역을 마친 엘리야(세례 요한)에게 그 초점을 맞추도록 하셨다(참조, 11:14; 눅 1:17).
- (6) 세례 요한은 그 옛날 아합 왕과 이세벨에 의해 주도되었던 우상 숭배를 꾸짖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강조하였던 엘리야처럼(참조, 왕상 21:17-24)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나라 건설에 준비 사역을 하였던 것이다(참조, 3:1, 2; 눅 3:7, 8).

15. ㉑ 예수와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14-20절)

- Ⓐ (1) 예수께서 그의 세 제자(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계신 동안 한 사람이 자기의 귀신들린 아들을 아홉 제자에게 데려와 고쳐 달라고 간청하였다.
- (2) 그러나 아홉 제자는 그를 고쳐 주는 데 실패했다.
- (3) 그때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구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 (4) 여기서 '무릎을 꿇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고뉘페테오>는 경배한다는 뜻은 없고 겸손

과 간구의 태도만을 나타내는 말이다(27:29; 막 1:40; 10:17).

- (5) 따라서 아이의 아버지는 참된 믿음으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소연하였던 것이다.
- (6)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셨다(17절).

16. **㉠** 소년은 어떤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는가? (15절)

- ㉠** (1) 소년의 병세(病勢)에 대한 복음서의 설명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소년이 매우 위급(危急)한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본절에서 마태는 그 소년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면서 큰 해를 당하고 있었다고 묘사한다.
- (3) 또한 마가는 그가 병어리로서 발작을 일으켜 쓰러진 후 거품을 흘리고 또 이튿 가는 증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막 9:17, 18).
- (4) 이에 대해 누가는 그 소년이 외아들임을 밝히면서 발작을 시작하면 크게 떨면서 거품을 흘리며 심한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눅 9:38, 39).
- (5) 특별히 본절의 ‘간질’이라고 하는 병명(病名)은 헬라어로 <셀레니아제타이>인데 ‘달(헬, 셀레네)에게 함락된다’는 뜻이다(참조, 4:24).
- (6) 이는 간질 발작이 만월(滿月) 때와 달의 모양이 바뀌는 상·하현 때에 주기적으로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에 생긴 명칭이다.

17. **㉠** 제자들이 소년의 간질을 고쳐 주지 못한 사실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16절)

- ㉠** (1) 이러한 제자들의 실패는 갈릴리 전도 말기 기사(14:1-18:35) 전체를 통해 계속 반복되는 주제이다(4, 10, 11절; 14:16-21, 26-31; 15:16, 23, 33; 16:5, 22).
- (2)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이 간질병을 고치는 데 실패한 것은 이상하게 보인다.
- (3)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분명히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다(10:1, 8).
- (4) 그렇지만 아직 제자들은 훈련받는 과정에서 겸손을 배워야 했으며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간질병을 고치는 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 (5)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어떤 마술과 같이 인간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성도의 믿음 여하에 따라 나타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18. **㉠**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란 무슨 뜻인가? (17절)

- ㉠** (1) ‘믿음이 없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피스토스>는 ‘불성실’ 혹은 ‘불신앙’ 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불신앙’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참조, 20절).
- (2) 또한 ‘패역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에스트람페네>는 완료 수동 분사로서 어떤 행위의 결과로 일어나는 상태를 언급한다기 보다는 형용적인 의미를 갖는 말이다.
- (3) 따라서 병렬 배치된 ‘믿음이 없고’와 ‘패역한’이란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함축한다.
- (4) 즉 믿음이 없다는 것은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상의 태만 다시 말해 패역한 마음에서 기인한다는 의미이다.
- (5)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도 증거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고의적인 태만과 증거를 왜곡함 때문이다.

19. **㉠** 아이의 병은 어떻게 하여 치유되었는가? (18절)

- ㉠** (1)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그때부터 깨끗함을 받았다.
- (2)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위를 시사해 주는 사건으로서 사단의 횡포가 제 아무리 심각하고 도저히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질병마저도 그분에게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내 준다.

- (3) 이처럼 마태는 동일한 사건을 다룬 막9:20-27과 눅9:37-43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부수적인 내용을 삭제하고 오직 당신의 권위와 말씀으로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당신의 능력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 (4)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인류의 죄로 인해 인류에게 미치게 된 모든 악영향들(질병, 귀신에게 사로잡힘, 고통 등)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한분이심을 확신하게 된다(참조, 사 53:4, 5).

20. **㉠** ‘겨자씨 믿음’의 의미를 설명하라 (20절).

- ㉠** (1)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간질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로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강조하신 ‘겨자씨 믿음’은 기도에 충실한 삶과 거기에 동반되는 참된 믿음을 의미한다(참조, 막 9:29).
- (3) 사실 인간의 시각으로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별가치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안에 내포되어 있는 무한한 생명력과 가능성을 알고 계신다.
- (4) 이러한 질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제자들의 믿음은 얼마나 극미(極微)했는지 겨자씨만큼 도 되지 못했다.
- (5) 우리의 조그마한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적인 교제가 지속될 때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참조, 빌 4:13).
- (6) 그러므로 우리는 외형적인 믿음을 전시(展示)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참믿음을 갖기에 힘써야 한다.

21. **㉠** ‘갈릴리에 모일 때’란 언제를 가리키는가? (22절)

- ㉠** (1) 이 말은 예수와 3명의 제자가 나머지 9명의 제자와 합류했던 대략적인 시기를 가리킨다.
- (2) 변화산 사건 후 제자들은 함께 모이자마자 이미 알리셨던 메시아 수난에 관한 예언(16:21-23)을 다시 화제로 택하여 이야기하였다.
- (3) 이때 예수께서 두번째로 메시아 수난에 관한 예언을 말씀하셨다(참조, ㉠7; 16장 ㉠22).

22. **㉠** ‘반 세겔’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24절)

- ㉠** (1) ‘반 세겔’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은 <디드라크마>로서 ‘두 드라크마’라는 뜻이다. 이것은 일반 노동자의 2일분 품삯에 해당한다.
- (2) 여기서 <디드라크마>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 로마에 바치는 공세라기 보다는 성전 유지 비용에 충당되었던 ‘성전세’(聖殿稅)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 (3) 화폐의 단위로서 <디드라크마>는 ‘반 세겔’에 해당하는데 아마도 두 사람이 한 세겔 혹은 테트라드라크마(4 드라크마) 짜리 동전 한 개를 세금으로 바쳤던 것 같다(27절).
- (4) 본래 이 반 세겔 세금은 매 인구 조사 시 모든 유대인 남자 중 20-50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되었는데(출 30:11-16) 이 돈은 장막 유지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 (4) 이것이 바벨론 포로 후에는 3분의 1 세겔로 매년 부과되기도 했는데(Josephus) 다시 반 세겔로 환원되어 예수 당시까지 전래되었던 것이다.

23. **㉠** 반 세겔이 성전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관세와 정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25절)

- ㉠** (1) 관세와 정세란 한마디로 ‘공세’(civil taxes)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24절의 성전세와는 달리 시민이 군주에게 바치는 세금을 의미한다.
- (2) 예수께서 성전세를 내는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공세를 비유로 드신 것은 성전세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공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 (3) 이 비유의 요점은 왕의 아들들이 자기 부친이 부과하는 세금에서 면제되듯 예수도 자기 부친께서 부과하신 성전세에서 면제된다는 것이다.
- (4)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성전세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임을 승인했으나 자신은 유일 무이한 아들이시므로 면제된다는 뜻이다(26절).

24. ㉠ 예수께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성전세를 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26, 27절)

- ㉠ (1) 그 이유는 성전세 받는 자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2) 본문에 '오해'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칸달리조>로 보통 오해나 감정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가는 길에 걸려 넘어질 장애물을 놓는다'는 뜻의 강한 표현이다.
- (3)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으셨지만 혹시라도 일반 대중들이 비약적으로 해석하여 실족할까봐 몸소 납세의 본을 보여 주신 것이다.
- (4) 일찌기 예수께서는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할례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할례를 받으셨고(눅 2:21)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세례를 받으셨다(눅 3:21).
- (5)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령한 권리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요 1:12) 다른 사람들로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는 본을 보여야 할 것이다(참조, 롬 13:7; 고전 8:13; 9:12, 19-23; 딤후전 2:1, 2).

25. ㉠ 예수께서는 성전세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으셨는가? (27절)

- ㉠ (1)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것으로 성전세를 풀도록 하셨다.
- (2) 이러한 명령을 하신 의도는 비록 당신이 성전세를 내는 하나의 보통 인간이지만 또 세상의 모든 물질을 파악하고 계시는 이 세상의 참된 왕이며 주권자이심을 밝히시기 위해서였다.
- (3) 즉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이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잡은 고기에 그 쇠뿔이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능력[全知]과 그 고기를 정확히 낚아 내도록 하셨던 능력[全能]을 소유하고 계셨음을 보여 주려고 하셨다.
- (4) 한편 예수께서 성전세를 내지 못할 만큼 청빈(淸貧)한 삶을 사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 세상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세상의 가장 가난한 자로 살아가셨던 것이다.
- (5) 우리의 삶도 바로 이러한 겸손과 청빈과 절제의 모습을 지녀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계 뿐만 아니라 물질계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이 곧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참조, 6:25-34). 물질에 얽매인 삶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본장의 요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0절).

제 18 장 천국 시민의 자격

단락구분 1-4 자기를 낮추는 자 / 5-11 한 영혼의 귀중성 / 12-14 하나님 아버지의 뜻 / 15-20 교회 안에서 범죄한 형제를 다루는 법 / 21-35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는 자

1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2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3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6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땃줄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7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8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9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10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11 (없음)

12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5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

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17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1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22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 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한지니라

23 이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 회개할 때에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26 그 종이 엎드리어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 그 동관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32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빚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

관을 붙잡고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나 하고
 34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감도록 저를 옥
 중들에게 붙이니라

35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
 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
 시리라

1. ㉠ 본장에 나타난 천국 시민의 자격을 요약해 보라.

- ㉠ (1) 본장에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 시민의 자격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2) 천국 시민의 자격 중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우러나온 겸손이다(1-14절).
 (3) 두번째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사유(赦宥)의 은총을 깨닫고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는 사랑이다(21-35절).
 (4) 본장에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갖고 있던 자만심과 세상적인 영웅심을 여지없이 경책하시면서 겸손과 사랑을 통해 성도의 바른 생활을 실천하도록 교훈하시고 있다.

2. ㉠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라고 질문한 동기는 무엇인가? (1절)

- ㉠ (1) 예수의 제자 중에 세 사람은 특별한 사랑을 받고 종종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자들인 것처럼 여겨졌다(17:1-3).
 (2) 더우기 베드로는 때때로 책망을 받기는 했으나 계속해서 서열상 12제자의 선두에 놓여졌다(14:28, 29; 15:15; 16:16-18, 22, 23; 17:4, 24-27).
 (3) 이렇게 특정한 제자들이 구별된 대우를 받았던 사실로 인하여 제자들은 천국에서의 계급에 대하여 논쟁하게 되었고 급기야 예수께 대하여 질문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3. ㉠ 천국에서 큰 자를 묻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1절)

- ㉠ (1) 본절 첫머리에 나온 '그때에' 라는 말은 제자들의 질문이 예수께서 장차 닥쳐 올 고난과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실 당시에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17:22, 23).
 (2) 이러한 시점에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차지할 지위만을 생각하며 서로의 우월성에 대하여 다투기까지 했던 것이다(눅 9:46).
 (3)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의 이타주의적 사랑과 십자가의 도(道)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화 하였던 것은 아직도 이기심(利己心)에 얽매어 있었기 때문이다.
 (4)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만일 그들이 이웃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산다면 그들 세계에는 항상 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참조, 빌 2:1-4).

4. ㉠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2-4절)

- ㉠ (1) 제자들은 질문을 한 후 예수께서 자기들 중에 누구를 지명하여 큰 자로 세우실런지 숨을 죽이며 기다렸다.
 (2)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 중 어느 누구도 지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마도 베드로의 아들인 듯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셨다(17:25; 막 9:33).
 (3) 그런 후에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 즉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다.
 (4) 더우기 충격적인 것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3절).
 (5) 이러한 예수의 말씀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야말로 천국의 시민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자격임을 분명히 밝혀 주고 있다(참조, 시 147:6; 149:4).

5. ㉠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겸손의 의미는 무엇인가? (4절)

- Ⓐ (1) 예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모델로 제시하시면서 진정한 겸손을 설명하셨는데 이는 매우 의미 심장하다.
- (2) 우리는 보통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과대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롬 12:3).
- (3)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과대 평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卑下)하지도 않는다.
- (4)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지나친 자기 비하로 하나님께 책망받았다(출 3:14).
- (5) 어린아이는 위와 같은 두 가지 면을 잘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겸손의 모델이 될 만하다.

6. ☞ 예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인가? (5절)

- Ⓐ (1)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 (2) 여기서 '어린아이'란 문자적으로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앞의 귀절(1-4절)에서 정의된 '어린아이' 다시 말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 (3) 6절에 나오는 '나를 믿는 이 소자'란 표현이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
- (4)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위대하거나, 현명하거나, 힘이 있어서 영접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온 까닭에, 즉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접받는 것이다.
- (5)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낮추는 자들은 어떤 인간적인 기준에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차원에서 대우를 받는다(참조, 23:12).

7. ☞ 예수 믿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가? (6절)

- Ⓐ (1) '실족케 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칸달리조)는 '넘어지다' (16:23), '오해하다' (17:27)란 뜻도 있으며 '범죄케 하다' (NIV, sin)로도 번역될 수 있다.
- (2) 믿는 성도, 그중에서도 순수하고 어린 신앙을 소유한 한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만하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엄한 형벌을 받게 된다.
- (3) 그 형벌은 연자 뱃줄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투신(投身)하여 죽게 하는 그리이스나 이집트의 처형 양식과 비교되어 본절에 암시된다.
- (4) 여기서 '연자 뱃줄' (헬, 물로스 오니코스)은 직역하면 '나귀 뱃줄'로서 당나귀가 돌리는 큰 뱃줄을 말한다(눅 17:2).
- (5)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이웃에게 걸림돌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들어주고 이웃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이다(참조, 엡 4:2).

8. ☞ 실족케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는 말씀이 나타내어 주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7절)

- Ⓐ (1) 성도를 실족케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만하는 범죄로 인하여 실족케 하는 자는 반드시 화를 당하고 만다.
- (2)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화를 가져오게 한 사람들의 책임을 피할 수 있게 하거나 가볍게 할 수는 없다(13:13; 사 10:5-12; 행 4:27, 28).
- (3) 그러한 필연성은 누가 하나님께 강요해서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 (4) 하나님께서는 형벌의 필연성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며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하신다(24:10-13; 고전 11:19).
- (5)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위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여 형제의 잘못을 지혜롭게 권면하고 또한 지나친 자신의 주장과 행동을 삼가하여 모든 이들과 더불어 평화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참조, 롬 12:18).

9. ☞ 예수께서는 범죄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라고 교훈하셨는가? (8, 9절)

- Ⓐ (1) 만일 손이나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고 눈이 범죄케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는 말씀으로 교훈하셨다.
- (2) 이 말씀은 범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되 마치 손이나 발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물리쳐야 할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다.
- (3) 예수께서는 비슷한 표현법으로 간음죄를 물리치는 교훈에 관하여 말씀하셨다(5:29, 30).
- (4) 특별히 본절에서는 교만한 마음으로 어린 신자를 업신여기거나 실족하게 하는 범죄를 하지 않도록 준엄한 경계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다.
- (5) 우리는 마치 정욕(情慾)을 엄격하게 통제하듯이 우리의 교만도 철저히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신앙은 결단이 따르는 날마다의 싸움이다.

10. ⓐ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 Ⓐ (1)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까지라도 그들을 지키는 수호 천사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면서 수종 들고 있기 때문이다.
- (2) 천사들은 구원 얻을 성도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영적 실존으로서(히 1:14) 교회와(계 1:20) 국가의(단 10:13; 12:1) 단위로도 택한 백성들을 지켜 준다.
- (3) 어떤 학자는 본절에 언급된 ‘소자들’의 ‘천사들’은 사후에 하나님 앞에 율리움 받을 그들의 영이라고도 해석하나(Warfield) 문맥상 자연스럽지 못하다.
- (4) 본절의 천사들이 성도들을 수종드는 영적 실존으로 보는 것은 비록 성도가 세상적으로는 비천해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입증되 어진다(요 1:12; 고전 6:3).

11. ⓐ 소자들을 멸시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12, 13절)

- Ⓐ (1) 하나님께서 지극한 관심으로 어린 소자들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 (2)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자면 그는 그의 양 떼에 속한 하나하나의 양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계신다.
- (3) 이 한 마리 길 잃은 양에 대한 그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보다 도로 찾은 한 마리를 더욱 기뻐하신다.
- (4)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눅 15:4-7에 더욱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12. ⓐ 소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가? (14절)

- Ⓐ (1) 예수 믿는 소자 중 하나라도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 (2)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참조, 담후 2:4; 벧후 3:9).
- (3)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물량주의적 기준에서 장년 교인보다 어린아이를 경시하거나 부자 교인보다 가난한 교인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범죄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참조, 약 2:1-7).

13. ⓐ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하는가? (15-17절)

- Ⓐ (1) 이 부분은 앞에서 언급된 소자를 실족케 하지 말라는 교훈에 연속되는 말씀으로 특별히 형제(소자)가 범죄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준다.
- (2) 죄를 범한 형제로 하여금 실족치 않도록 올바르게 교도(矯導)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3단계 처리 방법을 따라야 한다.
- (3) 즉 먼저 개인적으로 권고하고(참조, 례 19:17) 안 될 경우 2, 3명의 증인과 함께 권고하고(참조, 신 19:15) 그래도 안 될 경우 교회의 처리권을 통하여 권고한다.
- (4) 이러한 단계를 거쳐 최후로 교회의 권고마저 듣지 않을 경우 비로소 출교나 파문과 같은 권징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5) 이처럼 바른 절차를 거쳐 범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형제가 실족하는 일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교회의 영적 순수성을 지킬 수 있다.

- (6)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권고와 권징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즉 무조건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 주려고 하다 보니 정작 다스려야 할 죄와 실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에 가서 교회 전체가 혼란한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형제에 대한 정당한 권고와 권징은 그 형제의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는 처사이다.

㉠ 범죄한 형제를 개인적으로 권고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15절)

- ㉠ (1) 예수께서는 개인적으로 대면하여 형제를 권고할 경우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을 전제 사실로 말씀하셨다(3,4절; 갈 6:1).
- (2) 예수의 이러한 말씀은 레 19:17의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는 말씀과 일맥 상통한다.
- (3)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책망을 듣는다 하여도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 (4) 그러나 사랑에서 우러나온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의 잘못을 권고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 (5) 만약 이런 겸손한 권면으로 죄악된 자리에 있는 형제를 바른길로 이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책망이나 감정쉬인 질책, 또 한편으로는 무관심한 태도를 청산하고 겸손으로 허리띠를 띠고 전해야 할 말을 분명히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 증인과 함께 형제를 권고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16절)

- ㉠ (1) 개인적인 권고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단계는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고하는 일이다.
- (2) 이런 점진적인 방법은 신 19:15의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는 교훈과 매우 유사하다.
- (3) 그런데 본절에 언급된 증인들의 역할이 그 범죄자의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를 추가 제시함으로써 범죄자를 회개케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일이 잘못되어서 교회 처리권이 행해질 경우 개인적인 권고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언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 (4) 그러나 신 19:15이 형제에게 자기 잘못을 인식시키려는 노력을 언급하지 않은 채 전체 회중이 모인 앞에서 재판을 통한 죄의 선고만을 다루고 있음을 볼 때 후자가 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 땅에서 매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의 근본 의미는 무엇인가? (18절)

- ㉠ (1) 이 말씀은 예수께서 교회에게 복음 전파의 권한을 맡기셨음을 의미한다.
- (2) '매고 푸는' 용어는 본래 복음 전파를 통한 생명을 나누는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인데 마태는 여기서 그 말들을 면죄(免罪)의 뜻과 결부시켰다.
- (3) 물론 마태가 이것을 결부시킨 것은 예수께서 피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였지(참조, 요 20:23; 행 16:4) 로마 카톨릭의 대부적인 교황이라는 한 인물의 우월성과 특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참조, 16장 ㉠20).
- (4)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순수성 보호와 효과적인 복음 전파 그리고 교회 전체의 진정한 성숙 및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한 정당한 처리권을 행사해야 한다(참조, 행 5:1-11).
- (5) 만약 교회가 이 '매고 푸는' 작업을 개율리할 때 교회는 분명히 세상화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바를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누를 범하게 될 것이다.

17. ㉠ 예수께서 말씀하신 합심 기도의 원리는 무엇인가? (19절)

- ㉠ (1) 예수께서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고 합심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다.
- (2) 여기에 나타난 합심 기도의 중요한 원리는 두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땅'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것이다.
- (3) 이는 앞절에서 언급된 푸는 축복의 성취이기도 하다.
- (4) 초대 교회의 120문도는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120이라는 수자보다 일치된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행 1:14; 2:1-4).
- (5) 실상 형식적으로 모인 천 명의 기도보다는 마음을 같이 하여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두 명의 기도가 더욱 귀중함을 기억해야 하며 이러한 원리에서 합심 기도는 이루어져야 한다.

18. ㉠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절)

- ㉠ (1)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란 말은 자신을 부정하는 대신 신앙의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집회를 가리킨다.
- (2)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1:14) 신령한 집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게 된다.
- (3) 이러한 집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고 집회에 참석한 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신다.

19. ㉠ 베드로가 질문한 용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21절)

- ㉠ (1)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형제를 용서하는데 몇 번까지 해야 할 것인지를 질문하면서 7번까지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자문 자답(自問自答)하였다.
- (2) 당시 유대인들은 한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에 3번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네번째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참조, 암 1:3, 6, 9, 11, 13; 2:1, 4, 6).
- (3)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도 3번에 한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베드로는 파격적으로 일곱 번까지 용서해 줄 것을 제시하면서 예수의 칭찬을 기대하였다.
- (4) 그러나 일곱이라는 수자는 완전수로서(참조, 레 26:21) 유대인의 관념을 초월하는 것이기는 했으나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기준에서 나온 생각에 불과했다. 즉 이것은 어느 정도는 형제의 실수를 용서해 주되 그 다음에는 정죄해야 한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20. ㉠ 베드로의 자문 자답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22절)

- ㉠ (1) 베드로의 파격적인 용서 개념의 제의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초월적인 용서의 개념을 말씀하셨다.
- (2) 즉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일곱 번 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 (3) 이것은 문자적으로 490번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용서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 (4) 예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는 무리한 듯한 요구를 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참조, 요일 4:10).
- (5)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용서의 개념은 신적인 차원에서 제시된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데 예수께서는 다음에 이어지는 예화(23-35절)를 통해 그 의미를 명백히 밝히셨다.

21. ㉠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을 요약해 보라(23-35절).

- Ⓐ (1) 예수께서는 형제의 잘못을 무제한적으로 용서해야 할 이유를 밝히시기 위해 일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 (2) 왕에게 일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는 너무 막대한 금액이어서(일반 노동자가 약 250년 동안 벌어야 하는 만큼의 분량) 갚을 수 없는 그의 빚을 단지 왕의 궁중에 의해 모두 탕감받았다.
- (3) 이제 새로운 삶을 얻은 그는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일백 데나리온(일반 노동자의 100일 품삯)의 빚을 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다.
- (4)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다시 일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들여 영원한 형벌에 처했다.
- (5) 이 비유의 이야기는 주기도문에 나타난 용서의 원리(6:12, 14-16)와도 일맥 상통(一脈相通)한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를 덧입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용서해 줄 만한 일이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22. ⓐ ‘그 종들’이란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말하는가? (23절)

- Ⓐ (1) ‘종들’에 해당하는 헬리어 <들로이>는 문자적으로 ‘노예들’이란 뜻이지만 본절에서는 거대한 식민 제국에 있어서 높은 계급의 시민 노예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는 빚의 액수인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규모였기 때문이다.
- (3) 한편 예수께서는 천국의 상속자들이 얼마나 많이 죄 용서를 받았는지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장법을 사용하시고 있다.

23. ⓐ ‘1만 달란트’면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 (24절)

- Ⓐ (1)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며 1만 달란트는 오늘날 약 20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 (2) 이것은 예수 당시 갈릴리 도(道)의 1년 세입이 300달란트였고 유대 전국이 로마에 바친 1년 세금액이 800달란트였음을 미루어 볼 때(Josephus) 얼마나 엄청난 액수인지를 알 수 있다.
- (3)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보여 주시는 비유이다.

24. ⓐ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지고 갚지 못하는 자에게 어떤 조치를 단행하였는가? (25절)

- Ⓐ (1) 주인은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종의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얼마간의 빚을 환불하게 했다.
- (2)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끈 돈을 갚지 못하는 자들이 종종 노예로 전락되기도 했다(참조, 출 22:3; 레 25:39, 47; 사 50:1). 뿐만 아니라 로마법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채무자의 모든 가족은 하나의 종속물 또는 재산으로 취급되었다.
- (3) 그러므로 주인에게 끈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종은 완전히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 (4) 이것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해 파산을 선고받았던 인간을 비유한 것이다. 비록 인간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의지와 선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려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25. ⓐ 파산 지경에 이른 종이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26, 27절)

- Ⓐ (1) 물론 그 종이 주인에게 애원하였지만(26절) 그 애원은 결코 지불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단지 주인의 노여운 마음을 조금 식히기 위해서 간청하였던 것이다.
- (2) 그 종이 탕감받을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었다.
- (3) 즉 그 탕감은 전적으로 주인의 배려였으며 조건 없는 사랑(불쌍이 여김)에 기인한 것이었다.

(4) 이와 같은 사실은 전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무능한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참조, 요일 4:10).

26. ㉠ 이에 비해 '1백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 (28절)

- ㉠ (1) 당시 1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賃金)의 단위로서 6000분의 1 달란트에 해당한다.
- (2) 따라서 1백 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해서 60만분의 1에 불과하는 액수이다.
- (3)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심에 대하여 인간 상호간의 죄 용서는 얼마나 하기 쉬운 것인가를 나타내 주고 있다.
- (4) 우리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이제 우리들 상호간의 미미한 죄를 지체하지 말고 용서해야 한다.
- (5)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27. ㉠ 임금이 무자비한 종을 영원한 형벌에 처한 사실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34, 35절)

- ㉠ (1) 임금이 처음에 그렇게 관대하게 용서하고 후에 또 그렇게 엄격하게 벌을 주었던 행동은 하나님의 속성을 비유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 (2) 즉 하나님께서 것처럼 무자비한 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동정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신 동시에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 자들이라면 마땅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듯이 해야 한다(엡 4:32).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참조, 약 2:13).

28. ㉠ 빛진 자가 다시금 감옥에 갇힌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34절)

- ㉠ (1) 처음에는 왕이 그를 감옥에서 구원하여 내었으나 나중에는 종이 제 스스로 자신을 감옥에 넣어 버렸다.
- (2) 그 종은 원리 원칙을 내세워 자기 친구를 옥에 가두어 버렸다.
- (3) 그러자 왕은 '내가 그렇게 원리 원칙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라고 묻고 '그렇다면 나도 너를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 라는 말을 하며 그의 빛의 대가로 감옥살이를 시켰던 것이다.
- (4)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원리 원칙을 내세우며 각박하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경종을 울려 준다.
- (5) 우리 모든 인류는 원리 원칙대로 하면 모두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죽음과 멸망을 당해야 한다(참조, 창 2:17).
- (6)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
- (7)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땅히 서로를 용서하며 자비와 긍휼을 시행해야 한다.

29. ㉠ 예수께서는 형제에게 진정한 용서를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가? (35절)

- ㉠ (1) 예수께서는 '너희가 각각 중심(中心)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이것은 형제들의 모든 불의를 용납하라는 비윤리적인 권고가 아니라 형제들에 대해 인색하고 냉정하지 말라는 적극적인 권고이다.
- (3) 여기서 예수께서는 그 삶에서 형제에 대한 용서라든지 자비 등이 발견되지 않는 파렴치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와 위로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셨다.
- (4) 사실 우리는 입과 진성으로는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 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한다. 그

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용서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다. 용서는 위선적이거나 겉만의 화해가 아니라 온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화해의 메시지여야 한다. 비록 우리는 겉으로는 포악한 보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상대방을 헐뜯고 극한분을 품고 있을 때가 있다. 이것은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한 상태이다(참조 5:22).

- (5) 우리는 속과 겉이 동일하게 용서하는 참된 용서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하며 그분으로부터의 용서와 위로를 덧입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참조 6:12).
- (6)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하고 있다. '공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홀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홀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약 2:13).

연구자료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침호

| 침 호 | 성 경 | | | |
|----------|-------------|------------|------------|-------------|
| |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 주 | 21절;7:21 | 1:3;12:37 | 5:8;6:46 | 4:49;13:36 |
| 그리스도 | 1:16;16:16 | 8:29;15:32 | 2:11;9:20 | 1:20;11:27 |
| 구 주 | | | 1:47;2:11 | 4:42 |
| 임마누엘 | 1:23 | | | |
| 독 생 자 | | | | 1:14;3:16 |
| 메 시 야 | | | | 1:41;4:25 |
| 하나님의 아들 | 14:33;16:16 | 1:1;5:7 | 1:35;22:70 | 1:34;11:27 |
| 다윗의 자손 | 9:27;22:42 | | 1:27 | |
| 선 생 | 8:19;17:24 | 5:35;10:17 | 3:12;21:7 | 3:2;13:13 |
| 유대인의 왕 | 2:2;27:11 | 15:26, 32 | 23:3, 37 | 12:13;19:19 |
| 선 지 자 | 14:5;21:11 | | 24:19 | 4:19;7:40 |
| 인 자 | 8:20;18:11 | 8:31;14:41 | 6:22;22:48 | 9:35;13:31 |
| 선한 목자 | | | | 10:11 |
| 길 | | | | 14:6 |
| 진리 | | | | 14:6 |
| 생명 | | | | 14:6 |
| 말씀 | | | | 1:1 |
| 참빛 | | | | 1:9;8:12 |
| 부활 | | | | 11:22 |
| 양의 문 | | | | 10:7 |
| 포도나무 | | | | 15:1, 5 |
| 하나님의 어린양 | | | | 1:29 |

제 19 장 천국 시민의 윤리

단락구분 1-2 유대 지경으로 가시다 / 3-9 이혼에 관한 교훈 / 10-12 독신에 관한 교훈 / 13-15 어린이아이를 축복하시다 / 16-22 부자 청년의 방문 / 23-30 소유에 관한 교훈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 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2 큰 무리가 좃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3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5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된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이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7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중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8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율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10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삽나이대

11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12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이다

13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15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16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9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21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 하시니

22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25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26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27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좃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8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좃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30 그러나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될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천국 시민의 윤리를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 요단 동편의 유대 지경인 베레아 지방으로 가서서 가르치신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다.
- (2) 예수께서는 먼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결혼과 이혼 그리고 독신 생활에 관한 올바른 규범을 말씀해 주셨다.
- (3) 그리고 나서 부자 청년의 영생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때 주께서는 재물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다.
- (4) 이러한 본장의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도다움게 살 수 있도록 성경적 윤리관을 가르쳐 주고 있다.
- (5) 즉 성도는 결혼을 정욕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성결한 결혼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재물을 정욕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오직 주를 가장 귀히 여김으로써 재물을 올바르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 (6)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성도는 이 세상에서조차 천국 시민으로서의 영광에 찬 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2. ㉠ 본서 가운데서 본장의 문맥적 위치를 말하라.

- Ⓐ (1) 본장은 예수의 공생애가 바야흐로 말기로 접어드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turning point)으로 나타난다.
- (2) 즉 그 동안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께서 이제 본장에 이르러 유대로 옮겨 가신 후 계속 유대 지방에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서 공생애의 최후를 맞이하시게 되었던 것이다.
- (3) 특별히 본장에서부터 26:5까지는 이야기 구성상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앞부분에 비해 몇 가지 상황의 변화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 (4) 그중 대표적인 것은 예수와 유대 지도자들의 관계가 도저히 화해되어질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예수께서 극심한 배척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이다.
- (5) 이처럼 예수께서 배척을 받으심과 동시에 이 부분에서는 종말론이 강력하게 대두되어 구속사의 장엄한 종국(終局)을 예고해 준다.
- (6) 이러한 문맥에 비추어 우리는 본장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의 질문의 의도를 이해해야 한다.

3. ㉠ '요단 강 건너 유대 지경'이란 어느 곳을 가리키는가? (1절)

- Ⓐ (1) 여기서 '유대 지경'(헬, 타 호리아 테스 유다이아스)이란 말은 '유대 통치 영역'(NIV, the region of Judea)이란 뜻으로 유대 지방을 통치하고 있던 당시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임을 암시하고 있다.
- (2) 이곳은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는 통행로와 같은 지역이었다.
- (3)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하였으므로 직행 경로인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요단 강을 건너 베레아로 우회하여 유대 지방으로 가는 길을 사용했다(참조, 요 4:9).
- (4) 예수께서는 전장(前章)까지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후 이제 본장에서부터 유대 지방으로 옮겨 사역하시기 시작하신다.
- (5) 특별히 본장과 20장은 유대로 가는 도중 베레아에서 사역하신 기사를 다루고 있다.

4. ㉠ 결혼과 이혼에 관한 기사에 특별히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3-12절)

- Ⓐ (1) 이 주제는 교회와 사회 어디에서든지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목회적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 (2) 이 기사 중에는 몇 가지 극도로 어려운 단어와 문구(참조, 9절)가 있어 올바르게 해석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또한 이 기사는 평행 귀절인 막 10:2-12과의 연관성을 통해 그 중요한 의미가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5. ㉠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절)

- ㉠ (1) 본서에서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시험하고 배척하려는 부류의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다(3절;12:2, 14, 24, 38; 15:1; 16:1; 22:15, 34, 35).
- (2) 본절에 나타난 바리새인들도 예수로 하여금 곤경에 빠뜨릴 기회를 찾다가 이혼 문제를 질문함으로써 예수를 시험하려 했던 것이다.
- (3) 이처럼 그들은 악한 의도로 질문했으나 오히려 예수께서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완전한 교훈을 말씀하심으로 당시 흔들리고 있던 결혼 윤리를 바로잡아 놓으셨다.
- (4) 오늘날 성도들도 악한 자들의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에 진리를 드러내고 빛을 발할 수 있다(참조, 엡 5:11-13).

6. ㉠ 이혼 문제에 대한 유대인의 전통적 사고 방식은 어떠한가? (3절)

- ㉠ (1) 유대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상은 정확히 두 학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이혼 문제에 관한 견해는 이 두 학파가 서로 심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 (2) 그 두 학파인 힐렐(Hillel) 학파와 샴마이(Shammai) 학파는 기본적으로 이혼을 인정하면서도 이혼의 사유에 대하여 의견의 차이를 크게 보인다.
- (3) 그 의견 차이는 신 24:1의 ‘수치되는 일’(히, 에르와트 다바르)이라는 귀절에서 ‘수치’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의해 나타났다.
- (4)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샴마이 학파는 ‘수치’라는 단어를 엄정한 수치, 즉 간음으로 해석하여 이혼의 조건을 간음만으로 제한하였다.
- (5) 한편 자유주의적인 힐렐 학파는 ‘수치’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여 지극히 사소한 잘못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예를 들어 음식을 제대로 요리하지 못하는 것도 이혼의 조건으로 생각했다.
- (6) 힐렐의 추종자 아키바(R. Akiba) 같은 이는 남자가 자기 부인보다 아름다운 여인에게 눈을 돌리는 경우도 여자에게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7. ㉠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로 예수를 시험할 때 어떤 결과를 의도하였는가? (3절)

- ㉠ (1) 당시 선지자 세레 요한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부당하게 이혼시킨 후 자기 아내로 취한 행위를 책망하다 헤롯에게 미움 받고 사형당한 사건이 있었다(14:1-2).
- (2)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세레 요한과 같이 이혼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여 그 사건에 휩쓸리게 함으로써 세레 요한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 (3) 또한 만일 예수께서 이혼에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그때는 모세의 율법(신 24:1, 2)을 무시하는 것으로 몰아세우려고 의도하였다.
- (4) 그러나 이런 악한 의도는 결국 관철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만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8. ㉠ 이혼 문제에 관한 예수의 대답은 어떠한가? (4-6절)

- ㉠ (1)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결혼의 신적 존엄성을 강조하신 후 인간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모든 이혼이 불가(不可)함을 분명히 밝히셨다.
- (2) 그는 먼저 창 1:27을 인용하여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4절) 만드신 사실을 상기시키셨다. 즉 각각 다른 성(性)과 특질을 가진 두 개체를 만드시고 그들의 만남을 통해 조화를 이루게 만드셨던 것이다. 이는 일부 다처제나 이혼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한 1:1의 만남을 강조한 것이다.

- (3) 계속해서 그는 '부모를 떠남'에 대해서 역설하였다. 즉 상대방을 책임질 수 있는 완숙한 인격이기 위해서는 경제력이나 결정권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부모에게 의지하는 태도를 청산해야 할 것을 말씀하였다.
- (4) 그리고 이어서 창 2:24을 인용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는 결혼으로써 한 몸을 이루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였다.
- (5) 다시 말하면 부부의 연합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부부된 자들은 무엇보다 상대방의 인격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장점 뿐 아니라 단점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열려진 마음이 있어야 한다.
- (6)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며 더우기 이렇게 한 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신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결혼을 내리셨다.
- (7) 그러므로 결혼을 쉽게 생각하듯이 이혼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가치관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결혼이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이다.
- (8) 이처럼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일진대 결혼을 파괴하는 이혼은 원칙적으로 지극히 부당한 일이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도 하다.

9. **㉠** 바리새인들은 재차 무엇을 질문하였는가? (7절)

- ㉠** (1) 이혼의 불가능성에 대한 예수의 대답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신 24:1-4의 말씀을 들어 예수께 재차 질문을 하였다.
- (2) 그들은 모세의 말에서 최고의 권위를 찾으려 하면서 예수의 말씀에 반발하고 나섰던 것이다.
- (3)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내세운 모세를 언급하며 그의 말을 정확히 해석하십시오써 그들의 입을 완벽하게 봉쇄하셨다.
- (4) 이것은 구약의 가르침이 예수의 가르침과 일맥 상통하여 완전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건이기도 하다(5:17; 눅 16:31).

10. **㉠** 예수께서는 모세의 말이 지니는 참뜻을 어떻게 밝혀 주셨는가? (8절)

- ㉠** (1) 예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한 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말씀은 이혼에 대해 모세가 허락한 것이 창조의 명령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 마음의 완악함을 반영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 (3) 따라서 모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이혼을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따름이다.
- (4) 이에 대하여 칼빈(Calvin)은 '엄격히 말하자면 이혼에 대한 모세의 율법은 허락이라기 보다는 엄하게 금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 (5) 여기에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다같이 일단 원칙적으로 이혼을 금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 (6)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짝을 떠나는 성급함이 없어야 한다. 이혼을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 상대방의 결점과 자신의 불건전한 욕망을 생각하기 보다는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지혜와 겸손이 필요하다.

11. **㉠** 모세 당시 이혼의 사유로 받아들여졌던 '수치'는 어떠한 것이었는가? (7, 8절)

- ㉠** (1) 7, 8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혼에 관한 모세의 율법은 신 24:1-4을 가리킨다.
- (2) 특히 신 24:1에는 이혼의 사유로 '수치되는 일'이 거론된다.
- (3) 여기서 '수치되는 일'은 간음과 동일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시 간음에 대한 일반적인 형벌은 죽음이었지 이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신 22:22).

- (4) 마찬가지로 ‘수치되는 일’이 아내의 간통에 대한 의심과 동일시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아내의 간통한 사실을 밝히는 절차에는 아내가 간통했을 경우에 저주를 내리게 하는 쓴 물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민 5:5-31).
- (5) 아마도 모세가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혼 사유인 ‘수치되는 일’은 모종(某種)의 충격적인 죄악임에 틀림없다.
- (6) 따라서 그것은 추잡하고 부도덕한 행위로서 간통에 제한되지는 않더라도 때로는 간통을 포함하는 행위, 즉 여성간의 동성에 혹은 이상한 방법으로 성욕을 채우는 변태 성욕 행위 등을 가리킨다는 추측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

12. ㉠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혼의 규례는 어떠한가? (9절)

- ㉠ (1) 예수께서는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하는 것은 곧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셨다.
- (2) 그렇다고 이 말씀이 음행한 연고가 있을 때 이혼하라는 적극적 명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3) 이 말씀은 음행한 사례가 있을 경우라도 먼저 용서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다가 부득이한 경우에 최후의 방법으로 이혼이 허락된다는 것을 뜻한다(참조, 1:18, 19; 호 1:2; 3:1).
- (4) 현대 사회는 성 문란의 시대로 불리울 만큼 성 도덕이 타락하고 있어 미국 같은 나라는 결혼한 1.8쌍 중 1쌍이 이혼하는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
- (5) 한국에도 이러한 자유주의적 사고 방식이 흘러들어와 이혼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가운데 법적 수속으로만 이혼하는 경향이 늘어가는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 (6) 이처럼 어지러운 세태(世態)에서 성도들은 이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야 하며 그에 앞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혼을 해야 할 것이다.

13. ㉠ 제자들의 반응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0절)

- ㉠ (1)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혼의 규례가 엄격함에 대하여 결혼하여 그러한 짐에 얽매이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 (2) 즉 예수께서 이혼은 거의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 제자들은 결혼이 무거운 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 (3) 바울도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권고에서 그들의 육신에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전 7:28).
- (4) 결국 결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신으로 살 각오를 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 (5) 왜냐하면 독신으로 살 각오를 한 자만이 결혼의 어려운 짐 가운데서도 이혼을 하지 않고 순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14. ㉠ 예수께서 말씀하신 독신의 의미는 무엇인가? (11, 12절)

- ㉠ (1)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말씀하셨다.
- (2) 첫째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敍子)란 선천적인 성 불구자(性不具者)를 의미하고 둘째 사람이 만든 고자란 수술을 받고 남성의 능력을 상실한 자를 가리킨다(참조, 행 8: 26-39).
- (3) 셋째로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인데 이는 신앙적인 결단에 의하여 성욕을 절제하며 독신으로 사는 성도를 의미한다.
- (4) 여기서 ‘고자’란 말(鰥, 유누코이)은 원어적으로 보면 ‘침실을 맡은 자’란 뜻으로 고대 동양에서 왕의 침실 곁에서 시종들던 내시에서 유래된 말이다.
- (5) 결론적으로 예수께서는 독신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후에 자기를 따랐던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고전 7:7-9) '천국을 위하여' ('천국을 얻기 위하여'가 아니라) '천국의 요청과 천국에 대한 깊은 관심 때문에' 독신 생활을 하도록 기꺼이 권장하셨던 것이다.

15. ㉠ 어떤 사람이 독신으로 살 수 있는가? (11, 12절)

- ㉠ (1) 예수께서는 독신을 권장하면서 '오직 타고 난 자만이' 그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 (2) 이 말씀은 결국 결혼이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듯이 독신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의미한다.
- (3) 그러므로 독신이 결코 본질적으로 결혼 생활보다 더 거룩한 것이라고 분수는 없다(딤후 4:1-3; 히 13:4).
- (4) 스스로 독신주의에 빠져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한 바울의 결론(고전 7:9)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16. ㉠ 제자들은 누구를 꾸짖었는가? (13절)

- ㉠ (1) 제자들이 꾸짖은 대상은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자들'(NIV, those who brought them)을 가리킨다.
- (2) 예수 당시의 사람들은 종종 어린이들을 랍비들과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안수라는 관례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들이 축복받게끔 했다(창 48:14; 민 27:18; 행 6:6; 13:3).
- (3) 이때 제자들은 어린아이들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이 지체될 것을 생각하고 화를 냈던 것 같다.

17. ㉠ 예수께서는 꾸짖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14절)

- ㉠ (1) 그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 (2)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 즉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겸손한 신앙을 가진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 (3) 따라서 예수는 어린아이들이 겸손과 믿음의 차원에서 제시할 만한 좋은 본보기였으므로 그들을 받아들이셨던 것이다(참조, 욥 22:29).

18. ㉠ 예수께서 안수하신 행동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15절)

- ㉠ (1)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온 어린아이의 머리에 안수를 하신 것은 그때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축복을 가리키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 (2) 이 안수로부터 어린아이들에 대한 유아 세례 의식이 유래되었다.
- (3) 이처럼 비록 나이는 어리고 지적인 발달이 미진한 상태인 어린아이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격을 인정하시며 그들이 당신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 (4) 이런 점에서 오늘날 각 교회에서 유년 주일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19. ㉠ 부자 청년에 관한 평행 귀절을 비교 종합해 보라(16-22절).

- ㉠ (1) 부자 청년에 관한 기사는 본서 외에 막 10:17-31과 눅 18:18-30에도 기록되어 있다.
- (2) 먼저 본서를 기록한 마태는 중심 인물을 처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다가 나중에는 그 인물이 '청년' (20절)이었다고 밝혔다.
- (3) 한편 마가는 그의 나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그가 예수를 처음 만나던 상황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막 10:17).
- (4) 이를테면 마가는 '한 사람이 예수에게 달려 와서 끌어앉았던 때'는 다름아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였다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5) 그런가 하면 누가는 청년의 직업을 '관원' (눅 18:18)으로 밝히면서 그의 사회적 지위

를 보여 준다.

- (6) 결국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오늘날 재물과 젊음과 명예를 얻고도 영생을 얻지 못한 불신 세대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인물인 것이다.

20. **㉠** 부자 청년의 질문은 무엇인가? (16절)

- ㉠** (1) 그는 예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했다.
- (2) 이러한 청년의 질문 가운데에는 그가 믿음에 의한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행위에 의해 구원을 받는 줄로 잘못 알고 있었음이 나타난다.
- (3) 청년은 영생을 진지한 열심으로 추구하고는 있었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인간이 찾아가는 구원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데에 치명적인 영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 (4) 결국 그가 실패하고 말았던 것은(22절) 단순히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행위적 구원론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 (5) 17절 이하 계속되는 대화를 통해 예수께서 단순히 계명 준수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으나 실상은 청년의 잘못된 구원관을 지적하시면서 그의 회심을 촉구하시는 것이다.

21. **㉠** 예수의 처음 대답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17절)

- ㉠** (1)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하신 대답은 청년의 잘못된 구원관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말씀이다.
- (2) 지금 청년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찾아야 할 것은 '그가 행할 선한 일'이 아니라 '그가 믿을 선한 하나님'인 것이다.
- (3) 또한 아직 청년이 예수를 도덕적 스승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밝히시면서 청년의 회심을 촉구하시고 있다.
- (4)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의 권위로써 청년에게 영생의 길을 선포하신 말씀이다.
- (5) 특별히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키므로 생명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생명에 들어갈 자, 즉 구원받은 자는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 (6)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말할 하지만 실생활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지내는 자들이 많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분의 말씀에 자신을 순종시키는 것이다(참조, 요 14:21).

22. **㉠** 예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어떠한 것들인가? (18, 19절)

- ㉠** (1) 예수께서는 출 20장에 있는 십계명 중에서 제 6, 7, 8, 9 계명 그리고 제 5 계명을 말씀하셨다.
- (2) 그는 여기서 '탐내지 말라'는 제 10계명은 생략하고 대신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 19:18)는 말씀을 첨가하고 있다.
- (3) 이처럼 예수께서 10계명과 함께 이웃 사랑이라는 새 계명(요 13:34)을 말씀하신 것은 청년이 가지고 있던 외적 선행에 대한 자만을 지적하시기 위함이었다.
- (4) 그러나 청년은 자신의 자만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안타까운 대답을 하고 있다(20절).
- (5) 오늘도 주께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또 신약의 새 계명을 통해서 현대인의 자만심을 허물어뜨리시고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를 가르치시고 계신다.

23. **㉠** 청년의 대답에서는 그의 어떠한 심정이 나타나고 있는가? (20절)

- ㉠** (1)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라고 대답함으로써 율법과 계명에 대한 진정한 이해의 결여와 영적 자만에 빠져 있는 자신의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2) 이 세상에서 율법 전부를 지켰노라고 말할 이는 아무도 없다.

- (3) 그러므로 예수께서 기대하신 것은 이러한 대답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질문이었다.
- (4) 이어서 청년은 자신의 외적 선행을 과시하려는 듯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하였지만 그에게 치명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곧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에 대한 지식이다(26절; 열 2:8).
- (5) 이처럼 세상에는 학문적 지식과 삶의 다양한 경험으로 높은 수준에 오른 자들이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소유하는 일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만이 가능하다(참조, 고전 2:12).

24. **㉠ 예수께서는 마지막으로 청년에게 무엇을 지적하여 말씀하셨는가? (21절)**

- ㉠** (1) 여전히 예수의 말씀에 대한 진의(眞意)를 파악하지 못하고 구원의 진리를 오해한 채 영동한 대답만 연발하는 청년을 향하여 예수는 그의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하여 말씀하였다.
- (2) 사실 청년은 많은 재물을 소유한 부자였는데 계명을 지킨다는 소극적 선행을 하기에 급급했지 자기의 재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적극적 선행은 생각조차 못 해보았던 것이다.
- (3)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재물에 집착하여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는 어리석은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참조, 6:24).
- (4) 모름지기 영생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후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16:24).

25. **㉠ '나를 좇으라' 하신 예수의 말씀이 갖는 중심적 의미는 무엇인가? (21절)**

- ㉠** (1) 이 말씀은 예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제시하는 '절대적이고 철저한 제자직(discipleship)' 을 의미한다.
- (2) 이 제자직은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포기하는 가운데에서만 얻어질 수 있다(16:24).
- (3) 또한 예수께서 명하시는 새로운 계명은 이 제자직을 통해서만 율법에 대한 참된 순종이 이루어질 것을 밝혀 준다(요 13:34, 35; 14:15).
- (4)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순종과 충성이야말로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26. **㉠ 예수의 말씀으로 도전받은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2절)**

- ㉠** (1) 청년은 자기의 문제를 꿰뚫어 보시는 예리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심각한 도전을 받았으나 결국 예수를 좇지 못하고 되돌아가고 말았다.
- (2) 본문은 청년이 근심하면서 되돌아간 이유가 '재물이 많으므로' 라고 밝혀 준다.
- (3) 아마 이 청년에게 재물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재물에 대한 집착심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에 들어섰을지도 모른다.
- (4) 그러나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았으므로 신앙의 길에서 실패하고 말았다.
- (5)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율무가 되기도 한다(딤후 6:9, 10).
- (6) 성 프란시스는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여 자기의 소유로 가난한 자를 구제한 후 예수의 제자로서 이탈리아의 면모를 변화시켰다.

27. **㉠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보라(23절).**

- ㉠** (1) 이 말씀은 가난한 자라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부자라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 (2) 만일 그런 의미라면 다윗, 솔로몬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모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 (3) 사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자가 영생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4) 그 이유는 그들의 재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재물은 그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외형적으로 소유가 많은 부자보다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의 부자를 지적하면서 구원의 불가능성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28. **㉠**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24절)

- ㉠** (1) 이는 철저한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말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 (2) 바벨론 탈무드에도 본절과 비슷한 내용의 격언이 있는데 거기에는 낙타(약대) 대신 코끼리가 등장한다. 그 이유는 바벨론에는 코끼리가 매우 흔했기 때문이다.
- (3) 어떤 이들은 '바늘귀'를 꿰매는 바늘의 귀로 생각하지 않고 짐 실은 낙타가 간신히 쏘시고 들어갈 수 있는 유대식 가옥의 작은 문으로 간주함으로써 비유의 의미를 약화시키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법이다.
- (4) 위와 같은 추측은 아마도 제롬(Jerome)의 우화주의적 해석에서 비롯된 것 같다.

29. **㉠**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원리는 무엇인가? (25, 26절)

- ㉠** (1) 예수의 제자들은 유대인의 통념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놀란 나머지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 (2) 즉 만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그들은 질문했던 것이다.
- (3)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라는 구원의 핵심적인 원리를 말씀하셨다.
- (4) 이 말씀은 구원의 근거가 사람의 선행이나 믿음에 있지 않고 오직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있다는 의미이다(참조, 엡 2:8-10).
- (5)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람이 보기에 전혀 구원받기에 불가능한 자라도 마치 낙타가 바늘귀를 유유히 통과하여 벗어나는 것처럼 기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참조, 눅 23:43).

30. **㉠**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는 자들이 받을 상급은 무엇인가? (27-29절)

- ㉠** (1) 그들은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아래 예비된 열 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28절).
- (2) 이러한 상급은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신 예수께서 그를 좇은 제자들에게 부여하실 온 세상에 대한 심판권을 의미한다(참조, 계 19:14-16).
- (3) 또한 그들은 이 세상에서 포기한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田土)를 여러 배나 되돌려 받고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도록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29절).
- (4) 이것은 우리가 기왕에 갖고 있던 소유의 개념을 송두리채 뒤바꾸어 놓는 말씀으로 예수의 제자로서 메시아 공동체에 속한 자들은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참조, 행 2:43-47; 4:32-35).
- (5)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성도들은 마지막 날 멸시하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소유하게 될 것이며 자기들이 포기한 모든 것을 몇 갑절로 되돌려 받고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31. **㉠**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 (30절)

- ㉠** (1) 이 말씀은 유대인의 격언적인 말로서 예수가 다양한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즐겨 사용하

- 는 표현이다(20:16; 눅 13:30).
- (2) 이 격언적 표현은 특별히 메시아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역전극(逆轉劇)을 암시한다.
- (3) 즉 예수의 제자일지라도 구원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자만에 빠져 있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버림 받은 것 같은 처지에 있던 자가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리라는 말씀이다.
- (4) 실제로 예수를 따라다니며 12사도에까지 들었던 가롯 유다는 낙오자가 되어 버리고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는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다(눅 23:43).
- (5) 예수께서는 이 격언의 의미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서 20장에 나타난 비유의 이야기를 들어 해설하신다(20:1-16).
- (6) 이 해설은 마지막 대목에서 역설적 형식을 갖춘 격언의 말씀이 반복됨으로써 절정을 맞이한다(20:16).

화보자료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 플록허스트의 그림이다. 어린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그들을 축복하고 계시는 예수의 모습은 그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능히 보여 주고도 남는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에 비해 여자와 어린이들을 한 차원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참조, 14:21).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들은 어린이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것을 꺼려 하였다(13절).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14절)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예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간접적이거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자인 것이다(참조, 18:3).

제 20 장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

단락구분 1-16 포도원 품군의 비유 / 17-19 세번째의 수난 예고 / 20-28 섬기며 희생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 29-34 두 소경의 눈을 고쳐 주시다

1 천국은 마치 품군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2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군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3 또 제삼 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놓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4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5 제 육 시와 제 구 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 제 십 일 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7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놓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군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8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군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값을 주라 하니

9 제 십 일 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0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12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가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 주인이 그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16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되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7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 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8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

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19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박게 하리니 제 삼 일에 살아나리라

20 그때에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2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23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24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25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9 저희가 예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께 좃더라

30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31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32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33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라사대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34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좃으니라

1. ㉠ 본장에 나타난 섬김의 도(道)를 설명하라.

- ㉠ (1) 공생애를 거의 끝마치는 시기에 천국 시민의 자격(18장)과 윤리(19장)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마지막 강화(講話)를 들려주셨다.
 (2) 그 마지막 강화는 섬김의 도에 관한 말씀으로서(20-28절)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점에 있어서 4 복음서의 핵심 귀절이라고 할 만하다.
 (3) 그리스도께서는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는 도리어 낮고 천한,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섬기는 것을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 밝히셨다(28절).
 (4) 이러한 섬김의 도야말로 포도원 품군의 비유를 통해 천국 시민의 생활에 입문한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터득해야 하는 신앙 생활의 핵심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5) 섬김의 도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며(7:13, 14) 십자가 사건의 비밀 원리이며(17-19절)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는 통로이다(29-34절).

2. ㉠ 1-16절에 기록된 포도원 품군의 비유는 19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 ㉠ (1) 이 비유는 19:30에 소개된 격언적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2) 따라서 이 비유를 마무리짓는 16절에는 19:30의 반복으로서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는 격언적 표현이 다시금 나타난다.
 (3) 이 비유의 핵심적 의미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상급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 주어짐을 강조하려는 데에 있다.
 (4) 따라서 이 비유는 더 넓게는 19:26-30 전체를 부연 설명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섬김의 도를 설명하기 위한 교두보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14, 15절과 23절을 비교하라).

3. ㉠ 포도원 품군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열거하라.

- ㉠ (1) 이 비유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포도원 주인이요(1절), 둘째는 포도원 품군들이요(2-7절), 세째는 품삯을 주는 청지기이다(8절).
 (2)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청지기는 그리스도를 각각 상징하는 말로 이해된다. 그러나 품군들에 관해서는 고대로부터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어 왔다.
 (3) 즉 품군들은 다섯 차례에 걸쳐(1, 3, 5, 6절) 부름을 받아 포도원 일을 하게 되었는데 각 차례가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이다.
 (4) ① 어떤 학자들은 먼저 일한 자를 유대인으로 나중에 일한 자를 이방인으로 보았고(Clarke 등), ② 교부 이레니우스(Irenaeus)는 전자를 구약의 성도, 후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본 반면, ③ 크리소스톰(Chrysostom)은 부름 받은 시간을 각 개인의 연령으로 해석하였다.
 (5)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일면 타당성을 갖고 있다.
 (6)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우열(優劣)이나 선후(先後) 혹은 공과(功過)와 상관없이 오직 당신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하는 일이다.

4. ㉠ 고대 이스라엘의 포도원 품군에 대한 풍습을 설명해 보라.

- ㉠ (1) 팔레스틴 지방에서 포도의 수확 시기는 보통 9월 말경이 되는데 이때는 장마 시기가 임박하므로 포도원의 일손이 매우 바쁘게 돌아간다.
 (2) 따라서 그 시기에는 단 한 시간만 일할 사람이 있어도 크게 환영을 받았다.

(3) 물론 임금은 시간에 따라 차등을 두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문에 나타난 주인의 대우는 매우 파격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5. ㉠ 품꾼들이 고용된 시간은 각각 언제인가? (1, 3, 5, 6절)

- ㉠ (1) 본문에는 이른 아침(제 1시), 제 3시, 6시, 9시, 11시 등 다섯 차례로 나타나 있다.
 (2)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 따른 것이다.
 (3) 유대인들은 해 돋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를 12시간으로 분할하여 해 돋을 무렵인 오전 7시를 제 1시라고 불렀으며 해 질 무렵인 오후 6시를 제 12시로 불렀다.
 (4) 따라서 본문의 3시면 오전 9시, 6시면 정오, 9시면 오후 3시, 11시면 오후 5시에 각각 해당한다.
 (5) 이 계산에 의하면 해 질 무렵인 제 12시에 일을 마쳤으므로(8절) 제 1시에 부름 받은 품꾼은 11시간을 일한 것에 비해 제 11시에 부름 받은 품꾼은 단 1시간만 일한 셈이 된다.

6. ㉠ 약속된 품삯 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액수인가? (2, 9, 10, 13절)

- ㉠ (1)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은전(銀錢)의 명칭으로 헬라의 드라크마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화폐의 단위였다.
 (2) 1 데나리온은 직업 군인이나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한다(참조, 18:28).
 (3) 그런데 이러한 노동자들의 임금(1데나리온)은, 즉 1/20 데나리온으로 시골 여인숙의 숙박비를 지불했던 그 당시의 물가 시세로 보아서는 매우 후한 것이었다. 한편 이러한 품삯은 그 당일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였다(참조, 신 24:15).

7. ㉠ '장터'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가? (3절)

- ㉠ (1)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 <아고라>로 되어 있다.
 (2) 헬라어 <아고라>는 시장(market place)을 가리키는 말로 로마의 '포룸' (forum, 공회, 광장)에 해당한다.
 (3) 고대 근동에서 장터는 직업이 없는 자나 고용을 원하는 자들이 모여들어 대기하는 장소였다. 즉 그곳은 바로 인력 시장이었다.

8. ㉠ 품삯은 어떻게 지급되었는가? (8-10절)

- ㉠ (1) 품삯이 지불될 때를 언급한 '저물때'라는 표현(8절)은 당시 품꾼들이 하루 동안 일한 품삯을 그날에 받도록 되어 있던 사실을 생각할 때(참조, 레 19:13; 신 24:15) 이 비유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즉 이때를 기준으로 제 11시에 고용된 자들은(6절) 단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건만 포도원 주인은 정한 때에 모든 사람의 품삯을 지불하였던 것이다.
 (3) 다음에 품삯이 지급된 순서도 이 비유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4) 제일 먼저 품삯을 받은 일꾼은 뜻밖에 제일 늦게 고용된 사람들이었으며 맨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받으리라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동일한 액수를 받았다(9, 10절).
 (5)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인의 처음 약속에 따른 것으로(13절) 전혀 근로 계약에 위배되지 않았다.
 (6)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 대한 보상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대로 어김없이 이루어져서 그들의 수고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된다(25:21; 고전 16:58; 갈 6:8, 9).

9. ㉠ 먼저 온 자들의 불만은 무엇이었는가? (11, 12절)

- ㉠ (1) 그들의 불만은 오랜 시간 일을 한 그들에게 단 1시간 일한 사람들과 동일한 품삯을 준 사실에 관한 것이었다.
 (2) 그들은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면서 일을 한 자기들의 공적을 생각하여 품삯에 상

여금을 덧붙혀 주리라고 기대하였으나 그 기대가 보기 좋게 무산(霧散)되어 버렸던 것이다.

- (3) 이들의 태도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형이 아버지에게 불만을 표시하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눅 15:29).
- (4) 이러한 태도는 모두 원리, 원칙에만 얽매인 이기주의적 사고 방식에 불과하다.
- (5) 하나님은 결코 원리, 원칙에 갇혀 버린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신 인격으로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원리, 원칙을 만드셔서 의지적(意志的)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다(14, 15절; 엡 1:5, 11절).

10. ㉠ 주인의 말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어떠한가? (13-15절)

- ㉠ (1) 주인은 먼저 한 데나리온으로 품삯을 정한 처음 약속을 언급하면서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였음을 상기시킨다(13절).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한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성을 소유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 (3) 또한 주인은 '내 것'이라고 말하여 품삯의 소유자가 자신임을 상기시키고, '내 뜻'이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함으로써(14, 15절) 자신의 주권적 의지를 강조한다.
- (4)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매우 분명히 계시(啓示)되고 있다.
- (5) 이 주권적 섭리에 의해 중한 죄에 빠져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참조, 21:31; 눅 22:43).

11. ㉠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란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보여 주는가? (15절)

- ㉠ (1) 여기서 '내가 악하게 보느냐(Is your eyes evil?)'는 말은 헬라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번역한 것인데 NIV에는 '내가 질투하느냐(Are you envious?)'라고 번역되어 있다.
- (2) 이러한 NIV의 번역은 '악한 눈'(evil eye)이 원래 질투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관용어라는 점에서 유래되었다(신 15:9; 삼상 18:9).
- (3)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에 의해서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구원은 성도들이 질투할 정도로 놀라운 사랑임을 암시하고 있다.
- (4)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기억한다면 아무리 큰 죄악과 불순종으로 실패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참조, 눅 15:17-20).

12. ㉠ 16절의 격언적 말씀과 19:30의 그것은 표현상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 ㉠ (1) 본절의 말씀은 19:30과 비교해 볼 때 단어의 순서에 있어서 뒤바뀌어져 있다.
- (2) 즉 19:30에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한 반면 본절에서는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고 하였다.
- (3) 이러한 표현상 차이는 19:30이 주로 제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영적 자만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고 본절은 늦게 부름 받은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임에 기인한다.
- (4) 이로써 19:23-30과 20:1-16은 매우 세련된 문법적 양식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13. ㉠ 17-19절이 지니는 문맥적 의미는 무엇인가?

- ㉠ (1) 이 부분은, 마치 19:13-15이 19:16-30을 기술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뒤이어지는 20-28절의 기사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 (2) 즉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직면해 계셨던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할 자리 다툼만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 (3) 이상과 같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교인 다름이나 교회의 분규를 일삼는 한심한 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
- (4)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생명을 선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일신상의 자랑이나 공동체 내에서의 허세를 과감히 떨쳐 버리고 오로지 예수를 나타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참조, 갈 2:20).

14. ㉠ 예수께서 그의 수난을 세번째로 예언하신 때는 언제인가? (17절)

- ㉠ (1)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였다.
- (2) 당시 예수께서는 요단 동편 베레아에서 요단 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경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계획을 갖고 계셨다(29절).
- (3) 그는 여리고를 떠나 출발하기에 앞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로 인해 복잡한 길 한가운데서 열 두 제자를 따로 조용히 부르셨다.
- (4) 그리하여 열 두 제자들만이 다른 무리들과 떨어진 채 예수의 세번째 수난 예고를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 (5) 이처럼 우리가 번잡한 세상 일에 마음 뒤틀린 상태에서가 아니라 고요히 그분과 자신과의 만남이 이뤄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요즈음 Q. T. (Quiet Time) 운동은 바로 이런 점에서 환영받을 만하다.

15. ㉠ 세번째 수난 예고의 내용이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 (18, 19절)

- ㉠ (1) 세번째 수난 예고는 막 10:32-34, 눅 18:31-33에도 평행 귀절로 기록되어 있다.
- (2) 이 부분의 기사에는 앞의 1, 2차 수난 예고(16:21-23; 17:22, 23)에 비해 예수의 죽음과 거기에 가담한 이방인들의 역할에 대한 상세한 방법이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다.
- (3) 즉 예수께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 이방인(로마 군병)에게 인계되어 능욕과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될 것을 예언하셨다.
- (4) 이 귀절들은 앞에 기록된 포도원 품군의 비유를 다시 돌이켜 생각하게 한다.
- (5) 왜냐하면 이 귀절들은 인간이 구원을 받는 근거가 하나님의 은총, 즉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처형당하심에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16. ㉠ 20-28절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라.

- ㉠ (1) 이 부분에서는 지위에 관한 질문이 다시금 등장하고 있는데(참조, 18:1-5) 이는 매우 넌센스(nonsense)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2) 왜냐하면 이제 예수께서는 세 번씩이나 거듭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비장한 각오를 하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17-19절).
- (3) 이때 제자들의 지위 다름은 마치 임종하는 아버지를 앞에 두고 유산(遺産)을 다루는 아들들의 모습과도 같이 기가 막히고 한심한 풍경일 수밖에 없었다.
- (4) 이 귀절에 대한 평행 귀절로서 막 10:35-45이 있다. 이들과 약간 유사한 내용을 언급한 눅 22:24-30은 아마도 다른 상황에서 발생한 이야기로 생각된다.

17. ㉠ 예수께 나아와 청탁(請託)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20절)

- ㉠ (1) 세베대의 아들 곧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살로메로서(27:56; 막 15:40) 그녀는 두 아들과 함께 예수께 나아와 절하며 무엇인가 청탁을 했다.
- (2) 평행 귀절인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께 나아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막 10:35) 이는 그들이 어머니인 살로메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암시한다.
- (3) 더우기 살로메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의 자매로 추정되어지는 예수의 친척으로 청탁의 좋은 배경이 되었던 것 같다.
- (4) 그녀는 예수께 '절하며' 간청했는데 여기서 '절하며'란 '예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단

순히 옷사람에게 경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관례적으로 하는 의식이었다.

- (5) 따라서 아직 이들 세 모자(母子)는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 이신 신적(神的) 메시아로는 깨닫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 (6)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어떠한 분으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결정 된다. 흔히 해방 신학자들은 예수를 혁명가요 사회 정의 구현자로 생각한다(참조, 사 61:1). 그래서 그들은 과격한 행동과 심지어는 테러까지도 불사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메시아관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고 행동하는가?

18. ㉠ 살로메는 예수께 무엇을 청탁하였는가? (21절)

- ㉠ (1) 그녀는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라고 청탁하였다.
- (2) 여기서 '주의 나라'는 막 10:37의 '주의 영광'과 함께 때가 되면 완성될 나라로서 그리스도께서 봉치하시는 천국(Kingdom of heaven)을 의미한다.
- (3) 아마도 두 제자와 그들의 어머니는 천국의 도래를 예언하신 예수의 말씀(19:28)을 듣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열 두 보좌'를 기억한 가운데 이런 부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4) 즉 주의 '우편'과 '좌편'은 열 두 보좌 중 뛰어난 지위로, 왕이신 그리스도 다음 가는 영광을 상징하는 말이다.
- (5) 이러한 요청은 부질없는 처사로서 무언가 크게 착각한 결과임이 계속되는 주의 말씀에 나타난다.

19. ㉠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란 말씀은 무슨 뜻인가? (22절)

- ㉠ (1) 이 말씀은 무언가 크게 오해하고 엉뚱한 간청을 하는 두 제자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다.
- (2) 그들이 구하는 주의 좌·우편은 이 세상에서 얻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지실 주를 따라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한 세계에서 얻어질 것이다.
- (3) 더우기 새로운 세상에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사람들만이 모여 살기 때문에 더 이상 현세적인 불평등과 계급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주의 좌·우편도 있다면 현세와는 전혀 다른 의미일 것이다.
- (4)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제자들처럼 유치한 기도를 하곤 한다.
- (5)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섬김의 도를 바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참조, 막 10:45).

20. ㉠ 예수께서 말씀하신 '잔'(盞)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22, 23절)

- ㉠ (1) 주께서는 두 제자를 엉뚱한 미몽(迷夢)에서 깨우시기 위해서 자신이 당해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다시 말씀하셨다.
- (2) 즉 그는 '나의 마시려는 잔' (22절), '내 잔' (23절) 등의 말씀으로 자신의 죽음을 비유 하셨으며(참조, 26:39), 그들에게 그의 죽음에 동참할 순교(殉教)의 여부를 질문하셨다.
- (3) 특별히 '잔'은 구약의 비유적 표현에서 하나님의 진노(시 75:8; 사 51:17, 22), 심판, 보복, 고난 등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 (4)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의 잔,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활의 신앙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21. ㉠ 열 제자가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긴 것은 그들의 어떤 심적 상태를 보여 주는가? (24절)

- ㉠ (1) 사실 열 제자는 헛된 것을 구하는 두 형제 요한과 야고보에 대하여 분한 마음을 품을

이유가 없었다.

- (2) 그러나 천국의 보좌나 십자가의 죽음에 무지(無知)하기는 그들도 마찬가지여서 시기와 질투심을 발동하여 두 형제에 대하여 분한 마음을 품었던 것이다.
- (3) 이들 열 두 제자는 모두 영적인 의미에서 치료받아야 할 맹인(盲人)으로 나타났다.
- (4) 그러므로 주께서는 4 복음서의 핵심 귀절이라 할 수 있는 '섬김의 도'에 관한 말씀으로 그들의 영안(靈眼)을 치료하려고 하셨다.

22. ㉠ 이방인 세계의 질서 체계는 어떠한가? (25절)

- ㉠ (1) 본절에 언급된 말씀은 비단 이방인 세계에만 국한될 뿐 아니라 현세적 사회 구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질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 (2) 즉 현세적 사회 구조에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 애쓰는 질서 체계가 존재할 뿐으로 집권자와 대인들은 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다.
- (3) 본문에 언급된 '집권자'는 왕과 같은 최고 통치자를 가리키고, '대인' (大人)은 고급 관료(NIV, high official), 귀족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 (4) 예수께서 이처럼 당연한 현세의 질서 체계를 언급하신 이유는 내세 곧 천국의 질서 체계가 이것과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 (5) 천국은 분명히 무언가 현세와는 다르다. 그 대표적인 차이점이 오늘 본문에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23. ㉠ 천국의 질서 체계는 어떠한가? (26, 27절)

- ㉠ (1) 예수께서는 세속의 질서 체계를 소개하신 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상반된 천국의 질서 체계를 설명하셨다.
- (2) 천국은 물론 내세(來世)에 완성되어질 것이지만 현세에서도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 그 그림자가 나타난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의 모임에서는 항상 본문에 나타난 천국의 질서 체계로서 서로 섬기기를 먼저 하고 서로 종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
- (4) 즉 성도들 사이에 누가 큰 자인지의 판단 기준은 봉사하는 자세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가장 인정받는 자는 직분 가진 자라는 등식은 고려되어야 한다.
- (5) 물론 성도는 이방인을 향해서도 섬기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 (6) 그때 성도의 이름으로 섬긴다면 그것은 예수를 닮은 것으로서 섬김을 받는 이방인이 다시금 섬기는 자로 변모하게 된다.
- (7) 이것이야말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뒤바꾸어 놓으시고 원자 폭탄보다도 더 강한 폭발력으로 2천년 동안이나 세계를 정복해 나가시는 '섬김의 혁명'인 것이다.

24. ㉠ '섬기는 자'와 '중'의 원어적 의미를 밝히라 (26, 27절).

- ㉠ (1) '섬기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코노스>로서 여기에서 '집사' (deacon)란 말이 유래되었고 교역자를 의미하는 말(minister)도 파생되었다(KJV).
- (2) 그런데 이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deacon, minister)이 오늘날에는 정치와 종교에서 명예와 권세를 상징하는 용어가 되었으니 언어의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 (3)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단어의 참된 의미를 오해하거나 미처 깨닫지 못할 것을 막기 위하여 더욱 강한 의미의 단어인 '중'이란 말을 사용하셨다.
- (4) 이 '중'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둘로스>로서 노예의 신분을 의미하는 말이다(고전 9:19; 고후 4:5; 벧전 1:22; 5:1-3). 즉 자신을 노예와 같이 생각하는 겸손한 자라야지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 높은 존재라는 의미이다.
- (5)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 중에는 타인으로부터 섬김과 인정을 받는 것만이 자신의 지위와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는 양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예수의 심정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판단이다(참조, 빌 2:5-8).

25. ㉠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해 보라(28절).

- ㉠ (1) 예수께서는 본절에서 자신을 인자(Son of man)로 칭하시면서 성육신의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 (2) 예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成肉身)으로 오신 첫번째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는 데에 있었다.
- (3) 이는 참으로 놀라우신 선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모든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창조주이신데 도리어 인간들을 섬기는 자리에 스스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참조, 빌 2:6-8).
- (4) 또한 그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선언했다.
- (5) 이것은 그의 섬김에 있어서 절정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여기에서 그의 섬김은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으로 승화되어진다.
- (6) 이처럼 신·구약 성경의 최고 강령인 사랑의 계명은 '섬김의 도'를 통하여 비로소 실천되어지는 것이다(요 13:13-15, 34).
- (7) 그러므로 예수를 주인으로 삼은 우리들은 존경받고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그분의 모범을 따라 모든 이들을 섬기며 겸허하게 자신의 삶을 진행시켜 가야 한다. 말로만의 겸손은 오히려 지나친 교만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26. ㉠ 28절과 사 53장과 관련성을 설명하라.

- ㉠ (1) 본질의 헬라어 동사 '섬기다'란 의미를 지닌 <디아코네오>나 '종'을 뜻하는 <디아코노스>는 사 53장에 나오는 히브리어 <에베드>와 개념적인 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사 53:11).
- (2) 또한 '자기 목숨을...주려 함이니라'는 귀절은 사 53:10, 12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속물'을 뜻하는 헬라어 <뤼트론>은 히브리어 <아삼>, 즉 속건 제물에 해당되는 단어로 보인다.
- (3) 한편 대부분의 학자들은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에서도 이사야서와의 분명한 연관성을 인정해 왔다(사 53:11).
- (4)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을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으로 명백히 나타내셨으며 또한 자기의 죽음을 이사야서에 비추어 해석하셨던 사실을 깨닫게 된다.

27. ㉠ 예수께서 두 소경을 고치신 기사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29-34절)

- ㉠ (1) 이 부분과 평행 귀절인 막 10:44-52, 눅 18:35-43에는 소경을 한 사람만 언급하고 있으며 막 10:46은 그 소경의 이름을 바디매오라고 밝힌다.
- (2) 이에 비해 본서에는 소경의 수자가 두 명으로 소개되는데 이는 사건의 내용, 특별히 수자를 상세히 기록하는 본서 저자 마태의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다(참조, 8:28).
- (3) 또한 이 기사는 믿음을 강조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명령으로 끝맺고 있는 9:27-31과 전혀 다른 사건으로 그것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
- (4) 즉 이 기사는 예수께서 친히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을 묘사하며 그의 신유(神癒) 사역을 그의 죽음과 관련짓고 있다(28절).
- (5) 더우기 이 두 소경을 치유하는 이야기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께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며(30절),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으로(34절)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28. ㉠ 두 소경이 치유받은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언제인가? (29절)

- ㉠ (1) 본서와 막 10:46에는 '여리고를 떠나갈 때'라고 하였으나 눅 18:35에는 예수께서 '여

- 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로 기록하고 있다.
- (2) 이러한 차이점에 대하여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함으로써 지리적 모순을 제거하려고 한다.
 - (3) 즉 당시에는 여리고가 두 곳이 있었는데 하나는 언덕 위에 있는 여리고로서 보다 오래되고 대부분이 황폐하게 된 도시이며 다른 하나는 거기서 약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새 여리고로서 헤로디아가 살던 곳이라 한다(Josephus).
 - (4) 이렇게 볼 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유대적 관점에서 기록하던 마태와 마가는 예수가 떠나가던 옛날의 여리고를 언급하였으며 반면에 헬라적 입장에 선 누가는 새로운 여리고를 언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29. ㉠ 여리고는 어떤 성읍인가? (29절)

- ㉠ (1) 여리고는 예수의 조상인 라합의 고향이었으나(1:5) 구약의 여호수아 때에 저주받은 도시가 되었다(수 6:26).
- (2) 그러나 이곳은 예수께서 지나가심으로써 구원을 상징하는 도시로서 새롭게 축복을 받았다.
- (3) 이곳에서 소경들과 난장이 삭개오 등이 감격적인 구원을 경험하기도 했다(눅 19:1-10).
- (4) 여리고는 예루살렘 동쪽 지방의 중심지로서 요단 강 서쪽 12km 지점에 위치하며 정원과 작은 집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는 전원적(田園的)인 도시이다.
- (5) 당시 여리고 지방에는 소경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던 발삼향(balsam 香)이 눈병에 대단히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30. ㉠ 두 소경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30-34절)

- ㉠ (1) 이 소경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고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던져진 모진 운명보다듬으며 암울(暗鬱)한 생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 (2) 그러나 그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았으며 구원자 메시아를 대망(待望)하면서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 (3) 그러던 중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드디어 예수께서 그들이 앉아 있는 길가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 (4) 이때 그들은 큰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거듭 소리치면서 호소하여 구원을 얻었다.
- (5) 전능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눈을 만지심으로 시력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제자로 삼으셨다.
- (6) 우리는 이들처럼 예수께서 우리 곁으로 지나가심에 민감하여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 (7) 오늘날 주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늘 우리 주변을 방문하신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구원의 제목을 청하고 그리스도께 구원을 호소함으로써 그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31. ㉠ 소경을 고쳐 주신 후 예수께서 9:30과는 달리 고침 받은 소경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1) 그 이유는 이제 예수의 사역에 있어서 이 기적의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도 문제가 앞으로 펼쳐질 구속 사건의 과정에 별로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 (2) 더 나아가서는 이미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이 이제 예수의 자기 계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 (3)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21장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시작으로 일련의 논쟁과 비유를 통해 예수의 메시아성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질 것을 암시한다.

제 21 장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 (入城) 하시다

단락구분 1-5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다 / 6-11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다 / 12-17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 18-19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다 / 20-22 믿음의 능력을 가르치시다 / 23-27 권세에 대한 질문 / 28-32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하시다 / 33-41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 42-46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1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벧 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이 내게로 끌고 오너라

3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라 일렸으되

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입하 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6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7 나귀와 나귀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겹옷을 길에 퍼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퍼고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11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12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툼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13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느도다 하시니라

14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15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

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16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갓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17 그들을 떠나 성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18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19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열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20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된 것이요

22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2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2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나 사람에게로서나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한 것이요

26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27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28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말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1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33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잡작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34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35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36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37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38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39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40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윤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줌지니이다

42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4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45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46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던라

1. ㉠ 본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의 개요를 말하라.

- ㉠ (1) 본장에서부터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난 주간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진다.
- (2) 이 고난 주간의 사건은 예수의 공생애 3년 중 극히 짧은 기간인 1주간에 이루어졌지만 그 의미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각 복음서의 3분의 1 정도에 걸쳐 상세하게 취급되고 있다.
- (3) 즉 본서에서는 전 28장 중 마지막 9장(21-28장), 마가복음은 16장 중 6장(11-16장), 누가복음은 24장 중 6장(19:28-24장), 요한복음은 21장 중 11장(11:55-21장)이 할애되었다.
- (4) 고난 주간은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니산 월 10일)로부터 시작되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주일 로써 끝나게 된다.
- (5) 이제 본장에는 고난 주간의 7일 중 첫째 날(1-11절), 둘째 날(12-17절), 세째 날(18-46절)까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2. ㉠ 고난 주간의 주요 사건들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라.

㉠ 다음 도표를 참조하라.

| 요일 | 주요사건 | 해당부분 | 평행귀절 | 비고 |
|----|--------|------|------|-----|
| 토 | 벧바게 도착 | 1절 | | 안식일 |

| | | | | |
|---|-----------------------------------|-----------------|--|-------------------|
| 일 | 예루살렘 입성 | 2-11절 | 막 11:1-11 눅 19:29-44 요 12:12-19 | 종려 주일 고난 주간 시작 |
| 월 | 성전 정화, 무화과나무 저주 | 12-17절 | 막 11:12-19 눅 19:45-48 | |
| 화 | 유대인과 문답, 각종 비유, 종말론, 가룟 유다의 반역 | 18절 -26:16 | 막 11:20 -14:11 눅 20:1 -22:6 요 12:37-50 | |
| 수 | 해당 기록이 없음 | | | |
| 목 | 최후의 만찬, 겐세마네의 기도 | 26:17-46 | 막 14:12-42 눅 22:7-46 요 13:1-18:1 | |
| 금 | 십자가에 죽으심 | 26:47 -27:61 | 막 14:43 -15:47 눅 22:47 -23:56 요 18:2 -19:42 | 고난일 |
| 토 | 무덤에 계심 | 27:62-66 | | 안식일 고난 주간 끝 |
| 일 | 부활하심 | | | 부활 주일 |

3. ⓐ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 예루살렘 방문은 몇 번이나 있었는가?

- Ⓐ (1) 4 복음서를 종합하여 보면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방문은 모두 8번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2) 예수께서는 공생애 이전 두 차례, 즉 갓난 아기 때(눅 2:22)와 소년 시절(눅 2:42)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적이 있다.
- (3) 그 후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 시험을 받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기도 했다.
- (4) 한편 공생애 기간 중 그는 명절 때를 맞이하여 다섯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 특히 유월절 때는 매년 올라가셨고(요 2:23;6:4) 공생애 제 1년 부림절(요 5:1) 제 2년 장막절(요 7:10)에도 방문하셨다.

4. ⓐ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지니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1-11절)

- Ⓐ (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특별히 '승리의 입성' (The Triumphal Entry) 이라고 불리어진다.
- (2) 이 사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스 9:9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으로서 예수께서 메시아 이심을 공개적으로 입증하였다.
- (3) 예수께서는 이전까지 자기의 메시아되심을 숨기셨으나(메시아 은닉, 16:20;17:9) 이제 수도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셨던 것이다.
- (4) 더우기 이러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꼭 1주일 후 이루어질 예수의 부활 승리를 예견하는 것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5. ⓐ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택하신 경로는 어떠한가? (1절)

- Ⓐ (1) 예수께서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군사 도로를 택하셨다.
- (2) 이 도로는 해발 약 900m에 위치하였고 길이는 약 27km쯤 되었다.
- (3) 이 도로는 여리고를 출발 베다니를 통과한 후 감람산 남동쪽에 위치한 벳바게 옆을 지나 감람산을 넘어 다시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하여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서게 되어 있었다.
- (4) 이때 감람산은 성전이 세워진 언덕보다 90m 정도, 시온 언덕보다는 30m쯤 높았기 때문에 그 위에 서면 예루살렘의 전경이 한눈에 보였고 그것은 일대 장관을 이루었다.

6. ⓐ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 나귀를 데려오게 하신 의도는 무엇인가? (1, 2절)

- Ⓐ (1)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벳바게(‘무화과의 집’이란 뜻)로 미리 보내어 나귀를 데려오도록 하셨다.
- (2) 이때의 두 제자는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으로 추정되어진다(참조, 눅 22:8).
- (3) 이렇게 제자들을 시켜 나귀를 데려오도록 하신 의도는 속 9:9의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예루살렘 입성에 동행할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메시아되심을 믿게 하려는 데 있었다.
- (4) 더우기 이러한 지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예지(豫知)의 능력을 소유하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인 것으로서 당신의 신성(神性)이 두드러지게 강조된 일이다(참조, 24:36; 행 3:18).

7. ⓐ ‘주’라는 말씀이 지니는 의미를 말하라(3절).

- Ⓐ (1)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올 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해주도록 일러주셨다.
- (2) 여기서 ‘주’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한 유일한 경우이다.
- (3) 이처럼 예수께서 자신을 ‘주’로 부른 것은 그가 이미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신 사실과도 상통하며 더우기 명백히 자신을 드러내신 그의 말기 사역 기간의 특징을 나타낸다.
- (4) 그래서 신학자 메이첸(J. G. Machen)은 교회가 기독교적 의미에서 예수를 ‘주’로 부르는 것까지도 이러한 예수의 자기 계시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 (5) 예수께서 ‘주’(Lord)라는 이 사실은 어떤 상황 중에서도 진리이며, 이 세상 모든 피조물계에 적용될 수 있는 당신의 주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과 판단 등 모든 삶의 영역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참조, 행 7:59).

8. ⓐ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란 무엇인가? (4, 5절)

- Ⓐ (1) 5절에 있듯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는 말씀이다.
- (2)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인용된 것인데 도입부는 사 62:11에서, 그 나머지 부분은 속 9:9에서 인용되었다.
- (3) 다만 속 9:9의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라는 귀절이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왕의 겸손함을 강조하기 위함에 있다.
- (4) ‘시온 딸’이라 함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가리키는 문학적 표현으로(참조, 시 45:12; 사 22:4; 47:1) 예수의 입성이 예루살렘의 군중들 앞에서 이루어질 것을 암시한다.
- (5) 또한 ‘나귀 새끼’는 평화와 겸손의 상징으로 예수는 실제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시오 말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평화와 겸손의 왕이심을 선언하셨다.
- (6) 결국 이러한 구약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다.
- (7)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심판 주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리란 신약의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행 1:11; 살전 4:16; 계 19:11-16).

9. ⓐ 우리가 겉옷과 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예수를 맞이한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6-8절)

- A** (1) 겔웃을 길에 퍼고 맞이한 행위는 예수를 왕으로 영접한다는 뜻이다.
 (2) 북이스라엘의 예후도 그가 왕이 될 때 친구들에 의해 그러한 영접을 받았다(왕하 9:13).
 (3) 또한 나무 가지를 길에 폈다고 했는데 일부 군중들은 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었다(요 12:13).
 (4) 이 나무 가지는 종려나무 가지로서 승리를 상징한다(계 7:9).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행동도 역시 왕을 영접하는 의식 중의 하나였다.
 (5)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할 때도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영접했다고 한다.
 (6) 이처럼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예수의 메시아성과 자신들의 왕되심을 기꺼이 인정하고 최대의 환영을 베풀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정치적 군주가 아니라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한 인간으로 발견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를 저주하고 조롱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다(참조, 27:20-26, 39-44).
 (7) 이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인간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신앙을 버릴 수도 있는 경향성이 다분한 존재이다. 즉 자신에게 평안과 행복이 지속되면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고난과 슬픔에 휩싸이게 되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죽어 버린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향을 부인할 수 있는가?

10. **Q** 우리는 예수를 따르면서 무엇이라고 외쳤는가? (9절)

- A** (1)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쳤다.
 (2) 이러한 무리의 환호는 시 118:25, 26에 따른 것으로 메시아 대망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3) 특별히 '호산나' 라는 말은 본래 '구하소서' 란 뜻의 히브리어를 음역한 것으로(삼하 14:4; 왕하 6:26; 시 118:25) 하나의 기원문이었는데 점차 종교적 환호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
 (4) 또한 '다윗의 자손' 이란 메시아의 대명사인데 이는 메시아가 담당하게 될 왕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5)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란 말은 시 118:26에서 유래되었으며 역시 메시아를 환호하는 외침이다(23:39).
 (6) 한편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는 말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눅 2:14) 이라는 말과 상응하는 표현으로 메시아를 보내신 일에 대해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를 지닌다.
 (7) 이처럼 무리의 외침은 완전한 메시아적 고백으로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승리의 입성으로 믿고 환호하는 외침이었다.

11. **Q** 예수께서 입성하시자 예루살렘에는 어떤 소동이 일어났는가? (10, 11절)

- A** (1) 예루살렘 성내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2) 당시 로마 국세 조사에 의하면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는 약 250만 명의 대인구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3) 이렇게 많은 대군중이 소동하면서 제기한 질문은 '이는 누구뇨' (Who is this?), 즉 예수의 신분에 대한 관심이었다.
 (4)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였다.
 (5) 원문에는 '선지자' 란 말 앞에 정관사 <호>가 있어 이 대답은 예수를 종말론적인 선지자, 즉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신 18:15; 요 1:22)로 고백한 것임을 밝혀 준다.

(6) 오늘날도 '이는 누구뇨' 라는 질문이 예수의 이름 앞에서 제기된다.

(7)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선지자, 우리들의 구세주임을 고백해야 한다.

12. ㉞ 성전 숙정(肅正) 사건이 지니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12-17절)

㉞ (1) 예루살렘 입성이 예수의 메시아되심을 공적으로 선포한 것이라면 예수의 성전 숙정 사건은 예수께서 친히 메시아의 직권을 행사하신 심판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 또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왕과 선지자의 면모를 나타내신 예수께서 이제는 성전 숙정을 통해서 제사장의 면모를 나타내신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이로써 예수께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소유한 메시아로서 그의 신분을 완전히 드러내셨다.

13. ㉞ 당시 성전은 어느 정도로 타락해 있었는가? (12, 13절)

㉞ (1) 당시 성전에는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어서 제사장과 결탁하여 성전 예배를 돕는다는 구실로 온갖 비리(非理)를 자행하였다.

(2) 여기서 '매매하는 자들'이란 먼 지역에서 돈만 가지고 온 유대인들에게 희생을 드리는데 필요한 짐승, 나무, 기름 등을 파는 사람들이다.

(3) '돈 바꾸는 자들'은 로마와 헬라의 화폐를 성전의 화폐로 바꾸어 주었는데 이 성전의 화폐로 반 세겔의 성전세를 바치도록 되어 있었다(참조, 17:24-27).

(4) '비둘기 파는 자들'이란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제물로 사용되었던 비둘기를 판매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5) 이러한 자들은 성전 예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성전 안에서 공공연히 상거래를 했고 특별히 큰 명절 때에는 부당하게 가격을 매겨 폭리를 취하는 일이 비일 비재하였다.

(6) 그래서 주께서는 이러한 타락상을 가리켜 '강도의 굴혈(窟穴)'이라고 통박하셨던 것이다(참조, 렘 7:11).

(7)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주의 이름과 복음을 도용(盜用)하여 자기 육적인 배만 채우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주께 동일한 책망을 받아 마땅하다.

14. ㉞ 예수께서는 성전을 어떻게 정의(定義)하셨는가? (13절)

㉞ (1) 그는 사 56:7을 인용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하셨다.

(2) 즉 성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신령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처소였다.

(3) 오늘날 주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고전 3:16)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동행(同行)하시기를 원하신다.

(4) 그러므로 우리는 무시로 성경 안에서 기도함으로써(엡 6:18)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통해 당신의 삶을 사시도록 해야 한다(갈 2:20).

15. ㉞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 (13-16절)

㉞ (1) 그는 성전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13절).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장소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참조, 엡 6:18; 빌 4:4; 골 4:2).

(2) 그는 성전에서 병 고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14절).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와서 병 고침을 얻었듯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영육의 질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참조, 행 3:1-10).

(3) 그는 성전에서 찬미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15, 16절). 모든 성도의 삶, 성도들의 모임은 궁극적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돌려야 한다(참조, 엡 5:19, 20).

(4) 이상과 같은 세 가지의 원리는 신약 시대의 성전인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집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16. ㉠ 분을 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는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15, 16절)

- ㉠ (1)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찬미콜함에 대하여 분을 내고 예수께 항의했다.
 (2) 그러나 예수께서는 시 8:2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정당하다고 하셨다.
 (3)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당시 성직자들처럼 많이 배우고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자들보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들이 영적인 진리를 더욱 잘 분별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입증해 준다(11:25-27).

17. ㉠ 예수께서 유하신 곳은 어디인가? (17절)

- ㉠ (1) 명절 때의 예루살렘은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2) 그래서 예수는 예루살렘 성밖으로 나가 감람산 동쪽 비탈에 위치한 베다니에서 그의 마지막 며칠 밤을 보내셨다(막 11:19; 눅 21:37).
 (3) 그가 머물렀던 집은 아마도 평소 매우 친숙히 지내셨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의 집이었을 것이다(참조, 요 11:1, 5).

18. ㉠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8, 19절)

- ㉠ (1) 주께서는 시장기를 느끼시고 길가의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게로 가서 열매를 찾으셨다.
 (2) 무화과나무에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음을 은연중 암시한다.
 (3) 그러나 그 나무에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그는 무화과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셨던 것이다.
 (4) 이처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주께서는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임할 심판을 예고하시고(참조, 눅 13:6-9) 또한 제자들에게는 기도의 능력을 교훈하시고자 했다.

19. ㉠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는가? (18, 19절)

- ㉠ (1)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로서(렘 8:13; 호 9:10, 16) 이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했으나 정작 열매는 소유치 못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의 외양은 잘 갖추었으나 믿음의 실제적인 경험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2) 결국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아 말라 버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로마에 의해 망국(亡國)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3) 이것은 형식과 의식에만 치우치고 실제적으로 성령의 열매(갈 5:22)를 맺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인(church-man)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심판의 경고이다.

20. ㉠ 무화과나무의 표적을 통하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는 무엇인가? (20-22절)

- ㉠ (1) 주께서는 무화과나무의 표적을 통하여 '믿고 구하는 기도'의 능력에 관하여 교훈하셨다.
 (2) 즉 참된 믿음은 무화과나무의 표적과 같은 능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산을 바다로 옮기는 능력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은 믿고 구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약속되어 있다. 즉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22절).
 (4) 여기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5)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결코 우리 스스로가 믿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6) 대신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 및 그 뜻에의 순종

과 관련된다.

(7) 이처럼 우리는 살아 있는 믿음과 그 믿음에서 출발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형식적인 신앙 생활도 청산할 수 있다. 사실 우리들이 날마다 직면하는 싸움은 이러한 자신에게 있는 의형과 내면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다(참조, 롬 7:18-23).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방법밖에는 없다(참조, 히 12:2).

21. ㉠ 고난 주간의 화요일에 발생한 사건들을 본서를 중심으로 요약하라.

- ㉠ (1) 고난 주간의 세째 날인 화요일에 발생한 사건들은 본서 18절-26:16까지의 긴 부분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 (2) 이중 특별히 23절-22:46은 예수께서 여러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신 내용과 그 논쟁에 관련된 몇 가지 비유로 구성되어 있다.
- (3) 당시에는 성전에서 유명한 선생들을 가로막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관습적인 일이었었는데(22:16, 23, 35) 군중들은 이렇게 시작된 대화에서 오고 가는 말들을 듣기를 즐겼다.
- (4) 예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파상적인 질문들을 다윗의 자손 문제(22:41-46)로 봉쇄해 버린 후 제자들과 유대 교권자들에게 '7 화(禍)의 교훈'을 말씀하셨다(23장).
- (5) 그 후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는 감람산으로 물러가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작은 계시록'이라 불리우는 유명한 종말론의 교훈을 베풀어 주셨다(24, 25장).

22. ㉠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23절)

- ㉠ (1) '대제사장들'(Chief priests)은 높은 지위에서 성전의 일을 담당한 자들로서 산헤드린(Sanhedrin)에 소속된 성직 귀족 계급의 고위층이었다.
- (2) '장로들'(elders)은 성직자가 아닌 산헤드린 회원들 중에 영향력 있는 평신도 가문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 (3) 이러한 명칭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등 신학적 종파를 나타내는 명칭과는 달리 산헤드린 회원들이 지니는 종교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말이었다.
- (4) 예수 당시의 이들 두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은 건전한 종교 운동과 율법의 순수성 보존 등에 대한 관심보다는 종교를 빙자한 세상적인 명예와 부를 축적하는 데 급급해 있었다(참조, 26:57-68; 27:1-20). 이는 복음을 빙자하여 장사 속셈을 가지고 활동하는 현대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다.

23. ㉠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아왔는가? (23절)

- ㉠ (1)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숙정하신 일 등에 대해 예수가 가진 권세의 출처를 추궁했다.
- (2) 이러한 추궁은 예수를 곤경으로 빠뜨리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계략이었다.
- (3)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행하였다고 말씀하시면 그를 하나님 모독죄로 산헤드린에 고발할 심산이었던 것이다.
- (4) 이것은 마치 종이 주인에게 그 다스릴 권한이 어디 있는가 하고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교만이다.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치 못한 자가 범하는 어리석음이다.

24. ㉠ 권세의 출처에 관한 예수의 대답은 어떠했는가? (24-27절)

- ㉠ (1) 예수께서는 이미 질문자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매우 지혜롭게 대응하셨다.
- (2) 즉 그는 자신의 다른 질문을 제기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응수하셨는데(24절), 이는 랍비들이 논쟁할 때 매우 흔히 사용하던 방식이었다.
- (3) 예수께서 다시 제기하신 질문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라는 문제였다.
- (4) 여기서 '요한의 세례'란 단순히 그의 세례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그의 모든 사역

을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된 말이다.

- (5) 이러한 예수의 반문은 질문자들의 헛점을 예리하게 지적한 것으로 그들은 어느 쪽으로도 대답치 못하고 마침내 '알지 못하노라'고 얼버무렸다.
- (6) 결국 질문한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권세도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것이다.
- (7) 만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결코 새로운 진리를 배워 나갈 수 없다.
- (8) 그래서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 7:17).

25. **㉠** 두 아들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28-32절)

- ㉠** (1) 예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의식적인 태도를 지적하시기 위하여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 (2) 그 비유의 내용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가겠다고 말하고는 불순종한 맏아들과 싫다고 말한 후 누우치고 순종한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였다.
 - (3) 여기서 맏아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요한의 도를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며,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세리와 창기를 상징한다(32절).
 - (4) 결국 이 비유는 선천적인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31절; 7:21).

26. **㉠**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지니는 중심적 의미는 무엇인가? (33-41절)

- ㉠** (1) 이 비유는 앞에 언급된 '두 아들의 비유'와 동일한 동기를 가지고 말씀되어졌다.
- (2) 따라서 이 비유의 중심적 의미도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지적하려는 데에 있다.
 - (3) 그런데 이 비유는 앞의 것에 비해 매우 직선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반역하고 있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27. **㉠**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은 각각 누구를 상징하는가? (33-41절)

- ㉠** (1) 먼저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 이 주인이 포도원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구유와 망대를 설치한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를 생각나게 한다.
- (2) 주인에게 포도원을 세(賃)로 받은 농부들은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한다. 또한 주인의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주인의 아들은 예수를 상징한다.
 - (3)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농부들이 주인의 파송을 받은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들로 쫓듯이(35절) 세례 요한을 비롯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다.
 - (4) 더 나아가서 그들은 농부들이 최후로 주인의 아들마저 악한 생각으로 살해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고 말았던 것이다.
 - (5) 그러므로 그들은 농부들이 주인에 의해 진멸당한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말 것이다.
 - (6) 마지막으로 '제 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이란 하나님의 백성다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하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업, 즉 천국이 상속되어질 것이다.
 - (7) 우리는 이 짧은 비유 속에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요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8) 이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에게 임할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우리에게 새삼 일깨워 준다.

28. **㉠** '너희가 성경에...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는 표현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라(42절).

- ㉠** (1) 이러한 표현은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사용하신 독특한 어법(語法)

이다(16절;12:3;19:4;막 12:10).

- (2) 예수께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신 경우는 모두 성경이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려려고 할 때였다.
- (3) 실제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려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요 5:39).
- (4)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상고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29. **㉠** ‘모퉁이의 머릿돌’은 누구를 상징하는 말인가? (42절)

- ㉠** (1) ‘모퉁이의 머릿돌’에 관한 이 인용문은 시 118:22, 23으로부터 인용된 것이다.
- (2) 여기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건축 용어로서 지붕이나 건물 바깥 계단, 혹은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돌을 가리킨다.
- (3) 시 118편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것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버린 돌’처럼 여러 민족들로부터 학대와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 ‘모퉁이의 머릿돌’,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축복받았음을 노래하고 있다.
- (4)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그의 적대자들로 버림과 핍박과 죽음을 받으셨다.
- (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사 온 교회의 기초석이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행 4:11;엡 2:20;벧전 2:4, 5).
- (6)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두 모퉁이의 머릿돌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신령한 건물로 지어져 가는 영적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한다(엡 2:20-22).

30. **㉠** 예수께서는 42절의 인용문을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43절)

- ㉠** (1) 그는 이미 말씀하신 농부의 비유(33-40절)와 더불어 42절의 인용문을 당시의 상황에 정확히 적용하셨다.
- (2) 즉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백성들이 그 나라를 상속하리라는 것이다.
- (3) 과연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은 이스라엘로부터 박탈되어 다른 민족, 즉 교회에게로 넘겨졌다(벧전 2:9).
- (4) 오늘날 교회 안에 속한 자라 하더라도 겉치레의 신앙 생활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도 신령한 축복을 받는 데서는 탈락되고 말 것이다(7:21;엡 1:3).

31. **㉠**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의 운명을 말하라 (44절).

- ㉠** (1)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는 마치 모퉁이의 머릿돌과 충돌하는 자와 같아서 깨어지고 부수어지듯이 멸망해 버릴 것이다.
- (2) 이러한 본질의 말씀은 사 8:14, 15과 단 2:35의 내용으로부터 합성되어진 귀절이다.
- (3) 이 귀절은 결국 예수를 통해서 실현되어진다.
- (4) 즉 그를 대적하고 덤비는 자는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는 자와 같아서 그의 생은 산산이 부서어지고야 말 것이다.

32. **㉠** 예수의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45, 46절)

- ㉠** (1)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거부한다면 그로 인해 멸망당하리라는 예언을 들었다.
- (2)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경고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체포하여 해치려고 하였다.
- (3)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잡지 못한 이유는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있는 많은 군중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46절).

- (4) 이처럼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경고하셨던 그 상황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 (5) 이들이야말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완악한 백성이요 귀머거리 독사와 같았던 것이다(참조, 사 6:9, 10).
- (6) 오늘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태도와 반응은 어떠한가?

연구자료

예수의 비유

‘비유’(譬喩)란 어떠한 관념이나 사물에 대한 설명을 그와 비슷한 관념이나 사물을 끌어대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유란 화자(話者)가 강조하려는 요지(要旨)를 일상 생활의 낯익은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함으로써 이해시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대부분 심오한 영적 진리와 관련이 있다(33-46절; 눅 15: 11-32). 그러므로 어느 성경 학자는 ‘비유란 하늘의 의미를 가진 땅의 이야기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비유와 관련지어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분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13:34)고 표현될 정도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평범하고 무식한 사람들에게도 영적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사용하신 이야기 형식이 바로 ‘비유’였다. 예수께서는 비유가 갖는 ‘단순성’(單純性)이라는 속성이 자신이 가르치려 하는 복된 소식을 모든 세대에 걸쳐 안전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찰하셨음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비유는 복음의 원뜻이 지나치게 노출되거나 오해되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도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자신의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바리새인(Pharisees)이나 사두개인(Sadducees)과 같이 영안(靈眼)이 어두워진 자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었다.

아름든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는 가운데 ‘씨 뿌리는 자 비유’(13:5-8; 막 4:3-8), ‘열 처녀 비유’(25:1-13), ‘잃어버린 양 비유’(18:12-14; 눅 15:4-7) 등과 같은 예수의 비유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이러한 예수의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불과 몇 마디 안 되는 말 가운데서도 커다란 지혜를 얻게 해준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비유를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感化)시키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참조, 16:17)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제 22 장 성전에서 계속되는 논쟁

단락구분 1-14 혼인 잔치의 비유 / 15-22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이 제기한 납세의 문제 / 23-33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부활 문제 / 34-40 율법사가 제기한 큰 계명 문제 / 41-46 예수께서 제기하신 다윗의 자손 문제

- 1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 2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 3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 4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 5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 6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 7 임금이 노하여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리들을 불사르고
- 8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 9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 10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 11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 12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언이여늘
- 13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하니라
- 14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 15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음무에 걸리게 할까 상문하고
- 16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 17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대
- 18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 외식하는 자들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 19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 20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뉘 것이냐
- 21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 22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 23 부환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 24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 25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 두고
- 26 그 둘째와 셋째도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 27 최후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 28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환 때에 일곱 중에 뉘 아내가 되리이까
-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 30 부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 31 죽은 자의 부환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은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 32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 33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 34 예수께서 사두개인으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 35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 36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 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41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42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뉘 자손이나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43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란 네 발 아래 돌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5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라.

- ㉠ (1) 본장에는 고난 주간의 세째 날인 화요일에 발생했던 사건들이 계속하여 언급되고 있다.
- (2) 그중 혼인 잔치의 비유는 천국에서 배척될 자들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전장(前章)의 두 비유(21:28-32, 33-41)와 맥을 같이하는 세번째의 비유이다.
- (3) 이로써 권세에 대한 논쟁(21:23-27)을 제기했다가 깨끗이 패배한 대적자들은 다시금 바리새인과 헤롯당, 사두개인, 율법사 등의 순서로 납세, 부환, 계명 문제를 들고 예수께 대하여 파상적(波狀的)인 공격을 취하였다.
- (4) 그러나 이러한 논쟁에 있어서도 완벽한 답변으로 승리하신 예수께서는 반격으로써 다윗의 자손 문제를 제기하여 저들의 입을 완전히 봉쇄하셨다.
- (5) 이러한 본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입성으로 공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을 신학적으로 확립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 혼인 잔치의 비유가 지니는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1-14절)

- ㉠ (1) 이 비유는 전장(前章)에 언급된 두 비유, 즉 두 아들의 비유(21:28-32), 포도원 농부의 비유(21:33-41)에 이은 연속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다.
- (2) 즉 이 세 비유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척될 것을 경고하는 주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 (3) 그런데 앞의 두 비유에서는 명령에 대한 불순종 혹은 의무에 대한 불이행의 문제가 다루어졌는데 이 비유에서는 은총에 대한 거부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 (4) 이것은 인간의 구원이 은총에 의해 되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배은망덕(背恩忘德)한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 (5) 이 비유는 눅 14:16-24에 나오는 '큰 잔치의 비유'와 매우 유사하기는 하지만 별개의 주제를 가진 각각의 비유임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3. ㉠ '혼인 잔치의 비유'와 눅 14:16-24에 나오는 '큰 잔치의 비유'가 지닌 차이점을 열거하라.

㉠ (1) 다음 도표를 참조하라.

| 항목 \ 구분 | 혼인 잔치의 비유(1-14절) | 큰 잔치 비유(눅 14:16-24) |
|-----------|---------------------------|----------------------|
| 잔치를 배설한 자 | '어떤 임금' (2절) | '어떤 사람' (16절) |
| 잔치의 이름 | 임금의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 (2절) | '큰 잔치' (16절) |
| 초청의 회수 | 두 번(3, 4절) | 단 한번(17절) |
| 거절의 태도 | ① 밭으로 (5절) ② 상업차로 (5절) | ① 밭(18절) ② 소(19절) |

| | | |
|--------------|--------------------|-------------|
| | ③ 종들을 능욕, 살해 (6 절) | ③ 장가 (20 절) |
| 거절한 자에 대한 보응 | 군대를 보내 진멸 (7 절) | 없 음 |

- (2) 위와 같은 차이점 외에도 혼인 잔치의 비유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으나 (11-13절) 큰 잔치의 비유에는 없다.
- (3) 이러한 여러 차이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두 비유는 서로 다른 역사적 상황에서 비롯된 별개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4. ㉠ 혼인 잔치는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2절)

- ㉠ (1) 혼인 잔치는 임금의 아들을 위한 것이니 (2절) 만큼 메시아의 잔치를 암시하는 말임에 틀림없다.
- (2) 임금의 아들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며 메시아는 종종 신랑이라는 말로 상징된다 (9:15; 25:1; 요 3:29; 엠 5:25-32; 계 21:2, 9).
- (3) 그러나 이 비유에 나타난 혼인 잔치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메시아의 잔치와 동일시되어 지지는 않는다.
- (4) 왜냐하면 메시아의 잔치에서는 이 비유에 나타나 있듯이 (3, 5, 6절) 초청에 거부하거나 승락할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 (5) 아마도 이 비유에 나타난 초청은 성령의 부르심이 아니라 일반적인 복음의 전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6) 결국 분명한 복음 전도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가 택함 받지 아니한 자임을 나타내는 것밖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5. ㉠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3, 5, 6절)

- ㉠ (1) 그들의 행동은 오늘날 복음 전도를 받고도 완악한 심령으로 거둬서 거절하다가 마침내 멸망하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한다.
- (2)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첫째 싫어하고 (3절) 돌아보지도 않고 세상 일에 힘쓰며 (5절) 복음 전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6절) 행동 유형으로 나타난다.
- (3) 우리는 사도행전의 앞 부분 (1-7장)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향해 위와 같은 행동 유형으로 반응하는 많은 유대인들을 실제로 목격할 수 있다.
- (4) 유대인들은 사도들과 믿는 자들을 잡아 투옥하였으며 (행 4:3; 9:2; 12:4) 스데반 (행 7:58) 과 야고보 (행 12:2) 를 순교하게 했다.
- (5) 이런 자들은 오늘날까지 계속하여 존재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강박한 행동은 자신들의 심판과 멸망을 자초할 뿐이다.

6. ㉠ '오찬' 은 어떤 식사를 말함인가? (4절)

- ㉠ (1) '오찬' 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리스톤>으로 이 말은 당시 유대인이 먹던 하루 두 끼니 중 첫번째 끼니를 가리키는 말로서 보통 늦은 아침 (mid-morning) 에 갖는 식사를 말한다.
- (2) 이에 비해 눅 14:16에 잔치란 말로 번역된 헬라어 <테이프논>은 두번째 끼니, 즉 저녁 식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 (3) 한편 본문 (1-3절) 에 나온 '혼인 잔치' 에 해당하는 헬라어 <가무스>는 복수로 쓰여져서 잔치가 며칠 동안 계속되는 행사임을 보여 준다.
- (4) 따라서 이 비유에 나타난 '오찬' 은 며칠 동안 열릴 잔치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7. ㉠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어떠한 심판을 받았는가? (7절)

- ㉠ (1) 임금은 자기의 초청을 거절할 뿐 아니라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자들에 대해 크게 분노하여 군대를 보내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집을 불살라 버렸다.

- (2) 이러한 임금의 심판은 우선 가깝게 A. D. 70년 로마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거부한 모든 자들이 최후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 (3) 메시아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약속되는 것이라면 오직 영원한 멸망 그것뿐이다(참조, 21:38-41, 44).

8. **㉠** 임금은 다시 종들을 통해 어떠한 자들을 초청하도록 하였는가? (8-10절)

- ㉠** (1) 임금은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않음을 선언하고 사거리 길로 나가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초청하도록 종들에게 명령했다.
- (2) 여기 ‘만나는 대로’란 말은 초청 대상이 어떠한 외적 조건도 관계되지 않고 실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짐을 뜻한다.
- (3) 그리하여 종들은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 혼인 잔치 자리를 꼭 채우게 되었다.
- (4) 특별히 ‘악한 자나 선한 자나’란 말은 인간적인 기준의 선악에 상관없이 오직 은총으로 구원받게 되는 진리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 (5)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선악에 상관치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부르심은 당신의 기쁘신 뜻에 의한 것이다.

9. **㉠**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가? (11절)

- ㉠** (1) 혼인 잔치에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구분이 없었지만 단 한 가지 예복을 입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
- (2) 이 예복은 잔치 손님들을 위하여 임금이 하사한 것으로 이것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다.
- (3) 우리도 비록 선악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구원을 얻지만 구원받은 증거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만 한다(롬10:9, 10).
- (4)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롬 13:14; 계 19:8).
- (5) 그러므로 본문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거절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아닌 어정쩡한 신자를 상징한다. 예수께서는 이런 상태의 신앙인을 거부하신다(참조, 계 3:15, 16).

10. **㉠** ‘유구 무언’(有口無言)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2절)

- ㉠** (1)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향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다정하게 질문하였다.
- (2) 그런데도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옷을 입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지 않은 채 혼인 잔치에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룩하시고 또 준비하셨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는다면 이는 순전히 인간의 게으름과 부주의로 말미암은 결과이다.
- (5)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엡5:16)고 훈계하고 있다.

11. **㉠** ‘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란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14절)

- ㉠** (1) 이 말씀은 외경 에스라 4서에도 세 번이나 사용된 바 있는 고대의 격언이다.
- (2)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일반적으로 초청하시면서 또한 그 일부를 특별히 선택하신다는 구원의 진리를 보여 준다.

(3) 그러므로 결국 그리스도왕 거부하는 것은 그것이 무관심에서 기인한 것이든지 (5절), 반역에서 기인한 것이든지 (6절), 아니면 태만에서 기인한 것이든지 (12절) 자신에게로 그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참조. 롬 1:20).

12. **㉠** 납세에 관한 질문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가? (15-22절)

- ㉠** (1) 이미 종교적인 면에서 권위의 문제를 제기하였다가 (21:23-27) 패배한 바리새인들은 구수 회의(鳩首會議) 끝에 이번에는 정치적인 문제인 납세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나아왔다.
- (2)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인두세(人頭稅)를 바치도록 강요받았다.
- (3) 인두세는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되었는데 이는 열심당원과 같은 유대의 우국 지식사들에 의하여 매국적인 것으로 맹렬한 반대를 받고 있었다.
- (4) 이러한 가운데 만일 예수께서 납세에 찬성하신다면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잃을 것이다.
- (5) 그렇다고 반대를 하신다면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 되어 로마 군대에 의해 모반죄로 체포될 것이다.
- (6) 바로 이러한 진퇴 양난의 읍무에 예수를 몰아넣기 위해 바리새인들은 평소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헤롯당과 합작하여 납세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 (7) '헤롯당'이란 종교적 당파가 아니라 단순히 헤롯 안디바의 추종자들로서 바리새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친로마파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 (8) 이처럼 진리를 왜곡하려고 하는 자들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지조와 주의까지도 저버리고 원수들과도 야합하여 광분(狂奔)하려는 경향이 있다.

13. **㉠** 바리새인과 헤롯당원들이 예수께 정중히 질문한 의도는 무엇인가? (16, 17절)

- ㉠** (1) 그들은 우선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호칭한 후 ① 참되시고 ②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③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찬사를 늘어놓으면서 질문을 하였다.
- (2) 이러한 찬사는 사실로서 바리새인과 헤롯당원들마저도 예수의 참되심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 준다.
- (3)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런 찬사를 발한 것이 아니다.
- (4) 그들의 진정한 속셈은 예수께서 훌륭한 유대 랍비임을 인정해 줌으로써 은연중 그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는 대답을 하도록 이끄는 데에 있었다.
- (5) 그러나 결국 그들의 의도는 예수의 지혜로운 대답 앞에서 무산되어 버렸고 예수의 참되심을 증거하는 역할을 한 셈이 되고 말았다.
- (6)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시험하는 자의 교활함과 어리석음을 목격하게 된다.
- (7) 우리가 당면하는 매일의 삶에서도 악인의 간계한 유혹과 도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때 우리가 취할 태도는 우리의 의지를 주께 맡기고 그분의 선하신 인도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참조 6:13; 시 37:5; 뱀전 5:7).

14. **㉠** '가이사'는 누구를 말하는가? (17절)

- ㉠** (1) '가이사' (Caesar)는 본래 로마의 초대 황제인 율리우스 가이사(Julius Caesar, B. C. 100-44)의 성(姓)으로서 후대의 황제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쓰이게 되었다.
- (2) 따라서 성경 중에 나타나는 '가이사'란 명칭이 가리키는 로마 황제는 여러 사람이다.
- (3) 눅 2:1에 언급된 가이사는 아우구스투스(B. C. 27-A. D. 14), 3:1은 티베리우스(A. D. 14-37), 행 17:7은 클라우디우스(A. D. 41-54), 행 25:8-12와 빌 4:22은 네로(A. D. 54-68)를 가리키고 있다.
- (4) 본절에 언급된 가이사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가리킨다.

15. ㉠ **납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예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셨는가? (18-20절)**

- ㉠ (1) 예수께서는 먼저 달콤한 찬사와 함께 자신을 시험하는 자들의 악함을 꾸짖으셨다. '의식하는 자들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 (2) 이처럼 전지 전능하신 주께서는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가시기는커녕 불꽃 같은 통찰력으로 악한 자들의 걸꾸미는 행동을 먼저 꿰뚫어 보신다.
- (3) 그리고 주의 대답은 질문자들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방식으로 계속되었으니, 즉 그들을 향해 인두세로 지불하는 데 사용되던 동전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던 것이다 (19절).
- (4) 즉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자 주께서는 21:23-27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질문한 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심으로 그들 자신이 대답을 하도록 만드셨다.
- (5) 이러한 주의 지혜로운 대응법은 가장 효과적인 시청각적 상담 교육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16. ㉠ **당시 납세를 위해 통용되던 화폐는 어떤 모양이었는가? (19절)**

- ㉠ (1)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두세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데나리온과 같은 로마의 은전을 사용하였다.
- (2) 로마 시대의 은전의 한쪽 면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과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글이 새겨 있었고, 다른 한쪽 면에는 '최고 승원장'이라는 의미의 라틴어가 새겨져 있었다.
- (3) 주께서는 바로 이러한 동전을 가리키시며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고 질문자들에게 물으셨다.
- (4) 이에 대해 그들은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주의 유명한 답변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명언이 탄생하게 된다.

17. ㉠ **주께서 납세의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답변의 의미를 설명하라 (21절).**

- ㉠ (1) 예수께서는 납세의 문제에 대하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치라' (KJV, Render unto Caesar the things which are Caesar's; and unto God the things that are God's) 라는 답변으로 최종적인 말씀을 하셨다.
- (2) 이 말씀은 결코 헤롯당과 같은 현실 타협을 용납하지 않으며 또한 열심당과 같은 환상적 민족주의도 지지하지 않는 말씀이다.
- (3)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땅의 권세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가이사에게 합당한 의무를 이행하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 (4) 바울과 베드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도가 세상의 권세자에게 취할 태도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롬 13:1-4; 벰전 2:13-17).
- (5) 결국 본장에 나타난 예수의 답변은 오늘날 정치와 종교와의 관계, 그리스도인의 현실 참여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주는 명언 (名言) 이다.

18. ㉠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22절)**

- ㉠ (1) 그들은 예수의 완전하신 답변을 듣고 '기이히' 여기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 (2) 여기서 '기이히 여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다우마조>인데 이는 '놀라다' (marvel), '감탄하다' (wonder)의 뜻을 지닌 말이다.
- (3) 이처럼 예수의 말씀은 얼마나 완벽한 말씀이었는지 그를 책잡으려 하던 자들까지 감탄하게 했던 것이다.
- (4) 결국 원수들은 예수의 기이하고 권세있는 말씀 앞에서 힘없이 물러나고 말았다.
- (5) 성도들이 교활한 사단의 꾀계를 물리치는 방법도 완전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즉 성

경의 교훈으로 대항하는 데에 있다(참조, 4:1-11; 엠6:10, 11, 17).

19. ㉠ 부활 문제를 제기한 사두개인은 어떤 자들인가? (23절)

- ㉠ (1) 사두개인(the Sadducees)은 귀족적인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로 성전의 소득으로 생활하였다.
- (2)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은 솔로몬 시대에 정통적 제사장 가문을 열었던 제사장 사독(왕상 2:35)으로부터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 (3) 신약 시대에서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그 당파들이 이 무리에 속했다(행 4:1; 5:7).
- (4) 이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모세 오경만을 '율법'으로 여겼으며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었다(막 12:13; 눅 20:27; 행 23:8).
- (5) 바리새인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와 실패하자 이제 지식층이라고 자부하던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부활에 관한 난제로 시험을 했다.

20. ㉠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질문의 요점은 무엇인가? (24-28절)

- ㉠ (1) 그들은 바리새인들이나 헤롯당들이 그랬듯이 예수를 존경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마치 그를 존경하듯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께 나아왔다(16절).
- (2) 그들은 모세의 계대 결혼법(繼代結婚法, 신 25:5)을 예로 들어 일곱 남자와 결혼한 한 여인이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했다.
- (3) 계대 결혼(levirate marriage)이란 사람이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을 경우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 주는 제도로 '수혼'(嫂婚) 혹은 '형사 취수'(兄死取嫂)라고도 불리운다(참조, 창 38:8; 룖 3:9-4:12).
- (4) 사두개인의 질문은 일곱 형제와 차례로 한 계대 결혼을 여인이 부활한 후에 일곱 형제를 만난다면 누구를 남편이라고 할 것인가라는 난해한 문제였다.
- (5) 만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부활에 대한 모든 개념은 불합리한 것이 되고 만다.

21. ㉠ 부활 문제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29-32절)

- ㉠ (1) 예수께서는 먼저 사두개인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 무지한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셨다(29절).
- (2) 그리고 그는 부활 때에 사람의 몸이 결혼하지 않는 신령한 몸(spiritual body, 고전 15:44)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신 후 출 3:6의 성경을 인용하여 부활의 진리를 강력하게 증거하셨다.
- (3) 흔히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에 부활을 증명할 귀절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예수께서는 모세 오경의 말씀에 속한 출 3:6을 제시하시므로써 그들의 주장을 일거에 분쇄하여 버리셨다.
- (4) 이로써 사두개인의 질문은 그 착상(着想)부터가 성경을 무시한 채 인간의 저급한 추측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드러났고 부활의 진리는 더욱 확실하게 입증되었다.
- (5)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철학적 난제들도 실상은 성경의 무지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참조, 답후 3:15-17).

22. ㉠ 사람은 죽은 후 어떤 상태로 부활하는가? (30절)

- ㉠ (1)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에는 더 이상 이 세상과 같은 몸을 갖지 아니하며 마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시공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을 갖게 되며(빌 3:21; 요 20:26)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고전 15:52, 53).
- (2) 특별히 부활한 후에는 흑시 성(性)의 구별은 있을지라도 결혼하는 일은 없어진다.
- (3) 왜냐하면 결혼은 사람이 죽은 후 대를 잇기 위한 것인데 부활 때에는 다시 죽는 일이

없으므로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 (4) 이런 의미에서 부활체의 인간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아지는 것이다.
- (5) 여기에서 어떤 이들은 천국에서는 그 이전의 삶이나 여러 관계들에 대한 기억조차 없어질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이는 근거 없는 가정에 불과하다.
- (6) 실상 구원받은 자의 부활 때의 변화는 매우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고전 15:44; 빌 3:21; 요일 3:1, 2) 본문에 제시된 일곱 형제들의 아내는 틀림없이 모든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들 모두에게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3. **㉠** 예수께서는 출 3:6을 인용하시면서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31, 32절)

- ㉠** (1) 예수께서 인용하신 출 3:6 말씀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다.
- (2)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렙 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주신 말씀이다.
- (3)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 하나님이었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만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과거의 죽은 자이지 현재의 산 자는 아니다.
- (4) 대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 하나님이니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 이는 아브라함 등 세 사람이 산 사람임을 의미하고 있다.
- (5) 결국 이 귀절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이 몸은 비록 죽었으나 영혼은 살아 있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될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다.
- (6)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셨던 것이다.

24. **㉠** 세번째 논쟁의 주인공인 '한 율법사'는 어떤 사람인가? (34, 35절)

- ㉠** (1)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자 이번에는 다시 바리새인들이 모여 와서 계명 문제를 통하여 예수를 시험하고자 음모를 꾸몄다.
- (2) 이러한 음모에 따라 예수 앞에 나선 사람이 바로 본문의 율법사이다.
- (3) 그러므로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이며 특별히 교육을 받아 성경을 해설하는 사람으로 보통 서기관(막 12:28), 교법사(눅 5:17)라는 명칭으로도 불리어졌다.
- (4) 평행 귀절인 막 12:28이하를 보면 이 율법사는 비록 바리새인들의 음모에 따라 나오기는 했으나 예수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예수의 칭찬을 받았다(막 12:34).

25. **㉠** 유대 사회에서 '큰 계명'의 논쟁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36절)

- ㉠** (1) 유대인들은 항상 계명 준수에 관심이 많았으므로 자연스럽게 성경에 나타난 계명들을 분류하는 일에 힘을 많이 기울였다.
- (2) 어떤 랍비는 계명들을 총 613개 항으로 정리하고 그중 248개는 적극적인 계명으로, 365개는 소극적인 계명으로 분류했다.
- (3) 또한 여기서 613개 항을 모세의 계명으로 본다면 다윗은 그것을 11계명으로 요약했고(시 15:2-5), 이사야는 6계명으로(사 33:15), 미가는 3계명으로(미 6:8), 아모스는 2계명으로(암 5:4) 그리고 하박국은 단 하나의 계명으로(합 2:4) 줄였다는 주장도 있다.
- (4) 따라서 본문의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을 예수께 질문한 것은 유대인들의 지대한 관심을 대변하여 예수의 명쾌한 대답을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5)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의 성도들에게도 기억하기 쉽도록 기독교인의 생활 원리를 간추려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6. **㉠**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 (37, 38절)

- ㉠** (1) 예수께서는 신 6:5; 레 19:18을 인용하여 큰 계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중 첫째 되는 계명은 신 6:5에서 인용되었다.

- (2) 즉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 (3) 여기서 '마음' (heart), '목숨' (soul), '뜻' (mind)은 서로 중복되는 개념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투입해야 할 우리 인간의 전인격과 모든 능력을 가리킨다.
- (4) 또한 '사랑'에 대한 헬라어는 남녀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나, 친구의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가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로서 그 사랑의 질(質)을 밝혀 준다.
- (5) 이처럼 전인격적으로 또한 절대적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과 그 목적을 성취할 힘을 공급받으며 승리하게 된다.

27. ㉠ '둘째 계명'은 무엇인가? (39절)

- ㉠ (1) 둘째 계명은 레 19:18에서 인용된 것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 (2) 이것이 레 19:18에서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또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눅 10:29-37에서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 대상의 영역이 확대된다.
- (3) 또한 여기서 말씀하신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같은 맥락에서 행해져야 한다.
- (4) 즉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요일 4:20, 21).
- (5) 결국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 (6)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상통하는 것으로 상호간에 분리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28. ㉠ 예수가 말씀하신 '두 계명'과 구약의 십계명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40절)

- ㉠ (1) 구약의 십계명(출 20:1-17; 신 5:6-21)은 모세 오경의 초점이고 모세 오경은 구약 전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 (2) 그런데 이 두 계명이 또한 '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다. '은 율법과 선지자'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5:17).
- (3) 따라서 두 계명과 십계명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 (4) 형식면에 있어서 두 계명 중 첫째 계명은 10계명의 처음 4계명 곧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요약한 것이요, 둘째 계명은 10계명 중 나머지 6계명 곧 사람에게 대한 계명을 요약한 것이다.
- (5) 또한 내용면에 있어서 두 계명은 10계명의 중심적인 정신을 밝혀 주고 있다. 즉 10계명의 핵심은 바로 '사랑'의 실천에 있는 것이다.
- (6) 우리가 만일 10계명과 두 계명에서 가르쳐 주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성경도 무용한 것이 되고 만다.
- (7) 즉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계명은 단지 존재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받은 자가 지킴으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명의 요체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참조, 요 13:34, 35).

29. ㉠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 문제를 제기하신 의도는 무엇인가? (41-46절)

- ㉠ (1) 예수께서는 이미 헤롯당, 사두개인, 바리새인 등의 연속되는 질문을 완벽하게 답변함으로써 그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
- (2) 이제 그는 자신의 메시아성을 확실히 밝히시기 위한 결정적인 논제를 제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시 110:1에 근거한 '다윗의 자손 문제'이다.

- (3) 여기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님을 천명하고 있다.
- (4) 대신에 그는 자신이 단순한 다윗의 자손을 넘어선 다윗의 주(主)로서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기 위하여 오신 우주적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셨다.
- (5) 이로써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이후 계속되던 메시아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장편의 설교(23-25장)를 행하시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놓으신 셈이다.

30. ㉠ 예수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 (42절)

- ㉠ (1) 예수는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지 않으시고(참조, 16:15)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다.
- (2) 이 질문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부각되어지는 문제이다.
- (3) 예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로마의 권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로 생각하다가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듯이 현대인들도 지상적 변명을 이루어 줄 메시아를 생각하다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만다.
- (4)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곧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 땅과 새 하늘에서 완전한 통치를 하실 우주의 주이시다.

31. ㉠ 44절에 인용된 시 110:1의 의미를 설명하라.

- ㉠ (1) 44절에 인용된 시 110:1의 내용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이다.
- (2)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시 110:1의 말씀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하였다.
- (3) 그런데 놀라운게도 시 110:1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주(히, 아도나이)로 언급됨으로써 메시아를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하던 유대인의 통념을 뒤엎어놓는다.
- (4) 예수께서는 바로 이 점을 거듭하여 지적하시면서 유대인이 갖고 있던 인간적, 물질적, 민족적 메시아관을 시정하여 주셨다.
- (5)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人性)과 신성(神性)을 온전히 이해할 때에 비로소 복음을 바로 깨닫게 된다.
- (6) 예수는 육으로만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신 분이요 우리의 주 메시아가 되어 주셨다(롬 1:2-4).

32. ㉠ 예수의 변론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46절)

- ㉠ (1) 다윗의 자손 문제에 대한 예수의 변론이 끝나자 모여 서 있는 자 중에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었다'.
- (2) 여기 정규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선생이(요 7:15-18) 유대의 유명한 신학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놀라운 기적이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권위를 잘 대변해 주는 사건이다.
- (3) 끝없이 계속될 것 같은 성전에서의 논쟁도 결국은 길과 진리와 생명되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4) 이제 예수가 제기한 마지막 물음(45절)에 대해 당시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으나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한 젊은 바리새인이 머지않아 그 대답을 할 것이다(롬 1:1-4;9:5).

제 23 장 외식(外飾) 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

답락구분 1-12 외식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 / **13-36** 외식하는 자(에게) 임함 7화(綱) ① 천국 문을 막는 자들(13-14) ② 지옥 자식을 만드는 자들(15) ③ 헛된 맹세를 시키는 자들(16-22) ④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자들(23,24) ⑤ 겉만 깨끗이 하는 자들(25,26) ⑥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27,28) ⑦ 무덤과 비석을 꾸미는 자들(29-36) / **37-39**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의 한탄

1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2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4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5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웃술을 크게 하고

6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7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8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 땅에 있는 자를 아비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10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11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3 화 있음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 (없음)

15 화 있음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6 화 있음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

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7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나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나

18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9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나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나

20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यो

21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यो

22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23 화 있음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심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4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25 화 있음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 소경된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 화 있음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도다

28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웃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탐욕이 가득도다

29 화 있음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30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

하였으리라 하니

31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 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32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음 채우라

33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박고 그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35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

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36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람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38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3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 ㉠ 본장의 내용이 지니는 중심 사상을 설명하라.

- ㉠ (1) 본장은 앞 부분인 21, 22장에서 언급되었던 5대 논쟁을 마무리짓는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
- (2)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메시야직을 공격하는 네 개의 질문(21:23; 22:15, 23, 34)에 답하고 마지막 반대 질문(22:41)을 통하여 유대 지도자들의 입을 봉쇄하신 예수께서 이제 저들의 외식에 대하여 통렬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신다.
- (3)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는 주께서 몸서리치도록 중요하시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어 듣는 자마다 심각한 충격을 받게 한다.
- (4) 주께서는 살인(막 15:7; 눅 23:43; 행 7:58), 간음(요 8:3, 11), 도적질(눅 19:8, 9)과 같은 죄악에는 설령 관용을 베푸실지라도 의로운 체하는 자들의 외식이라는 죄악에 대해서는 추호(秋毫)도 용납하지 못하는 분이심을 명심해야 한다.
- (5) 이제 본장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는 문제보다도 현재에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 체하며 외식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

2. ㉡ 본장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라.

- ㉡ (1) 본장에 기록된 예수의 메시지는 서론(2-12절), 본론(13-36절), 결론(37-39절)이 분명히 구분되는 설교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서론 부분인 2-12절은 바리새적 종교의 근본적인 결함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참성도들이 지켜야 할 종교 윤리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3) 본론 부분인 13-36절은 바리새적 종교의 외식을 일곱 가지로 나누어 지적하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는 경고를 엄중하게 선포한다.
- (4)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37-39절은 외식하는 자들의 도성(都城) 예루살렘이 마침내 멸망되고 말 것을 비탄 속에서 예언하는 말씀이다.

3. ㉢ 본장의 메시지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 선포되었는가? (1절)

- ㉢ (1) '무리'와 '제자들'을 향하여 선포되었다.
- (2) '무리'(NIV, the crowds)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당원 외에 새로이 모여든 많은 군중들도 포함하여 일컫는 말이다.
- (3) 이에 비해 '제자들'(NIV, his disciples)은 예루살렘 입성(21:6-11) 이후 계속하여 예수 곁에 있었던 열 두 사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 (4) 여기서 우리는 본장의 메시지가 무리 중에 있을 외식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선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 (5)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이 귀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이다.

4. ㉠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가? (2절)

- ㉠ (1) 여기서 '서기관' (헬, 그람마투스)은 율법에 관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책임을 가진 일종의 공직자를 가리킨다. 이런 의미에서 NIV는 이 말을 '율법의 선생'(teacher of the law)이라고 번역했다.
- (2) 이에 비해 '바리새인'은 사회적 공직과는 상관없이 유대교 중 바리새적 종파를 따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다.
- (3)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므로 결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란 말은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을 반복하여 강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4) 물론 예수 당시 존재했던 약 6천 명의 바리새인 중에서 소수의 무리는 진정한 종교를 추구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요 3:1; 7:50-53), 아리마대 요셉(요 19:38), 가말리엘(행 5:34) 등이다.
- (5)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 특히 서기관과 같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던 자들은 종교를 사회적 지위를 높이거나 물질적 이득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 (6) 그러므로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은 일곱 번이나 저주의 대상으로 선언되듯이(13, 15, 16, 23, 25, 27, 29절) 위선적인 종교인을 통틀어 일컫는 표현이다.
- (7) 또한 이 말은 오늘날 기독교인이라 자칭하면서도 위선된 생활을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다. 즉 내용이 없고 겉모습만 있는 신앙인들은 모두 이 부류에 속한다.

5. ㉠ '서기관'의 유래를 설명하라(2절).

- ㉠ (1) '서기관' 제도는 포로 귀환 후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하고 강의했던 사실에서 유래되었다(느 8:1-4).
- (2) 따라서 에스라는 유대인 최초의 서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 (3) 그 후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연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졌으며 바로 이 일을 전문적으로 맡은 사람이 서기관이었던 것이다.
- (4) 서기관들은 율법을 상세히 연구하여 세분하였으며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었다.
- (5) 그들은 안식일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질 수 있는 짐은 무엇이며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얼마라는 등의 행동 규칙을 자세히 정하였으며, 이러한 율법 해석에 관한 내용을 책에 써서 기록하였는데 그 책이 50권 이상이나 된다.

6. ㉠ '바리새인'의 유래를 설명하라(2절).

- ㉠ (1) 서기관이 포로 귀환 직후인 B. C. 450년경에 등장했다면 바리새인은 그로부터 약 300년 후에 등장했다.
- (2) 즉 바리새인은 B. C. 175년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헬라의 종교와 전통을 이식하기 위해 유대교를 박해할 때에 등장한 무리이다.
- (3) 본래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이라는 뜻인데 과연 바리새인들은 멸절의 위기에 있는 유대교를 지키려는 열성으로 자신들을 ① 이방인과 분리했고 ② 부정한 유대인(죄인)과 세리들-눅 15:1, 2)과도 분리했고 ③ 자기들의 유전을 반대하는 자들과도 분리했다.
- (4) 바리새인들은 극단적인 율법주의 폐해와 절대적인 자기 헌신의 미덕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 (5) 그래서 바리새인은 오만한 율법주의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성으로 불타는 성자일 수도 있었다.
- (6) 유대인의 율법 해석서 중의 하나인 탈무드는 바리새인을 일곱 종류로 나누었다.
- (7) 일곱 종류의 바리새인이란 ① 명예 바리새인 ② 지면 바리새인 ③ 피 흘리는 바리새인 ④ 굶사등이 바리새인 ⑤ 타산적 바리새인 ⑥ 떠는 바리새인 ⑦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리

새인 등인데 이중 일곱번째에 속한 바리새인만이 바람직한 바리새인이다.

7. ㉠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3절)

- ㉠ (1) '모세의 자리'란 권위 있는 선생이 앉도록 회당 앞에 설치된 돌(石)좌석을 가리킨다.
 (2) 바로 이 좌석에는 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았다.
 (3)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의 자리에 앉는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권위를 계승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4) 따라서 '모세의 자리'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았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모세의 권위에 대한 법적 계승자로 자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행실과 생활이 합당치 않았기 때문이다(3절).
 (6) 오늘날 모세의 자리에 앉는 자들은 누구인가?

8. ㉠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활을 하였는가? (3-7절)

- ㉠ (1) 그들은 스스로 모세의 권위를 계승했다고 자처하여 백성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섰지만 가르치는 자로서 합당치 않은 생활을 했다.
 (2)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활을 세 가지의 관점에서 예리하게 통찰하시며 지적하셨다.
 (3) 첫째, 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중 인격적인 생활을 하였다(3,4절). 이것은 인격적인 면에서 선생의 결격 사유가 된다.
 (4) 둘째,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를 힘쓰는 인본주의적인 생활을 하였다(5절). 이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선생의 결격 사유이다.
 (5) 셋째, 그들은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저급(低級)한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했다(6절). 이것은 지성적인 면에서 선생의 결격 사유가 된다.
 (6) 과연 오늘날 선생되기를 자처하는 자들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7)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격과 지혜를 갖춘 자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불완전한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신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는 겸손히 주의 능력을 힘입어 성실한 마음으로 교수해야 할 것이다(참조, 고전 4:15, 16).

9. ㉠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중 인격적인 생활을 하였는가? (3, 4절)

- ㉠ (1) 율법에 열심이 있던 바리새인들은 아주 엄격하게 율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킬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명령했다.
 (2) 그러나 정작 그들 자신은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을 행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는 율법의 본정신인 의(義)와 인(仁)과 신(信)도 서슴없이 버렸다(23절).
 (3) 말하자면 그들은 낮엔 인자한 의사 선생님이면서 밤엔 흉악한 살인마로 스티븐슨(R. L. Stevenson)의 소설 중에 묘사되었던 지킬(Jekyll) 박사와 같이 이중 인격을 소유한 주요 두 얼굴의 사나이였다고 할 수 있다.
 (4) 이러한 이중 인격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가장 준엄한 책망을 받아 마땅하다.
 (5) 더우기 그들은 인간으로서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율법의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며 지키도록 했지만 막상 자신들은 그 굴레에서 교묘히 빠져 나오는 고동 술책을 사용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팔경건하고 파렴치한 악행이다.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런 자들의 악행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6) 우리는 주를 믿는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언행 일치(言行一致)의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내면을 통찰하고 계신다(참조 잠

16:2).

10. **㉠**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운 후 자기는 어떻게 하였는가?

(4절)

- ㉠** (1) 그들은 사람들이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는커녕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 (2) 이러한 본질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는지를 비유한 것이다.
- (3) 즉 ‘무거운 짐’이라고 한 표현은 율법 본래의 교훈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제멋대로 이끌어 낸 사소한 규칙들과 지나친 금지 조항들을 뜻한다.
- (4) 바리새인들은 실천하기 힘든 바로 그러한 교훈들을 행하도록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
- (5) 이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벼운 짐으로 바꾸어 주시며 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훈(11:28-30)과 매우 대조적이다.
- (6) 오늘날의 교회도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곳이 아니라, 그것을 벗게 하고 대신 ‘예수의 멍에’를 지게 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11. **㉠** 바리새인들의 인본주의적 생활은 어떠했는가? (5절)

- ㉠** (1) 바리새인들은 설혹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지 않고 오직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 (2) 그 일반적인 예로써 그들은 ‘경문’(經文)의 폭을 넓혀 부착하였으며 ‘웃술’을 크게 하고 사람들 앞으로 행하였다.
- (3) ‘경문’이나 ‘웃술’ 등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장식물이었다.
- (4) 이러한 장식물을 통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심의 신앙을 여실히 드러내는 행동이었다(참조, 요 12:43).
- (5) 이처럼 자기 선행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자는 그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포기하려는 자이다(6:1).

12. **㉠** ‘경문’에 관하여 설명하라(5절).

- ㉠** (1) ‘경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플라크테리아>로서 ‘보존하는 것’이란 뜻이다.
- (2) 이 말은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입방 형태인 가죽 상자인 경문이 그 안에 율법의 중요한 네 귀절(출 13:1-10, 11-16; 신 6:4-9; 11:13-21)이 기록된 양피지를 보존하였던 사실에서 유래된 것이다.
- (3) 또한 경문의 히브리어 명칭은 ‘기도의 띠’를 뜻하는 <네필린>이다.
- (4) 이와 같은 명칭은 유대인들이 아침 기도 시간에 그것을 반드시 착용해야 했던 사실을 반증해 준다.
- (5) 한편 유대인들은 출 13:9; 신 6:8; 11:18에 의거하여 평소에도 경문을 이마와 팔에 차고 다니는 것이 보통이었다.
- (6) 이러한 경문의 규격은 랍비들에 의해 일정한 크기로 정해졌었으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경건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경문의 폭을 넓혔던 것이다.
- (7) 즉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여 그 율법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기 보다는 인간을 의식하여 외형의 화려함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이런 자의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책망이 있을 뿐이다(참조, 25:44, 45).

13. **㉠** ‘웃술’에 관하여 설명하라(5절).

- ㉠** (1) ‘웃술’이란 민 15:38-41에 의거하여 겉옷의 옷단 귀에 부착하는 술(tassel)을 말한다.

- (2) 이러한 술들은 신성한 율법책에 담겨져 있는 613개의 교훈을 상징적으로 가리킨다.
- (3) 특별히 흰색 실과 청색 실로 짜여진 옷술을 옷단 구에 부착하는 것은 스스로를 주의 계명을 소유한 자로 자처하고 매우 신성한 자에 속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이었다 (참조, 9:20).
- (4) 그러나 이 옷술을 크게 만드는 자체는 일종의 걸치레와 허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 인본주의적 행위로 지적되었다.
- (5)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리스도와 자신 사이에 놓여 있는 방해물(의식, 허영, 불경건한 삶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14. **㉠**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했는가? (6, 7절)

- ㉠** (1) 그들은 ① 잔치의 상석(上席)과 ② 회당의 상좌(上座)와 ③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④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
- (2) 이상 네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영광보다는 세상적인 영광과 명예를 의미한다.
- (3) 여기서 잔치의 상석은 연회석의 오른쪽 끝에 위치한 자리를 가리키며 (참조, 26:23; 눅 14:1, 7), 회당의 상좌는 율법의 두루마리를 넣은 께 앞의 오른쪽에 마련된 자리를 말하는데 전자는 사회적인 명예를, 후자는 교권적인 명예를 각각 상징한다.
- (4) 또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나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은 무엇인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우월성을 암시하고 있다.
- (5) 실상 이러한 것들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나 바리새인들의 경우 하나님께 속한 영광보다도 세상의 명예를 더 좋아했다는 점에서 정죄되고 있는 것이다.
- (6) 당신은 과연 하늘의 영광과 세상의 명예 이 둘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15. **㉠** 예수께서 금지하신 세 가지 조항은 무엇인가? (8-10절)

- ㉠** (1) 바리새인들의 위선된 생활을 지적하신 주께서 이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않기 위하여 실천해야 할 세 가지 금지 조항을 말씀하신다.
- (2) 세 가지 금지 조항이란 ①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②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③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 (3)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조항들을 문자적(如字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정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참조, 고전 11:1; 딤후 1:2).
- (4) 주께서는 결코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 존경하는 것을 금하시지 않으셨다 (참조, 고전 12:28; 엡 4:11-13).
- (5) 주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명예를 얻기 위해 지나친 욕심을 품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는 탐욕스런 공명심인 것이다.

16. **㉠**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8절)

- ㉠** (1)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오직 한 분의 참된 랍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사람들끼리는 서로 형제 사이처럼 겸손하게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이다.
- (2) 여기서 '랍비'는 히브리어로 '나의 선생'이라는 뜻인데 당시 바리새인들이 탐할 정도로 권위 있는 선생을 가리키는 호칭이었다 (7절).
- (3)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호칭을 탐하는 것은 지적(知的)인 허세를 추구하는 교만일 따름이다.
- (4)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목사'라는 호칭에 만족하지 못하고 명예 박사 학위를 탐하는 것도 이와 똑같은 허영에 해당된다.

17. **㉠**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9절)

- ㉠** (1) 이 말씀은 혈육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 (2)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란 말은 매우 위대한 인물들을 일컫는 호칭으로도 사용되

있는데(왕하2:12) 여기에는 거의 절대적으로 존경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 (3) 주께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땅에 있는 위인들을 아버지로 부르지 말도록 경계하신 것이다.
- (4) 우리들은 하나님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만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바쳐야 한다.
- (5) 로마 카톨릭에서 그들의 성직자를 일컫는 신부(神父)라는 호칭은 본문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8. ㉠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심은 무슨 뜻인가? (10절)

- ㉠ (1) 여기서 지도자(헬, 카테케테스)라는 말은 8절의 선생(헬, 디다스칼로스)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 (2) 즉 8절의 선생이 '가르치는 자'를 의미한다면 본절의 지도자는 '앞에서 인도하는 자'를 의미한다.
- (3) 따라서 앞에서 선생이 의미하는 지적인 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도자는 전인격적인 면에서 인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 (4) 이처럼 전인격적인 면에서 우리를 지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참조, 히 12:2).
- (5) 그러므로 지도자라 칭함 받기를 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엄청난 교만이다.

19. ㉠ 예수께서 말씀하신 높아짐의 원리는 어떠한가? (11, 12절)

- ㉠ (1) 높아짐의 원리에 관한 예수의 교훈은 전에 천국의 질서 체계를 설명하실 때와 같이(20:26-28) 하나의 역설적인 말씀이다.
- (2) 즉 '큰 자'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11절).
- (3) 이 말씀은 랍비, 아버지, 지도자와 같은 '큰 자'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더 크신 분'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욱 겸손히 처신해야 마땅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 (4) 그 이유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이다(12절).
- (5) 베드로는 이 교훈을 좀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벧전5:5, 6).

20. ㉠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써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될 수 있는가? (12절)

- ㉠ (1)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겸손과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겸손과 혼동된 바보스러움과 노예적인 봉사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2) 이러한 참된 겸손과 봉사의 가장 위대한 모범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20:26-28).
- (3)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놀라운 겸손과 타인에 대한 봉사는 굴욕적이고 노예적인 봉사 행위에 의하여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가 행사하는 최고의 권위와 완벽히 조화되었다.
- (4) 즉 예수께서는 최고의 겸손과 봉사를 실천하신 후 그 누구보다도 높아지셨던 것이다(빌 2:6-11; 히 12:2).
- (5)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음으로써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될 수 있다.

21. ㉠ 예수께서 어떤 자들에게 일곱 가지 화(禍)를 선포하셨는가? (13, 15, 16, 23, 27, 29절)

- ㉠ (1)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
- (2) 예수께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이유는 그들의 어떤 부도덕한 죄악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외식(hypocrisy) 때문이었다.

- (3) 여기서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어 <휘포크리시스>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원어적인 뜻은 본래 자기의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 (4)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을 드러내려고 하였던 점에서(참조, 딤후 3:5) 외식하는 자들이었던 것이다.
- (5) 우리 주께서 가장 중요하시는 죄악은 살인, 간음과 같은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라 거룩한 체하려는 마음의 외식이다.

22. ㉠ 7화(禰)의 내용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13-36절)

- ㉠ (1) 7화의 내용은 그 순서대로 두 개씩 짝 지어지며 마지막 것은 결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
- (2) 첫번째, 두번째의 것(13-15절)은 구원의 길을 막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고 세번째, 네번째의 것(16-24절)은 풍성한 삶을 막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며 다섯번째, 여섯번째의 것(25-28절)은 외식주의자에 대한 경고이다.
- (3) 마지막 일곱번째의 것(29-36절)은 앞에 제시된 외식의 절정으로 선지자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다.

23. ㉠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구원의 길을 막았는가? (13-15절)

- ㉠ (1) 그들은 소극적인 면에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르침으로써(참조, 눅 11:52) 천국 문을 닫고 자신은 물론 들어가려는 자들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했다.
- (2) 또한 그들은, 적극적인 면으로는 열성적으로 전도는 하되 역시 잘못된 성경 지식 때문에 전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에 빠뜨리는 역할을 하였다.
- (3)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 (4)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엡 2:8).
- (5) 오늘날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치는 자나 이단은 실상 모두 외식하는 자들로서 주의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24. ㉠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풍성한 삶을 가로막았는가? (16-24절)

- ㉠ (1) 그들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침으로 백성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 (2) 즉 그들은 성전보다도 성전의 금을 더 중요시하여 비성경적인 맹세법을 가르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물질주의와 미신적 신앙에 빠지게 했다(16-22절).
- (3)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십일조와 같은 규례는 강조하면서 더 중요한 율법의 본 정신은 무시하는 등 앞뒤가 뒤바뀐 종교 생활을 하였다(23, 24절).
- (4) 이처럼 어이없는 가치 판단의 착오를 지적하신 주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소경된 인도자'라고 꾸짖으셨다(16, 17, 19, 24절).
- (5) 결국 이 같은 영적 소경들의 가르침은 우리 주의 뜻인 풍성한 삶(요 10:10)과 반대되는 것으로 백성을 멸망으로 인도하게 될 뿐이다(15:14).

25. ㉠ 20-22절은 맹세를 인정하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5:33-37과 모순되지 않는가?

- ㉠ (1) 문자적인 의미만으로 볼 때 맹세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5:33-37과 맹세를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맹세의 구속력을 강조하는 20-22절은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 (2) 그러나 이 둘은 모순되기는커녕 부조(扶助)하는 관계에 있다.
- (3) 즉 본장 20-22절은 5:33-37의 뜻을 좀더 명확히 드러내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4) 다시 말해 이 부분은 모든 맹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구속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5:33-37은 맹세의 그러한 성격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는 맹세를 금지하는 말씀인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 뿐 아니라 인간들 앞에서 행

한 어떤 맹세, 즉 그것이 비록 하찮은 내용의 맹세라 하더라도 성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맹세가 우리의 삶을 지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26. ㉠ 23절이 가르쳐 주는 십일조의 원리는 무엇인가?

- ㉠ (1) 이 귀절은 십일조와 같이 율법의 사소한 규례들은 철저히 지키면서 율법의 중심적 교훈은 무시하였던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는 말씀이다.
- (2) 본문에 ‘박하’ (薄荷, mint)나 ‘회향’ (茴香, dill)이나 ‘근채’ (芹菜, cummin)는 모두 율법의 양념으로 사용되는 식물들인데 아주 미미한 수입을 의미한다. 바리새인들은 이들에게까지 십일조의 규례를 적용할 정도로 철저했다.
- (3) 한편 그들은 그 모든 규례를 포용하는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의’ (義, justice)와 ‘인’ (仁, mercy)과 ‘신’ (信, faithfulness)을 버림으로써 (참조, 미 6:8) 주님께 대단한 찬양을 받았다.
- (4) 이런 생활은 마치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는다고 포도주에 섞여 있는 사소한 하루살이를 걸러내면서도 커다란 약대는 몽째로 삼켜 버리는 어리석은 행위와 다를 바 없었다 (24절).
- (5) 그러나 주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십일조도 마땅히 행해야 할 규례임을 밝혀 주셨다.
- (6) 이는 하루살이나 약대가 다 부정한 동물이라면 (레 11:20, 23; 17:10-14) 하루살이와 마찬가지로 약대도 역시 먹지 말아야 함과 똑같은 얘기이다.
- (7) 다만 순서적으로 볼 때 먼저 율법의 중심적 교훈을 행하고 그 자연스런 결과로서 십일조를 드려야 하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 (8) 십일조는 본래 족장 시대의 언약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창 14:20; 28:22) 모세의 율법에서 성문화되었는데 (레 27:30; 신 14:22-27) 신약에서는 오직 이 부분 23절에만 언급되고 있다.
- (9)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들의 권위를 모두 인정하여 그 조항이 크게 여겨지는 사소하게 생각되든 상관하지 말고 항상 그것들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27. ㉠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 (外飾主義)는 어떠하였는가? (25-28절)

- ㉠ (1) 주께서는 먼저 그들의 외식주의를 걸은 깨끗이 하고 안은 더러운 채로 남겨 두는 잔과 대접으로 비유하셨다 (25, 26절).
- (2) 그들은 남이 보는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였으나 은밀히 있는 곳에서는 물질적인 면에서 ‘탐욕’을 추구하고 도덕적인 면에서는 ‘방탕’하기 이를 데 없었던 것이다.
- (3) 또한 주께서는 그들의 외식주의를 걸은 아담답게 회칠 (灰漆)을 하였으나 속에는 썩은 시체가 가득한 무덤으로 비유하셨다 (27, 28절).
- (4) 앞에 비유된 대접은 생활적인 문제에서 외식된 것을 다룬 데 비해 여기 비유된 무덤은 종교적인 문제에서 외식된 것을 다루고 있다.
- (5) 즉 그들은 종교적인 면에서도 겉으로는 의롭게 행세했으나 중심에는 더러운 외식주의와 불법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 (6) 이러한 외식주의를 이기는 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을 깨끗하게 하여 직직한 신앙 인격을 구비하는 데에 있다 (26절; 시 119:9).

28. ㉠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어떤 행위에서 절정을 이루었는가? (29-31절)

- ㉠ (1) 그것은 그들이 순교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행위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 (2) 더우기 그들이 과거에 있었다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조상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었을 것이라고 한 말에서도 절정에 달한 그들의 의식을 볼 수 있다.
- (3) 즉 그들은 최후의 선지자인 세레 요한을 죽게 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마저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박을 자들이 아닌가!
- (4) 이러한 그들의 실상을 꿰뚫어 보신 주께서는 그들의 위선된 행위와 말이 결국 순교자를 죽인 그 조상의 자손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셨다(31절).
- (5) 한국 교회에도 지도자로서 교계의 주요 행사를 추진하는 인사들 중에 어제의 선지자는 위하면서 오늘의 선지자는 죽이는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다.

29. **㉠**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는 말씀이 지닌 예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32절)

- ㉠** (1) 이 말씀은 의식하는 자들의 심종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순교자를 죽이던 그들의 조상의 일을 계승할 것을 암시하는 예언적 명령문이다.
- (2) 여기서 ‘조상의 양(量)’이라는 표현에는 악에는 어떤 한계가 있어서 이 한계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것이라는 종말론적 사상이 담겨져 있다(창 15:16; 살전 2:14-16).
- (3)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잔은 가득 채워져서 단지 물 한 방울만 더하면 넘치게 될 것이다.

30. **㉠** 예수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는가? (33절)

- ㉠** (1) 그는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그들의 근원을 폭로하신 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는 설의법으로써 심판의 확실성을 선언하셨다.
- (2) ‘독사의 새끼들이’는 말은 세레 요한의 선언과 동일한데(3:7) 성경에서는 주로 뱀을 사단으로 표현하였다(참조, 창 3:8; 계 20:2).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심판받을 자들이 바로 사단의 영적 후예임을 폭로하는 말씀이다(창 3:8; 요 8:44; 계 20:2).
- (3) 또한 ‘지옥의 판결’은 문자적으로 ‘게헨나의 심판’인데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최후의 심판을 의미한다(참조, 5:22).
- (4) 이처럼 끝끝내 의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보장되어 있다. 왜냐하면 의식은 회개의 궤방자이기 때문이다.

31. **㉠** 예수께서 예언하신 핍박을 구체적인 예와 함께 설명하라(34절).

- ㉠** (1) 먼저 예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리라고 예고하셨다(참조, 요 20:21).
- (2) 파송받은 제자들은 ‘선지자들, 지혜있는 자들, 서기관들’로 호칭되었다. 또한 평행 귀절인 눅 11:49에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불리어졌다.
- (3) 여기서 선지자는 신약 교회의 한 직분으로(엡 4:11) 아가보 같은 순회 전도자를 가리키고(행 11:27). 지혜있는 자는 스테반 집사같이 신령한 지혜를 덧입은 이들을 말하며(행 6:3), 서기관은 유대적인 의미가 아닌 신약적 의미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지칭한다(13:52).
- (4)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 파송받은 제자들을 죽이고(스데반, 행 7:59; 야고보, 행 12:2) 십자가에 못박고(베드로, 요 21:18, 19; 뱀후 1:14) 채찍질하고(행 5:40; 22:19; 26:11; 고후 11:24, 25) 구박할 것이다(행 13:50; 14:5, 6, 19, 20; 26:11).
- (5) 이러한 핍박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은 동시에 핍박한 자에게 임할 심판의 확실성을 입증해 준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다.
- (6) 즉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패역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끝내 그 모든 불의함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를 찬양할 수 있다(참조, 롬 12:1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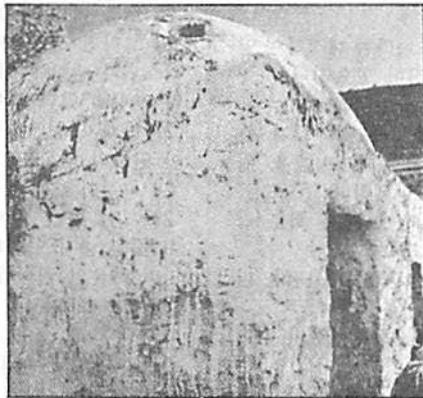
32. **㉠**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은 누구의 피로부터 누구의 피까지를 담당하게 되는가?(35절)

- Ⓐ (1)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순교를 당한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까지를 담당하게 된다.
 - (2) 아벨은 인류 최초의 순교자로서 의를 위해 죽어 간 모든 선한 자들의 모형이며 (창 4: 요일 3:12) 사가라는 요아스 왕의 명령에 의해 성전 뜰 안에서 백성들에게 돌에 맞 죽은 선지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라를 말한다 (대하 24:20-22).
 - (3) 사가라는 스가라의 헬라식 발음이며 그의 아버지는 수많은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라가와 여호야다 등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pulpit 주석).
 - (4) 주께서는 유대식 성경 배열에 따라 제일 처음 책인 창세기, 마지막 책인 역대기에서 표적인 순교자 한 사람씩을 예로 든 것인데 그러므로 이들은 모든 순교자들을 상징한
 - (5) 결국 이들의 피는 예수를 죽이던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가서 (27:24, 25) 그 후 2천년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 (6) 가깝게는 A. D. 70년 예루살렘 함락의 참변이 그것이며 멀리는 제 2차 세계 대전 때 쾰른에 의해 약 600만 명이 학살당한 끔찍한 비극이 그것이다.
33. ⓐ ‘이 세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36절)
- Ⓐ (1) ‘이 세대’ (this generation)란 당시의 유대 백성들을 의미한다.
 - (2) 따라서 본절은 순교자들의 피의 대가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지도자에게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임할 것을 보여 준다.
 - (3) 실제로 이때로부터 불과 40년 이내에 예루살렘이 로마 장군 디도의 칼날에 처참히 유린당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 (4) 이런 일을 직시하신 예수께서는 이제 멸망당할 도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탄식하신 (37-39절).
34. ⓐ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37절)
- Ⓐ (1) 그는 ‘예루살렘’을 두 번 반복하여 부르신 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들로 치는 자여’라고 부르셨다.
 - (2) 원문을 보면 다른 부분에는 예루살렘이 헬라식 명칭인 <에로솔루마>라고 호칭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히브리 원음인 <예루살렘>으로 호칭되어 예수의 극한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
 - (3) 이 예루살렘은 히브리 민족의 성도(聖都)였건만 그만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반역의 시가 되었음을 이어지는 긴 호칭이 암시하고 있다.
 - (4) 즉 예루살렘이란 명칭은 매우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범죄로 인하여 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이름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 (5) 여기서 우리는 범죄로 말미암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선민(選民)의 영화를 본다
35. ⓐ 예루살렘의 운명을 부정적인 면에서 설명해 보라 (37, 38절).
- Ⓐ (1) 예루살렘은 예수의 간절한 초청과 호소를 거절한 채 의로운 피를 흘린 죄의 대가로 망당할 운명에 처하였다.
 - (2) ‘암퍽이...모음같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하여 품으신 사랑과 영 그리고 각별한 보호를 의미한다 (시 17:8; 57:1).
 - (3) 또한 이 표현은 당시 로마라는 독수리가 먹이를 움키기 위해 하늘을 선회하고 있어 위기의 상황을 암시하기도 한다.
 - (4) 결국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를 원치 않은 예루살렘이라는 병아리는 A. D. 70년 마라는 독수리에게 유린당하고야 말았다.
 - (5) 이처럼 하나님을 버린 나라의 운명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참조, 시 127:1).
36. ⓐ 예루살렘의 운명이 지닌 긍정적인 면은 무엇인가? (39절)

- Ⓐ (1) 비록 예루살렘이 일시적으로는 황폐하여 버린 바 될 것이나 본질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최후의 소망이 암시되고 있다.
- (2) 즉 언젠가 예루살렘 거민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를 영접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참조, 21:9).
- (3)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옛 위치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참조, 호 3:4,5; 숙 12:10).
- (4) 이로써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롬 11:26)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다.
- (5)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그 영광스러움을 보이시기 전까지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았던 예루살렘은 그분을 보지 못할 것이다. 즉 그분을 배척했던 그들은 그분의 배척을 받아 퇴락하게 될 것이다.
- (6) 이처럼 본장은 매우 두려운 경고와 멸망의 예언을 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회복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소망으로써 끝을 맺고 있다.
- (7)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온 인류의 소망이며, 그분의 오심으로만이 죽고 퇴락한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보자료

회칠(灰漆)한 무덤. 회칠을 한 아래의 유대인 무덤은 일종의 창고(倉庫)같이 보인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봉분형(封墳形)이 있는가 하면 바위를 뚫어 만든 암굴형(岩窟形) 그리고 자연 동굴을 이용한 것이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년에 한 번 봉분에 회칠을 한다. 그러므로 그 무덤은 비록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각종 더러운 것이 있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외식(外飾)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흡사 이와 유사하였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혼자서 거룩한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실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각종 불법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께로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마치 회칠한 무덤 같구나'라고 통렬히 책망받았던 것이다(27절).

제 24 장 종말에 관한 예언

단락구분 1-2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다 / 3-14 세상 끝날에 관한 징조들 / 15-28 마지막 날에 있어 질 대판난 / 29-31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에 따른 징조 / 32-36 재림의 시기 / 37-44 재림을 맞이할 준비 / 45-51 증성된 종과 악한 종에 관한 비유

- 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 2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 3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도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 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 6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 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 8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 9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 10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 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 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 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 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 16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합지어다
- 17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 18 밤에 있는 자는 걸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 19 그날에는 아이 뱀 자들과 짓먹이는 자들

에게 화가 있으리르다

20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23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25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8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29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뭉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은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2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앞에 이른 줄 알라

3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35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37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0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 둬를 당할 것이요

41 두 여자가 맷간 깔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 둬를 당할 것이니라

42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43 너희가 알지 못함이나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훔치지 못하게 하였으

리라

44 이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46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되다

4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48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49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0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윤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1. ㉠ 본장에 기록된 종말론(終末論)은 어떤 내용인가?

- ㉠ (1) 본장은 25장과 더불어 '작은 계시록'이라 불리울 정도로 묵시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 (2) 본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발생할 징조들과 대환난을 예언적인 형식으로 밝혀 주며 25장은 세 가지 중요한 비유를 예화로 들어 비유적인 형식으로 말하고 있다.
- (3)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과 비교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 말씀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히 중요성을 갖는다.
- (4) 이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본서 24장의 해설서라고도 볼 수 있다.
- (5) 그러므로 신학에서 가장 난해한 분야로 간주되는 종말론은 요한계시록 뿐 아니라 본장에도 초점을 맞추어 연구될 필요가 있다.

2. ㉠ 본장 이외에 종말론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을 열거하라.

- ㉠ (1) 먼저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에스겔, 다니엘 등이 종말론적인 주제를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으며 소선지서 특히 스바냐, 스가라 등은 매우 묵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2)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공동 서신에 속한 책들, 즉 베드로후서, 유다서 등과 바울 서신 중에서 '재림 서신'으로 알려진 데살로니가전·후서가 종말론적 주제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 (3) 특별히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제로 하여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 (4) 이처럼 신·구약 전체에 걸쳐 언급되어 있는 종말론적인 말씀들은 본장의 평행 귀절인 막 13장과 눅 21장과 더불어 본장의 정확한 해석에 매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한다.

3. ㉠ 본장과 23장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 ㉠ (1) 본장의 앞 부분에는 마가복음(12:41-44)이나 누가복음(21:1-4)과는 달리 가난한 과부가 연보케에 헌금하는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다.
- (2) 이렇게 됨으로써 본장에 기록된 감람산 강화(講話)는 23장에 일곱 번이나 반복하여 언급된 '화 있을진저'라는 예수의 책망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진다.
- (3) 그렇다고 24, 25장이 23장에 이어지는 한 묶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4) 23장과 24, 25장은 그 배경과 청중 그리고 중심 주제에 있어서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서

로 다른 두 묶음의 이야기이다.

(5) 다만 저자는 본장에 나타난 종말과 심판이 23장에 언급된 외식하는 죄악의 결과라는 점을 암시하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4. ㉠ 종말론을 말씀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1, 2절)

- ㉠ (1) 예수께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고(23:38)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가실 때였다.
- (2) 제자들은 예수의 예언을 생각하며 다시금 성전을 바라보았는데 성전의 장엄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견고함에 새삼 놀라면서 이처럼 견고한 성전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 (3) 그러자 주께서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파괴를 확인하시면서 종말에 관한 상세한 예언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다.

5. ㉠ 당시 성전 건물은 어떠한가? (1절)

- ㉠ (1) 당시 성전 건물은 제 3성전 곧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것으로서 미석(美石) 곧 거대하고 흰 대리석으로 건축되었고 갖가지 헌물(獻物)들로 장식되어서 그 아름다움과 위용이 대단하였다(눅21:5).
- (2) 그래서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속담이 생겨날 정도였다.
- (3) 이 성전 건물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B. C. 20년부터 종래의 제 2성전을 웅장한 규모로 개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 (4) 이 성전은 착공 9년 만인 B. C. 11년에 외부 개축이 완성되어 거의 새로운 건물로 면모를 일신했고 이후 내부 공사가 계속되어 착공 83년제인 A. D. 63년에 완전한 준공을 보게 되었다(참조, 요 2:20).
- (5) 이 성전을 제 3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B. C. 959년에 건축된 본래의 솔로몬 성전, 즉 제 1성전과(참조, 왕상 6:1, 38) B. C. 520년 스룹바벨에 의해 재건된 제 2성전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6. ㉠ 예수께서는 어떻게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셨는가? (2절)

- ㉠ (1) 주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는 독특한 구약적 표현을 사용하여(렘 26:6, 18; 미 3:12)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예언하셨다.
- (2) 이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성전의 어떤 돌 하나도 제자리에 남아 있지 못할 정도로 파괴되었음이 드러났다.
- (3) 즉 성전 준공 7년 후인 A. D. 70년 예루살렘 헤롯 성전은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어 버렸던 것이다.
- (4) 이 같은 성전 파괴에 대한 그리스도의 예언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의 중심점이 이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으로 옮겨진다는 선언(요 2:18-21)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5)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조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면적인 신앙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7. ㉠ 예수께서 종말론을 말씀하신 장소는 어디인가? (3절)

- ㉠ (1) 성전에서 나온 예수께서는 베다니로 들어가는 도중 감람산 위에 올라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앉으셨다.
- (2)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밖 동쪽에 위치하였는데 감람나무가 많다 해서 감람산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 (3) 여기에서는 성전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전경까지도 한눈에 보였다. 이러한 장소에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에 대한 종말론을 말씀하셨던 것이다.

8. ㉠ '종용히' 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3절)
- ㉠ (1) 이 말은 '은밀하게' (privately) 라는 뜻으로 제자들이 군중들과 격리된 장소에서 은밀하게 질문하였음을 보여 준다.
- (2)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종말론에 대해 질문한 제자들의 이름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등 네 명으로 언급되어 있다(막 13:3).
- (3) 하지만 '종용히' 라는 말이 공관 복음서에서 몇몇 제자들을 나머지 제자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이 아니라 제자들을 무리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임을 생각할 때(17:19) 질문한 사람은 네 사람일지라도 청중은 모든 제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 (4) 따라서 종말론의 말씀들은 일반 대중들보다는 받아들일 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은밀히 주어진 교훈임을 알 수 있다(참조, 히 5:12-14).
9. ㉠ 제자들이 종용히 질문한 내용의 요지는 무엇인가? (3절)
- ㉠ (1) 그것은 두 가지로서, 즉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질 '주의 임하심' 과 '세상 끝' 의 때와 징조에 관한 것이었다.
- (2) '임하심' 에 해당하는 헬리어 <파루시아>는 신약 성경에 24번이나 나타나는 말이며 본장에서만 네 번 반복되고 있다(3, 27, 37, 39절).
- (3) 이 말은 '임함' (presence), '도착' (arrival), '도래' (coming) 등의 뜻을 갖고 있으며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을 의미한다.
- (4) 한편 '세상 끝' (헬, 신텔레이아스 투 아이오노스)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이 세대의 끝' 인데 최후의 심판과 모든 만물의 완성 때를 의미한다(13:39, 40, 49; 28:20; 히 9:26).
- (5)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을 동일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상이었다(Calvin).
10. ㉠ '세상 끝' 에 나타날 징조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4-14절)
- ㉠ (1) 예수께서는 말세의 징조로서 세 가지를 말씀하신 후(4-13절) 최후로 종말의 때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셨다(14절).
- (2) 말세의 징조는 ①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그들의 미혹(4, 5, 11절) ② 전쟁과 기근(6, 7절) ③ 성도들에 대한 핍박(9, 10, 12절) 등이다.
- (3)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는 동안 천국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 온 세상에 미치게 될 것인데 바로 이때에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14절).
- (4)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제시한 세상 끝날이 오기 직전의 징조가 나타나면 그 징조가 제 공하는 두려움과 혼란한 생각들에 휩싸이기 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인식하고 더욱 경건 생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참조, 뱀전 4:7).
11. ㉠ 말세에 나타날 첫번째 징조는 무엇인가? (4, 5, 11절)
- ㉠ (1) 그 첫번째 징조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다.
- (2)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포교(布教)를 시작하다가 마침내는 자칭 그리스도라 하면서 사람들 특히 기성 교인들을 유혹할 것이다.
- (3) 이러한 거짓 선지자, 즉 적그리스도는 1세기에도 있었지만(행 5:36, 37; 21:38) 오늘날 20세기에 들어와서 더욱 무서운 기세로 출현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 (4) 특히 최근 1세기 동안 급격한 부흥을 이루고 있는 한국 기독교계에는 부흥 못지않게 많은 이단 종파가 출현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
- (5) 예를 들면 전도판의 박태선씨나 통일교의 문선명씨 등은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여 자칭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12. ㉠ 두번째 징조는 무엇인가? (6, 7절)

- Ⓐ (1) 두번째 징조는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 그리고 기근과 지진 등이다.
- (2) 여기서 '난리' (헬, 플레오스)는 곧 전쟁 (KJV, war)을 의미하는 말로 민족간의 그리고 국가간의 큰 전쟁이 일어나 그 소문으로 온 인류가 두려워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 (3) 이러한 전쟁과 함께 세계 곳곳에는 대규모의 기근 (famines)과 지진 (earthquakes)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천재 지변이 또한 말세의 징조가 될 것이다.
- (4) 실제로 20세기에 들어서서 전인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전대 미문 (前代未聞)의 세계 대전이 1914년과 1939년 두 차례나 발생하여 수천 만 명의 희생자를 냈다.
- (5) 또한 1976년 7월 28일에는 중국 당산 (唐山)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하여 24만 명 이상이 사망하기도 했다.
- (6) 이제 성경 본문에 의하면 환난의 때와 주의 재림이 가까와짐에 따라 또 한번의 세계 대전, 즉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세계적인 현상으로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13. Ⓞ 전쟁, 기근, 지진 등은 세상 끝날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6, 8절)

- Ⓐ (1) 이러한 현상은 물론 말세의 징조이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세상 끝날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2) 단지 세상이 끝나기 전에 있을 재난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징조일 뿐이다 (8절).
- (3) 그러므로 인류는 전쟁이나 기근, 지진 등에 의하여 멸망하지는 않는다.
- (4)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성도들은 그러한 일로 두려워하기 보다는 이제 시작될 환난기를 견뎌 내기 위하여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하여야 할 것이다.

14. Ⓞ 말세의 세번째 징조는 어떠한 일로 나타나는가? (9-12절)

- Ⓐ (1) 세번째 징조는 두번째 징조의 다음 단계로 발생되어진다.
- (2) 즉 전쟁, 기근, 지진이 있는 후에 성도들이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는 대박해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세번째 징조이다.
- (3) 또한 이때에는 배신과 불신의 풍조가 팽배하여 교인들 사이에서조차 서로 잡아 주고 미워하는 일이 횡행할 것이다 (10절).
- (4)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으로 인한 영적 혼란에 따른 결과인데 이후로는 정론 (正論)이 불법에 가리워지는 가운데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 (5) 성도는 외부적으로 박해자로부터 오는 환난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형식적인 교인들에 의한 배반을 견뎌 낼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 (참조, 히 10:25; 약 5:8).

15. Ⓞ '그때에'란 언제를 가리키는 말인가? (9절)

- Ⓐ (1) 본장에만도 8번이나 사용된 (9, 10, 14, 16, 21, 23, 30, 40절) '그때에' (헬, 토테)란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어떤 시간이나 시기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 (2) 본장에서 이 단어는 환난이 임할 무렵을 광범위하게 지시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6. Ⓞ '너희'라는 대명사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가? (9절)

- Ⓐ (1) 물론 이 말은 1차적으로 감람산 강화를 들고 있던 제자들을 지칭한다.
- (2)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에서 이 말은 오늘날 본문에 기록된 종말론의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2인칭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 (3) 즉 주께서는 이 시간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너희'라고 부르시면서 종말론의 강화를 들려주고 계심을 느껴야 한다.
- (4) 9절에 세 번 나오는 '너희'라는 부분에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 본 후 조용히 묵상하며 주의 이름을 읊미해 보라.
- (5) 이 말세를 맞아 일사 각오 (一死覺悟)의 신앙을 새롭게 무장해야 할 사람은 2천 년 전 열 두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나 (당신)인 것이다.

17. Ⓞ 환난의 때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가? (13절)

- Ⓐ (1)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
 (2) 아무리 모진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사 각오의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고 모든 것을 참는 자가 바로 참된 성도이다(참조, 고전13:4,7).
 (3) 그래서 브루스(Bruce)는 '사랑과 인내야말로 성도의 기본적 덕목이다'라고 말했다.
 (4) 결국 마지막 환난이란 따지고 보면 수많은 명목상의 교인들을 참 신자와 거짓 신자로 구분하는 여과 과정과 같은 것이다.

18. ㉠ 세상 끝날은 언제 오는가? (14절)

- Ⓐ (1) 본질은 성경 전체에 있어 세상의 종말이 오는 시기에 대한 가장 명백한 기준을 가르쳐 주는 귀절이다.
 (2) 세상의 종말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순간에 임한다.
 (3) 이처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비로소 모든 민족에게 세상 끝날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이때에 비로소 모든 택한 자들이 복음을 믿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것이며(롬 10:12-15)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롬 11:25,26).
 (5) 오늘날 복음은 세계 곳곳에 거의 다 전파된 듯 하지만 아직도 지구의 오지(奧地)에 사는 많은 소수 민족들은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
 (6) 십자가 군병된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며 땅 끝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중인으로 진군(進軍)을 계속하여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주의 영광의 날이 임하도록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행 1:8).

19. ㉠ 대환난기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15-28절)

- Ⓐ (1)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주후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 당시의 환난을 예언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주적 종말에 앞서 도래할 대환난(the great tribulation)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2) 대환난기는 먼저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짐'으로써 시작된다(15절).
 (3) 이때에 전무 후무한 가공할 대환난이 시작되고(21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여 온갖 술수를 동원하여 미혹하는 역사(役事)를 행할 것이다(23-26절).
 (4) 그러므로 이 대환난기에 성도들은 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고난을, 내적으로는 적그리스도에게 영적 유흥을 받게 될 것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롬 8:37-39).

20. ㉠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5절)

- Ⓐ (1) 이 말은 다니엘서에서 유래된 묵시적 격언으로 영적인 면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다.
 (2) 여기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란 말은 다니엘서에만 네 번 사용된 독특한 표현이다(단 8:13;9:27;11:31;12:11).
 (3) 그중 단 11:31은 분명히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Antiochus Epiphanes, B.C. 175-164) 통치 시대에 성전이 더럽혀질 것을 예언한 것이다.
 (4) B. C. 168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성전의 제단을 헐고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으며 또한 제우스 신에게 돼지똥 제물로 바쳤다.
 (5)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격언을 앞으로 발생할 미래의 종말론적 사건을 예언하는 데 사용하셨다.
 (6) 즉 '가증한 것'은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나 신성 모독에 관련되며 '멸망의'(헬, 테스 에레모세오스)란 말은 원문상으로 '멸망을 야기시키는'이란 뜻으로서 결국 이 말들은 종말 때에 출현할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 (7) 이러한 의미를 비추어 볼 때 이 격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A. D. 70)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들의 독수리 군기를 성전에 꽂는 사건을 지시하고 있다.
- (8) 더 나아가서 이 격언은 대환난기가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종교적 쿠데타의 대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살후 2:4, 8).
- (9) 이처럼 심오한 종말론적 의미가 이 격언에 담겨져 있음을 인하여 주께서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말씀하여 우리의 주의를 상기시키신다.

21. **㉠**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있을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16-18절)

- ㉠** (1)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되 신속히 도망해야 한다.
- (2) 만일 그때 지붕에 있는 자나 밭에 있어 뜻밖의 소식을 들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집에 있는 그 무엇에도 미련을 두지 말고 신속히 산으로 도망해야 한다.
- (3) 당시 유대 가옥의 지붕은 대부분 평평한 옥상(屋上)으로 만들어져 있어 기도하거나(행 10:9) 휴식을 취하기에 알맞은 장소였으며(삼하 11:2) 거기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비상 계단이 있었다.
- (4)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Eusebius)에 의하면 실제로 주후 66년 세스티우스 겔러스(Cestius Gallus)가 예루살렘 성을 공략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한 성도들은 매우 신속히 벨스안 남동쪽 요단 계곡에 위치한 펠라(Pella)로 피신하여 4년 후에 발생한 참변을 면했다 한다.
- (5) 한편 이것은 대환난기를 만난 성도의 행할 일을 암시적으로 가르쳐 준다.
- (6) 즉 성도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우상의 영역에서 도망하여 나오되 롯의 아내처럼 세상 일에 미련을 두지 말고 신속히 예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피신할 마음 자세를 준비해야 한다.

22. **㉠** 그날에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함은 무슨 까닭인가?(19절)

- ㉠** (1) 그 이유는 태아(胎兒)나 유아(乳兒)를 가지고 있는 여인은 신속히 도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2) 그런데 본문의 ‘화가 있으리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우아이>는 불행한 사태를 측근히 여기는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3)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임산부나 유모(乳母)들을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이 환난에 대비하도록 특별한 각성을 촉구하시는 것이다.
- (4) 갑자기 임할 환난의 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구태 의연한 생활에 얽매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삶의 자세 가운데 그 모든 일을 신앙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참조, 눅 17:26-30).

23. **㉠** 예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20절)

- ㉠** (1)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 (2) 유대 지방에서 겨울은 우기(雨期)이므로 통행이 불편하며 또 양식을 구하기도 어렵다.
- (3) 또한 안식일은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여 5리 이상 여행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짐승을 부릴 수도 없는 날이다.
- (4) 역사적으로 볼 때 B. C. 168년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침공이 있던 날도 안식일이어서 유대인들은 방어 한번 하지 못하고 살륙을 당하였던 적도 있다.
- (5) 본문의 말씀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그것은 환난의 때를 무감각한 상태에서 맞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는 부탁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42, 44절).

24. **㉠** ‘큰 환난’이란 어느 정도의 환난을 말하는가? (21절)

- ㉠ (1) 전무 후무한 환난, 세상이 창조된 이후 가장 흑심한 환난을 말한다.
 (2) 역사상 가장 참혹한 환난은 A. D. 70년 예루살렘 함락 당시의 참극이라고 볼 수 있다.
 (3) 유대 사가 요세푸스(Josephus)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 성내에는 굶어 죽은 남녀 노유의 시체가 너무 많아 장사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여인도 있었다고 한다(참조, 신 28:53; 왕하 6:28, 29)
 (4) 요세푸스는 또한 이때에 사망자가 110만 명, 포로되어 잡혀간 자가 9만 7천 명으로 밝혔다.
 (5) 이처럼 많은 희생자가 생긴 것은 환난 당시가 유월절 절기 중으로서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유대인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운집했었기 때문이다.
 (6) 또한 2차 대전 중에는 히틀러에 의해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학살당했고 스탈린 치하에서는 2,0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학살되는 참극이 있었다.
 (7)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대환난'의 예고편이며 그림자이라고 할 수 있다.
 (8) 사실상 '대환난'이라는 신학적 용어는 본문의 '큰 환난'(헬, 들립시스 메갈레)이란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장의 예언들은 궁극적으로 역사의 종말에 있을 '7년 대환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9) 이 '7년 대환난'에 관한 예언은 주의 재림에 앞서 일어날 사건으로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계 11:3, 11; 12:6, 14).

25. ㉠ 그날들을 감(滅)하신다 함은 무슨 뜻인가? (22절)

- ㉠ (1)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들을 단축시키신다는 뜻이다.
 (2)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환난에서 벗어나 생존할 자가 지상에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대환난기는 혹독한 고통의 날이 될 것이다.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인하여 환난기를 단축하셔서 다시금 구원의 기회를 부여하시게 된다.
 (4) 이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의 초점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에 있고 그들의 기도 따라 심판을 유보하시거나 철회하시기도 한다(참조, 창 19:22-33; 렘 5:1; 약 5:16).
 (5)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에게 제한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 환난과 심판이 유보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실패하지 않는다.

26. ㉠ 환난기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성도를 미혹하는가? (23-25절)

- ㉠ (1)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로 나타나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2) 또한 환난 때에는 민심(民心)이 동요되므로 사람들은 그들에게 유혹되어 추종하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아니다 저기 있다'라고 외치는 풍경이 발생할 것이다.
 (3) 그렇지만 성도들은 미리 말씀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예언을 기억하고(25절) 그들을 믿거나 추종해서는 안 된다.
 (4)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무조건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질적으로 회의하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신앙의 큰 적(敵)이다.

27. ㉠ 예수께서는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26, 27절)

- ㉠ (1) 이 귀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방법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 그분은 결코 다시 인간 중의 하나로 태어나셔서 광야의 부흥 강사로 나타나시거나 골방에 있는 수도사로 나타나시지 않는다.
 (3) 오직 주께서는 하늘의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늘로부터 순식간에 재림하실 것이다(참조, 30절).

- (4) 그러므로 오늘날 인간의 성장기를 거치면서 어느 날 돌변하여 자신을 메시야로 자처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들이다.
- (5) 제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신령한 지혜, 은사를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야가 아니다. 만약 성도가 한 인격을 메시야로 착각하여 그를 추종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다.

28. ㉠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28절)

- ㉠ (1) 먼저 이 말씀에서 ‘독수리’ (eagle)로 번역된 헬라어 <아에토스>는 독수리를 가리키긴 하지만 여기서는 좀더 넓은 의미로서 독수리처럼 죽은 짐승의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을 가리킨다(참조, 미 1:16).
- (2) 이 말씀은 욥 39:30을 반영한 일종의 격언적 표현인데 매우 난해한 귀절로 다음과 같이 여러 학설이 있다.
- (3) 먼저 칼빈(Calvin)은 몇몇 교부들의 견해를 받아들여 이 격언은 그리스도가 재림할 당시 성도들이 모여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주검’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어딘가 부자연스럽다.
- (4) 또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의 죽음이 있는 곳에 로마 군대가 모여 있음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였다(Bengel, Clarke). 그러나 이 견해도 전후 문맥에 정확히 부합되지는 못한다.
- (5) 또 다른 학자는 세상이 영적으로 썩은 시체와 같이 타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독수리처럼 신속히 재림하여 심판하실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Hendriksen).
- (6) 한편 이와 동일한 격언이 눅 17:37에도 발견되는데 거기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따른 심판의 선언이 계속되다가(눅 17:26-35) 제자들이 ‘주여 어디오나이까’라는 질문에 대한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다.
- (7) 이처럼 본문의 문맥과 누가복음의 평행 귀절을 비교 검토해 볼 때 세번째 헨드릭슨의 견해가 가장 타당성을 지닌 견해로 생각된다.

29. ㉠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가? (29-31절)

- ㉠ (1) 대환난이 끝나 갈 무렵 천체의 이변이 일어나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소멸되며 하늘의 권능들, 즉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들이(엡 2:2)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영계와 물질계에 동시에 일어나는 완전한 멸절을 의미한다(참조, 사 13:9, 10; 켈 32:7; 욥 2:31).
- (2)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재림하실 것이다(27절).
- (3) 그 재림의 모습을 보고 땅의 모든 족속들, 즉 모든 불신자들이 자기들의 완악함과 무지함을 인하여 몽곡할 것이다(참조, 슥 12:10-14).
- (4) 반면에 택함 받은 모든 성도들은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세계 각처로부터 모여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참조, 계 21:3, 4).
- (5) 이처럼 예수의 재림은 불신 세계에 있어서는 영원한 심판과 멸절을 가져오는데 반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쁨과 구원을 얻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大望)하는 것이 마땅하다(참조, 계 22:20).

30. ㉠ ‘큰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31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는 사람들을 불러모으거나 절기를 기념할 때 그리고 전쟁의 경보를 울릴 때의 신호로 이해되었다(민 10:1-3; 시 81:3).
- (2) 본절에 ‘큰 나팔 소리’라고 한 것은 대단히 큰소리를 의미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성도의 승리와 구원을 선포하는 천사의 음성을 가리키는 말로 보인다(참조, 계 1:10; 4:1).
- (3)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택하신 백성 중에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 있는 자는 변화되

어 공중으로 들림 받아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고전 15:52; 살전 4:16, 17).

- (4)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천사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성도들을 모을 것이다. 그러기에 전세계 어느 한 구석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무관하게 지내는 곳이 없을 것이다(참조, 신 4:32; 시 19:6).
- (5) 그러므로 재림의 주를 사모하는 우리들은 어떤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끝내는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의 특권이다(참조, 살전 4:16, 17).

31. ㉠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32, 33절)

- ㉠ (1) 무화과나무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가장 흔한 나무 중 하나로 그 나무에 움이 돋고 있으면 이는 완전한 봄을 알리는 징조인데 다음 차례로 당연히 여름이 찾아오게 된다.
- (2) 이와 마찬가지로 앞에 열거된 말세의 징조들(4-28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臨迫)한 것을 알아야 한다(참조, 약 5:9).
- (3) 이처럼 자연계의 징조로 시기를 분별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시대의 표적으로 영계(靈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다(16:2, 3).

32. ㉠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34, 35절)

- ㉠ (1) 이 말씀은 당시 예수의 강화를 들던 사람들이 살아 있는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포함한 4-28절에 묘사된 환난이 발생된다는 의미이다.
- (2) 과연 A. D. 70년 로마 장군 디도(Titus)의 공략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환난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 (3)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한 환난이 그 세대 안에서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단지 '이 모든 일'이 그 세대 내에 반드시 발생한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 (4) 예수의 종말론적 예언이 1차적으로 분명히 성취된 것같이 이제 마지막 날 대환난을 통하여 궁극적인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 (5)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5절)는 그리스도의 부언(附言)은 바로 그러한 종말론적 성취를 암시해 주는 말씀이다.
- (6) 더우기 예수께서 소유하신 권위와 말씀이 진실되다는 점은 하나님께서 지닌 권위가 절대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점과 동일하다(참조, 시 119:89, 90; 사 40:6-8).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항상 귀기울임이 마땅하다.

33. ㉠ 주의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36절)

- ㉠ (1) 알 수 없다. 재림의 시기는 지상의 어떤 사람도 하늘의 천사들마저도 알 수 없으며 심지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르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
- (2) 그런데 성자조차 재림의 시기를 모른다고 하는 귀절은 자칫 성자의 전지성(全知性) 곧 신성과 모순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을 일으켰다.
- (3) 이러한 의문점은 3위 1체의 직무상 원리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
- (4)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성부는 예정하시고 성자는 구속하시고 성령은 보존하시는 직무적 차이가 있기에, 재림의 시기는 예정하시는 성부만이 아시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본절은 3위 1체를 더 명백히 뒷받침해 줄지언정 결코 그리스도의 신성과 전지성에는 모순되지 않는다.

34. ㉠ 노아의 때와 주의 재림의 때는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 (37-39절)

- ㉠ (1)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세상 연락에 빠져 평화 시대를 구가하고 있을 때 돌연 심판의 대홍수가 쏟아졌듯이(창 6, 7장) 주의 재림도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돌발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 (2) 사실 이 땅의 일(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 얽매어(참조, 고전 7:33)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종말의 때를 예고하는 징조를 무시하고 나아가 거룩한 일(기도와 말씀 보는 일 봉사하는 일 등)에 무관심한 자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종말에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당황하게 될 것이다.
- (3)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듯이 주의 재림시에도 믿음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 (4)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러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날이 바로 영원한 생명에의 나라로 들어가는 때가 될 것이다(살전 5:2-4).

35. ㉠ 주의 재림 때에 사람이 있는 처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가? (40, 41절)

- ㉠ (1) 일상 생활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양분(兩分)되어 한 종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종류는 '버려 둠'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 (2) 즉 당시 사람들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밤에서 일하고 혹은 멧들을 갈고 어떤 자들은 잠을 자고 있을 때(눅 17:34) 홀연히 한 종류의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말이다.
- (3) 이 한 종류의 사람들은 바로 택하신 무리, 즉 성도들인데 이들은 들림 받아 재림하시는 주를 영접하는 데 비해(살전 4:17) 남은 자들은 버리움을 받아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살후 1:7-9).
- (4) 그런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동일한 문화권 속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서로 의지하는 처지에 있었다는 데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 (5)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고 안 받는 문제가 사람의 외적인 모습에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내면의 문제, 즉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는가 아니면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매일을 살아가느냐 라는 관점에서 구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의 깊은 것을 통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맞추어 외형적인 신앙 생활에 급급하지 말고 항상 신실하고 경건함을 소유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참조, 벰전 3:3, 4).

36. ㉠ '깨어 있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42절)

- ㉠ (1) 예수께서는 당신의 재림 때에 일어날 사건을 매우 현실적으로 묘사하신 후(40, 41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셨다.
- (2) 사실 앞에서(40, 41절) 묘사된 사람들은 똑같이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육체적인 면에서는 별로 차이점이 없다.
- (3)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분명히 한 종류의 사람들은 깨어 있었으며 한 종류의 사람들은 잠자고 있었던 것이다.
- (4)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 (5) 그러므로 본문의 '깨어 있으라'(헬, 그레고레이테)는 말씀은 우리가 생활 중에 늘 명심해야 할 귀절이다.
- (6)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흔한 이름 중의 하나인 '그레고리'(Gregory)라는 이름도 이 성구의 헬라어 음역에서 유래된 것이다.

37. ㉠ 도적에 관한 비유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42-44절)

- ㉠ (1) 주께서는 '깨어 있으라'는 권면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시기 위해 도적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 (2)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밤 어느 시간에 오는 줄을 알고 있다면 그 시간에만 깨어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지만 도적이 오는 시간을 아는 집주인은 없다.

- (3)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중 어느 누구도 주의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한다(36절).
 (4) 따라서 세상 연락을 즐기며 죄를 짓고 있다가 주께서 재림하실 때 회개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론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5) 도적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집주인이 밤중에 계속 깨어 있는 것이듯이 우리가 주의 재림과 심판을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도 영적으로 계속 깨어 예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참조, 살전 5:2; 벨후 3:10; 계 3:3; 16:15).

38. **㉠** '집을 뚫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43, 44절)

- ㉠** (1) 이 말은 비록 집주인이 문을 안으로 잠그고 빗장을 채웠을지라도 그가 자고 있다면 도적은 예기치 않는 방법, 즉 집의 벽을 뚫고 들어와 침입한다는 뜻이다.
 (2) 당시 유대인의 가옥은 진흙 혹은 푸석푸석한 벽들로 벽을 쌓았기 때문에 꼭 문을 통하지 않더라도 벽에 구멍을 뚫고 집안에 들어가기에 용이했다.
 (3) 오늘날에도 지능적인 절도범(切盜犯)은 주인이 방심만 하고 있다면 대문을 통하지 않고도 다른 경로를 통하여 얼마든지 가옥에 침입할 수 있다.
 (4)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에게서는 자신의 신앙이 어느 정도 완숙하고 어떤 사단의 도전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는 속단과 방심을 떨쳐 버리고 늘 자신의 삶을 점검하여 사단이 침입할 경로를 차단하는 지혜롭고 성실한 자세가 요청된다.
 (5) 이러한 긴장은 늘 계속되어야겠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라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 즉 예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방문하시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의 긴장을 할 필요도 없이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평화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참조, 계 21:3).

39. **㉠**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45절)

- ㉠** (1) 여기서 '종' (헬, 들로스)이라 함은 평행 귀절인 눅 12:42에 언급되었듯이 주인의 집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청지기' (헬, 오이코노모스)를 의미한다.
 (2) 청지기의 직무는 주인의 집안 사람들에게 규칙적으로 양식을 나누어 주어 그들을 섬기는 일이었다.
 (3)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바로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성실하며 (faithful) 분별력이 있고 (sensible) 사려 깊은 (thoughtful) 사람을 말한다.
 (4)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신령한 청지기들도 (고전 4:1) 그들이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양식, 즉 말씀과 성례를 베풀되 각 사람의 형편에 맞도록 지혜롭게 공급해야 한다.
 (5) 이러한 직무는 반드시 목회자나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되어 있다.
 (6) 즉 우리들은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벨전 4:10).

40. **㉠**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46, 47절)

- ㉠** (1) 충성되고 슬기롭게 자기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던 종은 주인이 돌아오는 날 주인에게 당연히 칭찬을 받을 것이다.
 (2) 특별히 그는 주인으로부터 완전한 신임을 얻게 되어 이제 그는 주인의 소유 전체를 맡아 누리는 위치로 승격된다.
 (3)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에게 신임을 얻어 아브라함 집의 상속자로 간주되기까지 하였다(창 15:2).
 (4)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작은 청지기직이라도 성실히 수행할 때 그는 지상에서 주께로부터 더 큰 직분을 위임받을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향유(享有)하게 된다(눅 16: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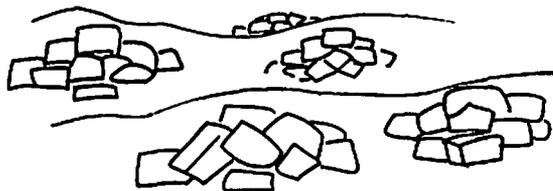
41. **㉠** 악한 종은 왜 그의 직무를 태만히 하는가? (48, 49절)

- Ⓐ (1) 그 이유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직무를 나중에 수행하겠다고 미루기 때문이다.
- (2) 그리하여 그는 직무를 수행하는 대신 자기 동무들, 즉 동료 청지기들을 폭행한다.
- (3) 현대의 사역자들 중에도 자기의 이권과 교권의 획득을 위해 다른 사역자들을 중상 모략하며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한다(벧전 5:3).
- (4) 또한 악한 종은 술친구들로 더불어 주연(酒宴)을 베풀어 주인이 말긴 양식을 탕진하면서 향락과 방종에 빠져 버린다.
- (5) 이러한 모습 역시 뛰어난 재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으면서 하나님의 사명보다 자신의 육체적 쾌락에 탐닉하는 현대의 명목적 신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 (6) 여기서 우리는 주의 재림에 대한 무관심이 성도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절감하게 된다.

42. ⓐ 악한 종이 받을 형벌은 어떠한가? (50, 51절)

- Ⓐ (1) 직무를 태만히 하고 주지(酒池)에 빠진 악한 종은 뜻하지 않은 순간 대문을 열고 들어서서 주인에게 엄한 형벌을 받게 된다.
- (2) 먼저 주인은 악한 종을 '엄히 때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엄히 때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디크토메오)는 유대의 종들을 조개는 매우 혹독하고 무서운 형벌을 의미한다(참조, 삼상 15:33; 단 3:29; 눅 12:46; 히 11:37).
- (3) 주인은 이러한 형벌을 가한 후 그를 외식하는 자들(23:13, 15)이 있는 감옥에 수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종은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 (4)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극한 비통과 절망을 나타내는 복음서의 관용적 표현이다(8:12; 13:42, 50; 22:13; 25:30; 눅 13:28).
- (5) 이러한 악한 종의 운명은 영적인 청지기직을 수행하지 못한 채 세상의 향락에 도취되어 버린 자가 받게 될 심판을 암시해 준다.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떠한 것인가?

본장의 요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2절).

제 25 장 종말에 관한 비유

단락구분 1-13 열 처녀 비유 / 14-30 달란트 비유 / 31-46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

1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2 그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있는 자라

3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 슬기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잠새

6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7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8 미련한 자들이 슬기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9 슬기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의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11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12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14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6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17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니

18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9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계할새

20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2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4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26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니라

27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변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28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29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하니라

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

33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35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평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40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

하여 예비된 영영한 참에 들어가라

42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45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46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1. ㉠ 본장에 나타난 비유들의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예언된 24장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종말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취하게 될 상반되는 행동 양상과 그들이 맞게 될 최후에 관한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다.
- (2) 이 세 가지 비유들은 말세지말에 재림의 주를 맞이하기 위해 성도가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그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다.
- (3) 즉 첫번째, 열 처녀의 비유는 준비성 있는 생활을, 두번째, 달란트 비유는 성실한 생활을, 세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선행을 베푸는 생활을 각각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4) 우리는 이러한 비유의 내용을 상고하는 가운데 좀더 성숙한 신자로서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겠다.

2. ㉠ 열 처녀의 비유가 지니는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1-13절)

- ㉠ (1)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비유(parable)를 대할 때 각 단어나 귀절마다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우화주의적(allegorical) 해석법을 피하여 중심 사상부터 파악하는 상징적(symbolic) 해석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 (2)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자구적(字句的)인 해석보다는 비유의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중심 사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이 비유의 중심 사상은 기름을 충분히 예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4절) 준비성 있는 생활을 함으로써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 (4) 이제 우리는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 보면서 준비성 있는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의미하는지를 찾아 보아야 한다.

3. ㉠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설명하라(1-13절).

- ㉠ (1) 유대 사회에서는 혼인 날짜가 정해지면 먼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른 후 다시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와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성대한 혼인 잔치를 벌이는 풍습이 있었다.
- (2) 본문의 비유에서 열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부의 집에서 나오는 신랑 일행을 맞아 신랑 집에서 벌어지는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었다(Kistemaker).
- (3) 이때 신랑은 보통 저녁에 나오나 늦을 때는 한밤중, 혹은 새벽녘에 나오기도 하였는데 신부의 들러리들은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가 신랑을 기다렸다.

- (4) 만일 들러리를 선 처녀들 중에 등불을 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녀는 불청객 취급을 받아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 (5) 한편 어떤 학자들은 혼인 잔치가 신부의 집에서 치무어진다고 보고(참조, 사14:10) 처녀들이 신부의 집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경우로 이 비유를 해석하기도 한다(pulpit 주석).
- (6) 하지만 앞에서 밝힌 내용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로 더 무난한 해석이다.

4. ㉠ '열 처녀'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1절)

- ㉠ (1) 그들은 유대의 결혼 풍습을 따라 혼인 잔치에 참석하려 오는 신랑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등을 들고 기다리는 신부의 들러리를 말한다.
- (2) 여기서 '처녀' (헬, 파르테노스)는 신부의 들러리를 의미하는 말이다.
- (3) 또한 '등' (헬, 랍파스)은 기름을 사용하는 작은 등이거나 아니면 계속 불을 밝히기 위해 가끔 기름에 담글 필요가 있는 램프를 가리키는 말이다. 본문에서는 전자가 해당될 것이다.
- (4) 이 비유에서 열 처녀는 신자들을 상징하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거듭난 신자들, 미련한 처녀는 중생하지 못하고 다만 형식적인 신자들 각각 상징한다.

5. ㉠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2-4절)

- ㉠ (1) '슬기롭다' (헬, 프로니모스)는 말은 생각이 깊고 준비성이 있음을 뜻하는데 반해서 '미련하다' (헬, 모로스)는 말은 대만하고 별 생각 없이 생활하는 상태를 뜻한다.
- (2) 과연 두 종류의 처녀는 자기가 할 일을 깊이 생각하며 준비하는 행동에서 차이가 났다.
- (3) 즉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하여 등과 함께 기름 그릇을 준비하였으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가지고 나갔을 뿐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다.
- (4)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기독교인의 신앙 생활 가운데에도 나타나고 있다.
- (5) 기름이 없는 등은 신랑을 맞이하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는 형식적인 교회 생활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교회의 마당을 밟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주를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다 되었다고 자부하지 말고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일을 말씀의 요구에 따라 생활하는 실제적인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약 1:22-27).

6. ㉠ '등'과 '기름'은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3, 4절)

- ㉠ (1) 학자들은 '등'을 믿음에 대한 상징으로, '기름'은 그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일의 상징으로 해석했고(pulpit 주석), 또 다른 학자들은 '기름'을 중요하게 취급하여 '성령' 혹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했다(W. W. Wiersbe).
- (2) 이러한 해석들은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단어 자체에 집착하여 지나친 비유적 해석법을 사용하므로 원뜻을 망각할 우려가 있다.
- (3) 따라서 우리는 비유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좀더 포괄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 (4)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할 때 '등'은 외형적인 신앙 생활, 즉 교회 출석, 봉사, 전도 등을 상징하고 '기름'은 내면적인 신앙 생활, 즉 성경 읽기와 기도 등을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5) 기름 없는 등이 소용없듯이 등 없는 기름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다.
- (6) 마찬가지로 내면적인 신앙 생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는 하지만 외형적인 신앙 생활 역시 필요하다.
- (7) 즉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서 동시에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롬 10:9, 10).

7. **㉠** 신랑은 언제 왔는가? (5, 6절)

- ㉠** (1) 신랑은 생각보다는 훨씬 늦게 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 지쳐서 졸며 잘 때에 왔다.
- (2) 이때는 '한밤중'으로 처녀들이 예상하고 있던 초저녁보다는 훨씬 늦은 시각이었다.
- (3) 이 대목에서 중요한 요점은 열 처녀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 신랑이 왔다는 사실에 있다.
- (4)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매우 더디 오신다고 생각할 무렵 '밤에 도적같이'(살전 5:2)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 (5) 만일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신랑이 늦게 집에 도착한다 해도 잠을 이루지 않고 기다리듯이 우리가 예수를 극진히 사랑하고 그분의 오심을 고대한다면 우리는 신랑되신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신다 해도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8. **㉠**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자들의 등불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7-9절)

- ㉠** (1) 미련한 자들의 등불은 기름이 다 떨어져 꺼져 가고 있었다 (8절).
- (2) 이에 그들은 슬기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나눠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했다.
- (3) 왜냐하면 기름을 나눠 쓸 경우에는 열 처녀 모두가 부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 (4) 이러한 사실은 사람의 구원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결코 다른 사람의 믿음 덕택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영적인 원리를 보여 준다(참조, 겔 18:2-4).
- (5) 그러므로 목사의 아들이라도 미련한 처녀와 같은 신앙 생활을 하면 당연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요, 무당의 아들이라도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신앙 생활을 하면 또한 당연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 (6)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라면 자신이 현재 지니고 있는 교회 직분이나 가문의 화려함에 연연해 있기 보다는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에 대한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9. **㉠** 기름을 나눠 줄 것을 요구하는 미련한 처녀들을 향하여 슬기로운 처녀들은 무엇이 라 응답했는가? (9절)

- ㉠** (1)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응답했다.
- (2) 사실 모든 신실한 신자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이상의 영적 은사와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 설령 그들이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종말론적 위기가 시작될 때 타인을 돕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24:42-44).
- (3)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적으로 너무 매정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문제인 신앙과 구원 문제만은 그 어느 누구도 도움을 받거나 줄 수 없는 준엄한 것이다. 인간의 정과 하나님의 지혜와는 무관하다.
- (4)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고 가르쳤다. 기름은 그들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산' 것이다(참조, 사 55:1). 즉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채워진 것이다.
- (5) 이렇게 필요에 따라 사서 채우라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권고는 합당한 것이었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늦어 있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서 기회의 선용을 강조하는 사건이다(참조, 엠 5:16).
- (6) 아직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나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가 있다면 돌아올 수 없는 기회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영생과 참된 행복을 위한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이다(참조, 고후 6:2).

10. **㉠** 결국 미련한 다섯 처녀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10-12절)

- ㉠** (1) 미련한 다섯 처녀가 뒤늦게 부족한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사려 간 동안 이미 신랑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잔치집의 문은 닫혀 버렸다.

- (2) 유대 혼인 풍습에서 신랑이 들어감으로써 잔치집 문이 닫혀 버린 후에는 어느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었다.
- (3) 그러므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구해 가지고 와서 문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
- (4) 회개와 믿음도 때가 있는 법이다. 주께서 재림하신 후에는 아무리 애통하며 회개하여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 (5)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요 12:36).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후 6:2).

11. ㉠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는 귀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2절)

- ㉠ (1) 이러한 선언은 일찌기 산상 수훈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즉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7:23)고 하신 말씀과 유사하다.
- (2) 이처럼 주께서 알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선언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 (3)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하여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완전한 사랑을 보이고 계신다(참조, 요일 4:10). 그러나 그분에게 있는 이 사랑이 무계획적이고, 당신의 뜻과 배치되는 것까지 사랑하시는 종류의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연한 질서와 기준이 있으며, 당신의 뜻과 배치되는 것까지 포용하는 무의미한 사랑을 소유하시지 않는다.
- (4)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종 모세 등은 모두 그러한 인정을 받았다(창 18:19; 출 33:12).
- (5)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기에 앞서 하늘의 하나님께 알려지고 인정받기에 힘써야 한다(참조, 갈 4:9).

12. ㉠ 열 처녀 비유의 결론은 무엇인가? (13절)

- ㉠ (1) '깨어 있으라'는 것이다. 이 교훈은 24장에서부터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는 주제와 동일하다(24:36, 42, 44, 50).
- (2) 그런데 혹자는 이 귀절이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이나 다 같이 졸며 자고 있었다는 본문의 내용과 모순된다고 하면서 이 귀절을 후대에 삽입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Jeremias).
- (3)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13절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그릇된 견해이다.
- (4) 즉 13절의 '깨어 있으라'(keep watch)는 말은 '잠자지 않고 눈을 뜨고 있으라'(keep awake)는 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각성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인 것이다.
- (5) 우리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이 잠들 동안에도 영은 늘 깨어 있어 기도하는 생활을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눅 18:1; 21:36; 골 4:2; 살전 5:17).
- (6) 다음으로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교회가 항상 재림의 소망을 간직한 채 그분과의 영원한 동거를 확신할 수 있도록 한다(참조, 살전 4:17).
- (7) 그러므로 교회의 일원인 우리는 비록 받을 이 땅에 놓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로서 더욱 건강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오심은 우리의 현실이 지닌 모든 아픔과 고뇌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요 14:1-3).

13. ㉠ 열 처녀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활을 하도록 교훈하고 있는가? (1-13절)

- ㉠ (1) 이 비유는 우리에게 영적인 기름 곧 기도로 자라고 순종으로 생활화된 믿음을 준비하

도록 교훈하고 있다.

- (2) 이러한 믿음은 평화로울 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역사의 어둠이 드리워지고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그 진가(眞價)를 발휘한다.
- (3) 즉 환난 때에 형식적인 신자들은 넘어지고 배교(背敎)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던 성도들은 그 환난을 견디고 내고 오히려 더 많은 성령의 열매(갈5:22)를 맺는다.
- (4)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그와 동행하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며 환난을 이길 영적 기름을 예비하는 길이다.

14. ㉠ 달란트 비유의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14-30절)

- ㉠ (1) 앞의 열 처녀 비유가 주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의 준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 달란트 비유는 성도의 성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 (2) 즉 이 비유에서는 종들이 맡겨진 주인의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는 모습과(16, 17절) 태만한 모습이(18절) 대조되고 있는데 여기에 비유의 요점이 있다.
- (3) 이 비유는 기독교인이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삶에 하나님의 신성한 소명이 있다는 '직업 소명론'의 사상을 보여 주고 있다.
- (4) 따라서 열 처녀의 비유가 주로 성도의 영적이고 정적인 생활을 교훈하고 있다면 이 비유는 성도의 실제적이고 동적인 생활을 교훈하고 있는 셈이다.
- (5) 이 두 비유의 교훈을 종합함으로써 우리는 주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의 전인적(全人的)인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될 것이다.

15. ㉠ 달란트 비유와 므나의 비유(눅 19:11-27)를 비교하여 보라.

- ㉠ (1) 두 비유는 비슷한 점이 많지만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다.
- (2) 두 비유는 그 배경과 내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 | | 달란트 비유 | 므나 비유 |
|--------|-----------------------|---|---------------------------------|
| 배 경 | 청 중 | 제자들 | 무리들 |
| | 동 기 | 종말론을 설명하기 위해 |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
| | 장 소 | 예루살렘 | 여리고 |
| | 시 기 | 고난 주간 중 화요일 | 고난 주간 직전 |
| 내 용 | 주 인 | 단순한 부자 | 왕위를 물려받을 귀인 |
| | 종의 수자 | 3명 | 10명 |
| | 화폐의 단위 | 달란트 | 므나 |
| | 맡긴 액수 | 차등(5, 2, 1 달란트) | 평등(1 므나씩) |
| | 남긴 액수 | 5, 2, 0 달란트 | 10, 5, 0 므나 |
| | 상 급 | 많은 것을 맡긴 | 10, 5고운 권세를 줌 |
| | 계으른 중 계으른 중의 형벌 | 돈을 땅에 묻어 둠 1 달란트를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 남 | 돈을 수건에 싸 둠 1 므나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함 |

- (3) 이상의 차이점 중에서 중요한 것은 남긴 액수 그리고 증성된 중에 대한 상급에 대한 차이점이다.
- (4) 이 세 가지 차이점을 고찰해 볼 때 므나 비유는 만민에게 공통적인 은사, 즉 하나의 생명, 이성(理性), 양심, 성결, 하나님의 말씀 등을 선용하여 현세적 상급을 누리는 문제에 관한 것이며 달란트 비유는 사람마다 다르게 부여된 능력, 기회, 환경 등을 활용하여 내세적 상급을 누리는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6. ㉠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가? (14절)

- Ⓐ (1) 그러한 행위는 주인이 종들을 자기의 동역자로 간주하여 자신을 대리하여 재산을 증식시켜 주기를 바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Derrett).
- (2) 실제로 고대 팔레스틴에서 종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상당한 재량권과 아울러 책임을 갖고 있었다.
- (3) 따라서 종들은 주인이 맡겨 준 소유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런히 일해야 했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갖가지 개인적인 재능들을 우리는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17. Ⓞ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닌 화폐의 단위인가? (15절)

- Ⓐ (1) 본래 ‘달란트’ (헬, 탈란톤)는 무게의 단위였는데 금속의 무게를 통화(通貨)의 수단으로 삼던 고대 유대 지방에서는 화폐의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 (2) 화폐의 단위로 볼 때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한다.
- (3) 그런데 1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므로 노동자의 1일 임금을 1만 원 정도로 계산하는 오늘날 한국의 화폐 가치로 볼 때 1달란트는 약 6천만 원에 상당하는 거금(巨金)이 된다.
- (4) 영역 성경인 Living Bible은 성경 본문에 1달란트를 1천 달러(약 90만 원)로 환산하여 번역하였고, NIV 각주에도 ‘1달란트는 1천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대단히 과소 평가한 입장이다.
- (5) 이에 반해 RSV는 ‘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 분의 임금 이상되는 액수였다’고 각주를 달았고 엑스포지티브스 주석(Expositor’s Bible Commentary)은 20년 분의 임금을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3)에서와 비슷한 액수이다.
- (6) 한편 눅 19:13에 언급된 1므나는 60분의 1달란트, 즉 100데나리온(약 100만 원)에 해당되는 가치를 지닌다.
- (7) 오늘날에는 ‘달란트’(영어로는 talent)라는 말의 의미가 또다시 전용(轉用)되어 한 개인의 천부적인 재능 또는 정신적인 능력을 뜻하게 되었는데 이는 본장에서부터 유래된 사상이다.

18. Ⓞ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어떻게 나누어 주었는가? (15절)

- Ⓐ (1)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약 3억 원),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약 1억 2천만 원),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약 6천만 원)씩 나누어 주었다.
- (2) 이처럼 각각 다르게 나누어 준 것은 각자가 지닌 재능(KJV, NIV, ability, 능력)에 맞추기 위해서였다.
- (3) 이 사실은 인간들이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시사(示唆)해 준다.
- (4) 확실히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태어날 때부터 명석한 두뇌를 가지거나 혹은 뛰어난 체력 혹은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본다.
- (5) 그러나 그는 그러한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 (6)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눅 12:48).

19. Ⓞ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돈을 받은 후 어떻게 하였는가? (16, 17절)

- Ⓐ (1) 먼저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으며 두 달란트 받은 종도 그와 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다.
- (2) 여기서 ‘바로’(at once)는 주인이 떠나자마자 즉시는 아니더라도 종이 재빨리 자기에

게 맡겨진 돈을 가지고 어떤 일에 착수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 (3) 또한 '장사하다' (헬, 엘가조마이)는 말은 농사 일이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어떤 사업에 투자했다는 의미이다 (NIV, put his money to work).
- (4) 이러한 두 단어의 의미는 종들의 행위가 매우 신속하며 적극적이었고 또한 매우 창의적(創意的)이었음을 나타내어 준다.
- (5)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또한 창의적인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하겠다.

20. **㉠** 두 종이 각자 자기가 받은 달란트만큼 남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6, 17절)

- ㉠** (1)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다섯 달란트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두 달란트를 각각 남김으로써 그들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와 똑같은 액수를 벌었다.
- (2) 이것은 누가복음의 므나 비유와 다른 점으로 거기서는 한 므나로 어떤 종은 열 므나를, 또 어떤 종은 다섯 므나를 남겼다고 되어 있다 (눅 19:16, 18).
- (3) 이러한 차이는 므나 비유가 현세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것에 반해 본 비유는 내세적이고 신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데에서 비롯되었다.
- (4) 즉 본 비유에서 종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일종의 신적 사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일하기만 하면 이미 주어진 달란트만큼(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남겨지도록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 (5) 왜냐하면 달란트는 엄밀하게 측정된 각자의 재능에 따라 (15절)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전제하에 주어졌기 때문이다.
- (6)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에 있지 않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다.
- (7) 이런 이유로써 두 종에 대한 칭찬과 상급이 동일하게 주어진다 (21, 23절; 눅 19:17, 19).
- (8) 우리들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욘 12:3) 각자 소유한 재능의 분량대로 부지런히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겠다.

21. **㉠**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하였는가? (18절)

- ㉠** (1) 그는 가서 '장사' 하는 대신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 (2) 나중에 한 그의 진술 (24, 25절)을 보면 그는 그 돈으로 장사하다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여 감추어 두었다고 했다.
- (3) 그러나 비유의 구성으로 볼 때 그가 일하지 아니한 진정한 이유는 다른 종들과 비교하여 자기가 받은 돈이 적은 것을 불만스럽게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참조, 29절). 그러나 그가 받은 돈도 실상은 6천만 원의 거금이 아니었던가!
- (4)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의식에 빠져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귀중한 재능을 묻어 두고 불평과 탄식만 하고 있는 자는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어리석은 자이다.

22. **㉠** 회계(會計)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19절)

- ㉠** (1) '오랜 후에' (after a long time)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옴으로써 회계를 하게 되었다 (참조, 18:23).
- (2) 이와 같이 우리 주께서도 좀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5절; 24:48) 반드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재능의 열매를 찾으실 것이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더디게 재림하신다고 해서 그분의 재림이 완전히 무효화되거나 우리의 삶의 결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내 예수 앞에 우리가 설 날이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깨어 있는 삶을 계속하여야 한다.

23. **㉠** 주인은 장사한 종들을 어떻게 대우하였는가? (20-23절)

- ㉠** (1) 주인은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에게 똑같이 칭찬하기를 '잘하였도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라고 하였다.

- (2) 따라서 그 두 종에게 주어지는 상급도 동등하다.
- (3) 이와 같이 두 종이 동등한 대우를 받은 것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각각 다른 재능을 가지고 일했음지라도 천국에서는 동등하게 영생과 축복을 누리게 됨을 가르쳐 준다.
- (4) 수백만 명을 구원시킨 대전도자 빌리 그래함(Billy Graham)이나 시골 교회 예배당을 청소하는 할머니 성도나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동등하다.
- (5) 그러나 현세적인 면에서(자손들까지 포함하여)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많은 상급을 받게 된다(눅19:16-19).

24. ㉠ 주인이 종들에게 준 상급의 내용은 어떠한가? (20-23절)

- ㉠ (1) 상급의 내용은 두 가지니, 즉 ① 많은 것을 맡기리라는 것과 ②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 (2) 첫째,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 주인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말하였다.
 - (3) 즉 5달란트(약 3억 원)를 작은 일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많은 것'이란 얼마나 큰 규모의 자본이란 말인가!
 - (4) 두번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했는데 여기서 '즐거움'(헬, 카라)은 '잔치'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이다.
 - (5) 고대 사회에서 종이 주인의 잔치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종이 그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주인과 같은 신분으로 승격됨을 의미했다.
 - (6) 결국 종들은 엄청난 규모의 물질적 부요와 주인과 동등한 신분을 상급으로 받게 되었던 것이다.
 - (7)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상급이 어떤 것인지를 상상하게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몇 방울의 기쁨에 불과한 반면, 천국에서는 아예 우리가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그릇을 행복의 바닷속에 넣는 것과 같다'(Leighton).

25. ㉠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변명하였는가? (24, 25절)

- ㉠ (1) 그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지 않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던 것이라고 자신의 나태를 변명했다.
- (2) 여기서 굳은 사람(a hard man)이라 함은 노동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예를 들어 고리 대금업 같은 방법) 유대의 완고한 수전노 같은 사람을 빗대어 가리킨 표현이다.
 - (3) 이처럼 주인이 노동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장사를 하여 돈을 벌여 주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장사에 실패하여 돈을 잃을 경우 호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니 안전하게 돈을 땅에 묻었다가 반환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이 종은 생각했다는 것이다.
 - (4) 그러나 전체 내용을 볼 때 주인은 결코 수전노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종들의 앞날을 매우 자상하게 배려하는 사려 깊은 인물이었다(21, 23절).
 - (5)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편견에 의해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사람들의 모형을 본다.
 - (6)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애써 인간이 전도하거나 봉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하는 사람은 전도하고 봉사할 자신의 달란트를 묻어 두는 사람인 것이다.

26. ㉠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일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24, 25절)

- ㉠ (1) 종의 변명(24, 25절)에 의하면 그가 일하지 않았던 것은 주인의 성품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2)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종의 질부심과 열등 의식에 있었던 것 같다.
 - (3) 즉 그는 다른 종들과 비교할 때 가장 적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로(15절)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여겼던 것이다.

- (4) 비록 적은 돈일지라도 그가 다른 종들처럼 일했다면 많은 돈을 받은 종들과 똑같은 상금을 받아 누렸을 것이다(참조, 21, 23절).
- (5) 이처럼 우리가 비록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 주신 것을 기억하고 성실한 자세로 그 맡은 바를 준행해 가야 한다(참조, 눅 19:17).

27. **㉠** 일하지 않은 종에 대하여 주인은 어떻게 책망했는가? (26, 27절)

- ㉠** (1) 주인은 먼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렀다. 이는 21, 23절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호칭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 (2) 이 종의 악한 점은 주인의 성품을 굳은 사람으로 알았다는 변명을 하였다는 데에 있고 그의 게으른 점은 일은 고사하고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기는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 (3) 결국 이 종은 아예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 (4)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이다. 이런 마음이 없는 상태의 봉사는 무의미하다.

28. **㉠** '취리하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27절)

- ㉠** (1) '취리하는 자들' (헬, 트라페지타이스)은 고대의 환전상(換錢商) 또는 은행업자를 가리킨다.
- (2) 이들은 당시 팔레스틴 지방이나 다른 지방에서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는 다수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 (3) 이 사람들은 예금을 접수하고 일정 비율의 이자를 붙여 예금주가 원하는 때에 본전과 변리를 되돌려 주었다.
- (4)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동쪽끼리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 주는 것이 금지되었지만(출 22:25; 레 25:35-37; 신 23:19; 시 15:5) 이방인들에게는 허용되었다(신 23:20).
- (5) 본문 말씀은 결코 고리 대금업(usury)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은행업을 긍정하고 장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9. **㉠** 악한 종은 어떤 형벌을 받았는가? (28-30절)

- ㉠** (1) 그는 가지고 있던 한 달란트를 열 달란트 가진 종에게 더해 주고 자신은 아무런 소유도 갖지 못한 빈털털이가 되고 말았다(28절).
- (2) 뿐만 아니라 무익(無益)한 종으로 인정되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30절).
- (3) 이러한 악한 종의 말로(末路)는 충성된 종들이 받았던 상급(21, 23절)과 매우 대조적이다.
- (4) 즉 충성된 종들은 풍성한 소유와 자유민의 신분을 상급으로 얻었는데(참조, ㉠23) 악한 종은 무소유와 감옥살이를 형벌로 받았던 것이다.
- (5) 만일 우리가 지상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달란트를 무시해 버린다면 우리의 말로도 이같이 비참해 질 것이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건강, 지혜, 물질, 재능 등을 하나라도 소홀히 다루거나 묻어 두지 말고 항상 주가 보시기에 합당하게 선용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30. **㉠**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달란트를 활용해야 하는가? (14-30절)

- ㉠** (1) 우리는 이제 본 달란트 비유(14-30절)를 통해 실제적인 생활의 교훈을 찾아 보려 한다.
- (2) 비유에 나타난 세 종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각자 고유한 달란트를

받았다.

- (3) 우리 각자의 지능, 건강, 기술 등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달란트이며 우리는 이 달란트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 (4) 어떤 이들은 지능의 은사를 따라 학자로, 어떤 이들은 건강의 은사를 따라 스포츠맨으로, 어떤 이들은 기술의 은사를 따라 엔지니어로 일해야 하며 한편 목회자, 농부, 군인, 정치가로 일해야 할 사람도 있다.
- (5) 기독교인은 바로 이러한 직업 소명 의식(職業召命意識)을 가지고 모든 직업적 업무를 주께 하듯 진실하게 수행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신적 달란트가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참조, 엡 6:5-8).
- (6)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는 평생을 수도원에서 명상하는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생활의 현장에서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

31. ㉠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31-46절)

- ㉠ (1)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해서 비유라기 보다는 직설적인 설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 (2) 여기서 비유적인 요소들은 단지 목자, 양들, 염소들 그리고 양들과 염소들을 구분하는 형식뿐이다.
- (3) 이처럼 이 부분이 직설적이고 극적인 설화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24, 25장의 강화를 마무리짓는 내용으로 주의 재림과 심판을 좀더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32. ㉠ 세번째 이야기의 교훈을 앞의 두 비유와 관련지어 설명하라 (31-46절).

- ㉠ (1) 본장에 기록된 세 편의 이야기는 모두 주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의 바람직한 생활 자세를 교훈하는 내용이다.
- (2) 성도의 바람직한 생활 자세에 있어서 첫번째 열 처녀의 비유는 성도의 영적 생활을, 두번째 달란트 비유는 성도의 실제 생활을 각각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 (3) 이제 마지막 세번째 이야기는 두번째 비유에서 다룬 실제 생활을 좀더 구체적으로 교훈한다.
- (4) 즉 성도는 타고난 달란트를 활용하여 열심히 직업 생활을 해야 하지만 아울러 타인을 향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선행과 봉사를 함으로 궁극에 가서는 그 모든 인격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33. ㉠ 세번째 이야기는 언제 이루어질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가? (31절)

- ㉠ (1) 세번째 이야기는 인자(예수)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이루어질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 (2) 이런 본질의 표현은 성경의 다른 귀절에 명백히 예언되고 있는 바와 같이(16:27; 24:30; 살전 4:16; 살후 1:8)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
- (3) 특별히 '영광의 보좌'란 모든 사람을 각자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 주께서 앉으실 '흰 보좌'를 가리킨다(계 20:11-15).
- (4) 과연 주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를 어떤 기준에서 심판하실 것인가?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4. ㉠ 주께서는 모든 민족을 어떻게 분별하실 것인가? (32, 33절)

- ㉠ (1) 주께서는 모든 민족을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분별하여 놓는 것처럼 두 무리로 분별하실 것이다.
- (2) 목자들은 보통 낮 동안에는 쉬어 있던 양과 염소를(창 30:33) 밤이 되면 종류를 나누어 우리 안으로 들여보낸다.
- (3) 한편 '모든 민족'(헬, 판타 타에드네)이라 함은 '모든 족속들'(all peoples)이란 뜻인

데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하는 세상의 모든 인종 집단을 가리킨다.

- (4) 이 모든 민족들이 각각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질 것인데 오른편은 생명의 자리, 왼편은 멸망의 자리이다.
- (5) 온 인류의 목자되신 주께서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당신을(나를) 분별하신다면 당신은(나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하게 될 것인가?

35. **㉠**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선포하셨는가? (34절)

- ㉠** (1)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축복을 선포하셨다.
- (2) 여기서 임금은 물론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말이다(계 19:16).
- (3) 한편 '복받을 자들'이란 말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5:3에서처럼 <마카리오이>가 아니라 21:9;23:39에서처럼 <올로게메노이>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임을 강조한다(엡 1:3).
- (4) 그들이 받을 복은 유업을 상속하는 것인데(롬 8:17; 계 21:7) 그 유업은 '창세 이래로'(요 17:24; 엡 1:4; 벧전 1:20)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천국이다.
- (5) 성도들은 헛된 세상의 부귀나 영화를 추구하는 기복주의(祈福主義)에서 벗어나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된 천국의 신령한 축복을 늘 사모하며 소망해야 할 것이다.

36. **㉠**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천국의 상속자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34-40절)

- ㉠** (1) 그 이유는 그들이 왕의 형제된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우리는 선행으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비유의 사상이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사상(엡 2:8, 9)과 모순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다.
- (3) 그러나 둘이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울의 고후 5:10이 이 비유의 사상과 관련되며 또 마태 역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언급했던 사실(9:22)로도 뒷받침된다.
- (4)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선한 일은 믿음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생활에 선한 행위가 뒤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약 2:26).

37. **㉠** 의인들의 선행은 어떤 것이었는가? (35, 36절)

- ㉠** (1) 그들의 선행은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준 순수한 자선 행위였다.
- (2) 본문에 나타난 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등은 가난한 자들을 나그네, 병자, 옥에 갇힌 자 등은 고난받는 자들을 각각 대표한다.
- (3) 그런데 사랑을 실천해야 할 교회에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팔시하고 고난받는 자들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약 2:6).
- (4) 그것은 곧 그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시하고 외면하는 행위이다.
- (5) 과연 우리 주변에 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병자, 죄수의 모습을 한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생각하고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찾도록 하자.

38. **㉠** 주께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40, 45절)

- ㉠** (1) 어떤 학자들은 '주님의 형제'라고 한 표현에 근거하여(참조, 10:40-42) 사도들과 그밖의 다른 복음 전도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본다(J. R. Michaels, J. Manek 등).
- (2)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본문의 의미를 매우 좁게 제한시키므로 타당하지 않다.
- (3) 그보다도 이 말씀은 고난받고 슬픔을 경험하신 그리스도와 사귀 모든 고난받는 자들

중에 가장 미미한 자를 가리킨다.

- (4) 이러한 자는 오늘날 교회 주변이나 거리에서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 (5) 지금 주께서는 그들이 당하는 슬픔과 고난을 그의 것으로 삼으시며 그들 안에서 고난 받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할 일을 찾아야 한다(참조, 사 53:4; 63:9).
- (6) 우리는 자기만을 위한 극단주의적 사고와 허세 등을 떨쳐 버리고 항상 눈을 낮은 데 두어 슬픔과 고난과 실의에 빠져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사랑과 온정과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7) 우리 사회에서 불공평한 일이나 소외된 계층 또는 고난받는 자들이 많아진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불성실과 무책임에서도 그 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39. ㉠ 원편에 있는 자들이 들어갈 곳은 어디인가? (41절)

- ㉠ (1)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로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요 14:6) 멸망의 처소로 들어가게 된다.
- (2) 본문은 그곳을 가리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이라고 표현했다.
- (3) 결국 그들은 마귀의 백성으로 간주되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막 9:44; 눅 16:23, 24; 계 20:10, 14, 15; 21:8).
- (4) 천국이 의인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듯이 세상에서 기고 만장한 악인들을 위하여 지옥도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은 의인들에게는 격려를 주고 악인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한다.

40. ㉠ 악인들이 지옥의 판결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42-45절)

- ㉠ (1)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고난받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 만일 그들이 목회자였다면 교회의 존귀한 자들에게만 선을 행하였을 것이고 만일 그들이 정치가였다면 재벌이나 권력자에게만 선을 행하였을 것이다.
- (3) 그러한 선은 기독교적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대가를 바라고 배운 조건적인 선행이기 때문이다(참조, 눅 14:12-14).
- (4) 그러한 선행에 대한 상급은 이미 지상에서 모두 받게 되기 때문에 부활 후 곧 내세에서는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6:2, 5, 16).
- (5) 진정한 선행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아무 조건 없이 회생을 당해 주셨듯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엡 5:1, 2).
- (6) 이러한 선을 행하지 않은 자는 의인들이 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41. ㉠ 영벌과 영생은 각각 무슨 뜻인가? (46절)

- ㉠ (1) ‘영벌’은 헬라어로 <쿨라신 아이오니온>인데 신약에서 이곳을 제외하고 단 한번 나오는 말이다(요일 4:18).
- (2) 여기서 <쿨라시스>는 범죄자를 교정하기 위해 내리는 형벌을 뜻하는데 이 앞에 ‘영원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분명히 지옥의 형벌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 (3) 한편 ‘영생’은 헬라어로 <조에 아이오니온>인데 주로 사도 요한에 의해 애용되던 말로 요한복음에만 17번 등장한다.
- (4)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영원한 삶을 의미한다.
- (5) 결국 지금 우리 앞에는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불행과 영원한 행복이 선택을 기다리며 놓여져 있다.
- (6)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에 두고 당신은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제 26 장 십자가를 위한 준비

단락구분 1-5 유대인 공회의 음모 / 6-13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인 / 14-16 가롯 유다의 배신 / 17-30 최후의 만찬 / 31-35 베드로가 부인(否認)할 것을 예언하시다 / 36-46 겟세마네의 기도 / 47-56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잡히시다 / 57-68 대제사장 가이바의 범정 / 69-75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다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들을 지나면 유원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3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4 예수를 계제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5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6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8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9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10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1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1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4 그때에 열 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5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온 삼십을 달아 주거늘

16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17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유원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8 가라사대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원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19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원절을 예비하였더라

20 저를 때에 예수께서 열 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21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23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4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은 편하였느니라

25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26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 또 잔을 가지사 사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9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0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31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3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

인하리라

35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36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겿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7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한 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0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2 다시 두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3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리라

44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45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46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7 말씀하실 때에 열 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48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임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49 곧 예수께 나아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50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51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퍼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52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

에 쫓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53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 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54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오 하시더라

55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56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7 예수를 잡은 자들이 짧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8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59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도대

60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61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62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한도 하되

63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5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

66 생각이 어떠한도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67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68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69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잘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

노라 하며

71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72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3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

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 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얇이 곧 울더라

75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땀흘리니라

1. ㉠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

㉠ (1) 전장(前章)까지로 종말론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산 강화(24, 25장)가 끝나고 본장에서부터는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요약되는 당신의 마지막 생애가 전개되어 진다(26-28장).

(2) 본장의 내용은 고난 주간 중 목요일에 발생한 사건(17-46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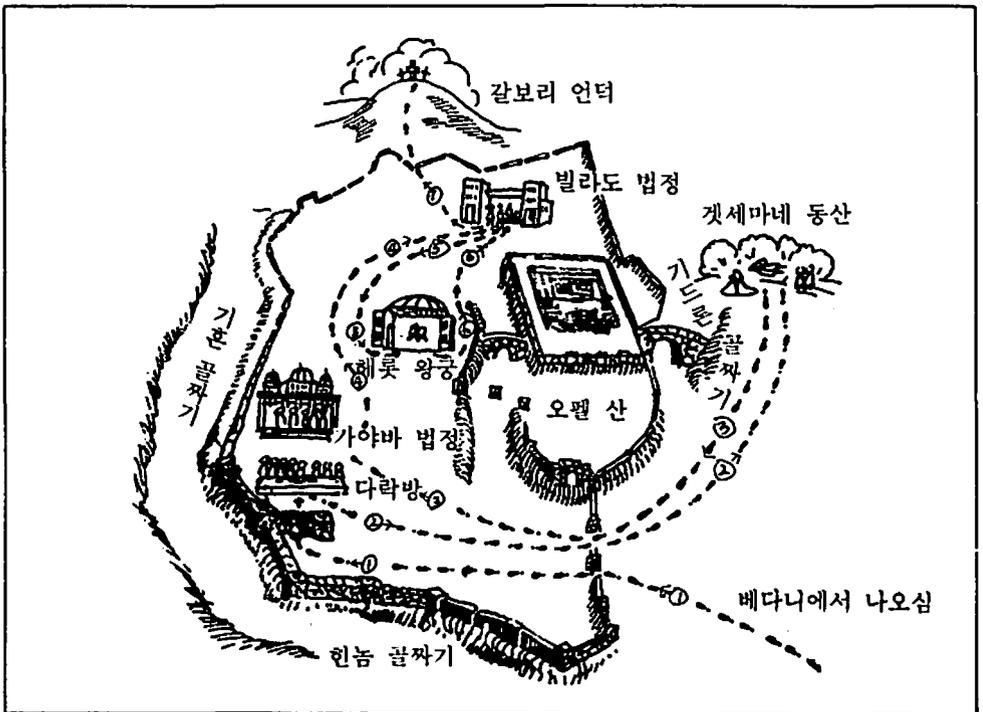
(3) 이 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내일이면 닥쳐 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최후의 준비를 하셨다.

(4) 이 최후의 준비란 바로 본장의 중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갓세마네의 철야 기도를 가리킨다(36-46절).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시고 의연히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게 되었던 것이다.

(5)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는 성도들마다(16:24) 먼저 본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갓세마네 기도처럼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

2. ㉠ 본서의 중반부인 26, 27장에 기록된 예수의 행적을 지도를 사용하여 설명하라.

㉠ (1) 예수의 행적을 지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위 지도의 각 번호는 각각 다음과 같은 예수의 행적을 가리킨다.

- 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심(17-20절).
- ②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심(36절).
- ③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으로(57절).
- ④ 가야바 법정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으로(27:2).
- ⑤ 빌라도로부터 헤롯의 궁전으로(눅 23:7).
- ⑥ 헤롯에게서 다시 빌라도에게로(눅 23:11).
- ⑦ 빌라도의 법정에서 갈보리 동산으로 끌려가사 못박히심(27:31).

3. **㉠** '이 말씀을 다 마치고'란 귀절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별한 의미는 무엇인가?(1절)

- ㉠** (1) 이 귀절은 본서의 5대 강화가 끝마칠 때마다 사용된 관용구이다(7:28;11:1;13:53; 19:1).
- (2) 여기서는 5대 강화 중 마지막인 감람산 강화(24,25장)가 끝나며짐을 의미하고 있다.

4. **㉠** 예수께서 말씀하신 네번째 수난 예고의 특징은 무엇인가? (2절)

- ㉠** (1) 본절은 주께서 본서를 통틀어 네번째, 즉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수난 예고이다(16:21; 17:22,23;20:18,19).
- (2) 이 네번째 수난 예고의 내용이 지니는 특징은 수난의 때를 이틀 후 유월절로 밝히셨다는 데에 있다.
- (3) 여기서 '이름을 지나면'이란 본문의 표현은 당시 유월절이 어느 날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려 주는 열쇠를 제공한다.
- (4) 만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수요일에 하셨다면 본문은 유월절이 금요일이 끝나는 저녁 곧 안식일이 시작될 즈음에 시작될 것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참조, 요 18:28,39; 19:14,31).

5. **㉠** 유월절의 유래와 시기를 간단히 설명하라(2절).

- ㉠** (1) 유월절(逾越節, Passover)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스카>로서 이는 히브리어(<파사크>)를 음역한 말이다. <파사크>는 '넘어가는 것'이란 뜻이다.
- (2) 이러한 어원이 암시하듯이 유월절은 B. C. 15세기 애굽을 치던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을 남겨 두고 '넘어갔던'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다(출12장).
- (3) 그때는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니산 월(양력 3,4월) 14일이 시작되는 저녁이다.
- (4)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14일이 시작되는 저녁 이전에 미리 양을 잡아 놓은 후 저녁이 되면 유월절 음식(구운 양 고기, 무교병, 쓴 나물)을 먹고(출12:6-11) 계속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 절기로 지켰다(출12:18). 그리고 그 절기의 첫날(14일)과 제7일(21일)에는 성회(聖會)로 모였다(출12:16;레23:7,8).
- (5) 한편 본장에 있어서 예수께서 유월절 음식으로 최후의 만찬을 드신 때는 유월절 하루 전인 13일 저녁이며(17-30절)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시간은 그날 저녁이 지난 13일 낮인 것으로 추정된다(유대인들의 하루는 일몰시부터 다음날 일몰시까지임).
- (6) 왜냐하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드신 유월절 음식 중에는 어린양의 고기가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다른 유대인들의 경우, 예수께서 못박히셨던 날(13일) 저녁(14일)에 유월절 잔치를 행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요18:28).

6. **㉠**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인 곳은 어디인가? (3절)

- ㉠** (1)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衙門)으로 여기에서는 유대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Sanhedrin)의 비공식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 (2) 산헤드린의 공식 회의는 대제사장의 아문(헬, 아올레), 즉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열리

지 않고 뜰 남쪽에 있는 다들은 돌로 건축된 공회당에서 열렸다.

- (3) 당시 산헤드린은 72인의 공회원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족장급인 장로 등 세 계층에서 각기 24 인씩을 차지하였다.
- (4) 이 회의는 유대인에게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의결 기관으로 사형의 의결권까지 있었으나 (66절) 로마의 지배를 받은 이후에 사형 의결은 로마 총독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요 18:31).

7. **㉠** 가야바는 누구인가? (3절)

- ㉠** (1)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로 A. D. 18-36년間に 재직한 대제사장이었다.
- (2) 그의 장인 안나스는 총독 구레뇨에 의해 A. D. 6년 대제사장이 되었다가 9년만인 A. D. 15년에 해임되었고 그 자리를 이스마엘, 안나스의 아들인 엘라아살, 시몬 등이 차례로 승계하다가 A. D. 18년에 가야바가 빌라도 전임 총독인 발레리오 그라토의 후원을 받아 대제사장이 되었다.
- (3) 그러나 당시 면직된 안나스는 생존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가야바의 대제사장 임명은 대제사장을 종신직이며 세습적으로 규정한 구약 율법(민 20:25, 26)에 어긋난 것이었다.
- (4) 어쨌든 당시 사람들은 두 사람을 모두 대제사장으로 불렀으며 더우기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으로서 배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요 18:12-14).
- (5) 그래서 눅 3:2이나 요 18:13, 19 등은 가야바와 안나스가 동시에 대제사장직을 행사했던 사실을 암시해 준다.

8. **㉠**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모여서 무엇을 의논하였는가? (4절)

- ㉠** (1) 그들은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 (2) 여기에 사용된 말들, 즉 ‘모여’ (3절), ‘의논하되’ (4절) 등을 생각할 때 이 사건은 시 31:13(‘...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 성취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 (3) 시 31편은 의로운 자가 받는 수난을 묘사함으로써 예수의 고난을 예언하는 시인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시 31:5(‘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눅 23:46).
- (4) 한편 그들이 ‘궤계’ (헬, 돌로스: ‘속임’, ‘배반’의 뜻)로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는 사실은 종교 지도자의 가면을 쓰고 저질렀던 그들의 불법성을 드러내 준다.
- (5) 하나님의 영광과 정의를 위해 투쟁한다고 하면서 궤계를 사용한다면 이는 사단의 역사(役事)는 될 수 있어도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될 수 없다.
- (6)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목적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정당해야만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다.

9. **㉠** 그들은 어느 때에 있어서 만큼은 예수를 잡아 죽이지 않으려 했는가? (5절)

- ㉠** (1) 그들은 명절 기간, 즉 유월절 절기가 치루어지는 7일 동안에 있어서 만큼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 하지 않았다.
- (2) 그 이유는 이때 민요(民擾)가 발생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 (3) 사실 유월절이 되면 평소 예루살렘 상주 인구의 5배가 되는 120만 명 가량의 대군중이 운집하고 그들 중에는 예수와 동향인 갈릴리인도 많기 때문에 선찰리 예수를 체포할 경우 큰 반발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 (4) 그러나 뜻밖에 예수의 제자인 가롯 유다가 찾아와서 군중이 없는 장소에서 예수를 넘겨 주기로 함으로써(14-16절) 그들이 계획한 일정(日程)은 취소되었고 대신 예수의 예고(1, 2절)가 그대로 성취되었다.
- (5)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된다.

- (6)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오늘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뜻이 완전히 승리라' (잠 19:21).

10. ㉠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사건이 언급된 목적은 무엇인가? (6-13절)

- ㉠ (1) 본래 이 사건은 막 14:3-9; 요 12:2-8과 같은 사건으로 고난 주간 전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요 12:1) 시간 순서상 1-5절보다도 훨씬 앞선다.
 (2) 그렇지만 시간 순서를 무시하고 이곳에 기록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지니는 구속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이다(12절).
 (3)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단 한번에 온 인류를 구속하는 고귀한 행위로 값비싼 향유를 부음으로써 기념될 필요가 있었다.
 (4) 또한 이 기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급기야 스승 예수를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의 배반 행위(14-16절)의 직접적 동기를 보여 주고 있다.
 (5) 한편 비슷한 기름 부음의 기사인 눅 7:36-50은 이 사건과 장소, 시간, 인물 등에 있어서 분명히 구별되는 별개의 사건이다.
 (6) 따라서 주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사건은 그의 생애 중에 모두 두 차례 있었던 셈이다.

11. ㉠ 베다니 문둥이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6절)

- ㉠ (1) 눅 7:40에도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바리새인이 등장하나 누가복음의 사건과 본장의 사건이 별개의 것이듯이 두 명의 시몬도 동명 이인(同名異人)일 뿐이다.
 (2)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본장에는 '문둥이'라는 일종의 별명이 이름 앞에 명시되고 있다.
 (3) 아마도 시몬은 이전에 문둥병에 걸려 있었다가 예수에 의해 치료를 받고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문둥이라는 별명을 계속하여 사용했던 것 같다.
 (4) 이런 일은 마태가 사도가 된 후에도 미움 받던 이름인 '세리'란 명칭으로 계속 불리웠으며(10:3) 다시 살아난 사람이 '죽었던 자'라고 불리웠던 경우와 유사하다(눅 7:15).
 (5) 또한 유대인 중에는 시몬이란 이름이 매우 흔하여 별명을 붙여 부르는 것이 편리했다. 시몬이란 이름은 신약 성경에만도 약 10회 가량이나 나오는데 그들은 열심당 시몬(눅 6:15), 마술사 시몬(행 8:9, 24), 구두장이 시몬(행 10:6) 등 별명과 함께 불리어졌다(참조 4:18; 13:55; 눅 7:40; 요 6:71).
 (6) 본장에 나타난 시몬은 나사로의 아버지거나 혹은 마르다의 남편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으나 전설에 불과할 뿐 확실한 근거를 가진 견해는 아니다.
 (7) 우리는 다만 그가 주를 매우 가까이서 따르던 자로서 나사로 남매의 가정과도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실만은 확실히 알 수 있다.

12. ㉠ '한 여자'란 누구를 말하는가? (7절)

- ㉠ (1) 본문의 평행 귀절인 요 12:3에는 이 여자의 이름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로 밝혀졌다.
 (2) 그런데 공관 복음서인 본서와 막 14:3에는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
 (3) 이처럼 공관 복음서에 마리아의 이름이 은폐된 것은 당시 생존해 있던 마리아와 그녀의 가족들을 유대인의 뿔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같다.
 (4) 공관 복음서는 시기적으로 요한복음보다 약 20년 이상 앞선 A. D. 50-70년경에 쓰여졌다.

13. ㉠ 마리아는 무엇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는가? (7절)

- ㉠ (1) 그녀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 위에 부었다.
 (2) 이 '향유'는 '나드'라고도 불리어지는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기나는 점액성의

액체를 말한다(참조, 막 14:3; 요 12:3).

- (3) 그런데 나드 향나무는 주로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 지방에서 재배되었는데 이처럼 먼 지방의 생산물을 수입해야 했던 까닭에 향유의 값은 매우 비쌌다. 요 12:3에는 향유 한 옥합의 가격이 약 300데나리온이나 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의 단위였으므로 300데나리온은 장정이 400일간 일을 해야 벌 수 있을 정도의 큰 액수였다.
- (4) 또한 향유를 담고 있던 '옥합' (헬, 알라바스트론)은 대리석과 비슷한 흰색 석회질 심광석으로 만든 병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는 몸체가 둥글고 목이 긴 모양을 하고 있어 보통 인봉한 주둥이를 깨고 향유를 꺼내게 되어 있다(참조, 막 14:3).
- (5)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귀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풍습이 있었는데(참조, 시 23:5) 마리아는 예수의 머리 뿐 아니라 발에까지 향유를 붓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 내었다(요 12:3).
- (6) 이것은 예수를 주(主)로 높이고 자신을 그의 발 아래로 낮추고자 했던 마리아의 신앙을 고백한 눈물겨운 모습으로 십자가의 주를 따라가려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귀감(龜鑑)이라 아니할 수 없다.

14. ㉠ 마리아가 기름 붓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8, 9절)

- ㉠ (1) 그들은 마리아가 사용한 향유의 값이 약 300만 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예수의 머리에 부어 버린 것은 지나친 낭비라 생각하고 마리아를 꾸짖었다.
- (2) 사실 그 향유를 팔아서 구제를 한다면 가난한 자에게 1년 생활비를 공급해 줄 정도가 된다.
- (3) 그렇지만 마리아에 대한 제자들의 책망은 결국 그들의 영적 무지를 폭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4) 즉 그들은 그들이 목격한 기름 부음의 참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12절) 아직껏 십자가를 향한 일련의 사건들이 갖는 의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16:21-28; 17:22, 23; 20:18, 19).
- (5) 오늘날 구제나 사회 사업을 내세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교회의 정당한 지출마저 비난한다면 이는 마치 본문의 제자들이 범한 것과 똑같은 우(愚)를 저지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5. ㉠ 제자들의 비난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마리아를 어떻게 변호하셨는가? (10-12절)

- ㉠ (1)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가룩한 진심을 직관적으로 아시고 그녀가 행한 일을 '좋은 일'이라고 선언하셨다(10절).
- (2) 왜냐하면 마리아의 기름 부음은 단순한 손님 접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이다.
- (3) 한편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는 교회가 영적 결실을 위하여 지출하는 물질적인 비용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 (4) 예를 들어 예배, 성경 공부, 기도회, 각종 교회 기관 친교 등은 비록 물질적인 결실은 없을지라도 영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귀중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 (5) 위와 같은 행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으로서 이루어질 때 그것들은 결코 '허비'가 아니며 그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수 없다.

16. ㉠ 예수께서 자신을 가난한 자들과 비교하시면서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11절)

- ㉠ (1)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을 것이지만 성육(成

肉) 하신 예수 그리스도도는 계속해서 지상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리라는 의미이다.

- (2) 모세 율법에도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리라' 고 기록되어 있다(신 15:11).
- (3)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불원간(不遠間)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써 이 땅을 떠나셔야만 했다.
- (4) 따라서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께서 장차 육신이 아닌 성령으로서 믿는 사람들의 심령에 임하셔서 역사하실 사실이 암시되고 있다(요 14:16, 17; 갈 2:20).

17. **㉠** 예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마리아의 기름 부음이 당신의 장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12 절)

- ㉠** (1)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단순한 손님 대접을 의미하지 않고(㉠ 11)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예표적 행동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 (2)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자들은 예수께서 죽으신 후 그의 시체에 바르기 위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여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기도 했다(막 15:47; 16:1, 2; 눅 23:56; 24:1).
- (3) 그러나 본문의 마리아(막달라 마리아가 아님)는 주께서 죽으시기 6일 전에 이미 주의 죽으심을 예견하고 주의 몸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니 참으로 놀라운 직관적 통찰이 아닐 수 없다.
- (4) 심리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남자는 논리적 추리력이 강하고 여자는 직관적 통찰력이 강하다고 하는데 마리아의 경우 바로 그 통찰력이 발휘된 것 같다.
- (5) 결국 말없는 한 여인의 조그마한 봉사가 온 인류를 구속하려는 메시아의 고독한 걸음에 한 줄기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던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던 것이다.

18. **㉠**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마리아의 기름 부은 일이 알려지리라는 주의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13 절)

- ㉠** (1) 그 예언은 약 60년 후(A. D. 90) 요한이 복음서를 쓰게 될 당시에 벌써 분명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본다.
- (2) 당시 요한은 베다니를 '마리아와 마르다의촌'이라고 부름으로써(요 11:1) '요단 강 저편 베다니' (요 1:28)라는 명칭을 바꾸고 있다.
- (3) 뿐만 아니라 그는 마리아를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 (요 11:2)라고 설명하여 당시 독자들이 잘 알고 있던 사실을 환기시키고 있다.
- (4) 이러한 귀절들은 요한복음이 저술되던 A. D. 90년경에 이미 마리아의 예수께 기름 부은 사건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친숙한 이야기가 되어 있었음을 보여 준다.
- (5) 오늘날에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성경에 세 번이나 반복 기록되어(6-13절; 막 14:3-9; 요 12:2-8) 성경을 읽는 수십 억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19. **㉠** '그때에'란 언제를 가리키는가? (14 절)

- ㉠** (1)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간 때를 지시하는 이 단어는 대제사장들이 가야바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잡기 위해 모의하던 내용(1-5절)과 연결된다.
- (2) 그러나 14-16절의 기사가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다룬 6-13절 다음에 기록된 것은 가롯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 주려 한 동기를 보여 주기 위함이다.
- (3) 즉 유다는 마리아가 주께 향유를 부을 때에 손에 넣을 수도 있었던 300테나리온이란 거금을 놓쳤고(요 12:8) 주로부터 꾸중까지 들었기 때문에 주를 배반하기로 결심하였을 것이다(요 12:4).

20. **㉠** 대제사장들이 유다에게 넘겨 준 은 30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15, 16 절)

- (A) (1) 은 30이란 말은 은화 30세겔을 가리키는데 이는 일반 노동자의 120일 분의 품삯의 가치를 지닌다. 고대에 은화 1세겔은 보통 4일 분의 임금으로 지급되었다(출30:24).
- (2) 그런데 특별히 은 30세겔은 히브리 사회에서 종이 사고로 소에 받혀 죽었을 때 그 종의 죽음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불되던 금액이었다(출21:32).
- (3) 그러므로 은 30세겔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인 셈이다. 유다가 이 금액을 받고 예수를 넘겨 주기로 한 것은 예수께서 비천한 노예로 취급되신 것을 의미한다.
- (4) 이는 슄 11:13이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바와 같으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비천한 자의 신분을 짊어지셨던 대속의 진리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21. (C) 제자들이 유월절을 예비한 '무교절 첫날'이란 언제를 말하는가? (17절)

- (A) (1) 먼저 무교절(無酵節)이란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었던 유월절 기간에 대한 별칭으로 니산 월 15일부터 21일까지의 7일간을 말한다(레 23:6; 민 28:17).
- (2) 하지만 출 12:18에는 니산 월 14일에 모든 누룩을 집안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3) 이러한 규정에 따라 유대인들은 이미 니산 월 13일경부터 누룩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 (4) 또한 예루살렘 성은 각처에서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몰려든 백성들로 인해 니산 월 14일 며칠 전부터 혼잡거렸다.
- (5) 따라서 '무교절의 첫날'이라 하는 표현은 정식으로 명절이 시작되는 니산 월 14일의 하루나 이틀 전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다(참조, 막 14:12; 눅 22:7).
- (6) 이런 의미에서 본절에 '무교절의 첫날'이라 함도 예수께서 만찬을 드신 유월절 전날인 니산 월 13일, 즉 목요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 (C) 유월절을 진행하는 유대인의 관례를 설명해 보라 (17-19절).

- (A) (1) 니산 월 14일이 시작되는 오후까지 집안의 누룩을 모두 제거한 후 유월절의 어린 양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 (2) 어린 양은 성전 마당으로 끌려와 거기서 제사장들에 의해 희생 제물로 잡혀진다. 이때 제사장들은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 그릇에 담아서 그 피를 제단 아래에 쏟는다. 그리고 그들은 번제단에서 어린 양의 기름을 태우게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할렐(Hallel) 찬양시인 시 113-118편이 불려지는 것이다.
- (3) 해가 지게 되면 유대인 시간 개념으로 니산 월 14일이 시작되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가족별로 집에 모여 유월절 어린 양을 먹게 된다. 여기서 어린 양의 고기는 구운 고기로서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無酵餅)과 함께 먹는다.
- (4) 이러한 유월절 식사는 가장(家長)이 감사(유월절 키두쉬, kiddush)를 드리고 네 번에 걸쳐 마시게 되는 포도주 중 그 첫째 잔을 마실 때 기도를 함으로써 시작된다.
- (5) 이어서 채소와 쓴 나물 등을 먹은 후 유월절 학가다(Haggadah)와 할렐 찬양의 첫 부분(시113, 114편)을 부른다.
- (6) 그리고 포도주의 두번째 잔을 마심으로 본 만찬을 시작하며 그 뒤에는 세번째 잔이 이어지는데 이것을 '축복의 잔'이라고 부른다. 이 잔을 마실 때 또 한번의 감사 기도가 있게 된다. 이때에 가족들은 할렐 찬양의 나머지 부분(시 115-118편)을 부른다.
- (7) 그리고는 마지막 네번째 잔을 마시면서 유월절의 식사는 마쳐지게 된다.
- (8) 본문에 제자들이 '유월절을 예비하였다' (19절)고 한 것은 만찬을 위한 방울 마련한 것 외에 여러 가지 유월절 음식들을 준비했음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23. (C) 유다의 배반에 대한 예수의 예언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는가? (20-25절)

- (A) (1) 예수께서는 이미 대제사장들의 음모와(1-5절) 마리아의 향유 사건(6-13절) 이후 스승을 팔기로 마음을 굳히고 대제사장들과 내통하던(14-16절) 유다의 심증을 꿰뚫어 보시고

드디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그의 배반을 예고하였다.

- (2) 사실 이때까지 유다는 제자들 몰래 비밀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 만일 제자들이 알았다면 그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 (3) 그렇지만 유다는 예수에게마저 자기 정체를 은폐하고 비밀 행동을 취할 수는 없었다.
- (4) 우리는 어떤 불의한 일을 은밀히 추진할 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를 속이지는 못한다(참조, 살전 2:4).

24. **㉠**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23절)

- ㉠** (1) 여기서 '그릇'이라 함은 대추야자나 무화과, 건포도 등 과일을 으개어서 물과 식초와 배합하여 만든 국물(soup)을 담은 그릇을 말한다(Hendrickson).
- (2) 이 국물 그릇은 보통 2, 3인에 하나씩 사용하도록 식탁에 배치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 (3) 한편 식사 습관에 있어서 스푼이나 포크 등 식사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았던 예수 당시의 유대인들은 빵을 손으로 떼어 위에 언급된 국물에 찍어 먹었다.
- (4) 따라서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을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5. **㉠** 예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하신 말씀의 요점은 무엇인가? (23절)

- ㉠** (1) 이 말씀의 요점은 예수의 배신자가 다름아닌 그의 친구, 즉 그릇을 함께 사용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키려는 데에 있다.
- (2) 참으로 3년 동안이나 예수를 따라다니며 12사도 중 한 사람으로 자처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원수들에게 팔았던 사실은 듣는 사람들에게마다 묘한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
- (3) 하지만 이러한 역설적인 사건이 결코 우연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 즉 이 사건은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고 한 시41:9의 정확한 성취였던 것이다.
- (4) 오늘날의 가룟 유다는 누구인가? 비록 예수와 함께 식사할 정도로 신비적 생활을 하는 자일지라도 진실된 마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예수를 파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참조, 7:22, 23).

26. **㉠**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라고 했는데 어떤 구약 성경 귀절을 말함인가? (24절)

- ㉠** (1) 이에 해당하는 정확한 구약 성경 귀절은 확인되지 않았다.
- (2) 하지만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을 예언한 사 53:7-9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한 단9:26 등 구약의 광범위한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수난 사역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 (3) 예수께서는 바로 그러한 말씀들과 유월절 어린 양이 의미하는 예언적 유형론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27. **㉠** 가룟 유다에게 임할 화(禍)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는가? (24절)

- ㉠** (1) 예수께서는 '인자를 파는 그 사람' 유다에게 '화가 있으리다'고 선언하시면서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자만 못하다고 말씀하셨다.
- (2) 이러한 예수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할 것을 의미한다.
- (3) 그는 비록 성민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 메시아의 사도가 되는 영광을 누렸으나 구원받지 못할 자이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자'보다 못하다는 선고를 받았던 것이다.
- (4) 읍과 예레미야 같은 이도 자신을 낙태된 자보다 못한 것 같다고 말하였는데(읍 3:11;

렘 20:17) 이는 가룟 유다의 경우와는 달리 구원의 문제보다도 그들이 세상에서 받고 있었던 극심한 고난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참조, 전 4:1-3).

(5)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자로서 차라리 읍이나 예레미야처럼 고난받고 구원의 길을 택할 지언정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배반하고 멸망의 길을 택하지는 말아야 하겠다.

28. **㉠** '랍비여 내니이까' 라고 한 유다의 질문 속에는 유다의 어떤 면모가 드러나고 있는가? (25절)

- ㉠** (1) 유다의 질문 속에는 그의 뻔뻔스러운 위선과 불신앙이 내포되어 있다.
- (2) 즉 이미 예수를 팔기로 공회원들과 내통하고 있던 그가(14-17절)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양심으로도 행할 수 없는 지독한 위선이었던 것이다.
- (3)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를 '주'가 아닌 '랍비' (스승이라는 뜻)로만 불렀다는 사실은(49절) 그가 예수를 도덕적인 스승으로는 받아들였을지언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는(16:16)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 준다(비교, 21절).
- (4) 이러한 위선과 불신앙은 어쩌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물질적 이익과 현세적 명예를 추구하는 현대 사이비(似而非) 교역자의 내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참조, 7:22, 23).
- (5) 만일 그러한 자가 있다면 그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향한 심령의 대전환(大轉換)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7:24).

29. **㉠**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하신 예수의 대답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25절)

- ㉠** (1) 예수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당시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어법으로 사용되던 표현이었다(64절).
- (2)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다른 제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단지 유다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매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던 것 같다.
- (3) 따라서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그때까지 가룟 유다가 배반자인 줄 알지 못하였다. 만일 그들이 알았다면 유다는 그가 하려는 일에 제지를 받았을 것이다.
- (4) 결국 예수께서 나직한 음성으로 유다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은 계속 유다를 제자로 용납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던 메시아의 놀라우신 인내와 사랑을 느끼게 한다.

30. **㉠** 26-29절에 기록된 성찬 예식의 유래와 그 의미를 말하라.

- ㉠** (1) 이 부분에 기록된 사상 최초의 성찬식에서 예수께서는 '떡'을 받아 떡이라고 하시며 '이것이 내 몸이니라' (26절)고 하였고 또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라' (28절)고 하셨다.
- (2) 이처럼 성찬식의 떡을 예수의 몸으로, 포도주를 예수의 피로 동일시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화체설(化體說, Transubstantiation), 공제설(共在說, Consubstantiation), 기념설(記念說, Commemoration) 등 3대 학설로 나누어진다.
- (3) 먼저 화체설은 로마 카톨릭의 견해로서 26절의 '이것이 내 몸이니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사제(司祭)가 이것이 내 몸이라는 식사(式辭)를 말하는 순간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한다.
- (4) 루터(M. Luther)에 의해 주창(主唱)된 공제설은 화체설의 모순점을 개선시켜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으나 거기에 그리스도의 전인격이 함께 임제한다고 보는 견해인데 이 역시 화체설의 미신적 요소를 배제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 (5) 마지막으로 칼빈(J. Calvin)이 말한 기념설은 눅 22:19, 고전 11:24 등의 평행 구절에 있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구속의 은총을 기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것이 성경의 문맥에 부합되는 가장 타당한 견해로 생각된다.

31. ㉠ 성찬 예식에 임하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는 무엇인가? (26-29절)

- ㉠ (1) 성찬 예식은 앞의 ㉠28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기념하는 것이니 만큼 이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는 마땅히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면서 살 찢기고 피 흘리는 고통 속에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가슴 저미는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
- (2) 이처럼 성찬식의 기본 정신이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사랑에 있다면 성도는 비단 성찬 예식을 드리는 시간 뿐 아니라 평소의 생활 중에서도 늘 성찬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성찬의 정신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와 동행하는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철저한 예수 중심의 사고 방식을 말한다(참조, 요 6:53-58; 롬 14:6-9; 갈 2:20).

32. ㉠ '언약의 피'에 관련된 언약 사상을 간략히 설명하라 (28절).

- ㉠ (1) 언약 사상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맥(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 절정을 맞이한다.
- (2) 즉 언약은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진행시키시는 데 있어 취하신 일관성 있는 방편으로서 아담(창 2:7; 3:15), 노아(창 6:18), 아브라함(창 15:18), 모세(출 24:8), 다윗(삼하 7:12-16; 시 89:3)을 거쳐 오면서 점점 명확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렘 31:31; 눅 22:20)에 이르러 완전히 성취되어졌던 것이다.
- (3) 본래 언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브리트>는 '자르다'라는 뜻의 <바라트>와 '먹다'라는 뜻의 <카라트>의 합성어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언약 체결 시 짐승을 둘로 찢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언약의 쌍방이 죽은 짐승의 생명으로 언약 준 수를 맹세하였기 때문이다(창 15:10; 26:30).
- (4) 신약에서 언약이란 말은 <디아테케>로 <티데미>('두다'란 뜻)에서 유래한 <테케>와 둘을 뜻하는 <디아>의 합성어인데 이는 둘 사이에 이루어진 협약 또는 약정을 가리킨다.
- (5)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구속의 약정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 주권적으로 체결되어진 피의 결속(bond-in-blood)'이라고 할 수 있다(O. P. Robertson).
- (6) 이 언약은 구약 시대에 계속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혹은 각종 짐승의 피에 의해 예표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寶血)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켜졌으며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분명한 근거가 되었다.

33. ㉠ '새 것'이란 말은 천국에 대해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는가? (29절)

- ㉠ (1) 이 말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 즉 포도주와 같은 물질이 천국에서는 질적으로 새로워질 것을 가리킨다.
- (2) 여기에 사용된 '새롭다'란 뜻의 헬라어 <카이노스>는 이전에 전혀 알려진 적이 없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매우 독특한 용어이다(벧후 3:13; 계 21:1).
- (3) '새롭다'란 뜻을 지닌 또 다른 헬라어 <네오스>는 시간적인 순서에 있어서 후에 존재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는 '새로운', '신선한', '젊은' 등으로 번역되어진다(9:17; 눅 15:12).
- (4) 따라서 <카이노스>란 말은 천국도 물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세계임을 지시하면서 동시에 그 물질이 이 세상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 (5) 본절에 '내 아버지의 나라',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등도 천국에서도 지상에서와 같이 먹고 마시는 일이 있음을 알려 준다. 하지만 그 먹고 마시는 일도 이 세상에서와는 '새로운'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34. **㉠**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나아가기 전에 부른 찬미는 어떤 것인가? (30절)

- ㉠** (1) 여기서 찬미란 할렐 시의 후반부(시 115-118편)를 가리킨다.
- (2)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유월절 식사의 마지막 순서인 네번째 잔을 마시기 직전에(참조, **㉠**20) 교송(交頌) 형식을 따라 불렀다. 즉 인도자가 시편을 암송하면 다른 사람들은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식으로 찬송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 (3) 제자들은 찬미를 하고 즉시 감람산으로 간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감람산으로 가기 전에 요 14-17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와 기도가 있었던 것 같다.

35. **㉠** 예수께서 제자들의 배반을 구약 성경의 어떤 귀절에 근거하여 말씀하셨는가? (31절)

- ㉠** (1) 예수께서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제자들의 배반을 예언하시면서 그 근거로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는 귀절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속 13:7의 인용이다.
- (2) 이 속 13장의 전후 문맥을 보면 속 11장의 거짓 목자와 대조되는 참 목자가 해를 입으므로 대부분의 양 떼가 사라져 버리나(속 13:8, 9) 양 떼의 3분의 1은 남아서 연단을 받은 후에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 (3) 과연 이런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를 팔고(47절), 버리고(56절), 부인했다(69-75절), 하지만 선택된 자들은 연단을 통과한 후 분명히 일어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했다(행 2:14-36; 3:20; 4:10; 5:42; 17:3; 18:5, 28).
- (4) 결국 본절에 기록된 주의 예언은 당신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과 그 인간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한 말씀으로 생각된다.

36. **㉠** 예수의 부활 예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32절)

- ㉠** (1)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배반이라는 부정적 예언 뿐 아니라 자신의 부활과 갈릴리 재회(再會)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 (2) 하지만 제자들은 부정적인 예언에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반론(反論)을 퍼기에 급급했지(33-35절) 겸손하게 주의 예언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연약성을 시인하고 긍정적인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 (3) 오늘날도 주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인간의 전적 부패(total depravity)라는 부정적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구원에 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려주신다.
- (4) 이때 우리는 부정적 메시지로 인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그 메시지 자체를 반박함으로써 도피하려 하지 말고 겸손히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긍정적 메시지에 소망을 두고 용기와 힘을 얻는 생활을 해야 하겠다.

37. **㉠**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결의는 어느 정도로 단호했는가? (33-35절)

- ㉠** (1) 베드로는 비교 개념과('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33절) 시간 개념과('언제든지', 33절) 절대 개념을('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35절) 총동원하여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선언하였다.
- (2) 이러한 베드로의 충성된 결의는 마음 중심에서 우리나라 진실된 것이었다.
- (3) 하지만 그는 그러한 신앙적 절개가 인간의 의지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4) 결국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데 실패한 베드로는(40, 41절) 주의 예언대로(34절) 주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69-75절).
- (5) 그 후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변화된 모습으로 순교적 신앙을 실천한 베드로의 생애는(요 21:15-19; 행후 1:13, 14) 베드로의 결의를 새로운 의미에서 성취시키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한다.

38. **㉠** '닭 울기 전'이란 언제를 말하는가? (34절)

- Ⓐ (1) 팔레스틴 지방에서 닭은 밤 12시 30분, 1시 30분, 2시 30분에 우는 것이 보통이었다.
- (2) 따라서 '닭 울기 전'이란 12시 30분 이전을 가리키는 것 같다. 로마인들은 새벽 12시부터 3시까지를 '닭 우는 시간'으로 부르기도 했다.

39. ⓐ '갯세마네'란 어떤 곳인가? (36절)

- Ⓐ (1) '갯세마네'는 '기름짜는 틀'이라는 뜻으로 아마 이 부근에 많이 재배되고 있었던 감람나무의 기름을 짜는 착유기(榨油機)가 설치된 데서 유래한 이름인 것 같다.
- (2) 지금도 이곳에는 여덟 그루의 늙은 감람나무가 서식하고 있어서 '갯세마네'라는 이름에 실감을 느끼게 한다.
- (3) 이곳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 서쪽 경사면에 있으며 예루살렘 동쪽 성문으로부터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자주 기도하러 가셨던 장소이다(요 18:1, 2).
- (4) 이처럼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위치에 기도의 장소를 마련해 두는 것은 주께서 보여 주신 하나의 모범이다. 당신은 이와 같은 기도의 장소를 갖고 있는가?

40. ⓐ 예수께서 당신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는 기도하라는 부탁 대신 단순히 앉아 있으라고 부탁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36절)

- Ⓐ (1) 그 이유는 예수께서 갯세마네 동산에서 하실 기도가 메시아 사역의 한 과정으로서 제자들의 기도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2) 주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육체적 고통을 당하시기 이전에 이미 갯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정신적, 영적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구속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이다.
- (3) 죄인에 불과한 제자들은 이러한 구속 사역으로서의 기도를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다만 자신들을 위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을 뿐이었다(41절).

41. ⓐ 예수께서 특별히 세 제자(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어떤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가? (37, 38절)

- Ⓐ (1) 예수께서는 당신의 고뇌를 매우 절박한 표현을 사용하여('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말씀하신 후 세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부탁을 하셨다.
- (2) 여기에 나타난 주의 고뇌는 기정 사실로 목전에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겪으셔야 했던 영적, 정신적 고통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 (3) 이러한 상황에서 주께서 세 제자에게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신 것은 주의 구속 사역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일깨워 주시고 그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시기 위함이었다.

(4) 우리도 주의 이 말씀에 무감각하지 말고 주께서 겪으신 쓰라린 고뇌와 아픔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는 생활을 하기에 힘써야 하겠다(골 4:2; 벰전 5:8).

42. ⓐ 예수께서는 갯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하셨는가? (39절)

- Ⓐ (1) 주께서는 세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금 나아가사', 즉 '돌 던질 만큼'(about a stone's throw) 떨어져서서 기도하셨다(눅 22:41). 이는 완전히 홀로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서 기도하셨다는 뜻이다.
- (2) 거기서 그는 무릎을 꿇으신 후(눅 22:41)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시겠다는 마음을 표현한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 (3) 한편 히 5:7에는 예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는데 이 기사는 예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며 뜨거운 호소였는가를 보여 준다.

(4) 주께서 맡겨 주신 십자가를 감당해야 할 성도들에게는(막 8:34)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와 같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의 경험이 있어야 할 것이다.

43. ㉠ '이 잔(盞)'의 의미를 말하라 (39절).

- ㉠ (1) '잔'(벨, 포테리온)이란 말은 유대인들에게 기쁨이나 슬픔, 혹은 축복이나 환난 등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시 11:6;23:5;사 51:17;렘 25:15).
- (2) 따라서 본문의 '이 잔'이라 함은 예수께서 감당하셔야 할 슬픔과 환난인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참조, 20:22).

44. ㉠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원리를 말하라 (39절).

- ㉠ (1) 이 기도에는 그리스도의 두 가지 의지, 즉 인간적인 의지와 신적인 의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 (2) 주께서는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지니고 계셨기에(히 2:14;4:15) 모욕과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의지를 숨김없이 드러내셨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의지는 곧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기를 원하는 신적인 의지에 의해 극복되었다.
- (3)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셨고(히 2:10)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다(히 5:8)고 설파하였다.
- (4)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란 인간의 뜻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되 그것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를 경우 기꺼이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것임을 발견한다.
- (5) 이처럼 올바른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온전케 됨과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45. ㉠ 첫번째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40, 41절)

- ㉠ (1) 예수께서는 이미 잠이 들어 버린 베드로를 향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애처롭게 말씀하신 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다.
- (2) 여기서 '한 시 동안'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꼭 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첫번째 기도를 하셨던 짧은 시간을 가리키는 막연한 표현이다.
- (3) 주께서는 곧 찾아올 사탄의 시험을 경고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는 부탁을 반복하셨지만(38절에 이어) 결국 짧은 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연약함을 직관하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탄식을 하셨다.
- (4) 이것은 우리 인생 모두가 현재에도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기도 하다.
- (5) 이 연약함을 깨닫는 자마다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끈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 7:24)고 호소할 수밖에 없다.
- (6)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대 무능력의 상태에 있는 인생을 들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다. 이때 성도는 비로소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다(롬 7:25).

46. ㉠ 주께서 하신 두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42절)

- ㉠ (1) 주의 두번째 기도는 첫번째 기도보다 조금 진전된 내용을 보여 준다.
- (2) 즉 주께서는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승복(承服)의 기도를 하셨던 것이다.

47. ㉠ 제자들의 눈이 피곤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43절)

- ㉠ (1) 의사 누가는 제자들이 '슬픔을 인하여' 잠들었다고 함으로써 제자들의 눈이 피곤했던 이유를 추측하게 한다(눅 22:45).

- (2) 아마 제자들은 수난에 대한 주의 예언을 듣고(31-35절) 상심하였으며 또한 슬퍼한 나머지 눈물을 흘렸던 것 같다.
- (3) 따라서 제자들의 눈이 피곤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걱정과 슬픔 가운데 눈물을 많이 흘린 사실을 암시한다.
- (4) 하지만 제자들은 슬퍼 잠들기는 했어도 깨어 기도하지는 못했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믿음의 역설(paradox)이다.

48. ㉠ ‘이제는 자고 쉬라’는 말씀의 진의(眞意)는 무엇인가? (45절)

- ㉠ (1) 일부 학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여 주께서 체포당하시기 전까지 잠을 자도록 다가온 시련에 대비하여 고단한 몸의 피로를 풀라는 권면으로 해석한다(A. L. Williams).
- (2) 하지만 이때까지 제자들이 잠자고 있었고(40, 43절) 곧 이어 ‘일어나라, 함께 가자’ (46절)라는 말씀이 주어진 것을 볼 때 그러한 해석은 합당하지 않다.
- (3) 이 말씀은 슬픔을 느끼게 하는 일종의 반어적 표현이며 비난 조의 허락이라고 할 수 있다(Plummer).
- (4)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아직도 잠만 자면서 쉬고 있느냐’ 정도가 될 것이다(Goodspeed).
- (5) 주께서는 ‘깨어 기도하라’는 부탁을 반복하시다가 지쳐서 당신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49. ㉠ 유다를 ‘열 둘 중에 하나’라고 부르게 된 연유를 설명하라(47절).

- ㉠ (1) ‘열 둘 중에 하나’란 공관 복음서를 쓸 당시 일반화된 유다의 별칭으로서(막 14:43; 눅 22:47) 12제자 중 하나가 될 정도로 그리스도와 가까운 관계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를 배반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 (2) 참으로 ‘열 둘’이라는 수자는 지극히 명예로운 대명사였지만 그중의 ‘하나’는 지극히 치욕스런 대명사였다.
- (3) 이처럼 ‘사도’라 하는 직분도 구원의 보장이 될 수 없을진대 오늘날 교회의 직분으로 자만해 있는 교계 지도자들은 이 ‘열 둘 중에 하나’가 될 요소는 없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 (4) 그리스도인은 결코 교회 내의 직분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정받는다(참조, 롬 10:9, 10).

50. ㉠ 가룟 유다는 스승 예수를 팔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48절)

- ㉠ (1) 그는 갓새마네로 오기 전에 이미 군호(signal)로서 ‘입맞춤’을 정하고(막 14:44) 그것을 시행하여 예수를 원수들에게 넘겨 주었다(49절).
- (2) 당시 유대인들에게 입맞춤이란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인사법이였다(눅 7:38; 15:20; 행 20:37).
- (3) 그런데 이 사랑의 인사법이 유다에게는 배반과 살인의 가장한 술책으로 사용되었다(참조, 잠 27:6).
- (4) 여기에 평화와 정의의 구호를 내세우면서도 파멸과 불의와 약탈을 획책하는 음흉한 사단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악인의 속성(俗性)이 있다(교후 11:13-15).

51. ㉠ 유다의 배반을 당하실 때 예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49절)

- ㉠ (1) 유다의 위선된 인사를 받으신 예수께서는 담담한 태도로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네 불 일을 보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다.
- (2) ‘친구’의 헬라이어(헤타이로스)는 동의어(필로스)가 개인적 친분을 뜻하는 것과는 달리(요 15:13; 행 20:31) 주로 직업적인 동료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나 역시 애정

을 표현하는 말입에는 틀림없다(참조, 20:13; 22:12).

- (3)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책망보다는 친절과 사랑으로 배반자를 잃지 않으시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셨던 것이다.
- (4) 만일 우리가 주와 같은 입장에 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가장 가까운 자(제자, 친구, 가족 등이 될 수 있다)에 의해 배반당하는 충격적인 일을 만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과 은유함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52. **㉠**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는 말씀이 주는 교훈을 말하라 (52절).

- ㉠** (1) 베드로가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찢을 때(요 18:10)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동서 고금의 역사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명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 (2) 먼저 이 말씀은 인간의 생명이 참으로 신성하며 그것을 해하는 자에게 징벌이 주어질 것을 선언한 초기의 율법(창 9:5, 6)을 새롭게 정립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 (3) 아울러 이 명언은 폭력과 보복을 행해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스스로 형벌을 초래한다는 일반적인 진리를 다시 강조한 말씀이기도 하다(잠 35:6; 계 13:10).
- (4) 무력과 폭력으로 무리한 피를 흘리게 한 자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하다. 또한 침략 전쟁을 도발한 나라는 언젠가 침략을 받고 망하게 될 것이다.

53. **㉠** 원수들에게 체포당하시던 예수께서는 어떠한 능력을 지니고 계셨는가? (53절)

- ㉠** (1) 그는 베드로의 검보다도(51절) 원수들의 검과 몽치(clubs)보다도(47절) 더 강한 능력을 갖고 계셨다.
- (2) 즉 그는 12명(營) 이상 되는 천사의 군대를 소집할 능력을 갖고 계셨던 것이다.
- (3) '영'으로 번역된 (레기온)은 라틴어로서 로마의 군단(軍團)을 가리키는 명칭이었는데 아우구스투스 당시 1개 정규 군단은 보병 6,100명, 말 726필의 규모였다.
- (4) 우리는 성경에서 엘리사를 호위하던 수많은 천사의 불발과 불병거(왕하 6:17), 하늘의 왕 앞에 시위한 천천(千千), 만만(万万)의 천사들(단 7:10)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하늘나라 군대의 통수권(統帥權)이 그리스도에게 있다(요 18:36).
- (5)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광야 시험 후 천사의 수종을 받으셨으며(마 4:11) 겐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천사의 보조(補助)를 받으셨다(눅 22:43).
- (6) 만일 그리스도의 하늘 군대와 땅의 군대가 싸운다면 그것은 마치 태양과 지구가 충돌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 (7)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54절) 형편 없는 약자들에게 더 약한 자의 모습을 자처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빌 2:6-8).

54. **㉠**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56절)

- ㉠** (1) 그 이유는 아마도 검의 사용을 금하시고 그렇다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은 채 약한 자들에게 체포당하시는 주의 모습을 보고 경악(驚愕)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 (2)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자들의 도망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였으며(31절; 요 16:32) 더 나아가 구약 말씀의 성취였다고 할 수 있다(시 88:8, 18).
- (3) 여하튼 이러한 행동은 불과 몇 시간 전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장담했던 사실을 생각할 때(35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변절이었다.
- (4) 이것은 잠시 전에 한 자신의 말조차도 책임을 못 지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인생들의 실상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성령의 능력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셨다(행 3장).

55. **㉠** 57절부터 27:26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받으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 재판 기록들을 정리해 보라.

- ㉠ (1) 57절부터 27:26까지는 예수께서 두 번의 재판, 즉 종교 재판과 사회 재판을 받으신 사실이 차례로 기록되고 있다.
- (2) 먼저 종교 재판은 세 차례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그 순서는 ① 안나스의 예비 심문(요 18:12-14, 19-23) ②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가 주재한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심문(57-68절) ③ 새벽에 이루어진 최종 판결(27:1) 등으로 이어진다.
- (3) 다음 사회 재판 역시 다음 3 단계로 이루어졌다. ① 유대 총독 빌라도의 1차 심문(27:11-14) ②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조회 심문(눅 23:8-12) ③ 빌라도의 2차 심문 및 판결(27:15-26)
- (4) 여기에서 (2) ①의 안나스의 예비 심문과 (3) ②의 헤롯의 심문 등은 본서에 기록되지 않았고 각각 요한복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 (5) 한편 57절-27:26 사이에는 예수의 재판 기사가 아닌 두 개의 삽화(挿話), 즉 베드로의 부인(否認) 기사(69-75절), 유다의 자살 기사(27:2-10)가 포함되어 있다.

56. ㉠ 가야바의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가? (57절)

- ㉠ (1) '서기관과 장로들'인데 이들은 산헤드린의 지도급에 속한 공회원들로서 비공식적인 모임을 갖기 위해 긴급 소집되었던것 같다.
- (2) 당시 산헤드린의 규정에 의하면 밤중에 공식적인 회의를 거행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57. ㉠ 베드로는 예수를 어떻게 쫓아갔는가? (58절)

- ㉠ (1) 그는 '덜찍이' 쫓아갔다. 이것은 자신이 해(害)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주께 대한 사랑이 섞여서 나타난 행동이었다.
- (2) 베드로는 주를 사랑하면서도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주를 따르지 못했고 결국 극한 상황에서 주를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69-75절).
- (3) 하지만 주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예수께서 심문받으시는 곳에 먼저 가 있었다(요 18:16). 그 요한이 후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말씀을 남겼는데(요일 4:18) 이는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 무언가를 지적해 주는 듯하다.

58. ㉠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거짓 증거를 찾은 사실은 그들의 재판이 어떠했음을 보여 주는가? (59절)

- ㉠ (1) 거짓 증거는 우선 10계명 중 제 9 계명에 금지되어 있고(출 20:16) 위증자는 그가 기소한 자에게 행하려고 피하던 그 형벌을 받아야 했다(신 19:19).
- (2) 이러한 율법을 모를 리 없었던 그들이 거짓 증거를 찾으려 했던 사실은 이미 불의를 저지르기로 작정하고 재판에 임하였음을 보여 준다.
- (3) 그 결과 공의를 세우기 위한 재판이 도리어 불의를 행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 (4) 이러한 일은 오늘날의 재판장에서도 비일 비재(非一非再)하게 목격된다. 세상의 모든 불의한 재판관들은 예수를 재판한 자들과 함께 온 우주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계 20:12-14).

59. ㉠ 예수를 판결하는 자리에 참석했던 두 사람의 증언은 어떠했는가? (60, 61절)

- ㉠ (1)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증인의 수자는 최소한 두 명이었다(신 19:15).
- (2) 공회는 간신히 두 사람의 증인을 확보해 예수의 죄에 대해 증인하게 했으나 그들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막 14:59).
- (3) 결국 그들은 담합(談合) 끝에 오래전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요 2:19) 유일한 증거로 내세웠다.
- (4) 이것이 과연 죄가 될 수 있는가? 한번 판사(判事)들에게 물어 보라. 과연 사형에 해

당함 만한 죄인가를,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무죄하셨다는 사실을 이 대목에서 확실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60. ㉠ 심문을 받으실 때 예수께서 침묵하셨던 사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62, 63절)

- ㉠ (1) 예수께서는 거짓 증거에 대해 발언하도록 요구하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심문에 침묵하셨다. 이후에도 그리스도는 불필요한 심문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하셨다(27:12, 14).
- (2) 이러한 예수의 침묵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사 53:7)라고 한 메시아 예언의 성취였다.
- (3)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진리를 위해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진리는 거짓 증거에 대하여 굳이 자신을 변명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침묵할 뿐이다. 이 침묵은 천만 마디의 변명보다 힘이 있어 거짓 증거로 하여금 스스로의 정체를 드러내고 소멸되게 한다.

61. ㉠ 예수께서 침묵하시자 가야바는 최후로 어떤 질문을 제기했는가? (63절)

- ㉠ (1) 예수의 침묵으로 재판이 실패로 기울게 되자 가야바는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모든 2차적인 문제들을 철회하고 오랫동안 유대인의 마음속에 간직되었던 핵심적인 질문을 제기하였다.
- (2) 그것은 예수께서 과연 메시아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이 질문은 전에도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어 왔었다(12:38-42; 16:1-4; 21:1-11, 14-16, 23).
- (3) 더우기 가야바는 예수로 하여금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고' 대답하기를 요구함으로써 모든 논증의 결말을 유도했다.
- (4)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께서는 드디어 자기의 신분을 선포하시게 되었다(64절). 결국 그는 재판마저도 자기의 메시아되심을 증거하는 가장 효율적인 기회로 활용하셨던 것이다.

62. ㉠ 예수께서 자신을 증거하신 말씀이 지니는 의미를 설명하라(64절).

- ㉠ (1) 먼저 '내가 말하였느니라'는 말씀은 가야바의 말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히 밝혀 주는 위대한 자기 계시(自己啓示)이다.
- (2) 그리고 예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앞으로 성취될 자신의 부활, 승천, 재림의 사실까지 덧붙여 예언하심으로써 자기 계시를 더욱 명확히 하셨다.
- (3) 즉 그가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는 것은 부활과 승천을 가리키며 '하늘 구름을 타고 오리라'는 것은 재림 사건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 (4) 특별히 이 말씀들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들(시 110:1; 단 7:13, 14)의 성취이기도 한 점을 생각할 때 주의 증거가 얼마나 강력하고 분명한 것인가를 느끼게 된다.
- (5) 주께서는 바로 이 증거가 죽음을 자초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65, 66절) 당당하게 말씀하셨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증거해야 한다(10:32).

63. ㉠ 예수에 대한 재판의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는가? (65, 66절)

- ㉠ (1)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예수의 자기 증거를 참람(僭濫)한 불경죄로 규정하고 예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 (2) 본문에 대제사장이 옷을 찢은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의무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분노의 표현이었다(왕하 18:37; 19:1).
- (3) 공회의 사형 판결은 아마도 레 24:16을 근거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냉철한 사실 심리 끝에 나온 결론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59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판결로는 볼 수 없다.
- (4) 더우기 사형이라는 극형(極刑)을 선고함에 있어서 단 한 사람의 변호인의 말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재판의 부당성(不當性)을 입증해 준다.

(5) 이 비공식 모임에서 내려진 사형 판결은 새벽의 공식 모임에서 확인되었다(27:1).

64. **㉠** 예수께서 받으신 수욕은 어떠했는가? (67, 68절)

㉠ (1) 예수께서는 ① 침 뱀음과 ② 주먹과 손바닥에 의한 구타와 ③ 회롱을 당하였다.

(2) 하지만 이 치욕스런 사건은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사 50:6)이 성취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더욱 확고히 입증해 주는 하나의 증거였다.

(3) 당신은 과연 당신의 신앙과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려 했기 때문에 구타를 당해 본 일이 있는가?

(4)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수치가기 이전에 당신의 천국 시민임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고히 입증해 주는 고귀한 증거이다(5:10-12; 행 5:41; 14:22). 만일 그런 일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신앙과 복음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65. **㉠** 69-75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예수 부인 기사를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과 비교해 보라.

㉠ (1) 아래 도표를 참조하라.

| | 마 태 | 마 가 | 누 가 | 요 한 |
|--------|---------------------------------------|-------------------------------------|-------------------------------------|---|
| 해당귀절 | 27:69-75 | 14:66-72 | 눅 22:55-62 | 요 18:16-18, 25-27 |
| 처음 질문자 | 한 비자,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 대제사장의 비자,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 한 비자,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 문 지키는 여종,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
| 베드로 |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 이 여자여 내가 지관 알지 못하노라 | 나는 아니라 |
| 둘째 질문자 | 다른 비자,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 비자, 이 사람은 그 당이라 | 다른 사람, 너도 그 당이라 | 사람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
| 베드로 | 맹세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 (또 부인...) | 이 사람이 나는 아니로라 | 나는 아니라 |
| 세째 질문자 | 곁에 섰던 사람,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목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 | 또 한 사람,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일가,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 하였느냐 |
| 베드로 | 저주, 맹세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 저주,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 이 사람이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 (또 부인...) |

(2) 이상의 비교에서 나타난 기록의 중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질 수 있다.

- (3) 첫째 질문자에 대한 차이점은 불 주위에 둘러선 상황에서 두세 사람이 한꺼번에 말한 것을 복음서 기자가 나름대로 택일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발생되었을 것이다.
- (4) 그리고 각 대화의 내용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복음서 기자들이 자신에게 공감이가는 부분이나 잘 아는 사실을 강조하는 가운데 생겨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66. ㉠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부인은 어떻게 심화(深化)되어 갔는가? (70, 72, 74절)

- ㉠ (1) 베드로는 처음에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70절). 그는 비자가 ‘말하는 것’ 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간접적이고 도피적인 형태로 말했지만 예수를 공개적으로 부인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 (2) 두번째 추궁을 당하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했다(72절). 여기서 그는 ‘그 사람’ 을 모른다고 말함으로써 예수를 직접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예수를 ‘그 사람’ 이라는 경멸하는 표현으로 불렀다. 이것이 베드로의 제 2 단계 타락이었다.
- (3) 마지막으로 세번째 공격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다. 처음에 그는 단순히 부인했고 다음에는 맹세를 덧붙여 부인했으며 마지막에는 그 맹세에다 저주까지 첨가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다.
- (4) 이처럼 베드로의 부인이 단계적으로 심화되어 간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여 주를 부인할 때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 (5) 직장에서 강요하는 주일 근무에 타협하여 예배에 빠지면 다음엔 주일 야유회의 유혹에 타협하게 되고 그 다음엔 술좌석에마저 동참하여 음란과 방탕의 자리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67. ㉠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73절)

- ㉠ (1) 이것은 베드로의 말소리가 갈릴리 지방 특유의 억양으로 발음되었기 때문에 그가 갈릴리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인 사실이 판명된다는 뜻이다.
- (2) 북부 갈릴리 지방의 말과 발음은 잘 다듬어진 남쪽 유대 지방의 말과 현저하게 달라서 금방 구별될 수 있었다. 즉 갈릴리 사람들은 히브리 알파벳 중 <알렙>, <헤트>, <아인> 같은 후두 문자를 정확히 발음하지 못했으며 <신>을 <타우>로 <베트>를 <페>로 발음했다고 한다.
- (3) 따라서 베드로는 두번째 부인하는 말을 할 때 <신> 문자가 있는 ‘그 사람’ 이라는 히브리어를 <이쉬>라고 발음치 못하고 <이투>라고 발음하여 스스로가 갈릴리 사람임을 드러냈던 것 같다.
- (4) 이와 비슷한 경우로 사사 시대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십볼렛>을 <셉볼렛>이라고 발음하여 자기의 출신지를 나타냄으로써 죽임을 당했던 예가 있다(삿 12:6).

68. ㉠ 베드로가 ‘저주’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74절)

- ㉠ (1) 그것은 베드로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자신에게 저주가 내려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 (2) 따라서 베드로의 말은 다음과 같았을 것이다. ‘내가 만일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 저것 하시기를 원하노라’.
- (3) 이처럼 한 순간의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마저 들먹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이다. 이것은 자신과 사람들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저 속이는 파렴치한 태도이다. 그리스도인의 입은 어떤 경우에 이른다 하더라도 진리만을 외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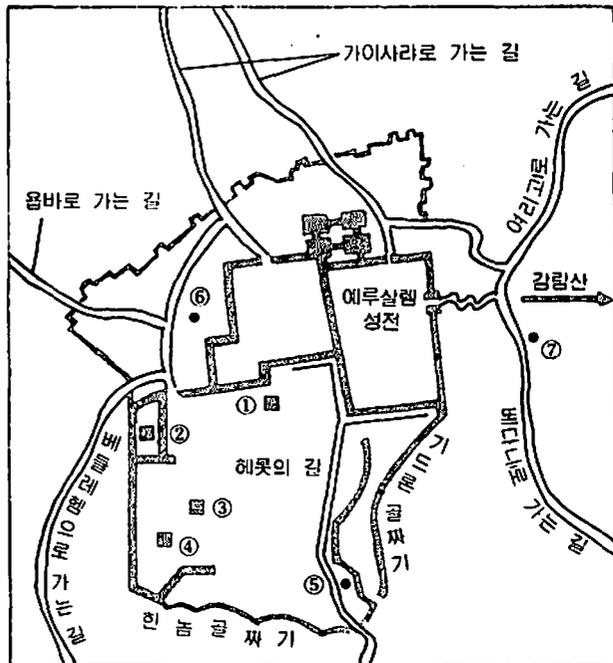
69. ㉠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는가? (75절)

- ㉠ (1) 닭이 울던 그때에 주께서는 방에서 뜰 쪽으로 시선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는데(눅

- 22:61) 주의 얼굴을 본 베드로는 몇 시간 전 주께서 하신 말씀을 회상해 냈다.
- (2) 그것은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34 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은 베드로의 잠든 영혼을 깊이 찢어 그로 하여금 밖으로 뛰쳐 나가 통곡하게 했다.
- (3) 이때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였다'는 것은 예수를 부인한 사실에 대한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인하여 울며 회개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묘사하는 말이다.
- (4) 베드로는 아마 자신이 발설한 두 가지의 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35 절),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72, 74 절) -을 떠올리며 자신의 거짓된 심령과(렘 17:9) 주께 대한 송구스런 마음을 인하여 회개의 몸부림을 치며 울었을 것이다.
- (5) 이후부터 베드로는 닭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베드로 회개가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말해 준다.
- (6) 본장에 나타나는 두 명의 주도적인 인물은 유다와 베드로인데 이 중 유다는 완전히 파멸한 인간이었고 베드로는 거의 버림 받은 자에 가까웠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사단에 의해 밀 까부르듯 체질을 당했던 것이다(눅 22:31).
- (7) 특별히 베드로는 몇 시간 만에 자신의 말을 번복할 정도로 패역하고 거짓되고 악한 자였으나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위대하여 그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그로 하여금 은총의 삶을 새로이 시작하도록 했다.
- (8) 그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처럼 허물 많은 우리를 향해서도 그 놀라운 사랑을 쏟아 붓고 계시며 은총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다.

지도자료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



- ① 하스몬 궁전 ② 헤롯 궁전 ③ 기아바의 집(참조, 3, 57절) ④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곳(17-29절) ⑤ 실로암 못 ⑥ 골고다(27:33) ⑦ 젯세마네 동산(36-46절)

제 27 장 십자가에서 죽으시다

단락부분 1-2 산헤드린 공회의 사형 결정 / 3-10 유다의 자살 / 11-14 총독 빌라도의 심문 / 15-26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 27-31 희롱과 수욕을 당하시다 / 32-44 끌고다로 끌려가시다 / 45-56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 57-61 무덤에 장사되시다 / 62-66 예수의 무덤에 배치된 파수꾼

1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2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라

3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누우쳐 그는 삼십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5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6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 값이라 성전 고에 넣어 들이 옮지 않다 하고

7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발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8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발을 피 밭이라 일컫느니라

9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삼십을 가지고

10 토기장이의 발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11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12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3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14 한 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15 명철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권리가 있더니

16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17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8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아리라

19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옴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20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면하자 하게 하였더니

21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 소이다

22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박혀야 하겠나이다

23 빌라도가 가로되 어쩡이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4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흘릴지어다 하거늘

26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히게 넘겨 주니라

27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들 그에게로 모이고

28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29 가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한지어다 하며

30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뺨에 얹어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 희롱을 다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32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33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34 썩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35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36 거기 앉아 지키더라
 37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38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0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42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옵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43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44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45 제 구 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 시까지 계속하더니
 46 제 구 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47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48 그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홍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49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4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55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좇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56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57 저를 애타게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58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 주라 분부하거늘
 59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60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61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애타더라
 62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63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65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군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66 저희가 파수군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1. ㉠ 주의 십자가 죽음에 지나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 ㉠ (1) 본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사건을 기록한 슬픔과 아픔의 장(章)으로서 성경의 대주제인 '구속사(敎贖史)의 절정을 묘사하고 있다.
- (2) 즉 죽음의 운명에 처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자신의 경륜을 구약의 여러 인물들(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을 통해서 서서히 이루어 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록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려는 것이다.
- (3) 그런데 그 구원 사역의 완성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나 정치적인 개혁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독한 유대인 사형수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구속사의 심각한 역설(paradox)이 있다.
- (4) 참으로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진리이다(고전 1:18). 이 주님

의 십자가와 부환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지고 들어가서 이기고 나온다'는 심오한 기독교적 인생론을 배울 수 있다.

2. **㉠ '새벽'이란 언제를 가리키는 말인가? (1절)**

- ㉠** (1) 이 말은 26장의 사건들이 발생된 때로부터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즉 공회가 공식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날이 밝았을 때를 가리킨다(눅 22:66).
- (2) 이때에 개최된 공회의 모임은 26:57-68에 언급된 비공식 모임과는 다른 것으로, 비공식 모임에서 결의된 사형 판결을 형식적으로 추인하기 위한 공식 모임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 공회가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준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그 이유는 당시 유다가 로마의 속국으로서 자체 내의 사형 판결권이 없었고 로마의 관리인 총독 빌라도가 그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 (2) 빌라도는 A. D. 26년에 황제 디베로 가이사(Tiberius Caesar)에 의해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A. D. 36년까지 재직하였다.
- (3) 당시 빌라도와 같은 식민지 총독들은 제국의 지방 총독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즉 그들은 가이사에게 특별한 허락을 받지 않고도 식민지인의 생사 여탈(生死與奪)을 주장할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 (4) 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이 소유한 사법적 전권을 매우 악하게 사용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등 폭정을 행하였다(눅 13:1).
- (5) 결국 그는 폭정의 책임을 지고 총독 부임 10년 만에 파면되었으며 그 여파로 자살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전해진다.

4. **㉠ 유다의 뉘우침은 성도의 회개와 어떻게 다른가? (3절)**

- ㉠** (1) 유다는 예수께서 공회에 의해 정죄되시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
- (2) 여기서 '스스로 뉘우쳤다'에 해당하는 원어 <메타텔레테이스>는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의 감정만을 의미하는 말로(3절; 21:30, 32; 고후 7:8; 히 7:21) 진정한 영혼의 회개를 의미하는 헬라이어 <메타노에오>와 구별된다(3:2).
- (3) 이러한 뉘우침은 단순히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자책(自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를 빌려고 하지도 않는다.
- (4) 결국 유다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26:75) 예수를 판 자들 앞으로 나아갔고 거기에다가 자살의 죄를 더함으로써(5절) 자신의 뉘우침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입증했던 것이다.
- (5) 이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도 하나님의 뜻을 찾은 회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한낱 무익한 근심에 불과할 뿐이다(고후 7:9).
- (6) 만일 우리 주위에 잘못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의 잘못 자체를 비판하지 말고(7:1, 2; 약 5:11, 12),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하여 회개의 뉘우침을 할 수 있도록 충고해 주어야 할 것이다(히 12:12, 13).

5. **㉠ 자살의 윤리성에 관하여 말하라(5절).**

- ㉠** (1) '자살이란 유다의 경우처럼 모두 죄악시되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은 역사적으로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사회 문제이다.
- (2) 이러한 자살의 윤리성에 대하여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1897년 그의 저서 '자살론'(自殺論)에서 자살의 세 가지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학문적인 연구를 시도한 바 있다.
- (3) 그가 분류한 자살의 세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①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죽는 이기적(利己的) 자살.
- ② 사회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이타적(利他的) 자살. 이는 자결(自決)이라고 불리어질 수 있다.

③ 사회의 돌연한 변화에 충격을 받아 죽는 무통제적(無統制的) 자살.

- (4) 여기에서 두번째의 경우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죽음은 사회적 차원에서는 고귀한 죽음으로 숭앙되기도 한다.
- (5) 하지만 모든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믿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창9:5,6; 시36:9) 이러한 이타적 자결조차도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추월(追越)한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 (6)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육체적인 생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생명의 청지기인 것이다(참조, 삼상21:12,13; 왕상19:4; 뎀후4:6; 뎀후1:14).

6. **㉠**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던져 넣은 은(銀)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6,7절)

- ㉠** (1) 그들은 그 돈을 '피 값'이라고 부르면서 성소에서 꺼내 토기장이의 발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 즉 타지방에 사는 유대인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을 경우 그들을 묻어 줄 묘지를 샀다.
- (2) 즉 그들은 유다를 매수하여 엄청난 불의를 저질렀으면서도 마치 그 불의가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양(4b절) 유다가 반환한 돈으로 공공 사업을 했던 것이다.
- (3) 이것은 이미 예수께서 신랄하게 책망하신 바가 있는 당시 지배층의 위선적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 예라고 할 수 있다(참조, 12:9-14; 15:1-9; 23:23).

7. **㉠** '피발'이란 무슨 뜻인가? (8절)

- ㉠** (1) '피발'이란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피를 판 값, 즉 '피 값' (6절)으로 구입한 발이라는 뜻이다.
- (2) 시리아어로 (아겔다마)라고도 불리우는 이 발의 이름은(행1:19) 유다와 당시 대제사장들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 (3) 이 점에 대해서 초대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피발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을 지은 자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되었고 그들의 반역에 대한 증거가 되었다. 이 발의 이름은 나팔 소리보다 더욱 분명하게 그들의 피 흘린 죄를 고발하고 있다'.
- (4)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마지막 심판 날에는 진리를 대적한 자들은 그들 스스로의 말에 의하여 직접 심판하게 될 것이다(삼하1:16; 욥9:20; 15:6; 눅19:22).

8. **㉠** 가롯 유다의 피발 사건은 구약의 어떤 말씀에 대한 성취인가? (9,10절)

- ㉠** (1) 본서의 저자 마태는 이 사건을 구약 예레미야서의 성취로 보고 '선지자 예레미야로 한 말씀이 이루어졌나니'라고 기술하고 있다(9a절).
- (2) 하지만 마태복음 본문의 구약 인용귀(9b,10절)는 예레미야서의 여러 귀절들과 관련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속11:13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마태가 '스가라'를 '예레미야'로 오기(誤記)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제기시킨다.
- (3) 이러한 난제에 있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학설들을 내세워 해명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타당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 (4) 즉 사도 마태가 렘18:2; 19:1,2; 32:8-14 등의 귀절들의 내용을 종합하고 속11:13과 결합시켜 하나의 문장을 만든 후 그 귀절을 대표적인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름으로 인용하였다는 학설이다. 이러한 예는 신약 여러 곳에서도 발견된다(2:23; 막1:2,3).
- (5) 이처럼 유다의 피발 사건마저도 구약 예언의 정확한 성취였다는 사실은 예수의 구속

사역이 지니는 엄정함과 성경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느끼게 한다.

9. **㉠ 빌라도의 처음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11절)**

- ㉠** (1) 빌라도는 예수를 향하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처음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분명한 답변을 하였다.
- (2) 이것이 예수께서 빌라도의 심문을 받으시면서 말씀하신 유일한 답변으로서 이후 다른 심문에 대하여는 일체 침묵을 지키셨다(12, 14절).
- (3) 다시 말해 예수께서는 가야바의 법정에서와 같이(26:62-64) 재판받는 자리에서조차 자신을 변명하려는 진술보다 자신의 메시아되심을 증거하여 진리를 말씀하셨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담대하신 그리스도의 영은 복음을 위하여 재판정에 서게 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막 13:9-11).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 받게 될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이 크면 할수록 그만큼 주께서는 고난받는 성도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다(참조, 고후 1:4, 5; 딤후 4:16-18).

10. **㉠ 명절을 맞이하여 죄수 하나를 석방하던 전례에 관하여 설명하라(15절).**

- ㉠** (1)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제국의 총독은 아직 정죄되지 않은 피고인을 사면해 주거나 이미 정죄된 피고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 (2)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전례는 그러한 로마 총독의 사면권보다도 유월절과 관련된 유대 지방 특유의 풍속으로부터 비롯된 것 같다.
- (3) 즉 유대인의 풍속에 관한 고대 문서인 '엠 페사힘' (M. Pesahim)에는 '그들은 그들이 감옥에서 석방해 주고자 하는 자를 대신하여 유월절 양을 죽일 수 있었다' 라는 내용이 있어 유대 지방에서 매년 유월절에 대특사가 이루어졌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 (4) 예수께서는 오늘날 바라바와 같이 죄의 감옥에 수감되어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 대신 희생당하신 유월절 어린양이 되신다.

11. **㉠ '바라바' 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16절)**

- ㉠** (1) '바라바' 좀더 정확히 말해 '바르 아바' 는 '아버지의 아들' 이라는 뜻으로 랍비가(家)의 혈통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아 유명한 랍비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2) 또한 수리아 사본 등 몇몇 사본에 '예수 바라바' 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바라바의 본명이었을 것이나 메시아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기 위해 '예수'라는 말은 생략되었을 것이다.
- (3) 결국 바라바는 평범한 죄수가 아니라 헬라이어 <레스테스>가 의미하는 대로 반란 음모자 내지 열심당 중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참조, 막 15:7; 눅 23:19; 요 18:40).
- (4) 당시 유대 땅에는 게릴라에 의한 반역과 유혈 사태가 빈번하였는데(눅 13:1) 바라바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다가 체포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 (5) 끌고다에 세 개의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빌라도가 이미 세 사람의 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하여 준비토록 명령했다는 사실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다.
- (6)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는 실제로 바라바 때문에 대신 처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7) 예수께서는 바라바와 같이 현세적 인생관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추구하다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우리가 처형되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어 주신 것이다.

12. **㉠ '저희' 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17절)**

- ㉠** (1) '저희' 는 예수를 고소한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특사로 사면될 죄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빌라도가 의견을 물었던 무리들을 가리킨다(막 15:8).

(2) 확실치는 않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와 재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상태에 있던 군중들은 혁명 투사였던 '예수 바라바'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의 사면을 요구하였을 것이다(참조, ㉑11의(2)).

(3) 이때 빌라도는 이 외침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함성으로 잘못 알아듣고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군중들에게 질문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13. ㉑ 빌라도가 자기 아내를 통해 받은 권면은 어떠한 내용인가? (19절)

㉑ (1) 빌라도의 아내는 전설에 따르면 클라우디아(Claudia)라는 여자로서 기독교에 귀의하였다고 알려진다.

(2) 그녀는 빌라도에게 예수를 '옳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간밤의 꿈 이야기를 하여 빌라도로 하여금 무죄 판결을 내리도록 권면했다.

(3) 그 꿈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가 꿈속에서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은 의로우신 예수에 대하여 어떤 무서운 사실을 경험했음을 암시한다.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의 꿈을 통해서까지 빌라도로 하여금 바른 재판을 하도록 기회를 주셨으나 빌라도는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방관자의 입장에서 예수의 사형을 승인하고 말았다(24절).

(5)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 신경에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1차적 책임자로 규정되어진 배후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빌라도의 불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14. ㉑ '예수를 어떻게 하라'는 질문에 현대인들은 어떤 도전을 받게 되는가? (22절)

㉑ (1) 빌라도가 이러한 질문을 하고 유대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박혀야 하겠나이다'라고 외친 대목에서 현대인들은 이 사건을 2천년 전의 비극으로만 돌려 버리며 유대 군중들의 무지함만을 비난할런지 모른다.

(2)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질문은 현대의 모든 개인, 단체들에게 던져지고 있으며 행동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3) 길가의 거지를 볼 때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25:40) 하신 말씀이 우리의 귀를 때린다.

(4)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 줄 수도 벌할 수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예수를 영접할 수도 있고 모른 채하며 핍박할 수도 있는 것이다.

(5) '예수를 어떻게 하라?' 이 질문에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15. ㉑ 빌라도의 손 씻은 행위는 과연 그의 무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가?(24절)

㉑ (1) 우리는 빌라도가 유대인들과 예수 앞에서 손을 씻었다고 해서 그가 메시아를 죽인 죄악에서 벗어났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2) 왜냐하면 빌라도의 그와 같은 행위는 정의를 위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함과 군중들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3) 더우기 손 씻는 행동은 로마의 관습이 아니라 유대의 관습이었으므로(신 21:6; 시 26:6) 빌라도가 이 행동을 한 것은 유대인들을 경멸하며 조롱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빌라도가 아무리 그의 손을 씻었음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그의 마음을 씻지 않은 이상 그는 메시아를 죽였다는 정죄를 면할 수 없다. '새 예루살렘의 유리 바다를 꿈꾸는 지극히 평온한 영혼들만이 피 흘린 죄악의 두려움을 씻을 수 있다' (Plumptre).

16. ㉑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한 군중들의 외침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25절)

㉑ (1) 이 외침은 당시 유대 군중들이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인정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것

을 사랑까지 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 (2) 이러한 유대인의 사악하고 광란적인 저주는 일찌기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2천년이 지난 오늘날에까지 계속되고 있다.
- (3) 즉 그들은 메시아를 죽인 피 값으로 A. D. 70년 예루살렘의 끔찍한 최후를 겪어야 했으며 이후에 끝없는 유랑 생활, 그리고 20세기에는 유대인 600만이 학살당한 ‘홀로코스트’ (Holocaust) 라고 하는 미증유의 민족적 참극을 당해야만 했다.
- (4)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들의 입술로 말한 참소와 비방대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나를 에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시 140:9).

17. **㉠** 예수께서 당하신 채찍질은 어떤 종류의 매질이었는가? (26절)

- ㉠** (1) 유대 율법에 있어서 매질은 40대로 제한되어 있었으나(신 25:3; 고후 11:24) 로마인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힘만 있으면 제멋대로 때리고 싶을 때까지 때렸다.
- (2) 본질의 채찍질에 사용된 채찍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끈에 납덩이를 매달거나 날카로운 뼈나 못을 박아 만든 것으로 한번 칠 때마다 살갓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주었다.
- (3) 이 매질이 가해지는 동안에는 죄인의 몸에서 피가 분수같이 뿜어 나오고 뼈가 드러나 보일 뿐 아니라 내장까지 튀어나올 정도로 끔찍한 광경이 벌어졌다고 한다(Josephus).
- (4) 이러한 매질은 죄인을 십자가에 처형하기에 앞서 죄수의 힘을 빼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는데 어떤 때에는 매질만으로도 사람이 죽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 (5) 거룩하신 성자 예수께서 이처럼 비인간적인 가혹한 매질을 당하신 사실은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그러한 우리를 향해 주님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 준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렘 31:3). 여기에 그 주님의 무궁한 사랑의 현장이 있다.

18. **㉠** ‘관정’은 어느 곳을 말하며 ‘온 군대’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가? (27절)

- ㉠** (1) ‘관정’ (官庭)은 안토니아 성이라고 불리웠던 총독의 특별 숙소를 가리킨다. 당시 유대 총독은 가이사라에 상주하면서 집무하다가(행 23:35) 유월절 등 특별한 때에만 예루살렘으로 출장을 나와 이곳에 머물렀다.
- (2)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관정의 헬라이어(프라이도리온)과 같은 말인 라틴어(프래토리엄) (praetorium)은 ‘총독의 저택’이란 뜻을 갖게 되었다(참조, 막 15:16).
- (3) 또한 ‘온 군대’에 해당하는 헬라이어(스페이라)는 일반적으로 600명으로 구성된 보병 대대를 가리키는 말이나(행 10:1) 때로는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소대 병력을 가리키기도 한다. 여기서는 후자를 말하는 것 같다.
- (4) 로마 군병들은 메시아에 대한 모독적인 행동을 함께 하기 위해서 안토니아 성을 지키고 있던 60여 명의 동료들을 불러모았던 것이다.

19. **㉠** 로마 군병들이 예수께 행한 죄상은 어떤 것이었는가? (28-30절)

- ㉠** (1) 그들은 먼저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 이시라는 사실을 비웃기 위하여 그에게 ‘홍포’ (紅布)를 입히고 그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웠으며 오른손에는 갈대 지팡이를 들려주었다.
- (2) ‘홍포’는 장교들이 입는 간단한 모직 외투로서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으로 고정시켜 입었는데 예수께서 입으신 옷은 헤롯 왕의 옷장에서 버려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 이 홍포는 왕복에, 가시 면류관은 왕관에 각각 상응하여 갈대 지팡이는 왕의 훈(忽)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수께서 가지신 왕권(王權)을 풍자하면서 철저히 모독하는 의미를 지닌다.

- (4) 사실상 예수께 대해 이처럼 회롱을 행한 로마 군병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몰랐으며 그에 대한 증오도 없었다.
- (5) 그렇기에 사랑이신 예수께서는 이때에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 23:34) 라고 기도하시면서 묵묵히 그들의 회롱을 견디 내셨을 것이다.

20. ㉠ 십자가의 형벌의 유래와 그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라 (31절).

- ㉠ (1) 십자가의 형벌은 고대의 어떤 사형 제도보다도 잔인하고 무서운 극형(極刑)으로 간주되었다.
- (2) 이 형벌은 페르시아 제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땅을 신의 거룩한 영역으로 보았던 페르시아인들이 죄인으로 인하여 땅이 더럽혀질까봐 십자가 위에서 사형을 집행한 데에서 유래되었다.
- (3) 이것은 그 후 페르시아에서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왕국으로, 또 거기서 로마 제국으로 전래되었다.
- (4) 로마 제국에서는 십자가형의 적용을 반역자, 노망간 노예 등에게로 제한하였고 로마 시민은 결코 이 형벌을 받지 않게 되어 있었다.
- (5)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에 의하면 예루살렘 함락 당시 로마 군인들이 성밖으로 도망하는 유대인들을 붙잡아 십자가형에 처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 (6) 이 형(刑)의 집행 순서를 보면 먼저 사형수는 채찍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의 한쪽 기둥(가로 방향)을 메고 형장으로 향한다. 형장에 도착하게 되면 세로 방향의 기둥을 내려 놓고 살이 찢어지지 않도록 손목에 대못을 박고 발바닥도 못을 박아 고정시킨 다음 십자가를 세우게 된다.
- (7) 이렇게 매달려진 사형수는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계속 당하면서 결국 굶주리고 목말라 죽어 버린다.
- (8) 죽어 가는 가운데에도 이 사형수의 채찍맞은 상처에는 모기와 파리가 몰려들어 피를 빨아 먹는다. 이 얼마나 참혹하고 수치스런 죽음의 과정인가!
- (9)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이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다(롬5:8).

21. ㉠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32절)

- ㉠ (1) 그는 아마 리비아 서북편에 위치한 구레네의 큰 유대인 집단에 소속된 한 회원이었던 것 같다(행 11:20;13:1).
- (2) 또한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사도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로 미루어 볼 때(막 15:21; 롬 16:13) 시몬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다.

22. ㉠ ‘골고다’란 무슨 뜻인가? (33절)

- ㉠ (1) ‘골고다’란 말은 아랍어 <갈갈타>를 헬리어로 음역한 것으로 ‘해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 (2)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곳을 지칭하는 말로 흔히 사용되는 ‘갈보리’(Calvary)도 역시 ‘해골’을 의미하는 라틴어 <칼바>에서 파생된 말이다.
- (3) 이곳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바위로 이루어진 이 언덕의 모습이 멀리서 보기에 해골과 같이 보였기 때문이다.
- (4) 이 골고다 언덕의 위치는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고(요 19:20), 길가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39절), 북쪽 성밖의 지역 곧 지름의 성묘 교회(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근처일 것으로 추정된다.

23. ㉠ 예수께서 ‘살개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34절)

- Ⓐ (1) 마가복음에는 ‘몰약 탄 포도주’ 라고 되어 있는데(막 15:23) 이 몰약과 쓸개는 진정제와 마취제의 작용을 하는 약재(藥材)이다. 아마 이 두 가지가 모두 예수께서 마시기를 거절하신 음료 속에 들어 있었던 것 같다.
- (2)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들에게는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약재나 혹은 아편을 넣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한다.
- (3) 성경에는 누가 예수께 쓸개 탄 포도주를 드렸는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아마 예수께서 고통받으실 것을 걱정한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것을 드렸던 것 같다.
- (4) 하지만 예수께서는 마시기를 거절하셨는데 이는 인간의 고통을 끝까지 맛보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남김없이 마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요 18:11).
- (5) 이처럼 우리 인간의 고통을 철저히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는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며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신다(히 4:14-16).

24. ㉠ 로마 군병들이 예수의 옷을 제비뽑아 나눈 사실은 현대 사회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가? (35절)

- Ⓐ (1) 당시 일반 유대인의 의복은 샌들(sandal), 터번(turban), 허리띠, 속옷, 겹옷 등 다섯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앞의 네 가지는 값이 비슷하고 마지막 겹옷이 비싼 편이었다.
- (2) 그래서 예수의 사형 집행에 참여한 네 명의 군병은 앞의 네 가지를 하나씩 갖고 나머지 겹옷을 차지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던 것이다(요 19:23, 24).
- (3) 아마도 옷이 귀했던 고대 시대에는 사형수의 의복을 사형 집행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관례가 있었던 것 같다.
- (4) 그렇기에 예수의 옷을 제비뽑은 군병들은 무심한 가운데 습관을 따라 행하였을 것이다.
- (5)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극도의 영적 무지로 인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그 대가로 헛된 물질을 추구하기에 급급한 현대 사회의 일면을 볼 수 있다.

25. ㉠ 예수의 머리 위에 붙여진 죄패의 내용은 무엇인가? (37절)

- Ⓐ (1)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하는 글이었다. 이러한 글이 새겨진 죄패를 사형수의 머리 위에 걸어 놓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관례였다.
- (2) 그들은 반역죄로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의 머리에 죄패를 붙임으로써 ‘우리 로마인들은 어떤 유대인의 왕이든지 이처럼 처형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유대인들을 경고하려 했던 것이다.
- (3) 하지만 예수는 결코 반역자가 아니셨고 오히려 반역과 폭력을 반대하셨다(22:21; 26:52, 53; 요 18:36, 37).
- (4) 그러므로 이 죄패의 내용은 예수께서 반역자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증거가 되었다.

26. ㉠ 예수의 좌우편에 못박힌 두 강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38절)

- Ⓐ (1) 본문에 강도로 번역된 헬라이어 <레스타이>는 일반적인 강력범(強力犯)을 뜻하는 <클레이타이>와는 구별되는 말로 반란 읍모자 등 정치범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 (2) 따라서 이 강도들은 예수께서 대신 달려 주셨던 십자가에 마땅히 달려야 했던 바라바의 일당이었을 것이다.
- (3) 전승에 의하면 이들의 이름은 조아담(Zoatham)과 캄마(Camma)로 알려져 있다.
- (4) 예수께서 생시에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9:11) 죽어 가는 중에서도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하심으로써(사 53:12) 소외되고 고난받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셨다.
- (5) 누가복음에 증거된 대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한 강도는 바로 그러한 구원의 대표적인

수혜자이다(눅 23:39-43).

27. ㉠ 예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어떤 자들에게 모욕을 받으셨는가? (39-44 절)

- ㉠ (1) 예수께서는 이미 대제사장의 종들과(26:67,68) 로마 군병들에게(27-30절) 두 차례에 걸쳐 모욕을 받으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못박히신 후에는 둘러선 모든 군중들과 심지어 함께 못박힌 사형수에게까지 모욕을 받으셨다.
- (2) 이러한 모욕들은 시 22편, 사 53장 등의 예언에 대한 성취로서 예수에게 있어서 이것들은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과 슬픔으로 억눌려 왔다.
- (3) 하지만 주께서는 이 빗발치는 모욕과 조롱의 화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묵묵히 참아 견디심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5:10)의 본이 되어 주셨다.

28. ㉠ 예수께 대한 지나가는 행인들의 비난은 어떤 것이었는가? (39,40절)

- ㉠ (1) 골고다는 큰 길과 예루살렘 성문에 인접한 장소였기 때문에(요 19:20) 그 근처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내막을 알지 못하는 많은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 (2) 그 행인들은 소문을 통해서 들은 얕은 지식에 의존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26:61; 요 2:19)라는 말로 예수를 놀려대면서 마치 사기꾼을 조롱하듯이 머리를 흔들며(시 22:7; 109:25) 그를 모욕했다.
- (3) 더우기 그들이 예수를 향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한 말은 3년 전 예수를 시험하던 마귀의 방법, 마귀의 일과 동일한 것이었다(4:6).
- (4) 마귀는 오늘날도 무지하고 사악한 자들의 입을 통하여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고전 1:18)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29. ㉠ 대제사장들은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에게 자기들이 믿는 조건으로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41, 42절)

- ㉠ (1)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즉시 내려올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예수를 믿겠노라고 말했다.
- (2)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즉시 그 고통스럽고 치욕스런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내려오셔서 모든 대적들을 격파할 능력을 갖고 계셨다(참조, 26:53).
- (3) 하지만 그는 대제사장들이 말한 대로 '남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실 수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셨다(빌 2:9).
- (4)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하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를 더욱 철저히 믿을 수 있는 것이다.

30. ㉠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니...이제 구원하실지라'는 말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43절)

- ㉠ (1)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자신들의 불법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2)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단순히 예수를 조롱하는 의미에서 한 이 말이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대적들이 한 말과 일치되고 있기 때문이다(시 22:8).
- (3)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성경의 놀라운 영감성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성경은 악인들의 정제와 그 불의한 생각까지도 정확히 통찰하여 규명하고 있는 것이다.

31. ㉠ '제 육 시...제 구 시' 등은 언제를 가리키는가? (45절)

- ㉠ (1) 본문에 '제 6 시' 또는 '제 9 시'라 함은 유대인의 시간을 나타낸 말인데 오늘날의 시간과 6시간 차이가 난다. 따라서 6시는 정오(낮 12시), 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킨다.
- (2) 예수께서는 제 3 시(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박히시고(막 15:25) 제 9 시(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막 15:34).

(3) 결국 주님은 6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고통과 멸시를 당하신 셈이다. 고통을 생각하면 6 시간도 길지만 개중에는 여러 날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죽는 사형수도 있다.

32. ㉠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란 무슨 뜻인가? (46절)

- ㉠ (1) 이 말은 시 22:1에 기록된 말씀에 해당하는 아람어로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2) 예수께서는 시편의 이 말이 십자가에서 겪으실 자신의 영적 번뇌를 미리 표현해 놓은 것으로 보시고 이를 적절하게 인용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영혼의 호소를 대신하였다.
 (3) 십자가의 극한 고통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것을 인간적으로 깨닫고는 몹시 놀라셨다.
 (4) 우리 인간은 미처 겪어 보지 못한 무서운 위기에 부딪힐 때 하나님에게 버림 받은 것 같다는 극도의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
 (5) 주께서는 바로 그러한 인간의 고독감과 절망감을 느끼시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영적 죽음을 경험하고 계셨던 것이다.

33. ㉠ 사람들이 예수의 외침을 엘리야를 부르는 소리로 들은 이유는 무엇인가? (47절)

- ㉠ (1) 그 이유는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곤경에 처한 의인을 엘리야가 구원해 준다고 하는 관념이 작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2) 더우기 극심한 고통을 받는 중에 외친 소리인지라 사람들은 ‘엘리’라는 말을 얼핏 ‘엘리야’라는 소리로 듣게 되었을 수도 있다.

34. ㉠ 한 사람이 해융과 갈대를 사용하여 예수로 하여금 마시게 한 음료는 무엇인가? (48절)

- ㉠ (1) 개역 성경에는 ‘신 포도주’라 했으나 원문의 헬라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식초’이다.
 (2) 이것은 물과 신 포도주와 계란으로 만들어졌으며 주로 로마 군병이 마시던 음료로서 ‘포스카’(posca)라고 불리어졌다.
 (3) 이것을 예수께 주어 마시게 했던 것은 한편으로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도 생각되나 구약 시 69:21 말씀의 성취라는 측면에서는 예수께 대한 일종의 학대 행위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5. ㉠ 예수께서는 어떻게 운명하셨는가? (50절)

- ㉠ (1) 예수께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는데 그 외치신 내용은 가상 7 언(架上七言)의 마지막 말씀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눅 23:46; 시 31:5)라는 기도였을 것이다.
 (2) 이처럼 예수께서는 혼미한 정신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 가신 것이 아니라 큰소리를 지르시고 순간적으로 운명하셨다.
 (3) 이 장면을 마가는 ‘운명하시다’(막 15:37)로, 마태는 ‘영혼이 떠나시다’(50절)로, 요한은 ‘영혼이 돌아가시다’(요 19:30)로 각각 묘사하였다.
 (4) 이처럼 예수께서 갑자기 운명하신 것은 그가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신 결과로 심장이 파열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Straud).

36. ㉠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발생되었는가? (51-54절)

- ㉠ (1) 세 가지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은 ①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② 지진이 일어나며 ③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초자연적인 역사(役事)였다.
 (2)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구속적 경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3) 그래서 이 사건들을 목도한 백부장과 파수군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54절).

37. ㉠ 성소 휘장이 둘로 갈라진 사건이 지니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51절)

- ㉠ (1)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안쪽 휘장과 성소로부터 안들을 구분하는 바깥쪽 휘장 등 두 가지가 있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휘장은 특별히 안쪽 휘장을 가리키는 것 같다(히 4:16;6:19,20;9:11-28;10:19-22).
- (2) 왜냐하면 바깥쪽 휘장이 찢어진 것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었으나 안쪽 휘장이 찢어져 나간 것은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 (3) 아뭏든 성소의 휘장들은 24 가닥의 실로 엮은 끈 82개로 정교히 짜여져서 그 두께가 손바닥 두께 만큼 되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순식간에 찢어진다는 것은 이적 중에 이적이 아닐 수 없었다.
- (4) 이러한 이적의 사건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약을 완성시킴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 더 나아가서 백성들과 제사장의 신분을 철폐하고 만민 제사장 시대를 개막시켰음을 의미하고 있다(벧전 2:9).
- (5) 이제 자기 몸으로 성전을 삼으신 그리스도(요 2:19) 안에 거하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직접 하나님을 뵈올 수 있는 제사장적 특권을 누리게 되어 있다(갈 3:28).

38. ㉠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지진에 대한 성경외적 증거를 말하라 (51b절).

- ㉠ (1) 먼저 오늘날 끌고다 언덕에는 한 바위의 갈라진 틈으로 열린 황동색 빛깔을 띤 노천굴(露天窟)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터진 바위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 (2) 한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약 40년 전에 큰 지진이 발생했음을 말하였고 역사가 플레곤(Phlegon),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J. Africanus), 유세비우스(Eusebius) 등도 이 사실을 정설로 받아들였다.
- (3) 특별히 초대 교회 예루살렘 감독이었던 성 시릴(St. Cyril)은 끌고다 언덕의 갈라진 바위들을 발견하고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었음을 강력히 증명하는 글을 그의 저서 '교리 문답'(Cateches, 13권 33㉠)에 쓰기도 했다.

39. ㉠ 마지막 세 번째 성도들이 부활하였다는 사건은 어떤 의미로 이해될 수 있나? (52, 53절)

- ㉠ (1) 이 성도들의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순한 자연인의 죽음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한 대속적 죽음임을 보여 주고 있다.
- (2) 따라서 죽은 성도들이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났다는 것은 나사로의 부활과 같이(요 11:41-44) 예수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시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3) 이처럼 자신의 죽음을 통해 남을 살린 예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 엘리사의 묘실에서 발생한 기적적 사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왕하 13:20, 21).
- (4)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살신 성인(殺身成仁)의 도(道)와 십자가 죽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참조, 요 12:24).

40. ㉠ 많은 여인들이 주님의 임종을 지켜 보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55, 56절)

- ㉠ (1) 주님의 임종을 지켜 본 여인들은 이전부터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던 바로 그 여인들로서(눅 8:2,3) 갈릴리로부터 끌고다 언덕까지 예수를 따라온 믿음과 열심의 사람들이었다.
- (2) 이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던 수많은 제자들은 이미 주님을 버린 채 달아났고(26:31) 12 제자 중에 어떤 이는 주님을 부인하고(26:69-75) 어떤 이는 예수를 팔아 버리는 상황에 있었다.
- (3)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연약한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를 버리지 않았으며 그 참혹한 심

자가의 현장에 머무르면서 주님의 비애(悲哀)에 동참하였다.

- (4) 오늘날도 주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자들 중에 주님의 부활과 영광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는 많아도 이 싸늘하고 고독한 십자가의 현장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비록 주님의 사도란 명칭은 없었지만 최후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간 이 여인들이야말로 참된 주님의 제자라 아니할 수 없다.

41. ㉠ 4복음서에 기록된 여인들의 이름을 비교해 보라 (56절).

- ㉠ (1) 여인들에 관하여 누가복음에는 단지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라고 언급되어 있고 나머지 세 복음서에는 그들의 이름이 밝혀져 있다.
 (2) 그 이름들은 표기상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차이들을 종합해 보면 여인들의 신앙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 여인들의 이름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 복 음 서 | 여인들의 이름 |
|---------|--|
| 마 태 |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
| 막 15:40 |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
| 요 19:25 |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

- (3) 먼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는 동일 인물로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를 가리킨다. 또한 여기서 '작은 야고보'는 예수의 12사도 중 하나인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이다(10:3). 글로바는 알패오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다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살로메', '예수의 이모'와 동일시된다. 따라서 12사도에 속했던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의 이종 사촌 형제가 되는 셈이다.

42. ㉠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란 어떤 사람이었는가? (57절)

- ㉠ (1) '저물었을 때', 즉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늦은 저녁(오후 6시경)에 산헤드린 공회의 요직을 맡고 있었던 요셉이란 사람이 나타나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요청했다.
 (2) 이 사람의 고향은 아리마대였는데 그곳은 예브라임 골짜기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 라마다임소빔과 동일한 곳이다(삼상 1:1).
 (3) 이처럼 선지자의 고향에 태어난 요셉은 재물도 많았고 신분도 존귀했지만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였으며(막 15:43) 더우기 예수의 사형 결의에 동의치 않은(눅 23:50, 51) 예수의 참제자였다.
 (4) '신약 성경에는 두 명의 의로운 요셉이 나타나는데 한 요셉은 탄생하신 예수의 육체를 보호하는 자로 선택되었고 또 한 요셉은 죽으신 예수의 육체를 보호하는 자로 선택되었다' (Wordsworth).
 (5) 이 시대에도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작은 요셉이 선택되고 있다. 그 현대판 요셉은 누구인가?

43. ㉠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요셉의 행동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58절)

- ㉠ (1) 율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형수의 시체는 밤이 되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 당일엔 장사를 지내야만 했다(신 21:22, 23).
 (2) 하지만 로마인의 관습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모습을 모든 시민들이 보고 경계-

받도록 부패할 때까지 그대로 달아 놓는 것이었다.

- (3) 따라서 요셉의 요청이 없었다면 예수의 시체는 십자가 상에서 부패해 버리거나 설사 내려진다 해도 아무렇게나 이름도 없는 무덤에 던져져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 (4) 이러한 상황에서 숨어 있던 예수의 제자 요셉이 나타나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은 예수를 위해 위험하고 굵은 일을 자원하여 행한 참으로 용감한 행동이었다(막 15:43).
- (5) 요셉과 같은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충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이다.

44. ㉠ 예수께서 장사되신 무덤의 형태를 설명하라 (60절).

- ㉠ (1) 예수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평민의 무덤과 부자의 무덤 등 두 종류가 있었다.
- (2) 평민의 무덤은 얇게 판 바위 구덩이로서 그 입구가 썩기 형식의 둥근 돌로 봉해져 있는 형태였다.
- (3) 이에 비해 부자의 무덤은 낮은 통로를 통해서 내려가게 되는 석실(石室)로 되어 있었고 그 입구는 바위를 깎아 홈을 파고 바퀴 모양의 돌문을 돌려 닫도록 되어 있었다.
- (4) 이 홈은 무덤을 쉽게 봉하기 위해 경사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무덤 문은 열기가 매우 힘들었고 5,6명의 장정(壯丁)이 매어 달려야 겨우 열 수가 있었다.
- (5)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무덤에 장사지낸 바 되셨는데 예수의 무덤이 있었던 장소에는 오늘날 성묘 교회가 세워져 있다.

45. ㉠ 예수의 무덤을 최후까지 지켜본 여인들은 누구인가? (61절)

- ㉠ (1)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다. 여기서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를 가리킨다(56절;28:1).
- (2)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이 여인들은 사흘 후 부활하신 예수를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을 차지했다(28:1).
- (3) 초대 교부 크리소스뎀(Chrysostom)은 이 여인들의 용기와 사랑에 놀라면서 '세상의 모든 남성들이여, 이 여인들을 본받으라'고 했다.

46. ㉠ '에비일 다음날'이란 표현의 의미를 말하라 (62절).

- ㉠ (1) '에비일 다음날' (헬, 메타 텐 파라스큐엔)이란 안식일을 가리키는데 이 날을 그냥 안식일이라 하지 않고 '에비일 다음날'이라고 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 (2) 마태가 본서를 기록할 당시 에비일을 의미하는 헬라어 <파라스큐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날을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고 있었다.
- (3)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날보다 덜 중요한 안식일을 표기함에 있어서 본서의 저자 마태는 '파라스큐에의 다음날'이라고 했던 것이다.

47. ㉠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 말할 때 무엇을 기억한다고 했는가? (63절)

- ㉠ (1)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의 부활을 예언하신 말씀, 즉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하신 말씀을 기억한다고 했다.
- (2)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여러 번 들려주셨던 예언으로서(16:21;17:23;20:19)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해 이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졌을 것이다.
- (3)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성전에 관한 예언, 즉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하신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본절과 같은 말을 하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 (4)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를 고소할 때 제시한 증거라는 것도(40절;26:61) 사실상 그 뜻을 알면서 균중을 선동하기 위해 꾸며 낸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 (5) '미움은 사랑보다 더 날카로운 통찰력이 있다'는 말이 있다.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은 매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예수를 대적한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부활의 능

력이라는 사실 앞에서 패배하고 말 것이다.

48. ㉠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64절)

- ㉠ (1) 그들은 총독의 직권으로 명령하여 예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주도록 요청했다.
- (2) 이 '사흘까지'란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예수께서는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일 그가 사흘이 지나도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쩔 수 없이 사기군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3)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 예수의 부활을 저지함으로써 예수가 사기군임을 증명하려 하였다.
- (4)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오히려 예수의 부활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말았다.
- (5) 이처럼 거짓의 도전이 거세면 거셀수록 진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변증되어진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는 법이다.'

49. ㉠ 유대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도록 요청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64절)

- ㉠ (1)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한 후 백성들에게 거짓 부활을 퍼뜨릴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을 하였다.
- (2)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전혀 불가능한 가정에 불과하였다.
- (3) 왜냐하면 살아 계실 때에도 스승을 저버린 예수의 제자들은 스승이 죽어 버린 상황을 맞이해서는 더욱 낙심하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 있었고 낙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눅 24:13, 14).
- (4)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은 어쩌면 예수의 부활을 예상한 나머지 그의 부활을 거짓된 것으로 모함하기 위하여 고도의 술책을 미리 강구했던 것인지도 모른다(참조, 28:12-15).
- (5) 아뭏든 본질에 기록된 것과 꼭같은 주장은 이후에 유대인 사회에 널리 퍼졌고(28:15) 지금까지도 '도적설'이라는 부활에 관한 이설(異說)로 남아 있다.
- (6) 이러한 사실들은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서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는 사단의 정체와 그 속성 및 술수를 느끼게 하는 좋은 예이다.

50. ㉠ 유대인들의 요청을 받고 빌라도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6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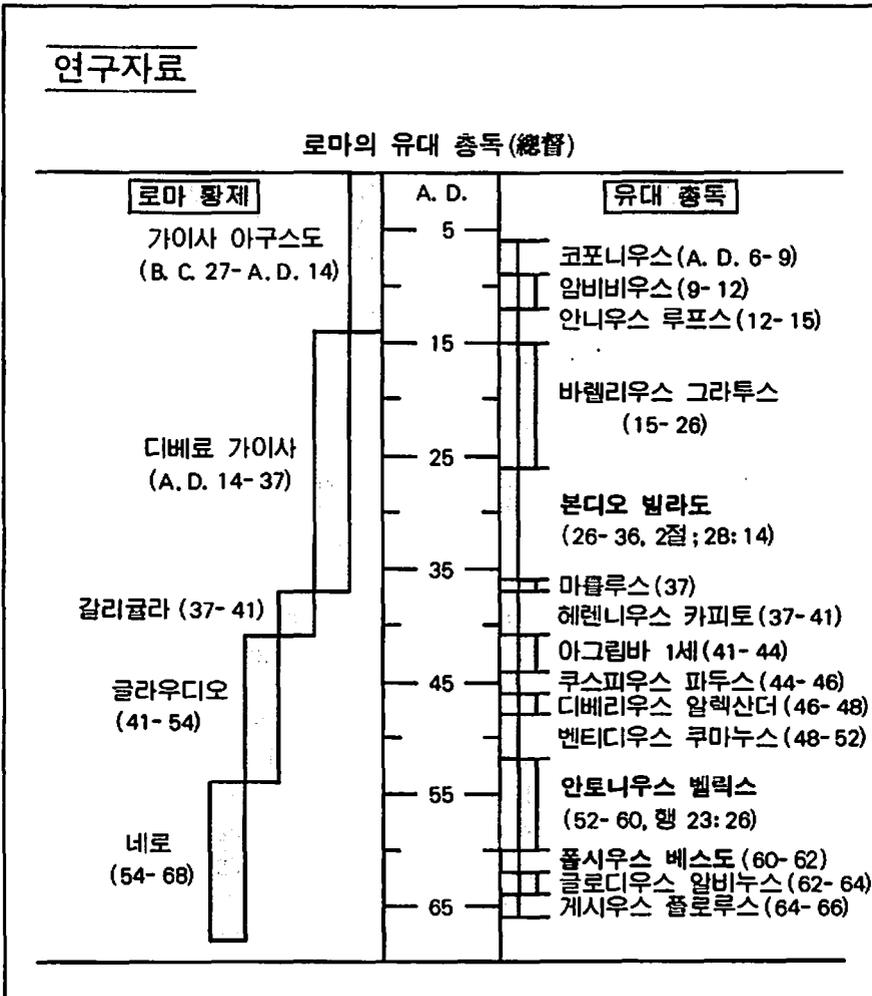
- ㉠ (1) 빌라도는 '너희에게 파수군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고 간단하게 명령했다.
- (2) 여기서 '파수군'에 해당하는 원어 <쿠스토디아>는 네 명으로 구성된 로마의 경비병을 가리키는 말이다(행 12:4).
- (3) 그러므로 빌라도의 말로 미루어 볼 때 유대인들이 빌라도 영내에 있었던 로마 군병 네 명을 차출받아서 예수의 무덤을 지키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51. ㉠ 돌을 인봉(印封)했다는 말은 무덤 문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가리키는가? (66절)

- ㉠ (1) 돌을 인봉했다는 것은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밧줄로 감은 후 준비된 진흙으로 바르는 조치를 말한다.
- (2) 이렇게 함으로써 밧줄이나 바른 진흙을 뜯어내지 않고서는 바위 문을 굴러 낼 수 없었다(참조, 단 6:17).
- (3) 결국 무덤 문을 인봉 조치한 것은 부활에 대한 어떠한 속임수나 음모의 가능성을 철저히 없애 버림으로써 예수의 부활의 진실성과 사실성을 입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4)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의 증거는 주님의 대적들이 꾸며 놓은 일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대적들은 본의 아니게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하여 너무나 애쓰고 수고하였다'(Chrysostom).

52. ㉠ 주의 대적들이 예수의 무덤을 굳게 한 사실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66절)

- Ⓐ (1) 주님의 대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없애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였으며 이제 마지막 발악으로 예수를 그의 무덤에 영원히 가두려고 했다.
- (2)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헛된 것으로 드러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표상이 되었다.
- (3) 사람들은 오늘날도 예수를 폭력의 감옥에 가두려 한다. A. D. 1 세기의 네로 당시부터 20 세기의 공산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제자들은 극심한 핍박과 잔인한 박해를 받아 왔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결코 간하지 않았고 핍박이 심할수록 더욱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했다.
- (4) 또한 사람들은 예수를 물질의 감옥에 가두려고 한다.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은 황금 만능주의로 기독교를 매수하여 몰락시키려 하나 예수의 사람들은 차라리 빈궁의 길을 택하여 자유함을 얻고 있다(참조, 고후 6:10).
- (5) 결국 이 끝고다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악을 행했으나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 주는 역사적 실증이다.



제 28 장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다

단락구분 1-7 천사가 전해 준 부활의 소식 / 8-10 예수를 만난 여인들 / 11-15 예수의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 / 16-20 제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Great Commission)

1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2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4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7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달음질한새

9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노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1 여자들이 갈제 파수군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12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14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6 열 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17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18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 ㉠ 예수의 부활 사건이 기독교인의 신앙에 있어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설명하라.

㉡ (1)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본장 및 막 16장, 눅 24장, 요 20, 21장 등 각 복음서의 대미(大尾)를 장식하는, 복음의 최종적 메시지이다.

(2) 또한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은 바울 서신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부활장'(復活章)으로 불리어지는 고전 15장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참조 롬 4:25; 6:9; 10:9; 엡 1:20; 살전 4:14; 딤후 2:8).

(3) 고전 15장에서 바울은 주님의 부활 사건이 지니는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파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전 15:17).

(4) 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에 있어 핵심이요 요체(要諦)라 할 수 없다. 만일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믿는다 해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할 자이다(롬 10:9, 10).

(5) 이제 기도하며 본장을 읽어 가는 독자들마다 이토록 중요한 부활의 메시지를 마태가 보여 주는 생생한 사건의 현장에서 친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2. ㉠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未明)’이란 언제를 가리키는가? (1절)

- ㉠ (1) 유대인의 독특한 시간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이 말들은 안식일 다음날, 즉 지금의 주일(主日)의 동틀 무렵을 가리킨다(막 16:1).
- (2) 보통 유대인들은 오후 6 시경 해가 짐과 동시에 하루가 끝나고 동시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 (3) 하지만 이러한 시간 관념이 엄격한 의미로 못박혀지지는 않았다. 유대인들은 낮을 하루의 단위로 간주하고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하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것으로 계산하기도 했다(Lange).
- (4) 본서의 저자 마태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주일이 시작될 무렵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라고 기록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볼 때 이때는 이미 주일로서 오전 6 시쯤 되었으리라 보여진다.

3. ㉠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지니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의 주일(主日, 일요일)을 가리키는 말로 신구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주일에 대한 표현이다.
- (2) 이 표현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역사상 최초의 주일을 가리키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서 대체된다는, 구속사의 대전환(大轉換)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매우 신성한 날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성취를 예고하는 날이기도 하였다(창 2:2,3).
- (4) 그런데 이제 주님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성취되었고 인류의 역사는 새 생명의 복음이 약동하는 새로운 국면에서 ‘세계 복음 시대’를 향해 힘찬 발전(發進)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맞을 때마다 본장에서 경험하게 될 가슴 벅찬 부활의 감격을 시동(始動)삼아 새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역동적인 생활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4. ㉠ ‘미명(未明)이란 말의 정확한 의미를 밝혀라(1절).

- ㉠ (1) ‘미명’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피포스코>는 ‘동터 오다’, ‘다가오다’를 뜻하는 말이다.
- (2) 그런데 다른 복음서의 평행 귀절들을 찾아 보면 ‘매우 일찌기 해 들은 때에’(막 16:2), ‘새벽에’(눅 24:1), ‘아직 어두울 때에’(요 20:1)로 되어 있다.
- (3) 이런 평행 귀절들을 종합해 볼 때 ‘미명’이란 말은 동이 트기는 텅지만 아직은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여명(黎明)의 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생각된다.
- (4) 이러한 때에 여인들이 무덤가에 도착했다면 그녀들이 집을 나설 때는 아직 캄캄한 밤이었음을 알 수 있다.
- (5) 캄캄한 밤에 죽은 자의 무덤을, 그것도 여인들의 몸으로서 찾아간다는 것은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각별한 것이었나를 보여 준다.
- (6) 이 여인들은 주께서 살아나신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을 찾아 나섰는데 주의 부활을 엄연한 사실로 믿고 있는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도 새벽 기도회나 새벽 경건의 시간 갖기를 어려워하는 것일까? 당신(나)의 경우부터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5. ㉠ 새벽 미명에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누구인가? (1절)

- ㉠ (1)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다른 마리아란 ‘야

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27:56, 61) 곧 글로바의 아내를 가리킨다(막 16:1; 요 19:25).

- (2)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여인들의 일행에는 위의 두 사람 뿐 아니라 예수의 이모인 살로메(막 16:1), 헤롯 안디바스의 청지기 구스의 아내인 요안나(눅 24:10) 등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아 최소한 네 명 이상의 여인이 무덤을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 (3) 이 여자들은 모두 주께서 못박하셨던 십자가에 최후까지 머물러 있었으며(27:56)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장사지낸 예수의 무덤에까지 따라갔었다(27:61).
- (4) 결국 예수와 최후까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예수를 못 잊어 새벽부터 무덤을 찾아왔고 부활하신 예수를 최초로 만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 (5) 가장 오랜 시간을 주와 함께 하는 자는 주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게 될 것이다. 주와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자여, 주와 함께 하는 경건의 시간(Q. T)을 좀더 확장하라.

6. **㉠**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가에 왔을 때 '큰 지진'이 발생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절)

- ㉠** (1) 성경에서 지진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역사하실 때에 수반되는 자연 현상으로(시 68:7, 8)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히 12:26).
- (2) 따라서 본문에 큰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큰 역사를 이루고 계셨음을 의미한다.
- (3) 이외에도 성경을 살펴보면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출 19:18),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27:50), 본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시 등- 지진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또 한 번 천지를 뒤흔드는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24:7).
- (4) 지진을 일으키시며 자연 현상을 모두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듯이 오늘도 살아 계셔서 생의 굴레 속에 갇혀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하신다(참조, 행 16:26).

7. **㉠** 주의 천사가 무덤의 돌을 굴러 낸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그 이유는 무덤 속에 있는 예수를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인들로 하여금 빈 무덤을 확인하게 하기 위함에 있었다.
- (2) 나사로의 경우에는 다시 살아난 그의 육체가 무덤을 나가게 하기 위하여 돌이 굴러졌으나(요 11:39, 41) 주의 경우에는 이미 부활하실 때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셨기 때문에 무덤 문을 열어 놓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요 20:19).
- (3) 이제 천사가 여인들로 하여금 빈 무덤을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 무덤 문을 열어 놓은 것은 이미 주께서 여인들이 찾아올 줄을 아시고 그들 맞을 준비를 하셨던 사실을 보여 준다.
- (4) 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 특히 새벽 기도회 등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이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 사실을 기억하고 격려를 받아야 한다.

8. **㉠** 주의 천사들은 어떤 형상을 하고 있었는가? (3절)

- ㉠** (1) 바퀴 모양의 돌 문을 굴러 내고 그것을 땅에 누인 후 그 위에 앉아 있었던 '주의 천사' 들은 '빈개 같은 형상'에 '눈같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
- (2) '빈개 같은 형상'이라 함은 그 몸체에서 매우 밝고 환한 광채가 나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며 '눈같이 흰 옷'은 의복의 깨끗함을 의미한다.
- (3) 특별히 이러한 묘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었는데(단 7:9; 10:6

막 9:3; 계 10:1) 천상의 존재가 지니는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 같다.

- (4) 한편 다른 복음서의 평행 귀절에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막 16:5),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눅 24:4), '흰 옷 입은 두 천사' 등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아 천사들의 형체는 사람 특히 청년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5) 이러한 천사들의 형상을 통해 우리는 성도들이 부활한 후 지니게 된 신령한 몸의 형상을 유추해 볼 수 있다(참조, 고전 15:35-49).

9. ㉠ 수직하던 자들은 천사의 형상을 보고 어떻게 되었는가? (4절)

- ㉠ (1) '수직(守直)하던 자들'이란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로마 군병들을 가리킨다(27:66).
- (2) 그들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로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대로마 제국의 군병들이었다.
- (3) 하지만 지진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형상을 한 천사가 나타나 놀라운 능력으로 육중한 무덤 문을 굴러 내는 역사가 일어나자 군병들은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기절하여 '죽은 자'와 같이 되어 버렸다.
- (4) 사도 요한도 부활의 주님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는데(계 1:17) 이러한 사실들은 영적인 능력 앞에서 육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며 허약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 (5) 우리 성도들은 연약한 육을 신뢰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 도움을 힘입을 수 있도록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후 10:3, 4; 갈 6:13; 엡 6:10-20; 빌 3:3).

10. ㉠ '너희는 무서워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격려를 받게 되는가? (5절)

- ㉠ (1) 천사는 영적 능력을 목격하고 두려움에 싸여 졸도한 로마 군병들처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여인들을 향해서 말했다.
- (2) 비록 벌어진 광경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이러한 광경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 (3)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예수의 사람들이었다. 온 땅을 지배하시는 주와 함께 하는 자는 설령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시 46:1-3).
- (4) 이것은 성도들에게 약속된 큰 특권이다. 세상의 왕된 자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벌벌 떨며 숨을 곳을 찾는 천재지변(天災之變) 중에서도라도 성도들은 주를 신뢰함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참조, 계 6:12-17).

11. ㉠ 천사는 여인들에 관하여 무엇을 안다고 했는가? (5절)

- ㉠ (1) 천사는 여인들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음을 안다고 말했다.
- (2) 이러한 천사의 말은 예수께서 못박히신 사실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즉 천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여 무덤까지 찾아왔던 여인들의 가룩한 정성을 칭찬하였던 것이다.
- (3) 이와 같이 참된 성도는 '비록'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히셨을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찾으며 또한 그가 십자가에 못박히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찾는다.

12. ㉠ 천사는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였는가? (6절)

- ㉠ (1) 천사는 예수가 장사되었던 무덤을 가리키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 (2) 과연 예수께서는 더 이상 '빈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주장한 것처럼(11-15절) 시체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생전에 수없이 예언하신 대로

(12:40;16:21;17:23;20:19)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 (3) 우리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24:23)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여기 계시지도' 혹은 '저기 계시지도' 않는다.
- (4)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을 때 그가 살아나셔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참조, 빌3:21).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보혜사 성령을 통해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요 14:16).

13. ㉠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한 천사의 말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6절)

- ㉠ (1) 예수의 누우셨던 곳, 즉 그의 빈 무덤 속을 보라고 한 천사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눈으로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셨던 사랑의 표적을 바라보도록 한다.
- (2) 사실상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누우실 필요가 없는 무덤 속에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워 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와지셨다(빌 2:6-11).
- (3)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워야 할 무덤을 생각할 때 먼저 주의 무덤을 바라봄으로써 두려움을 떨쳐 버릴 수 있다. 우리의 무덤 역시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의 부활로 인하여 빈 무덤이 되어 버릴 것이다(요 5:28,29).

14. ㉠ 천사는 여인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명령하였는가? (7절)

- ㉠ (1) '빨리 가서' 부활의 소식과 주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실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명령하였다.
- (2) 여인들은 주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처음 접하는 축복을 받았으며 동시에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도 부여받았던 것이다.
- (3)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로다' (왕하 7:9). 사마리아 성의 동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했던 엘리사 시대의 네 문둥이들처럼(왕하 7:3-10) 여인들은 지금은 세상 사람들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만 했다.
- (4) 이러한 사명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된 것으로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복음을 듣지 못해 죽음에 종 노릇하는 모든 인생들에게(히 2:15) 주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말과 생활과 인격을 통해서 증거하기에 늘 힘써야 할 것이다(딤후 4:2).

15. ㉠ 주께서 제자들과의 만남의 장소를 갈릴리로 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7절)

- ㉠ (1) 주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이미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만나실 장소를 갈릴리로 말씀하셨었는데(26:31) 본문에서 천사들은 그 말씀을 여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 (2) 그런데 갈릴리가 주께서 부활하신 장소인 예루살렘으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진 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만남의 장소로 선택되어진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 (3) 우선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고 또 주께서 공생애 동안 주로 사역하신 지역이 갈릴리였던 것도 하나의 이유는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갈릴리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지역이었던 것이(요 1:46;7:41)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 (4) 주께서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는 지역에서 비천한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으로써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원하셨던 것이다(고전 1:27; 참조, 행 10:37).
- (5)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만심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천하게 보이는 사람, 도구, 장소를 택하여 영광을 받으신다'(I. Williams).

16. ㉠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는 말은 여인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가? (8절)

- ㉠ (1) 여인들은 같은 시각, 같은 마음에 무서움과 기쁨이라는 혼합된 감정을 가지고 무덤을 떠나게 되었다.
- (2) 그들의 무서움은 지진, 천사의 역사(役事) 등 초자연적인 사건을 목격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2절) 그들의 기쁨은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엄청난 소식으로부터 말미암

암은 것이었다.

- (3) 여기서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가지는 독특한 심리 상태를 보게 된다. 즉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의 위엄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그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시 2:11).

17. ㉠ 여인들이 무덤을 '빨리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 (8절)

- ㉠ (1) '빨리 가라'고 한 천사들의 명령에 따라(7절) 그들은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자 했다.
- (2)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심리 상태, 즉 '무서움과 기쁨'은 그들의 발걸음을 더욱 민첩하게 했을 것이다.
- (3)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는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에 머뭇머뭇거리거나 지체해서는 안 된다. 좋은 소식으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자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 소식을 전하는 일을 신속히 행해야 한다.

18. ㉠ '평안하노'라는 주의 인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9절)

- ㉠ (1) '평안하노'의 헬라이어(카이레테)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말로 문자적 의미로는 '기뻐하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이다.
- (2) 당시 주님을 만난 여인들은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마음 상태에 있었는데(8절) 주께서는 이러한 인사말로 그들의 기쁜 마음을 고무시키려고 하셨다.
- (3) 이런 의미에서 이 인사말은 일찌기 주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근심하게 될 것이나 곧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요 16:20)고 예언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 (4)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근심과 기쁨으로 교차되게 하는 역설적(逆說的) 양대 사건이다.
- (5) 주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생활 속에는 언제든지 그 십자가로 인한 근심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나 결국에는 그 근심마저도 기쁨이 되고야마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役事)가 이루어진다.

19. ㉠ 여인들이 주의 발을 붙잡고 경배한 것은 주께 대하여 어떤 마음을 나타낸 행동이었는가? (9절)

- ㉠ (1) 이러한 행동은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신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요 20:17) 그러한 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주체할 수 없었던 감격과 반가움의 반사적 표현이었다.
- (2) 특별히 '주의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주께 대하여 품고 있었던 존경심의 최대 표현이었고(왕하 4:27) '경배', 즉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이며 동시에 겸손의 표현이었다(참조, 8:2).
- (3) 과연 우리는 주께 대하여 이런 심정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는가? 만일 지금 우리가 재림 하신 주를 만나게 된다면 여인들과 같은 행동이 반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20. ㉠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경배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하셨는가? (10절)

- ㉠ (1) 예수께서는 조금 전에 천사들이 말한 메시지를(5-7절) 두 가지 요점으로 간추려서 말씀하셨으니 결국 천사들의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하신 셈이다.
- (2) 그는 먼저 '무서워 말라'고 하셨다. 천사도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서워 말라'고 강조하여 말한 바 있지만(5절) 예수께서는 여인들의 마음에 여전히 '무서움'이 남아 있음을 아시고(8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려고 하셨던 것이다(참조, 요 14:27).

- (3) 그리고 그는 제자들과의 '갈릴리 재회'를 다시 한번 확약(確約)하셨다. 주께서는 이처럼 사랑하는 자들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그것을 재촉하셨던 것이다.
- (4) 오늘날도 주께서는 새로운 말씀을 하려 하시지 않는다. 오직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쓰여진 성경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실 뿐이다.

21. ㉠ 주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 부르신 사실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10절)

- ㉠ (1)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셨다.
- (2) 이전에 그는 제자들을 '친구'라고까지는 불러 주신 적이 있다(요 15:14, 15).
 - (3) 하지만 이제 그는 한때 자기를 버리고 도망했던 그의 제자들을(26:56) 아예 한 혈육으로 생각하시고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결속되었다는 의미로 이 파격적인 호칭을 사용하셨던 것이다.
 - (4) 실로 그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자녀 중에 맏아들이 되셨으며(골 8:29; 히 1:6) 또 성도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히 2:11).
 - (5) 주께서는 지금도 이처럼 친근감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형제라 불러 주신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무시하고 주 앞에 거리감을 두거나 그분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22. ㉠ 11-15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허위로 조작하려는 유대인들의 술수가 폭로되어 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나타난 부활에 관한 대표적인 이설(異說)을 열거해 보라.

- ㉠ (1) 기독교 역사상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주의 부활에 대하여 갖가지 이설을 주장했는데 그 대표적인 견해들은 도적설, 기절설, 주관적 환상설, 객관적 환상설 등으로 볼 수 있다.
- (2) ① 도적설 : 부활 사건을 전후하여 발생된 이설로(11-15절; 27:62-64) 본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미 많은 유대인들에게 유포되어졌다(15절). 이 견해의 요점은 예수의 제자들이 스승의 시체를 도적질해 간 후 '부활했다'라고 선전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선 논리적인 면에서부터 모순을 면치 못하는 그릇된 견해이다(참조, ㉠ 26).
 - ② 기절설 :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절명(絶命)하시지 않고 가사(假死) 상태에 있었던 것을 죽은 줄 알고 장사지냈는데 얼마 후 무덤 속에서 깨어난 예수께서 스스로를 '부활한 것처럼' 가장했다는 이설이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로마 군병이 창으로 시체의 옆구리를 찔러 확인한 사실로도 입증되는 완전한 죽음이었다(요 19:33, 34).
 - ③ 주관적 환상설 : 이 이론에 의하면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을 너무나 간절히 그리워한 나머지 예수의 환상을 보고 그와 이야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환각은 의학적으로 볼 때 전혀 불가능하다. 5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동시 환각 상태에 빠질 수 있겠는가? (고전 15:6) 또 처음에는 제자들 중에 주님의 부활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을 어떻게 환각 상태에 빠진 자라고 할 수 있는가? (17절; 막 16:8, 11, 14; 눅 24:11, 37; 요 20:24, 25).
 - ④ 객관적 환상설 : 영혼 불멸설에 근거를 둔 이 견해는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불멸의 영으로서 제자들에게 객관적이긴 하지만 비물질적인 환상을 보여 주셨다고 주장한다(P. Tillich).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죽은 자의 영혼이 생존 세계와 교통할 수 없다고 보는 성경 자체에 어긋난 비기독교적 가설에 불과하다(참조, 눅 16:19-31).
- (3) 이상에 열거된 부활의 이설들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복음은 수많은 진실된 성도의 믿음과 양심에 의해서 수호되어 왔다. 기독교 정신은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차라리 사

실이 아닌 대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정신이다. 바로 이러한 정신에 의하여 파수되어 왔기에 주의 부활은 철저히 믿을 수 있는 '사실'인 것이다.

23. ㉠ 예수의 부활 소식은 어떤 경로를 통해 대제사장들에게까지 전해졌는가? (11절)

- ㉠ (1) 예수의 부활 소식은 여인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졌을 뿐 아니라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무덤을 지키던 파수군들을 통해 대제사장들에게 '부끄러워할 소식'으로 전해졌다.
- (2) 이처럼 부활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뿐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 그리스도의 대적자에게까지 널리 전파되어진다.
- (3) 이렇게 전파되어진 부활의 소식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구원받는 자나 버림 받는 자나 두 부류로 구분되어진다(눅 10:9, 10).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와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고후 2:16).

24. ㉠ 부활의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12절)

- ㉠ (1) 그들은 자기들이 고용한 파수군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는 엄청난 소식을 들었다.
- (2) 이때 그 놀라운 소식으로 인해 회개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법도 하였겠으나 그들은 오히려 그 엄연한 사실을 돈을 통해 왜곡시켜 자신들의 수치감을 은폐하려는 데에 급급했다.
- (3) 여기에 그들의 사악성과 교활성 그리고 악한 영의 화인(火印)을 맞아 마비되어 버린 양심이 드러난다(딤펴 4:2). 그들은 철저히 진리의 반대편이었으며 하나님의 대적임을 스스로 입증해 보인 셈이다.
- (4) 우리 세대에도 이런 자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기 보다는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면 은폐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면서 또 하나의 죄를 추가시킨다.

25. ㉠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12절)

- ㉠ (1)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그들은 부활의 목격자들인 로마 군병들에게 뇌물로 매수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다. 본문에는 '돈을 많이 주었다'는 말로 뇌물 수수의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 (2) 그들이 뇌물로 사용한 돈은 로마 군병 12명 내지 72명에 주어지기 위해서 엄청난 액수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로마 경비병은 4명이 1개 조로 3시간 마다 교대하였으므로 3일간 그들의 연인원은 72명에 이르렀던 것이다.
- (3) 아마 이 패역한 종교 지도자들은 틀림없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평소에는 매우 인색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복음과 진리를 대항하는 마당에서 그들은 엄청난 돈을 아낌없이 지출했다.
- (4) 이 어이없는 종교인들의 모순된 가치관을 보라. 사실상 돈이란 것은 올바른 일에 인색할 경우 언제나 불의한 일로 흥청망청 사용되어 타락한 자로 하여금 더욱 타락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26. ㉠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군병들에게 사주(使囑)한 거짓말이 지닌 모순을 말하라(13절).

- ㉠ (1) 예수의 부활에 대해 '그(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로마 군병들)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라고 한 거짓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순성을 면치 못한다.
- (2) 우선 로마의 군병들이 경비의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잠을 잤다고 하는 것은 로마 군병에 그와 같은 경비 임무의 실책이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자연스럽지 못하다(행 12:19;16:27, 28).

- (3) 다음으로 큰 돌을 굴러 내고 시체를 옮기는 일은 여러 사람이 오랜 시간을 소비하면서 해야 할 정도의 일이었는데 그 시간 내내 모든 경비병들이 잠을 잤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 (4) 한편 그들의 주장대로 모든 경비병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라면 시체를 가져간 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지목하여 시체를 가져간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가 당착(自家撞着)의 모순성을 면치 못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 (5) 이처럼 술한 모순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주장이 당시 일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전파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극심했던 종교적, 사회적 부패상을 보여 주는 것인 동시에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거짓된 본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렘 17:9).
- (6) 이러한 인간의 거짓된 본성을 토타 오늘날도 사단은 온갖 모순된 사상과 주장들을 퍼뜨리며 기독교의 진리를 혼돈시키려 하고 있다(딤후 2:16-18;3:6-8). 이런 관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케 하는 진화론이나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려는 문서설 같은 사상들은 마땅히 비판되어야 할 것이다.

27. ㉠ 공회원들이 총독에게 권하여 파수군들로 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14절)

- ㉠ (1) 첫째, 당시 공회원들과 총독이 매우 밀접히 내통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불의의 함법화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 말하자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리고 공무원(군병들)이 결탁되어서 완벽한 사기극을 연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 (3) 하지만 이처럼 치밀하게 구축된 연합 전선도 예수의 부활이라는 엄연한 사실과 하나님의 능력의 거센 영풍(靈風) 앞에서 맥없이 끊어지는 한 오라기 거미줄이 될 수밖에 없었다.
- (4) 이것이 바로 진리와 비진리, 사실과 거짓말의 승부(勝負)이다. 악한 자들이 제아무리 인간적인 조직과 무력으로 연합해서 도전해 온다 하더라도 성도는 사실에 대한 정직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시 2:6; 롬 8:37-39; 고전 15:57; 요일 5:4).

28. ㉠ 부활에 관해 조작된 거짓 소문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15절)

- ㉠ (1) 거짓 소문은 곧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 일종의 담화문 형식으로 작성되어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포되었다.
- (2) 그 결과 소문은 마태가 본서를 저술하던 A. D. 50-70년경(‘오늘날까지’) 유대인들에게 ‘두루 퍼지게’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못지않게 하나의 일반적인 통설(通說)이 되어 있었다.
- (3) 이 거짓된 주장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의 역사와 함께 계속 진수되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도적설’이란 부활의 이설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
- (4) 참으로 거짓말의 해악성이 소름끼치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거짓말이 한 번 행해졌을 때 그 거짓말이 얼마나 널리 퍼지며, 얼마나 오래 지속되며, 얼마나 큰 해를 끼치게 될런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진실이 신발 끈을 매는 동안 거짓말은 지구를 한 바퀴 돈다’(Mark Twain).

29. ㉠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진 장소는 어디인가? (16절)

- ㉠ (1) 그곳은 갈릴리에 위치한 어느 산이었다. 본문에 ‘예수의 명하시던 산’이라고 표기된 것을 보아 이미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산임이 분명하나(7절; 26:32) 그 산의 이름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삿4:6).
- (2) 학자들은 그곳을 갈릴리 지방의 유명한 산들인 다불 산 변화산(17:1, 2) 또는 팔복산(5:1) 등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어느 산인지 확실치 않다.
- (3) 아물든 부활하신 주께서는 약속하셨던 장소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지상 명령’(至上命令, the Great Commission)을 수행할 천국 대사(大使)가 되게 하셨다.
- (4)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7, 10절) 예루살렘에서 100 km 이상 떨어진 갈릴리까지 가서 주를 만남으로써 지상 명령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이다.
- (5) 지금 이 시대에도 주께서는 천국 대사를 모집하고 계시며 순종하는 자에게 사도들이 받았던 것과 동일한 지상 명령의 특권과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다. 우리는 지금 본문 말씀(16-20절)을 통하여 천국 대사가 되는 역사적인 위임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이다.

30. ㉠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는 자 중에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7절)

- ㉠ (1) 의심하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열 한 제자 중 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 (2) 사실상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천지가 개벽(開闢)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보고 경배하면서도 ‘이 분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바로 그 예수인가?’라는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것이다.
- (3) 우리 역시 이러한 의심을 갖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간은 믿고 싶어도 마음대로 믿을 수조차 없는 심히도 무능력한 존재이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다(엡2:8).
- (4) 주께서는 ‘오히려 의심하는 자’까지라도 확고한 신앙의 소유자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나중에 열 한 제자는 확고한 신앙으로 부활의 주님을 열렬히 증거하게 되었다. 이제 18-20절에 이어지는 ‘지상 명령’을 귀 기울여 들으라. 그러면 당신에게 있는 의심이 견고하고 사망자로서의 확고한 믿음이 생성될 것이다(참조, 롬10:17).

31. ㉠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권세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신가? (18절)

- ㉠ (1)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온 우주의 대권(大權)을 위임받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다(11:27; 요3:35; 13:3; 17:2; 고전15:27; 엡1:20-22; 빌2:9, 10; 골2:10; 행전3:22; 계17:14).
- (2) 여기서 ‘권세’(행, 엑수시아)란 권능 다시 말해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3) 본서 전체는 바로 이 예수의 권능을 강조하고 있다. ① 그의 가르침에는 권능이 있었다(7:29). ② 그는 병 고침에도 권능을 행사하셨다(8:1-13). ③ 또한 그는 죄인을 용서하며 권능을 가지고 주셨다(9:6). ④ 마지막으로 그는 원하는 자에게 권능을 부여하시는 권능마저도 소유하고 계셨다(10:1). ⑤ 이제 본서 마지막에서 예수는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선언되고 있다(18절).
- (4)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능을 소유하신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의 모든 명령에 가까이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이든지, 우리가 만나는 환경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 모든 곳은 우리 주의 통치 영역 내에 있다.

32. ㉠ 주의 지상 명령이 지니는 4대 강령을 설명해 보라(19, 20절).

- ㉠ (1) 지상 명령의 4대 강령은 ① 가라(19절), ② 제자를 삼으라(19절), ③ 세례를 주라(19절), ④ 가르치라(20절)이다.

- (2) ① ‘가라’ (Go) : 이것은 성도가 사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명령이다. 성도들이 처한 가정, 학교, 직장, 교회당, 선교지 등은 모두 천국 대사의 부임지가 된다. 가정 (학교, 직장, 교회, 선교지) 으로 ‘가라!’ 결코 머뭇거리거나 소극적·도피적인 생활을 하지 말라.
- ② ‘제자를 삼으라’ (Make disciples) : 복음을 전하여 죽어 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명령이다. 피전도자에게 대하여 전도자는 영적 부모요 스승이 된다(고전 4:15). 전도의 대상은 ‘모든 족속’-모든 인종,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다. 각자 처한 생활의 입장에서 말과 행동과 인격과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 ③ ‘세례를 주라’ (Baptize) : 외형적인 면에서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라는 뜻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께서 피로 세우신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소속되어 학습, 세례, 임직(任職)을 받아야 한다(참조, 행 20:27). 이 외형적인 교회 제도를 무시하는 무교회주의(無教會主義)는 성경적이 아니다. 교회의 모든 신앙적 의식과 사업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3위 1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목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지켜져야 할 하나님 중심 주의를 말한다.
- ④ ‘가르치라’ (Teach) : ③의 명령이 외형적인 신앙 목표를 말한다면 이 명령은 내면적인 신앙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즉 복음을 듣고 교회의 일원이 된 초신자는 구원 받은 데서 그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엡 4:13-15) 그 신앙 인격이 성숙해야만 한다. 이 신앙 인격의 성숙은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 즉 그의 말씀을 배우고 ‘지킴으로써’, 즉 주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계 1:3).

(3) 이러한 지상 명령의 4 대 강령은 성도들의 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된다. 이러한 원리가 보다 강력하게 실천될 때 그만큼 이 시대 교회들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는 앞당겨 이루어질 것이다(참조, 행 1:8).

33. Q 예수께서는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증해 주셨는가? (20b절)

- A (1) 예수께서는 지상 명령을 받은 제자들을 향하여 ‘불지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임마누엘(Immanuel, 1:23)의 축복을 보증해 주셨다.
- (2)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 성도들에게 내려 보내 주실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질 축복을 가리키고 있다(요 14:16, 17).
- (3)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란 말은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재림하셔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종결시키실 때까지 주권적인 은총과 섭리로써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다.
- (4) 또 ‘항상’ (헨, 파사스 타스 헤메라스)은 문자적으로 ‘매일’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이나 평일이나, 좋은 날이나 궂은 날이나, 겨울 날이나 여름 날이나 언제든지 성도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가리킨다. 주님께서는 어느 한 날, 한 시 동안에도 결코 그의 교회와 일군들을 떠나시지 않으실 것이다.
- (5) 마지막으로 ‘너희’라는 말은 당시 11제자 뿐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제자된 모든 자들, 즉 역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당신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 (6) 영국의 대설교가 캠벨 모간(G. Cambell Morgan)이 개심(改心) 초기 연상의 여성들에게 성경을 읽어 주는 봉사를 하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감격적인 말씀을 읽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지요?’ 이 말을 들은 한 아주머니가 재빨리 대답했다. ‘젊은이,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사실이예요!’.